

21c 새로운 수필 담론의 산실

The Essay Time

수필시대

隨筆時代

2006년 5·6월 08



글쓰는 사람들이 꿈꾸는 세상

성 기 조(발행결 편집인) skj907@chol.com



우리나라에는 8천 명이나 되는 글쓰는 사람들이 있다. 입 뜯 사람들은 글쓰는 사람이 너무 많다고 하는 이도 있고, 그게 뭐 많으냐고 통명스럽게 되받는 사람도 있다.

생각해보면 많기는 많다. 내가 펜클럽에 처음 가입한 때가 1961년, 그때만 해도 정회원이 1백5십 명 내외였는데 말이다. 이렇게 따져보면 많은 것이다. 약 40년 만에 7천 8백여 명이 늘었으니 말이다.

우리나라의 공무원 수는 6십여 만 명, 인구 4천 5백만 명에 비하면 국민 75 명당 공무원이 한명 꼴인 셈이다. 이들의 월급을 국민이 부담한다고 생각할 때 이것이야말로 너무 많은 게 아니냐고 할 만하다. 이렇게 따지면 문인은 인구 약 5천 6백 명당 한 사람 꼴이니 많은 게 아니란 사람도 있다. 그나마 글쓰는 이들이 이만큼 되기 때문에 우리 사회가 폭력과 사기 등 사회악이 줄어들어 있다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다.

다 옳은 말이다. 그런데 글쓰는 사람들이 살아가기 힘들다고 모두 비명을 지르고 있다. 글만 써서 살아갈 수 없으니까 다른 직업을 갖게 되고, 그 직업에 충실하려니까 글 쓸 시간이 없다는 것이다. 글쓰는 사람들은 글만 써서 먹고 살아야 할 터인데 글로 먹고 사는 전업작가는 몇 사람이 안 된다.

그래서 모든 문인들은 하나의 꿈을 가지고 있다. 글만 써서 먹고 살 수 있

는 세상이 와야 한다는 소박한 꿈이다.

1년에 두어 권의 책을 출간하면 인세를 받아 살 수 있는 그런 세상이 언제 올 것인가 목을 길게 빼고 그날이 오기만을 기다린다. 한 달에 한두 번 식구들과 외식을 하고 연극이나 영화도 한번 쯤 보는 세상, 저녁 때 산보를 나갔다가 책방에 들러 두서너 권의 책을 사가지고 돌아와 읽어서 재충전의 기회를 삼을 수 있는 사회가 언제 올까 기다려 본다. 그야말로 소박한 꿈이다.

그 뿐인가 글쓰는 이들이 독자들에게 존경을 받고 출판하는 책의 초판본이 1만부 쯤 팔리는 세상이 된다면 지하철에서는 공짜신문이 사라지고 저속한 주간지가 없어지리라고 생각한다. 공원이나 교외를 산책하면서도 책을 들고 나가는 세상이라면 글쓰는 이들과 독자들의 소통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 국민들의 생각은 올바르게 될 것이고, 행동은 당당해지며 뜻있는 일이 여기저기에서 벌어질 것이란 생각이다.

세상이 어지럽고 먹고 살기 어려우니까 온갖 잡생각에 몰들어 써내는 글은 옳은 주장이 하나도 없고 권세있는 사람, 돈있는 사람에게 빌붙어 눈치보기 바쁜 세상이라면 그게 어찌 살기 좋은 세상인가?

배가 고파도 정신을 차리고 굶주려도 기가 죽지 않는 선비들이 성리학의 깃발을 들고 조선 5백 년을 지탱해 왔다. 아무리 어지러운 세상일망정 글쓰는 이들이 바른 마음을 가지고 옳은 말만 한다면 세상은 분명 달라진다. 이치가 이런데도 글쓰는 이들이 입다물고 앉아서 세상을 쳐다보는 버릇을 못 버린다면 우리들이 지향하는 세상, 우리들이 당당하게 살 수 있는 세상은 결코 오지 않는다. 근면과 정성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이 많아야 나라가 건강해지듯 글쓰는 이들의 마음가짐이 분명하고 정직해야 나라의 규범이 선다.

홀륭한 나라, 살기 좋은 세상을 만드는 게 결코 꿈이 아니다. 8천 명의 문인들이 써내는 글이 모두 옳고 바르게 쓰고 그들의 생각이 모두 清新淸新 하고 정직하다면 우리가 꿈꾸는 세상은 바로 눈앞에 다가 올 것이다. **수필시대**

되돌아보아야 할 마음 자세

김 병 권

bkkkim31@hanmail.net



사람이 갖추어야 할 품성 가운데 성실성만큼 중요시되는 덕목은 없다.

어떤 단체나 조직의 분위기가 성실성으로 가득 차 있으면 모든 구성원은 자신이 속한 조직에 대하여 남다른 신뢰와 자부심을 갖게 된다. 그러나 성실성이 없는 조직 풍토에서는 각기 자신의 이득만 챙기기에 혈안이 될 것이니, 거기서는 아예 신뢰나 자부심이나 안정감 따위는 기대할 수 없게 된다. 그래서 성실은 우리 인간 사회에서 통용되는 가장 확실한 보증수표라고 하는지도 모르겠다.

그런데 요즘 우리 사회에는 성실한 사람 찾기가 하늘의 별따기보다 어렵다고 하지 않는가. 도처에서 불거져 나오는 대소 사건들의 공통적 원인은 거의가 불성실한 인간성에 기인하고 있다니 말이다. 그 옛날 대낮에 촛불을 들고 ‘義人의인찾기’에 나섰다던 디오게네스의 일화가 새삼스럽게 떠오른다. 인간성 회복을 일의적인 사명으로 삼고 있는 문인들마저 그 알팍한 이해득실 따위



한국문인협회 수필분과 회장 역임
숙명여대 강사 역임
국제펜클럽 한국본부 이사
수필집 『속아주는 멋』 외
한국문학상 수상 외

에 얽매어 이합집산을 다반사로 하고 있는 작금의 현실이 안타깝다.

의리나 지조를 손바닥 뒤집듯이 하는 정치마당에서도 ‘평생동지’라는 말을 곧잘 하고 있는데, 하물며 지사적 필봉을 유일한 증지로 삼고 있는 우리 문단에서 그 정치집단의 생리를 그대로 닮아간다면 어떻게 되겠는가. 굳이 조지훈의 지조론을 들먹이지 않더라도 지조는 선비의 것이요, 교양인의 것임을 굳게 믿어온 우리가 아니던가.

성실한 사람은 정직과 신의를 신조로 삼는다. 남을 이용하기 위해 위세를 부리거나 가식하는 일도 없다. 누가 뭐라고 하던 자기에게 부여된 역할만을 묵묵히 수행할 뿐이다. 우리가 자신의 건강증진을 위해 땀 흘려 운동을 하는 것처럼 성공적인 인생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먼저 성실한 마음자세를 가꾸어나가야 할 것이다.

일찍이 중국의 대학자였던 사마은 공은 마지막 죽을 때 제자들에게 정성 誠성자 하나만을 유언으로 남겼다고 한다. 즉 학문이나 사업이나 그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성실하게만 하면 이루지 못할 일이 없다는 것을 강조한 말이다.

또 공자의 수제자였던 증자도 매일매일 세 번씩 반성하라는 뜻의 一日三省 일일삼성을 가르쳤는데, 이것 역시 모두 誠字성자를 주제로 삼고 있음은 매우 의미심장한 일이다. 그가 제시한 첫째의 반성은, ‘내가 남의 일을 맡아서 수행했을 때 과연 誠實성실하게 했는가’ 이고, 둘째 반성은, ‘친구를 사귄데 있어서 誠心성심을 다했는가’ 이며, 셋째 반성은 ‘스승으로부터 배운 학문을 誠意성의를 다해 익혔는가’ 라고 하였다. 그러니 이 성실이야말로 미덕 중의 미덕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우리 조선조의 대학자였던 퇴계 선생의 경우도 이 성실성에 얽힌 많은 일화를 남겼다. 그는 오로지 자기 학문에 성실하기 위하여 여러 차례에 걸친 임금의 출사명령도 고사했다. 성균관 교리와 대사성, 부제학과 공조참관의 벼슬마저 사양한 그는 고향인 안동에 내려가 후학양성에만 전념했으니, 그것이 곧 우리 민족의 정신적 사표로 우뚝 서게 된 계기가 되었던 것이다. 오늘날 출세영달을 위해 온갖 추태를 연출하고 있는 세태에 비추어보면 이 얼마나 감동적인 훈고인가.

얼마 전의 일이었다. 시내를 걷다가 길모퉁이에 있는 구둣방에 들러 구두를 닦은 일이 있다. 온 손에 시커먼 구두약을 묻힌 젊은이는 뭐가 그리도 신이 나는지 연신 싱글벙글하며 구두를 닦고 있었다. “오늘 무슨 좋은 일이 있는 모양이죠?” 라고 물었더니 전혀 뜻밖의 대답을 하는 것이었다.

‘저는 얼마 전까지만 해도 꽤 좋은 회사의 사원이었습니다. 구조조정 때문에 실직한 후로는 모든 욕심을 버리고 오직 생계안정만을 위해 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다행히 아들 녀석이 공부를 잘해 희망을 걸고 있는데, 그 녀석이 좋은 대학에만 들어가 준다면 이런 고생쯤은 아무것도 아니지요.’

이렇게 거침없이 말하는 그는 사실 남의 구두를 닦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희망을 닦고 있었던 것이다. 이 어찌 성실한 생활자세의 본보기라 하지 않겠는가.

지금 우리 사회에는 땀 흘리는 노력 없이 손쉽게 사는 방법만을 찾아다니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은 것 같다. 얇은 껍, 이기적 지혜만을 좇는 사람들이 많은 것이다. 돈을 버는 일이라면 부모와 자식까지도 서슴없이 살해하는 패륜적 범죄행위도 다반사가 되어버렸으니 이 얼마나 통탄할 일인가.

세상에는 지혜가 모자라서 실패하는 사람보다 성실하지 못해서 실패하는 사람이 더 많으니, 우리는 마땅히 지혜보다는 성실 쪽을 택해야 하지 않을까... ‘성실하면 없던 지혜도 새로 생기지만, 성실하지 못하면 있던 지혜마저 달아나 버리고 만다.’ 는 선현들의 가르침을 새삼스럽게 곱씹어본다. **수필시대**

아침 뼈꾸기

성기조 시집
문예운동 / 값10,000원

캠프에는 불빛이
있을 듯

김애자

kim8578712@hanmail.net

겨울이 오면 내가 몸담고 있는 문학 캠프에는 불빛이 밝습니다. 낙엽 굴러가는 소리와 마른 숲 사이로 내리는 보랏빛 일몰과, 먼 산정에서부터 들녘에 이르기까지 자욱하게 감싸안는 눈발만으로도 나의 캠프에는 불빛이 밝을 수밖에 없습니다. 서가에서 백석의 시집을 뽑아들고 밤늦도록 책장을 넘기는 것, 가끔 시인을 따라 북방의 겨울 풍경 속으로 들어가는 것도 불빛이 밝은 때문입니다.

백석 시인이 살던 평안도 산골 집은 대들보도 기둥도 문살도 자작나무로 되어 있다고 시인은 말합니다. 밤이면 여우가 캥캥 우는 산도 자작나무뿐이었다는군요. 자작나무만 있는 산골에 눈이 폭폭 쌓이면 시인은 사랑하는 나타사와 흰 당나귀를 타고 마가리로 가고 싶어했습니다. 시인이 깊은 산골로 들어가는 것은 세상한테 지는 것이 아니고 세상 같은 건 더러워서 버리는 것이었습니다. 나는 시인처럼 세상이 더러워 버리고 온 것도 아닌데, 낙엽송이 빼곡하게



충북 충주출생. 1991년 수필문학 등단
한국문인협회 회원, 충북수필문학 충북여성문협,
충주문협회원, 수필문학진흥회 이사
저서 : 『달의 序曲』, 『숨은 축』, 『미원의 집』
공저 『한국의 명수필』 2005년 을유문고

들어선 뒷산에서 밤이면 부엉이가 울어 대고, 어린 짐승들이 먹이를 찾아 내려왔다가 눈 위에 꽃잎 같은 발자국만 남기고 가는 것이 무한정 좋습니다. 서럽도록 좋습니다. 나무와 나무끼리 어깨동무하고 같은 뜻으로 모여 선 것도 눈물나게 좋습니다. 그래서 나의 문학 캠프에는 불이 밝은 것입니다. 제가 글을 잘 써서가 아니라 이런 것들이 모여 불을 밝혀 주기 때문입니다.

산 밖에선 한해가 저문다고 친구들끼리 술자리를 마련하고 술잔을 눈썹 아래까지 들어 건배를 할 것입니다. 한 해 동안 스쳐간 시간들을 아쉬워하면서 술잔에 아쉬움을 풀어 눈이 썩하도록 술을 퍼 마실 것입니다. 그러곤 '갈지'자로 발을 떼어놓으며 왜 세상이 이 모양 이 꼴로 돌아가느냐고 자조 섞인 푸념을 늘어놓을 것입니다. 아무리 최선을 다했어도 지나고 나면 뼈아픈 회한만 남게 마련이기 때문입니다. 그래 공연히 세상을 타하며 여운만 남은 시절을 그리워하게 되는 것입니다.

피난처 같이 외진 산마을엔 해만 지면 인적이 끊기지요. 묵은해가 가고 새해가 오는 것과는 무관합니다. 산골 사람들은 시간이 가면 해가 바뀌는 것은 당연한 이치로 여깁니다. 평생 동안 인생관이니 삶의 가치관이니 하는 어려운 말 한 마디 쓰지 않고도 인간이 지켜야 할 본분과 인간의 도리를 알아서 지킵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만약 니체처럼 임신부를 보고 “저 뱃속에는 죽음이 깃들어 있다.”고 말한다면 그 무슨 입방정을 떨어 대느냐고 몽둥이찜질을 당하기 십중팔구일 것입니다.

여기선 사람이 태어나고 자라고, 그리고 가고 오는 것 모두가 자연의 섭리로 칩니다. 섭리에 대한 믿음은 종교를 뛰어 넘지요. 봄이 와 산나물을 뜯을 때에도 절대로 나무의 상순을 꺾지 않습니다. 상순을 치는 일은 자식의 앞길을 막는 것으로 여겨왔기 때문입니다. 가차 없이 상순을 치고, 몸에 좋다는 목초라면 뿌리까지 캐 가는 짓은 얼굴에 철판을 간 사람들이나 하는 행위입니다. 자연의 섭리를 무시하고 돌아오는 봄도 기약하지 않고 온 산을 들쭉시고 돌아다니는 이들을 볼 적마다 찬물받이 수랫골 노인들은 혀를 끌끌 차며 이렇게 말하지요.

“불쌍한 종자들 또 왔고만! 을매나 살겠다고 저 짓거리를 하는가.”

나무의 상순에서도 자식의 앞길을 믿는 이들에게서 아메리칸 인디언들의 사고와 삶의 방식을 봅니다. “필요한 만큼만 갖는 것, 그것이 자연의 이치”라니 얼마나 근사합니까.

때문에 자연의 이치에 여타의 의구심도 품지 않는 이들에게 어쭙잖은 지식의 잣대로 사물을 판단하려고 하면 오히려 꼴불견이 되고 맙니다. 아무리 열심히 일하고 성실하게 살아도 가난을 면치 못한다거나, 몹쓸 병에 걸려도 그 건 제가 타고난 팔자소관으로 돌려버립니다. 팔자소관이라는 말에는 타고난 分福분복이란 말과도 상통하지요. 인간의 힘으로는 어찌해 볼 수 없는 분복, 그 불가항력 앞에 지고 온 삶을 조용히 내려놓습니다. 운명에 순응하고 가장 낮은 자리로 내려오면 되려 속내가 편안해지니까요. 그 편안함이 때로는 더 멀리 뛰기 위한 호흡 고르기일 수도 있고, 다음 장면을 위한 暗轉암전의 시간일 수도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죽음 따위를 논한다는 것, 니체처럼 임산부의 ‘뱃속에 죽음이 깃들어 있다’는 입방정은 지식인들의 오만에 불과할 따름입니다.

어느덧 삼경이 가깝습니다. 오늘도 나 혼자만의 밤이 깊어가고 있습니다. 아니 밤이 내게 일박하기를 청합니다. 별과 백석 시인과 나타샤와 흰 당나귀까지 물려와 불빛 밝은 캠프에서 일박을 청합니다. 아무래도 이런 밤에는 배토벤의 합창 교향곡 9번을 틀어 놓아야 어울릴 것 같군요. 칼빔이 지휘한 “환희의 송가”를 실내에 있는 불이란 불을 죄다 켜 놓고 들어야겠습니다.

수필시대

봄향기는 마음을 이름답게

두 안 시집
문예운동 / 값8,000원

微熱_{미열}

• 맹 난 자 •

essay21@unitel.co.kr

요 며칠 조석으로 바람 끝이 차더니 그만 목이 붓기 시작한다. 가벼운 차림으로 동네의 병원을 찾아가는 기분도 나쁘지만은 않다.

아파트 단지를 끼고 바깥으로 나오니 가로수가 노랗게 물들어 있다. 그리고 보면 대개 이맘때쯤 나무에 단풍이 들 무렵 한 차례씩 앓았던 기억이 난다.

자리를 털고 일어나 가벼워진 걸음으로 산책길에 오르면 그때마다 노란 은행잎이 아름답게 눈부셨다. 눈 밝은 어느 영혼과 마주선 듯 경배의 심정이 들곤 했다. 질푸른 녹음이 이렇듯 환하게 걸히다니...

임중에 이른 어느 현자의 內明내명한 속뜻을 보는 듯했다. 병 후에 느끼게 되던 감상이다.

병의 핑계가 아니라면 결국도 죄스럽다. 그저 감기 정도면 한 며칠 쉬기에 알맞은 호사인 것 같다. 조제한 약을 들고 집안으로 들어선다. 창 앞에 괴괴한 녹음으로 어둠이 깃든 거실에 불을 켜다. 식구들이 없는 집안은 쓸물이 빠져



수필가

계간 《에세이문학》 발행인 겸 주간, 제19회 현대수필문학상 수상

국제펜클럽한국본부 이사

저서 : 수필집 《사유의 뜰》, 《삶을 원하거든 죽음을 기억하라》, 《탱고, 그 관능의 쓸쓸함에 대하여》, 《인생은 아름다워라》 외 다수

나간 하구 같다. 집안 곳곳이 낯설게 느껴진다. 몸뚱어리 없는 혼령만이 공간에 떠 있는 듯한 이 기묘한 착각이 잠시 나를 시공 밖으로 밀어낸다.

중환자처럼 자리 보존하고 병상에 폭 함몰되고 싶다. 무거워진 마음을 무거워진 몸이 알아서 데리고 눕는다. 이마의 미열이 손에 짙인다.

미열.

죽을 만큼 뜨겁지도, 괴롭지도 않았지만 언제나 막막하던 오후의 그 네거리에서 나를 세워 놓게 하던 미열. 고등학교 2학년 때였다. 학교가 과하면 만원버스를 타고 돈암동에서 내렸다. 동도극장 뒤를 돌아 몇 개의 골목을 지나 京東 敬洞 학교를 향해 올라가야만 우리집이 있었다.

어느 날부터인가 경동학교 담벼락이 보이는 골목 입구에 서게 되면 그 길이 멀고 아득하게만 느껴졌다. 골목 입구 우측에 김동리 선생 댁이 있었다. 늘 최선을 다해 귀가하지만 거기까지가 힘의 한계인 듯 가방은 무겁고 주저앉고 싶을 만큼 다리에 힘이 빠졌다. 삐끗 열려진 대문 안을 기웃거리노라면 선생은 계시지 않고 큰부인과 아이들만 산다고 누군가가 알려주었다.

대개 그쯤에서 멈춰 서게 되었다. 올려다 보이는 언덕길은 아득하고 눈앞은 가물가물 하였다. 알 수 없는 신열이 온몸을 감쌌다. 늘 해가 잦아드는 시각이었다. 폐가 나뻐던 것을 모르던 때였다. 생뎌 같은 동생이 죽어 나가고 어머니가 정신을 반쯤 놓아 버린 그 집에 가려면 나는 늘 그 네거리에서 혼자 멈춰 서야만 했었다. 혼곤한 잠처럼 밀려드는 나른한 미열감, 지축이 어쩔하게 흔들렸다. 나는 누구에게도 그것을 말하지 않았다. 어떤 혼령이 몸에 들어와 불을 켜는 것 같은 그 기분 나쁜 미열이 왜 싫지 않았던가를.

단풍으로 환하게 밝아진 나무를 잠시 올려다본다. 그때의 熱感 열감, 미열은 그렇게 내 살아 있음의 어떤 부호이기도 했다. 그러나 이제 할 수만 있다면 햇빛 잦아드는 골목 네거리에서 있던 그 아이를 데려오고 싶다. **수필시대**

우리 수필의 어제와 오늘, 그리고 내일

· 하길 남 ·
haginam@hanmail.net

1. 머리말

올해 수필 4천 여 편을 읽었다. 그 중에 1백 여 편을 뽑았으니 39 편 중에 1편밖에 눈에 차지 않았다는 계산이 나온다. 물론 이는 어디까지나 선자의 입 장일 뿐임은 말할 나위도 없다. 십년 가까이 이렇듯 많은 수필을 읽어보면 자 연 수필이 어떤 것이구나 하는 것을 나름대로 짐작하게 된다. 그리고 읽게 되 는 수필의 수도 점점 증가하는 것을 피부로 느끼게 된다. 좋은 수필을 뽑는 일 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수필이론은 물론 그 많은 문학비평이론은 말할 것도 없 고 수필을 연구 분석하는 일을 게을리 할 수 없게 된다. 우리나라 전문수필지 에 실린 작품 평은 말할 것도 없고, 여러 나라의 수필을 읽어보고 그 나라 특



〈수필문학〉, 〈현대문학〉을 통해 문단데뷔.
〈금년의 좋은 수필〉, 〈選수필〉 선정위원
한국문학비평가협회 이사
수필 이론서, 수필집 등 10권 펴냄
현재 : 경남대학교 정년 동 교육원 전담교수.

유의 수필이론도 기회가 닿으면 접하게 된다.

그렇게 하다 보니 이제 수필이라는 것이 이렇게 쓰여 지나 보다 하고 스스로 터득하게 된다. 이렇게 고된 작업이 없었다면 수필에 대해 어떻게 남만큼 알 수 있었겠는가. 그저 고맙고 다행스럽다는 생각이 든다. 수많은 수필을 읽어보면 수필가마다 스스로 개발한 기법을 모두 알게 된다. 그래서 수필의 실험정신이나 읽히는 힘, 차별화, 작가의 문학관이나 철학적 범주, 사색이나 인간적 폭격, 경륜이나 인생관 등등을 한눈에 알게 된다.

이른바 신변잡기란 바로 인간적 자기 성숙의 도정을 말해주는 설익은 선악 과인 것을 알게 된다. 뱀이 따먹으라고 해서 따먹었다는 철부지인 것을 알게 된다. 수필에는 미적 울림이 있어야 하는 것이다. 세월의 향취가 풍겨야 한다. 내면적 생명의 울동이 흘러야 한다. 행간의 여운이 맴돌아야 한다는 것을 체득하게 된다.

2. 수필적인 글

화자는 우리 수필을 말하는 자리에서 ‘신념의 오류’란 말을 한 일이 있다. 즉 자기가 쓴 글이 사실상 수필이 되지 못하고, 신변잡기나 사건의 서정적 기록에 그친 사실을 한 편의 수필이 된 것처럼 착각하는 경우를 이른 말이다. 물론 이런 경우는 비단 수필에 한한 일만은 아니다. 시도 소설도 마찬가지다. 비근한 예로 각 신문의 신춘문예나, 문학의 해를 맞아 한국문학예술진흥원에서 시, 시조, 소설, 아동문학, 희곡, 평론 등 각 장르의 작품집은 발간되었지만, 유독 수필만 빠진 것 등은 좋은 작품이 없었기 때문이라 하겠다. 뿐만 아니라 서점에 가보면 <마음을 열어주는 101가지 이야기>등 수필의 아류들이 수없이 쏟아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된다.

이는 바로 수필이 시민들의 독서 욕구를 만족시키지 못하고 있다는 증거가 된다고 믿어진다. 사실 그 속에서는 수필이라는 이름으로 발표되는 글 속에서 신변잡기에 그친 것이 있는가 하면, 오히려 수필이라는 이름으로 발표되는 글

보다 더 좋은 것이 없지 않는 것도 사실이다.

아버님의 누님이나 여동생을 고모라 하고 어머니의 언니나 여동생을 이모라 한다. 나로서는 친 고모님이 한 분이요, 윗대 아버님의 친 고모님이 계셨는데 친정조카인 아버님보다 80년을 더 사시고 94세에 일생을 마감하셨다. <중략>

큰따님 알밤이 이주머니. 둘째 순이. 셋째 금례. 넷째 말레 이주머니를 두셨다. 어른께서는 못고생을 다하시며 네 분 따님들을 훌륭히 키우셨는데 금례, 말레 이주머니는 수재가 다니던 전주사범학교를 졸업시켜 자랑스러운 여선생님을 만드셨다. <중략>

독실한 기독교 신앙인으로서 하느님과 예수님을 평생 섬기며 살아오신 뜻으로 많은 성도님의 기도 속에 영생의 길을 떠나셨다. <중략> 삼가 영전에 머리 숙여 추모의 꽃을 바칩니다.

-기성작가의 수필, <-를 -면> 중에서-

1960년대부터 시작된 우리 나라의 경제성장을 30여 년이 지난 이래, 상당한 수준의 성장을 가져온 것이다. 이러한 양적 성장은 제조업을 중심으로 재벌 위주의 경제구조를 심화시켜 빈부간의 격차를 크게 유발시켰다.

이러한 와중에서 한국 농업은 상대적 쇠퇴의 길을 걸을 수밖에 없었고, 노동력은 고령화 부녀화되어 양적인 감소는 물론 질적인 저하를 초래 21세기의 한국농업의 장래를 어둡게 한 요인이 되고 있다. <중략> 21세기의 농촌과 농민의 정신으로 무장해야 할 것이다.

-기성작가의 수필, <-의 자세> 중에서-

더 설명할 것도 없이 둘 다 문학작품으로서 형상화되었다고 할 수 없다. 먼저 인용한 것은 누구나 다 아는 뻔한 ‘고모’나 ‘이모’ 등의 이야기를 늘어놓는 등 균소리가 되고 만 것을 알 수 있다.

두 번째 인용한 것도 농촌현실을 그대로 여과 없이 쓴 것으로 하나의 자기 소신이나 사례발표 혹은 실정보고문에 그치고 만 것을 알게 된다.

어느 날 밤 한 사람이 꿈을 꾸었다. 꿈속에서 그는 신과 함께 해변을 산책하고 있었다.

그리고 하늘 저편에서는 그가 지금까지 살아온 삶의 모든 장면들이 영화처럼 상영되고 있었다. 각각의 장면마다 그는 모래 위에 새겨진 두 줄의 발자국을 발견할 수 있었다. 하나는 그의 것이었고, 다른 하나는 신의 발자국이었다. 그가 살아오는 동안 신이 언제나 그와 함께 걸었던 것이다.

마지막 장면이 펼쳐지고 있을 때쯤 그는 문득 길 위에 있는 발자국들이 어떤 때는 단지 한 줄밖에 나 있지 않다는 것을 알아차렸다. 또 그것이 그의 생애에서 가장 절망적이고 슬픈 시기마다 그러했었다는 것을 알아차렸다.

이것이 마음에 걸려서 신에게 물었다.

“주여, 당신은 내가 일단 당신을 따르기로 결심했다면 언제나 나와 함께 걸어갈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제 인생에서 가장 힘든 시기들을 뒤돌아보니 거기에는 발자국이 한 줄밖에 없었습니다. 난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왜 당신은 정작 필요할 때면 나를 버렸습니까?”

신이 말했다.

“내 소중한 사람아, 난 그대를 사랑하며 결코 그대를 떠나지 아니할 것이다. 그대가 힘들고 고통스러울 때마다 그대는 발자국이 한 줄밖에 없음을 알았을 것이다. 그것은 그럴 때마다 내가 그대를 두 팔에 안고 걸어갔기 때문이다.”

물론 이는 너무 잘 알려진 이야기다. 아무런 표현의 기교도 없이 한 편의 순수한 사건을 그대로 진술한 것이다. 이 글이 우리들에게 감동을 안겨준다는 데 있어 수필과 비교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여기서 우리는 상상력의 동원이 수필을 보다 살찌게 할 수 있다는 시사를 받게 된다.

3. 문예수필과 생활수필

국내의 학자들에 의하면 수필을 여러 가지로 분류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된다. 그러나 대체적으로 重隨筆중수필과 輕隨筆경수필로 분류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는 말할 것도 없이 수필의 개인성과 사회성이라는 관점에서 본 분류법

이다. 그렇다면 수필 문학적 관점에서 분류한다면 文藝隨筆문예수필과 生活隨筆생활수필로 나누어 보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된다.

다시 말하자면 문예수필은 그야말로 미학적 문예 구조를 근간으로 한, 이른바 문학적 형상화를 거친 작품을 말한다. 생활수필은 위에서 인용한 바와 같이 생활의 서정을 미학적 근간에 두기보다는 자유롭게 쓴 신변잡기 식 이야기를 말한다.

알기 쉽게 말한다면, 앞장에서 본 바와 같이 4천 여 편 중에서 1백 여 편이 문예수필에 속한다는 논리가 성립된다는 이야기가 될 것이다.

4. 문예수필의 8원칙

(1) 분석적 서정성

우리는 스스로 흔히들 한국적 수필의 특성을 서정성이라고 일컫고 있다. 그래서 서정수필이라고 하는데, 사실상 우리 수필은 거의 이 서정수필인 것이다. 서구의 서사수필과 쌍벽을 이루고 있다 해도 좋을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순정파적인 서정수필을 말하면서 서사수필과 같은 논리성과의 접맥을 시도했으면 하는 바람도 가지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잘 알다시피 이 서사수필의 경우는 서정성을 잃기 쉽기 때문에 기피하게 되는 것이다. 사실상 수필에 논리성이 전면에서 부각되면 칼럼이나 소논문처럼 되어버리는 까닭에 수필을 쓴다고 하면 으레 서정수필을 말하게 되는 것이 사실이다. 그래서 ‘분석적 서정성’이라는 기법을 도입하지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 분석적 서정성이란 도대체 어떤 것인가. 말할 것도 없이 서정성을 심층적 정신분석적 기법 등으로 작가의 의도에 의한 서정상태를 요리해 보인다는 것이다. 다시 말하자면 자연적 서정적 묘사나 그 장면을 그대로 독자들에 노출시켜 보이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그 원인과 결과 등을 분석적 방법에 의해 도출해 보인다는 것이다. 굳이 환언하자면 서정적 논리성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2) 精緻정치한 상황묘사

문학작품이 빚어내는 감동은 상황의 진술에서 오는 것이라기보다 정치한 묘사에서 비롯하는 것임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예컨대 우리가 6,25 피난 당시, 유엔군이 진격해오는 북한군의 퇴로를 막기 위해 한강다리를 폭파한 일이 있었다. 그 때 이 정보를 입수한 한 피난민이 어린 아기를 안고 한강다리를 건너다 마침내 그 아기를 강 속으로 던지고 말았다. 아이를 안고 뛰기 때문에 걸음이 늦을 수밖에 없는 까닭이다. 잘못하다가는 어른과 아이가 같이 폭파에 의해 죽을 수밖에 없게 될는지 모를 급박한 상황이었기 때문이다.

이러한 선택은 어쩌면 한강 아래로 떨어진 아기가 혹시 배를 타고 피난 가던 어부들이 있어 다행히 목숨을 구할 수도 있는 것이 아닌가. 사실 이러한 극한 상황을 찍은 사진 한 장이 실제로 발견되어 그 당시의 급박한 비극적 상황을 증명해 주었던 것이다. 이 사진 한 장 그 상황묘사가 얼마나 우리들의 가슴에 감동을 던져주었는가를 상상해 보면 짐작이 가는 일이다. 한 장의 사진이 아닌 글로써 정치하게 묘사된 장면 하나가 얼마나 독자들의 가슴에 감동을 불러올 수 있는가를 미루어 짐작하게 된다 하겠다.

(3) 자각적 正體性정체성

이 말을 우리가 흔히 말하는 문학 작품에 있어서의 이른바 ‘낯설게 하기 기법’을 말하는 것이다. 우리가 일상을 살다보면 개미 쳇바퀴 돌듯 일상에 매몰된 채 살게 되는 경우가 없지 않다. 자신의 가치관이나 결단에 의해서 자신의 미래상을 확립해 놓고 거기에 따라 한 발 한 발 진진해 나가는 것이 아니라, 주위의 거대한 물결 속에 휘말린 채 그대로 흘러가게 되는 것이다. 그렇게 무의식적으로 삶을 살다가 어느 날 갑자기 물살이 잔잔해지거나 요동치는 소리에 놀라 정신을 차리고 보면 이미 나이가가라 폭포에 떠밀려 왔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엔서니 라빈스는 그의 저서 <네 안에 잠든 거인을 깨우라>는 책에서 이러한 상황을 ‘나이가가라 증후군’이라고 했던 것이다. 우리가 강물에 떠밀려오듯이 사회적 관습이나 인습 속에서 살다보면 자기의 정체성을 미처 확

립하기도 전에 한없이 추락하고 미는 경우를 경험하게 된다. 어떤 학자는 인류의 약 3% 정도가 이 거대한 물결에 휩쓸리지 않고 자기의 정체성을 확립한 채, 자기의 이념과 의지에 따라 이승을 요리해나간다고 한다. 결과적으로 이 3%에 해당하는 이들이 이 세상을 떠받쳐 나간다는 것이다.

(4) 유머와 機智까지, 그 미적 긴장미

여기에 대해서는 굳이 설명을 덧붙일 필요가 없을 것이다. ‘재미가 없으면 죄다.’ 라고 말하고 있는 세상이 아닌가. 웃기는 재미를 위해 살고 있는 형국이라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오늘날 여러 방송매체들은 매우 부산하다. 우리나라도 예외가 아니지만 일본은 웃음연구소가 곳곳에 있다. 우리 나라에서도 옛날에 일부 ‘노세 문화’가 득세했지만 오늘날 이 ‘노세 문화’는 앞으로 얼마나 더 발전할는지 모를 일이 아닌가. 이 즐거지는 ‘노세 산업’의 전망은 매우 밝다 하겠다.

이러한 사회의 추세에 발맞춰 문학 현장에서도 유머와 기지, 그 미적 긴장미는 신장되어야 할 것이다. 그렇다고 마냥 웃으면서 늘어져 있어서는 곤란한 것이 아닌가. 거기에는 적당한 긴장미가 뒷받침이 되어야 하는 것이다. 미적 彈力탄력이 요구되는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닌 것이다. 문학에 있어서의 시대상 반영이란 이런 점에서도 우리는 다시금 점검해 보아야 할 일이라고 생각된다.

(5) 차별적 실험성

우리나라 수필을 읽어보면 거의 비슷해서 이름만 가려놓으면 누가 쓴 글인지 알 길이 없다는 이가 많다. 이른바 신변잡사식 서정수필이라는 것이다. 일상의 이야기를 사건 중심으로 계속 써내려가다가 적당한 지점에 와서 분칠을 해놓는 것이다. ‘나는 그렇듯 오래오래 그를 잊지 못할 것이다, 그 신비스러운 미소를 다시 볼 날을 기대하면서……. 인생의 행복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다.’ 등등 불과 몇 초 사이에 챙겨본 결미가 이러했다. 말하자면 생활의 한 진술서나 보고서처럼 써내려오다가 어느 지점에서 적당한 말로 끝내면 바

로 문학작품이 되는 셈이다.

자기 나름대로 치열한 실험 정신이나 남과 차별될만한 주제의 일관성이, 소재의 참신성, 구성의 극적 반전이나, 표현의 독자성 등 독자들을 사로잡을 극약적 처방 같은 것이 있어야 하지 않을까 싶다. 물론 수필이 상대방과 소곤소곤 대화하듯 담담하고 진솔해야 하겠지만, 그러한 톤으로 시종일관 끌고 갈 수는 없는 일이 아닌가. 때로는 뱀의 혀 바닥처럼 포효할 때가 있는 것이다.

(6) 읽히는 힘과 공감의 진폭

많은 수필을 의무적으로 읽게 될 경우 사실상 고통스러운 것은 읽히는 힘이 실려 있지 않기 때문이다. 이렇게 읽기 힘든 글을 왜 썼을까 하고 자문하게 되는 글이 적잖다. 읽히는 힘이란 앞에서 말한 바와 같이 유머나 기지 등이 동원된 이른바 재미있는 수필이 그 방편이 될 것이다. 그리고 공감의 폭이나 감동, 문장력 등이 관건이 될 것은 두말할 필요가 없는 일이다. 또한 남다름 교훈 같은 것도 보탬이 될 것이다. 물론 이때 그 교훈성이 밖으로 얼굴을 직접 드러내어서는 곤란하다는 것도 고려되어야 할 것은 말할 나위도 없는 일이다.

사실 수필을 읽다보면 별스러운 것도 없는 것 같으면서도 눈을 뗄 수 없는 마력 같은 힘이 있는 것 같은 글을 대할 수도 있다. 독자를 끌어당기는 보이지 않는 힘의 원천은 어쩌면 작가의 인간적 체취가 글의 행간에서 우리와 동행하고 있기 때문인지도 모른다. 우리는 이런 경우를 경험할 때도 있는 것이다. 글을 쓴 작가에 매료되고 마는 경우를 말이다. 작가의 품모나 그 위상 혹은 품격에 빠져들고 마는 경우가 그것이다. 이 분은 어떻게 생긴 무엇 하는 분일까. 한 번 만나보고 싶다는 생각을 떨쳐버릴 수 없는 이도 없지 않는 것이 사실이 아닌가. 수필은 쓴 사람의 개성은 말할 것도 없고 인간의 적나라한 본성이 그대로 나타나는 글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수필을 인간 裸像나의 글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다.

(7) 정밀하고 구체적이어야 한다.

수필문장은 추상적이거나 모호해서는 실패한다. 문맥상 감정의 흐름이 분

節분절되어서는 안 되는 것과 같이 묘사 등이 구체적이어야 한다. 거기서 진실의 공감대가 형성되기 때문이다. 이러한 선명성은 수필의 성패를 가름하게 된다. 무슨 소리를 하려는 것인지 분별이 안 가거나 그 의도가 납득이 안 가는 애매한 표현은 절대금물이다. 기사를 쓸 때 ‘언제’ - ‘어디서’ - ‘누가’ - ‘무엇을’ - ‘어떻게’ 라는 육하원칙이 있는 것처럼 수필문장에는 관념어 등을 피하고 구체어 토속어들을 쓰게 되는 것은 바로 이와 같은 추상성에서 벗어나기 위한 배려인 것이다. 그렇게 해야 주제의식을 효과적으로 형상화할 수 있기 때문이다. ‘春府丈^{춘부}추부’ 이라는 말은 아버지를 가리키는 말이다. 물론 남의 아버지를 높여 부르는 말이다. 그러나 이런 말을 들으면 ‘아빠’ 라고 부르는 것처럼 친근감은 고사하고, 어떤 사물을 지칭하는 말처럼 정서적으로 무덤덤해지는 것이 사실이다. 만약 이와 같은 관념어로만 수필을 썼다면 어떻게 감동을 받을 수 있겠는가 곰곰 생각해 보면 알 일이다.

(8) 독자적 전문성

蘭난수필이나 수석수필 낚시수필 등 우리 주변에는 전문 수필집은 말할 것도 없고, 전문 수필인들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다. 사람마다 전공이 다르고 취향은 물론 소질이나 평소의 관심사가 각각 다르기 때문에 자연히 글의 내용도 다르게 마련인 것이다. 스스로 그러한 전문성을 의식해서 글을 쓰지 않는다 하더라도 나중에 종합해 보면 어떤 관심사의 방향 같은 것이 설정되는 경우를 경험하게 된다.

필자의 경우 수필에서 비교적 ‘사랑’ 이야기가 많이 등장하는 것 같고, ‘혼적’에 대해 집착하는 것같이 보인다고 여러 사람들이 지적하고 있는 것을 보면, 이와 같은 관심사의 향방을 짐작할 수 있게 된다. ‘글은 바로 그 사람이’라고 했으니 더 말할 나위도 없는 일이라 하겠다. 아무튼 이와 같은 실례가 아니더라도 수필가마다 자기의 전문적 영역을 넓혀나간다는 것은 우리 수필의 발전을 위해 바람직한 것임은 두 말할 나위도 없는 일이다.

4. 마무리

앞에서 문예수필과 생활수필을 이야기한 바 있다. 그리고 머리말에서 이미 이 글의 전개과정에 대한 소신을 피력한 셈이다. 그래서 여기서는 모든 것을 생략하고 모름지기 글을 쓰는 사람은 언제나 신인이라는 생각으로 늘 공부하는 자세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라는 것을 제언하고 싶을 뿐이다. 기성작가라고 하는 말을 쓸 만한 사람이 우리 수필계에서 과연 몇 사람이나 될 것인가 하는 의구심을 떨쳐버리지 못했다고 하는 것이, 이 글의 마무리가 되지 않을까 싶다. 매년 그렇게 많은 수필을 읽고 분석하고 연구하면 할수록 어려운 것이 수필쓰기라는 것을 다시 한 번 실감하면서 이 글을 맺는다. **수필시대**

대숲에 사는 별

박윤희 시집
문예운동 / 값9,000원

나도 진작 맑은 눈을 기졌더라면

최희준 시집
문예운동 / 값8,000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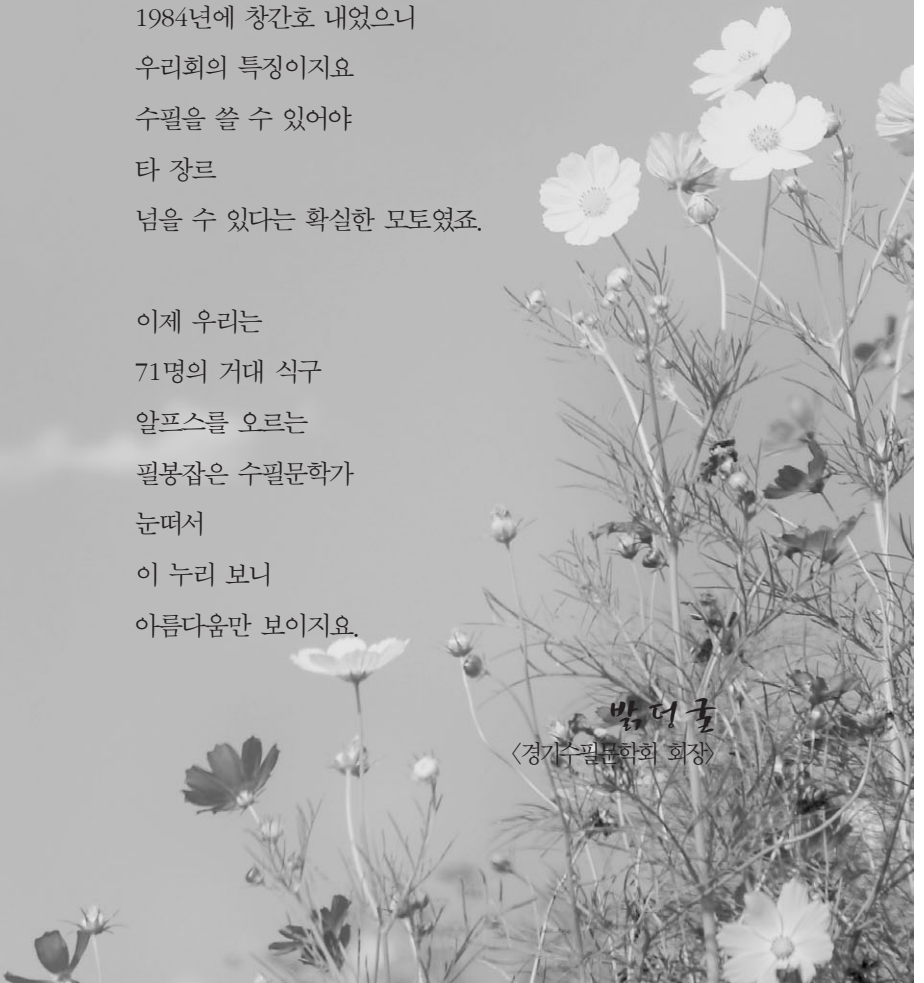
경기수필문학회 연혁

애초에 골방에서
만났거든요.
경기문인협회회원이 수필동호인회도 묶었어요
수필, 시조(시), 소설, 동화 등
모두어
'경기수필문학회' 가 되자구요

그것이 1983년이요
1984년에 창간호 내었으니
우리회의 특징이지요
수필을 쓸 수 있어야
타 장르
넘을 수 있다는 확실한 모토였죠.

이제 우리는
71명의 거대 식구
알프스를 오르는
필봉잡은 수필문학가
눈떠서
이 누리 보니
아름다움만 보이지요.

박덕걸
〈경기수필문학회 회장〉



독감과 달걀

밝 덩굴 b3280@hanmail.net

독감을 지독하게 앓았던 소년 시절이 있었다.

밥을 못 먹겠다. 설사가 그치지 않는다. 혈변, 그리고 정신을 잃었다. 내가 너무 아파하니 아버지는 아편을 먹게 했다. 좀 정신이 들었는가 했는데, 새벽 3시가 되어서는 더 참을 수가 없다. 주사 2대를 맞았다. 좀 나아졌다. 이번 감기는 유행성 감기라고 했다.

이튿날은 오레오마이신 2알을 먹었다. 개가죽나무 껍질을 구워 물에 타 먹었다. 다음날 날이 새어서야 몸을 움직일 수 있었다. 며칠을 못 먹었는데, 달걀이 먹고 싶다. 어머니가 아예 한 줄을 삶아 내놓으신다. 9개를 먹어치웠다.

1957년 8월 중 이틀에 걸쳐 쓴 일기이다, 독감으로 사경을 헤매던 사연이 자세하다.

달걀 9개는 큰 사건이다. 그때, 보통 농촌이라면 닭 너댓 마리를 기르고, 거기서 하루에 한두 개 낳은 알을 구렁이알처럼 모았다가 10개가 되면 꾸러미를 만들어 장날에 내다 돈을 시는데, 어디 달걀 하나 먹기가 쉬운 일인가?

나는 달걀을 유독 좋아했다. 제상에 예쁘게 올려 놓은 노란 색, 하얀 톱니 반 토막 달걀 때문에 어려운 제사 의식도 꼭 참을 수 있었다. 내 친구 어머니



경기도 중등교장 지냄
한국문인협회 경기도지부장 지냄
한남대학교, 한경대학교 강사 지냄
현재, 경기수필문화회 회장, 협성대학교 강사

가 해주신 달걀국을 처음 맛보고서는 어떻게나 맛있던지 지금도 친구를 만나면 그 이야기부터 한다.

달걀은 어떤 음식으로도 맛이 있다. 무슨 맛이냐고 물으면 대답을 못한다. 그냥 맛있다. 밥상에 올려놓는 달걀찜, 찻집에서 맛보던 쌍화차 속의 반숙, 김소운 님이 좋아했던 ‘피판 문답’ 속의 찌기 직전의 달걀, 흔히 찜질 방에서 나오는 구운 달걀, 목이 갈갈해서 날로 빨던 그 맛이 좋다. 그런데 이 맛은 어떨까? 친구 집에 갔을 때, 술상이 나오고, 그 아내가 안주 걱정을 하면 나는 으레 달걀 두어 개만 삶으면 된다고 한다. 그리고 나는 여기에 서거정의 ‘借鷄騎還차계기환’의 익살을 보낸다. 달걀과 닭은 통닭이 아니던가.

몇 달 전 나는 큰 수술을 하고서 퇴원했다. 병원에서도 그랬지만 집에 와서도 밥맛을 잃었다. 그저 몇 수저를 뜨면 그만이다. 아내가 죽을 쑤어 내어왔다. 여러 가지를 넣었으니 맛있을 거라고 했다. 잘게 다진 쇠고기, 잣, 깨, 그리고 맨 위에는 달걀말이를 얹게 썬 것이 올려 있었다. 눈이 흰해졌다. 죽 때 문에 입맛을 찾고 살아났다.

어느 날 세상은 감자기 사과를 깎아서 먹으라고 한다. 딸기, 포도는 수십 번을 씻으라고 하고, 곡류, 채소류는 산지 직송이 아니면 불안하다고 한다. 수돗물이 안전하다고 하면서도 정수기를 놓는 게 좋다고 한다.

요새 날달걀을 먹어도 좋다는 곳은 없다. 찻집에서도 반숙은 없어졌다. 날달걀을 먹던 식습관도 없어졌다. 양계장도 많이 폐쇄되고, 닭고기 음식 손님도 줄었다.

조류독감이 사람에게도 전염되었다. 그 병이 유럽에서 아시아로 온다고 한다. 그러면 10만 명, 아니 300만 명이 죽을 수도 있다고 한다. 에이즈보다도 더 무섭다고 경고한다.

나는 청진기를 목에 걸고, 내가 개발한 조류독감 예방주사약을 수없이 뿌리고 다녔다. 이튿날 중앙지에 내 기사가 화려하게 지면을 장식했다. - ‘조류독감 예방약 개발로 조류인플루엔자 퇴치 개개’ 그 밑에는 황 아무개의 모습도 보였다. 나는 황 교수를 부르는데, 그 소리가 어찌나 크던지 꿈밖으로 튀어나

왔다. 놀란 아내가 나를 흔들었다.

“애 아빠요!”

“응...”

아내가 선심을 쓴다.

“저기 달걀 삶았으니, 껍질 까요. 장조림하세요.” **수필시대**

나는 자주 멀미를 한다

유혜련 시집
문예운동 / 값8,000원

너의 무등을 넘어 별이 되다

빈소영 시집
문예운동 / 값6,000원

황혼의 낚빔

이임성 시집
문예운동 / 값8,000원

노년의 三樂^{삼락}

강대욱

호텔 거젠시 뷔페홀에 도착하니, 노인 지도자 400여 명이 홀을 가득 메웠다. 인생사의 우여곡절을 말해주듯 주름진 얼굴이지만 모두가 환한 얼굴로 맞아주었다. 어떻게 말을 풀어갈까 하다가 이 분들에게는 논리적 설득보다는 대중적 공감으로 시사성이 있는 역사 이야기를 하기로 하였다.

지난 2005년 10월 20일 100년 만에 北關大捷碑^{북관대첩비}가 고국 땅을 밟았습니다. 이국 땅 일본에서 1세기 동안 원혼을 달래며 한국을 기다렸던 북관대첩비는 일본 동경에 있는 야스쿠니신사(靖國神祠)에서 20일 오후 비행기로 인천공항에 안착한 뒤 국립중앙박물관으로 옮겨져 다음 날 문화재청과 광복60주년기념사업추진단 공동 주최로 한국 告由祭^{고유제}를 지내 흘러간 민족사의 수난을 깨고 있습니다.

북관대첩비는 碑名^{비명}이 朝鮮國咸鏡道壬辰義兵大捷碑^{조선국함경도임진의병대첩비}로 되어 있는데, 비 머리 篆字^{전자} 전자가 통정대부이조참의지제교 尹德駿^{윤덕준}이 쓴 북관대첩비로 되어 있습니다. 북관대첩비는 조선국함경도임명(臨溟)대첩비로도 회자되고 있는 민족사 증인의 귀중한 金石文^{금석문}입니다. 북관대첩비는 1709년(숙종 35년) 함경도의 북평사로서 의명의 자손들과 함께 연고지를



경기도립박물관 초대관장 지냄
경기도공무원문화회장 지냄
경기수필문화회장 지냄
경기문학인협회회장 지냄
현재, 경기도행정사료수집연구원

방문하여 戰勝史料 전승서류를 정리한 崔昌大 崔창대가 비문을 짓고 종4품 조산대부를 지낸 李明弼 이명필이 글씨를 써서 함경북도 길주군 임명 고을 주민의 뜻을 모아 건립된 것입니다. 북관대첩비는 임진왜란 때 함경도 지역을 점령한 왜장 가토기요마사(加藤清正)의 왜군을 격파한 북관대첩을 기념하기 위해 세웠던 승전비입니다. 정문부 선생은 임진왜란 때 義兵將 의병장으로서 혁혁한 공을 세웠지만 당시 함경도 관찰사 尹卓然 윤탁연에 의해 전공이 날조되어 역사의 뒤안길에 묻혔으나 살아 꿈틀대는 역사 기록은 천명과 같은 것. 117년 만에 빛을 보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 북관대첩비는 1905년 러·일 전쟁 때 이 지역 일본군 주둔 사령관 이케다 마사스케(池田正介) 소장이 자기 조상들의 패전 기록을 기분 나쁘게 여겨 일본으로 강제로 빼앗아가 그들의 군국주의 상징인 야스쿠니신사에 버려져 있었던 것입니다. 이 비를 처음 발견한 사람은 1907년 동경 유학생이었던 독립운동가 경기 양주 출신 趙素昂 조소앙이 야스쿠니신사에 들렀다가 버려진 북관대첩비를 보고 당시 재일조선 유학생 잡지(大韓興學報 5월호)에 ‘소해성’이라는 필명으로 기고해 처음으로 북관대첩비 일본 약탈을 꾸짖었으나, 71년의 세월이 흐르도록 까마득히 잊혀진 존재였다가 1978년 최서면 국제한국학연구원이 조소앙의 기고문을 발견, 현지답사를 통해 다시 한번 세인의 관심을 집중시켰던 것입니다. 그래서 도쿄한국문화연구원 발간(韓74호)에 글을 실은 것이 계기가 돼 반환 운동이 시작되었던 것입니다.

지난 10월 20일 이후 저는 이 번에 공개된 국립중앙박물관의 북관대첩비를 둘러보고 11월 28일 경기인의 기상 도봉산을 마주한 의정부시 효자봉에서 살아 있는 미소를 보내며 역사의 이정표를 일깨우고 있는 常勝 상승 의병장 정문부 선생의 묘역을 참배했습니다. 忠德祠 충덕사에 내걸린 ‘경축 정문부장군 북관대첩비 환국 해주정씨대종친회’ 현수막이 고난으로 얼룩진 민족사의 수난을 상징하고 있었습니다.

나는 오늘 강의를 노인의 3락으로 맺고 싶었다.

인생의 노년을 3가지 즐거움으로 보냅니다.

그 첫 번째는 역사의 한 모퉁이를 담당하는 봉사하는 마음입니다. 남을 위한 인생의 여정에 찬란한 저녁 노을이 비칠 때 노년은 행복하게 보일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인생의 나들이에서 많은 사람이 알아주는 노년이 되십시오. 그것은 한 인간이 걸어온 인생사의 파노라마이기 때문입니다. 흘러간 과거가 투영된 영상처럼 지나온 발자취가 많은 사람의 추억을 되살리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는 한 병의 막걸리로 즐거운 만남을 가져 흘러간 고급의 일을 웃음 속에 묻혀보는 즐거움이 있을 때, 느긋한 여유 속에 역사는 지나간 과거가 아니라 앞으로 올 것 때문에 있는 것을 음미해 보자고 제언해 봅니다.

강의가 끝나고 몇몇 노인이 인사를 한다. “내 오늘 강의를 우리 손자에게 자랑을 해야 하겠어요. 자랑스런 우리 민족혼을 말입니다.” 며 만면에 웃음이 가득한 모습에서 고난과 시련을 헤치며 살아온 노년의 황혼이 결코 외롭지 않다는 것을 체감했다. **수필시대**

빛은 숲이 된다

이혜숙 시집
문예운동 / 값6,000원

가을을 그리는 수채화

두 안 시집
문예운동 / 값7,000원

놀이문화 유감

김명규

일어나라! 일어나라! 또 자니! 또 자니! 일어나라! 일어나라! 라며 머리맡에 있는 탁상시계에서 음악소리와 함께 녹음된 음성이 요란하게 울렸다. 전날의 피로가 말끔하게 씻기지 않은 듯 이득하니 잠결 속에서 들려오는 알람시계의 깨움 소리를 듣고 무거운 몸을 일으켰다. 나의 기상 시간은 매일 정확하게 오전 6시다. 오늘은 다람쥐의 쳇바퀴 돌리는 듯한 반복의 일상에서 탈출하려고 부산히 몸을 움직였다. 어릴 적에 소풍을 간다든가 또는 수학여행 등 집이나 학교를 벗어나 대자연 속에서 친구들이나 학우들과 함께 뛰놀던 기억은 추억 속의 풍경화가 되어 아스라해졌다.

거창하게 말하여 나라와 민족을 위해 멸사봉공한다는 공무원 생활을 70년대 후반에 시작하면서 처음으로 이상한 관광놀이 문화를 접하게 되었는데 전혀 내 취향과는 맞지 않는 것이었다. 그 관광놀이 樣態^{양태}는 70년대 그 시절이나 지금이나 그대로 변함없이 전래되어 오고 있다. 우리민족을 韓^한민족이라고 한다. 한이라는 말뜻은 크다는 것인데 그보다는 가슴에 맺힌 것이 많은 恨^한민족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것 같다. 그 맺힌 것들을 풀어내려고 달리는 자동차 안에서 고막을 찢는 음악과 함께 흔들고 뛰어대는 모습을 보면 狂氣^{광기}광기가 어려 있다는 표현이 적당할 것 같다.



1950. 1. 1 강원도 홍천출생
경기도 공무원문화회 부회장
경기수필문학상 작품상 수상(사색의 오솔길)
팔달문학 동인회원, 경기수필문학회 이사
현재 광명시청 전철기획팀장

여행이라면 고즈넉이 혼자 하거나 또는 기혼자라면 아내와 같이 조용하게 명승지나 풍광이 좋은 산과 들을 찾아 자연이 주는 향기를 맡아가며 즐기는 것이 바로 관광이고 여행일 것이다. 공직생활을 해 오면서 관광버스를 이용한 단체관광에 많이도 끼어 다녔다. 우리의 놀이 문화가 다양성이 없고 빈약하다 보니 단체 관광 때마다 무슨 수학공식 문제처럼 똑같은 장면들이 펼쳐지곤 한다. 좋은 싫든 술잔이 돌아가고 동시에 의무적으로 돌아가며 노래하고 여흥이 절정에 달하면 한풀이 막춤으로 모두가 버스 내의 좁은 통로에 나와 몸을 흔들어댄다.

이러한 놀이 行態행태가 싫어서 단체관광이라면 가고 싶은 마음이 없지만 오늘도 나는 관광버스를 타기 위해 집을 나섰다. 우리 동의 주민자치위원회 연례행사인 타 지역 주민자치센터 견학이라는 뚜렷한 목적을 갖고 있지만 단순하게 그것만이 목적은 아닌 것이다. 꽃피는 계절이니 꽃놀이 삼아 위원들 간 단합도 도모하고 견학도 하고 다목적용 관광놀이인 셈이다. 목적지는 군산 시에 있는 나운2동 사무소였고 군산항 벚꽃축제 구경도 하자는 계획이었다. 출발시간은 오전 8시였지만 늘상 늦는 사람들 몇 때문에 8시 10분이 조금 지난 후 출발했고 출근시간대여서 서부간선도로를 타고 시내를 빠져나가는데 조금 어려움이 있었다. 그렇게 가다 서다를 지루하게 반복한 후 서해안 고속도로에 진입하고 나서야 달리는 기분에 일상에서의 脫出感탈출감이 소릿이 솟아 오르는 듯 했다.

정원 45석을 반도 채우지 못해 버스 안은 공간의 여유가 많았다. 차창 너머 비치는 자연환경의 사물들이 달려왔다가 무더기로 지나쳐 가고 푸르러지는 산 야에도 진달래의 꽃송이들이 산언저리를 밟그레하니 물들여 가고 있었다. 들에서 논밭갈이 하는 농부들을 보며 농사철이 시작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위원회의 부위원장이 차내용 마이크를 잡고 통로에 나와 오늘 하루의 일정에 대한 설명이 있었다. 뒤 이어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장과 동 출신 시의원이 간략하게 인사말을 했다. 그렇게 시작된 에코의 마이크 음성은 부위원장의 歌謠가요 한 곡조를 시작으로 노래 부르기 경연대회가 달리는 차안에서 바로 이어졌다. 대개들 나와서 부르는 노래들이 자기 취향에 맞는 18번곡들이다 보니

가수 뺨치듯 잘 불러댄다. 요란한 곡조의 노래가 몇 명의 가수들에 의해 불러진 다음 일행 중 누군가가 “분위기 있는 노래 좀 합시다!”라고 소리를 쳤다. 한참의 시간이 흐른 뒤 순번이 되었다며 마이크가 넘어오자 분위기 있는 노래를 들려줄 요량으로 나훈아의 사랑을 열창했다. 雷雨우뢰와 같은 박수 소리와 함께 앵콜! 앵콜! 하며 시위성의 요청이 있었지만 반주기의 모니터에는 다음차례 전주곡이 흘러나오고 있었다. 노래가 계속 이어지고 맥주, 소주 컵이 흔들리는 좌석사이를 누비느라 담겨진 알코올성 액체가 작은 파도를 일으키는데도 이곳저곳 연신 옮겨 다닌다.

내가 이곳 철산4동사무소에 부임하여 “본인은 교회의 장로이기 때문에 술을 마실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본인에게 술을 따라 주는 일이 없기를 부탁드립니다.”라고 공포한 적이 있다. 전국의 각 동에는 관변단체 및 자생 민간단체가 있는데 우리 동의 경우 10개 단체가 있다. 이 단체들이 매월 한 번씩 월례회의를 하게 되는데 회의가 끝나고 나면 질편한 술자리가 만들어진다. 실상은 회원 간 단합을 도모한다는 목적으로 함께 밥 먹자는 자리이다. 이 밥 먹자는 자리가 지나하니 취해야 일어나는 자리가 되곤 하기 때문에 술을 마시지 않는 사람에게 더없이 괴로운 자리가 된다. 체질적으로 술을 마시지도 못하지만 술이 사람에게 끼치는 害惡性해악성이 너무 많기에 술이라는 기호식품과 나는 가까워지려야 가까워질 수가 없다. 오늘도 버스 안에서 오기는 술잔들이 나에게도 몇 번 건네졌으나 정중히 사양을 했다. 타 지역의 기관을 방문하는 공무원으로서도 안 되는 일이지만 술을 마시지 않겠다고 공포한 말이 밖에 나왔다고 해서 깨어져서는 더더욱 안 되는 일인 것이다. 성경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했다. 사람이 바르게 서서 그 광활한 하늘을 바라볼 때 정말 내 인생이라는 게임에서 정확한 포지션을 지키고 있는가 생각해 보아야한다.

자동차 안에서의 음주가무는 법으로도 금지하고 있는 사항이다. 관광버스 안에서의 음주가무로 대형교통사고가 빈발하고 있다. 이것을 근절하겠다고 노래반주기를 철거하라는 등 반짝 단속을 할 때뿐이지 그 시간이 지나면 도로 야미티볼 단속 전과 마찬가지로 돌아가고 만다. 우리의 술문화나 놀이문화가

이제는 건전한 방향으로 변화되어야 한다. 정부의 강력한 단속도 단속이지만 우리 스스로가 변화려고 하는 용틀임이 있어야 된다. 언제까지 달리는 차안에서 부어라 마셔라 엉망진창이 되게 놀 것이며 하루 몇 시간의 즐거움을 위해 흔들리는 차안에서 흔들림에 몸을 맡기며 그렇게 또 몸을 혹사시켜야 할 것인가?

차안에서의 노래는 계속 이어지고 있었다. 나는 성격상 시끄러운 분위기를 좋아하지 않는다. 조용히 명상에 잠기고 싶은데 차 안의 분위기가 명상에 젖어 있게 하지를 않아 차창에 눈을 두고 서해안 고속도로의 주변 경관을 감상하고 있었다. 일행들이 거의 다 노래를 불러갈 즈음 군산시내로 버스가 들어섰다. 시내에서 나운 2동 방향으로 계속 이동하여 아파트단지가 시야에 들어왔고 이곳 동사무소 공무원이 나와서 길 안내를 해 주어 나운 2동사무소 앞에 무사히 도착했다. 나운 2동 주민자치센터는 군산시가 10억 원이 넘는 예산을 투입하여 지하 1층 지상 3층으로 멋지게 잘 지었고 시설도 자치센터 목적에 부합하도록 세심한 신경을 쓴 흔적이 엿보이는 그런 현대식 건물이었다. 시설 전체를 일행들이 다 둘러보고 이곳 동장의 안내로 3층에 마련된 주민회의실에 들어가 파워포인트에 의한 브리핑을 20여 분간 듣는 시간도 가졌다. 브리핑이 끝나고 현관 앞에서 이 곳 동장님을 모시고 우리 일행 모두가 카메라의 렌즈를 응시하며 단체사진 포즈를 취했다. 공식적인 견학일정은 모두 끝나고 이제부터는 먹고 마시며 즐기는 시간만 남았다.

군산은 항구 도시다. 바닷바람 닳인지 가로변의 빛나무는 아직도 우중충하니 겨울철 모습 그대로였다. 꽃피울 기색조차 보이지 않는 듯 했다. 꽃놀이는 글렀다며 먹기라도 잘 먹자면서 예약해 놓은 횃집으로 자리를 옮겼다. 횃집에서는 통상 미리 주는 맛보기 음식들이 나온다. 일본말로 쓰끼다시라는 것을 여러 가지 많이도 내왔다. 몇 가지 주문했던 회들이 이어서 나와 생각 없이 당기는 대로 먹다보니 매운탕에 밥까지 나왔으나 일행들 거의 다 배가 불러 더 먹지 못한다며 물러나 앉았다. 나 역시 이것저것 많이 집어먹다 보니 더 이상 생각이 없었으나 매운탕이 보글보글 끓고 있는 것을 보고 있자니 아까운 생각이 들어 공기밥 반을 덜어내고 매운탕 국물에 말아 억지로 먹어두었다. 횃집

을 나와서는 시의원의 제안으로 바닷가에서 뱃전에 앉아 먹는 회가 감칠맛 난다고 하여 시내를 벗어나 바닷가를 찾아갔고 철썩이는 파도소리를 음악소리 삼아 꾸꾸미, 해삼, 명게, 낙지 등 자연산 어물을 회로 먹으니 횃집에서 먹었던 것과는 질적으로 맛이 달랐다. 신선한 그 맛 때문에 사람들이 모두 自然産 자연산을 찾는가 보다.

망망한 바다를 바라보며 잠시 동안 망중환의 시간을 보낸 후 버스에 올라 우리의 본거지를 향해 또 달리기 시작했다. 버스가 고속도로에 들어서자 예의 그 마지막 관광놀이 순서인 막춤의 춤판이 벌어졌다. 내게도 와서 같이 놀아보자며 팔을 잡아끌었으나 내 마음은 그 분위기에 전혀 동화여지지 않았다. 몇 번씩 와서 강요하기에 마지못해 통로에 나가서기도 했으나 몸은 딱딱하게 굳어져 있는 것 같았다. 배불리 먹고 적당히 취기도 올랐으니 기분들이 짱인가 보다. 폭풍 속 바다 같이 신명나는 춤판은 끝날 줄을 모르고 계속되었다. 귀가 멍멍할 정도로 크게 들어놓은 음악소리하며 일행들의 들고뽀이 가히 파도치는 바다 물결처럼 보여 졌다. 서서울 톨게이트에 진입해서야 광란의 춤판이 끝났다.

마무리 시간이라며 야자타임을 갖자고 했다. 야자타임이란 나이나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아무에게나 반말로 말하기인데 일정한 시간 내에 한다는 조건으로 끝난 후에는 사적인 나쁜 감정은 갖지 않는 것이 철칙이다. 그런 약속 하에 하는 것이기는 하지만 서로 존칭을 쓰며 경어로만 말하다가 반말 지껄이 하기가 조금은 민망스러웠다. 앞에서 뒤에서 상대방을 가리지 않고 공격성 반말이 시작되었는데 익살스런 말들이 오고 가는 게 재미있는 장난질이라 생각하니 괜찮은 것 같았다. 언제 나에게도 반말이 날아올까 생각하고 있었는데 위원회의 간사직함을 갖고 있는 40대 초반의 여성이 친구 이름 부르듯 50대 후반에 들어선 내 이름을 불러가며 “춤을 출 줄 몰라서 안 추는 거냐! 왜 춤도 안 추고 앉아만 있느냐!” 고 공격해 왔다. 나에게 마이크가 왔을 때 나 역시 그 간사의 이름을 동생에게 대하듯 불러가면서 반격을 했다. “버스 안에서 너희들이 추는 관광춤 즉 막춤은 地獄硫黃지옥유황불에 들어가기 위해서 연습하는 것처럼 불이 뜨거워 죽겠다고 앓 뜨거워 앓 뜨거워하면서 몸부림치는 것 같아

불쌍해 보였다. 그래서 같이 출 수 없었다.”고 했다. 일행 중 어느 좌석에선가 “아멘!” 하는 외침의 응답도 받았다.

춤추며 논다는 것 그것도 역시 찰나적인 歡喜환희일 뿐이다. 悅樂열락은 잠시 잠깐이고 그 시간이 지나면 적막 같은 허허로움이 찾아온다. 일행 모두가 지쳐 보였다. 밖에는 캄캄한 어둠이 찾아와 있었고 아무런 사고 없이 무사히 돌아와 작별의 인사를 나누며 일행들과 헤어졌다. 오늘 하루 日常일상에서의 脫出탈출이 유쾌, 통쾌, 상쾌했었는지 나는 지금도 도통 그것을 잘 모르겠다.

수필시대

너를 위해(For You)

차윤옥 시집
문예운동 / 값8,000원

Heaven and Earth

Chang Sik Kim 시집
문예운동 / \$10

마흔 아홉의 가을

이정희 시집
문예운동 / 값10,000원

‘우리의 옛노래 향가’ 를 더듬다

신금자 skj523s@hanmail.net

TV 드라마 ‘서동요’ 를 보다 떠오른 생각이다.

변변찮은 내게 학동기 어머니들이 아이들의 독서방향과 일기, 글쓰기에 대한 바른 이해를 요구할 때가 있다. 특히 방학이 되면 아이들이 게임오락에 시간을 몽땅 쏟을 것이기에 뭔가 유익한 정보를 얻어서 부모와 함께 할 숙제를 찾는 간절한 맘이랄까. 얼른 책장 구석진 곳에 먼지를 뒤집어쓰고 있던 고전 시가집을 꺼내들었다. 김한룡님의 ‘우리의 옛노래 향가’ 인데 어린이들을 위해 쉽게 접할 수 있게 잘 꾸며졌던 기억이 났다.

우리 국문학 유산 중에서 양식화된 서정시 형식의 최초 형태로써 鄉札향찰이라는 특수 문자로 표기된 신라 및 고려시대의 시가장르이다. 향가라는 명칭이 ‘균여전’ 에 최초로 보였고 이후 삼국사기와 삼국유사 등에서도 나타났으며 총25편이 수록되어 전해지고 있다. 우리 고유의 노래로 넓게는 삼국 이전의 시가로부터 좁게는 ‘서동요’ 이후 신라의 정형가요까지 아우른다. 다만 우리 노래를 향가라고 했을 때 고려속요도 향가라 할 수 있지만 학술적으로는 신라시대나 고려시대의 국어가요 중 향찰로 표기되어 전하는 것만 일컫는다고 하였다. 이를테면 한문이나 한글을 입혀서 전하는 것은 제외시켰다.

우리 민족이 훈민정음이 나오기도 전에 이두문자로 향가라는 시를 쓰고 낼



경남 거제도 출생
96년 월간 『순수문학』수필 신인상 등단
경기문학인협회, 경기수필, 한국수필가협회 회원
현 독서신문 편집위원 겸 칼럼니스트

리 불러진 사실은 참으로 자랑할 만하다. 도술가, 공덕가, 원앙생가 등이 불교 중흥기의 찬양 일색인 것으로 미루어 불교와 함께 향가의 전성기도 왔다고 보았다.

저자 김한룡 님의 부단한 애쓰심도 돋보였다. 아이들을 위해 어려운 향가의 내용을 쉽게 풀어서 이야기로 꾸몄다. 옛날 한문에서 온 용어들과 쓰임새 그리고 그 시대상황과 연대를 별첨으로 설명해 놓아서 이해하기에 한결 수월하다. 초교 5,6학년 이상을 대상으로 슬슬 흥미하다보면 그 뜻과 옛노래의 운을 살짝 맞볼 수 있도록 엮었다.

작자 '득오' 가 지은 '모죽지랑가' 를 보면 구구절절 애뜻하다. 한때 화랑으로써 삼국통일에 큰 공을 세워 영화와 권세를 누리다 무인의 시대가 쇠퇴하자 일개 부대장 앞에서도 큰소리 칠 수 없게 된 죽지랑을 바라보는 득오의 심정을 넘치게 실어놓았다.

간 봄 그리워하면
모든 것이 시름이로세.
아담하신 얼굴에
주름살 지려는고나.
눈 돌린 사이에나마 만나 뵈고 지어라.
죽지랑이시여!
그리운 마음에 가고 오는 길
숙 우거진 마을에 잘 밤 있으리.

이 외에도 노래에 얽힌 사연이 길이길이 남을 만한 재미난 향가로써 서동요와 처용가, 헌화가, 도천수비대가 등을 꼽을 수 있다.

부모가 함께 읽고 향가의 내력을 잘 설명한 후 아이들의 느낌이 어떠했는지 의견을 들어 공감대를 만들고 흥미를 돋워주어야 할 것 같다. 잘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일수록 다양한 생각을 받아주고 이끌어내 응원과 칭찬을 아낌없이 해주면 좀 더 과감하게 친해질 것이다. 아울러 부모가 간섭하며 공부시킨다는

부담이 없어져 스스로 생각잡기에 신바람 내지 않을까. 금세 가까이에 향가를 끼고 횡설수설 두둔할지도 모른다. 사실 옛 향가를 읽고 토론한다는 것이 초등학교 어린이들에겐 꽤 까다롭고 어려운 일임에 틀림없다. 그러나 한 번쯤 보아두었다가 중, 고등학교에 가서 다시 접하게 된다면 내용 파악과 동시에 글의 깊이와 향을 고감도로 느낄 수 있음은 확신해도 되리라. 그런 차원에서 처음 향가를 대하는 아이들에게 너무 많은 토론과 정확한 이해를 바라는 것보다 맛보기쯤으로 아이들 스스로 가사를 바꾸어서 향가를 지어본다든가 가볍게 의견교환을 하는 식이면 좋을 듯하다.

흥취를 이끌 가벼운 만남이 거듭 있어서 훗날, 우리 민족 정서를 담아낸 그 깊은 곳까지 느낄 수 있기를 위해 본다. **수필시대**

영원한 복

류정숙 시집
문예운동 / 값6,000원

타래 속의 여인들

박은주 소설
문예운동 / 값8,000원

손수건

윤수천 suchun42@hanmail.net

요즘 아이들은 손수건을 가지고 다니지 않는다. 손수건 대신 휴지를 쓴다. 손을 닦고 나서도 휴지, 땀이 나와도 휴지, 심지어 밥 먹고 난 입 언저리를 닦는 데도 휴지를 쓴다. 그러다 보니 손수건을 따로 지니고 다닐 일이 별로 없다.

내 어렸을 적만 해도 손수건은 필수품이었다. 밖에 나갈 일이 생기면 의복과 함께 챙겨야 하는 게 바로 손수건이었다. 손수건을 빠뜨리고 나섰다가 어머니한테 꾸중을 듣고 되돌아와서 챙겨 간 기억도 부지기수다.

게다가 지금도 생각나는 것은 초등학교에 입학하면 누구나 달아야 했던 하얀 손수건에 대한 아련한 추억이다. 옷웃 왼쪽 가슴에 이름표와 함께 달았던 그 하얀 손수건! 어머니가 아침마다 정성 들여 챙겨주던 그 사랑의 손수건!

거기에는 그냥 손수건만 달아주는 것도 아니었다. 어머니는 손수건을 달아 줄 때 “선생님 말씀 잘 들어라.”, “친구들하고 사이좋게 지내라.”, “웃어른 만나거든 공손히 인사해라.”는 등 간곡한 당부도 잊지 않았다. 아, 손수건! 그것은 인생의 첫 관문을 여는 입장권이었고, 세상을 향해 내딛는 푸른 발걸음이기도 했다.

요즘엔 어른도 손수건을 넣고 다니는 사람이 별로 없다. 꽤 나이가 지긋한



충북 영동출생

소년중앙문학상 동화당선. 조선일보 신춘문예 동시당선

동화책으로 '행복한 지게' '엄마와 딸' '인사 잘하고 웃기 잘하는 집'

'똥할아버지는 못 말려' 외. 한국아동문학상 및 방정환문학상 받음.

사람까지도 손수건을 안 넣고 다닌다. 대신, 어디서나 쉽게 구할 수 있는 휴지를 손수건 대용으로 사용한다. 이러다가는 손수건이란 어휘가 국어 사전에서 빠져나갈 날도 머지 않아 보인다.

환경에 관한 강의를 하러 다니면서 나는 새삼 손수건의 소중함을 발견했다. 즉 손수건 한 장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의외로 많다는 것을 깨달은 것이다. 간단히 땀을 닦는 일에서부터 식사 후 입 언저리를 청소하는 일, 세수 후엔 수건 대용으로 쓰며, 옷에 묻은 얼룩을 지울 때에도 손수건은 요긴하게 쓰인다. 또 산행 중 잠시 엉덩이를 붙이고 쉬고 싶을 땐 돛자리로도 제격이다. 그런가 하면 손가락이나 무릎 같은 데 난 상처를 동여 댈 때도 손수건은 좋은 보호대가 된다.

또 있다. 운동장에서 응원을 할 때, 사회적 문제로 거리에 나가 시위를 벌일 때도 손수건은 의사 전달의 효과가 충분하다. 손수건의 효용은 여기서만 그치지 않는다. 좋아하는 사람을 떠나보낼 때 이쪽의 마음을 전하는 연정의 표시로도 손수건만한 물건이 없다. 그리고 헤어질 사람이 불현듯 생각나고, 그래서 주체할 수 없는 그리움의 눈물을 남몰래 닦아내야 할 때도 손수건은 좋은 세척기가 된다.

아, 그리고 빼놓아서는 안 될 게 또 하나 있다. 인생의 한 세월을 살아내는 동안 적잖이 쌓이는 그 술한 설움과, 울분과, 한을 남몰래 흠치거나 삭이는 데도 손수건은 필히 지녀야 할 상비품목이다.

이런 손수건을 요즘은 보기가 힘들다. 이유는 단 하나다. 어딜 가나 휴지가 비치돼 있기 때문이다. 세면장이나 화장실은 말할 것도 없고, 음식점이나 휴게소 등 웬만한 공공장소엔 다 휴지가 있다. 아니 있는 정도를 넘어 넘쳐나고 있다. 가히 ‘휴지 왕국’이란 말이 나올 만도 하다.

그러나 조금만 깊이 생각한다면 손수건을 가지고 다니지 않는 데서 오는 결과는 엄청나다. 무엇보다도 환경의 파괴를 들 수 있다. 손수건 대용으로 사용되는 휴지는 누구나 알다시피 자연에서 얻어야 한다. 다시 말하면 나무를 베어야만 휴지를 만들 수 있는 것이다. 우리가 사용하는 휴지를 얻기 위해 수많은 숲이 사라지고 있다는 사실은 비극이다. 그렇다고 숲만 사라지는 것도 아

니다. 숲이 사라지면 동식물도 사라지게 돼 있다. 여기에만 그치지 않고 가뭄과 홍수의 원인도 된다.

이렇게 생각해 볼 때 손수건 한 장은 결코 작은 게 아니다. 내 주위를 청결히 하는 청소용 도구이면서 그것은 우리의 자연을 지키는 환경 지킴이 되는 것이다. 그리고 또 있다. 그것은 '사람'을 향한 따뜻한 마음의 증표요, 사랑의 메시지가이기도 하다.

그래서 생각난 건데, 더 늦기 전에 손수건 갖고 다니기 운동이라도 전개해야 할 것 같다. 이왕이면 사회 단체에서 이 운동을 맡아 전개한다면 더욱 좋지 않을까 싶다. 캠페인 이름은 '손수건 갖고 다니기'. 굳이 '운동'이란 말은 넣지 않아도 좋겠지. 왜? 거창한 것보다는 작은 것이 더 아름다운 법이니까. 그리고 거부감도 없을 테니까.

그 시작은 아무래도 월드컵이 열리는 올해가 좋지 않을까 싶다. 붉은 옷에 손수건이라? 운동장은 말할 것도 없고, 교실과 안방, 어느 곳 할 것 없이 응원의 깃발로 이만한 것이 어디 또 있겠는가.

생각하면 할수록 행복해지는 일이 아닐 수 없다. **수필시대**

뜨거운 계절 · 1

조정훈 소설
문예운동 / 값10,000원

뜨거운 계절 · 2

조정훈 소설
문예운동 / 값10,000원

어느 심포지엄 斷想^{단상}

윤행원 harvard@unitel.co.kr

청운의 꿈을 품고 한양으로 과거를 보러 갔던 영남선비들이 장원급제를 하면 기쁜 소식을 제일 먼저 듣는다는 聞慶문경. 옛 사람들에게겐 문경새재는 경사스러움과 반가움이 가득한 곳, 그곳 입구에 자리 잡은 아담한 문경관광호텔로 전국에서 대한민국 선비들이 구름같이 모였다.

‘자연 친화와 文學’ 이라는 주제로 하계세미나를 가졌다. 매년 시행하는 문인들의 큰 잔치요 행사다. 많은 문단작가들이 모처럼 만나서 서로 안부를 나누고 친목을 가지는 참으로 바람직한 모임이다. 경사스럽고 흥겨운 잔치다.

이런 행사로 인해서 많은 걸 배우고 새로운 경험도 얻지만 무엇보다 그동안 소원하고 뜨음했던 사람들을 만날 수가 있고 새로운 문인들과의 교분의 길을 틀 수 있어서 여간 좋지 않다.

작년엔 탄 일로 참석을 못했지만, 지지난 포항심포지엄에서 알게 된 몇 작가님들을 모처럼만에 만나니 반갑고 정겹다. 만남이란 이렇게도 즐거운 삶의 잔치다. 문단의 오랜 선배님도 만나고 갓 태어난 젊은 작가도 보게 된다. 그리고 보이지 않는 끈끈한 우정으로 영킨 하나의 든든한 울이 된다. 특히 개성과 인간미가 풍부한 매력적인 작가선생님을 만나면 즐거움 또한 상당하다.



京畿隨筆文學會會員, 韓國隨筆家協會理事
 韓國隨筆作家會理事, 韓國文人協會會員
 합천신문 객원논설위원
 1994년 自傳的 에세이집 '하고싶은 말 다 하지 말거래이'

호텔에서 여장을 풀고 샤워를 하고 나니 오후 세시, 곧바로 세미나가 기다리고 있었다. 주제 발표가 있었고 그리고 질의와 토의가 무르익었다. 세 시간여 진지한 심포지엄이 끝나고 저녁식사를 했다. 밤엔 모두 모여서 즐거운 여흥을 가졌다. 충주에서 모셔 왔다는 아름다운 여류 명창들의 흥겨운 공연이 끝난 다음, 전국에서 모인 작가들의 노래와 장기 자랑이 매우 뜨거웠다. 평소엔 매우 근엄하고 어렵게 보였던 작가 선생님도 놀 때는 동심어린 모습과 출중한 才氣(재기)로 모인 사람들을 한껏 웃기는 것을 보면 인간적인 성숙과 度量(도량)을 알게 되어 더욱 매력적이고 존경스러웠다. 신나고 즐거운 밤이었다. 이런 모임을 통해서 文友(문우)들의 개성과 재능과 멋을 알게 된다.

나는 사람과의 만남을 소중히 생각한다. 정을 주고, 정을 받고 그리고 즐긴다. 특히 따뜻한 情(정)과 지혜가 많은 老(노) 作(작) 家(가) 작가님과의 만남은 큰 즐거움이고 영광이다. 많은 人(인) 生(생) 事(사) 인생사를 배우게 되고 진지하고 끈끈한 사랑을 나누는 알뜰한 기회가 된다. 그래서 이런 모임은 환희에 찬 기다림의 행사다.

이번 심포지엄에서 특히 강조한 것은 隨(隨) 筆(筆) 家(가) 수필가도 詩(詩) 人(인) 시인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시를 쓰는 수필가는 문장이 훨씬 세련되고 함축적인 좋은 글을 쓴다는 것이다. 백번 지당한 말씀이다. 詩(시)와 수필은 참다운 사람됨을 위한 준엄한 刻(刻) 苦(苦) 各(각) 의(의) 길이다. 나이가 들수록 삶의 자세에 대하여 성찰을 하게 되고 自(自) 己(己) 修(修) 鍊(鍊) 자기수련을 하게 된다.

우리나라는 사회 전체가 급속히 고령화가 진행된다고 신문에선 야단이다. 우리 문단 수필계의 작가님도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다는 걸 실감한다. 지난번에 만났을 때는 그래도 창창해 보였던 선생님이 2년이란 세월이 지나고 보니 그만큼의 세월이 몸과 얼굴에서 흔적이 나타난다. 무심한 세월에 대한 안타까움도 있지만, 그동안 더욱 성숙한 인간적인 자태도 볼 수 있어 다행이다.

우리 인생, 세월은 그리도 빨리 지나간다. 특히 인생 육십 고개를 넘으면 신체의 변화는 하루가 다르다. 그리고 삶의 자세도 달라진다.

人生인생 육십년을 넘기면
 양상한 가슴에 별을 단다.
 살아온 年輪연륜만큼 계급도 높아진다.

나름대로 자기 삶을 챙기게 되고
 복잡한 세상을 이해하고
 참다운 친구를 가려내는
 슬기를 가다듬는다.

사람이 六十歲육십령을 넘긴다면
 세월을 삼킨 묵은 된장이 된다.
 그윽하고 감칠맛 나는
 삶의 파수꾼이 된다.

고관대작을 한 사람도
 대학 총장도
 큰 회사의 회장도
 한평생 농사만 짓던 농부도
 다만 인생의 겸손한
 老人노인일 뿐이다.

과거는 한낱 지나간 꿈이다
 미래는 회색빛 憂鬱우울이 버틸 뿐
 더 나올 것도, 더 못할 것도 없다.

찬란한 이력은 각자가 살아온
 구름처럼 지나가는 그림자다
 묵은 포도주처럼
 은은한 향기를 간직할 뿐

자랑스러운 훈장은 아니다.

다만, 그것은

老人노인으로서의 지혜와

따뜻한 삶을 엮어내는 겸손이

무르익을 때

勳章훈장으로써 빛이 난다

인간이 욕심을 넘기면

모두가 平凡평범한 老人노인으로 돌아간다.

삶과 죽음의 根本근본을 찾으면서

平均평균으로 삶을 만든다.

그저

조용히 웃으면서

삶의 理致이치를 살피고

큰사랑을 나누며 사는 세월이다.

나는 노래를 좋아한다.

돌아오는 차 안에서 노래를 세 곡이나 불렀다. 그런데 평소와 달리 숨이 가 빠지고 호흡조절이 안 되었다. 그래도 불렀다, 나중에 가만히 생각을 해 보니 인삼 술을 각 버스에 운반을 하고 갈증이 생겨 그 술을 반병이나 꿀꺽 마셨으니 정상적일 수가 있었겠다.

‘바람직한 인생은 詩사에서 일어나서 禮예에서 서며 音樂음악에서 완성된다.’는 論語논어의 말이 생각한다. 詩시를 사랑하고 禮예를 지키고 그리고 노래를 좋아하고 즐긴다면 좋은 인생을 누릴 수 있다는 말이다.

나는 아침저녁 걸으면서 출퇴근을 한다. 느긋하게 걷는 자투리 시간에 팝송

홍얼거리기를 좋아한다. 인생 후반기 조용한 세월에 이미 들어섰지만 노래를 부르면 소년처럼 기운이 나고 젊어지는 걸 느낀다. 아무리 세월이 가더라도 후랑크 시나트라처럼 카랑카랑한 목소리로 ‘my way’ 를 힘차게 부르고 싶은 게 내 바람이다. 남은 인생 어린아이 같은 천진한 동심으로 수필과 詩사를 사랑하고 노래를 부르면서 살고 싶다. **수필시대**

양귀비와 기억

정상근 소설

문예운동 / 값10,000원

거문도에 핀 동백꽃은

연구호 소설

문예운동 / 값10,000원

못물에 뜨는 별은

박윤희 시집

문예운동 / 값9,000원

아무 것도 아니면서 십만 명인 나

이상국 xyz111k@hanmail.net

대형 마트 진열장에 늙은 남자 뒷모습이 어른거린다.

누굴까. 낯설지 않다. 그러나 알 수 없다.

누굴까. 모른 채 지나쳐도 되건만 확인하고 싶은 건 뭘까. 누굴까. 곰곰 생각해 봐도 모를 일이다.

다음 창에 다시 나타나는 그림자. 멈춰 선다. 나다. 나의 뒷모습을 왜 몰랐을까. 내가 나를 모르다니.

카운터 아가씨가 안녕하시냐고 반색을 한다. 낯선 여자다. 여자 얼굴 기억하지 못하는 게 버릇이라, 남의 여자 뻔히 쳐다본다는 게 외설스럽고, 아내 아닌 여자를 애써 기억한다는 것이 도리가 아니지 싶었다. 그런데 그게 아니다. 낯모를 여인에게 인사를 받으면 내가 언제 이렇게 겹나하는 마음에 으쓱해지기도 하고, 혹 이런 여자 앞에 실수라도 저질러 훌륭한 분에서 개잡놈으로 추락할까 겁난다. 인격도야가 덜돼, 추락 가능성이 충분하고, 추락하면 복귀 불가능이라, 이제부터라도 여자 얼굴 아무지게 기억하리라. 이처럼 시장에서 마주친 여자도 아는 나를, 내가 나를 모르다니.

텔런트 ○○으로 오해받는다. 보자마자 “○○과 꼭 같아요”라는 말 들을 때마다 거울 속 꼼꼼히 뜯어보다 못해, 인터넷에 들어가 이미지 몽땅 꺼내 방안



〈현대 수필〉로 등단
제2회 공무원 문예대전 수필부분 우수상
경기수필 작품상 수상.
한국문인협회 여주지부장

가득 채워 보지만 영 아니올시다.

나를 아는 사람이 누구까. 아내. 30여 년 같이 살았으니 잘 알 거다. 아담한 키에, 정상에서 약간 웃도는 체중, 퇴직 연금으로 근근이 사는 남자. 성질머리 더러워 스트레스 과부하로 아내 협심증까지 만들어 준 남자……. 글쎄.

건강검진으로 머리에서 발끝까지, 내시경과 초음파로 위장에서 췌장, 심장, 간, 콩팥까지 샅샅이 훑어 본 의사. 그러나 내 두뇌의 무게, 염통의 크기, 맥박의 주기, 실핏줄의 표면적, 손톱의 두께조차 모른다.

어머니. 아니다. 어렸을 적 목욕시키던 엉덩이와 뺨, 우등상장 잘도 타 오던 아들로 각인된 채, 나이 60이 되어 허물어져가는 육신은 생각도 못하셨을 테니 더욱 아니다.

내 글 잘 읽어 주는 수필가 〇〇. 글 속의 장점만 읽고, 단점은 건너뛰며, 독서의 양과 질, 폭과 깊이까지는 간파하지 못했으니 그도 아니다.

이웃 친구들. 우유부단한 인간, 이기심 덩어리, 치사한 놈, 제 자랑만 늘어놓는 얼간이, 친구 생각은 손톱만치도 않는……. 애뜻한 정 한 조각 남아있다면 다행일까.

애인, 아니면 여자 친구, 또는 은사님, 이웃 집 아줌마, 눈 썩곳 손 흔들어 보이는 여자…… 아니다. 진열장에 스친 뒷모습만큼도 모른다.

그럼 나는 뭐냐. 장롱 속 뒤져 팬티에서 런닝 셔츠, T셔츠, 넥타이, 콤비, 싱글, 오버코트, 반바지, 잠옷, 와이셔츠, 면바지, 번갈아 벗고 입어, 디지털 카메라 앞에 셀프 포토 100여 장을 찍어 아무리 찾아도 찾는 나는 없다.

찾아지지 않는 나는 책상 위에 볼 펜 한 자루. 인간에게 왜, 어떻게 사용되고, 존재 이유조차 모르는 사물들 - 커피 잔, 의자, 컴퓨터, 사진 한 장 들어 있는 액자, 병나발 불다 남긴 소주병, 막내아들이 읽다 버린 만화책과 다룰 게 뭐냐.

죽어 울어줄 아들 셋과 아내, 선후배 몇 명, 어머니와 동생들. 그리고 세월 지나 빨리 잊혀질 이름 석자. 태워 한 줌 재가 되거나 부식할 육신. 연기처럼 사라질 286 컴퓨터 용량만도 못한 지식 정보로서의 나. 내가 태어나서 죽는 날까지 스친 사람들이 십만 명쯤 될까. 십만 명의 생각 속에 작은 잔상의 파편

들. 그게 나다. 그렇게 만들어진 파편들을 모아 이리저리 짜깁기를 해도 내가 아니며 나 또한 나를 모르니 아무것도 아니지 않는가. 혹시 도플갱어 (Doppelganger).

아니다. 아침이면 새롭게 피어나는 이슬, 반짝이는 햇살, 꿈틀거리는 물고기의 비늘……. 모든 사물은 과거에 오늘을 더한 확장된 새로운 사물로 다시 태어나는 것. 나는 매일 죽고 매일 다시 태어난다. 세익스피어를 모르던 나와 햄릿을 읽은 내가 다르듯 오늘 나는 어제의 내가 아닌 새로운 나다. **수필시대**

사랑하는 마음이 더 아름다워요

두안 시집
문예운동 / 값9,000원

겨울 수채화

박윤혜 시집
문예운동 / 값9,000원

그때가 그림네

정인자 inja8154@hanmail.net

언제부터가 설날이 오면 아련한 그리움이 피어난다.

풍족하지 못한 생활 속에서 자랐지만 설날만은 넉넉함을 갖추고 잔잔한 행복의 맛을 느꼈다. 호박을 아주 얇게 썰어 듬뿍 넣은 호박떡, 쑥이 잔뜩 들어간 쑥떡의 감미로운 생각을 하면 군침이 절로 난다.

쑥은 시나브로 뜯어 가마니씩 말려 두었다가 설날만 되면 명석 위에 펼쳐 놓고 쓱쓱 비빈다. 아주 곱게 비벼진 쑥을 가마솥에 푹 삶아 쓴맛과 시커먼 물을 적당히 뺀다. 아궁이는 장작불에 열을 받고 시루는 그 뜨거운 열기에 김이 솟구치면 구수한 냄새가 집안을 진동했다.

맛있게 익은 쑥떡을 떡판에 붓고 아버지는 떡메로 힘차게 내리치면 어머니는 물을 짹째 발랐다. 집에서 만든 콩고물의 고소한 향기와 손발이 척척 맞는 부모님의 정겨운 모습은 잊혀지지 않고 있다.

설날의 별미는 어머니께서 손수 만드신 조청, 한과, 식혜는 혀를 가만히 내버려두지 않았다. 조청을 몰래 훔쳐 떡을 찍어 먹었다. 그릇에 남은 것까지 헛바닥으로 어찌나 맛있게 훑아먹었는지 모른다. 더 먹고 싶은 그리움이 남아 있다.

설날에는 친척들끼리 모여 세배하는 풍습이 너무나 아름다웠다. 세배는 아



한국문인협회 회원
한국문인협회 화성시 지부장 지냄
한국수필 문학 회원, 경기수필 감사, 화성문화원 이사
화성시 기본 좋은 민요합창 단장

무렇게나 하는 것이 아니라 꼭 촌수대로 이루어졌다. 안방의 문지방이 촌수를 가리는 역할을 하였다. 촌수가 아래인 사람은 문지방 밖에서 촌수가 같은 사람은 문지방 안에서 세배를 하였다. 또 친척을 길거리에서 만나면 예를 갖추어 90도 각도로 굽히며 정성스럽게 절을 하였다. 설날에는 왜 그렇게 또래가 많았는지 놀이하기에 신이 났다. 놀이에서 지는 것을 싫어했지만 설날만은 봐주며 재미있게 놀았다. 슬그머니 쥐어 준 세뱃돈은 어깨를 으쓱하게 하였고 그렇게 즐거울 수가 없었다.

요즘은 핵가족시대에 '나' 만 생각하는 이기주의, 삼촌 고모 이모 숙모라는 순서 있는 질서가 사라지고 있지 않는가. 어른을 공경하라는 가르침도 줄어들고 부모님 말씀에 순응하며 자라는 자식 또한 없다. 일가친척을 접대하는 문화는 더더욱 없어지고 말았다. 어찌다가 동기간 집을 방문해도 눈치를 보며 잼싸게 도망 나오듯 나와야 속이 편안한 건 왜 그럴까?

가족 질서와 사회 질서도 사라지고 올바른 경쟁심도 없을 뿐 아니라 특히 '남'이라는 것을 무시한 채 홀로 걸어가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우리는 얼마나 삭막한 사회를 만들면서 살아가고 있는지. 옛날만큼 안 되더라도 조금이나마 '남'을 생각하는 여유가 있었으면 한다. **수필시대**

이브의 팍세

허경자 수필집

문예운동 / 값10,000원

꽃밭에 물을 주듯

정재섭 신문집

문예운동 / 값5,000원



말의 빠름과 느낌

• 몽테에뉴 •

機知_기지와 判斷力_판단력

신속하게 응변의 재주를 발휘함은 기지에 알맞는 일이고, 완만하고 침착하게 일을 처리해 나감은 판단력에 더욱 알맞는 일이다. 그러나 준비할 여유가 없으면 완전히 병어리 구실을 하는 사람과, 여유가 있어도 말을 더 잘하는 데에 보탬을 얻지 못하는 사람은 다 같은 정도로 비정상이다. 전하는 바에 의하면, 세베루스 카시우스는 미리 생각해 둔 바 없는 데도 말을 더 잘했고, 근면보다도 요행히 덕을 더 많이 보았으며, 말하다가 흥분하게 되면 도리어 그것이 그에 이롭게 되었다고 한다.

그래서 그의 적수들은 분노가 그의 응변의 효과를 배가시킬까 보아 그를 자극하기를 두려워했다고 한다. 나는 경험을 통해 이러한 부류의 천성, 극성스럽고 주도면밀한 事前熟考_{사전숙고}를 건디지 못하는 천성을 알고 있다. 이런 천성은 유쾌하고 자유로히 풀려 나가지 않으면 쓸모 있는 결과를 하나도 빚어내지 못한다.

어떤 작품들은 노력이 크게 작용한 흔적 없이 적어 놓은, 어딘가 거친 데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거기서 기름과 남포불 냄새가 난다고 말한다. 그러나 이 밖에도 잘 만들어 보려는 애태움과 자기 일에 너무 휘감기고 긴장한 안간힘이 천성을 꺾고 막아서 맴을 들게 하는 것과 같다. 그것은 마치 물이 세차게 넘치는 바람에 뚫어 놓은 좁은 흠통으로는 미처 빠져 나가지를 못하는 것과 같다.

機知기지의 生命생명

내가 말하는 천성은 카시우스의 분노와 같이 강렬한 열정으로 요동되고 자극 받기를 원치 않고(이런 동작은 너무 거친 것이기 때문에) 잡아 흔드는 것이 아니라 구슬려 주기를 요구하는 데가 있다.

그것은 현존하면서도 우발적인, 외부에서 오는 기회에 의해서 발효되고 눈 뜨게 될 것을 바란다. 그것은 단지 혼자 가게 되면 그저 다리를 끌며 맥이 빠지는 것이 고작이다. 자극이 곧 그의 생명이며 아름다움인 것이다.

나는 나 자신을 잘 제어하고 뜻대로 잘 가늠 줄을 모른다. 나 자신보다도 더욱 큰 권능을 갖고 있다. 기회와, 대담자와, 심지어는 나의 목소리의 움직임 까지도, 나의 기지에서 더 많은 것을 발견하게 한다. 그것은 말과 글보다도 기지에서 나오는 것들이 더 낫다.

또 이런 일도 있다. 나는 내가 필요할 때에는 나를 발견하지 못하고, 나의 판단력의 탐구에 의해서보다도 우연에 의해서 더 많이 나를 발견하곤 한다. 나는 이렇게 써 나가다가 어떤 뿌리 깊은 생각을 말해 놓을지도 모른다.(물론 다른 사람에게는 지지리 못났고 나에게만 낡고 다듬어진 것임을 각오한다. 겸손의 말은 그만하기로 하고, 이런 말은 각자 그 힘에 따라서 나오기 마련이다.) 나는 그것을 까맣게 잊어 버려서 내가 무슨 말을 하고자 했는지를 모르고, 오히려 남이 나보다도 먼저 발견해 주는 일이 가끔 있었다.

만약에 내가 거기다가 지우개를 댄다면, 몽땅 지워버릴 것이다. 언젠가는 우연의 힘으로 그것이 무엇보다도 더 뚜렷이 밝혀질 날을 갖게 될 것이다. 그

리고 나의 머뭇거림을 스스로 놀라워 할 것이다.

몽테에뉴(1533~ 1592)

프랑스 르네상스기의 사상가이며 모랄리스트. 보르도와 기타 여러 곳에서 면학한 후 페리그와 보르도의 법원에 서기로 근무하였고, 파리 궁정과외의 연락도 담당했다.

1571년 저택에서 은거생활을 하며, 가사의 관리 및 독서와 內省내성으로 나날을 보내며, 그 사이 기록한 隨想수상과 논고를 1580년 <에세이> 전2권 94장으로 간행했다.

1774년에는 <이탈리아 여행기>를 간행했고, 여행 중 보르도 시장으로 선출되었으며, 1588년에 <에세이> 개정판을 간행했다.

<에세이> 집필 초기에는 정념을 극복하고 죽음에 친해짐으로써 죽음에 대한 공포에서 벗어나 구애되지 않는 태도로써 생을 보내려는 실천적이고 극기주의적인 사상을 품게 되었다. 그 뒤 고대의 회의주의적 사상에 심취했고, 인간의 한계를 보며 겸허하게 사실과 사실을 쌓아 올려서 진리를 탐구하려 했다. 이 후 그는 인간 존중주의에 도달했고, 자기를 소재로 하여 인간의 살아가는 모습을 정밀하고 다각적으로 포착하려 했다. 모랄리스트로서의 뒤에 그의 사상은 루소·테카르트·파스칼 등에게 많은 영향을 미쳤다.

學問_{학문}

• 프란시스 베이컨 •

학문은 즐거움을 돕는 데에, 장식용에, 그리고 능력을 기르는 데에 도움이 된다. 즐거움으로서의 主效用주효용은, 閑居한거할 때에 나타난다. 장식용으로서 다른 사람과 담화할 때에 나타나고, 능력을 기르는 효과는 일에 대한 판단과 처리할 때에 나타난다. 숙달한 사람은 일을 하나하나 처리하고, 개별적인 부분을 판단할 수 있을지 모른다. 그러나 일에 대한 전반적인 계획·구상·통제에 있어서는 학문이 많은 사람이 낫다.

학문에 지나친 시간을 소비하는 것은 나태다. 그것을 지나치게 장식용에 쓰는 것은 허세다. 하나에서 열까지 학문의 법칙으로 판단하는 것은 학자의 버릇이다. 학문은 天稟천품을 완성하고 경험에 의하여 그 자체가 완성된다. 그것

은 天賦^{천부}의 능력이 마치 천연 그대로의 식물과 같아서 학문으로 剪枝^{전지를} 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학문이 경험에 의하여 한정되지 않으면, 그것만으로는 거기에 제시 되는 방향이 너무 막연하다. 약삭빠른 사람은 학문을 경멸하고, 단순한 사람은 그것을 숭배하고, 현명한 사람은 그것을 이용한다. 즉 학문의 용도는 그 자체가 가르쳐 주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어디까지나 학문을 떠난, 학문을 초월한 관찰로써 얻어지는 지혜에 속하는 문제이기 때문이다.

반대하거나 論駁^{논박}하기 위하여 독서하지 말라. 또는 믿거나 그대로 받아들이기 위하여, 혹은 얘기나 논의의 밑천을 삼기 위하여 독서하지 말라. 다만 裁量^{재량}하고 考察^{고찰}하기 위하여 독서하라. 어떤 책들은 그 맛을 볼 것이고, 어떤 책은 그 내용을 삼켜버릴 것이고, 어떤 소수의 책은 씹어서 소화해야 한다. 즉, 어떤 책은 다만 그 몇 부분만을 읽을 것이고, 어떤 책은 다 읽긴 하더라도 세밀하게 주의해서 읽을 필요는 없고, 어떤 소수의 책은 정성껏 주의해서 통독해야 한다는 뜻이다.

어떤 책은 또한 대리를 하여 읽게 할 수도 있고, 다른 사람이 만든 拔萃文^{발취문} 拔萃^{발취}문을 읽어도 무방하다. 그러나 그것은 어디까지나 대수롭지 않은 제목, 低級^{저급}저급한 종류의 책에 대한 얘기다.

그 밖의 경우 개요만을 추출한 책은 마치 보통의 증류수와 같아서 무미건조한 것이다. 독서는 충실한 인간을 만들고, 담화는 재치있는 사람을 만들고, 문필은 정확한 사람을 만든다. 그러므로 글을 적게 쓰는 사람은 기억력이 강해야 하고, 담화를 별로 않는 사람은 임기응변의 재치가 있어야 하고, 독서를 적게 하는 사람은 모르는 것도 아는 것처럼 보일 만한 간교한 꾀가 있어야 한다.

역사는 사람을 현명하게 하고, 詩作^{시작}시작은 지혜를 주고 수학은 섬세하게 하고, 자연과학은 深遠^{심원}심원하게 하고, 윤리학은 重厚^{중후}중후하게 하고, 논리학과 수사학은 담론에 능하게 한다. 학문은 발전하여 인격이 된다. 그뿐 아니라, 적당한 학문으로 제거할 수 없는 지능의 장애나 고장이란 있을 수 없다.

그것은 마치 육체의 질병에 대하여 거기에 적합한 치료운동이 있는 것과 같다. 예를 들면, 투구는 결석병 신장에 좋고, 사격은 폐와 가슴에 좋고, 가벼운

보행은 위에 좋고, 승마는 머리에 좋은 것들이다. 그러므로 만일 사고의 침착성이 없다면, 수학을 배우게 하는 것이 좋다.

그것은 머리가 조금이라도 산만해지면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하기 때문이다. 만일 識別力(식별력)이 없고, 차이를 발견하는 능력이 부족하다면, 스콜라 철학자를 연구케 하는 것이 좋다. 그들은 머리털 하나라도 갈라보려고 하는 치밀한 사람들이기 때문이다.

만일 문제를 충분히 흥미하고, 한 가지 것을 증명하고 例證(예증)하기 위하여 다른 것을 제시할 능력이 불충분하다면, 법률의 판례를 연구하게 하는 것이 좋다. 이와 같이 모든 정신적 결합에는 거기에 각기 특수한 요법이 있는 것이다.

프란시스 베이컨 (1561~ 1626)

영국의 철학자·정치가·수필가. 그는 엘리자베드 1세 때부터 정치가로서 활약함과 동시에 사상가로서 근대적 사상의 확립을 위해 많은 노력을 했다. 그는 당시 중세의 스콜라 철학적 사고를 배격하고 아리스토텔레스적 演繹法(연역법)을 배척하여 사실을 기초로 하는 경험론적인 歸納法(귀납법)을 주장했다. 저서로는 《新論法(신론법)》, 《학문의 진보에 대하여》, 《뉴우 아틀란티스》 등이 있으나, 그의 이름을 문학사상 不侯(불후)의 것으로 만든 것은 《수필집》이다. 그의 모든 저술에 일관되어 있는 것은 《이 세상에 있는 어떠한 것일지라도 인간의 연구와 탐구의 대상이 아닌 것은 없다》고 한 정신이며, 이것은 얼마 뒤 흄을 거쳐 근대사상으로 개화되어 현대에 이어진다.

내가 信賴(신뢰)하는 인생

• 줄리안 헉슬리 •

나는, 인생이 반드시 사는 보람이 있다고는 믿고 있지 않지만 많은 사람들에게 있어서 그럴 수 있다는 것만은 믿고 있다. 나는 또 인류는 개인으로서 집단으로서, 또한 인류전체로서 각각 이 세상에서 뜻하는 대로의 목적을 수행할

수 있다고 믿고 있다.

실상·無定見무정견·輕率경솔·걱정·懶怠나태·실패 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믿고 있다. 그러나 목적은 반드시 우주나 혹은 우리의 實在(실재)에 본래부터 具備(구비)되어 있다고는 믿지 않으며 인류는 뜻한 대로 목적을 수행해야 한다고도 믿지 않지만 그러한 목적을 발견하는 일만은 할 수 있다고 믿고 있다.

나는 하나의 神(신)도, 다수의 신의 존재도 믿지 않는다. 신이라는 개념은 많은 진실한 요구를 갖는 경험에서 만들어지고 있겠지만 그것은 잘못된 것인 듯하다. 그 개념은 다소 인간적인 권력이 세계를 온통 통제하고 있다는 전혀 잘못된 假定(가정)에 의한 것으로 생각된다.

우리는 우리의 통제 이상의 힘, 不可解(불가해)한 불행과 죽음 등을 만난다. 또한 狂喜(광희)하고, 보통의 자기 이상의 것과 合一(합일)된 신비적인 느낌을 갖는 일도 있다. 罪科(죄과)의 무거움을 느끼고, 생활을 갑자기 바꾸어서 새롭게 한다거나, 그러한 짐이 없어져서 갑자기 새로운 생활에 들어가는 수도 있다.

唯神論(유신론)의 종교에서는 하나의 신, 또는 많은 신이 존재하고 있다는 근본적인 가정에 의해 전부 이상에서 말한 진실의 경험의 요소를 신앙과 실행으로 一體(일체)가 된 것으로써 짜 넣어버린 것이다.

나는 이 근본적인 假定(가정)은 〈누가 또는 무엇이 우주를 지배하고 있는가〉라는 그릇된 질문과 같은 결과가 된다고 믿고 있다. 우리가 아는 한에서는 각자는 각자가 지배하고 있다. 그리고 국가와 그 지배자에다 완전히 類推(유추)하는 것은 확실히 잘못이다.

우리가 경험하는 바와 같이 가령 신이 우주의 뒤나 위에 존재한다고 해도 그러한 권력에 관해서 識見(식견)을 가질 수는 없다. 왜냐하면 역사적, 종교상의 참된 신들이라는 것은 자연계의 非人的(비인적)인 사실과 우리 내부의 심적 생활의 사실과를 擬人化(의인화)한 것이기 때문이다.

우리는 참된 〈종교상의 신들이란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대답할 수가 있으나 그 경우에 우리는 신들을 그 성분으로 분해하고, 그 〈신성〉이라는 것을 사람들의 상상, 감동 및 합리화에서 만들어낸 것을 보여주는 이상의 일을 할 수

없다.

〈신은 어떠한 성질을 갖고 있는가〉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그러한 것이 실재하고 있는지 어떤지 아는 방법이 없으므로 대답할 수가 없다.

不死불사라는 것에 관해서도 마찬가지이다. 우리의 현재의 능력으로는 死後 사후에 사는가, 어떤가라는 질문, 더구나 사후의 생활은 어떤 것이라는 질문에 대해서 명확한 대답을 할 방법이 없다.

그러한 상태이므로 사후의 생활에서 救世구세를 성취한다는 문제에 몰두하는 것은 시간과 에너지를 낭비하는 것이 된다. 그러나 신의 개념이 실제 경험의 벽돌로써 쌓아올려진 것과 마찬가지로 구세의 개념도 또한 〈만들어진〉 것이다.

만약 우리가 구세라는 말을 이 현세계의 말로 번역했다고 하면 그것은 우리의 성질의 각 부분(잠재의식적인 깊은 곳에서 어찌다 닿게 되는 높은 곳까지를 포함하는) 간의 조화를 획득한다는 의미가 되고, 또한 우리와 그 外界외계 자연계 뿐만 아니라 인류의 사회도 포함해서 와의 調整조정이 만족할 만한 관계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의미 한다. 이 의미에서의 구세를 성취하는 것은 가능하며 그렇게 하려고 목표 삼는 것은 바른 일이라고 믿고 있다. 또한 보통의 우리 자신보다 한층 더 큰 것-그것은 가령 신이 아니더라도 외부로부터의 경험과 내부의 성질이 비정상적으로 넓어졌기 때문에 우리의 내용이 단번에 확장된 것일지라도-과 일체화한 감각을 얻는 것은 가능한 일이며 가치 있는 일이라고 믿고 있다. **수필시대**

줄리안 헉슬리 (Huxley, Julian: 1887~ 1895)

영국의 생물학자이고 유전학자이며 1887년에 태어나서 옥스퍼드에서 수학한 후 옥스퍼드대학, 텍사스의 휴스턴대학·버 연구소·런던의 킹대학에서 교편을 잡고 로이알 인스티튜션에서는 생리학의 교수였다. 그의 상대성 成長성장의 연구는 유명하다. 주저는 〈生命생명의 흐름〉, 〈상대성 성장의 문제〉 등이 있다.



옛날 수필이론에 발목 잡힌 우리의 현대수필

• 金 鶴갑학 •

crane43@hanmail.net

I. 변화를 외면하는 수필문단

세상은 빠른 속도로 변한다. 나날이 변하고 시시각각으로 변한다. 이 변화에 순응하느냐 낙오하느냐에 따라 결과는 정 반대로 나타난다. 이것은 어느 분야이건 다를 바 없다. 항상 변화를 추구하는 것이 시대적 소명이기 때문이다.

미디어의 변화는 예술계의 판도를 완전히 바꾸어버렸다. 활자매체시대의 총아였던 문학이 전자매체시대에 접어들면서 적응하지 못해서 다른 예술장르보다 뒤로 밀려나게 된 현실을 되돌아 볼 필요가 있다. 소리가 중심이었던 라디오시대를 거쳐 소리와 영상까지 결합여진 텔레비전시대로 접어들면서 문학



1980년 <월간문학>으로 등단
 <아름다운 도전> 등 수필집 8권
 전북수필문학회 회장, 임실문인협회 회장, 대표에세이문학 회장, 전북문인협회 회장,
 전북펜클럽 회장 역임, 전북대학교 평생교육원 수필창작과정 전담교수
 국제펜클럽 한국본부부 이사장

은 완전히 경쟁대열에서 탈락하고 말았다. 흑백시대를 거쳐 컬러텔레비전시대를 맞아 이 뉴미디어와 손을 잡은 음악, 미술, 연극, 무용, 사진, 국악 등 다른 예술은 활기에 넘치는 전성시대를 구가하기에 이르렀다.

특히 광대로 취급받던 예술인들이 오늘날 하늘의 별(스타)이 되었는데 선비라고 존경받았던 문인들은 그 위치가 어떻게 되었는가? 그것은 바로 소득의 격차로 나타났다. 오늘날 텔런트나 영화배우, 가수들의 수입과 문인들의 수입을 비교해보면 그 해답은 명약관화해진다. 연예인들은 요즘 젊은이들의 우상이 되고 있다. 이들 우상들 가운데서 어떤 이들은 국회의원이 되고 또 어떤 이는 장관이 되는 게 예사롭게 되었다.

이제는 컬러텔레비전시대를 지나 인터넷시대에 이르렀다. 문학이 옛날의 영광을 되찾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인터넷과 효율적으로 접촉할 수 있는 방안을 시급히 찾아야 한다. 그것이 문학이 살 길이요, 문학의 한 갈래인 수필이 앞으로 걸어가야 할 길이라니 싶다.

II. 수필의 미래를 위해서라면

문학의 전반적인 실정이 이처럼 열악할 때 가장 취약 종목인 수필의 경우는 더 말할 무엇할 것인가? 우리는 흔히 수필이 21세기를 주도할 문학이며 미래 문학이라고들 이야기한다. 그러면서도 그런 시대를 앞당기려 노력하지도 않고, 그냥 감나무에서 홍시가 떨어지기를 기다리듯 나무 밑에서 입을 벌리고 있는 게 요즘 수필가들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우리 수필은 과거의 몇 가지 수필이론에 발목이 붙잡힌 채 한 걸음도 앞으로 나가지 못하고 엉겨주춤 서 있는 게 현실이다. 마치 코뚜레에 얽매인 소가 줄을 묶어놓은 나무 근처만 빙빙 맴돌 수밖에 없듯이.

한국수필의 문학이론이 나오기 시작한 것은 1934년 이후부터다. 현동영의 '수필문학에 관한 覺書4서' (조선일보 1934.10.), 한세광의 '수필문학론' (중앙일보 1934.7.), 김광섭의 '수필문학소고' (문학 1935), 임화의 '수필론'

(1938), 김진섭의 ‘수필의 문학적 영역’ 등이 그대표적 이론들이다. 이밖에도 1960년대를 거쳐 오늘에 이르기까지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수필이론과 그 이론을 묶은 저서들이 쏟아져 나왔다. 하지만 초창기 몇몇 이론가들이 발표한 그 수필이론들이 족쇄가 되어 아직까지도 우리 수필을 옥죄고 있어 안타깝다. 어쩌면 그 족쇄가 먼 훗날까지도 우리 수필의 발목을 붙잡게 되거나 않을까 심히 걱정이다.

“수필이란 글자 그대로 붓 가는 대로 써지는 글일 것이다.”(김광섭)

“수필은 무형식의 문학이다.”(김광섭)

“20대에 시를 쓰고 30대에 소설을 쓰고 40대에 수필을 쓴다.”(피천득)

“수필은 청춘의 글은 아니요, 서른 여섯 살 중년고개를 넘어선 사람의 글이며, 정열이 나 심오한 지성을 내포한 문학이 아니요, 그저 수필가가 쓴 단순한 글이다.”(피천득)

수필평론가들이나 수필가들은 이 말에 대하여 치열한 異論(이론)을 제기하면 서도 그 隨筆理論(수필이론)의 잘못과 그로 인한 후유증을 말끔히 씻어내지 못하고 있다. 수필을 사랑하는 이들이야 거두절미하고 인용한 그 이론의 부당성을 잘 알기에 반론을 제기하지만 수필에 애정이 없는 이들은 얼씨구 좋구나 하면서 그 인용문을 앞세워 수필의 위상을 깎아 내리는 무기로 사용하고 있다. 노루 뼈 우려먹듯 하는 처사가 못마땅하다. 그릇된 어제의 수필이론에 발목이 잡혀 우리의 현대수필이 한 발짝도 미래로 나가지 못한다면 그건 참으로 불행한 일이 아닐 수 없다.

수필은 공해(公海 Public Sea)나 마찬가지로였다. 초창기에는 시인, 소설가, 교수, 문화부기자 등이 자기네 주 업무를 수행하면서 餘技(여기)로 무주공산이던 수필의 영토에 드나들며 수필을 낚았었다. 그러기에 한 때 수필이 ‘여기의 문학’이란 소리를 들었던 것이다.

그러나 1970년대부터는 한국일보와 조선일보 등 신문의 신춘문예와 각종 문예지의 신인상 제도로 인해 전문수필가들이 배출되기 시작했다. 그로부터 30여 년이란 세월이 흘렀고 많은 전문수필가들이 배출되었지만 아직도 수필

이 수필가들만의 專管水域 전편수역이 되지 못한 것은 아쉬운 일이다. 일부 신문이나 잡지 편집자들은 수필가들에게 시나 소설 등 다른 장르의 원고를 청탁하지 않으면서 다른 장르의 문인에게는 수필원고를 청탁하는 게 예사롭다. 아직 까지도 수필가들이 수필의 영토를 확고하게 지키지 못한 탓이다. 이는 마치 축구경기를 하면서 전문 골키퍼 없이 이 선수 저 선수에게 돌아가면서 적당히 골문을 지키라고 하는 것이나 다를 바 없다. 지금 우리나라에서 활동하는 전문수필가들이 시인의 절반에 가까운 2천여 명이 넘는다는 데 아직도 수필이란 놀이마당조차 지키지 못한다는 것은 문제다. 이것이 우리 수필의 현주소다.

Ⅲ. 지금은 수필의 춘추전국시대

수필의 전성시대가 도래한 것은 사실인 것 같다. 전국적으로 고을마다 차려진 수필공부방에 수강생들이 몰리고 있고, 지역마다 수필동인회가 생겨서 동인지를 내며 활발하게 창작활동을 펴고 있다. 문학평론이나 다른 문학장르에서 평생을 바친 이들이 노후에는 옛날의 서당 같은 수필공부방을 열고 수강생들을 모아 수필을 가르치는 경우가 크게 불어나고 있다. 그게 요즘 우리 문단의 한 특징이다.

요즘 우리나라에서 발행되는 종합문예지가 2백여 종이 넘고, 수필전문지만 해도 16종이나 출간되고 있다. 종합문예지나 수필전문지들이 신인상제도를 마련하여 수필가를 양산해내고 있다. 올 봄에는 월간 ‘에세이 플러스’ 라는 또 하나의 새로운 수필전문지가 태어난다고 한다. 이거야말로 수필의 전성시대임을 반증하는 증거다. 심지어는 현대문학수필작가회가 전자책 ‘월간 e-수필’ 까지 창간했으니 종이 책을 넘어 전자책까지 수필의 영토는 훨씬 더 넓어졌다고 하겠다.

이들 문예지나 수필전문지들이 해마다 수많은 신인수필가들을 배출하고 있다. 이들 신인들은 수필이란 바다에 나와서 치열한 살아남기 전쟁을 치뤄야 한다. 3억 마리의 정자들이 치열하게 경쟁하여 그 중 한 마리가 난지를 만나

임신이 되듯이 말이다. 어떤 세상이든 적자생존의 법칙에서 벗어날 수는 없는 일이다. 그들 신인수필가 중에는 해가 뜨면 사라지는 아침이슬 같은 낙오자가 있다는 점도 깨달아야 할 것이다.

요즘에는 각 문예지나 수필전문지마다 수필평을 싣고 있다. 좋은 현상이다. 그런데 일부 수필평론을 하는 분들 중에는 수필인구의 증가에 비해 수필작품의 수준이 높아지지 않는다고 우려하는 이들이 더러 있다. 그게 현실일지도 모른다. 그러나 그 말은 나무 한 그루를 보고 숲을, 모래 한 알을 보고 사막을 이야기하는 것 같아 공허한 이야기로 들리기도 한다. 또 수필을 재는 그들의 잣대가 옛날식 그대로라는 점도 문제라면 문제다.

어떤 이는 수필평을 쓰고 좋은 수필을 고르려고 1년에 1,800편의 수필을 읽었다며 자랑하기도 한다. 그런데 등단수필가 2,000명과 미 등단 수필가를 약 1,000명 정도로 추산하여 모두 3,000명이 1년에 한 사람 당 2편씩만 수필을 발표해도 무려 6,000편의 수필이 쏟아진다는 계산이다. 또 이들 작품이 각종 문예지와 수필전문지, 동인지, 사보, 신문 등에 발표될 테니 그 방대한 자료를 누가 무슨 재주로 다 구해서 읽을 수 있겠는가?

실제로 우리나라에서 창작되는 수필이 1년에 만 편도 훨씬 넘을 것이다. 그러나 나무 한 그루를 보고 숲을 이야기하며 모래 한 알을 보고 사막을 평한다고 비판한다면 무어라고 변명할 것인가?

IV. 우리 수필이 가야 할 길

문학이 아니, 수필이 언제까지나 제자리에서만 맴돌기를 바라는 이는 없을 줄 안다. 수필도 더 넓은 세계로 나가야 할 것이다. 지금 동남아를 비롯한 세계 여러 나라에서 韓流熱風(한류열풍)이 뜨겁다는 보도가 잇따르고 있다. KBS에서 방송되었던 드라마 '겨울연가'가 일본을 비롯한 동남아지역에 소개되면서부터 한류열풍이 뜨겁게 불어오기 시작했던 일을 누구나 기억할 것이다. 요즘에는 드라마는 물론 영화, 뮤지컬까지 한류열풍을 확산시키는데 한몫하고 있

다. 또 인기가수 ‘비’가 동남아는 물론이고 뉴욕까지 진출하여 대단한 인기를 끌었다고 하지 않던가? 이러한 한류열풍을 일으키는 다른 예술장르를 문학이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할 것이다. 그런데 문학은 강 건너 불 구경하듯 하는 것 같다. 아니 남의 일처럼 여기는 것 같다. 이 문제에 대하여 고민하는 문인이나 문학단체도 없는 것 같아 아쉽다.

수필을 비롯한 문학은 왜 이 좁은 국내시장에서만 자용을 거두려 하는지 모르겠다. 문학이 더 넓은 세계로 나가려면 번역이 더 활성화되어야 할 것이다. 그래야만 우리문학이 세계로 뻗어나고 우리문학도 한류열풍에 동참하는 기회를 얻게 될 것이다. 이와 같은 문학의 세계화와 한류열풍 확산에는 여러 장르 가운데서 수필이 가장 적격이라고 생각한다.

드라마나 영화, 음악도 따지고 보면 모두 우리말을 사용한다. 다만 외국에 수출할 때는 그 나라말로 자막이나 가사를 번역해서 소개해야 한다. 문학 특히 수필도 한글을 사용하는 것은 한류열풍을 불러일으키는 다른 예술장르와 다를 바 없다. 수필도 작품만 좋다면 드라마나 영화, 음악처럼 외국에서 한류열풍을 일으키지 말라는 법이 없을 것이다. 것처럼 원대한 꿈을 키우는 일이 수필의 미래를 열어 가는 방안이 되었으면 한다.

그런 날을 앞당기기 위해서는 우리 수필의 발목을 잡고 있는 애매모호한 낡은 수필이론에서 과감하게 벗어나야 한다. 계란이 껍질을 깨트려야 튼튼한 병아리가 탄생될 수 있듯이 낡은 수필문학이론에서 과감히 벗어났으면 좋겠다.

독자의 입맛이 변해서 거들떠보지도 않는데 옛날 메뉴로만 식탁을 차린다면 어떻게 되겠는가? 먹거나 말거나 식탁을 차리는 수필가가 있다면 그는 바보일 것이다.

독자의 변화된 의식을 꿰뚫어보고 독자의 필요(Needs)와 요구(Wants)를 헤아려 한 발 앞서서 작품을 창출해 낼 수 있는 역량을 길러야 오래 살아남는 수필가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수필문학이 미래문학으로 온 문예를 주름잡을 날도 멀지 않았다고 한 아나톨 프랑스의 예언에서 우리는 다시 수필의 희망을 찾아야 할 것 같다. **수필시대**



한국文壇_{문단}, 남기고 싶은 이야기·4

· 성 기 조 ·
skj907@hanmail.net

별을 보는 作家작가 金東里김동리

김동리 선생을 가깝게 모시고 여러 가지 일을 하다 보니 선생의 몸가짐이나 말씀에서 감화되는 것도 있었고, 또한 마음 깊이 간직해야 할 것이 하나 둘이 아니었다. 선생은 누구보다 건강하셨고 여러 방면에서의 활동은 어떤 다른 사람도 따라가지 못했다. 또한 酒種주종을 가리지 않고 술을 마시는 일은 부럽기까지 했다.

선생이 40을 갓 넘었을 때의 일. 명동에 있던 명천옥에서 酒會주회를 주관하실 때에는 참석자들이 주홍이 도도하여 노래를 부르게 될 때 쬐이던 돈을 내고 노래를 부르도록 유도해서 그 돈으로 술값을 치르던 일은 다른 사람들은 감히 생각해내지 못한 일이었다. 고희(1983년)를 지났을 때에도 50대 못지 않게 술을 즐겨, 밤마다 따끈하게 데운 정종 몇 홉에 맥주·양주·소주를 가리



시인
국제PEN클럽한국본부 명예이사장
〈수필시대〉, 〈문예운동〉 발행인
중국 낙양대학교 석좌 교수
시집 : 『혼자 말하는 나무』 외 저서·편서 140여 권

지 않고 드시는 주량을 보면 참으로 부러웠다.

“자, 한 잔-.”

“요즘은 몸 때문에…….”

“젊은데 뭘. 몸 좀 그만 아껴요.”

선생의 애정어린 핀잔(?) 때문에 결국 나는 술을 피할 수 없었다. 대개 저녁에는 댁에서 술을 마시는 때가 많아, 손소희 여사로부터 ‘술쟁이’란 말씀을 듣고도 싱긋이 웃는 모습은 철없는 어린이의 얼굴을 대하는 것 같기도 했다. 차는 언제나 손수 끓여 내고 술도 또한 손수 데워서 따라주는 다정스러움은 이 老大家노매가에게서만 받을 수 있는 대접이었다.

이 나라 안에 나이 든 분들이 수없이 많지만, 이렇게 정겹게 남을 대접할 줄 아는 분은 드물다. 적당히 체면을 차리고 거드름을 피우는 것은 많이 보았지만, 이 분이 하시는 것처럼 인정이 넘치는 응대에는 가슴이 활짝 열리는 것



왼쪽부터 손소희 여사(작가), 필자, 황명(시인), 김동리 선생. (83년 서울시장 주최 문인 망년 모임에서)

같다. 선생께서는 차 끓이는 것이 무슨 취미나 되셨는지 손 여사까지도 선생이 끓이는 차가 아니면 맛이 없다고 말씀하셨다.

이 분과 가끔 지방에 강연도 가고 여행을 하는데, 으레껏 안주머니에서 수첩을 꺼내들고 생각나는 것들을 메모하신다. 수첩에는 간단한 詩句사구가 메모 되는데, 소리 내어 읊조리며 마음에 드는 구절을 얻게 되면 파안대소하신다. 그 때의 천진스런 모습이 오래도록 머리속에 남는다.

이 분은 아침에 세수하시는 시간이 길다. 안면 맛사지를 하시기 때문이다. 맛사지로 혈액순환을 잘되게 하면 주름이 퍼진다는데, 선생은 아침 세수할 때 양손으로 가볍게 얼굴을 문지른다. 젊은 여성들의 맛사지는 밤에 하지만 선생은 아침에 하신다. 그래 그런지 얼굴은 오십대 후반처럼 젊어 보이기만 한다. 그리고 언제나 힘이 솟아 나시는 모양이다. 몸의 움직임이 가볍다.

“내 학생 시절엔 단거리 선수였던 말야.”

정말 단거리 선수 모양 가볍게 몸을 움직이신다. 칠십이 넘은 노대가의 몸가짐이라고는 생각할 수 없다. 심부름하는 사람을 부르다가도 시간이 걸리면 짹짹 일어서신다. 술병을 들고 오신다든가 아니면 그릇을 가지고 오신다. 참으로 몸이 가볍다.

술이 거나하면 흘러간 옛 노래를 줄줄이 꿰신다. 눈을 지긋이 감고 목청을 돋궈 노래 부르면 장내는 조용해질 수밖에 없다. 어떤 때는 곱게 노래가 끝나지만, 감기라도 들었으면 노래는 중도에서 끝나고 목젓에 손이 올라가며 “내 목이 쉬어서…….” 이렇게 열정계 말씀하시지만 사실은 노래를 다 못부른 것을 여간 섭섭해 하시지 않는다. 가끔 손여사와 싸움을 하실 때는 얼굴이 빨갱게 달아오르고 두 눈이 조리개를 단 것처럼 작아지면서 이마에 주름이 잡힌다. 몹시 못마땅한 모양이다. 그래도 이내 곱이 풀리고 말씀을 나눈다. 특별히 사과한다는 절차가 필요한 것이 아니다. 있는 그대로 생각 그대로 말해버리면 속이 편해지고 후련해지시는 모양이다.

밤에는 늦게까지 글을 쓰시거나 책을 보시다가 아침의 기상은 대개 열 시 전후. 가볍게 식사를 하신 후 토요일이나 일요일이면 경마장으로 가신다. 이는 선생에게는 빼놓을 수 없는 운동이며 일과로, 가진 돈을 모두 잃게 되면 꾸어서라도 시간을 보내는 집착력이 있다. 이는 여름이나 겨울이나 똑같다. 춥거나 덥거나 마찬가지로. 달리는 말에 승부를 거는데 묘미가 있는 모양이다.

한 번은 나에게 “같이 가면 좋겠지만 바쁜 사람 맞들여 놓으면 안돼서…….” 라고 말씀하시며 혼자 가신 때도 있다. 자신보다 남의 사정을 먼저 생각하는 산뜻한 인정, 후배를 돌보아 주시되 여러 가지 사정을 챙겨 무리없이 뒤를 밀어 주시는 알뜰한 인정. 또한 文壇문단 일에 관한 한 개개인의 등단이나 수상, 작품명까지도 환하게 알고 있는 기억력. 어눌한 것 같으면서 그렇지 않은 말재주. 귀가 나쁘다고 하지만 필요없는 말은 들은 체도 하지 않고 있다가 꼭 들어야 할 것은 “응 뭐지? 뭐지?” 하며 몽땅 듣는 총명은 장수하실 것으로 생각된다.

필요없는 것까지 들어서 속상할 것은 없기 때문이다. 청력이 나쁘다지만 정말로 필요한 것만 골라 듣는 분별력은 대단하다. 이 분은 지금까지 말한 것 이외에도 정말 멋진 데가 많이 있다. 특히 빼놓을 수 없는 것은 밤중에 뜰에 나가거나 또는 여행 중일 때는 호텔의 옥상에서 별을 쳐다보며 깊은 사고에 잠기는 일이고, 나무를 무척 사랑하는 일이다. 살고 계시는 집의 당호도 樹南閣 수남각이다. 꽃보다 나무를 사랑하고, 밤하늘의 별을 쳐다보는 모습은 한 시대의賢者賢자를 만나 보는 것 같다. 한참 바쁘다가도 언제 그랬냐는 듯 침착하고, 도란도란 이야기하다가도 크게 웃는 얼굴은 멋쟁이 중의 멋쟁이다.

현대문학의 큰 나무 東里동리 선생

선생의 아명은 昌鳳창봉, 호적명은 昌貴창귀였다. 그러나 이들 이름보다 始鐘시종이란 이름을 좋아했고 그보다 東里동리로 불리기를 더 좋아했다. 녀석지 못한 집안의 5남매 중 막내로 태어나 젖배를 꿀아 수도 없이 울어댔기에 울보란 별명도 있었다고 했다. 나이 많은 부모 밑에서 태어난 늦둥이는 젖배를 꿀게 마련이다. 만형수의 젖을 큰 조카와 함께 먹고 자랐으니 배고파 울지 않고는 건딜 수 없었던다. 이러한 유년기의 체험을 고백적인 수필을 통해 선생은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다.

“가장 일찍 나를 만들기 시작한 것은 술이요, 죽음이요, 성욕이었다. 술은 두세 살에서 다섯 살까지가 고비였고, 죽음은 소꿉친구인 이웃집 선이의 장례식을 보게 된 다섯 살부터 나의 가장 깊은 곳에 뿌리박게 되었다. 성욕으로 숨이 가빠지기 시작한 것은 열두살 때부터라고 생각된다.” 유년기의 이런 체험은 일생동안 東里文學동리문학을 이루어내는 바탕이 되었고 선생의 사상을 살펴볼 수 있는 뿌리로 남았다. 젖을 못먹어 배고파 울다가도 술을 즐기는 아버지가 마신 막걸리 사발을 훑으면 얼큰해져 배고픈 것도 잊을 수 있었다는 회고는 듣는 이의 가슴을 찡하게 만든다. 그래도 선생은 “난 다섯 살 때부터 술을 배웠단 말야. 그리고 선이란 애가 죽었는데 거적에 돌돌 말아 동산에 묻는 걸 보았거든. 그 때부터 죽음에 관한 것들이 머리 속에 꽂혔지. 그 애와는 참 친하게 지냈는데 신랑 각시 놀음도 하구.” 열두 살 때부터 선이를 못잊어 사타구니가 팽팽해지고 아랫도리에 힘이 들어 알이 배는 것 같은 기분을 느꼈다고 했다. 성욕을 느꼈다는 말이 결코 부풀려졌거나 허풍이 아니란 것을 알 수 있는 대목이다. 早熟조숙한 천재-. 선생은 대구에서 계성중학을 다니다가 서울로 옮겨 경신고보를 중퇴한 것이 학력의 전부이다. 학교를 그만둔 뒤 찌든 가난과 삶의 고통이 뒤따르는 고향으로 돌아가 문학수업을 홀로 쌓은 뒤 1934년 조선일보 신춘문예에 시 [白鷺백뢰]가 입선되고 다음 해 중앙일보에 소설 [花郎화랑의 後裔후예가, 36년 동아일보에 [山火산화]가 각각 당선되면서 시인이자 소설가로 화려하게 등장했다.

서정주, 金達鎭김달진 등과 함께 동인지 〈詩人部落시인부락〉을 내면서 시를 발표했고, 이어 [巫女圖무녀도, [바위], [黃土記황토기 등 동리문학의 실체가 되는 작품을 잇따라 발표하면서 소설가의 길로 들어섰다. 선생은 한국인의 운명과 허무적인 색채를 천착했고 인간성의 옹호와 삶의 근원적 의미를 탐구하는데 일생을 보냈다. 특히 인간의 운명과 인간성에 관계되는 한 선생은 한 번 사람을 믿으면 다시는 두말하지 않는 성미였다. 두말하면 잔소리, 버럭 화를 내기도 했다.

70년대, 소설가 S씨의 권유로 청담동과 과천 쪽에 땅을 사고는 청담동에 기념관을 만들만한 큰 집을 짓겠다고 손소희 여사가 말을 꺼냈다. 이 계획을 默

음뚱으로 찬동한 선생은 집 지을 돈을 마련키 위하여理財이계에 뜻을 두고 나에게 4천만원을 선뜻 맡기고 2부 이자를 받아 달라고 했다. 이 돈을 運用용하여 매달 이자를 갖다드리기란 여간 힘든 일이 아니었다. 더구나 조심스러운 것은 더 말로 형언키 어려웠다.

하나 더 말하면 선생과李文求이문구 씨는 사제간이다. 그러면서도時局사국에 관계되는 한 두 사람 사이는 한 번도 뜻이 같지 않았다. 선생은反共產반공산反社會主義반사회주의 시국관이 투철한 우파인사로 정권이 바뀔 때마다 체제 옹호로 일관해 왔고,李文求이문구 씨는反獨裁반독재, 反體制반체제의 앞자리에서 비판과 저항으로 일관해 온 사람이다. 그러나 이들 두 사람은 언제나 큰 일이 터질 때면 의견을 나누었고 그 때마다 진정서, 건의서 탄원서에 선생의 도장을 찍어갔다. 정 입장이 어려우면 “나를 두 얼굴 가진 사람으로 만들지 말라.”고 말하고 얼굴을 돌리면 그것으로 거부의 뜻을 알아차리고 이문구 씨는 자리를 떴다. 그러면서도 둘 사이는 언제나 사제간이요, 존경과 사랑이 오갔다. 인간을 믿기란 쉽지 않다. 그런 세상에 살면서도 인간을 사귀는데 시국관 따위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한 것은 이 두 사람의 관계를 이해할 수 없는 관계라고 할만하다.

선생과 함께 강연을 갔을 때였다. ‘한국의 인간주의’란 제목으로 말씀하면서 한국의 인간주의와 서양의 인간주의를 상세하게 구별해서 말씀하는 것을 들었다. 물론 ‘한국문화와 한국인간주의’란 평론에서 이미 주장한 바 있지만 글이 아니고 직접 말로 들으니 더 와닿는 것이 있었다. 서양의 인간주의와는 달리 한국의 인간주의는 처음부터 與神的여신적이랄까 신을 내포한 인간 것이었다고 말씀하면서 서양을 처음부터 反神的반신적이었다고 규정하였다. 그 까닭은 한국의 인간주의는 신과 인간이 다같이 자연을 모체로 삼고 출발했기 때문이었다고 했다. 그래서 우리는 옛날부터 기도를 드릴 때 높은 산으로 들어갔다. 신라의 和自峯도 마찬가지다. 될수록 높은 산에 올라가 신의 뜻을 받들려는 의도가 있었다. 그뿐 아니라 사람 또한 산천에서 온다고 믿었다. 훌륭한 사람은 그 고장의 名山精氣명산정기를 타고 출생한다고 믿었다. 이것은 신이나 인간 모두가 다같이 자연을 모체로 하고 있다는 증거가 된다고 말씀했다.

이러한 믿음은 서양의 휴머니즘과 한국의 휴머니즘이 다르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 선생은 휴머니즘의 작가이지만 한국적 휴머니즘, 한국적 인간주의에 뿌리를 두고 인간의 삶을 탐색한 작가였다. 광복 후, 1947년 좌파의 계급주의 민족문화론에 대항하여 인간주의 민족문화론을 제창하면서 월북한 金東錫 김동석 씨와 치열한 문학논쟁을 벌였다. 兪鑣午 유진오 씨와 벌인 순수논쟁, 신에 비평가 李御寧 이여령 씨와 벌인 논쟁은 기억할 만하다.

청년문학가협회를 결성하여 초대 회장을 지냈고 68년에는 한국문인협회 이사장, 중앙대학교 예술대학 학장을 지냈지만 한국소설가협회 대표위원을 가장 좋은 감투로 여겼다. 소설가협회는 창립 때 잠깐, 유주현 씨의 주선으로 광화문에 있던 崔南伯 최남백 씨의 출판사에 간판을 달았다가 87년까지 내내 사직동 내 사무실을 함께 썼다. 한 달에도 몇 번씩 사직동으로 오셔서 여러 가지 일을 상의하시는 성의는 젊은이들도 따르지 못할 일이었다. 그 때마다 소설 쓰는 동업자들이 모인 단체가 가장 좋다고 말씀하시고 그 발전에 정성을 쏟았지만 운영경비를 만드는 일은 전부 내게 맡겨졌다. 나는 중앙상임위원이란 직함을 가지고 돈 만드는 일에 동분서주하지 않으면 안 되었다. 그 때 백만원의 큰 돈을 선뜻 내놓은 이가 행림출판사의 이갑섭 사장이다. 『한국장편문학대계』를 계획하고 모두 1백 권의 분량으로 편집하기로 했다. 이 계획은 너무 방대해서 결국 무산되었지만 계약금으로 받은 돈은 소설가협회 살림살이의 밑천이 되었다. 이 때 금자당이란 작은 출판사에서 『한국출세작가 단편선집』 12권을 내고 그 인세로 들어온 돈을 반씩 나누어 작가에게 지불하고 나머지 돈으로 살림을 꾸렸다. 그런데 금자당이 망하자 판권을 넘겨 다른 출판사에서 몰래 찍다가 발각 나서 저작권 시비가 붙기도 했었다.

75년에 한국소설문학상을 제정하고 제1회 수상자를 李貞浩 이정호, 白始宗 백시종 씨로 결정했는데 상금이 없었다. 상금을 마련할 수 없어서 유주현 씨에게 찾아가 말씀드렸더니 해결해주어 시상식을 치렀다. 이 사실을 안 김 선생은 입맛만 쩍쩍 다시면서 “다음이 또 문제구먼” 이라고 말씀하시고 “어찌지 이 다음은?” 이 말이 전부였다. 제2회 때도 마찬가지였다. 그 때의 수상자는 鄭乙炳 정을병, 宋相玉 송상옥 씨로 결정되었다. 송상옥 씨 한 사람으로 의견이 모아지

는데 갑자기 김 선생께서 정을병 씨를 넣어야 된다고 말씀했다. 모두 깜짝 놀라 눈을 둥그렇게 뜨고 있는데 “정을병 씨가 중앙상무위원으로 있었고 협회를 만들 때 그렇게 애썼는데, 그리고 또 좋은 글을 쓰고 있는데 상을 안 줘서 되겠느냐.”고 반문했다. 이 말은 정을병 씨가 상무위원직을 그만두고 다른 부서를 맡았기 때문에 그의 공로를 인정해서 하는 말 같았다. 그런데 선생은 “1회 때도 두 사람을 주었으니 문제없잖아.” 그리고는 결정되었다고 선포해버렸다.

김 선생은 때에 따라서는 이렇게 혼자 결정하고 밀어부치는 적극성도 있는 지도자였다. 소설가협회 상을 주면서 김 선생이 제일 기분 좋아한 때는 崔一男 崔일남, 鄭然 鄭정연희 씨가 수상한 해였다. 수상자가 결정나기 무섭게 나보고 전화를 걸라고 했다. 사직동에 있는 조그만 불고기집으로 가서 저녁을 먹는데 등을 밀어 전화를 걸게 하고는 소주를 여러 잔 돌리고 기분 좋아 하니까 불고기집 주인이 벼루에 먹을 갈아 대령하고 글씨를 써달라고 청했다. 김 선생은 첫마디에 기분 좋은 날이니까 써주겠다고 말하고는 일필휘지로 녀자를 썼다. 그 때 집주인은 경상도에서 군수로 있다가 퇴직한 사람이었다. 그동안 한국소설문학상을 탄 李東河 이동하, 金源一 김원일, 韓勝源 한승원, 吳贊植 오찬식, 金周榮 김주영, 辛錫祥 신석상, 金芝娟 김지연, 朴養浩 박양호, 安章煥 안장환 씨까지, 수상자에 줄 상금에 관한 걱정은 모두 중앙상무위원이었던 나의 몫이었다. 시상식장을 꾸미고 간단한 음식을 차리는 것까지 혼자 힘으로 감당해야만 했다. 그 때마다 김 선생은 미안해 했고 달리 방법이 없는 것을 한탄했다. 이러한 걱정은 1987년까지 계속되었다.

사직동에 칠면조 요리집이 있었다. 개업한지 얼마 안 되어 깨끗했고 맛도 있었는데 심부름하는 젊은 여인들까지 예뻐서 김 선생과 그 집에 몇 번 갔었다.

辛錫祥 신석상 씨가 수상자로 결정되었을 때 김 선생은 의외라는 듯 안색이 좋지 않았다. 어떻게 된 일인지 투표한 결과는 참으로 의외였다. 투표 직전까지 논의할 때는 신석상 씨가 아닌 다른 사람이 유력했는데 막상 개표하니 신 씨가 한 표 더 나왔다. 기분이 언짢아진 김 선생은 칠면조 요리집에 가차고 말하고는 성큼성큼 먼저 걸어갔다. 그리고는 술을 많이 드셨다. 누가 먼저 입을

때는 사람이 없어서 분위기는 가라앉았고 - . 어떻게든 판을 바꿀 필요가 있어서 내가 먼저 농담을 시작했다. 고기를 굽던 젊은 여인이 까르르 허리를 쥐고 웃을 때, 김 선생이 “고거 예쁘네.” 이렇게 말하자 좌석은 금방 부드러워졌다. 그래서 그 여인과 누가 먼저 데이트 하는가 내기하자는 말이 나왔고 김 선생은 자신 있다고 선수를 쳤지만 정작 데이트를 한 사람은 그 좌석에서 나이가 젊은 소설가 R씨였다. 그 이튿날 김 선생이 사무실로 올라오다가 사직공원 벤치에서 소설가 R씨와 그 여인이 앉아서 얘기를 나누는 것을 보았다고 했다. 그러면서 “내가 졌어. 역시 젊은 사람이 이겼단 말이야!” 김 선생은 매사에 이렇게 대범했다. 선수를 치는 것처럼 앞서가지만 사실은 좌중의 분위기를 잡아주기 위한 것일 뿐, 속은 그게 아니었다.

울산으로 강연을 갔을 때였다. 고속버스를 타고 가는데 여섯 시간, 지루했다. 김 선생은 안주머니에서 수첩을 꺼내 들고 열심히 메모를 했다. 경주를 지날 때 수첩에 메모한 것을 보라고 내게 건네주는데 짤막한 시였다. “내 고향 경주는 폐허였다. 그것은 우울이요, 주검이었다.”고 쓰여 있었고 김 선생은 며칠 두었다 고치면 좋은 시가 될 거라고 말했다.

경부고속도로가 개통되기 전에 공사현장을 시찰할 기회가 있었다. 정부에서 주관했는데 신문기자들을 팔려 보냈고 시찰한 다음 글을 써달라는 부탁이 있었다. 옥천에서 영동쪽으로 함께 갔는데 한 마을에서 큰 굿판이 벌어지고 있었다. 고속도로가 마을 앞을 지나가게 되어 맥이 끊기고 정기가 사라졌다고 굿을 한다는 것이었다. 동네 가운데에 있는 사오백 년은 되었을 큰 느티나무 아래에서 굿을 벌렸는데 앞 산꼭대기에서부터 흰 광목찬을 길게 늘어뜨려 느티나무에까지 닿게 하고 있었다. 언뜻 보아도 하늘로 올라가는 길처럼 보였다. 그 길이가 2백미터는 될까? 하여튼 처음 보는 일이었다. 사람들이 끊어놓은 맥과 정기가 이 길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면 정기가 다시 이어진다고 말하였다.

동네 늙은이로부터 이 말을 들은 김 선생은 “그렇지. 바로 그거야, 하늘로 왕래하는 길을 연 무당은 名巫명부가 아닐 수 없다.”고 감탄했다. 우리 일행은 김 선생의 그 말 때문에 그 굿을 끝까지 구경했다. 어디를 가도 무엇이고 예사

로 보지 않는 김 선생, 그는 사람과 자연, 그리고 무당들의 비라리까지 놓치지 않고 관찰했고 깊이 생각했다.

김 선생은 삶과 죽음을 살아 생전에 구별하지 않으려고 노력했다. 늘 삶과 죽음이 함께 있다고 생각한 김 선생은 이승과 저승을 고향과 타향에 비유하기도 했고 자신은 슬픔과 우울, 그리고 주검의 리듬이 전생에서부터 연결되어 이 세상에 태어났다고 말하면서 세상을 초연해하려고 애썼다. 그러나 세상은 그를 그대로 놓아두지 않았기에 고통은 컸고 헤쳐나가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럴 때마다 김 선생은 이유를 말하지 않고 잘 견뎠다.

평생 살면서 당하는 이 모든 것들은 인간의 마지막까지 버릴 수 없는 업보요 궁극적 事理사리이기 때문에 고통스러운 것들이다. 이러한 인간의 고통을 문학에 통해 밝혀내려는 김 선생의 작업은 자신을 속박하고 담금질하는 일이기도 했다. 신당동 집이나 청담동 집에서 청주를 따끈하게 데워 마시는 습관을 김 선생은 버리지 못했다. 청주를 데워 한 잔 마신 뒤에 양주도, 소주도 마셨고 제자나 후배를 가릴 것 없이 집에서 술대접하는 것을 좋아했다.

80년대, 리얼리즘의 강풍 속에서 어용으로 몰릴 때 온갖 수모를 이기지 못하여 혼자 술을 마신 뒤 밤 한 시, 두 시도 상관없이 나에게 전화를 걸어 “내가 왜 이렇게 욱먹어야 하는지 성 박사는 알지.”라고 말하면서 고르지 못한 목소리로 유행가를 부를 때, 나는 가슴이 무너지는 아픔을 느끼기도 했다. 이럴 때도 누구를 거명하여 욱하거나 닷하지도 않았다.

선생이 생각한 것은 현실에서 유행하는 정치적, 경제적 관심이 아니라 불변의 진리, 즉 사랑과 죽음, 전쟁과 자유, 절망과 희망을 통한 삶의 진실한 탐구를 문학에 의존하는 것이었다. 이를 위하여 현실참여나 리얼리즘에 기대지 않고 인간의 보편적 가치에만 주목했기 때문에 문단의 회오리가 되었던 순수와 참여 논쟁에서도 인간주의 문학을 지켜낼 수 있었다는 생각이다. 광복 후 좌파 문학에 맞서 본격문학이란 용어를 처음 사용하여 이어져 내려온 그의 순수 문학론은 서구문화로 상징되는 기독교와 동양의 전통문화를 결합시켜 새롭게 완성한 인간주의 문학이었다.

고희기념(1983년)으로 『패랭이 꽃』을 출간하고 출판기념회란 이름을 빌려

축하연을 할 때였다. 마침 연말이라 나는 무척 바빴는데, 신당동 집으로 오라는 전갈이 왔다. 내가 가니까 손 선생과 두 분이 앉아 있다가 다짜고짜로 축하연을 12월 27일에 할 터이니 모든 걸 계획하고 진행하라는 말씀이었다. 문인협회에 말씀해서 하는 것이 어떻냐고 물었더니 그보다는 소설가협회에서 하는 게 더 좋겠다는 것이었다. 더 할 말이 없었다. 나는 그 날부터 고회연을 준비했고 직접 사회를 맡아 치뤘다. 아스토리아 호텔에서 치른 고회연은 대성황이었다. 제자들이 만든 고회 기념패를 받고 무척 좋아하던 선생은 잔치가 끝나고 손님들이 많이 돌아갔을 때 손 선생과 함께 사진을 찍자고 했다. 그 사진을 볼 때마다 나는 김 선생의 솔직담백한 마음과 인정을 맛보는 것 같다.

1981년 나는 노벨위원회에서 노벨문학상 후보 추천을 위촉받고 『을화』의 영역본을 보냈다. 그해 9월에 노벨위원회에서 구체적인 보충자료를 보내라는 소식이 왔다. 이 일은 우리로서는 큰 사건이었다. 이만큼의 성과가 있었던 것은 노벨상 수상과 관계없이 한국문학에 대한 이해의 폭이 넓어진 것이었다. 『을화』나 『무녀도』, 『황토기』 등은 일제 강점기에 민족 정신을 되살려 내는데 결정적 구실을 했고, 광복 후, 6·25, 군사정권을 겪어낼 때도 이념을 배격한



金東里 김동희 선생 古稀祝賀고회축하 [패랭이 꽃] 출판기념회를 마치고(1983. 12. 27. 엠버서더 호텔에서)

순수문학으로 일관되게 우리 문학의 자리를 지켜온 작품들이었다. 이번 기회를 통하여 선생의 공로도 확실하게 세워 놓아야 한다는 생각 때문에 선생의 작품을 추천했다.

노벨위원회의 반응은 한국 문학을 세계 속에 알리는 커다란 계기가 되었다. 이러한 사실이 신문에 보도 되자 몇몇 분들이 불편한 심기를 감추지 못하고 한국문학진흥재단과 나를 포함했고 김 선생에 대하여 좋지 않은 눈초리를 갖게 되었다. 정부 사람들은 노벨상을 타기라도 할 것처럼 그 진상을 알아 보느라고 법석을 떨었고 통치자까지도 어떻게 되느냐고 채근을 해왔으니 노벨상의 위력은 확실히 컸다. 전두환 정권의 일사불란과 강압이 규율 있는 통치로 비치던 때 우리 나라에서 노벨상을 받는다면 잠시 국민들의 의식을 돌리는 물꼬가 될 것이란 생각이 그들이 밤잠을 설치고 알아보는 이유였다. 정부쪽에 있는 사람들은 생각만 해도 가슴이 두근거리는 일이 아닐 수 없었다.

청담동 집, 반지하에 서재를 꾸미고 트락에 대추나무를 심은 뒤 선생께서는 이제 할 일 다했다고 말씀하면서 부엌에 있는 식탁에다 안주를 차려 놓고 술을 권하던 때가 어제 같은데 선생은 이 세상에서 영영 떠나고 트락에 있는 대추나무만 푸르게 자라고 있다. 선생이 운명하던 날 새벽(6월 18일)에李文求 이문구 씨가 전화를 걸어 부음을 알려 왔다. 나는 가슴이 내려 앉는 슬픔을 참고 곧 청담동으로 가겠다고 말했고 옷을 챙겨 입고 떠나려는데 아내가 못가게 말했다. 둘째 아들 상현이의 혼인날이 며칠 남지 않은 것을 생각하라는 것이었다. 집안에 경사가 있을 때는 상가에는 가지 않는다고-. 그래도 가야 한다니까 “이 때까지 문단 일한 것, 그게 다 뭐예요, 반체제하는 사람 도와주었다고 께뽀죄에 걸려 수영장도 헐리고 집도 헐렸고 남은 게 뭐 있어요. 장사 끝나고 아이 혼인도 치른 뒤에 가서 조문하면 되잖아요.” 두런거리는 얘기 소리에 잠을 깬 아들 녀석이 방으로 들어와 말없이 나를 쳐다보고 아내는 바지 가랭이를 꼭 잡고 놓아주지 않았다.

주 수임원이 되던 업체, 수영장과 살던 집까지 헐려 살림이 팍팍하게 되니까 이제 남은 건 악뿐인가? 나는 더 어쩔 수 없었다. 살림이 어려우면 世俗事 세속에 매이기 마련이었다. 나는 기어이 김 선생덕에 가지 못했고 장례 때도

참석할 수 없었다.

답답했다. 김 선생은 생전에 나를 믿었고 나는 김 선생을 따랐는데 선생이 이승을 떠나는데 어쩔 수 없는 집안 일이 가로놓여 영결을 못했으니-. 생전에 너그러웠고 이해심이 많으셨으니 알아주실까?

군사정권 시대, 지식인이면 당연히 비판해야 될 처지에 김 선생은 이를 지지했고 앞장 서서 찬동했기에 한동안 수모를 당하면서도 말없이 웃던 김 선생, 그럴 때마다 참고 견디며 이해해주길 바라던 김 선생의 모습을 떠올리며 나는 속으로 울었다. 우리 문단의 큰 나무였던 선생, 아니 큰 나무보다 커다란 그릇에 비유될 수 있던 선생이여. “부디 저승에서 잘 지내다가 다시 이승으로 오십시오.”란 말밖엔 더 할 말이 없다.

또순이란 애칭의 손소희 선생

“원래 생명이 없었던 것이요, 한갓 생이 없을 뿐만 아니라 원래 형상이 없었던 것이요...원래 기운이 없었던 것일세... 형상이 변해서 생이 생겼고 그 생이 이제 또 변해서 죽음으로 간 것이네. 이것이 춘하추동 네 철이 되풀이 해서 돌아가는 것과 같은 것이네.” 이것은 장자의 말이다. 나는 손소희 선생을 생각할 때마다 이 말을 떠올린다. 손 선생처럼 치열하게 살고 손 선생처럼 확실하게 산 분이 이 세상에 형체도 남기지 않고 깨끗하게 갔기 때문에 인생은 삶도 없고 형상도 없고... 형상이 변해서 생이 생겼으나 다시 그게 변해서 죽음으로 갔다는 장자의 말이 맞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봄은 흔적도 없이 사라지면서 여름을 부르고, 여름은 다시 형체를 남기지 않고 가을을 부르고, 겨울을 불러, 네 계절을 되풀이 하며 세월을 낳는다. 죽음이 끝이 아니고 절망과 고통이라면 그것들을 이기고 계절의 변화처럼 다시 태어나야 마땅하다는 생각이다. 이렇게 되풀이 해서 세월이 돌아가면 손 선생의 몸과 마음 중 어느 일부분은 이 세상 어디엔가 다시 태어나야 한다. 인생이

변해서 죽음으로 갔다면 삶의 기운만이라도 남아 있어야 한다.

1987년 1월 7일 밤에 우리 문단에서 가장 치열하고 확실하게 살았던 한 여인을 잃었다. 본명은 貴淑귀숙, 필명은 素熙소희. 부군 金東里김동리가 지어준 海史해사와 也堂야당이란 호를 가진 70세의 걸걸한 대장부 같던 여인이 눈을 감았다. 함경도 경성에서 출생하여(1916년) 22세의 꽃다운 나이로 만주땅 하얼빈으로 가서 망국의 울분을 붓 끝에 담아 우리 글자로 찍어낸 신문, 滿鮮日報만선일보 기자로 활약하면서 시를 쓰기 시작했다.

그 때 만선일보에는 소설가 염상섭과 송지영 등이 함께 일했다. 1945년 광복과 더불어 그는 서울로 왔다. 서울로 올 때가 28세의 억척스런 노처녀, 함경도 北關북관의 기질을 지닌 손소희의 보따리는 무겁기 짝이 없었다. 그 보따리 속에는 만선일보사에서 쓰던 한글 자모가 들어 있었기 때문이었다. 이 자모를 가지고 돌아와야 서울에서 뭔가 할 수 있을 것이란 생각이 다른 물건을 외면하게 만들었다.

함흥에서 영생여고를 마치고 日本大學일본대학에 유학했다가 신병으로 귀국한 것이 1938년, 대학 졸업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만학으로 외국어대학 영어과에 입학하여 졸업했다. 그 때가 1961년이었다. 40대 중반이었던 손 선생은 스무살 아래인 동급생들과 꼬박 4년을 공부했다. 동급생 중에 시인 李炭이탄도 끼어 있었으니 그의 향학에 대한 집념이 얼마나 불같았는지 짐작할 수 있다.

만선일보에 근무할 때 『在滿朝鮮人10人詩集재만조선인10인시집』에 시를 발표했고 서울에 와서 〈新世代신세대〉란 잡지에 근무하면서 역시 시(동경, 맥에의 메별 등이었음)를 발표하다가 소설가로 출발, 『梨羅記이라기』를 〈新天地신천지〉에 발표했다. 그 뒤 [현해탄] [地流지류] [홍몽] [길 위에서] 등의 단편을 연달아 발표하면서 주목을 끌었다. 1949년 전숙희, 조정희 등과 종합지 〈彗星혜성〉을 발간, 그 주간을 맡았고 명동에서 라돈나 다방도 이들과 함께 문을 열었다. 두 사람의 억척스런 함경도 여자와 재리에 밝은 강화도 여자의 합작품이었으나 다방 경영은 잡지를 발간하고 글을 쓸만한 돈을 벌어주지는 못했다.

1961년에 서울시 문화상, 5월 문예상 등을 받았고 (창포 필 무렵), 장편소설 『태양의 계곡』 등 수많은 작품을 내놓았다. 손소희 선생은 무슨 일이고 열

심히 하지 않으면 심심해서 견디지 못하는 사람이었다. 방안에서나 다방에서나 어디서고 번쩍이는 아이디어, 어떤 일이고 성취해 보겠다는 욕망을 가지고 일을 꾸며냈다. 그가 꾸며내는 일이 일상에서 이루어지지 못하면 작품 속의 등장인물을 통해서라도 이루어냈다. ‘神신이 죽었다거나 또 본시부터 존재하지 않는다거나 하는 것은 그 결과에 있어서 별반 다른 바가 없을 것 같다. 그러나 그러한 결과 이전을 다시 생각해 본다면 神신이 죽었다고 말한 니이체에게는 예로부터 신의 존재를 부정한 無神論者^{무신론자}보다 심각한 고민이 있었던 것으로 짐작이 간다. 그는 편력이 가능한 일의 시간과 공간 속을 신을 찾아 헤매었으며, 그의 신에 대한 갈망이 갈망으로 남겨졌을 때 드디어 그는 신이 죽음을 선언하기에 이른 것이라고’ 한다면 이것은 잘못된 짐작일까.

“나의 작품 속의 인물들도 항상 무엇인가를 찾고 있다. 그것이 평범하고 정상적이거나 그렇지 못한 것이거나 하여간 문제임에는 틀림없다. 그러한 문제는 다시 문제를, 그 많은 문제와 해결을 우리들은 흔히 신(섭리)에게 바라보고 있다. 그러나 그러한 신을 만나지 못하게 될 때, 우리들 중의 누군가는 미쳐버릴 수도 있으리라. 니이체와도 같이-. 그러나 그 때문에 나는 내 소설 속의 인물과 함께 내 인생의 오늘을 살고 그리고 내일도 또한 그렇게 살 것이다.” 좀 긴 문장이지만 이 글을 인용한 까닭은 이 글 속에 손 선생의 생각이 그대로 나타나 있기 때문이다.

작품 속의 인물이 무엇인가를 찾고 있다는 것은 자신을 담보해서 한 말이며 정상적이거나 비정상적이거나를 막론하고 모든 문제들은 신(섭리)이 해결해 줄 것이란 운명론에 많은 사람들은 의탁하지만 손 선생은 결코 그것을 믿지 않는다. 그래서 누군가는 미쳐버린다. 그러나 미쳐버리는 것으로 끝낼 수 없기 때문에 자신은 소설 속에 등장하는 여러 인물을 통하여 실현시키며 그들과 함께 살아 가겠다고 말한다.

일생의 삶을 미쳐서 살 수 없어서 작품 속의 등장인물과 함께 살아가겠다는 생각은 야무지다. 그리고 미치지 않기 위하여 억척스럽게 살아가겠다는 의지도 당당하다. 손 선생은 이 글에 나타난 대로 야무지고 당당하고 대참다. 그는 무엇이고 한 번 결정되면 밀어 부치는 성격이다. 그의 초기 시에 〈맥에의 메



좌좌로부터 최미나(작가), 이석봉(작가), 필자, 홍석영(작가), 손소희 선생, 조진태(작가), 이태원(작가), 최일남(작가) 씨 등과 함께—(해인사 여행에서)

별)이 있다. ‘貊𧄑’은 인간의 악몽을 먹는다는 전설적인 동물이다. 모양은 곰 같지만 코는 코끼리, 눈은 코뿔소, 꼬리는 소, 발은 범과 같이 생긴 동물이다. 웅장하고 기괴한 동물이지만 힘있고 날쌌, 상징적 동물이다. 인간의 악몽을 모조리 먹어치우는 동물이기에 많은 사람들은 이 동물을 숭상한다.

나쁜 꿈을 먹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희망찬 앞날을 예견케 하는 동물로 北關북관 사람들은 맥을 기리고 내세운다. 또한 고조선 때 북관에 살던 민족을 ‘貊𧄑’이라고 불렀다. ‘濊貊에맥’이란 우리 역사에 나오는 부족국가의 이름이다. 貊과 貊이 음이 같아서인지 함경도 사람들은 이 상상의 동물을 무척 좋아한다. ‘맥에의 메별’은 바로 손 선생의 고향, 함경도를 떠나왔음을 생각하고 쓴 것이었다. 손 선생은 맥처럼 나쁜 꿈을 잡아먹고 새로운 앞날을 설계하여 힘있게 살아가는 용기를 가진 똑심있는 여인이었다. 그는 일생을 곰같이 우직하게, 코끼리처럼 끈질기게, 코뿔소처럼 힘있게, 소처럼 희생하며 호랑이처럼 날래고 민첩하게 살았다.

1973년의 일이었다. 눈이 하이양게 내린 겨울날 아침, 카랑카랑한 손 선생

의 목소리가 전화통에 담겨왔다. “성 선생, 나 어제 한잠도 안 잤어요, 왜 그런지 알아요.” 대뜸 쏟아 놓는 말에 내가 대답을 잃자

“내 말 똑똑히 들어요. 나 깃돈 3백만원이 있는데 그걸 가지고 잡지하기에는 뒤가 떨려요. 내 뒤밀이를 해줘요.” 다짜고짜 잡지하지는 말에 나는 어리둥절해서,

“잠을 주무시지 못해서 그런가요. 좀 자세히 말씀하시죠.” 그러자 “잠을 못 잔게 아니구, 안 잤다는데 왜 그래… 안 잤어요. 내가 이 판에 잠잘 수 있어…….” 잠을 못 잤다는 말, 분명 못 잔 게 아니라 안 자고 하이양게 밝혔을 것이란 생각을 했다. 며칠 전에 있었던 문협 총회에서 아주 근소한 2표 차로 김동리 선생이 조연현 씨에게 패배했으니 말이다.

세칭 숙대총회라고도 했다. 숙명여대 강당을 빌려 총회를 했기 때문이다. 두 분의 용호상박은 한국문단의 큰 사건이었고 문단이 두 갈래로 찢기는 소리가 우직꾸우직꾸 들리는 판이었다. 김 선생과 조 선생은 한 통속이라고 할만큼 뜻이 같았고 마음을 열고 살아왔다. 그런 분들이 한판 붙었는데 그 투표장에서 내가 개표위원장, 표를 아무리 세도 스무표가 모자랐다. 김동리 선생이 예상을 뒤엎고 졌다. 진 이유는 문학잡지가 없기 때문이란 말이 파다했다. 그래서 손 선생은 문예지를 하기로 결심했다.

“알았습니다. 해보시죠, 뭐.”

내 대답도 간단했다. 삼백만원이면 번두리에 작은 집 반채 값, 몇 달 못가 바닥날 것은 뻔했다. 그 날부터 손 선생은 사무실을 얻고 창간 준비를 했다. 청진동 세진빌딩 1층에 사무실을 열고 잡지 등록을 하기 위하여 서류를 냈으나 서술이 시퍼런 당국은 문학지 등록을 거부했다. 이 때의 고생은 말할 수 없었다. 문공부 장관을 만나고 국장·과장을 설득하는데 진땀을 흘렸다. 긴급조치법인가 뭐가 때문에 잡지를 없애는 판국에 잡지 등록은 난망이었다.

그러나 기적같이 잡지등록을 얻어냈다. 편집 일은 이문구, 일반 잡무는 서영ուն이 맡았다. 새로 꾸민 사무실은 썰렁했다. 난로도 들여놔주고 저녁 때면 밥값, 술값도 손 선생에게 건네 주었다. 각박한 세태, 나 혼자 살면 된다는 생각을 가진 사람이 많은 세상에 깃돈 타서 발표지면이 없는 문인들에게 지면을

마련해 준 사람은 우리 문단에서 손 선생 밖에 없다.

지금까지 견재한 <한국문학>을 창간하기 위하여 땀을 흘린 사람은 한둘이 아니었다. 그 때 그렇게 손발이 맞게 일했던 사람들이 모두 알려지지 않고 묻혀 있는 것은 손소희 선생의 德器덕기, 바로 큰 사람이 가진 마음 씀씀이 때문이란 생각이다. 모든 공로는 하나도 돌도, 모두 손 선생에게 돌리기를 주저하지 않은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이다. 껌돈을 담고 다니면 안성맞춤일 큰 핸드백을 들고 오후만 되면 청진동에 나와 앉아 진두지휘를 했지만 문학지가 팔려 자체운영된다는 것은 애시당초 예상할 수 없었던 일. 종이값, 인쇄비는 물론 다달이 내는 전화값도 문제가 되었다. 그 때 전화값은 왜 그리 많았든지, 그래서 전화값이 왜 이리 많으냐고 물으면

“몰라, 그건 이문구에게 물어봐.”

“창간한지 얼마되지 않아 그런가요.”

“모르지 문구가 밤만 되면 전화를 더 쓰거든…….”

전화값도 아껴야 될 형편이라 손 선생의 눈치를 보느라고 밤에만 전화를 걸었던 모양이었다. 이문구는 그 때 자유실천문인협회를 만드느라고 부지런히 전화를 썼다. 손 선생은 그게 마땅치 않아도 일체 말하지 않고 있었다. 그리고는 내 주머니를 털어간 돈을 그들의 대포값, 저녁값으로 내주고 왕좌나 가락지, 뽀빠이 등, 청진동 골목에 있던 단골 맥주집을 누볐다. 맥주집에는 김보겸, 손홍명, 이강호, 심상태, 민장식, 천호영 등 출판사 사장들이 날마다 나와 있었고 손 선생은 그들에게도 돈 내놓으라고 큰 소리치면서

“여자 혼자 문예지를 꾸려나가는데 사내들이 뭐하는 거야. 도와줘, 돈내란 말야?” 밉지 않게 다그치는 손 선생의 말에 섭섭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하나도 없었다.

손 선생을 가리켜 ‘손출세’라고 부르는 사람들이 간혹 있었다. 이 별명은 남자 문인들이 부르는 게 아니라 여류 문인들이 불렀는데 왜 하필 손출세였는지 모르겠다. 손출세라 부르는 사람에게 그 이유를 물어도 확실하게 대답하는 사람이 없었다.

61년에 {그날의 햇빛은}이란 단편을 <현대문학>에 발표했고 그것으로 서울

시 문화상을 탔는데 그 때 심사위원이 김동리 선생이었다. 상을 탄 뒤 문단 일각에서 수근대는 소리가 '잘해 먹는다'란 말이었는데 이 때 문화상을 거절하지 않고 탔기 때문에 손출세라 불렸다는 생각이 들지만 문단의 위치로 보아 동리 선생의 서울시 문화상 심사는 타할 일이 못되었다. 또한 문화상 심사는 공적인 심사였고 가정에서의 남편은 사적인 관계였기에 별 문제없는 일이었다. 하여튼 손출세란 별명을 손 선생이 싫어하듯 손 선생은 감투 쓰겠다고 다니는 것도 아니었다.

늘 너그러운 어머니처럼 춥고 배고픈 문인들을 만나면 딱하게 여겨 밥 한 사발, 국수 한 그릇이라도 사주려고 하는 인정과였고 억울한 일을 당한 사람에게는 두 주먹을 불끈 쥐고 사정애기를 다 듣고는 해결방법을 말하는 자상한 점도 있었다. 특히 젊은 문인들을 좋아했고 어려운 후배에게는 입던 스웨터도 벗어주고 장갑이나 스타킹을 나눠주기도 하였다. 말하자면 활수요, 통이 컸다.

술집에서 접대하는 여성들은 여자 손님들을 싫어한다. 팁을 받을 수도 없는 데다 술시중을 드는 게 자존심 상하기 때문이라지만 손 선생과 함께 가면 그들도 좋아했고 덩달아 손 선생처럼 통 큰 행동을 따라했다. 무교동에 있는 집, 용산역 근처에 있던 집 등 몇 군데 잘 가던 방석집이 있었는데 큰 방에 보료를 깔고 거문고나 가야금을 놓고 장사하는 집이었다.

나오는 아이들도 쏙 빠져 나무랄 데 없었지만 손 선생에게는 늘 어머니처럼 대했고 무엇이든 시키는 대로 했다. 물론 손 선생의 언행이 감히 그들이 범접을 못할 정도로 출중한 데가 있어 그랬겠지만 만약 이 애들이 잘못된 점을 발견하면 가만두지 않는 불 같은 성격도 있었다.

손 선생의 성격은 끈고 대차고 그늘이 없었다. 잘된 것을 보면 기쁨을 참지 못했고 잘못된 일을 보면 불같이 화를 내고도 돌아서면 금방 잊었다. 70년대 말, 전주에서 문인협회 모임이 있었다. 많은 문인들이 다녀왔고 많은 사람들이 갔던 만큼 말도 무성해서 한동안 서울이 시끌벅적했다. 그 때 전주에 다녀온 손 선생은 난데없이 학교를 하나 세우겠다고 했다. 무슨 학교냐고 물었더니 예술학교를 세운다고 했다. 돈이 어디있느냐고 물었더니 글썽였다. 그리고는

“전숙희가 예술학교 할 거야. 그뎨 도와줘.”

“그래요? 할 때 되면 말하겠죠.”

그 뒤 얼마 있다가 전숙희 선생이 예술학교를 하겠다고 해서 도와준 일이 있다. 그 덕분에 나도 그 학교 이사가 되고 인가 받는 일에서부터 터 닦는 일, 학교 건물을 짓는 데까지 일을 보게 되었다. 그 이후 손 선생은 전 선생과 뭐가 마땅치 않았는지 서먹한 사이가 되어 내게 전 선생의 근황을 물었다. 근황을 묻는댔자 개인 일은 내가 모르는 터라 대답을 못하면 이사 자리로 팔려 갔느냐고 빈정대기도 했다. 이런 일이 몇 년 계속되더니 난데없이 펜클럽 회장에 입후보하겠다고 나를 잡고 종조짐을 해댔다. 깜짝 놀라 정말이냐고 물었더니

“나는 해서 안 되나. 정말 감투 한 번 써 보겠어. 도와줘.” 이 말 한 마디 뿐이었다. 펜회장을 하겠다는 결심이 선 것이 분명했다. 나는 여러 가지 사례를 들어 그만 두어 달라고 말했으나

“듣기 싫어, 날 밀어줄 거야 안 밀어줄 거야.”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럼 됐어, 더 말하지 마, 괴로울 테니.”

전숙희 선생과 나 사이를 짐작하고 하는 말이었다. 그 뒤 며칠이 지난 뒤 전화를 걸어 “성 회장의 우정은 고마워, 이번에 꼭 할 수 있게 날 도와줘.”

손 선생은 돈에 관한 도움을 청할 때는 나를 성 선생이라 불렀다. 돈 이외의 다른 부탁일 때는 꼭 성 회장, 기분 좋게 대화를 나누거나 일상적인 얘기를 서로 나눌 때는 성 박사란 호칭을 썼다. 이 대목에서 성 회장이란 호칭을 쓰는 것을 보고 손 선생이 무척 고민했구나 하는 생각을 했다.

선거는 시작되었고 회장 후보에 전숙희, 손소희 두 사람이 자웅을 겨뤘으니 일반 회원들도 흥미있어 했다. 날마다 문화부 기자들은 나를 찾아다녔고 선거 결과를 점치느라 바빴다. 결과는 손 선생이 낙선되고 나는 부회장으로 또 당선되었다. 나를 가리켜 만년 부회장이란 말이 이 때 나왔다. 덕분에 모 선생이 병원에 입원해 있는 동안 회장 대행 1년에 12년 동안 부회장을 했다. 선거가 끝나고 모두 뿔뿔이 헤어졌는데 우리 몇 사람들은 그대로 헤어질 수 없어서

손 선생과 함께 청진동에 있는 음식점엘 갔다.

“난 이길 줄 알았지 뭐야.” 첫마디가 이 말 뿐이었다. 이 말을 받아 아동문학 학가 김영일 선생이

“역시 여장부야, 여장부…….” 이 두 마디로 선거에 관한 얘기는 끝났다. 맥주를 실컷 마시고 열시 넘어 헤어지는데 내 손을 꼭 잡은 손 선생은

“이번에 혼났어…….” 떨리는 목소리를 듣고 얼굴을 마주 보니 눈자위에 눈물이 배어 있었다. 하고 싶었던 일을 이루어내지 못한 허전함이 가슴에 가득 찼던 모양이다. 그 때 손 선생의 낙선에 결정적인 말이 떠올랐다.

한국 문단을 그 내외가 말아 먹으려고 한다는 말, 김동리 선생이 문첩을 맡고 있는데 손 선생이 펜을 맡으면 꼴이 뭐냐고 수군대는 소리를 듣고도 “一人一事主義(일인일사주의). 내가 할 일이 따로 있고 동리가 할 일이 따로 있다.”고 당차게 말하던 손 선생의 기개는 어디 가고 지금의 모습은 인자한 아주머니 같기만 했다. 나는 동리 선생이 제시건 안제시건 상관없이 손 선생을 늙은 애인이라고 부르며 자주 놀러 됐다.

그 때마다 늙은 애인이라고 부르지 말고 기왕이면 그냥 애인이라고 부르라고 말하던 손 선생, 그는 利財(이재)에도 밝았다. 아동문학가로 일찍 세상을 떠난 강소천 씨 부인 최수정 여사, 그리고 여류소설가 S씨 등을 자주 만났다. 최수정 씨는 보험과 갯돈 때문이었고 S씨는 땅을 사기 위해서였다. S씨는 강남과 과천에 개발되는 땅 정보를 많이 가지고 있었다.

그 때 산 땅이 지금의 집터였고 그외에도 몇 필지가 더 있었다. 신당동 집 자리에 6층짜리 東熙(동희)빌딩(동리의 東동자와 소희의 熙희자를 합친 것)을 짓는데 공사비가 모자라 동분서주할 때의 손 선생 모습은 딱했다. 큰 공사를 하기로 한 남자도 쉽지 않은 일, 손 선생만큼 웅숭 깊은 사람이 아니고는 해내기가 어려운 일이었다. 자재구입, 공사감독, 기성고 지불 등, 헤아릴 수 없는 거친 일들이 많았지만 특히 공사감독 과정에서 나를 자주 불렀다.

나는 장충동 수영장과 사직동 수영장을 직접 지어 운영한 경험이 있어서 설계도도 볼 수 있었고 공사 내역을 살필 수 있는 이점이 있음을 알아차린 손 선생은 현장 사람들과 마찰을 피하면서 실리를 얻기 위해서는 내가 필요하다

고 생각했던 것이다.

또한 공사비 지불을 미룰 수 없을 때 은행에서 돈을 꾸달라는 부탁도 서슴 없이 나에게 했다. 상업은행과 제일은행을 통해 대출을 알선했으나 그것까지 고도 모자라 여러 사람들에게 부탁하는 것을 보았다. 건물이 완공되자 임대가 쉽게 풀려 대출금을 갚고 나서, 제일성이 “내가 예정했던 대로였지 뭐.” 그러면서 만족해하는 모습은 옆에서 보기에조차 즐거웠다.

손 선생은 돈버는 데도 남다른 재주가 있지만 어려운 사람들을 위하여 베푸는 데도 출중한 재주를 가진 분이다. 많은 사람들은 그것이 손 선생의 分配主義^{분배주의}라고 말하기도 했다. 무엇이고 가지고 있는 물건은 남에게 나누어줘야 마음이 놓이는 듯 선선하게, 용처에 따라 주었다. 돈도 마찬가지로였다. 적은 액수거나 많은 액수를 가리지 않고 꼭 줘야 할 사람에게는 기분 좋게 갖다 주었다.

1983년 12월 27일, 東里^{동리} 선생의 고회축하연을 겸해서 시집 {패랭이꽃} 출판을 기념하는 모임을 갖게 되었다. 하루는 손 선생이 나를 부르더니 이 모임을 준비하라는 것이었다. 그래서 서라벌예대 제자인 이문구, 김주영에게 연락하고 엠버서더호텔에서 행사를 갖기로 했다. 지금은 세상에 없는 문협 상임 이사였던 오학영이 어떤 일인지 이 모임에 시큰둥한 반응을 보였다. 손 선생이 이 일을 어디서 들었던지 오학영의 시큰둥하게 생각하는 이유는 관계치 말라고 했다. 왜 그러느냐고 물었더니 이번 일에 소외 당했다고 생각해서 그럴 것이란 대답 뿐, 더 이상의 말은 없었다.

모임에는 문단을 비롯하여 각계의 중진 명사들, 3백여 명이 왔다. 대성황이었다. 나의 사회로 모임은 순서대로 진행되었다. 제자들이 만든 금메달과 꽃다발을 받은 동리 선생은 이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것처럼 가볍게 들뜬 기분이었다. 도무지 일흔 살의 노인이 아니었다. 손 선생도 궁궐의 妃^비·嬪^빈이나 士大夫^{사대부}첩 여인들이 입었던 唐衣^{당의}를 곱게 차려 입고 나와 손님을 맞았다. 즐거운 모임은 끝나고 기념사진을 찍고 헤어질 때,

“참 수고했어요. 이만하면 잘 된 잔치지.” 동리 선생과 손 선생은 몹시 기뻐했다. 그리고는 다음 날, 집에 들르라고 하더니 아주 짝지게 음식을 차려 대

접해 주었다. 무슨 일이고 끝나면 꼭 고마움을 표하던 손 선생. 남의 것을 공짜로 바라지도 않고 더더구나 남의 정성을 하찮게 여기지도 않는 손 선생은 소설 쓰는 데도 욕심이 많았다.

손 선생은 성격이 복잡하지 않았다. 얽히고 설킨 일이래도 쾌도난마와 같이 단칼에 해결하는 속 시원함이 있었다. 우물쭈물하는 것을 싫어했고 젊은이들이 무례하거나 좀 잘못이 있어도 못본 체 했고 무엇이고 조건을 들어 말하지 않았다. 너절한 변명을 싫어했고 한 번 믿으면 누가 뭐래도 의심하지 않았다. 문단 선거를 몇 번 치루면서도 동향인 이봉래씨, 이복이 고향인 김○태씨 등이 섭섭하게 했어도 ‘에이’ 그저 그런 말로 씻은 듯 잊었다. 조목조목 따지는 것보다 상대가 약하면 인정으로 감싸서 받아 들였고 상대가 강하다 싶으면 끝까지 따지고 다그치는 끈질긴 성품도 있었다. 아무튼 불의를 참지 못하는 성품을 남들이 보기에는 급하게 보였다. 그렇지만 그것은 손 선생의 올곧은 생각이었고 불의와 타협하지 않는 純白色^{순백색}의 결벽이었다.

한국문학진흥재단에서 우리 소설을 번역하여 외국에서 출간할 때 장편(남풍)을 번역해달라는 손 선생의 말을 지키지 못한 것이 지금도 후회스럽다. 을유문화사에서 간행된 『남풍』을 들고 와서 “이것만 번역해서 미국에서 출간되면 좋겠다.”고 말씀하시고는 맥주 마시러 가자고 손을 잡아 끌던 모습이 눈앞에 생생하다.

활달하고 명랑하고 의지가 굳던 손 선생은 소설 속의 주인공을 통하여 조선의 한을 삭히기도 했고 일으켜 세우기도 했다. 자갈밭처럼 되얌지기만한 문단에 너넉한 가슴을 가지고 하찮은 것이거나 값나가는 것을 가릴 것 없이 소용달는다고 생각되는 사람을 만나면 나눠주던 안방마님 같던 손 선생, 그 손길, 그 마음을 다 퍼지 못하고 광주군 오포면 신현리 산기슭에 영원히 잠들고 있다.

운명하기 얼마 전 서울대학 병원에서 동리 선생, 조경희, 홍윤숙 선생, 그리고 나를 번갈아 쳐다보며 혈떡이는 숨을 깊게 들이 마시고는 그것도 참지 못했던지 마른 침까지 힘겹게 넘기다가 헛기침을 하던 모습은 살맞은 사슴처럼 眼光^{안광}인광에 힘이 빠졌다. 그런데도 東熙^{동희}동회재단 허가는 어떻게 되었느냐고 나

에게 다그치던 모습을 잊을 수 없다. 그 재단에서는 동리 선생과 자신의 문학
을 기리는 사업을 하겠다고 꿈을 펼치더니 결국 그 일을 영원히 끝맺지 못하
고 눈을 감으셨다. **수필시대**

허드슨 강 가의 가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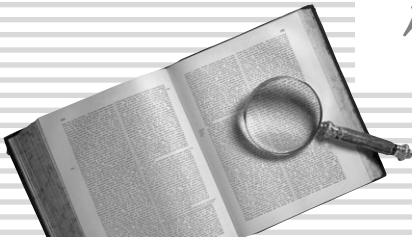
손태야 수필집
문예운동 / 값9,000원

세월 깨닫기

류인석 수필집
문예운동 / 값15,000원

마음의 정원

성낙규 수필집
문예운동 / 값9,000원



세계수필의 현장 · 5

| 일본 편 | 岡本^{오카모토} · かの子^{가노코}의 四雲夢^{사운몽}



鴻農映二 (고오노에이지)
kono20052002@yahoo.co.jp

여자가 가장 행복한 상태는 남편이 있고, 밖에 애인이 두 사람이 있는 상태라고 한다. 그러면 그 세 사람이 한 집안에 있으면 어떻게 될까? 실제의 예가 있다. 바로 오카모토 · 가노코가 그걸 실친한 것이다.

가노코는 그녀 없이는 사는 보람이 없다는 남편을 얻었다. 그 남편은 자기와 섹스 안해도 좋고, 어떤 남자와 사귀어도 좋으니 제발 내 곁에 있어달라는

동국대 대학원 국문과 졸업, 「현대문학」지로 평론 추천완료
추천작품은 「일본 모더니즘과 이상 시」, 「정지용의 생애와 문학」
아사히신문 〈해외문학〉란 담당, (현재) 도서신문 칼럼니스트
한국회국문학상(특별상), 한국회국문학상(번역상) 수상

사람이었다. 운이 좋은 사람은 아무한테도 지지 않는다. 그런 남편 덕분에 가노꼬는 남자가 주인 아닌 여자가 주인의 하렘을 구축한 것이다.

가노꼬는 성에 조숙한 여자였다. 그의 처녀소설 「가야의 성장」에는 그 증거가 벌써 나와 있다.

저기에 본채쪽에서 가정교사가 왔다. 가정교사는 젊은 남자를 보자 갑자기 미소를 짓고 다가갔다.

「오래간만이군, 진조오쌍」라고 말하고 이번에는 가야를 향해 「가야짱 이분이 피리 잘 부는 진조오쌍이에요」라고 말해놓고 가야 얼굴을 들여다봤다.

「어머, 가야짱, 당신 진조오쌍을 낫을 잃고 바라보고 있네. 진조오쌍 가야짱은요 당신 피리 소리를 아주 좋아해서 매일 밤 열심히 듣고 있어요」

가정교사 말이 끝나자 진조오는 또다시 미소를 지었다.

그 순간 강하고 날카롭게 모든 진조오의 인상이 어린 가야 가슴으로 파고들어간 것이다. 가야는 갑자기 본채쪽으로 도망치기 시작했다. 잠시 어안이 병병하던 가정교사가 허둥지둥 쫓아갔더니 가야는 좀 퇴색한 빨간 허리띠를 맨 뒷모습을 보이고 서원 뒷마루쪽에서 고개를 숙이고 있었다.

「가야짱, 가야짱 왜 그래요 어떻게 했어요」

이렇게 말하며 가정교사가 가야를 봤는데 가야 얼굴은 상기하고 눈물 자국이 보였다.

「가야짱 당신이 창피했어요? 정말 그랬어요」

어이가 없어 가정교사는 곧 「조속하구나 당신 정말 조속해요」라고 혼잣말을 했다.

이 가정교사는 먼 친척 사람이며 고전에 관한 교양이 있는 사람이었다. 이 여자는 가노꼬를 특별시하고 본인의 엘리트의식을 불러일으켰다.

가노꼬의 집은 말하자면 재벌의 회장집 같았다. 즉 에도시대 때 도쿠가와막부와 거래하는 상인의 집이었으며 창고는 48개나 있고 종업원은 수백 명을 넘었다. 그런 어마어마한 집의 따님이었다.

가노꼬의 조숙함이 본격적으로 시작한 것은 18세 때부터다. 학교 축제 때

만난 동경제대 법과 학생 마쓰모토하고 연애한다. 가노코의 연애의 특징은 상대가 다 인테리인 점이다. 이 연애는 벌써부터 그런 경향이 나타나 있다고 할 수 있다. 같은 해 가노코는 귀족 출신의 후세야하고도 연애를 한다. 이 사람과의 연애는 가노코 집안과 후세야 집안의 반대 때문에 실패하고 만다. 계속해서 가노코는 미대생 오카모토·잇페이하고 알게 된다. 후일의 남편이 된 사람이다. 잇페이는 아사히 신문의 만화를 담당하고 일본만화의 창시자 같은 사람이 됐다.

가노코는 21세 때 잇페이와 결혼한다. 처음에 가노코 어머니는 잇페이 보고 「아무것도 못하는 우리 딸하고 결혼하고 어찌자는 겁니까?」라고 했다고 한다. 그리고 「꼭 평생 동안 책임 저 주세요」라고 다짐했다는 것이다.

결혼한 다음 해 아들인 다로오가 생겼다. 이 다로오는 70년 오사카 만박때 태양의 탑을 디자인한 사람이다.

결혼 이년 후 가노코는 바람을 피우기 시작한다. 잡지 「문장세계」에 투고한 인연으로 와세다대학교 영문과 호리키리와 사귀게 되는 것이다. 가노코는 호리키리의 애를 두 명이나 낳았다. 두 명 다 태어난지 얼마 안 가서 죽고 말았는데 호리키리도 가노코와 사귀지 사년만에 늑막염으로 죽고 만다. 이 때부터 가노코는 잇페이하고는 부부관계를 안 가지기로 결심한다.

그 해 쓰네마쓰·야수오가 가노코 집으로 들어온다. 쓰네마쓰는 훗날 시마네현 지사가 되는 사람인데 21년간 가노코와 함께 살았다. 물론 가노코의 애인이었다. 가노코는 쓰네마쓰가 결혼한 여자에게 심한 압력을 가했다.

가노코는 35세 때 또 열애를 했다. 그 상대는 게이오병원의 의학생이었다. 치질을 수술하기 위해 입원한 병원에서 닷타·가메조오에게 반해버린 것이다. (연애 선수는 모든 기회를 놓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이 예로도 알 수 있다) 닷타는 가노코와의 연애가 소문이 되어 병원에 못 있게 되었다. 할 수 없이 복해도에 있는 병원으로 멀리 떠났는데 둘이는 서로를 너무나 사랑하고 있었다. 닷타는 잇페이에게 「부인을 나한테 주십시오. 나는 부인과 정식으로 결혼하겠습니다.」라고 호소했다. 그런데 잇페이는 「가노코를 나한테서 빼앗지 말아주세요. 우리는 이제 부부생활은 안 하지만 내게 있어 가노코는 생활의 지

주예요. 생명이예요. 가노꼬 없이는 내 생활은 생각할 수 없어요. 시는 보람을 빼앗지 마세요. 우리는 진지한 생활을 하면 돼요. 사회의 도덕이나 세상의 비난 같은 것은 문제가 아니예요. 당신들이 무슨 짓을 해도 되요. 다만 가노꼬를 내 생활에서 빼앗은 일만은 하지 말아줘요」라고 한 것이다. 이리하여 가노꼬는 닷타를 만나러 몇 번 북해도까지 가게 됐다. 가노꼬를 아오모리까지 데리고 가는 사람은 남편 잇페이였다. 북해도로 가는 배를 탄 아내를 잇페이는 배웅했다. 그리고 북해도 하키타다테에서는 닷타가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다. 보내는 남편, 기다리는 애인, 이 장면은 무슨 비극인가 희극인가 세계의 역사속에서도 아주 드문 일인 것은 틀림없다.

그 이년 후 닷타는 가노꼬 집에서 동거하게 됐다. 「가노꼬는 남자 첩을 두고 있다」고 소문이 약간 났지만 그걸 아는 사람은 별로 없었다.

가노꼬가 40세 때 일기는 구라과여행을 가게 됐다. 「잇페이 전집」 전 10권 5만세트가 예약완매되고 계속해서 5권이 추가 강행이 됐다. 그 수입으로 가노꼬, 잇페이, 다로오 쓰네마쓰, 닷타의 다섯명이 약 3년동안 구라과에 취재하는 여유가 생긴 것이다. 그들 일행은 상해, 홍콩, 싱가포르, 베난, 콜롬보, 안텐, 수에즈, 카이로, 나포리, 마르세유, 파리, 런던, 아일랜드, 베를린, 오스트리아, 이탈리아, 남프랑스, 뉴욕, 시카고, 로스앤젤레스를 돌았다. ‘런던에서는 펜클럽에 가입하고 프랑스에서는 가노꼬 소설의 불역도 검토하고 있다. 1932년 그러니까 지금부터 74년전의 일이다. 세계를 본 사람의 국제감각이 충분히 발휘되어 있다. 가와바타·야수나리가 노벨문학상을 수상하는 것은 훨씬 뒤의 일이다.

1938년 49세가 된 가노꼬는 게이오대학교 학생과 여행 가고 뇌일혈으로 쓰러졌다. 그 다음 해 소설 「老技抄노기초」가 아꾸다가와상 후보작이 됐지만 병세가 악화하고 드디어 죽고 말았다.

남겨진 사람들의 소식은 이렇다. 닷타는 아버지 병원 후계자가 되어 나중에 고향의 마을의 명장이 됐다. 잇페이는 2년 후 재혼하고 일남삼녀를 얻었다. 아들 다로오는 일본을 대표하는 예술가가 되고 TV에도 많이 나오고 국민의 아이들이 되었다.

문필가로서의 가노꼬의 활동은 13세때 「소학세계」지에 보낸 글이 게재되어 14세 때 일본의 정형시인 단가를 만들기 시작했다. 제일가집 「가벼운 질투」를 낸 것은 23세 때, 그 6년 후 제이가집 「사랑의 고민」을 출판. 처녀소설을 쓴 것은 30세 때였다. 그 후 동화, 시, 희곡, 콩트, 불교수필 등을 계속해서 발표 구라파로 떠나기 전에는 주로 단가시인으로 세상에서 알려졌다. 귀국 후에는 기행문도 썼지만 소설에 정열을 기울였다.

가와바타·야수나리에게 보낸 편지에는 그런 가노꼬의 마음을 엿볼 수 있다.

「저는 어떻게 해서라도 소설가로 세상에 나가고 싶은데 미숙이라서 비탄하고 있습니다. 제발 지도해 주십시오. 선생님의 잡지나 또다른 적당한 데로 보낼 원고를 추천해주십시오. 미숙한 것을 알면서 폐 끼치는 것은 정말 미안하다고 생각합니다만 그래도 여러 가지 작업하고 있으면 훈련도 되고 공부도 되리라 생각해서 그렇습니다. 만약 적당한 작품이 못되면 선생님 지도대로 다시 쓰겠습니다. 저는 꼭 소설가가 되고 싶습니다. 이는 사람도 많지만 요즘 꼭 선생님에게 부탁하고픈 마음이 계속되어 폐 끼치는 것을 알면서도 남편과 상의하고 부탁하기로 했습니다.」

가노꼬는 1936년(47세) 소설 「학은 병든다」를 발표하고 이 작품으로 각광을 받았다. 그 당시 여류작가들이 다 칭찬을 아끼지 않았고 제 7회 「문학계상」을 수상했다.

그 후도 「명암」, 「모자서정」, 「강」, 「꽃은 강하다」, 「여름 밤의 꿈」 등 소설을 계속 발표하지만 사는 날은 얼마 남지 않았었다. 간장병 때문에 입원하고 쓰네마쓰가 결혼을 계기로 집을 떠나자 가노꼬는 심각한 충격을 받았다. 닷타는 이 때의 가노꼬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증언하고 있다.

「가노꼬에게는 우리 세 사람이 다 필요했던 겁니다. 세 사람이 필사적으로 지탱하는 힘이 균등할 때 가노꼬라는 정열적인 혼과 육체가 안정되고 안심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중 한 사람이라도 부족한다는 것은 가노꼬의 정신의 밸런스가 무너지게 됐다. 갑자기 약하기 시작한 것이었어요」

가노꼬는 남편에게 「덕분에 여기까지 올 수가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라

는 말을 했다. 잇페이는 눈물을 흘리며「세계의 문호가 된다고 했잖아요. 아직 시작이예요」라고 대답했다. 아들 다로오는 「어머니는 육체적으로도 정신적으로도 남달리 상처 받기 쉬운 절망적인 허약함을 갖고 있었다」고 말하고 있다.

이하 가노코의 수필을 소개한다.

마로니에 꽃

아버지가 영국을 좋아하는 사람이었기에 처음 일년간은 꼭 런던에 살고 그 나머지는 목적의 파리 유학을 할 수 있게 약속한 청년화가가가 있었다. 살기 싫은 곳이라 늘 런던에서 파리로 가는 것을 꿈꾸고 있었다. 그 화가는 파리를 그리워하는데 항상 이런 말을 썼다.

-오! 마로니에 꽃이여

그리고 그 꽃이 피는 무렵 그 꽃이 밑에서 순진한 파리젠느와 사랑을 하겠다고 즐기고 있었다.

영국의 첫여름. 공원이나 會堂화당 울타리 안에는 잎이 많고 촛불을 세운 듯한 하얀 꽃이 핀 나무가 자주 보인다. 영국인은 호스낫트·쥬리라고 말한다.

청년화가가가 하숙하고 있는 방 창문에도 이 호스낫트·쥬리가 하얀 촛불을 내밀고 있었다. 청년은 쳇 하고 혀를 차고

-참 촌스러운 꽃이구나. 마치 영국 같다.

라고 말하고 있었다. 그렇게 말하면서 그 꽃 밑에서 그 집 딸과 연애를 해버렸다. 그런데도 파리의 사랑에 관한 동경은 버리지 않고 “영국 여자는 거칠 거칠하고” 라고 헐뜯기만 하고 있었다. 일년이 지났다. 하숙 집 딸과의 이별은 꽤 괴로웠던 모양이다. 그러나 장래를 꿈꾸고 청년은 뿌리치는 듯 더버해 협을 건넸다.

다시 첫여름이 왔다. 파리의 청년으로부터 그 때 영국에 있던 나한테 편지가 왔다.

“마담 파리의 마로니에는 영국에서 말하는 호스낫트입니다. 남을 깔보네요. 나는 평생의 꿈이 깨지고 말았어요. 파리젠드를 봐도 아무 관심도 안 생겨요”

그리고 나서 곧 청년은 다시 런던으로 돌아왔다. 그리고 촌스러운 호스낫트 피는 창문안의 거칠거칠한 영국 아가씨 곁에 안주하게 됐다.

샘의 女神여신

서양의 문화속에 흐르는 사상 중의 하나로 “에게니아”라는 것이 있다. 「생의 여신」이라는 뜻이다.

남성이 여성한테 끝없는 영감의 원천을 찾아낸다. 그 여성을 일컫기를 에게니아라고 하는 것이다. 아미와도 다르고, 그냥 애인과는 다르다. 생명적인 감화를 주는 이성의 心友(심우)인 것이다.

출전은 이탈리아 옛 전설에서 나와 있다.

에게니아는 다이아나 숲 가까이에 있는 시냇물의 님프 이름이며 누마왕의 아내이며 그리고 또 좋은 충고자라고 되어 있다. 여기서 에게니아 사상이 흐르기 시작했다.

가장 유명한 이야기는 시정 단테에 있어서의 베아트리체다. 어렸을 때 좋아하는 사이이기는 했지만 성장하고 나서 아루노강가에서의 재회로 그녀는 단테의 평생의 에게니아가 됐다. 그 때 특별히 이야기한 것도 아무것도 아니다. 베아트리체의 조심성 있는 인사 단지 그것만으로 이 시정은 그가 말하는 바로는 “최상의 영지”한테 충격받은 것이다.

시정은 그 감명으로 「신곡」을 완성했다.

나포레언에 있어서의 죠세휘느 바르크에 있어서의 한스카부인-그런에는 얼마든지 있다. 일본에서도 히데요시에 있어서의 망도꼬로, 요시즈네에 있어서의 시쥬카고젠 등 그 예는 많다.

에게니아 소질은 모든 여성에 내재하는 “영원한 처녀성”을 가리키는 것이다. 여성 그 본인은 느끼지 않아도 어떤 남성에게는 그 여성의 현명함 부분에

서 어떤 남성에게는 그 여성의 아름다움에서 각인각색으로 감수받는다. 그리고 그걸 원해도 못 얻을 경우 겐치모노가타리의 히카루겐치의 여성편력이 된다.

영웅은 어떤 면에서는 어린이다. 그래서 에게니아의 선악은 영웅의 사업의 선악에 영향된다.

요즘 영웅론이 한창인데 그 점도 함께 연구했으면 한다. 일반인의 아내가 남편에게 좋은 에게니아일 경우는 남편뿐만 아니라 가족의 활력이 된다.

無烟^{무연} 일기

나는 낭비가라서 알뜰한 친구가 있는 것이 가끔은 기분이 좋다. 나는 알뜰한 친구와 함께 있으면 로맨틱스틴 나에게 리얼리즘이 가미된 것 같아 안심되는 것일지도 모른다.

그런데 나보다 훨씬 돈이 많은 사람이 엄청나게 돈을 쓰는 것을 구경하는 것도 재미있다. 나는 그런 어리석기 짝이 없는 일을(그러나 이런 일 가운데에 거짓말이 아닌 진실이 쓰인다고 믿고 있다) 생각하면서 금년을 살고 싶다.

「1936년에 대한 요망」이라는 당당한 제목을 「빛남」에서 의뢰 받았는데.

종교 이야기를 쓰면 어렵다는 말을 듣고 평속하게 알기 쉽게 쓰면 저조하다는 말을 듣는다. 절실히 귀찮아지고 남에게 이야기하는 것은 아무거나 어때, 자기 혼자 누워 있고 싶다고 말하면 또 개인주의라는 욕을 먹을 것인가?

혼자 노래 부른다. 그러면 남들 앞에는 부르는 것보다 훨씬 잘한다. 자기가 부르는 노래로 영향 받고 뚝뚝 눈물이 떨어진다. 무슨 어린이가 이상하게 나를 보고 있었기에 창피해서 그 뺨을 때렸더니 외양 울기 시작했다. 나는 그 어린이를 껴안고 함께 울었다. 나는 자주 우는 여자다. 나는 울면서 사람을 그리워하는 여자다. 그리운 것은 애인뿐만 아니다. 세상 사람들 다 가난뱅이도 부자도 기술자도 셀러리맨도 장관도 분노를 치우는 사람도 명예심 때문에 몸을

더럽히는 여자도 도둑도 경찰관도 창녀도 여승도 그리고 당신도 나도.

무슨 모모주의라는 이름을 붙이고 인류구제에 나서야 하는 것이지만 아직 나이가 모자라서인가 기분이 짝어서인가.

입이 큰 시도 아무것도 모르는 남자 앞이나 귀머거리 할머니 곁에서 열심히 자기 시와 철학을 이야기하고 기분이 시원할 때가 있다. 나는 경솔한 반항은 싫어한다.

일본의 출판사가 일본문학전집을 낼 때 가노코는 꼭 들어가는 작가가 됐다. 그리고 가노코 자신의 개인문학전집도 세 차례에 걸쳐 나와 있다. 1962년에는 아들 다로오 제작의 오카모토·가노코 문학비가 세워졌다. 그 제목은 「궁지」다. **수필시대**

맛있는 성공, 맛eat는 웰빙

김심모 칼럼집
문예운동 / 값10,000원

초리골 바람소리

성희모 수필집
문예운동 / 값10,000원

출신작가 수필모음



김대환, 박영준, 성민희, 이디아, 이문자, 이문주, 이상옥,
양용모, 오혜진, 유옥상, 최미자, 한인자, 황정순

바둑



김 대 환 dh5008@yahoo.co.kr

바둑은 이미 3천여 년 전에 중국에서 시작하여 오늘날 구미 각국으로까지 보급되어 바야흐로 바둑문화의 전성기를 맞이하는 듯 발전하고 있다. 바둑의 장구한 역사에 비하면 그 사실에 대한 문헌은 극히 희소하여 언제 누구에 의해 시작되었는지 확실하게 밝혀 진 것은 없고 다만 여러 기록에 근거하면 중국의 요순 창시설이 있고 춘추전국시대에 발달했다고 한다. 한반도 전래는 중

〈수필시대〉 등단
경남 교육대학원 졸업
경남정보대학 겸임교수 역임

국의 여러 나라들과 친선 외교 관계를 맺어 빈번하게 왕래하던 삼국시대 전기가 아닌가 한다.

바둑이라는 것은 그 형상으로 보아 하늘은 둥글고 땅은 네모진 모양과 흡사하게 만들어졌고 흑백의 다툼에는 天地陰陽動靜 천지음양동정의 도리가 작용한다. 바둑을 두어 가는 반면의 위에는 하늘과 별과 같이 질서 정연함이 있고 국면의 추이는 풍운의 변화와 같은 기운을 함축하고 있다.

바둑은 두 사람이 벌리는 게임이지만 옆에서 관전하는 것도 흥미롭다. 게임이 시작되면 두 사람은 바둑판을 사이에 두고 정중하게 마주 앉아 인사를 나누고는 서로 자신이 잘 두노라 뽐내며 지지 않으려고 최후까지 안간힘을 쓰는 것이 상례이다. 평소 친한 사람끼리 두면 상대방의 심리까지도 실전에 응용하게 되고 낯선 사람과도 몇 판만 두면 그 사람의 심리를 쉽게 알 수 있는 것으로 쉽게 절친해질 수 있는 사교상의 좋은 놀이로 각광을 받고 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바둑이 재미있는 게임이라는 정도로만 이해하고 있지만 알고 보면 우리의 삶에서 여러 가지 긍정적인 요소들을 많이 가지고 있다. 생활에서 쌓인 스트레스를 풀 수 있고 건전한 여가선용을 할 수 있는 것이며, 어린이들에게는 창의력 개발, 집중력 향상, 응용력 등 교육적 목적으로 장려하기도 한다.

우리 한국인은 유달리 바둑과 친숙한 국민으로 알려져 있는데 한 가정에 한 두 사람은 바둑을 즐기는 정도이며 세계바둑대회에서 한국의 유명기사들이 언제나 석권하고 있는 점이다. 뿐만 아니라 바둑에서 사용하는 격언, 십계, 십훈, 용어들인 포석, 정석, 악수, 묘수, 수순, 끝내기, 일수불퇴 등이 우리들의 일상생활에서 그대로 잘 활용되고 있다. 바둑 십훈의 하나로 ‘知彼知己 萬古不易 지피지기 만고불역’은 상대를 알고 나를 알면 백전 백승, 상대도 모르고 나도 모르면 백전 백패. 그러므로 지피지기는 만고불변의 법칙이며 살아가는데 꼭 새겨둘 만한 말이다.

언제나 게임의 매듭이 단호한 바둑은 승부가 결정될 때까지 내내 긴장이 고조되는 것인데, 사교바둑일지라도 상대방과 서로 마주 앉으면 棋戰기전이라 하여 마치 전쟁에 비유하기라도 하듯 긴장되는 것은 누구나 경험하는 바다. 바

둑은 서로 상대될 수 있는 기력으로 급수가 정해져 있고 정석을 익히지 않고서는 실익을 얻을 수 없어 오랜 실전 경험이 있어야만 바둑을 이해할 수가 있는 일이다.

바둑은 신의 세계에서도 자주 등장한다. 어떤 사람이 신과 내기바둑을 두어 이김으로써 세계적인 천재가 태어나게 하는 약속을 받았다는 이야기며, 어느 나무꾼이 깊은 산중에 들어가 넓다란 바위 위에서 두 노인이 두는 한판의 바둑을 구경하고 일어났는데 벗어두었던 지게와 도끼자루가 다 썩어 있었다고 한다. 알고 보니 바둑 한판승부가 근 10년이나 지나갔다고 하니 그 노인네들은 신선이었음에 틀림없었다.

요즘 TV에서도 바둑 전용 채널이 생겨 바둑애호가들의 흥미 있는 관전시간을 제공하고 있다. 이를 간간이 보노라면 바둑판 위에서 흑, 백들도 종종 격량을 일으킨다. 돌이 흐르는 방향, 돌과 돌 사이의 여백도 아름답지만 과장과 생략, 리듬 등이 뒤범벅된 바둑판은 늘 변화무쌍한 모자이크로 펼쳐진다. 승부를 내건 돌들의 몸놀림은 긴장, 감도, 웃음이 교차하는 반상의 세계가 마치 ‘바둑은 인생의 축소판’ 같은 느낌을 지울 수 없다.

이렇게 사람들이 바둑을 좋아하는 것은 그 게임이 재미있는 것만이 아니라 그 속에는 오묘한 진리와 인생의 지혜가 담겨 있기 때문이다. 전체의 흐름에 치중하다보면 부분을 소홀히 하기 쉽고 부분에 치중하다보면 대세를 그르치기 쉽다. 실리를 위주로 하면 세력이 처지기 쉽고 세력을 위주로 하면 실리를 잃게 되는 수가 많다. 또한 과욕을 부리면 실패를 면하기 어렵다.

또한 ‘자신의 삶을 도모한 연후에 적을 공격하라’ ‘상대가 공격할 때는 침착하게 생각한 뒤 허점을 찔러라’ ‘이미 죽은 말에 집착하지 말고 대세를 살피라’ 는 등 실로 생생한 처세의 철학이 깃들여 있다. 이러한 지혜는 바둑을 두는 과정 속에서 스스로 발견하고 또 체득되는 것이다.

바둑을 둘 때에는 반듯하게 앉아서 정중한 태도로 상대방에게 예의를 다해야 한다. 포석에 따라서 한 점, 한 점 돌을 놓으며 집을 짓고 승부를 겨루며 때로는 ‘패’ 를 만들어 지루한 싸움이 계속될 때에도 헛수를 보지 않고 명수를 찾는 데는 깊은 사고가 요하고 전체의 이해득실을 따져야 한다. 명인들의 승

부는 몇 점 안팎에서 항상 좌우되는 것을 볼 수 있다. 그래서 바둑은 머리싸움이라고 한다.

명궁은 아무리 작은 과녁도 서슴치 않고 명중시킨다고 한다. 마찬가지로 대세의 흐름을 관조하는 사람은 아무리 어려운 문제라도 슬기롭게 해결해 낸다. 바둑은 그러한 마음의 깊이를 다져 준다. 또한 바둑은 끈질긴 인내의 자세가 요구된다. 성질이 급한 사람은 바둑을 빨리 두려하지만 그럴수록 실패하는 경우가 다반사이다.

인생살이의 대다수가 그러하듯 때를 기다리는 자세가 중요하다. 대기만성이라고 하는 것도 결국 진짜 승부를 가려야 할 때를 기다린다는 뜻이다. 바둑을 통해 인생의 지혜를 배움직하다. **수필시대**

늦깎이의 낙서 · 4

민기식 수필집
문예운동 / 값7,000원

곰띠띠따

송영미 수필집
문예운동 / 값8,000원

웃음 한 사발, 빼알간 장미 한 송이

정대연 콩트집
문예운동 / 값10,000원

출발점

박 영 준 sirio20@hanmail.net



육상에서 200미터 이상 달리기의 출발점은 제각각이다. 곡선 走路주로를 달릴 때 바깥쪽 走者주의 손해를 보상해 주어야만 공정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일견 저 만치 앞서 있는 듯해도 실은 정확히 같은 출발점에서 있게 되는 것이다.

물론, 1등과 꼴찌가 반드시 있게 마련이기에 애초의 공평함이 결과적으로 큰 의미없게 느껴지는 건 사실이다. 하지만 정확하게 출발점을 달리 한 시험, 그러니까 승리의 기회가 확률적으로 공평하게 주어진 상태에서는 패배의 쓰라림이 좀 덜할 듯싶다. 다 제 능력에 따라 결정된 것이라고 자위할 수 있을 테니까 말이다.

언젠가, 아주 유복한 가문에서 태어난 어느 언론사주가, ‘재산이 많은 것이 다른 범한 사람들 눈에는 못마땅하게 보이겠지만 애초부터 출발점이 다르다는 것을 이해해 달라’는 취지의 말을 했던 것이 기억이 난다. 그가 하고 싶은 얘기는 필경, ‘송충이는 솔잎을 먹어야만 하는 엄연한 현실의 존재 일 테고, 다른 사람들(the others)이 봤을 때는 ‘왕후장상에 어찌 씨가 있나? (王侯將相寧有種乎)’ 라는 생각임에 틀림없다.

경북 성주 출생, 서울대 대학원(정치학)
공무원문예대진 입상, <수필시대> 등단, 공군중령
저서 : 섬의 세계사(1999)

나름대로야 一理일리가 있는 얘기들이겠지만 내 보기엔 둘 다 아닌 것 같다. 소위 ‘잔인한 현실론’은, ‘환경을 인정하는 것이 자신의 능력을 스스로 의심스럽게 할 개연성이 있다’는 점에서, ‘천지개벽의 희망론’은 ‘왕후장상같이 잘 나고 부자인 사람이 왜 늘 少數소수인가?’에 대해 시원한 답을 주지 못한다는 의미에서 그렇다.

요즘 들어 이 사람 저 사람 만날 때면, 예전과는 다르게 자꾸 비교해보는 습성이 ‘쳐너 봄바람 난 것’ 처럼 하염없이 생겨난다. ‘이 친구는 언제 저렇게 돈을 많이 벌었어?’, ‘저 친구는 직업 든든하니 목에 힘줄만 하겠어!’ 등 나름대로 이리저리 평가를 해댄다. 그리고 연이어서, ‘저 친구가 옛날에는 비실비실했는데 운수가 대통했나보네?’라고 위안을 삼다가, 결국엔 참지 못하고 ‘지가 언제부터 잘났다고 저렇게 건방을 떨어? 라고 올라가미를 씌워서 혼자 북치고 장구치고 다 한다.

꿈꿈이 생각하고 자시고도 없이 열 받은 이유는 뻔하다. 애초에는 분명 그들의 출발점이 내 뒤에 있었는데 결과는 영 탄환인 현실에 대한 원망과 자책인 것이다. 더욱이, 백번 양보해서 그들이 최선을 다했다고 해도 나 역시 그냥 놓고만 있었던 건 아닌데, 불행히도 항상 ‘결과와 현재’만 존재하는 현실에서의 내 위치란 ‘상대적’으로 이전과 달라져 있다. 모두들 내 옆으로 썩썩 달려 나가는 듯하다.

물론, 公益공익을 추구하는 직업 특성상 밖의 私人사인들처럼 ‘富부의 축적’을 최고의 善善으로 삼을 수 없다는 사정이 있긴 하다. 하지만, 그게 뭐 대수인가! 그저 ‘하나의 직업’, 즉 ‘일을 하고 생활비를 버는 여러 수단들 중의 하나’라는 그들의 인식에서 벗어날 수는 없다. 그리고 그런 인식의 연장선 위에서 애시 당초의 출발점은 ‘추억’에 불과하고, 부의 寡少과소가 최고의 가치척도인 현실에서 저마다 목표달성을 위해 몰입해 있는 것이다. 그러니, 머릿속에 든 생각과는 무관하거나 혹은 환경이 허락하지 않는 ‘이 죽일 놈의 현실’에서 잘 나가는 竹馬故友죽마고우들을 존경할 수밖에!

근데, 이렇게 딱 잘라 흑백논리를 들이대면서 위안을 삼아도 속이 개운치 않은 이유는 뭘까? 제 입으로 말하기 쑥스럽다는 느낌도 든다. 분명히 찢리는

데가 있다는 얘기다. 결국 以實直告(이실직고)하자면, 누구에게는 배부른 소리로 들릴 수도 있다는 사실 때문이다. 내가 바라보고 있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나를羨望(선망)하는 이들도 함께 생각해야 된다는 의미일 게다. 게다가, 우월한 ‘명분’을 강조하고픈 일련의 내 사고방식이 정작 ‘보편성’을 지닌다고 장담하기도 어렵거나와 잘나가는 친구들이 힘들어 할 때 뭘 보태준 것도 없지 않은가!

그리고 보니, ‘열 받지 마라’는 공자님 말씀(仁)도 생각나고, ‘신경(번뇌)을 끊어라!’는 부처님 말씀도 떠오른다. 평생을 이 나라 저 나라 떠돌면서 방랑생활을 했던 ‘루소(J. J. Rousseau)’도 새삼 기억난다. ‘인간은 자유롭게 태어났으나, 태어나면서부터 쇠사슬에 묶여있다’고 秋霜(추상)같은 소리를 해뒀던 그의 지론은 ‘남과 비교하지 마라’는 것이었다. 불행의 시작이 바로 ‘비교하기’에서 비롯된다는 뜻(意)이다. 누구 잘 나간다고 열 받지 말고, 어떤 친구가 부모 잘 만나 좋은 차 탄다고 마음 쓰지 않는 것이 身上(신상)에 이롭다는 말씀이다.

에이, 그래도 말이 쉽지 그게 어디 如反掌(역반장)인가? 머리로는 이해하겠는데 마음이 가지 않는다. 학교는 어디 나왔는지, 뭘로 먹고 살며, 아버지는 뭐 하는 사람인지, 아니면 하다못해 키가 큰지 작은지 라도 시시콜콜하게 ‘내 꼬라지’와 비교하게 되는 것이 人之常情(인지상정)인데, 그걸 하지마라 한다고 될 거냐 말이다. 더구나, 비 맞으며 택시 기다리는데 외제 차 타고 휙 지나가면 열 받지 않을 인간이 몇이나 되겠는가!

얘기가 겉도는 감이 있다. ‘道可道(도)도 非常道(불상도)’의 뭐라 규정할 수 없는 세상일은 접어두고, 다시 트랙(track)으로 돌아가자. 달리기(의) 거리는 처음부터, 꼴찌 할 선수나 일등 할 선수 모두에게 똑같다. 그래서 불만이 없다. 오로지 제 능력에 달려 있을 뿐이다. 출발점이 틀려도 그건 ‘동일한 조건을 위한 인위적 차별’에 불과하다.

하지만 가만히 들여다보면, 출발점의 어느 누구도 다른 走者(주자)와 비교하지 않는다. 오로지 달릴 생각에만 집중해 있다. 그리고 순위가 결정되었을 때, 누구하나 옆 사람의 신발이 인체공학적으로 자기보다 더 가볍게 만든 것이어서,

혹은 키가 크고 다리가 길어서 불공평하다는 얘기는 하지 않는다. 출발점이 다른 것, 즉 동일한 조건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얼마나 열심히 달렸느냐 만이 평가될 뿐이다.

출발점, 그건 정말 출발점일 뿐이다. 그리고 삶의 競走경주에서는 곡선주로 라고 해서 친절하게 補正보정해 주는 일은 천지간에 없다. 출발점이 어땠든 자기 코스에서 눈 질끈 감고 무조건 달려야 하는 이유이다. 내일 당장 새 운동화를 사야겠다. **수필시대**

황금빛 비둘기

신옥자 수필집
문예운동 / 값10,000원

고구려의 자존심

윤주홍 수필집
문예운동 / 값8,000원

나에게는 언제나 현재와 미래만 존재한다

국중하 수필집
문예운동 / 값8,000원

친구 생각

성민희 janelyu@hanmail.net



오랜만에 골프장엘 나왔다. 연말 연시 모처럼의 연휴를 사흘 내내 내리는 비바람 땀에 집안에서만 뒹굴다가, 아침 반짝이는 햇살이 너무 반가워 모두들 의기 투합했다. 근데 몹시 어수선하다. 나뭇 가지가 통째로 부러져 누워있는 가 하면, 땅바닥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많은 나뭇잎들이 떨어져 있다. 군데군데 패인 웅덩이에는 미처 땅속으로 스며 들지 못한 빗물들이 고여 찰랑거리고, 바람은 아직도 겨울비를 만지던 그 감촉을 버리지 못한 채 찬 손을 벌리며 이리저리 헤집고 다닌다. 그나마 남겨졌던 몇 조각 나뭇잎조차 빗물에 뺏겨 버린 앙상한 가지들은, 사정없이 흔들어대는 바람에게 앙탈을 부리느라 웅웅 소리를 내고 있다.

얼마나 비바람이 몰아쳤었는지, 날려 보낸 공을 찾는 일이 여간 성가신 게 아니다. 공이 떨어졌음직한 자리로 달려가 나뭇가지도 발로 훑훑 저어서 밀어내고, 이파리도 한 장 한 장 손으로 뒤적여보자니 골프를 치는건지 낙엽을 치우러 나온건지 분간이 안된다. 그래도 오랜만의 만남들이라 재채거리며 즐거운데 3번째 홀을 들어서다가는 모두들 그 자리에 서버렸다. 고개를 치켜들고 올라다 보면 풍성한 이파리 사이로 지나간 세월이 얼기설기 엉켜 붙은 듯한 우람한 가지. 짙은 녹음을 머리에 이고 넓은 그림자를 깔고 앉아 홀 그린과 파

부산 출생, 1981년 미국 이민
(수필시대) 등단, 청하문학회 회원

킹랏의 경계를 확실하게 그어 주던, 당당하고 의연하고 도도하기까지 하던 커다란 고목나무가 뿌리 채 뽑혀 넘어져 있었다. 하늘이 험하고 비어버린 듯한 눈 앞의 광경이 너무 엄청나, 우리는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쓰러진 나무에게로 달려갔다. 뿌리가 뽑혀 나가면서 꽤인 큰 구멍 안에는 부러진 몸통 조각들이 허연 속살을 내보인 채 누워있고 거대한 밑둥도 넘어지지 않으려고 엔간히 몸부림을 쳤는지 군데군데 껍질이 벗겨져있다. 길게 늘어진 잔뿌리에는 아직도 축축한 흙덩이가 달라붙어 갑자기 당한 자신들의 처지가 믿기지 않는 듯 멍한 눈을 뜨고 있다. 주위를 둘러보면 이보다도 더 연약하고 작은 나무들도 가지 몇 개만 잃었을 뿐, 제 자리를 지키고 있는데 어찌 이리 덩치 굵고 못하고 부러져 버렸을까. 한참을 이 곳 저 곳 들여다보니 뿌리 밑둥 한 군데가 새까맣게 썩어 있다. 이렇게 웅장하고 멋있는 나무 등치 한 쪽이 꺼멓게 썩어 들어가고 있는 줄을 누가 알았으랴. 오랜 세월 키워온 자존심 하나로 안 그런 척 버티고 서 있었지만, 치유 받지 못한 상처는 작은 비바람에도 견디지 못하고 이렇게 무너졌구나.

친구는 부모님이 반대하는 결혼을 했었다. 부유한 가정에서 아쉬움 없이 사랑만 먹고 자란 딸이 지지리도 가난한 홀어머니의 맏며느리가 되겠다고 나섰으니 얼마나 놀라셨을까. 포항 공업 단지의 작은 사글세방으로 시집을 보내며 친구 어머니는 나를 붙잡고 많이도 우셨다. 아직도 나는 천방 지축 긴 머리칼을 휘날리며 캠핑장으로 스키장으로 뛰어다닐 때 친구는 작은 엽서에 올망졸망 살림 사는 이야기를 적어서 보내주었다. 시어머니는 신혼 집으로 분가 하는 날, 온 가족이 모여 살 주택 마련 부금 통장을 내어놓으셨단다. 그리고 시동생의 고등 학교 월사금 봉투도 내밀더란다. 순진하고 착한 친구는 며느리라는 이름을 몹시도 소중하게 끌어안았다. 쫓내기 신입 사원 월급을 이리 쪼개고 저리 쪼개어 자기는 남편이 먹다 남은 생선 뼈만 발라 먹고 있다는 등, 남편의 담뱃값이 아까워 하루에 두 개비씩 배급을 주고 있다는 등. 전혀 그 애와는 어울리지 않는 이야기들이 날아올 때마다 나는 상상이 안 되어서, 주인집 안방으로 불려와 쭈그리고 앉아서 하는 설명을 전화선을 통해 들어야 했다.

사랑하는 사람이 곁에 있기에, 그리고 아직은 세상살이가 어떤 얼굴인지 알지 못하던 나이이기에 친구는 경제적 어려움을 어렵다 마음에 두지 않고 즐겁게 사는 것 같았다. 주인집 아줌마와 함께 이불 빨래를 했다고 자랑도 하고, 뽀뽀 닦은 냄비가 반짝 반짝 윤을 내면 행복하다고도 했다. 주위에 친구가 없어 외롭다고 느끼기 시작할 만큼 세월이 가고, 한번 다녀가리는 채근이 시작되나 했더니 임신을 했단다. 배 속에 아기가 살고 있다는 엄청난 사실이 신비스럽다며 엽서의 내용이 점점 길어지더니 어느 날 갑자기 친정 집에 와 있다는 연락이 왔다.

오랜만에 만난 친구는 홍역을 앓는 사람처럼 붉은 반점들이 얼굴과 온몸을 덮은 채 퉁퉁 부어 있었다. 임신 7개월의 아기는 무럭무럭 자라 배속에서 발길질이 시작 되었다는데, 친구는 밥도 먹지 못할 만큼 만신창이 몸이 되었다. 곁에서 어머니가 끼이끼이 울며 하소연을 했다. 저축을 하느라 남편의 도시락만 싸주고 자기는 점심을 굶은 바보 딸, 매서운 시어머니의 호령에 심장이 쪼그라진 불쌍한 딸. 자신도 모르는 새 굶고 썩어가는 마음 따라 육신도 함께 피폐해진 애처로운 딸의 신세를 통곡하셨다.

소문난 병원도 필사적인 어머니의 민방 요법도 소용없이 친구는 팔삭 동이 딸을 세상에 던져놓고 떠났다. 비가 몹시 오는 겨울. 남자들의 둔한 삼질이 시작되고, 파인 구덩이엔 빗물이 자꾸만 고이는데, 친구를 담은 관은 질척질척 물 웅덩이 속에 내려졌다. 축축하고 시린 땅에 친구는 그렇게 묻혔다. 사람들이 모여 봉분을 밟는 사이, 구석 자리로 아들을 불러낸 시어머니는 보온병에서 뜨거운 커피를 따라 주고 있었다. 아들도 넘죽 커피 잔을 받아 입에 갖다 대었다. “간 사람은 갔지만 산 사람은 살아야지.” 시어머니의 눈이 희번덕거리며 아들의 얼굴을 쓸고 내려갔다. 나는 새삼 추위에 몸을 떨었다.

대문을 가로막고 서서 “경숙아, 니가 지금 도대체 어테로 가고 있노~” 관을 붙잡던 어머니의 울부짖음이 왜 오늘 갑자기 생각 날까. 골프 치는 내내 뿌리 채 뽑혀져 나간 고목 나무가 내 마음을 떠나지 않는다. **수필시대**

끝없는 열정과 도전 정신으로

이 디 아 claudiastpaul@hanmail.net



지난 2월 10일에 이태리 토리노에서 동계 올림픽이 개막되었습니다.

동계 올림픽의 꽃이라고도 할 수 있는 피겨 스케이팅 선수 중에 미국 선수인 미셸 콰이 있습니다. 중국계 미국 피겨 스케이팅 선수인 미셸 콰이는 그 동안 세계 피겨계를 주름 잡아온 '피겨의 여왕'입니다. 전 개인적으로 이 선수를 무척 좋아하고 있습니다.

지난 10년 동안 수많은 세계 대회에서 챔피언이었던 미셸 콰이는 이미 두 번의 올림픽에 출전하였으나 은메달과 동메달만을 획득하였습니다. 물론 은메달과 동메달도 대단한 기록이지만, 어떠한 종목의 운동선수이든지 누구나 꿈꾸는 최고 명예의 자리인 올림픽 금메달은 그렇게 그녀를 늘 비껴갔습니다.

그런 것을 보면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획득하는 것은 특별한 운이 따르지 않나 싶습니다.

세 번째로 출전하게 된 이번에도 여러 가지 우여곡절 끝에 나가게 되었습니다.

1985년 미국 시카고 이민
〈수필 시대〉로 등단
현재 시카고 한국 TV 방송에서 〈독서 세계〉 진행 중.

이번 올림픽에는 부상으로 인해 올림픽에 출전할 자격을 결정하는 대회에 참가하지 못하면서 하마터면 올림픽에도 나가지 못할 뻔 했었는데, 미국의 올림픽 위원회의 결정으로 겨우 출전권을 따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훈련 중에 부상이 재발되어 결국경기에 출전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 인터뷰하는 장면을 TV에서 보게 되었는데 시종일관 미소를 보였지만 끝내 눈물을 감추지 않았습니다. 웃음을 지으면서도 뜨거운 눈물을 쏟아내고 있던 그녀를 보면서 저까지도 마음이 울적해지고 속이 아팠습니다.

왜냐하면 이 대회를 준비하면서 그 동안 수많은 시간을 연습하여 온 것은 둘째 치고라도 지난 10여 년 동안 한결 같은 실력으로 수많은 팬들을 기쁘게 하여 왔음에도 부상으로 인하여 아쉽게도 대회에 출전하지 못하는 그 심정이 그대로 전달되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눈물을 글썽글썽하면서도 웃으면서 말하고 있던 그녀의 속마음이 어땠을까요. 하지만 전 그녀의 눈물을 보면서도 희망을 느꼈습니다.

지금까지 10여년 동안 선수 생활을 하면서 여러 번 부상을 입었지만 그때마다 끝없는 열정과 도전 정신으로 이겨 왔기에 앞으로도 그녀는 반드시 부상을 치료한 후에 재기할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비단 운동선수뿐만이 아닐 것입니다.

저는 숱한 어려움을 딛고서 당당하게 서 있는 사람들을 주위에서 많이 보아 왔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보면 장하고 기특하고 그리고 무척 사랑스럽습니다. 좌절하지 않고 몇몇하게 열심히 나아가고 있는 사람들의 땀은 많은 사람들에게 신선한 감동을 주기 때문입니다.

또한 살면서 부딪히는 고통과 절망을 극복하고 힘차게 걸어가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은 분명히 아름답습니다.

며칠 전에 이곳 한국일보 미주판에 제 사진이 실린 것을 보고 아들이 말하였습니다. 이곳 미 중서부 한국학교 협의회에서 한국학교 교사 연수회를 주관

하였는데 그때의 일이 기사로 나가면서 제 얼굴 사진이 크게 찍혀서 올라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엄마. 이제 시카고에서 유명한 사람되나봐. 그런데 왜 이렇게 젊어 보이지? 마치 40살 먹은 사람 같아...”

“그래 보이니? 아들아. 항상 마음을 기쁘게 하면 젊어 보이는 거야... 하하하”

요즈음 아들은 자기 엄마가 격주로 TV에도 나오고 신문에도 나왔다고 신이 났습니다.

작년 11월부터 이곳 시카고에 있는 한국 TV방송국의 <독서 세계>란 프로그램에서 책을 읽고 소개하는 일을 하고 있는 엄마가 아들 눈에는 아주 신기하게 보였던 것은 사실입니다.

저 역시 처음에 방송국으로부터 그 제의를 받았을 때 많이 망설였었습니다. 자신도 없었거니와 전혀 제 분야가 아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책에 대한 열정이 있었기에 도전 정신으로 받아들이고 일주일마다 한 권씩 책을 읽고 그 책에 대한 소개를 글로 써서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단순히 TV에 나오고 신문에 사진이 실린 것이 중요해서 아들이 제게 그렇게 말한 것이 아님을 제가 잘 압니다. 그렇게 눈에 보이는 것은 흘러가면 그뿐인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렇게 되기까지의 제가 살아온 과정을 아들이 잘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들과 제가 뚫고 지나온 고통의 세월을 그는 선명히 기억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들은 자기 엄마가 대견하다고 여기고 있는 것입니다.

뒤늦게 새로운 세상 속에서 뜨거운 열정과 기쁨으로 일하면서 지내고 있는 엄마를 보는 아들... 엄마의 인생이란 지도에 새로운 획을 한 줄 긋고 열심히 걷고 있는 모습을 아들에게 보여줄 수 있어서 다행입니다.

17살 늦둥이 아들도 잠깐 사춘기에 흔들거렸으나 요즈음은 예전의 사랑스러운 아들로 되돌아가고 있습니다. 아들 앞으로 끝없이 곧게 뻗어 있는 길일 지라도 혹여 덜컥거리며 샅길로 걸어 갈 수도 있을 것이지만 그것 역시 하나

의 과정 일 뿐입니다.

아들도 끝없는 열정과 도전 정신을 가지고 자기 앞에 놓여 있는 생명을 뛰어 나갔으면 합니다.

미셸 퀴이 오뚝이처럼 다시 일어서는 것처럼... **수필시대**

뉴욕에서의 세상보기

김윤태 수필집
문예운동 / 값8,000원

산 · 바다 그리고 친구

황선영 수필집
문예운동 / 값8,000원

내가 떠나보낸 것들은 모두 이름답다

김지향 수필집
문예운동 / 값9,000원

꿈이 있는 여자는 이름답다

진강선 수필집
문예운동 / 값8,000원

기른 정 때문에

이 문자 mypapagod@yahoo.co.kr



복잡한 대 도시를 벗어난 한적한 주택가 길에서 가끔 작은 짐승들의 처참하게 터지고 깔린 시체를 본다. 작은 것들부터 때로는 큰 시슴까지도 보게 되는데 교통 상식을 알 리 없는 이들이 겁 없이 돌아 다니다가 참변을 당한 것을 보면 전류처럼 아픔이 흘러 내려간다.

남편 다람쥐가 죽었는지 아내 다람쥐인 듯한 놈이 슬픔이 가득한 눈망울을 하고 안절부절 오락가락 하는데 그의 오열이 사람의 오열보다 무엇이 다를까 느껴진다.

한때 강아지를 기르며 사랑 하던 나는 동물들의 희로애락이 결코 사람에 뒤 지지 않음을 안다.

아무리 들대가리 같은 닭대가리라고 놀려 대지만 닭장에 숨도 못 쉴 만큼 꾸겨 넣어서 가는 닭차를 볼 때 밤낮 없이 불을 켜서 낮으로 알고 시도 때도 없이 알만 낳아야 하며 운동도 못할 좁은 칸에서만 살다가 죽으러 가는 그들은 죽지도 살지도 못할 만큼 괴로운 이 지옥 같은 삶을 한시 바빠 끝내는 것이 다행일 거라는 생각을 할지도 모르겠다는 생각도 해본다.

언젠가 포천 쪽을 향해 가는 길에 있는 개 훈련장에서 한여름의 뜨거운 떠

이화여자 대학교 국문학과 졸업, 재미교포 : 캘리포니아주 산호세 거주
직업 : 베델 유치원 교사
〈수필시대〉 등단

약별 밀의 작은 철창 속에 숨을 헐떡이며 갇혀 있던 훈련견들을 보며 그 개의 주인들에게 그들의 곤혹을 알려 주지 못한 것도 못내 안타까웠다.

장자인 인간들에게 학대당하는 모든 동물들의 고통을 나 혼자 떠맡을 수도 없고 구제는 나라님도 못한다는 말에 붙여 버릴 수밖에 없었다.

보신탄도 잘 먹던 나는 팔라를 기를 때까지는 짐승은 다 그냥 짐승이고 새는 다 그냥 새이며 물고기는 그냥 물고기이다라고 생각 했었다. 그리고 오물 처리도 싫고 하여 내 생전에 애완동물 같은 것은 비록 금붕어 같은 것이라도 절대 안 기르겠다고 늘 큰 소리 쳐 왔었다.

큰 소리 치면 큰코 다친다고 생각지도 않게 애완동물을 너무 좋아하는 막내 딸이 사온 강아지를 곁에서 돌보아 주다가 그만 정을 주게 된 것이 죽어도 풀지 못할 한 많은 아픔을 갖게 된 것이다. 어린 것은 다 귀엽다고 하지만 한달 밖에 되지 않은 중국산 시추 강아지는 참으로 인형처럼 귀여웠다. 쌀 한 톨 박으면 꼭 찰 그 찌그만 콧구멍으로 숨을 쉬며 팔닥이는 걸 보면 하나님의 생명 창조의 신비를 느끼지 않을 수 없었다.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을 자기 혈육이라고 생각 하는지 팔라는 나를 자기 엄마로 생각하게 되었고 나 또한 그를 아들로 생각할 지경까지 이르자 딸들은 아들 없는 나에게 다행히도 아들이 생겼다고 너무도 좋아하며 아예 진짜 양자 취급을 해버렸다.

모든 짐승이 다 더러워도 팔라 만은 깨끗하다고 여겨지는 오해 속에서 돛자리만큼이나 큰 그를 무거운 줄도 모르고 품 속에 껴안고 다니는 것은 물론 한 베개까지 베고 지는 것을 그 누가 이해하랴 싶다.

개를 데리고 다녀보면 지나가던 낯 모르는 사람이라도 안아주고 쓰디듬어 주면 그 사람만이 참 사랑을 아는 사람 같고 개털 날린다고 시퍼렇게 펄펄 뛰는 사람은 냉혈 동물처럼 비정한 인간 같기만 하다. 말 못하는 아기와 짐승은 저 사랑하는 사람과 싫어하는 사람 알아 본다는데 정말로 애완동물을 길러본 사람만이 따뜻한 사람 차가운 사람 알아 볼 수 있을것 같다.

성 프란체스코가 공원에 가면 새들이 그에게로 몰려와 그와 이야기를 했다는 것처럼 새들도 이야기를 하는 것이 결코 거짓말이 아님을 요즘은 새 소리

연구가들도 발표했다.

인간과 개의 DNA구조가 1000개 가까이 될 때까지는 구조가 같다고 과학자들이 발표를 했다지만 나와 쫄리는 1000개도 넘는 대화를 매일 주고 받는다. 쫄리는 나에게 눈과 표정과 짓는 소리로 크고 작은 온갖 소리를 다 한다. 물론 나의 말도 다 알아 듣는다. 우리 둘간의 커뮤니케이션으로 못하는 이야기는 없다.

좀 컸다 싶으니 아무도 가르쳐 주지 않아도 고것도 수컷이라고 별정계 흥분해서 곰 인형에 대고 비비다가 부릅뜬 내 눈에 들키면 잘못하다가 들킨 비행청소년 마냥 구석에 가서 부끄러운 얼굴로 머리 꼭 숙이고 꿇어 앉아 별선다.

양 치는 목동에게 아무리 많은 양이라도 양 하나 하나가 목자의 음성을 다 알고 목자도 그들의 이름도 성품도 다 안다는데 바로 그는 나의 사랑을 알고 나는 그의 요구를 다 알며 우리 사이에서 그가 동물임을 전혀 느낄 수가 없고 정말 친아들 같기만 했다.

전에는 개에게 유산을 물려 준다느니 호화 개 무덤을 해주고 자기가 죽은 후까지 묘지 관리를 맡긴다는 말을 들을 때면 개 혼이 썩은 정신 병자들이나 그렇게 하는 줄 알았다. 그러나 이제 그런 말을 비웃는 사람을 볼 때는 매몰차고 몰지각하여 인간미도 따듯함도 없는 로봇트 같기만 하다. 사람에게 사랑을 베풀어야 할 인간인 내가 이 이상한 운명 속에서 7년간을 헤어날 수 없는 동물 사랑에 빠져 버렸다.

하루 종일 나만 기다리는 애기 같은 그 애를 혼자 놓아 둘 수 없어 집에 일찍 돌아와야 하고 답답해 하는 그 애를 바람 쐬 주어야 하기 때문에 아무리 바빠도 산보해야 하며 그 애 때문에 여행도 못 가고 그 애 때문에 구박 맞아야 하며 그 애 때문에 모든 걸 포기 해야 할 때가 너무 많았다.

부모에게 저렇게 잘 했으면 효녀 상을 탔을 것이라는 말을 들을 때면 쫄리가 죽었을 때 폭풍에 부서지는 파도처럼 처절하게 몸부림치며 울던 내가 어머니 돌아 가실 때는 호상이라며 눈물 한 방울 흘려 보지 못한 것이 죄스러워 죽겠다.

미국으로 이민 올 때 개 가방에 놔 둘 수 없어 탑승 규칙에 엄한 미국 여

승무원 눈을 피하느라 만삭된 임신부 배 마냥 몰래 가슴에 파 묻고 12시간을 변소도 못 가고 데리고 온 보람도 없이 미국 기후에 알레르기로 죽도록 기침을 하는 팔라를 다시 한국으로 되돌려 오다가 돌이킬 수 없는 참변을 당했다.

아픈 아이를 데리고 입원을 시키고 퇴원을 시키고 추스르고 달래다가 예방 주사 기일이 모자라 입국 시에 대통령 개도 못 봐준다는 검역소에 갇히게 되고 만 것이다.

적당히 통과될 줄 알았던 나의 무지 때문에 춥고 무섭고 외로운 곳에 갇힌 그를 그곳에서 같이 기거라도 하며 돌보지 못한 것은 순전히 돌이킬 수 없는 나의 잘못이었다. 두어 번 면회를 갔었으나 그것만으로는 그의 스트레스를 채울 수가 없었는지 갇힌 지 열 이틀 만에 거의 죽어가는 마지막 시간에 연락을 받고 달려가니 그는 죽는 것이 너무 힘들워 이는 체도 못한 채 내 품에 안기 자 숨을 거두었다.

부모는 산에 묻고 자식은 가슴에 묻는다고 누가 말했던가? 나는 오늘도 팔라를 가슴에 묻고 지나가는 행복한 개들을 볼 때마다 팔라야 미안해 팔라야 사랑해 하고 어느 곳을 헤매고 있을지 모르는 그의 혼을 향해 나의 사랑과 아픔을 되뇌인다.

사랑하는 사람에게 배신당해 머리 깎고 일생을 아무도 사랑할 수 없었던 어떤 여승처럼 나는 이제 어떠한 개에게도 팔라를 배신하는 것 같아서 사랑을 줄 수가 없다.

막내딸네 아파트 정원수 옆에 그의 뼈를 몰래 파 묻고 그 위에 장미를 심었다.

지금도 한국을 방문하면 제일 먼저 그 곳에 가서 어디 갔다 오면 입까지 튀어 올라 입 맞추던 그 입 대신에 장미에 입 맞춘다.

하늘나라 가는 어느 길목에서 오늘도 하루 종일 나만 기다릴 팔라를 만날수만 있다면 쥐꼬리만큼 남은 인생 오늘 간다 해도 아까울 것이 하나도 없다는 생각이 든다. **수필시대**

고양이의 춤

이 문 주 imj1753@hanmail.net



내가 어렸을 때 우리 집에는 고양이가 아주 많았었다. 얼굴은 희고 몸이 까만 고양이, 노랑고 흰 알록달록한 서양고양이, 온몸이 새까만 고양이가 있었다. 번갈아 가며 새끼를 낳아대니 온 집안이 고양이 천지가 됐다. 고양이를 예뻐하는 내가 봐도 계속 새끼가 늘어나면 사람 사는 집이 아니라 고양이 소굴이 될 것 같았다.

하루는 할머니께서 어미 고양이가 3마리를 먼 곳에 내다 버리고 오라고 머슴에게 말씀하셨다. 두꺼운 무명 자루에 고양이를 잡아넣은 후 지게에 지고, 배를 타고, 강을 건너 장지라는 오지 마을에 풀어놓고 돌아왔다. 머슴이 집에 도착해서 대문을 들어서는 순간이었다. 갖다 버렸던 하얀 얼굴에 까만 머리를 한 고양이가 발 앞으로 휙 지나가는 것이 아닌가. 노랑 고양이와, 새까만 고양이도 광 앞에 천연덕스럽게 앉아 머슴을 쳐다보고 있었다. 기겁을 하며 놀란 머슴은 어찌 할 바를 몰라 했다. “아니 자루 속에 넣어 갔는데 어떻게 길을 알고 집을 찾아 왔지? 나보다 더 빨리 왔네. 정말 영물이네!” 연상 중얼거렸다. 집안 식구들도 모두가 놀랐다. 10여 리나 되는 먼 길을 갔는데 어떻게 찾아왔을까?, 섬강(강원도 원성군. 蟾江)을 헤엄쳐서 왔을까? 기차 철다리로 건너 왔을까? 도무지 상식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 놀랍고도 신기한 사건이었다.

1935년 강원도 원주 출생, 수도여사대 국문과 졸업
(수필시대)로 등단

윗말 여주 댁에 고양이가 새끼를 낳았다. 전쟁 중에 고양이 씨가 말랐기에 늘어나는 것은 쥐다. 쥐 등쌀에 견딜 수가 없던 이웃들이 미리 새끼부탁을 해 놓고 기다리던 터였다. 우리 집도 쥐가 들끓어 곡식도 축을 낼 뿐 아니라, 광이고 방이고 뚫고 들어오면 온전하게 남아나는 것이 없다. 건너방 반다지 속에 들어가 아버지 명주 바지저고리며, 두루마기를 쏴아 거기에 새끼를 낳고, 씨든 이불속에도 보금자리를 만들어 새끼를 낳아 기르며, 오줌똥을 싸 놓는 바람에 이부자리가 모두 못쓰게 됐다. 번식력이 어찌나 강한지 마을 사람들 모두가 쥐로 인해 골머리를 알았다.

쥐 피해의 심각성을 알고 있는 정부에서도 「쥐 잡는 날」을 정하고 집집이 쥐약을 나누어 주었다. 쥐를 제일 많이 잡아 가져오는 사람에게는 빨래 비누를 상으로 준단다. 동네 사람들은 一舉兩得일꺼양득이라며 너도 나도 쥐잡기에 열을 올렸다.

그 날 밤 여주 댁엔 그만 낭패를 당하고 말았다. 새끼를 낳은 어미 고양이가 쥐 사냥을 나갔다가 약을 먹고 비틀거리는 쥐를 덥석 잡아 포식을 한 후, 핏덩이인 새끼를 놔 둔 채 죽어버리고 만 것이다. 짐승의 일이지만 난감하기 이를 데가 없게 되었다. 번이 생긴 것은 그 댁만이 아니다. 윗말 아랫말 여러 집에서도 기르던 개가 쥐약을 먹고 죽었다. ‘빈대 벼룩 잡으려다 초가삼간 태운 격’이 되었다. 불쌍한 고양이 이야기를 들은 어머니는 손가락 마디만한 새끼 한 마리를 갖고 왔다. 목회숨으로 따뜻하게 감싸 어미 품속과 같이 체온을 유지시켜주었다. 그래도 몸이 싸늘하게 식어 가면 손으로 만져 혈액 순환을 시켜주기도 했다. 하루는 외출 후에 돌아와 보니 몸이 차디차게 식어있어 어머니가 한참을 만져준 후 가슴에 품어 체온으로 녹여 주자 살아났다. 수시로 우유를 타서 손가락 끝에 묻혀 입가에 흘려 넣어주었고, 조금 자란 후는 차 숟갈로 떠서 입에 넣어 먹였다. 측은지심으로 쏟으셨던 극진하고 뜨거운 사랑의 마음은, 모성 본능에서 작용한 자비의 마음. 지성이면 감천' 이라고 고양이가 이렇게 해서 살아났다. 하루하루 눈에 보이게 살도 오르고 몸이 자라가며 재주를 부리는 것이 너무도 귀여웠다. 어찌나 영민한지 쥐를 곧잘 잡았다. 쥐를 잡으면 혼을 다 뺀 후에 어머니 앞에서 발로 갖은 묘기를 부리고 시들해질 때

까지 가지고 논다. 그 뿐만이 아니다. 참새도 짹짹 폴짝 뛰어올라 잡는다. 그런데 참새를 잡으면 반드시 안방으로 물고 들어와 어머니 앞에 갖다 놓는다. 그리고는 어머니 무릎에 몸을 비벼대며 ‘그르렁그르렁’ 코고는 소리를 내며 아양을 떠는 것이다. 어머니가 등을 쓰다듬어 주면, 신이 나서 구르고 빙빙 돌며 재주를 부린다. 아버지와 어머니가 외출을 하고 돌아오면 손살같이 대문 앞에 달려 나가 영접을 한다. 대굴 대굴 구르다가, 가랑이에 비벼대다가, 앞뒤로 빙글 빙글 돌며 춤을 춘다. 오랜만에 만나는 친구가 반갑다고 한들 어찌 이에서 더 반기며 기뻐하랴. 밤이 되면 방문을 살살 발톱으로 긁는다. 문을 열어 주면 어머니 무릎에 몸을 비벼대며 한참을 그르렁거리다 나간다. 아침이 되면 저녁과 똑같은 행동을 반복 하는데, 마치 아침저녁 문안을 드리는 것과 흡사하다. 휘휘하니 빈 등지 속에 사시는 두 분 부모님의 적적함을 고양이와 달래 드리는 셈이다. “나비아~ 이리 온” 부르면 “야옹~ 야옹~” 대답하며 어머니 뒤를 따라 다니는 것이, 아기가 엄마를 따르는 것 같아 그 모양이 참으로 우습고도 신기하다.

두 내외분이 사시다가 아버지께서 세상을 먼저 떠나셨다. 슬픔 속에서도 어머니는 남이 모르는 고민 한 가지가 생겼다. 그것은 혹시나 아버지의 시신이 안치되어 계신 방으로, 고양이가 들어오면 어쩌나, 내심 큰 걱정이 되었던 거다. (고양이가 시신을 뛰어 넘으면 시신이 벌떡 일어난다는 속설) 그러나 상중에 단 한 번도 나타나지를 않았다. 아버지가 떠나신 후 어머니는 會者定離 離者定聚 情의 아픔을 새기며 쓸쓸히 지내시던 중 고양이 거취가 궁금해졌다. 여러 날 후 마당에서 “야옹” 소리가 들려 나가 보니 고양이가 돌아온 것이다. 어머니가 반기며 다가가니 다리에 몸을 부빈 후 한참을 마당에서 뒹 구르더니 어디론가 가 버리고 말았다. 어머니의 극진한 정성으로 살아난 그 고양이, 어머니와의 사랑의 授受作用 수수작용이 각별했던 고양이. 그 고양이가 아버지께서 떠나시자 어디론가 사라져버린 것이다. 이유가 무엇일까? 혹시 아버지가 돌아가시던 날, 어머니의 내심을 알고 섭섭함을 느낀 것은 아닐까? 거짓말 같은 불가사의의 사건, 10여 년이 지난 지금 생각해 봐도 풀 수 없는 수수께끼다.

수필시대

봄을 기다리며



이 상 옥 kumsook410@hanmail.net

하얀 목련이 하나 가득 나무 가지를 덮은 봄날, 파아란 튤립의 잎이 솟아 오르고 부레이징 옐로의 데포테일(수선화)과 개나리가 만발해 있었죠. 그리고 누우런 잔디잎을 제치고 새로 솟아 오른 파아란 잔디밭하며 그러나 잡목이 우거진 근처의 숲은 변함 없이 회갈색이었습니다. 그제 밤에 비가 내렸으니 머지 않아 그 숲도 엷은 녹색으로 바뀔 텐데, 이렇게 세상 만물이 새로운 꿈을 간직하는 올 봄에도 저 늙은 사과나무 그루터기에 새싹이 돌아 내려는지요?

한때 온 동네를 홀로 아름답게 꾸미려는 듯이 만발했던 꽃, 그리고 가지가 찢어 지도록 그득하니 열렸던 사과 나무 말입니다. 여름 동안 성실하게 열매를 맺었고 저 휘몰아 치는 광풍에도 자신을 꺾기지 버티던 책임감하며 항상 토끼도 다람쥐도 그 그늘 아래에서 온식구 다 모여 싹껏 먹고 포만감 가득해서 배를 두드리며 갔던 그런 시절이 추억 속에 간직된 저 늙은 고목에 다시 올 봄 말입니다.

그러나 세월은 저 사과 나무에도 그리고 나 같은 인간에게도 변함없이 나이를 만들고 또 얼굴에 깊은 주름을 만드는군요.

이때 쬐이면 누구나 오래 오래 살고 싶어 불로초를 구하려한 저 진나라 시황제의 본능적인 욕망에 고개를 끄덕거리고 갈대처럼 서걱거리는 회한 속에

〈수필시대〉 동단
미국 이민(미국 사카고 거주)

화려 했던 지난 날들을 되돌아 보며 자신을 몰라주는 듯이 보이는 이 세상에 쓸쓸한 쓴 웃음을 지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긴 해도 역시 세월은 겪어 봐야 이해할 수 있는가 보죠?

요즘 젊은 세대들의 툭툭 튀는 순발력과 이기적인 안하무인 행태가 버겁게 우리들을 구석으로 몰아 부치지만 하나만 남아 잘 사는 너희들이 빨리 우리 나이 때쯤돼서 한번 겪어 보라! 하는 악담을 입에 올리는 나 자신을 발견하고 기겁을 하며 주위를 돌아 본답니다. 카잘스라던가? 그 분은 죽기 전까지 연주 생활을 했다하며 밥 흡프도 90이 넘을 동안 골프 치는 모습을 TV에 보였는데... 그러면 나도 그럴 수가 있을까? 아니 그보다도 과연 우리들이 저 젊은 아래 세대에게 보여줄 모범이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이 필부의 머릿속에는 쓸때 없는 욕망과 회한만이 가득하지만 현자 달라이 라마는 아마 이렇게 말해 줄 것 같았습니다.

“여보게 우리 인생이란 항상 들고 돈다네! 갓난 아이가 늙은 할아버지의 고뇌를 이해 할 수 없듯이 이 세상일이란 그렇다네. 그러나 당신이 자비심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간다면 이미 이 세상은 당신의 사랑스러운 마음처럼 변하여 갈 걸세!”

작년, 위대한 천주교 수장의 장례식이 있었고 그 다음날은 영국 황태자의 길고긴 사랑의 여정이 황태자 재혼이란 이벤트로 전 세계의 이목을 집중시킨 센세이션이 되었습니다. 우리들에게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 하지만 아직까지 이 세상을 살만한 곳으로 만들고자 하는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나는 행복하게 이 세상을 살고 갑니다!” 라고 말한 요한 바오로 2세의 따뜻한 미소가 마치 리라꽃 향기처럼 잔잔하게 그들의 마음을 사로 잡으리라. 나는 그런 이유로 아직도 건강하게 우리들과 같이 살고 있는 현자한 분이 “나도 지금 행복하게 이 세상을 살아 갑니다.” 라고 말하는 달라이 라마에게 시선을 멈추고 말았습니다. 새로운 사실이라면 돌아가신 교황님과 달라이 라마가 생전에 8번이나 만났던더군요. 지금쯤 달라이 라마는 돌아가신 교황님의 극락왕생을 위해 조용히 빈 마음을 다스리며 염주를 돌리면서 어찌면 그분은 당신을 우러러 보는

내게 “여보게나 인생은 태어나서부터 늙게 마련이고 늙었다고 서러워 할 이유는 없다네. 자네는 아직 나보다도 한참 어린 나이이고 또 다시 불을 지피 멋진 꿈을 얼마든지 꾸고 또 사를 수 있지 않나. 그리고 나보다도 자네가 행복해야 할 조건이 훨씬 더 많구먼. 이 세상은 보기에 따라 행복이 바로 당신의 마음 가운데에 있다네…”

만약에 석가세존과 예수님이 만났다면 그 분들도 다음 세상 이론으로 티격태격하셨을라나? 천만의 말씀일 것 같습니다. 이렇게 엉뚱한 생각을 하며 이리 저리 사족을 달아보다 문득 구약 성서에 나오는 이사야 예언자의 말처럼 저 늙은 나무 등지에도 새싹이 돋아나게 하는 것은 주님의 기적을 바라기보다 주님이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신 “내가 없더라도 내가 있는 듯이 세상을 살기 좋은 곳으로 변화시키는 당신의 마음속에 우리 크리스찬의 꿈이 있는 거요.” 라는 말 가운데 당신의 숨은 뜻이 있는 듯 느껴졌습니다. 그렇다면 나도 그 양반들이 말한 것처럼 또 다시 마음을 비우고 내 이 딱딱한 마음의 껍질을 벗어 버리면서 다시 새싹을 틔워 봐야겠습니다.

잔디 밭에는 벌써 좋은 자식을 낳기 위해 라빈이란 놈들이 종종 걸음을 치며 자리 다툼을 하고 있었고 어느덧 화사하게 피어 나의 눈을 끈 수선화에 다가가 조용히 내 눈을 그 노오란 꽃속에 맞춰 버렸습니다. **수필시대**

한 낮의 행복

인옥수 수필집
문예운동 / 값8,000원

아들과 함께 바라본 북녘 땅

양 용 모 dragonss@korea.com



설악의 아침은 붉은 태양이 어두운 동해바다로부터 장엄하게 솟아오르는 것으로 시작한다. 마침 우리가 머문 콘도는 동해바다가 훤히 보이는 전망 좋은 곳이었다. 동녘에 먼동이 트기 시작한 7시 무렵 나는 눈을 떴다. 어둠에서 바다가 붉어지기 시작하더니 해가 솟아올랐다. 검은 바다에서 솟는 해돋이의 장관을 혼자보기 아까워 아내와 아이를 깨웠다. 귀찮다는 듯 머뭇거리더니 이내 일어나 열린 카메라를 켜고 사진을 찍었다. 아내와 나는 감탄을 거듭하며 아들에게 소감을 묻자 카메라를 내던지고 이불 속으로 다시 들어가 버렸다.

올해 대학에 합격한 아들을 데리고 설악산 여행을 계획한 것은 순전히 나의 의지에서였다. 지난 3년 동안 아들과 여행을 하지 못하였다. 무엇이 잘못되었는지는 모르지만 대학을 가야 한다는 강박관념 때문에 아들의 고등학교 생활은, 쉬는 시간엔 잠을 자고 깨어 있으면 공부만 하는 그런 생활이었다. 너무 부담을 주지 않으려 아무 대학이나 가면 어떠냐고 했지만 그러나 그게 아니었다. 특히 지난해의 공부는 불철주야란 말이 어울리는 나날이었다. 다행히 제가 원하는 대학에 합격하였다. 가벼운 마음으로 나는 회사에 휴가를 내고 아내와 아들을 데리고 2박3일 일정으로 설악산을 찾은 것이다. 콘도 베란다에서

〈수필시대〉로 등단

수필집 〈집바탕이〉 등 2권

전북문인협회 회원, 전북수필 회원, 행촌수필 회원

나와 아내는 추위도 아랑곳하지 않고 서서히 솟아오르는 태양을 바라보았다. 찬란한 붉은 빛을 거두니 서서히 하얀 세상이 나타났다. 나는 해가 한길이나 올라오도록 눈을 떼지 못하였다.

“그렇지!”

“여기까지 왔으니 아들에게 민통선도 보여주고 북녘 땅도 보여 줘야지!”

나는 계획에 없는 통일전망대를 가기로 하였다.

“거기 가면 무엇인가 아들에게 감동적인 것을 보여 줄 수 있을 거야!” 통일 전망대를 간다는 말에 호기심 어린 눈망울을 굴리더니 아내와 아들은 군말 없이 따라 나섰다.

파란 하늘은 동해의 출렁이는 바다와 눈 속에 쌓인 태백산맥의 지산과 잘 어울렸다. 우리는 경쾌하게 해변도로를 따라 북으로북으로 달려갔다. 민간인 통제선 초소에 이르렀다. 출입증을 내밀자 초병은 주소를 보더니 반가워한다. 전주 우이동에서 산다고 했다. 그러나 전망대까지 얼마나 걸리느냐고 묻자 모른다고 했다. 자신은 한 번도 가보지 않았다는 것이었다. 그럴 것이다. 초병은 여기 배속되어 와서 보초로서 출입증만 걷으면 그만일 것이다. 다만 제대 날 자만 기다려질 뿐일 게다. 초병은 주어진 임무만 충실하면 된다.

통일 전망대에 도착하니 우선 눈에 띄는 것이 전망대 건물 앞마당에 전시해 놓은 탱크와 비행기였다. 민족상잔의 비극인 동란에 혁혁한(?) 공을 세운 무기라고 자세히도 설명해 놓았다. 351고지 전투에서 이 경전투기는 무려 900회 이상 이륙하여 지원 폭격을 하였다고 자랑스레 써놓은 공군참모총장의 무용담은 지금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 주는가. 그러나 남이나 북이나 수많은 전사자를 내었고 이 싸움이 무엇 때문에 같은 민족의 형제들이 젊은 나이에 그렇게 처절하게 죽어 갔는지는 설명하여 놓지 않았다. 아니 아무도 묻지 않았다. 나 또한 민족상잔의 비극이 일어나던 무렵에 강보에 싸여 세상을 보았지만 하물며 저 아이가 무엇을 알 것인가. 아니 차라리 모르는 게 나을지도 모른다. 그 게 남과 북의 젊은이들이 통일 후 화해하며 살아가는데 도움이 될지도 모르니까. 장난끼 어린 모습으로 사진을 찍으며 전차를 바라보는 아들의 눈이 바로

그것을 말해주었다.

전망대에 오르니 북녘 땅이 바로 코앞에 있었다. 금강산 관광길이 열린 후 철도가 이어지고 있으며 도로가 4차선으로 새로 뚫리고 있었다. 손에 잡힐 듯이 보이는 남측초소와 북측초소 바로 저기 저 산 너머가 금강산이고 산줄기 따라 동해로 쪽 눈을 돌리면 해금강이다. 그 너머에 명사십리 해당화의 해수욕장이 쪽 펼쳐져 있을 것이다.

바다는 세찬 바람에 거대한 파도를 일으키고 있다. 해안선을 따라 물보라가 장관을 이룬다. 단돈 500원을 밀어 넣고 조금은 가깝게 조금은 더 정확하게 북녘 땅을 보려고 분주한 아들의 모습에서 나는 통일된 우리의 모습을 생각하고 있었다. 너는 저기 북녘의 젊은이들을 적으로 생각하지 말고 세계를 품는 화합의 대 민족국가를 세우는데 선구자가 되어라. 분단의 아픔도 통일의 대가도 우리 세대가 짊어지고 갈 테니 너희 세대에는 옛 고구려가 그리했듯이 중원을 호령하는 막강하고 위대한 우리민족을 이루어주기 바란다. 파란 하늘 아래 분단의 강토는 나의 마음을 이는지 모르는지 북녘은 고요하기만 하고 아이는 즐거워 함박웃음을 웃는다. 남으로 내려오는 길목 초병의 거수경례가 정겹다. **수필시대**

울타리에 걸린 세월

이시은 수필집
문예운동 / 값8,000원

내일이면 끝나리

오혜진 chime11@hanmail.net



긴 겨울잠을 자던 대지가 생명의 움틀거림을 향하여 자꾸만 손짓하고 있다. 나도 영원히 소멸될 것 같지 않은 강렬한 기대감에 가득 차서 3월을 살고 있다.

밝은 봄 햇살이 거리로 쏟아졌을 때, 지난 겨울 감기가 잘 떨어지지 않아 아파했던 시간들을 생각해보았다. 내가 겨울을 살면서 끊임없이 그리워했던 것은 무엇이었을까? 언제나 그 해답을 찾아 헤메었지만 그리움의 정체를 잘 알 수가 없었다. 하지만 열심히 산다는 것은 그 과정만으로도 중요한 것이 아니었을까 생각해 보았다.

어젯밤 나는 늦게까지 잠을 자지 않고 있다가 음악을 들었다. <Carry on till tomorrow>란 오래된 팝송이었는데 1970년대 영국의 락 그룹이었던 배드 핑거가 불렀던 그들의 대표곡이다. 나는 이 곡을 좋아해서 그 시절 수도 없이 되풀이해서 들곤 했다. 벌써 30년이 넘는 세월이 흘렀는데도 아직도 내 마음 속에 절절한 그 가사를 생각해본다.

이화여고, 한국 외국어대학졸업
청하문화회원
청하백일장 시 부문 수상, <수필시대>로 등단

나는 이 노랫말 들으면서 이제 우리 모두 떠나보낸 시간들 속에서 생의 버거운 짐을 내려놓아야 할 때가 아닌 가 생각해보았다. 그리고 영화의 필름처럼 지나가는 지난날들의 추억을 생각해보았다. 내가 살았던 동네 골목엔 여섯 채의 비슷한 양옥집이 있었다. 정원 가득히 들어서 있던 나무와 개들이 생각난다. 우리 가족은 다 개를 좋아하는 편이었는데 한꺼번에 서너 마리의 개를 길렀다.

털이 부글부글한 스피츠종의 ‘지니’, 발바리와 ‘불독’의 잡종이었던 ‘화니’, 반짝이는 예쁜 눈을 가졌던 ‘루비’라는 스피츠종의 개들이 생각난다. 나는 얼굴로 털을 부비면서 그 개들을 사랑했던 기억이 난다. 그 개들을 유난히 사랑했던 돌아가신 친정엄마가 생각난다.

유난히 따스하고 모성적인 성격을 지녔던 우리 엄마는 일찍 우리 곁을 떠나가셨다. 내가 대학을 졸업하고 사회생활을 하는 것은 보셨지만 그렇게 떠나가신 엄마의 부재는 내가 살아가면서 너무나 아픔으로 다가서는 때가 많았다.

고난의 시대에 일본 유학을 떠나셨던 외할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신 후 엄마는 외할머니와 다소 고생을 하셨다. 그 후 이북에 고향을 두고 오신 아버지와 결혼을 하셨다. 황해도의 넓은 평원을 고향으로 남겨두셨던 아버지는 남쪽으로 유학을 왔다가 6.25전쟁으로 이곳에 머물러 살면서 가족들이 지주리는 이름으로 처형된 이야기를 들어야 했다. 몇 년 전 돌아가실 때, 하나님의 신앙을 받아들인 아버지의 얼굴은 평화스러웠지만 한 많은 세월 속에 전쟁으로 인한 상처는 영원히 담고 가셨을 거다.

아버지는 손자들에게 직접 편지를 쓰셔서 세뱃돈을 주실 정도로 자상하고 사프한 성격이셨다. 어린 시절을 살면서 부모님은 눈 깜빡이 인형이 처음 나왔을 때 내게 그것을 사주셔서 무척 좋아했던 기억이 난다.

나는 둘째 딸로 태어나 부모님께 별다른 걱정을 끼치지 않았고 공부도 잘해서 늘 칭찬을 받으면서 살았다. 그 후 고교 시절 같은 동네에 살았던 지금의 남편을 만나게 되어 결혼하게 되었다. 남편은 인간성이 반듯했고 합리적인 성격의 리얼리스트였다. 사회생활을 잘했고 가장으로서 성실하고 능력 있는 사람이어서 내가 언제나 온실 같은 세상에서 살 수 있도록 지켜주었던 좋은 남

편이었다. 가족애가 유난히 강해서 아이들을 무척 사랑했지만 강한 성격에 자기 논리가 강한 성격이었다. 나도 결혼 후 주위 사람들에게 적응해 나가면서 현실로서 대처하려고 엄청 노력을 기울였다. 나는 천진하고 다소 감상적인 성격이었는데 남편에게 맞추면서 살다보니 조금씩 서로 동화되는 것 같았다. 하지만 취향이 달랐고 끊임없이 상대에게 변화를 구가했지만 이제는 그냥 그렇게 기대하지 않고 살게 되었다. 타인의 취향에 맞추어 자신이 변화되어 가는 것이 긍정적인 삶의 방법이었다. 이제는 친구들도 나이를 먹으면서 적당히 포기하고 산다고 했다. 나도 큰 싸움 한 번 제대로 할 필요 없이 그렇게 살았다. 물론 언어로서 서로가 소통되었을 때 나 같은 사람은 상당히 감정적인 것을 중시하는 타입이었다.

두 아들은 입덧 한 번 제대로 안 하고, 너무나 커서 제왕절개로 태어났지만 비교적 착하고 잘 자라주었다. 둘째 아들은 음악을 너무나 좋아해서 남들은 입시 공부를 할 때도 기타 공부를 하러 다녔다. 그 아이가 즐겨 치는 로망스의 선율을 들으면 나도 참 좋았다. 공부를 하다가도 이따금 찻던 기타를 잠시 접어두고 입시공부에 열중했던 아이가 이젠 대학생이 되었다.

그래서 이제 아이들도 다 성장하여 자기 길을 갈 수 있게 되었다.

이렇게 나이를 먹고 술한 시간을 떠나보냈지만 여전히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는 쓰라린 마음은 쉽게 사라지지 않는다. 아니 열심히 살면서 모든 것을 잊고 살았다고 생각했다.

지난 겨울 친구들과 가까운 곳으로 여행을 하면서 만나 뵈었던 선생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다. <우리가 생을 살면서 풀어야 할 생의 매듭이 있다면 그것을 꼭 풀고 지나가는 게 좋다>는 말씀이셨다. 그렇다 과거 없는 현재, 현재 없는 미래는 없듯이 생은 여러 대에 걸쳐서 인연의 겹을 되풀이 한다. 나는 오랜만에 깨달았던 내 꿈의 실체를 보면서 생의 매듭을 어떻게 풀어야 하는지 생각해 보았다. 아니 오랜 시간 동안 나는 그 모든 것을 직관적으로 깨달았을지도 모른다. 우리 모두 살아가면서 풀어야 할 생의 과제가 있다. 같은 시간을 공유했던 사람들도 또 다른 외로운 여정을 보냈을 거다. 지난 겨울에 만났던 사

람들의 얼굴이 더욱 사랑스럽게 다가선다. 이제 나도 사랑의 손을 내밀어 2006년을 더욱 사랑해야겠다. 그래서 언젠가 겨울을 살았던 이야기가 자랑스럽게 남아있기를 바란다. **수필시대**

한낮의 행복

안옥수 수필집
문예운동 / 값8,000원

나무와 인생

이기봉 수필집
문예운동 / 값8,000원

아내의 비밀창고

허경자 수필집
문예운동 / 값8,000원

다림질의 추억



유옥상 osyourose@hanmail.net

오늘 아침도 어김없이 휴대폰 알람 소리에 놀라 눈을 떴다. 다섯 시 오십 분. 떨어지지 않는 눈을 비비고 냉수 한 잔을 마시고는 주방 창문을 통하여 아파트 광장을 내려다보았다. 봄이구나. 한 달 전과는 완전히 다른 새벽의 얼굴이 수줍게 화장을 하고 광장에 주차해놓은 차들을 맞이하고 있었다. 일 년 삼 백 육십오 일 거의 같은 시각에 밖을 내다보곤 하지만 새벽의 빛깔은 매일 조금씩 달라 보인다. 봄 새벽의 빛깔은 달콤하고, 여름 새벽의 빛깔은 나른하며, 늦가을 새벽의 빛깔은 칼칼하고, 겨울 새벽의 빛깔은 양갈지다.

아이쿠! 찌개 국물 넘치는 소리에 화들짝 정신이 들어 출근 준비를 서둘렀다. 찌개에 대충 밥을 말고는 김치 보시기를 꺼내서 한 숟가락 퍼 먹고 물기가 덜 마른 머리에 물을 감으며 다시 한 숟가락을 퍼먹고 식사를 마쳤다. 오늘 가지고 갈 물건을 챙기며 옷장 문을 열고 블라우스를 입으려는 순간 ‘아빨싸 이걸 어쩐다’ 저녁에 다림질을 한다는 게 깜빡! 그렇다고 입을만한 다른 옷이 있는 것도 아니고. 웬만한 옷들은 다 후질러서 세탁기에 들어간 터였다. 서둘러 다리미를 찾아 땀을 뻘뻘 흘리며 블라우스를 다렸다. 블라우스 단추를 맞게 꿰었는지 대충 살피고는 거칠어진 손끝 때문에 오늘 따라 자꾸 뜯기는 스

「수필시대」 중단
한림수필교실 회원

타킹도 살살 달래 신으며 계단을 뛰어 내려와 차에 시동을 걸었다. 후! 여덟 시 이십 분. 지각은 면했다. 편리한 스템 다리미와 다리미 발 잘 받는 블라우스 감 덕분이었다.

예전에는 빨래하고 다림질하는 것도 참 큰 일이었다. 특히 광목 흘청이나 바지저고리를 빨아서 손질하려면 손도 많이 가고 정성도 남달라야 했다. 얼음장 밑에서 졸졸 흐르던 물들이 기지개를 켜며 이젠 봄이 왔다고 속삭이면 어머니들은 겨우내 덮었던 이불 흘청을 뜯어 큰 함지에 담아 이고 개울가로 나가셨다. 아직은 바람 끝이 매운 때라 머리에 하얀 윤으로 만든 수건을 쓰시곤 연신 호호 손을 불면서 이불 흘청에 비누질을 하여 치대셨다. 그리고 흘청을 방망이로 펄펄 두드려 깨끗이 행군 다음 개울가에 걸어 논 양은술에 불을 때고 잣물에 삶아서 찌든 겨울 때를 녹여 목화 꽃같이 뽕얇게 만들어내셨다. 학교가 끝난 후 삭정이 울타리 앞에서 바지랑대를 높이 세운 빨랫줄에 짚레꽃같이 하얗게 널린 이불 흘청을 보면 나는 눈이 시렸다.

빨래가 꾸덕꾸덕 마르면 식은 밥을 소창으로 만든 주머니에 넣고 주물주물 하여 농도를 맞춘 말간 풀물로 풀을 먹여 다시 한 번 널어 말려야 했다. 푸새 후에 빨래를 손질하는 것은 또 얼마나 어려운 일었는지.

빨래에 물기가 너무 많아도, 너무 적어도 손질하려면 정말 애를 먹었다. 발 일에 부엌일에 아차 시간을 놓쳐 빨래가 너무 바짝 마르면 어머니는 부랴부랴 빨래를 걷으셨다. 그리곤 물을 한 입 물고 “푸” 하고 물가루를 내뿜어 골고루 물기가 가게 한 후, 나와 마주앉아 서로 잡아당기면서 빨래에 주름을 펴 나갔다. 어머니가 잡아당기는 힘이 너무 세서 내가 질질 끌려가기가 일쑤였지만 발을 마주 대고 몸을 뒤로 젖히면서 안간힘을 쓰면 주름은 조금씩 펴지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그것으로 빨래 손질이 끝난 것은 아니다. 빨래를 밟기 좋은 크기로 잘 개어 발로 자근자근 밟은 후에 다시 다듬이질을 했다. 다듬이돌에 놓고 방망이로 두드릴 때 너무 세면 울이 치이고, 너무 가벼우면 울이 안 살고 윤기가

덜하기 때문에 세심한 주의가 필요했지만 어머니는 한 치의 실수도 없이 다듬이질을 하셨다. 이른 봄밤 ‘구구’ 비둘기 울음 같기도 하고, 소쩍새 울음 같기도 한 여러 소리 속에 어머니의 다듬이질 소리까지 어우러져 이중주, 삼중주의 연주가 벌어지기도 했었다.

혹 이불홀청의 가장자리가 어머니의 뜻대로 뻠뻠하게 퍼지지 않을 때면 다리미질을 하시는 경우도 있었다. 어머니는 지금의 프라이팬처럼 생긴 자루가 길게 달린 다리미에 숯불을 넣으셨다. 그렇게 달구어진 다리미로 홀청의 한 쪽 끝은 나와 마주 잡고 다른 한 손으로는 다리미질을 하셨다. 홀청을 잡은 손이나 다림질하는 손이 일직선이 안 되면 다리미 속에 있는 숯불 조각이나 재가 희디흰 홀청 속으로 떨어지기 때문에 여간 어려운 작업이 아니었다. 세월이 흘러 자루 달린 다리미는 사라지고 집처럼 생긴 것 같기도 하고 주전자 같기도 한 무쇠 다리미가 새로 나왔을 때 얼마나 신기하고 좋았던지.

요즈음은 웬만한 것들은 모두 세탁소에 맡겨 다리미질하는 일도 거의 없어졌다. 다리미질거리가 있다 해도 스팀다리미로 몇 번 쓱쓱 문지르거나 분무기로 분무를 하면 고루 물기가 퍼지기 때문에 입으로 불어 물이 고루 가지 않아 고생하는 일도, 양복 술에 물을 묻혀 물을 뿌리면서 다리미질하는 일도 없어졌다. 더구나 옷에 풀을 먹이느라 고생하는 일은 말할 것도 없고.

월요일 아침 광목으로 만든 교복 칼라에 뻣뻣이 풀을 먹여 다려 입고 학교에 가면 어떤 때는 풀이 과해 목덜미가 별장게 되었던 일, 그리고 시간이 지나 테트론이라는 옷감이 나와 푸새를 안 하고 다림질만 해도 되어서 너무 편했던 일들이 이제는 옛일이 되었다.

스무 살 무렵의 나는 눈 꼬리엔 뻣뻣하게 풀을 먹이고 가슴엔 뚜껑 없는 둥근 다리미에 별장게 숯불을 담아 서슬 푸르게 세상에 맞서곤 하였다. 서른 살과 마흔 살 무렵엔 푸새가 필요 없는 테트론 옷감처럼 세상을 향해 시퍼렇게 날 세우는 일만은 애써 외면하고 가족만을 위하여 그들의 가슴속에 주름살이 생길라치면 분무기로 골고루 물을 뿌려 다리고 또 다리느라 내 가슴속에 주름살이 느는 것을 모르고 살았었다. 이제 知天命지천명의 나이가 되었으니 내가

숨에 쌓여 있는 일상의 먼지들은 잿물에 삶아 흔적 없이 녹여 내고 자꾸 자꾸
늘어만 가는 아집의 덩어리로 비뚤어진 내 마음은 곱게 다림질하여 바르게 펼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부질없는 바람을 가져본다.

겨울 밤 뻗뻗하게 풀 먹여 꿰맨 이불 홑침의 서늘한 기운으로 한껏 목욕하
고픈 봄날의 아침이다. **수필시대**

궁핍한 시대의 아니마 · 1

임창현 평론집
문예운동 / 값9,000원

궁핍한 시대의 아니마 · 2

임창현 평론집
문예운동 / 값9,000원

아니무스의 변명

임창현 평론집
문예운동 / 값15,000원

구슬을 꺾는 친구

최 미 자 mjpece3@hanmail.net



언젠가 외출에서 돌아오니 우리 집 전화응답기에 반가운 목소리가 들어있었다. 중학교 3학년 때의 짝꿍, 그 친구는 유난히도 수학과목을 좋아했다. 수학시간이 올 때면 짝꿍과 나는 발표를 좋아해서 손을 자주 들었다. 교실 앞으로 나가 백목을 들고 선생님이 내준 기하문제들을 칠판에 풀어가며 친구들에게 설명했다. 지휘봉을 들고 ‘왜냐하면’ 과 ‘고로’ 라는 말로 수학선생님처럼 앵무새가 되어 풀어나갔다. 장복두 선생님의 고무적인 가르침도 훌륭했지만 문제들을 풀어내는 우리 이름에 ‘아무개박사’ 라는 칭호를 붙여주셨기에 우리는 더 신바람이 났었다.

학창시절 나는 머리가 좋은 아이는 아니었다. 시간 중에 선생님의 설명들을 놓치지 않고 잘 귀담아 듣고는 깨알같이 토를 달아 공책에 가득히 적어 공부하는 노력형이었다. 그래서 친구는 가끔 내 공책을 넘어다보며 궁금해 했지만 나는 보여주기를 싫어했다. 평소에 나는 친구를 좋아하고 봉사도 했지만 공부에는 독창적이기를 원했다. 무슨 일을 하건 내가 남의 본을 따는 것도 싫었고 타인이 나의 창의적인 것을 가져가는 것도 좋아하지 않았다. 오랜 세월이 흘

월간지 퍼플 오브 샌디에이고 (People of San Diego) 주필
월간지 미주현대불교 편집고문, 재미수필문학사 협회 회원
수필시대, 현대문예 수필 신인상, 전남 광주 출생

렸지만 그런 나의 탐구심들은 지금도 여전한 것 같다. 학창시절을 돌아보며 싱거운 웃음이 절로 나왔다. 아무튼 학과 시간에 우린 선의의 경쟁을 종종 하면서도 친하게 지냈다. 나도 친구를 잊지 못하고 어디에서 사는지 가끔은 궁금했었는데... 어느 날 친구가 나의 미국거처를 우연히 알고는 반가워서 전화를 걸어왔다. 이심전심된 우리의 마음이 통했나 보다. 나는 응답기에 들어있는 짝궁의 목소리를 반복해서 여러 번 들어보며 반가움을 금치 못했다.

돌아보니 어언 사십년의 긴 세월이 흘렀다. 짝궁의 전화번호로 곧장 국제전화를 걸어 나도 반가움을 친구에게 전했다. 그런데 그녀가 지내 온 이야기를 들어보니 눈물겨운 기막힌 세월이었다. 두 아이를 혼자 기르며 힘겨운 고비를 넘긴 슬기롭고 성숙한 여인으로 변해있었다. 학창시절부터 가지고 있던 훌륭한 잠재력으로 홀로 가정을 지켜온 또순이 내 친구의 이야기에 나는 눈시울을 적셨다. 그리고 내가 미국에 사니 어려울 때 친구로서 도움도 주지 못해 마음이 아팠다.

15년 전인가, 남편과 함께 타고 갔던 승용차를 건너편에서 오던 커다란 버스가 갑자기 들이 받았단다. 수원의 복잡한 교차로였다. 친구는 어마어마한 교통사고의 악몽을 지금도 잊지 못했다. 신기하게도 운전하던 남편은 피 한 방울을 안 흘렸지만 장 과열로 세상을 떠났단다. 운전석 곁에 앉아 있던 친구는 사고 현장에서 순간 기절해버렸다고 했다. 병원에서 깨어나 정신을 차리고 얼떨결에 장례를 치렀다. 장례를 치르고 나니 13살, 14살의 두 아이를 혼자서 기를 일이 막막해서 먼저 간 남편이 한때는 원망스럽기도 했단다. 정말 어떻게 살아 왔는지도 모르는 그런 세월을 토해놓는 친구는 거센 세파를 지나왔지만 무척 마음이 바르고 진실했다. 그녀의 높았던 자존심은 어디론가 모두 가버린 듯이 숨이 죽어있었다. 이야기를 들으며 허심탄회한 마음을 털어놓을 수 있는 친구로 대상이 된 나는 영광스럽고 행복했다. 우리가 살아가며 종종 울적한 마음을 누군가에게 털어내 보지만 사람들은 위로를 해주기보다는 오히려 역으로 화를 돌아주는 경우도 있었다. 그래서 나는 마음으론나마 진정으로 친

구의 용감한 삶에 늦게나마 칭찬을 보냈다.

어려움이 닥치면 이겨낼 수 있는 힘은 아무에게나 있는 것이 아니다. 뼈가 굵어진 바른 가정교육과 의지, 각자의 인간 됨됨이에서 위기의 각박한 상황을 감당해 낼 지혜와 초능력이 나오는 것이다. 친구처럼 초인적인 책임감은 훌륭한 모성애를 가진 세상의 어머니들만이 할 수 있는 힘이었다. 철없는 중학생 1학년, 2학년이던 아이들은 잘 자리주어 이제 친구는 좋은 사위도 보았다.

젊을 적에 한동안, 재혼하라는 주위사람들의 강한 권고를 받으면서 친구는 많이 고민했었다고 한다. 그러나 아이들을 데리고 오라는 남편 후보는 한 사람도 없더라. 곰곰이 생각한 끝에 친구는 재혼보다는 어린 자식들을 선택했다. 재혼해서 행복하다는 보장이 반드시 있느냐며 스스로에게 물어보았다. 지금 생각해보니 천만번 잘 내린 결정이란다. 젊어서 잠시 느껴보는 희로애락의 즐거움과 행복감은 잠시겠지만, 어렵지만 사람사는 잘 지으면 우리의 영원한 보람이지 않는가! 친구야말로 하마터면 엄마의 재혼으로 방황했을 두 자식을 바르게 구해준 우리 사회의 자비롭고 강인한 어머니였다. 만약 두 아이들이 탈선이라도 했더라면 그들의 불행은 우리 모두의 불행이기 때문이다. 내가 즐거우면 가정이 행복하고, 행복한 가정이 모여 즐거운 사회가 되는 것이다. 평화로운 사회가 모이면 또 살기 좋은 나라가 만들어 질 테니 말이다.

하루는 주말이어서 전화로 “지금 뭘 하고 있느냐?”며 물었더니 새로 커튼을 사서 걸고 있는데 방 분위기가 달라졌다며 좋아했다. 잘 사는 친구들처럼 비싼 외제품은 아니지만 가격과 친의 질감이 좋다며 만족해했다. 침구와 가구, 커튼까지도 외제품이라니! 나는 도무지 믿어지지 않는 가격들에 혀를 내둘렀다. 돈이 평평 남아도는 중부들은 그렇게 사치를 하며 살아간다는 조국에 사는 일부의 부유층을 꼬집으며 우린 한숨을 쉬었다. 또 자유분방한 주부들이 자식들을 내팽개치고 집을 나가는 경우들이 요즈음 많아져서 걱정이란다.

친구는 얼마 전 조금 넓은 아파트로 이사를 왔으니 내가 고국에 나오면 꼭 자기 집으로 오란다. 언제든 나를 환영한다며 은근히 잠자리를 준비해주는 녀 녀지도 않는 친구의 고운 마음에 나의 가슴은 몽클했었다. 지난번 고국에 나가보니, 잘 사는 친구나 친척들은 바빠서인지 밖에서 식사나 하자며 인사를 건네 왔었는데 내 짝꿍은 이렇게 다정했다. 아무리 생활에 쫓기고 분주한 나 날이겠지만 언제나 전화 속의 친구 목소리는 잔잔한 마음으로 정겨운 옛 우정을 느끼게 해준다.

미국에 살며 한때 나도 우리 집을 찾아 온 손님들에게 가족처럼 잠자리를 제공하며 환영했다. 여유가 있고 저택에서 잘 사는 것도 아니지만 그렇게 하는 것이 사람의 기본도리라고 나는 생각했기 때문이다. 이젠 흐르는 세월 탓인지 건강을 핑계로 나도 인심이 알팍해져간다. 가능하면 신경을 쓰는 일을 피해 편하게 살고 싶어진다. 최선을 다해도 가끔 사람들과 부딪히고 상처를 주고받기도 한다. 남은 세월은 서로의 잘됨에 질투를 하기보다는 칭찬 할 줄 알고 진심으로 사랑하는 사람들하고만 실컷 부대끼며 살아가고 싶다. 우리의 귀한 삶이 너무나 짧다고 느껴지는 요즈음이다.

지금 친구는 수년 전에 배운 구슬 꿰기 기술로 여성회관의 강사란다. 그런데 사람들의 생활이 어려워지니 수강생도 줄어 그 얼마저도 중지해야 할지도 모른다며 고국의 불경기를 걱정했다. 또 눈마저 노안이 되어가니 우울하단다. 그녀는 목걸이, 반지, 귀고리 같은 액세서리와 시계 줄, 셀 폰 줄, 열쇠고리, 헤어핀 등의 다양한 패션소품을 만들고 있다.

조용히 앉아 좁쌀만한 구슬들을 가느다란 낚시 줄을 놓고 꿰려면 짜증이 나고 답답하지 않느냐고 나는 물어보았다. 구슬 꿰기에 집중을 하다보니 오히려 마음의 자질구레한 잡념들이 싸악 가시고 수양이 되는 즐거운 시간이란단다. 친구가 살아온 한 많은 세월 속의 인내와 고통들을 아름다운 구슬 속으로 지혜롭게 승화시키고 있었다.

일전에 나의 수필작가 등단을 축하하고 싶다며 나에게 무슨 색깔을 좋아하느냐며 물어왔다. 나는 액세서리를 즐기는 편이 아니지만 친구의 끈질긴 물음에 연한 파랑색인 것 같다고 대답했다. “너의 글을 읽으니 학창시절 맑은 모습이 그대로 남아 있더라. 너는 연약해 보이는 겉보기와는 달리 은근히 강해야~(전라도 사투리의 액센트).” 하며 내 글의 소감을 그렇게 표현했다. 학창시절 한동안 우리 집안이 어려운 상황을 내가 이겨내는 걸 친구는 보았기 때문이다. 친구는 학기마다 학생이쭈마들과 함께 만들어 온 작품들을 준비한 전시회로 자랑시키고 판매도 하며 일의 보람을 느낀다. 구슬공예가로 내 친구가 굳세게 나아가도록 고국이 잘 살았으면 한다. “마음이 고운 친구야, 미국에 놀러오면 나도 우리 집에서 너를 가족처럼 대 환영해주마.” **수필시대**

살면서 배운 것은

이영순 시집
문예운동 / 값6,000원

하늘과 땅

김창식 시집
문예운동 / 값7,000원

향기로운 사람



한 인 자

사람들은 향기를 좋아한다.

향기 짙은 꽃을 좋아하고 향기로운 향수를 좋아한다. 그러나 사람은 아무리 값비싼 향수를 뿌리고 다닌다 해도 후각으로 맡을 수 있는 향기 때문에 그 사람을 좋아하지는 않는다. 사람의 내면에서 풍기는 심성의 향기가 있어야 비로소 향기로운 사람으로 사랑받게 되는 것이다.

이른 아침 운전을 하다가. 잠깐 한눈을 판 순간 “꽹” 하는 소리와 함께 앞 차를 들이받았다. 눈앞이 캄캄했다. 얼른 뛰어 내려가 앞 차를 살펴보았다. 먼지 한 점 없이 잘 닦여진 까만색 포텐샤였다. 갓 출고한 듯한 그 차의 뒤 범퍼가 허약하게 벗겨져 있었다. 가슴에서 쿵덕 방아 소리가 들렸다.

얼마나 매서운 고양이 눈으로 나를 쏘아보고 있을까? 고양이가 앞에 쥐가 된 나는 앞 차 운전석으로 뛰어갔다. 그러나 운전석엔 놀랍게도 고양이가 아닌 말끔한 신사가 웃는 얼굴로 나를 바라보고 있었다. 나는 꿈을 꾸고 있는 게 아닌가하고 팔을 꼬집어보았다. 이른 아침 여자가 출근길의 자기 차를 꽹 소리가 나도록 들이받았는데 웃고 있다나….

떨리는 목소리로 차가 벗겨졌는데 어떻게 보상을 했으면 좋겠느냐고 물었

춘천사범학교 졸업 초등학교 교사 재직 34년

신사업당 휘호대회 장원

평화주제 문학상 우수상, 〈수필시대〉로 등단, 춘주문학회, 청하문학회 회원

다. 고양이가 앞의 쥐처럼 떨고 있는 내가 안 돼 보였던지

“벗겨지기만 했더니 괜찮습니다. 이곳은 병목현상이 있는 곳이라 곧잘 접촉 사고가 납니다. 그 쪽 차는 괜찮습니까?”

그렇게 내 차까지 걱정해 주는 여유를 보였다. 내 차는 괜찮다고 하자

“그쪽 차가 괜찮다니 다행입니다. 걱정 말고 그냥 가십시오.”

내가 뭔가 더 말을 하려 하자 그는 웃는 얼굴로 가벼운 목례까지 하고 차를 몰고 사라져 갔다.

나는 그 신사가 남기고 간 향기에 취해 한동안 멍하니 그가 사라진 곳을 바라보고 섰다가 차에 올라 천천히 자동차의 시동을 걸었다. 자동차 안은 그가 내게 주고 간 난향 같은 상큼한 향기로 가득 찼다.

이른 아침 한림대학병원에서 진료를 받기 위해 차를 기다리고 있었다.

“안녕하세요? 좋은 아침입니다.”

유쾌한 소리가 들려왔다. 얼른 소리 나는 쪽으로 고개를 돌려보니 연세 지긋한 의사가 만면에 웃음을 머금고 안내 책상에서 일하고 있는 간호사들을 향해 인사를 하고 있는 것이었다. 간호사들이 일에 팔려 미처 교수님의 인사를 듣지 못했는지 하던 일만 계속하자 예의 그 인사말을 다시 한 번 되풀이 하였다. 그때서야 교수님이 먼저 인사한 것을 알고,

“어머! 교수님, 안녕하세요?”

간호사들은 하던 일을 멈추고 송구스러워하는 표정으로 인사를 한다. 의사라는 권위의식도, 나이가 많다는 허세도 없는 노 교수의 얼굴엔 마음씨 좋은 이웃집 아저씨 같은 웃음이 번지고 있었다. 딸같이 어린 간호사들을 향해 먼저 인사말을 던져 상쾌한 아침을 열고 있는 노교수에게선 옅은 국화꽃 향기가 퍼져나고 있었다.

청량리역 계단을 오르고 있었다. 대학생인 듯한 젊은이가 배낭을 메고 급히 뛰어내려오다가 힐끗 뒤를 돌아다보더니 다시 뛰어 올라간다. 할머니 한 분이 무거운 짐을 이고 들고 힘겹게 내려오고 있었다. 그는 할머니 머리 위의 짐을 일른 받아내려 들고 다른 한 손으론 할머니가 든 짐을 같이 들고 내려오는 것이었다. 그들은 어느새 다정한 할머니와 손자가 되어 있었다. 손자의 얼굴엔

사랑의 미소가, 할머니의 얼굴엔 고마움의 미소가 번지고 있었다. 어디선가 싱그러운 바람이 솔솔 불어왔다. 바람에 실려 온 아카시아 향 같은 향기가 역계단에 퍼진다. 잠깐 동안 내 눈에 들어온 그림 같은 풍경이 가슴에 잔잔한 향기를 전해주고 있었다.

구세군 냄비에 오백만원이라는 큰 돈을 8년 째 아무도 모르게 넣고 총총 사라지는 이름 없는 사람이 있다는 이야기를 TV를 통해 들었다. 수 억 원을 불우 이웃돕기에 써 달라고 기부한 사람의 웃는 얼굴에서 받을 수 없었던 감동의 메아리가 라일락 향기처럼 퍼진다.

자신의 아이가 3명이나 되는 어느 부부가 장애아 2명을 양자로 데려다 정성껏 키우고 있다는 이야기에는 사이비 복지원장들이 뿌린 악취까지 덮어갈진한 장미향이 실려 있다.

장애아 친구를 위하여 6년간 말없이 책가방을 들이다 준 어느 초등학교의 이름 없는 소년의 풋풋한 이야기는 장애이라고 놀려대는 개구쟁이 아이들 모습을 덮고 연둣빛 향기로 퍼져 나간다.

위대한 사람만이 향기로운 사람은 아니다. 평범한 사람들 속에 작은 미담들이 오히려 더 친근한 향기로 우리 곁에 다가온다. 향기로운 사람은 향기를 내려고 일부러 마음 밭에 향기를 뿌리지는 않는다. 자신이 하는 일을 자랑하지 않는다. 자신보다 낮은 곳에 있는 사람들을 내려다보지 않고 그들이 있는 곳으로 내려가 그들과 눈높이를 같이 한다. 자신이 억울함을 당했어도 그 때문에 옳은 일을 그르치지 않는다. 자신에겐 칼날같이 엄격하지만 다른 사람의 실수에 대해선 너그럽게 용서할 줄 안다. 늘 넉넉한 마음으로 세상을 아름답게 바라본다.

이런 보통 사람들의 향기가 있기에 온갖 사람들이 풍기는 악취도 향기로 덮어갈 수 있는 게 아닐까? 그래서 오늘도 세상은 살아볼만한 향기로운 세상이라. **수필시대**

텃밭

황정순 hjs336336@hanmail.net



우리 집 옥상에는 두 평 남짓한 텃밭이 있다. 어른들 말씀을 빌리자면 볼기 짝만 한 땅이다. 그러나 작다고 제 역할을 못하랴. 2월 말쯤 봄기운이 느껴지면 겨우내 쌓아놓은 음식물 퇴비 옆에서 연초록 파잎이 가장 먼저 뻗죽하게 솟으며 봄소식을 알린다. 지저분하고 아직은 차가운 흙 속이지만 어찌 그리 정확하게 봄 미중을 하는지 그 생명력이 신비하다 못해 경이롭기까지 하다. 이때부터 퇴비덩이를 골고루 헤쳐 넣고, 삽으로 땅을 뒤집고, 호미로 흙을 고르기 시작한다. 어찌다가 호미 끝에 잠자던 굼벵이이라도 건드리면 이름값을 하는지 몸을 돌돌 뭉치고 있거나, 허영계 배를 뒤집은 채 나뭇굴 뿐 꿈쩍도 안한다.

나는 곱게 일군 땅 위에 상추씨를 뿌리는 것을 시작으로 1년 농사일을 시작한다. 상추씨와 열무 씨를 뿌린 후 대나무를 휘어박고 비닐을 씌워 작은 하우스를 만든다. 3-4일 후 씨앗이 아귀를 튼 후, 비닐을 열고 한 번 물을 뿌리고 나면 봄 별 속에 두 잎이 네 잎이 되고 하루가 다르게 자라는 모습이 여간 귀엽지 않다. 그들과 아침저녁으로 문안 인사를 나누는 마음이 기쁘다. 온실에서 이슬방울로 고깔모자를 만들어 쓰고 있는 가녀린 모습은 서로가 예쁜 모습

충남 보령출생
복사골 문학회 회원
수필시대 등단, 부천 여성 백일장 입선

을 먼저 봐달라고 키 재기를 하는 듯하다. 내가 새싹들을 기다리는지 새싹들이 나를 기다리는지 모르겠다.

채소들이 어느 정도 자라면 아침에 비닐을 걷어 올려 웃자람을 방지하고, 햇빛을 쏘여 채소 본연의 맛을 더 하도록 해야 한다. 처음에는 어린 잎이 꽃샘추위에 못 견디어 끝이 마르고 시들부들해져 안쓰럽지만 조금씩 적응하면서 잎이 두터워지고 진한 초록색으로 변화를 거듭한다. 즐기는 거칠고 역센 야생의 모습으로 태어나기 시작한다. 저녁이면 비닐을 다시 씌워 일교차에 따른 온도 조절을 해주면서 낮에는 태양 별을 받도록 반복한다. 너무 어리지도 너무 세지도 않았을 때 뽑아내어 뒷산에서 약수를 받아다가 고추 가루를 풀어 물김치를 담그면 그 맛 또한 일품이다. 군동내 나는 묵은 김치 맛은 얼씬도 못한다. 게다가 잘 기른 상추까지 곁들이면 식탁은 봄 입맛으로 어우러진다. 밭도둑이 따로 없다.

봄별이 더욱 완연해지면 시장에는 갖가지 묘목들이 나온다. 그러면 내게도 농번기가 시작된다. 고추모 5개, 파리 고추모 4개, 가지모 4개, 토마토모 4개를 사다가 적당한 간격으로 심는다. 많이 먹을 욕심으로 너무 붙여 심으면 키만 자랄 뿐 열매를 맺지 못한다. 토마토모는 다 자라면 키가 커서 다른 식물들이 치여서 자라지 못하니 제일 가장자리에 심기를 잊지 않는다. 그 사이사이에 호박을 심어 덩쿨을 지붕 기왓장으로 늘여 주어 농사의 효율을 높인다. 강낭콩도 심어 빨랫줄을 타고 오르도록 해야 한다. 그리고 나면 텃밭에 붙일 것은 다 붙인 셈이 된다. 한 열흘쯤 지나면 이 놈들은 뿌리를 내리고 흙냄새를 맡았는지 잎이 진한 색으로 변하며 거름 살이 오른다. 그 모습이 어찌나 예쁜지 꼭 자식을 돌보는 마음이다. 여름 태풍이 오기 전에 토마토 나무와 고추 모에는 지주목도 세워주고, 오이나 강낭콩에는 줄도 늘여 주어야 한다.

여름 장마가 시작되면 바위도 자란다고 하듯이, 옥상의 푸성귀들은 그야말로 우후죽순이다. 아침에 볼 때 다르고 저녁에 볼 때 다르다. 어느새 잎에 가려 흙이 보이지 않는다. 빨랫줄을 타고 올라가 매달린 오이를 따서 옷에 쓱 문질러 먹으면 아삭아삭함과 동시에 온몸에는 푹푹한 오이냄새가 배는 느낌이다. 주렁주렁 열린 풋고추를 따다가 고추장에 찍어먹고 가지 무침도 상에 오

른다. 나의 손끝에는 어머니의 손맛이 대를 이어간다.

이 때쯤이면 지붕에 올린 호박 줄기가 창까지 늘어져 운치를 더한다. 장대 비라도 내리며 후두둑 거리면 즐기는 그네를 탄다. 바로 집 뒤 성주산에는 산 중턱까지 자욱한 비가 걸렸으니 옥상에 오르면 정자에 오른 느낌이다. 주변의 경치는 초록 그림이로다. 차 한 잔까지 곁들이면 나는 신선이 된다.

장마가 지나가면 상추는 끝물이다. 파종을 해도 날씨가 더워 녹아내리거나 잘 자라지 않는다. 상추를 뽑아낸 자리에는 얼갈이 씨를 뿌린다. 새들이 찾아와 씨앗 사냥을 한다. 새들에게 빼앗기고 남은 씨앗은 더운 날씨 탓에 빠르게 자란다. 어느새 얼갈이 잎에는 암수 한 몸인 달팽이가, 가지 잎에는 무당벌레가 기승을 부리기 시작했다. 이 놈들은 얼마나 빠른 속도로 번식을 하는지 잡이주지 않으면 내 뿔이 남지 않는다. 옛날 감자밭에 무당벌레를 잡듯이, 이것들을 잡아 밭밑에 넣고 비벼 버릴까. 하다가 ‘아니야. 지구란 사람만이 사는 곳이 아니잖아.’ 나는 손 안에 든 벌레들을 멀리 던져 버린다. 더 넓은 산으로 가 살라고.

쾌청한 날에는 나비 한 쌍이 날아와 앞서거나 뒤서거나 본격적인 짝짓기에 앞서 유희를 즐긴다. 아마도 일자로 몸을 맞추기 위한 수컷의 방편일 것이다. 오라! 소우주가 내 눈앞에 열렸구나. 내가 너희들의 사랑을 빼앗을 권리는 없지. 하지만 사랑을 훔쳐볼 권리는 있지 않겠느냐. 어떤 녀석들은 암놈을 만나면 구애고 뭐고 막무가내로 달려들어 짝짓기부터 해버리는가 하면 조심스럽고 정교하게 구애를 하는 녀석들도 있다. 누가 호박꽃을 꽃이 아니라고 했더냐. 호박 꽃 속에는 이미 벌들이 들어가 주둥이로 후벼대더니 그것도 모자라 온몸으로 비벼 대고 있다.

늦여름 쏟아지는 땀별에 고추는 잘도 익어간다. 참 탐스럽고 곱기도 하다. 누구의 볼 딱지가 저리 고울까? 내 언니 시집가던 날 연지 끈지 짙은 볼 딱지 이던가. 그런데 어떤 고추나무는 주렁주렁 열렸는가 하면 그렇지 못한 것도 있다. 사람으로 말하자면 성장기에 잘 자란 고추나무에는 많은 고추가 주렁주렁 열리고 튼실하게 열매도 맺는데, 가령 옆의 키 큰 식물들에게 치이거나 해충으로부터 상처를 입은 고추나무는 끝내 많은 열매도 맺지 못하고 성장이 멈

추어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크는 이들에게 성장의 시기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보여주는 자연의 가르침이다.

빨래줄을 타고 오른 강낭콩 꽃이 푸른 물을 토하듯 피었다. “거룩한 분노는 종교보다도 깊고/불 붙는 정열은 사랑보다도 강하다. /아, 강낭콩 꽃보다도 더 푸른/그 물결 위에/양귀비 꽃보다도 더 붉은 그 마음 흘러라” 라는 변영로님의 시가 생각난다. 저절로 고개가 끄덕여진다. 그 푸름이 양귀비꽃에 버금간다고 할까, 만지면 금방이라도 푸른 물이 흐를 것 같다. 이 때쯤이면 한쪽에서는 수확의 계절이다. 호박잎을 헤치며 애호박을 따다가 새우젓에 볶아내고, 단 호박을 따다가 간식으로 썰낸다. 옥상에 오를 때마다 방울토마토 서너 알 따서 내 몸의 비타민을 보충한다.

서늘한 바람이 불기 시작하면 채소들은 더 이상 자라지 않는다. 비로소 가지 맛은 제 맛이 나고 늙은 호박은 기왓장에 파리를 튄다. 열갈이를 뽑아다 된장국을 끓이고, 서리가 내리기 전 막바지 추수를 한다. 고추 잎을 훑어다가 데치면 꼭 한 접시다. 참기름을 넣고 버무려 식탁에 올리면 1년에 꼭 한 번 먹는 그 맛. 고향의 맛 그대로이다. 어찌 고기 맛에 비하랴. 농약을 전혀 치지 않았으니 그야말로 참 살이(웰빙)식품이다. 그래서인지 더욱 맛있다. 잎을 훑어 버린 고추나무는 별거벗은 임금님 같아 웃음이 나오기도 하고 미안한 마음도 든다.

서리가 내리기 전부터 서서히 가을걷이를 마무리해야 한다. 간혹 매달린 열매들을 따고 호박 줄기를 걷어내고, 고춧대를 뽑아 놓았다가 마르기를 기다려 불을 놓는다. 그제야 1년 농사가 끝난다. 후두둑 타는 맑은 불꽃, 들풀 타는 내음... 나는 하얀 연기를 타고 추억 여행을 떠난다.

순하디 순한 텃밭은 내년 봄을 위하여 천하고 더러운 것들을 귀하게 받아들여 겨우내 거름으로 삭혀 줄 것이다. 그리고 보니 지난 1년 나는 텃밭을 가꾸어 온 게 아니라 내 인생 1년을 농사지었던 게다. **수필시대**



20^{인선}

권현옥, 김옥남, 김용옥, 김의제, 김이주,
김재훈, 김희선, 노혜숙, 안재동, 이복수,
이 순, 이윤상, 임금홍, 임지윤, 지설완,
정정인, 정태현, 최원현, 최혜정, 황선영,

반복의 타락

권현옥 doonguri@hanmail.net



물 한 모금 마시고 고개를 드는 병아리처럼 젓가락으로 건진 반찬을 입에 넣고 고개를 든다. 식당 벽에 걸려 있는 성경구절이 눈에 들어온다. 또 다시 읽는다.

‘네 처음은 미약했으나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배가 부르기 시작하자 짓궂은 생각이 난다. ‘첫 입엔 배고팠으나 나중은 심히 배부르도다.’

밥을 먹기 전, 나는 더 이성적인 생각을 했던 것 같다. 처음 식당에 들어서서 그 구절을 보았을 때는 여기 들어온 사람 모두에게 들려주는 기분 좋은 성경 말씀이라고 생각되었다. 그러다 시간이 조금 지나니 왠지 자신의 사업 번창을 위한 글귀로 읽혀졌다. 주인의 노골적 의도를 손님인 나 또한 너무 노골적으로 해석했는가, 싶지만 ‘세상은 그만큼 노골적이 된 거야, 어쨌든 이 성경구절은 확실히 기분 좋다’고 생각했다. 이 집에 들어오는 사람과 주인을 위해 너그럽게 욕심을 포장해주는 희망적인 말이기도 하고, 물질의 축복을 원하는 기도문과도 같았다.

가게의 벽에서 자주 보기 전, 성경 욱기의 8장 7절에서 대했을 때는 적어도

충남대학교 국문과 졸업, 전직교사.

〈현대수필〉로 등단. 문인협회회원, 한국수필학회회원, 강남문인협회회원

현재 〈현대수필〉편집위원

수필집 : 갈아타는 곳에 서다

경건했었다. 사랑의 시작이라든가, 보람의 시작이라든가, 믿음의 시작이라든가, 하는 삶에의 희망과 영혼의 기쁨을 설핏 맛보았기 때문이다.

반복은 첫경험의 순수를 타락하게 하고 경건치 못한 장난을 걸기도 한다.

초등학교 때, 내 방 벽에 걸려있던 ‘삶이 그대를 속일지라도 두려워하거나 노하지 말라’는 푸시킨의 시도 그랬다. 대체 왜 삶이 나를 속인다는 건지 이해가 안 가 읽고 또 읽었고, 두려워하거나 노하지 말라는 시구는 ‘예 그렇게 하겠습니까’로 받아들였다. 희망이 꺾일 적마다 나는 삶이 나를 속였다고 생각하지 않았다. 내가 속은 것이 아니라 언제나 나의 의지가 부족했거나 그럴 수밖에 없었다고 생각했다. ‘나의 희망에 내가 속았을 뿐’이라며 두려워하거나 노여워하지 않았다.

그러다 세월이 가고 세월을 살았다. 그러저럭 삶이 나를 속인다는 것도 눈치 채고 나도 삶을 속였다고 생각할 즈음이 되자 시구의 감동은 변형되어 갔다. 속았다는 것도, 속을 수 있다는 것도, 속아도 다소 괜찮다는 것도, 그리고 나도 많이 속인다는 것도 알게 되었고 ‘내가 삶을 속일지라도 용서해 주소서’하고 맞장구치고 있었다.

그날도 반복이 나를 흔들리게 했다.

지하철에서 한 아저씨가 바구니를 들고 내 앞에서 기다린다. 이런 저런 생각이 오고 갔지만 ‘당신이 무엇인가를 소유했음을 알게 되는 것은 그것을 누군가에게 주었을 때’라는 헤밍웨이의 말이 생각나 돈을 망설임 없이 꺼내 주었다. 책을 읽고 있는데 또 한 사람이 지팡이로 이리저리 짚으며 온다. 모르는 척했다. 너무 연이어 왔다는 이유로 거부감이 있었는지 모른다. 그냥 지나갔다. 이상하게도 그날따라 그랬는가. 또 한 사람이 왔다. 모른 척했다. 그 사람도 아무 미련이 없는 듯 지나갔다. 재래시장에서 소비자의 부담감을 불들던 시대가 지난 것처럼 시원하게 지나갔다. 세련된 행동이라는 우스꽝스런 생각이 들었다.

계단을 오르면서 어울리진 않지만 ‘삶이 그대를 속일지라도...’ 시구가 생각났다. 처음엔 왜 주었고 나중에 왜 안 주었는가. 그들이 나를 속인 게 아니잖은가. 처음 순수한 마음 그대로 했어야 하지 않는가. 내가 나를 속인 것이

아닌가.

찬바람이 계단 위쪽에서 드라이아이스처럼 밀려왔다. 옷깃을 여미고 오르는데 한 남자가 쭈그리고 앉아 엎드려 있고 바구니는 비어 있었다. 왜 하필 그 추운 곳에서... 내려가면 춥지 않은 곳도 있는데 하는 안쓰러움이 일었다. 어찌면 추운 곳에서 엎드린 누추한 등에 점수를 더 줄지 모른다는 계산이 있을 거라는 생각도 있었지만 나는 뒤따라 올라오던 사람들이 정지된 내 어깨를 툭 툭 칠 때 지갑을 열었다.

그렇다면 두 번째 세 번째 손을 내밀었던 사람은 나에게 무엇인가. '감동은 언제나 첫 것의 뒤편'이라는 어느 작가의 말처럼 반복이 마음을 경건치 못하게 흔들어 놓았던 것이다.

'네 시작은 미약했으나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라는 성경 말씀이 처음의 경건을 잃고 욕심으로 읽혀지는 데는 가게마다 걸어놓은 반복 때문일 것이다. 아직도 삶이 나를 속일지 모른다는 의심과 속지 말아야겠다는 자존심에서 벗어나지 못했는지도 모른다.

내 마음 벽에도 걸어야 할 게 있다.

'반복이 가끔 진실을 타락시켜도 두려워하거나 노하지 말라' **수필시대**

혼자말하는 나무

성기조 시집
문예운동 / 값7,000원

歸巢 귀소



金玉 南김옥남 okcoastk@komet.net

훈기 받아 보아라

긴 출장에서 돌아온 네 목소리를 들으며 그곳 야구 시즌의 종료와 함께 한 해도 다 가고 있음을 실감했다. 네가 그곳(L.A)에 둥지를 튼지도 20년이 넘었고 한국의 첫 스포츠지 미주 특과원으로 지명되어 머문지도 15년이 되었구나. 그래 이제 세 식구 모처럼 모여 즐겁게 지내고 있겠지?

붉다기보다 고운 자주빛 바위산들로 둘러싸인 산악도시 세도나(Sedona-애리조나 주 피닉스에서 차로 2시간 거리), 인디언들이 성지로 여기고 있다는 곳. 강한 氣기를 지니고 있어 세계 각지에서 기 훈련을 위해 찾아들고 있으며 우리 나라에서도 참가하고 있다는 곳. 그곳으로 출장을 가고 있다는 네 홈페이지에서의 희한한 색의 사진들을 보았다. 그 색깔과 분위기에서 왠지 신비함을 느꼈던 지난 봄이 어느덧 두 계절을 넘어 초겨울 문턱에 섰구나. 1년에 6개월 이상 계속되는 너의 출장, 미국 여러 지역으로의 이동취재가 귀한 경험과 함께 새록새록 익혀나가야 하는 고달픔이 컸을 것이다. 하긴 어려서부터 너는 세계의 낯선 여러 곳들을 꼭 찾아다닐 거라고 했었다. 말이 씨 되어 즐기

한국문협회원, 팬클럽회원

한국수필 이사, 종로문협 회장, 에세이플러스 회원

수필집 : 시간의 향기

며 다녔을까 염려되곤 했다. 고고학자 되어 세계의 뒀안길을 살피고 연구하고 싶었던 그 소망을 받쳐주지 못한 어미의 아픈 속내가 이렇게 위안 받고자 멋대로 생각하고 있구나.

오랜만에 돌아온 네 등지 LA의 하늘이 공교롭게도 계속된 화재의 매연으로 덮였던 때라 당황스러웠겠구나. 로드아일랜드(미국의 작은 주)의 반 이상이나 되게 탕다니 굉장한 불이었던 것 같다. 이 무렵이면 사막 쪽에서 태평양 해안 지대로 불어닥치곤 하는 강하고 건조한 산타아나(Santa-Ana) 열풍이 특특히 한 몫을 했을 것이다. 낙진과 매캐함이 너의 동리 '다이아몬드바' 까지 이르고 있다니 닥친 이들의 아픈 마음 헤아리며 조심하거라.

이제 곧 서울 본사로 금년의 정리를 위한 출장 나오겠구나. 네가 돌아오는 초겨울을 기다리는 가슴이 물오른 나무 마냥 철 아니게 싱그러워지고 있다. 어제는 철 지난 토란이 행여 있을까 재래시장도 기웃거렸다. 금년엔 과일도 흉작이라 네가 즐기는 사과도 맛있는 것을 찾아 나서야겠다. 아버지도 “이젠 월드 시리즈도 끝났겠지?” 하며 너의 귀국을 챙기고 계시다.

네 등지를 틀기 전 옛 우리의 등지에서 너는 섭섭하거나 우울한 날이면, 또한 잔 마신 날에도 늦잠을 자는 게 아니라 이른 새벽에 기타를 튕기며 청승맞도록 감미로운 노래들을 흥얼거려댔다. 언제나 집안의 가장 구석진 넓은 방이 장남인 네 방이었다. 그 소리는 온식구를 자극했고 짜증나게도 했다. 어지르고 늘어놓는 것도 너는 만이여서 식구들이 투덜대면 어느새 동생들을 꼬셔서 말쑥히 치워놓곤 했었다. 그렇게 은근히 수선스럽던 네가 떠나고 나선 온 집안이 썰렁했다. 벌써 20년이 지났구나. 요 몇 년 동안 특별한 행사 외엔 초겨울에 꼭 한 번씩 옛 등지로 돌아오는 너는 이제 어질러 놓기도 늘어놓기도 아주 줄었고 출근시간도 칼같이 지키고 있어 오히려 어미는 서떡했다. 귀가 시간은 멋대로였고 술은 연일 취해 돌아오지만 기타는 커녕 말없이 너무도 얄전히 잠자리에 들었다가 새벽엔 꼭 일어나 출근하는 것을 보며 곧 대학생의 아버 될 네가 측은하기까지 했다. 게다가 조반의 국뿐 아니라 어미가 한 밥이라고 깔깔한 입맛으로도 먹어내노라 애쓰는 매일이 희한했고 더러는 눈물겹기도 했다. 이제야 너의 응석이나 억지까지도 다 받을 때가 되니 네게 선 그것들이

사라져 버렸구나.

창밖 상수리 윗가지의 까치둥지도 봄날엔 꽤도 시끄럽고 요란스럽더니 여름이 지나고 가을에 접어들자 어느새, 새 식구들은 모두 둥지 틀어 나가버리고 현 둥지만 조용히 새봄을 기다리는 듯 하다. 가끔 저녁 무렵 깃 접고 쉬려고 드는 두 마리 까치를 드물게 볼 수 있을 뿐이다.

우리에게 미리 보낸 초청대로 내년엔 네 아들 한결이의 졸업식 있는 초여름, 너희가 틀어놓은 세 둥지(L,A 1. Chicago 2)에도 차례로 또 들러 보련다. 이 겨울 네가 歸巢귀소하면 때도 써 보거라. 응석도 부리렴, 옛날과 같이 말이다. 우리가 한결이의 졸업식에 참여하고 나면 그 녀석도 어느날 훌쩍 기타 둘러매고 제 둥지 틀러 나갈 날이 바짝 다가올 것만 같구나. 그는 어디에 또 둥지를 틀 것인지...?

너희들의 어릴 적이 고스란히 고여있는 이곳. 너희 3 남매가 쿤더(독일산 쇠파드)를 보디가드로 데리고 주말이면 오르내리던 인왕산 고개마루엔 봄이면 바위틈에 여전히 진달래가 붉단다. 뺨쪽새 소리는 사라졌지만 산비둘기와 장끼의 찢어지는 울음소리도 여전하다. 애미는 지금도 그곳엘 아침이면 오른다. 너희들의 유년시절이 소복히 담겨있는 우리의 둥지 紫霞山室저허산실에 그리움과 함께 가끔 귀소하기를 기다려 본다.

훈기야, 어서 다녀가거라. 그리움일랑 모두 쏟아놓고 가거라. 네 둥지도 머지 않아 한결이의 그리움이 고일 옛 둥지가 될 것이다. 우리도 마침내 영혼이 깃들 둥지로 각기 영원히 돌아가게 되겠지. **수필시대**

순간포착

차윤옥 시필
문예운동 / 값7,000원

모악산에 그림계 안기러 간다

김 용 옥 kyok83@hanmail.net



모악산에 간다. 느릿느릿 간다 쉬엄쉬엄 간다. 하늘 한 번 보고 한숨 한 번 토하고 숲개별꽃 민족도리꽃에 눈길 잔잔히 머물며 간다. 돌돌돌 찰찰찰 계곡 물소리에 귀 기울이고 박새 딱새 직박구리가 화응하는 마음을 읽으며 간다. 제각각 분수대로 자알 살고 있는 모악산에 간다. 수왕사의 명명한 물 한 모금으로 티끌 세상사에 찌든 영육을 씻으면 나비날개의 자유를 누릴 수 있다. 가볍다. 몸이 가볍고 마음이 가볍다.

전주쪽에서 바라보면, 한 마리 거대한 짐승이 의젓하게 다리 접고 앉아 쉬는 모양새의 모악산. 靈氣영기와 水氣수기가 느껴지니 바로 어머니의 품안 같다. 미래불을 기다리는 미륵신앙의 교조인 진표율사와 신묘한 이적의 고승 진묵대사의 영험한 혼이 숨쉬고 있으니 영기가 풍성함이 당연하다. 모악산의 淨水정수를 짓줄 삼아 동쪽으로 구이저수지, 서쪽엔 금평제, 남향으로 안덕제, 북향에는 중인제와 갈마제를 이룬 후 금만경 너른 별판의 목을 축여주니 水氣수기가 창창하다. 엄포(어머니산)입이 분명하다. 이러하니, 속세살이에 말라비틀어지는 영육이, 모악산이 퍼늘인 치맛자락 한 끝에만 앉아도 가쁜 숨이 가라앉는다.

중앙대학교 영어영문학과 졸업, 시 전문지 <시문학> 등단

국제pen클럽 전북위원회 부회장, 전북시인협회 부회장

수상 전북문학상, 전주시풍납문학상, 백양촌문학상, 신곡문학상 외 다수

저서 시집 : 서로가 서로를 원하는 이유는, 세상에 용서해야 할 것이 많다, 그리운 상처

수필집: 생물이, 아무 것도 아닌 것들

세상살이라는 게 날마다 쫓기고 뒤틀리고 헐떡거리는 일이잖은가. 이러려고 태어나 사는 건 아닐 텐데도 말이다. 더러운 정치관, 자연성 죽이는 기계문명, 돈의 소용돌이, 공룡이 된 인간성으로부터 잠시나마 벗어나 사람다운 사람, 마음다운 마음이 되고 싶다. 그때마다 모악산이 그리워진다.

내가 가진 가지 않건 모악산은 언제나 그 자리에 앉아 계신다. 못한 자식 잘난 자식 차별없이 푸근하게 품어주는 친정모친처럼. 어느 계절 어떤 날씨에도 상관없이 품어준다. 어느 인생사, 어떤 절망과 비애의 짐을 지고 가도 묵묵히 안기라 한다.

나무의 잔가지 살가지마다 물오르는 풋봄에는 깨어나라 일어나라 부추기고, 비바람치는 여름날에는 온 산이 함께 내 설움 네 설움 통곡하고, 바람이 삼상한 가을 맑은 날에는 국사봉에 서는 탁한 영육에 쪽물을 들여준다. 백설이 펄펄 훑날리던 날에도 신의 음성을 들으려고 홀로 산행을 했다. 좋은 것도 굶은 것도 하양 일색으로 다독이던 그 겨울 모악산의 품에서, 나는 한 마리 작디작은 방울새처럼 외롭고 배고프고 죽을 것 같았다. 젊어서 사는 일이란 그런 것이다. 정열을 태울 수 없으니 외롭고 욕망이 원대하니 가슴은 늘상 허기진다. 다시 시작할 수 없는 인생이니, 헛되게 당진한 과거시간을 생각하면 숨이 막힌다. 깜냥에 죽을 힘을 내어 최선의 노력을 해도 부러지고 찌히는 인생길. 그 허망을 밝은 눈으로 바라보는 마음은 갈갈이 찢어지며 피흘릴 수밖에. 그것들을 어디에, 누구의 가슴에 비워내랴. 모악산의 가슴을 밟으며 한 걸음에 한숨을, 또 한 걸음에 통곡을 비워냈다.

水往寺수향사에 올라 진묵조사전의 기운을 등에 받으며 동쪽을 향해 서서 심호흡을 한다. 발바닥에 기운이 올라온다. 반 바퀴 몸을 돌려서서 금산사의 미륵불이 지긋이 바라보는 서쪽땅을 바라본다. 부처상처럼 눈꺼풀의 힘을 빼고 그윽하고 고요한 눈빛으로. 온세상이 발 아래로다 눈 아래로다. 사는 고통고난의 짐이 무거운들 어디에 굴러다니는 돌맹이 무게만큼이나 되랴. 나 사는 일이 티끌 한 점 허공중에 떠다니기다. 나는 우주 자연 속 한 톨 티끌이로다. 땀! 가슴이 뚫린다. 무겁고 칙칙한 邪氣사기를 비워준다.

현대인 도시인으로, 탐진치와 오욕락에 절어 살아가는 나에게 잃어버린 자

아본성을 되살려주고, 잊어버린 자유혼을 되찾아주는 산 산 산 중의 모악산, 엄피.

몇 년 전. 왼쪽 고관절의 고통으로 절망감을 극복하기 힘들었을 때도 절룩거리며 모악산에 안기곤 했다. 깡마른 육체의 갈비뼈 같은 산길을 밟을 때, 그때 난 절름발이가 아니었다! 평평한 도시의 포도에선 절룩거렸는데도. 솔찬히 괜찮은 눈뜸이었다.

때로는 동행이나 우연히 만난 사람들에게 진목대사의 일화, 이른 봄날의 매화 장관과 복수초꽃의 찬란함, 7월의 끈적한 숲내음 속에 원추리꽃 무더기 무더기 잉겔볼처럼 별장게 타오르는 산의 표정을 들려준다. 은근히 고향집을 자랑하듯이. 속속들이 아름다워라.

잡목들의 단풍잎이 포르르르 날리는 날, 서울에서 내려온 시인들과 대원사에 올랐다. 추풍의 묘음이 한소식인가. 약수 한 모금으로 맘을 씻기운 듯, 나는 골짜기에 홀로 남았다. 작은 바위에 미려를 대고 앉아 산의 소리 산의 내음에 젖어간다. 어느새 無心무심. 무심한 눈에 미세한 벌레들의 움직임이 걸려든다. 썩어가는 소나무 둥치에서 꼼지락꼼지락 수많은 생명들이 살아있다고 표현하는 거다. 앗, 저것들이 나의 눈부처다! 죽음에서 생명이 나고, 생명을 얻은 것들은 반드시 죽음을 약속받는다. 저 소나무의 겹허를 보라. 죽어서도 생명에게 보시를 한다. 아니, 소나무가 죽어서 벌레로 환생을 한다. 욕심 하나 죽어서 평강이 난다. 나무의 몸에서 버린 나뭇잎이 썩어 나무의 자양이 된다. 썩은 것을 먹으며 저 벌레들이 살 듯이 어머니의 애간장을 썩히며 내가 존재되었으니, 무엇이 내 애간장을 썩힌 들 무엇을 억울해하라. 이것이 모든 삶내림인 것을. 썩는 일도 괜찮은 일이다.

모악산의 등뼈를 밟으며 地氣자기를 얻고 무애한 하늘을 우러러 天氣천가를 마시니 천지 사이에 가로걸린 내 심신이 명쾌하고 자유하다.

산에 가야 산을 얻고 알고 가야 산을 배운다.

모악산에 그렇게 안기러 간다. **수필시대**

한여름 밤의 반딧불

김의제



어린 시절 농촌에서 성장했다는 것은 나에게 큰 행운이다. 전원은 우리에게 기쁨을 가져다주는 고향이다. 산이 있어 우거진 숲, 꽃 피고 새 우는 뒷개, 물이 흐르고 보리가 자라고, 가을이면 물결치는 황금의 들판, 알알이 익어가는 곡식들이 수렁수렁 소리가 들리는 오솔길…… 실로 전원은 우리들에게 꿈을 주고 노래를 배워줬다.

저녁녘 별들이 쏟아져 내리면, 앞마당에 쭈대향이 피어오르는 모깃불을 피워놓고 가족들이 모여 앉아 오순도순 이야기 마당을 펼친다. 캄캄한 밤하늘에 반딧불이 초롱을 달고 날아다닌다. 이맘 때면 우리 할머니의 ‘반딧불’ 이야기 보따리가 열린다.

반딧불이 캄캄한 밤에 풀잎 꼭대기에 올라가 등땃불을 밝히며 길을 잃은 풀벌레들에게 갈 길을 밝혀주는 이야기부터 나온다. 우리는 할머니 곁에 가까이 다가앉아 또 다른 이야기를 해 달라고 졸라댄다.

할머니의 반딧불 이야기는 끝이 없다. 반딧불 선녀가 착한 어린이를 찾아 하늘나라 왕궁으로 데려가는 이야기, 느티나무 있는 잔디밭에서는 공주님 반딧불이 환한 등불을 받쳐들고 귀여운 들리리들을 거느리고는 꽃가마 타고 하

한국기술교육대학교 교수

하버드대 밴더빌트대(미), 키일대(독) 유학(ph. D), 행정고시 합격(15회)

수필 : 「다듬이 소리」외 다수

늘로 올라가면 하늘 한가운데서 기다리고 있던 별똥별 왕자님이 날개옷을 길게 펼치며 반딧불 공주님을 은하수 한가운데서 만나 수 많은 별들의 축복을 받으며 결혼하는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서쪽 하늘 저 쪽에서 별똥별이 커다랗게 선을 그으며 호수 가에 떨어진다. 숲 속에서 울타리 밑에서 풀벌레들의 울음소리가 들려온다. 텃밭에선 우럭우럭 옥수수가 익어 가는 소리가 들린다. 山寺산사에서 똥똥 똥똥 法鼓법고를 울리는 소리가 들려온다. 전원은 더욱 어둠에 잠겨간다.

이런 어린 시절의 꿈과 낭만이 없이 자란 도회지의 어린이들은 외로울 수밖에 없다.

우리가 자란 어린 시절만 해도 반딧불은 이처럼 어린이들에게 꿈의 세계를 키워주고 상상의 날개를 펼쳐주는 아름다운 여름밤의 요정이었고, 어른들에게는 어린이들과 한자리에 앉아서 반딧불의 이야기를 들려주며 다시 동심의 나라로 돌아가게 하는 요술쟁이였다.

소설가 부라운(F. Browne)은 〈오! 즐거운 옛시절이여〉란 작품에서, 어른들에게서 옛이야기를 듣던 시절의 추억을 이렇게 말하고 있다. “오! 저 위풍당당하고 기사도를 가졌던 옛시대여, 나는 통감한 이야기로 가득 찬 그들의 연대기를 읽기를 좋아하며, 또 그들의 시를 노래하고, 그들의 전설을 듣기를 즐긴다.”

나는 젊은 시절 다른 나라에 가서도 공부하고, 살기도 했다. 때로는 어려운 때도 있었고, 고독한 때도 있었다. 그럴 때마다 동화에서 나오는 왕자님처럼 용기를 내어 당당하게 싸워 이겨나갔다. 이러한 의지나 용기도 어린 시절 전원에서 배우고 들은 체험에서 얻어진 슬기가 아니라!

어느 교육자의 말이다. 어린 시절 자연에서 느끼고 들으며 배우는 것이야말로 일생을 지배하는 가장 소중한 배움이라고 하였다. 자연 속에서 자란 어린이는 마음이 더 너그럽고 감성도 더 풍부하여진다고 했다. 자연은 실로 우리의 위대한 교과서다.

한여름 밤을 밝히는 반딧불에게서도 등대지기의 마음을 배우게 된다. 반딧불은 대개 풀 속에서 등불을 밝히지 않고 잎의 끝자락이나 하늘을 날며 세상

을 밝힌다. “등불을 켜서 발 아래 두지 않고 등경 위에 두어 세상을 밝힌다.”
는 성경구절이 있다. 세상의 어둠을 몰아내고 길을 안내하려면 다른 이가 볼
수 있는 곳에 불을 켜야할 것이다. 반딧불도 이처럼 가장 높은 잎새 끝이나 하
늘에서 불을 밝혀 길 잃은 이의 등대노릇을 한다. 이러한 반딧불이 농촌에서
도 사라져간다. 슬픈 일이다.

자연의 둥근 모습에서 또 우리는 많은 것을 배운다. 하늘은 드넓고 둥근 마
음으로 태양도 달도 별도 그리고 구름도 품는다. 태양도 둥근 모습으로 지상
의 살아있는 이들을 살찌워 주며, 산도 그 둥글고 후덕한 가슴으로 온갖 짐승
과 새들과 나무와 풀을 품어 기른다. 바다와 들도 옛길도 옛집도 또한 마찬가지로
둥글다. 한편 불꽃도 둥그런 모습으로 타고르며 백자도 청자도 구워낸다.
아마 바람도 태양과 함께 세상만물을 키워가니 틀림없이 둥그런 모습이 아니
라! 어두운 밤하늘을 밝히는 반딧불의 등불도 둥글다. 이처럼 자연은 둥근 마
음과 가슴으로 세상만물을 품고 기르며 인도한다.

둥근 모습을 한 것들은 인간과 못 생명체에게 삶을 이어가게 하는 한없는
사랑을 베푼다. 그런데 이러한 둥근 모습이 점차 사라지고 있다. 도시에서는
산의 둥근 모습 대신에 뽀족하게 치솟은 빌딩이 하늘을 가리고 있고, 옛집의
둥그런 모습 대신에 모서리 진 서양식 집이 버티고 있다. 모두가 順天型순천형
이 아닌 逆天型역천형으로 바뀌어간다. 길도 직선으로 변하고 강과 냇물도 자연
의 모양을 잃어가고 있다. 이제 반딧불의 둥그란 등불마저도 사라지고 있으니
어린이들의 여름밤 마음의 양식을 어디에서 얻을까?

명석에 둘러앉아 도란도란 반딧불 이야기를 들으며 길고 무더운 여름밤을
보내던 기억은 아마도 나이 많은 어른들의 어릴 적 추억이리라. 이제 이러한
반딧불 이야기들이 옛이야기가 되었다. 오늘날 어린이들은 하늘의 미리내를
바라다 보며 반딧불과 별뿔별이 결혼하는 이야기 대신에 컴퓨터 속의 암흑 공
간에서 서로 싸우고 죽는 게임에만 정신이 팔려있는 것은 아닌지? 이제 시골
어딜 가도 반딧불은 찾아보기가 어렵게 되었다. 이제 머지 않아 반딧불이 박
제된 채 박물관에 화석처럼 전시되는 날이 오지 않을까 두렵기도 하다.

한여름에 반딧불의 추억을 어린이들에게 되돌려 줄 수는 없을까? 이제 뒤를

돌아보지도 않고 달리는 우리들의 삶을 되돌아보며 무엇을 얻고 무엇을 잃었
을 지를 곰곰이 살피는 지혜가 필요할 것 같다. 그리하여 반딧불이 한여름 밤
의 꿈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다.

우리 어른들이 허겁지겁 달려오는 동안 우리의 어린이들은 동심 속에 담아야 할 소중한 것들을 잃어가고만 있지는 않은가. 어린이들에게 반딧불을 벗삼아 한여름 밤의 꿈과 사랑을 배워 가질 수 있는 세상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 간절하다. **수필시대**

생명의 빛

류정숙 시집
문예운동 / 값6,000원

내 영혼의 첫 입술

박부경 시집
문예운동 / 값6,000원

숨겨논 이야기

장금자 시집
문예운동 / 값7,000원

내 안에 해를 안고 싶다

김 이 주 jungmiumma@hanmail.net



밤길을 달려 여수로 향하면서 내심으론 일출을 꼭 보려니 했다. 오랜만에 해를 내 마음 안에 품고 한 해를 맞고 싶은 욕심에서였다. 여수에 도착한 시간은 새벽 다섯 시 무렵이었다. 토속음식인 장어해장국으로 아침을 들고는 일출을 볼 수 있겠는가 식당아주머니께 물었다. 공교롭게도 그날따라 날씨가 흐려서 일출을 보기는 어렵겠거니 했다. 새벽길을 밟아왔건만 일출을 보지 못한다는 안타까움에 그만 낭패감이 일었다. 해맞이를 하러 가야할지 말지 잠시 망설여졌다. 하지만 어렵사리 찾아온 길 일단 하늘에 맡기기로 했다.

서둘러 식사를 마치고 오동도로 차를 몰았다. 먼동이 터오는 여수 오동도의 방파제. 평화로움과 고요함으로 잠들었던 항구마을의 윤곽이 드러나고 있었다. 아직 남아 있는 듯한 땅거미를 헤치고 흰하게 아침이 밝아오는 모습은 한량없는 기쁨과 상쾌한 호흡이 되어 찬바람에 실려서 가슴속에까지 밀려들고 있었다.

낮 시간에는 차량 통제로 진입할 수 없는 길이지만, 이른 시간이어선지 방파제 길을 따라 오동도 안까지 차를 타고 갈 수 있었다. 부지런하면 이런 행동도 덤으로 얻을 수 있다는 생각에 마치 커다란 횡재라도 한 듯싶었다.

〈수필과 비평〉 등단
현대수필창작아카데미, 제물포수필문학회, 굴포문학회 회원

느린 속도로 방과제를 반쯤이나 갔을 때였다. 한 쪽 하늘이 불그스름해지
는 가 싶더니 그 빛이 점점 진홍빛으로 물들기 시작하였다. 그 쪽이 동녘임을 한
눈에 알아 볼 수 있었다. 하늘은 더욱더 진하게 다홍색의 아우라를 이루기 시
작하였다. 이 정도면 분명 일출을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모두 환호하며 주변 경
관에 시선을 돌렸다.

그 때 “아! 드디어 해가 뜬다.”고 남편이 제일 먼저 흥분한 듯 말했다. 선홍
색의 작은 반점 하나가 몸을 드러내기 시작한 것이다. 이 세상 어떤 염료로도
표현할 수 없을 맑고 밝은 빼알간 색의 태양이 서서히 떠오르는가. 점 하나가
눈에 들어오다가 하였더니 어느덧 계란 노른자처럼 동그랗게 변하고, 이내 물
둥이만 하게 부풀어 오르기 시작했다. 불과 몇 초 사이 동그란 원형에서 이제
는 위 아래로 늘어진 타원형에 가까웠다. 색깔마저 더욱 붉게 변하여 마치 불
기둥처럼 솟아올랐다. 수평선 너머에서 누군가 애써 해를 붙잡고 있는가? 불
기둥은 잠시 수면 위를 떨치지 못하더니, 바야흐로 하늘로 등실 떠올랐다.

해가 뜨는 모습이야 어디서 보든 그것이 무슨 대수이랴. 그렇건만 사람들은
장소를 택하여 특별한 의미를 일출에 부여하려 한다. 나 또한 마찬가지인가.
동해안 여러 곳에서 만난 일출의 장관이 아직도 눈앞에 생생한데, 그날의 일
출은 전혀 다른 모습으로 내 앞에 다가오고 있었다.

크고 굵은 불기둥은 그 많은 바닷물로도 결코 끄지 못할 듯한 위엄이었다.
옛사람들이 신령스런 마음으로 태양신을 섬기던 것은 우주 자연의 법칙에 순
응하는 지극하고도 아름다운 심성을 지녔기 때문이었지 싶다. 원시적 토tem신
앙으로만 여길 것이 아니라, 오늘날 무한경쟁시대에 불변하는 자연의 신비를
재인식하여 반추해 볼 일이지 싶었다.

하늘로 솟아오르는 해를 보면서 나는 어느새 콧노래를 흥얼거리고 있었다.

“서러움도 없어라. 우리들에 눈빛엔 외로움도 없어라. 너와 나의 마음에...”

“마음 깊은 곳에서 우리 함께 나누자. 너와 나만의 꿈의 대화를...”

어느새 나는 꿈의 대화를 마음으로 나누며 행복의 나락으로 빠져들었다. 여
기에 서서 일출을 바라볼 수 있는 사실만으로도 나는 행복한 사람이었
다. 속담에 “말 타면 종 부리고 싶다.”는 이야기에 담긴 뜻을 내 일찌거니 알

고 있지 않았던가. 욕심에는 끝이 없음을 말해주기보다는 분수를 알고 지키라는 가르침으로 알아 내 생활의 지침으로 삼아 오지 않았는가 여겨졌다. 그러면서도 더 잘 되고 싶어서, 조금 더 잘 살고 싶어서 얼마나 골똘하게 살아 왔던가.

얼마 전에는 대학원에 원서를 냈다가 그만 낙방한 일이 있었다. 반드시 합격하리라 자신하고 있었는데 결과는 불합격이었다. 그 실망스러움이 내게 커다란 충격을 주기도 했다. 불혹을 넘어서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눈앞에 맞닥뜨린 현실을 온전하게 추스르기까지에는 적잖은 시간을 허비해야 했다. 내 탓으로 인정하기 보다는 주변적 환경을 탓해보기도 하면서 고뇌의 시간을 보내야 했다.

스스로 번뇌와 갈등의 늪지대를 만들어 행복한 현실에 이르지 못하는 어리석음은 없었던 것인지 다시금 되돌아본다. 허상에만 머물지 말고 사소함에도 감사함을 먼저 찾아야 할 일이겠다. 내가 있는 곳에서 작은 일부터 참되게 실천함이 성공에 이르는 가장 탄탄한 지름길이 아닐까 싶다. 그것이 또한 우주의 섭리 안에서 함께 호흡할 수 있는 길이지 싶다.

아침 해가 솟아오르듯, 태양의 뜨거운 열정을 늘 내 마음 안에 품고 살고 싶다. **수필시대**

서울 隨想수상

이석규 수필집
문예운동 / 값9,000원

핀란드의 별

김재훈 jhkim309@hanmail.net



북유럽의 여름은 어두운 밤이 없다. 이른바 백야현상 때문이다.

러시아의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 열차를 타고 헬싱키에 도착하여 숙소에 여장을 풀고 나니 꽤 늦은 시각이었다. 그랬는데도 마치 해가 금방 진 것처럼 창밖은 여전히 어슴푸레할 뿐이었다.

이대로 잠이 올 것 같지 않아 우리 일행 네 사람은 거리 구경을 나섰다. 항구가 있는 곳이라 바다 냄새가 물씬 났다. 이 시각 쯤이면 서울의 밤거리는 사람들로 북적댔 텐데, 여기저기를 돌아다녀 보았지만 거리가 너무 한적했다. 이곳저곳 거리 구경을 하다가 마침 길가에 분위기가 좋은 맥주집이 보여 안으로 들어갔다.

테이블마다 삼삼오오 사람들이 모여 즐거운 대화를 나누고 있는 실내가 활기에 차 있었다. 우리도 한 테이블에 자리를 정하고 맥주를 시켰다. 넷이서 지금까지 여행한 이야기를 하느라고 한참 시간이 흘렀을 때였다. 아까부터 옆 테이블에서 혼자 술을 마시는 한 젊은이가 자꾸만 우리 쪽을 쳐다보는 것이었다. 30대 후반쯤이나 되었을까? 우리가 외국인이니까 호기심이 일었겠지 싶어서 별다른 관심을 두지 않았다.

〈수필과 비평〉으로 등단

한국문인협회, 행촌수필문학회 회원, 연세대학교 법학과 및 경제대학원 졸업
한국네슬레 상무(전)

그런데 얼마 후 그 젊은이가 우리에게 무슨 말인가를 하는 것 같았다. 그래서 나도 그를 돌아보며 간단한 인사말을 건넸는데 그가 본격적으로 말을 걸어왔다. 이쯤 되니 아무래도 대화를 나눠야할 것 같아 그의 테이블로 다가갔다.

그는 내게 어디서 어떻게 왔는지, 헬싱키가 처음인지를 물었다. 그런데, 한국에서 왔다는 내 말에 그는 잠시 무엇을 생각하는 듯 하더니 대뜸 남북한은 같은 동포인데 왜 서로 미워하느냐, 잘 지낼 수는 없느냐고 했다. 우리나라를 제법 알고 있구나 싶어 내심 놀라웠다. 많지 않은 내 경험상 해외에서 외국인들이 한국에 대하여 자세히 아는 이가 별로 없었기 때문이다. 또, 사람들은 곧잘 서로 미워하고 심지어 전쟁까지도 서슴지 않는다면, 미국의 이라크 전쟁에 대해서도 크게 불만을 토로했다. 그러면서 자신은 오로지 평화만을 사랑한다고 했다. 내가 최근의 남북관계와 요즘 인적 왕래도 잦아지고 있다는 말을 하자 그가 반색을 하며 ‘평화’라는 말을 자꾸만 반복하더니 호주머니에서 사진 한 장을 꺼냈다. 그와 그의 아내가 어린 아들을 가운데 앉히고 찍은 사진이었다. 행복하고 평화로워 보이는 가족의 모습이였다. 자세히 들여다보는 내게 그는 자기 아들은 걸을 수 없는 장애인이며 그래서 자기가 평생 보살피지 않으면 안 된다며 울먹였다.

저런! 그랬구나. 고개를 들어 그의 얼굴을 바라보자 그의 눈썹에 이슬 하나가 불빛에 반사되어 별처럼 빛나고 있었다. 가슴이 찡했다. 비로소 그가 왜 그렇게 평화를 강조해 말하는 건지, 왜 그렇게 우울해 보였는지 알 것 같았다. 장애 자녀를 둔 아버지의 고뇌. 그의 가슴을 짓누르고 있을 부모라는 이름의 무게가 느껴져 나도 모르게 그의 손을 잡았다. 내 마음이 전해졌는지 그도 나를 덥석 껴안았다. 그렇게 우린 잠시 동안 아무 말이 없었다. 이역만리 타국에서 우연히 만난 낯선 사람끼리 뜨거운 가슴만으로 우린 그 순간 하나였다.

자기 심정을 이해해주는 동양인이 있다는 게 잠시 힘이 되어서였을까? 헤어질 때 그는 “우린 친구입니다.”라는 말을 여러 번 되풀이했다. 숙소로 돌아오면서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어둠이 오지 않은 하늘에는 별이 보이지 않았다. 하지만 내 가슴에서는 맑은 별 하나가 영롱하게 빛나고 있었다.

다음날 헬싱키 시내와 시벨리우스 공원, 세우라사리 야외민속촌 등을 관광

한 후, 스웨덴으로 가기 위하여 핀란드를 떠나는 유람선에 몸을 실었다. 배가 항구를 떠날 때 갑판 위에서 멀어져 가는 헬싱키를 오래도록 바라보았다. 그런데 자꾸만 저 멀리에 지난밤에 만난 그 젊은 친구가 손을 흔들며 서있는 것만 같았다. 친구여 안녕! 평화 속에 그와 장애아들의 행복을 빌었다.

지구라는 땅덩어리,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면 멀고 가까움 없이 모두가 한 식구다. 사람이 살아가는 모습은 조금씩의 차이는 있지만 매 한가지인 것 같다. 어디에나 가족을 아끼고 평화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사는 지구촌. 하지만 왜 지구촌 곳곳에서는 미움과 전쟁의 먹구름이 가시지 않는 것일까. 입으로는 평화를 이야기하면서도 상생의 관계로 엮어갈 줄 모르는, 소위 만물의 영장이라는 인간은 얼마나 우매한 존재인가.

아파 본 사람이 남의 아픔을 알고 서러움을 겪어본 자만이 남의 서러움을 안다. 핀란드는 주변 강대국에 의한 고난의 역사를 갖고 있는 것이 우리나라를 많이 닮았다. 그래서 그런지 그 나라 사람들도 평화를 사랑하는 우리민족의 순박한 정서를 많이 닮은 것 같다.

핀란드의 여름밤은 별이 없다. 그러나 별빛 같은 그 남자의 눈물이 내 가슴에 또렷이 남아있다. **수필시대**

찬란한 여명

이석규 수필집
문예운동 / 값7,000원

선생님, 우리 선생님



김희선 heesun0222@hanmail.net

아이들의 학창시절, 초·중·고. 합하면 12년이다. 우리 아이들이 셋이므로 곱하기 셋이면 36이다. 그러니까 내가 학부모가 되어 만나 보았던 우리 아이들의 담임만 해도 36명이 된다. 게다가 이웃들의 이야기까지, 더구나 어머니 회장까지 했다면, 200여명의 선생을 만난 셈이 된다.

어떤 얘기부터 해야 하나, 만감이 교차한다. 남의 잘못 까발려 보면 무슨 이득이 올 것이며, 칭찬하기도 바쁜 세상에 남의 잘못이나 들추는, 할 일 없는 한심한 사람 같아 참으로 내키지 않는 일이지만, 지금도 어디선가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 글을 써야겠다.

중학생 까까머리의 동글동글한 머리가 귀여운 교실이다. 입학하여 커다란 교복 새로 입었으며 과목마다 다른 선생이 들어오신다. 기대와 희망찬 눈망울로 선생님을 맞이했다. “차렷, 경례!” 조용한 가운데, 그 순간 누군가가 재채기를 했다. “누구야, 재채기한 놈 나와” 남자 선생님의 얼굴이 무서웠다. 아이의 따귀를 다섯 대씩 찰짝 찰짝 찰짝…. 그래서 10대를 맞았다고 한다. 상황을 듣고 있는 나는 이럴 때 무슨 말을 해야 하나. 그래서 이렇게 말했다. “버릇없이 엇취~하면서 선생님 귀에 거슬리도록 크게 했겠지?” 아이는 아니라고

한국문협, 국제펜클럽 회원
시문회 회장 역임, 문학의 향기 회장
수필집 : 모음이 피는 웃음꽃

그냥 보통으로 하는 그런 소리로 평범하게 들렸다고 한다. 공부시간 내내 그 아이의 양 볼이 벌겍게 부었고 집에 갈 때까지도 부어있었다고 한다. 나는 내 아이에게 단단히 일렀다. “재채기가 나오면 손으로 콧 틀어막고 절대로 소리 나지 않게 해야 한다.”라고. 아이의 커다란 눈망울이 껌벽껌벽 겁을 잔뜩 먹고 있었다.

중학교 조회시간, 운동장에 전교생이 차렷 자세로 서 있는 귀한 시간이다. 한 남자 아이가 불려나갔다. 선생이 서 계신 교단 위로 올라간 순간. 남자 선생이 그 아이를 발로 뺨다 차버렸다. 가벼운 물체가 바람에 날리듯 공중으로 날아가 떨어졌다. 그 때 마침 그 학교 앞에 살고 있는 대학동창인 친구도 아파트 복도에서 그 모양을 보았다고 했다. 그 선생이 무섭다는 교훈은 받았을 테지만, 만인 앞에서 당한 공개적인 수모는 어떻게 덮어주어야 할까. 그 아이는 어떤 기억으로 남아 있을까. 혹시 불우한 가정이라서 상처가 더 컸다면, 너무나 측은하다. 유복한 가정이라 해도 그러면 안 되는데….

여중생이 담임한테 매를 맞았다고 한다. 나에게 와 보라고 해서 가보니 과연 여중생의 몸은 보랏빛으로 멍이 들어 멍뚱한 곳이 없었다. 때려도 어찌 그리 골고루 때릴 수 있을까. 긴 걸레대, 그것이 몽둥이가 되었다. 아이는 몽둥이로 맞다가 하나는 부러졌고, 다시 다른 몽둥이로 맞았다고 한다. 그것도 부족하여 교무실 시멘트 차가운 바닥에 무릎 꿇고 1시간 내내 앉아 있었다고 한다. 손가락이 튕그러져 병원까지 갔다 왔으며 치료를 받으면 나올 것이라고 했다. 여중생의 엄마가 겁이 나는지 함께 가자고 해서 학교로 갔다. 선생은 만삭의 몸으로 젊은 여선생이었다. 잘못 되었다는 기색 없이 당당한 얼굴이다. 태내 교육은 잔인한 방향으로 시키고 있는 것 같았다. 뱃속에 있는 자기 아이가 그렇게 맞았을 때도 당당한 얼굴을 하려는지. 미술 전공을 했다는 그 여선생에게 이런 말을 남기고 돌아섰다. ‘아이의 기억에 상처가 되지 않고 좋은 선생으로 남을 수 있도록 만날 때마다 따뜻하게 안아주시라고…’

눈이 오는 날. 밤새 내린 눈은 아침이 되어도 계속 내린다. 자동차도 다닐 수 없는 날이었다. 담임은 교무주임으로 중년의 남자다. 아이들은 여고 2학년, 숙녀가 되어가는 나이이다. 교실 뒷문이 열리기만을 기다리는 선생님이다. 뒷

문이 열리기만 하면 달려갔다. 주먹으로 여고생의 얼굴이며 가슴을 가리지 않고 마구 때렸다. 주저앉으면 발로 차기도 했다. 선생은 씩씩거리며 숨소리가 거칠었다고 한다. 그 날은 아이들 거의가 다 지각이었다. 26명이 선생에게 흠씬 맞았다. 수업을 하지 않는 날이었으며 천재지변도 통하지 않는 선생이었다. 선생의 기운이 무척 좋은 가 보다.

초등학교 1학년 어린 것이 2학년이 되었다. 새로운 학기가 시작되는 3월 중순이다. 학교에서 돌아오더니 조금 있다가는 “엄마, 아픈데”라고 하면서 엄마인 나한테 기댄다. “왜 어디가 아프니” 했더니 머리가 아프다고 한다. 그리고는 눕는다. 짧게 깎은 머리, 아프다고 하는 정수리 부분을 만져보았다. 거기 솜구멍이 있는 그 곳에 섬뜩하게 굵은 볼펜이 길게 누워있는 게 아닌가. 나는 그 당시 우아한 학부모가 아니다. 첫아이의 엄마로 경험도 없었다. 4개월된 막내를 처녀로 질끈 들쳐업고 학교로 갔다. 마침 청소가 거의 끝나고 서둘러 아이들을 보낸 뒤, 나와 선생만 남게 되었다. 어떤 것으로 맞았는가 알아보았다. 칠판을 가르키는 당구채 같이 생긴 길다란 막대. 공부시간이 아니라서 그랬을까. 종례시간인데 아이가 옆에 애랑 소근대고 있었다고 한다. 선생님이 쳐다본다는 것을 모르고 있으니 선생은 그 막대를 들고 때릴 것을 베풀며 맨 뒤에 까지 갔다. 맨 뒤에 앉은 우리 아이의 머리 정수리를 향해 힘껏 내리쳤다. 그런 뒤 옆에 있는 짝도 때렸다고 한다. 그 당시 남녀가 짝이었으나 둘은 키가 커서 남자끼리 짝이었고 함께 맞았다고 하면서, 그 애는 괜찮은데, 왜 엄마는 학교까지 왔느냐고 말한다. 아이까지 업고 달려간 나에게 부담을 주는 말을 하는 여자 선생님. 나는 할 말이 없었다. 어쩔 이렇게 굵은 것으로 머리를 때렸느냐고 눈물만 보이고 돌아서 가야 했다. 그 날 저녁 아이는 열이 오르면서 아프기 시작했다. 다리를 딛지 못해 흐느적거리며 주저앉는다. 다음날 학교에 가지 못했다. 아이는 식음을 전폐하고 그저 잠만 잔다. 그제서야 겁이 났는지 담임이 찾아왔다. 매일 공부가 시작되기 전 아이의 머리맡에 무릎 꿇고 앉았다 가곤했다. 그리고 어디에도 고발하지 말아달라고 한다. 앞으로는 아이들을 때리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아이는 그렇게 열흘쯤 앓다가 일어섰다. 다행이었다. 아이를 바라보는 나는 지금도 걱정이 된다. 아이가 잠이 많은 것도 후유증

이 아닐까? 아이는 그 때의 일을 잊었을까? 공연히 상처를 건드리게 될까봐 묻지도 못하고 나 혼자 지금도 가슴이 아프다. 그 뒤부터는 학년 초마다 아이의 가정통신문에 이렇게 썼다. “애는 2학년 초 선생님께 머리를 맞아 걸음도 걸지 못했습니다. 큰일 날 뻔 했던 아이입니다. 부탁이니 머리는 때리지 말아 주십시오.” 라고.

친척 되는 어른이 초등학교 선생이다. 학교도 들어가지 않은 자기 아들의 따귀를 때리자 코피가 터졌다. 자기는 아이들의 따귀를 때리면 고막이 터질 정도라고 한다. 아이들의 따귀를 때려 귀머거리가 된 아이가 몇 명이나 있다고 한다. 코피를 보고 놀리는 나를 보고 민망해서 하는 말이다. 위로인지, 당황하는 말인지, 무슨 뜻인지 몰랐다. 나는 한동안 헛갈리고 있었다.

막내가 초등학교 1학년이었다. “엄마, 선생님이 나를 이렇게 꼬집어, 너무 아파” 하면서 흉내를 낸다. 볼따귀의 근육을 잡아당겨 뒤튼다는 여자 선생님. 벌써 몇 번인가 매일 꼬집히고 있다. 어쩌나 하얀 봉투에 만원짜리 몇 장 넣어 가지고 단거리 선수가 되어야 한다. 강남구 대치동 더구나 막내둥이 아들이다. 아버지는 대기업 건설회사에 다닌다. 엄마 아빠 모두 대학 졸업. 이 정도의 가정에서 선생에게 문안 인사를 안 오다니 참 괘씸했을 것이다. 엄마가 단거리 선수가 된 그 다음날 아이는 한창 신이 나서 나에게 자랑이다. “엄마! 선생님이 오늘 나도 시켜주었다. 손들어도 한 번도 안 시켰는데 오늘은 시켜주었다. 그리고 오늘은 얼굴도 꼬집어 뜯지 않았다.” 나는 뉘우치고 있었다. ‘어휴 병신 진작 다녀올 것이지 발걸음 빠르게 움직였으면 맞지 않았을 것을...’ 그때도 3월 중순이었다. 많은 돈이 아니지만 돈의 위력이었다. 그것이 촌지인가, 앞가림인가, 품위유지비인가? ‘옛날 옛날 한 옛날에 계란 한 꾸러미 정성스레 담고 참기름 한 병 정성으로 짜고, 그리고 또 세월이 흘렀다. 화려한 케익이다, 꽃바구니다. 가져가 봐야 그건 바람 빠진 풍선이다. 웃음거리일 뿐이다.’ 현찰은 인간의 마음을 부드럽게 해주는 윤희유였다. 현찰의 위력, 지금도 변함없이 다방면에서 절실히 가까이 느끼고 있다.

끝으로 좋은 선생 이야기를 소개해야겠다. 중학생인데도 책을 읽으라고 시키니 아이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다. “재는 책 못 읽어요.” 정말 그대로 두고

넘어가나, 아니면 읽을 수 있게 고쳐주어야 하나, 그래서 아이들을 조용히 하라고 한 다음. 한 대목, 한 대목 큰 소리로 따라 읽도록 하다가 30분이 그냥 허비되었다고 한다. 그래도 다음 시간에 또 다시 그렇게 따라서 읽도록 했다. 몇 번 거듭하던 어느 날 혼자서 다음 대목까지 줄줄 읽고 있더라. 그 때에 같은 반 아이들 손뼉까지 치면서 저희들이 더 좋아서 기뻐하더라고. 그 날 그 까까머리 녀석들이 어찌나 귀엽던지 선생님의 사명감에 긍지를 느꼈다고 한다. 책을 못읽는 아이를 격려와 사랑으로 고쳐주신 선생님, 책을 읽게 된 기쁨을 함께 즐거워하는 아이들, 덕을 쌓는 선생과 함께 배려의 기쁨을 배웠을 그 아름다운 분위기가 눈앞에 그려지니 나까지 흐뭇하다. 악을 쌓는 것은 자기만을 위하여 혼자 즐기는 아집이다. 본인이 무시를 받는 것 같아서 악, 누군가를 제압하는 재미가 붙어서 악, 순간순간 참지 못하는 성격이라서 악, 가치관의 해결점을 폭력으로 해결하려는 악, 만인이 악을 두려워 한다는 악한 생각, 악의 모순 때문이다. 나도 후회되는 일이 왜 없을까. 거듭되는 반성과 시행착오를 견디며 60년이 넘게 살아왔다. 나이가 들어갈수록 아이들이 소중한 예쁘다.

나 자신도 때린다는 것이 훌륭하지 않다고 깊이 깨달은 사람이다.

수필시대

진정한 행복

손육래 수필집
문예운동 / 값10,000원

나이 들

노혜숙 jwnhs@hanmail.net



물끄러미 거울 속의 내 얼굴을 들여다본다. 한껏 모양을 내었건만 별로 달라진 것이 없다. 뽀얀 분칠도, 해당화 빛 루주도, 더 이상 중년의 나이를 감추진 못한다. 축 처진 눈꼬리에 생기 없는 얼굴이 싫어 활짝 웃어 본다. 눈가에 부챗살처럼 접히는 잔주름, 나도 모르게 외면을 한다. 마흔 여덟이라니, 언제 이렇게 나이를 먹었담. 남의 나이처럼 낫설다.

얼른 서른이라는 나이를 먹고 싶어 하던 때가 있었다. 그 나이쯤이면 성숙한 여성으로서의 멋과 품위를 지니고 존중 받을 수 있을 거란 막연한 기대를 가졌었나 보다. 그것이 세월 따라 저절로 얻어지는 게 아니란 걸 나이 들고서야 깨닫는다.

기다렸던 서른의 나이도 지나고, 마흔도 후반으로 접어든다. 그런데 품위와 멋은 고사하고 나이 값이나 제대로 하고 있는지 자꾸 주변을 살피게 된다. 건망증도 심해져 한 말을 되풀이하기 일쑤다. 아예 “지난번에 내가 이 말을 했던가?” 이렇게 확인해야 한다. 게다가 마음이 약해져 걸핏하면 눈물을 글썽인다. 참는 일은 또 왜 그렇게 어려운가. 이전엔 끈질 참았던 일도 와르르 감정을 쏟아내고 만다. 나이 먹은 사람의 덕은 너그러움이라는데, 좁아진 속이 마

『수필과비평』등단
재물포수필문화회
현대수필창작아카데미 회원

치 바늘구멍과 같다. 새삼 마흔 여덟이란 나이가 부담스럽다.

도시에 살다 시골로 내려온 지 얼마 안 되어서였다.

“연세가 어떻게 되세요?”

“59년생이에요.”

“어머, 그럼 저랑 동갑이시네요.”

“…….”

생머리에 이십대 아가씨의 옷차림을 한 그녀는 기껏해야 삼십 후반이나 되었을까 싶었다. 적어도 나와는 십 년이나 차이가 나 보였다. 그 날 저녁 생전 하지도 않던 마사지를 하면서 남편에게 애꿎은 푸념을 늘어놓았다. 그 이후 가끔 안 하던 짓을 한다.

“저 여자랑 나랑, 누가 더 나이 들어 보여?”

비슷한 연령대의 이쭈마를 가리키면서 물어보면 남편은 십중팔구 같은 대답이다.

“비슷해 보여.”

“정말? 다시 잘 봐요. 그리고 솔직하게 말해도 돼요…”

몇 번씩 확인을 받은 뒤에야,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비교하기를 멈춘다.

요즘 들어 부쩍 주름을 완화하는 화장품이라든가 피부 관리 정보에 솔깃해서, 귀를 기울인다. 흐르는 세월을 누가 막을 수 있으랴 싶으면서도 누가 필어찌어찌 해서 십년은 젊어졌다더라 이야길 들으면 다시 마음이 출렁인다. 넌 지시 의사를 떠보는 내 말에 남편은 호박에 줄긋는다고 수박 되냐고 한 마디로 통바리를 놓는다. 아직은 괜찮다, 괜찮다 하던 남편의 속내가 혹여 알긋은 돈 때문이었나 싶어 절로 눈이 흘겨진다.

텔레비전을 보면 화면 가득 예쁘고 생기발랄한 젊은이들로 넘쳐 난다. 못생긴 사람은 어찌다 양념으로나 나온다. 어찌 보면 중년여성들이나 노인들은 소외되어 있는 것처럼 보인다. 아니, 예뻐야만 사람대접도 받고 행복할 것 같은 생각마저 들게 한다. 할 수만 있다면, 너도나도 성형수술을 하고 싶어 한

다. 외모 지상 제일주의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솔직히 나도 젊어 보이고 아름답단 말을 들으면 기분이 좋아진다. 그런 말을 들을 기회가 그다지 없지만.

중년이 된 친구들은 이제 외모가 아니라 내면의 멋과 깊이로 승부해야 할 때라고 말한다. 그 말끝에 은근히 주눅이 든다. 우리나라 멋도 깊이도 없는 나의 얕음을 잘 아는 까닭이리라. 불혹의 얼굴에선 살아 온 길이 그대로 드러나 보인다. 화장으로도 옷으로도 감출 수 없는 그 사람의 깊이와 멋이 얼굴에 그림처럼 그려져 있다. 지우고 다시 그릴 수도 없는, 내면 깊숙한 곳에서 배어나오는 분위기다. 결국 아름다운 얼굴이란 아름다운 일상에서 나오는 것일 게다. 다시 내 살아 온 길을 되돌아본다.

깊어가는 주름살을 보며 나이에 치이지 않는 삶, 자기다운 삶은 과연 어떤 것인가 생각해본다. 산다는 것은 늙어간다는 것과 같은 것인지도 모른다. 그렇다면 나이에 걸맞는 걸음걸이로 자연스럽게 시간과 동행하면서 있는 그대로의 내 모습을 사랑하고 받아들여야 하지 않겠는가. 외글거리던 젊음의 욕망으로부터 자유로워져서 단지 여성으로서의 삶이 아닌 인간으로서의 자신의 삶에 보다 충실하게 되리란 기대를 가져본다.

이젠 눈 밑의 주름이 아니라 눈 안의 깊이에 초점을 맞추어야 할 때지 싶다. 비록 외모는 쇠락해가지만 나이 들고 마음이 비어 갈수록 주변의 사물과 사람이 있는 그대로 눈에 들어온다. 그래, 곱게 보고 너그럽게 끌어안을 수 있음은 나이 듦의 선물인 것을. **수필시대**

산으로 가는 봄

성기조 시집
문예운동 / 값5,000원

산 같은 사람이 되고 싶다

안재동



요즘 일요일이나 법정공휴일 등 쉬는 날은 주로 등산으로 시간을 보내는 편이다. 등산을 하다 보면 산이 그렇게 고마울 수가 없다. 등산을 하면 筋力(筋力)이 강화되고 심폐기능이 향상되어 혈액순환이 활발해질 뿐만 아니라 혈압도 떨어지는 효과가 있다고 한다. 게다가 혈액 내의 베타 엔돌핀(체내 모르핀과 같은 역할을 하는 호르몬)이란 것이 상승하여 만족감이나 자신감 등을 느껴 정신 건강에도 참 좋다고 한다.

불과 두서너 해 전까지도 등산을 즐기지 않았다. 사내 등산동호회나 부서 직원들이 등산을 가자고 할 때는 일부러 빠지고 의무적으로 참가해야 하는 회사의 공식 체육대회 때의 등산이나 겨우 따라다닐 정도였다. 등산보다는 다른 데 시간을 더 쓰고 싶었고 등산을 하지 않아도 내 건강은 비교적 양호했기 때문이다.

그런데 오랫동안 등산은 물론 다른 운동에도 신경을 안 쓰다 보니 체중도 많이 불어나고 일상적으로 피로감이 많이 느껴졌다. 사내 직원대상 정기 건강 검진 때는 지방간이 좀 있다는 진단이 나오기도 했다. 의사 소견은 운동부족이 주요 원인이라 했다. 신문의 건강 코너에서 당뇨병이 어떻고 혈압이 어떻

연세대학교 행정대학원 졸업(석사)

『시세계』, 『시인정신』 시 등단 『한맥문화』, 『스토리문화』 수필 등단

한국문인협회 회원, 한국현대시인협회 회원

시집 <별이 되고 싶다> 산문집 <당신은 나의 희망입니다>

고 하는 기사를 읽거나 주위에서 누가 그런 질환으로 죽었다는 얘길 듣기라도 하면 덜컥 겁이 나곤 했다. 그래서 이제 정말 운동을 좀 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 적절한 운동거리를 찾아보니 그래도 내겐 제일 만만한 게 등산이었던지, 결국 등산을 택하게 되었다.

아무튼 등산을 나름대로 게을리 하지 않은 결과 지금은 지방간이 거의 사라진 상황이다. 그렇듯 등산의 효과는 기본적으로 육체적인 면에도 효과가 있고 스트레스 해소 등 정신적인 면에도 적지 않은 도움이 된다고 하니, 그 어찌 좋은 일이 아니라 할 수 있겠는가.

직장인들은 대개 말단 신입사원으로 같은 선상에서 출발은 하겠지만 언젠가는 각자 목표로 하는 높은 지위에 오르는 꿈을 안고 살아갈 것이다. 처음에는 선배나 동료들이 별로 의식되지 않겠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 꿈을 이루기 위해 치열한 경쟁구도 속으로 파묻히게 된다. 그러다가 중견급 사원이 되면서부터는 승진에 대해 극도로 민감해지고 무난하게 목표한 지위까지 올라갔을 때 비로소 성취감과 보람을 만끽하게 될 것이다. 하지만 끝없이 노력했는데도 자신이 탈락되고 입사 동기나 후배들에게 추월당해 그들로부터 업무지시를 받는 입장이 되는 경우도 허다하다.

그럴 경우는 괜히 마음이 동요되고 초조해지기 마련이다. 요즘은 어느 직장에서건 그런 현상이 흔하다고는 해도 당사자 입장에서는 쉽게 수용할 정도로 마음의 제어가 잘 되지 않는다. 자신의 능력부족 탓에 끝나지 않고 세상을 원망하고 심하면 자괴감에 빠져들기도 한다. 더욱이 구조조정과 같은 큰바람이 불 때는 위기에 봉착되기도 한다. 끝내 회사에서 잘리거나 스스로 인생을 포기하는 경우도 더러 있다.

어쨌든 삶에 있어 누구든 슬럼프에 빠져들 수가 있고, 그 때마다 자신의 마음을 적절히 다스릴 줄 아는 슬기가 필요할 것이다. 마음이 갑갑하거나 스트레스가 쌓일 땐 어떤 식으로든 해결하는 방법을 찾게 되는데, 대체로 운동 쪽으로 스트레스 해결법을 많이 선택하는 것 같다. 골프, 요트, 조깅, 테니스, 탁구 등 여러 가지 운동 중 그리 과격하지도 않고 비용도 크게 들지도 않으며 차분히 움직이면서 시간도 적절히 보낼 수 있는 운동은 아무래도 등산이 아닐

까 한다.

등산할 때마다 반복적으로 느끼는 사항이 있다. 산은 한결같이 꼭대기가 있고 바닥이 있다는 점이 그것이다. 그래서 산을 올라갈 때는 내려오는 사람들을 만나게 되고, 내려갈 때는 올라가는 사람들을 만나게 된다. 등산은 확실히 땀을 많이 흘리게 하고 전신운동이 되게 한다. 그렇지만 너무 욕심을 내어 과격하게 산을 타면 다치거나 쓰러지기 쉽다. 그리고 일단 산 정상에 도달하면 더 이상 갈 곳이 없게 되고 잠시 머무르다 다시 바닥으로 내려와야 한다. ‘오르막이 있으면 내리막이 있다.’는 보편적 진리와 같은 셈이다.

어느 직장 어느 사회를 막론하고 구성원들이 일정 지위에 일단 도달하면 그 자리에 대한 수성은 시간적으로 얼마나 길고 짧게 유지되느냐의 차이일 뿐, 반드시 그 자리에서 물러나야 한다. 등산을 하다 보면, 그와 같이 한 주기의 인생살이를 돌아보는 듯한 현상을 느끼게 된다. 산은 마치 우리네 인생을 압축한 모습ियो 삶의 단면도처럼 보인다. 직장 일로 마음이 우울할 때 등산을 하면 바로 그런 점들 때문에 기분이 금세 풀어진다. 마음도 편안히 가라앉힐 수 있고 위로가 되어 좋다. 산은 그렇게 말없이 사람의 마음을 달래고 일깨워 준다.

산은 나무들을 발육시켜 숲을 만들고 그 숲 속에서 사람들을 쉴 수 있게 한다. 산의 구석구석에 저장해둔 물로 폭포를 만들어 사람들로 하여금 시원함을 느끼게 하거나, 사람의 주검을 자기 몸속으로 말없이 받아들이기도 한다. 사람들이 실수로든 고의로든 불을 지르거나 이런 저런 공사로 몸통을 절단해도 불평 한 마디 없다.

산은 여러 가지로 사람들에게 고마운 존재이다. 사람들을 위해 묵묵히 좋은 모습만 보여줄 뿐 자신을 위해 뭘 달라고 하지도 않는다. 산은 그런 점이 참 좋다. 그래서 때론 산 같은 사람이 되고 싶다는 생각을 자주 가져보기도 한다.

나는 등산할 때 이 산 저 산 번갈아 오르지만 집에서 크게 멀리 떨어지지 않은 곳인 강화도 마니산에 자주 간다. 마니산 중턱에서 주변을 자세히 살펴보면 몇 그루의 단풍나무와 물푸레나무가 서로 껴안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다. 마치 부부처럼 다정하게 지내는 모양새다. 산과 나무, 사람, 인생……. 무

엇 하나 별개로 떼 놓고 생각할 일은 없는 것 같다.

“산에 남길 것은 발자국이고 가져 갈 것은 추억뿐”이란 말이 있다. 사람들이 산에서 가져가는 것은 충분한 휴식, 스트레스 해소, 주위가 확 트인 경관을 보는 즐거움, 삶과 인생에 대한 깨달음 등 좋은 것이 너무 많다. 그런데 남기고 가는 것은 쓰레기나 자연훼손 등과 같이 해로운 것들밖에 없는 것 같아 안타깝다.

이제 내 나이도 벌써 사십대 중반으로 성큼 접어들었다. 나는 직장인이고 내가 다니는 회사에서 정년을 마칠 때까지 근무할 수 있을지 명예퇴직이나 구조조정 등으로 중도 하차하게 될지 모를 일이며, 사실 걱정이 앞선다. 어떤 형태로든 직장을 잃게 된 사람들의 가장 다정한 친구는 바로 산이라고 생각한다. 산은 말이 없지만 사람에게 많은 것을 느끼게 해 주고 때론 사람을 위로해 준다. 나 같은 경우는 산 없이는 세상이 너무 삭막할 것 같고 무료함을 견딜 수 없을 것 같으니 산은 우리에게 가족이나 마찬가지로 생각도 든다. 죽어서도 우리 몸을 포근하게 받아줄 어머니 같은 존재이기도 할 것이다. 가도 가도 끝없는 사막이나 허허벌판뿐인 나라에 태어나지 않은 것만 해도 얼마나 행복한지 모르겠다. **수필시대**

바람이 남긴 것

김령 수필집
문예운동 / 값12,000원

못 말리는 심술보

이복수 sangrape@hanmail.net



지난 여름, 친정어머니 생신 때의 일이다. 큰아이는 친구들과의 약속이 있고 남편도 다른 일이 있어서 갈 수 없게 되었다. 그렇다고 아직 운전이 미숙한 내가 차를 몰고 경상도까지 갈 수는 없었다. 할 수 없이 작은아이를 데리고 기차를 타고 가기로 했다. 미리 예매를 못해 평택에서 동대구까지 세 시간이 걸리는 거리를 서서 가게 되었다. 그러나 기차 여행이 하고 싶었던 아이는 기차 안의 풍경에 대한 기대로 마냥 즐거워했다.

그런데 기차 안의 핸드폰 공해가 그렇게 심할 줄이야. 나지막이 간단하게 통화를 하는 사람도 있었지만 그렇지 않는 사람이 더 많았다.

더욱이 내가 서 있는 바로 앞의 좌석에 앉은 아가씨는 천안에서 시작한 통화를 조치원이 지나가도 계속하고 있었다. 듣자 하니 애인과 다투는 중인가 본데, 예쁜 입에서 저렇게 불건전한 말이 어떻게 쏟아져 나올 수 있는지 믿기 어려울 정도였다. 열일곱 고운 나이의 딸과 같이 듣고 있자니 민망하기 짝이 없었다. 듣고 싶지 않아도 고스란히 들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여간 괴로운 것이 아니었다. 즐거운 기차 여행을 기대했던 딸의 얼굴에는 실망의 빛이 역력했고 주위 승객들도 짜증스런 표정이었다.

농어촌여성문학 회원
청하문학회 회원
<문예운동> 등단

내가 저 나이 때는 자전거를 타고 면소재지에 있는 우체국에나 가야 전화를 걸 수 있었다. 절차도 복잡하였다. 먼저 우체국 직원에게 수신번호를 알려주고 딱딱한 나무의자에 앉아 느긋하게 기다려야했다. 그 때 나는 서울에 있는 작은오빠와 가끔 전화를 했는데 삼사십 분쯤 기다려야 전화가 연결되었다. 그러나 바로 곁에서 통화내용을 듣고 있는 타인이 신경 쓰여 통화는 간단히 하게 된다. 그러다 보면 정작 하려고 했던 말을 빠트릴 때도 있다. 그러나 다시 시간과 돈을 들여서 통화를 할 수도 없는 노릇이다. 결국 전화로 다 못한 말은 밤이 늦도록 쓰는 긴 편지에 담아서 이튿날 다시 우체국에 가서 부치곤 했다. 한 통화의 전화를 하기 위해 많은 준비를 하던 그 시절을 생각하며 격세지감을 절실히 느꼈다. 아무리 시대가 변하고 살기가 좋아졌다지만, 바르게 쓰지 못하는 문명의 남용이 몹시 언짢았다. 더구나 사람이 많은 기차 안에서 전화로 싸움까지 하는 것을 보니 부아가 슬슬 치밀어 올랐다.

장시간을 서서 온 탓인지 이 때쯤 발목에 통증이 오기 시작했다. 배낭을 뒤져 쿠션 있는 슬리퍼를 꺼내 신었다. 그러나 한번 뺀 적이 있는 발목은 체중을 감당하기 힘 드는지 점점 더 아파 왔다. 사십 대 아줌마의 배짱이 아픈 발을 계속 고생시킬 리가 만무하다. 예의고 염치고 다 벗어 던지고 전화에 열중인 아가씨의 팔 받침대에 실례를 무릅쓰고 조금 걸터앉았다. 잠시 후부터 객실 안이 조용해졌다. 아가씨의 통화가 끝났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제부터는 자기 팔 받침대를 침범 당한 것이 불만인지 몸을 이리저리 비트는가 하면 땅이 꺼지도록 한숨을 쉬는 걸로 불편을 호소했다. 그러나 나는 아가씨가 온몸으로 표현하는 언어를 못 알아들은 척하고 그대로 꺾 눌러 앉아서 갔다. 나보고 사람 좋다고 말하는 사람이 더러 있는데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 아직 나를 조금밖에 모르는 사람이다. 좋기는커녕 뻔뻔한 데다가 심술 꾀까지 하다. 아가씨는 자기 머리를 의자에 탁탁 치고 바닥에 발을 굴렀다. 그 모습을 보자 그만 나의 심술보가 기량을 발휘하고야 만다. 아가씨 쪽으로 엉덩이를 썩 밀어 놓고는 시치미를 뚝 떴었다.

화가 난 아가씨가 급기야는 “아줌마, 불편하잖아예. 좀 일어나이소.” 하며 짜증을 낸다. 그 말을 받은 내가 “아가씨, 좀 봐 줘요. 아까 전화 엄청 오래

하던데 나도 봐줬으니 폼앗이한다고 생각합시다.” 하는 대답을 하고는 꿈쩍 않고 앉아 있었다. 주위에서 킁킁 웃는 소리가 들렸다. 그러자 아가씨는 발짝 일어나 밖으로 나가더니 다시 돌아오지 않았다. 나는 아가씨가 떠난 자리에 앉아서 동대구역까지 갔다.

통증에 시달리던 발목이 편안해졌는데도 마음은 영 가시방석이었다. 과정 이야 어찌 되었던 결국은 내 심술이 아가씨를 객실 밖으로 나가도록 해 버렸지 않은가. 나의 이런 모습도 그 아가씨 못지않게 남을 배려하는 마음이 없는 것은 아닐까. 남을 배려하지 않는 어른들의 삶을 보고 젊은이들이 배우고, 그 젊은이들 속에는 내 아이도 있는 것을……. **수필시대**

현대시의 초대

전종진 평론집
문예운동 / 값10,000원

고향의 오월

오덕렬 수필집
문예운동 / 값8,000원

피지의 낭만

이 순 tieus1@hanmail.net



겨울 맛이 채 가지지도 않은 87년 초봄, 밤 2시에 피지에 내렸다. 열대 새벽의 훈훈한 바람을 낮설게 맞으며 입국 수속을 마치고 나오는데, 환영객들 중, 저 앞에서 키가 큰 한 남자가 다가오더니 넙죽 땅바닥에 엎드려 절을 하고 있었다. 배를 땅에 붙이고, 그 긴 다리를 쭉 뻗고, 하도 생소한 광경에 의아하여 옆을 돌아보니 평범한 차림에 여러 남자가 같이 서있었다. 우리 가족은 인파에 밀려나오고 말았으나, 무슨 인사법인지 오래도록 궁금하였다.

우리는 예약된 호텔로 가면서 택시 기사가 좋은 관광지를 추천해주었다. 섬나라 피지 주위에 작은 섬들이 삼백여 개나 있는데, 차로 한 시간 정도 가면 조용하고 아름다운 시가 토카(Sigatoka)란 섬이 있다고 알려주었다. 바다를 매립하여 만들어진 길로, 차가 계속 갈 수 있다고 했다. 우리는 먼저 셰라톤(Sheraton) 호텔에 가서 예약을 취소하고 시가 토카로 향해 달렸다. 때는 새벽 4시를 좀 지났다. 창 틈으로 새어드는 薰風훈풍. 으스스한 새벽. 열대의 광활한 들판에, 들풀 날리는 파란 미풍소리. 썩씩각각 사탕수수의 밀어가 감미롭고 향기로운 땅. 모든 것이 새롭고 흥미로워 마음은 동실 뜯구름을 타고 계속 가고 있었다.

중로문화 이사
늘빛문화회 회장
서울시단 회원, 시문회 회원

저 멀리 먼동이 트는 하늘가, 은은히 새어나는 햇무리, 신비스럽게 퍼지는 황홀한 광채, 그 神力^{신력}이 감탄 스러웠다. 사방의 모든 물체가 분명치 않은 상태에서 이색적인 묘한 감정을 억제 할 수 없었다. 그 진풍경은 너무도 신비로우며 황홀지경이었다. 대 자연의 奧妙^{오묘}묘한 攝理^{섭리}를 무어라 다 표현 할 수 없었다. 무슨 말이 없을까? 말이 아닌 다른 말!!

여러 식물들이 고요한 밤 공기를 가르며 한들한들 속삭임을 뒤로 남긴 채 한참을 갔더니 해변을 만났다. 비리 한 바다 내음의 해변 길을 따라 계속 가면 서 원주민 기사는 우리에게 많은 것을 들려주었다. 우리가 가는 뚝 길 물 옆에는 甁양^{병양}게 퍼지는 물보라뿐 아무것도 보이는 것이 없고 너무 고요하여 적막하였다. 저 만치 바위 등에 부딪 치는 파도는 우리를 반겨 주는데, 부서진 은빛 날개는 광채를 발하며 허공을 친다.

얼마를 더 가니 반가운 인가를 만났고, 높고 낮은 건물이 제자리에 평화롭게 앉아 있는데 나지막한 뒷동산이 가슴을 활짝 열어 동네를 품어 안았다. 그 아담한 동산 끝자락에 자리한 시가도카 호텔에 가 우리는 내렸다. 이게 웬 일인가? 나지막한 야자나무에 중박만한 야자열매가 탐스럽게 주렁주렁 달려있지 않은가? 혹사나 하고 얼른 가 만져보니 틀림없는 야자수에 진짜 열매였다. 나는 지금까지 보아온 야자수는 하늘을 찌를 듯 무척 크고 그 높은 꼭대기에 달려있는 코코넛(Coconut)을 보느라 목이 아프도록 쳐다본 기억뿐이다.

아주 작은 야자나무는 아담한 수영장 옆에 서 있었고 우리 방은 그 야자수 옆에 있었다. 그곳의 방벽은 옆방과 붙은 쪽만 간단히 막혀있고 앞 뒤 벽은 나무 조각으로 된 커튼과 같아서 옆으로 열렸다 닫아 지는 스타일이었다. 방에 들어가니 이미 날이 다 밝은 이른 아침이라 대충 짐을 챙겨 놓고 정신 없이 한잠 늘어지게 자고 나니 만나절이 다 지나갔다.

호텔 사무실에 가서 일주 간의 관광 스케줄을 예약해 놓고, 우리 세 사람은 (남편과 딸) 주위를 좀 돌아보려고 나갔다. 집집마다 기이하게 생긴 열대 식물들, 온통 낮선 것뿐이었고, 원주민의 외모는 이스트 인디언과 비슷한데 머리는 완전 곱슬이고, 인도인은 곧은 생머리였다. 피지인은 순박하고 착하며 친절하여 인간미가 넘쳐흐르고 그곳 총 인구의 반은 인도인이고 반은 원주민과

이민 온 사람이라 했다. 그때까지도 TV가 없었고, 여성이 급게 성장하고 외출할 때 핸드백까지도 어깨에 근사하게 메고는 맨발로 그냥 외출을 하는데, 그들의 발은 어찌나 크고 억센지 보기가 좀 민망했다.

택시 정류장에는 손님을 기다리는 빈 차가 장사진을 치고 있었다. 서울과는 전연 반대 현상이었지만 정말 그 곳이야 말로 손님은 왕이다. 원주민들은 하도 친절하여 만나는 사람마다 함박 웃음을 보내고, 좀 먼 곳이면 손을 들어 인사를 했다. 도로변을 걸었을 때는 어떻게 뜨거운지 구두 속에 발바닥이 뜨거워 움을 느낄 정도였다. 여러 곳을 둘러보고는 호텔에 돌아와 수영복 차림으로 또 해변엘 나갔다.

물에 사람이라고는 별거숭이 세 아이와 우리 가족이 전부였다. 그 아름다운 해변이 너무나 조용하여, 고독한 해수욕장 바로 그것이었다. 모래도 새하얗게 깨끗하고 물도 맑고 얕아서 수영하고 놀기엔 아주 좋은 조건이었다. 그 해변으로부터 계속 더 좋은 해수욕장이 수없이 많으나 역시 사람은 별로 없고 수많은 야자수만 설렁대며 그 넓은 해변을 지킨다.

나는 문득 재미난 생각이 떠올랐다. 이 넓고 아름다운 해변을 딱 떠다가 내 조국 서울에 갖다 놓을 수는 없을까? 우리만 보고 즐기기에선 참으로 아까운 생각이 들었다. 처음 보는 주위 환경이며, 그 고온에도 바닷바람으로 선선함을 느낄 수 있는 날씨, 고고히 큰 키를 자랑하듯 하늘 높이 치솟아있는 야자수는 해변을 따라 끝도 없이 서 있고, 저 높은 꼭대기에 잘 익은 열매가 대롱대롱 달려 이 해변의 주인인 양 으스스대며 흔들거린다. 그 미묘한 풍경이 무척이나 마음에 들었다.

우리는 오후 늦게 숙소로 돌아와 만족한 여행지에 즐거운 환담을 나누고 있었다. 그때 마침 호텔 직원이 코코넛과 도끼를 들고 와서 그 단단한 껍질을 깨고 먹도록 해 주었다. 값을 치르겠다 했더니 하나에 십 센트라 하면서 호텔 손님한테는 그냥 서비스한다기에 톱으로 대신했다. 우리는 산뜻하게 차리고는 근사한 저녁을 하려고 식당을 찾아 나섰다. 호텔 직원이 태워다준 식당엘 들어가 보니 과연 열대지방의 식당다웠다. 사방 벽이 다 열린 채, 벽에서부터 천장까지 온통 넝쿨나무로 휘감겨 있었고 식당 안 곳곳에 이름 모를 열대 식물

로 장식해서 흡사 잘 가꾸어진 정원에서 식사를 즐기는 기분이었다. 여러 가지 그곳 음식을 먹어보고, 칵테일도 한잔 하면서 오순도순 즐겁게 얘기꽃을 피웠다. 피지는 난생 처음 접한 곳이라 더욱더 새롭고 흥미로웠다. 후일 또다시 방문하고 싶은 곳이다.

풍성한 자연과 희귀한 열대식물, 이국적 정취에 도취하여 마냥 행복감도 느꼈다. 그리고 우리는 숙소에 돌아와 취침 준비를 했다. 이윽고 밤이 늦어 인기척도 끊어지고 대로에 소음마저 멎은 적막한 밤에 철썩철썩 귀에 익은 파도소리만 자장가인 양 귓전을 울리며 방 하나 가득 차는데, 옆에서는 조용히 잠든 숨소리 분명 꿈길을 헤매건만 나는 이런 저런 생각이 꼬리를 물고 늘어진다. 집을 떠난 지 한 달, 여러 나라를 관광하면서 별 일 없이 우리 모두 건강하여 천주님께 감사하는 마음이다. 우리 숙소인 호텔 방은 나지막한 정겨운 동산 끝자락이라 방안 침대에 누워서도 밖의 경치가 다 보인다. 산기슭에 크고 작은 나무들이 연두빛 공간을 장식하고 한참 밑에 차들의 행렬이 분주하며, 그 건너 해변에 파도치는 은빛 물결, 야자 숲을 한눈에 볼 수 있었다. 어스름한 달밤이라 선명하진 않아도 멧쩍게 흔들거리는 야자수는 생동감을 주는데, 나는 또 다른 섬으로 갈 즐거운 내일을 생각하며 잠을 청했다. **수필시대**

그리움은 끝없이

양금현 시집
문예운동 / 값5,000원

여교사 전성시대

이윤상



“야! 오랜만이다. 너 요즘 어디서 무슨 일 하고 지내니?”

“나 회사 다니고 있어.”

이렇게 응답한 사람은 어느 학교 신입 여교사였다고 한다. 나는 이런 이야기를 듣고 우리나라 교육계의 큰 스승이요, 교육철학의 泰斗대두이며, 한때 교육부장관도 지낸 오천석 박사의 慨歎개탄하는 글을 읽었던 기억이 문득 떠올랐다.

“교직이 일개 회사원만도 못한 직업이란 말인가? 떳떳이 ‘나는 교사야!’ 라고 誇示誇示할 가치가 없는 직업이란 말인가? 불명예스러워서 남에게 숨겨야 할 만한 일자리란 말인가?”

이 이야기는 1972년에 발간된 ‘스승’ 이라는 오 박사의 저서 머리말에서 읽은 내용이다. 아닌게 아니라 그 당시 교사라는 직업은 자랑스럽게 말할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가 아니었다. 농경사회에서 산업사회로 발전하는 과정에서 직업의 가치나 선호기준은 소득의 높고 낮음이 좌우하던 시대였다. 그때에는 내가 교직에 10년 근무했어도, 대기업이나 은행원 보수의 39% 수준이었다. 저소득의 대표 직종이 교직이었으니, 여교사라는 신분을 친구에게 밝히는 것

〈문예운동〉 등단
청하문학회 회원
행촌문학회 회원

이 창피했을 것이라는 점은 그 시대 교사를 해본 사람은 이해하리라.

또 내가 초년 교사시절에 감명 깊게 읽었던 ‘교사수기’에 나오는 이야기가 떠오른다. 두 친구 중 한 사람은 서울대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專門醫 전문의 자격까지 딴 후 대도시에서 개인병원을 개업하여 잘 나가는 여의사였다. 한 사람은 사범대학을 졸업하고 학교에 근무하면서 전국 ‘교육수기 공모’에서 당선된 교사였다. 60년대 초반 그 교사수기는 베스트셀러로 수백만 부가 팔려 인기를 끌었다.

“애! 너는 참 행복하겠다. 날마다 맑고 밝고 싱싱한 아동들과 생활하니 얼마나 즐겁겠니? 나는 날마다 찌푸리고 울상을 지으며 아픔을 호소하는 사람들과만 상대하니, 나도 아플 것만 같고, 짜증스런 날이 많단다. 네가 부럽다.”

그 여의사가 여교사 친구를 부러워하는 마음은 진심이요, 행복이 무엇인가를 일깨워 주는 이야기다. 읽은 지 40여 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내 뇌리에 남아 있다. 어쩌면 내가 교직에서 轉職 전직을 하지 않고, 평생을 몸담고 살아온 데에는 그 책 속의 여의사가 나를 교직에 붙잡아놓았는지도 모른다. 그 수기를 쓴 여교사는 한 달 내내 새벽밥을 먹고 만원머스에 흔들리며 통근해도, 한 달 봉급이 여의사의 하루 병원수입보다 적은 보수를 받던 시대였다. 그 여교사는 여의사 친구가 얼마나 부러웠겠는가. 더구나 60년대 초기는 국민소득이 백 불에 머무는 빈곤의 시대였으니…….

이제는 우리가 국민소득 만불 시대에 살고 있다. 지난해는 만 오천 불이요, 머지않아 이만 불 시대가 도래한다는 장밋빛 청사진을 늘어놓고 있으나 믿어지지 않는다. 나는 국민소득 100불 시대에 교직에 입문하여, 만불 시대에 퇴직했으니, 소득이 100배로 증가되는 만고풍상이 요동치는 激動期 격동기에 교직이라는 無風地帶 무풍지대에서 살아 온 수昔금석의 감회가 야릇하다.

“인간의 행복이란 무엇일까? 국민소득 만불시대가 되었으니, 우리 국민들은 행복을 느끼는가? 이 시대의 행복지수는 어떻게 변해가고 있는가?” 가끔 이런 懷疑 회의를 느끼는 것은 무엇 때문일까? 여가를 滿喫 만각하는 직종을 선호하는 사회풍조가 여교사 전성시대를 초래한 듯하다.

정년을 앞두고 겨울방학 중간쯤에 해외여행을 떠나려고 여행사에 전화를

했더니, 어림도 없는 소리 말라는 투였다. 이미 항공사마다 비행기표가 모두 매진이라고 했다. 교사들이 몇 달 전부터 신청해서, 이미 비행기표가 고갈되었다는 즐거운 비명이었다. 특히 겨울방학 두 달은 해외여행 교사들로 초만원 을 이룬다는 것이다. 아무리 고소득의 직업을 가졌다 해도 오늘날 교사들만큼 연중 4개월 가까운 휴가를 만끽할 수 있는 직종이 얼마나 있겠는가. 어찌 그것뿐인가? 초등학교에 입학한 손주 녀석이

“우리 담임(여자)선생님은 EQU스 승용차로 출퇴근을 해요.”라고 귀뜸해주었다. 어안이 병병해졌다. 10여 년 전에는 ‘그랜저’ 승용차를 타고 다니던 전주교육청 어떤 여 장학사가 과소비를 조장한다는 이유로 장학사직에서 일선 학교로 좌천당했던 사례는 이제 고구려 때 이야기처럼 들리는 시대가 되었다. 몇 해 전까지만 해도 부부의사나 고소득 기업체사장이나 타던 고급 승용차를 타고 다니며, 방학 때마다 해외로 골프여행을 즐기는 현대판 귀족층으로 여교사들의 신분이 급상승할 줄이야 과거에는 어찌 상상이나 할 수 있었던가. 참으로 격세지감을 느끼지 않을 수 없다.

계급의식이 없는 교직은 꿈의 동산이다. 행정직 공무원은 9급부터 1급까지 계급의식이 엄격하고 上命下服상명하복의 계선 조직으로 되어있다. 그러나 학교도 교장, 교감, 교사 3단계의 계층이 있다고는 하지만, 교사들 집단은 완전히 수평적 구조다. 30년 경력교사나 이제 갓 임용된 교사나 똑같은 선생님으로 대우받고, 학부모들로부터 예우를 받으며, 명령 계층 라인이 거의 없다. 가뜩이나 자유를 갈망하는 현대의 젊은 여성들에게 이보다 더 자유로운 직장이 어디 있겠는가. 갈수록 교직에 대한 선호도는 높아만 갈 것이다.

우리나라 교직의 여성화는 선진국보다 훨씬 앞서가고 있다. 해마다 방학 때, 나는 교육연수원 강의를 나갔다. 몇 해 전 겨울방학 때 초등 1급 정교사 자격연수를 하는데, 160명 초등교사 수강생 중에서 남자교사는 8명뿐이었다. 그런가 하면 학교 행정실장 임용후보자 연수반의 강의를 하면서 보니, 150명 중에서 15명이 남자이고 전부 여자였다. 교직만 여성이 포화 상태인 줄 알았는데, 일반 행정직도 여성이 90%를 차지하는 실정이니, 방학과 여가 많은 교직의 여성화 비율이 세계 1위가 되는 것은 당연하지 않겠는가.

며느리 감으로 가장 인기 있는 직종이 여교사다. 요즘같이 구조조정이나 명예퇴직이 빨라진 시대에 정년이 62세까지 보장되고, 높은 보수에다 한 학교에 5년까지 근속이 보장되니 이보다 더 안정된 직장이 어디 있겠는가. 다른 공무원은 오후 6시가 퇴근시간인데 교사는 4시 30분이면 자율퇴근이다. 개학할 무렵에 보면, 자모들이 며칠 전부터 학교에 나와 자기 자녀 교실이나 화장실 청소를 자원봉사로 해주면서, 담임선생님들을 떠받드는 모습을 보면 아주 상전 모시듯 한다. 학부모가 볼 때는 담임교사가 최고이지 교장이야 무슨 상관이 있겠는가. 학교에 있을 때 보면 교장은 보고 지나치면서 인사를 안 해도, 담임 교사에게는 허리 굽혀 극진히 인사하며, 상전 중의 최상급 상전으로 예우한다. 바야흐로 우리나라는 여교사의 천국시대가 도래한 듯해서 흐뭇한 마음이다. 그런데도 교원노동운동이 극성을 부린다니 안타까운 일이다. **수필시대**

꿈이 없는 세상에 산다면

최희준 시집
문예운동 / 값8,000원

목어를 찾아서

최선묘 시집
문예운동 / 값6,000원

아름다운 사람

임 금 홍 sunhong-0501@hanmail.net



우리 주변에는 꾸준히 무엇인가를 하기위해 매진하며 꿈을 펼쳐 나가는 희망적인 사람들이 있는가하면, 물결 흐르듯 그저 휩쓸려 하루하루 떠밀려 살아가는 사람들도 적지 않다. 나의 스승님같이 수필을 위하여 살고 수필을 위하여 태어났다고까지 단언할 정도로 삶의 목적이 뚜렷한 분도 계시다. 내 삶도 전자에 속하기에 고회가 가까운 이 나이에 만나 늦은 감도 있으나 늦었다고 생각 할 때가 가장 좋은 기회라는 말도 있듯이, 소중하신 스승님을 모시게 되어 복권에 당첨된 기분과도 같다

아름다운 꽃들이 싱그럽게 햇빛을 향하여 피어나듯이 나 스스로를 사랑하는 나로 거듭나야 할 일이 중요하다. “다 늙어 무엇을 배워, 어디에 써먹으려고.” 이렇게 생각하며 먹고 낮잠이나 자면서 소일하는 친구들을 볼 때 딱하기 그지없다.

또한 내게 자신감을 주는 햇살과 같은 사람을 만나 진정한 자신감을 찾는 일도 껍이나 중요하다. 사랑이 위대한 것은 사랑받는 사람이 자신을 사랑하게 되기 때문이라고 한다. 자기 자신에 대하여 품는 자기 이미지를 좋은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타인으로부터 사랑받고 인정받는 일만큼 강력한 작용을 미치는 것은 없지 않은가. 내면의 세계에 꽃을 피우기 위해서는 사랑받고 인정받

〈수필과 비평〉 등단
재물포수필문학회 회원

는 것이 중요하기에 먼저 남을 사랑하고 이해하는 일 또한 중요하리라.

요즘 학교 교육의 일환으로 봉사활동을 하고 있다. 봉사란 사랑을 주는 일 이기에 먼저 사랑하는 법을 배워야 사랑받는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다. 사랑을 받으면 내 안에 자신감과 사고가 빛이나 아름다운 영감으로 자신을 사랑하게 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세상이라는 울타리는 녹록하게 원리대로 짜여지는 것만은 아니다. 상처를 입혀 자신과 남을 함께 매장하는 일도 세상에 허다하다. 타인으로부터 무시당하고 통렬한 비방과 비평을 받을 때 얼마나 위축감과 좌절감으로 움츠러들게 되는가.

인간은 태어날 때 아주 깨끗한 마음, 때 묻지 않아 無무에 가까운 마음자리로 태어나지만, 살아가면서 혼탁한 삶의 공해 즉 공포, 분노, 억압, 슬픔, 초조, 모욕, 비방, 비평, 음모, 억울함, 업신여김, 짓밟힘 등 이루 나열하기 힘든 찌꺼기들에 휩싸여 내면의 마음자리에 순수성은 갈기갈기 찢겨지고, 피투성이가 되어 슬금슬금 타협하기 마련이다. 그러면 여지없이 일그러진 자아에서 밀려나간 어린아이와 같은 순결한 마음, 곱고 깨끗한 마음, 웃음, 사랑, 행복감이 점점 멀어져 떠나가게 된다. 자신의 삶은 자신이 사는 것이다. 통통하게 살 쥘 걱정 붓짐을 아낌없이 풀어내어 놓는 삶을 살도록 노력하련다. 부처님께서 이렇게 일그러진 自我자와 타협하지 않으시고 맹렬히 거짓 自我자와 싸우셔서 眞實 自我자를 찾는데 성공하셨으리라.

사랑해야 하고 사랑받아야 할 가장 가까운 사람들끼리의 지나친 비판은 서로를 죽이는 일이 된다. 사람마다 가지고 있는 단점보다는 장점을 찾아 그 사람의 기를 살려주는 일이 중요하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하찮은 비판이 지적당하는 사람에게 어떤 결과를 초래할지 헤아리지 못하는 경우가 더러 있다. “너는 왜 매일 밥을 흘리며 먹니?”, “이 게으름뱅이야.” 등 사소한 잘못에 대한 지적이 큰 사람으로 성장하는 것을 막는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여 사랑하는 사람들의 의욕을 잃게 하고 상실감을 주는 일이 아주 흔하기만 하다. 그러나 잘못을 지나치게 탓하며 자녀를 기르면 안 된다고 해서 남에게 폐를 끼치는 행동을 해도 기를 죽일 까봐 방치하는 것은,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는 처사가 아닐지 싶다.

언젠가 음식점에서 식구들과 모처럼 외식을 하는데 네다섯 살쯤 되는 아이들이 음식점을 이리 뛰고 저리 뛰어 다니며 소란을 떨고 다녔다. 그 부모로 보이는 젊은 여자들은 자기들 먹는 데만 급급하며 수다를 떠느라고 아이들을 전혀 돌보지 않았다. 보다 못해 한 노인이 아이들을 제지하자, 한 아이가 큰소리로 우는 것이 아닌가. 별꼴 다 보겠다는 듯이 “남의 아이는 왜 가지고 그래요.” 했다. 노인의 분노가 폭발하여 그 젊은 여자들은 호되게 망신을 당하고 갔지만, 이미 음식 맛은 간 데 없어 여간 기분이 꿀꿀하지 않았다.

어느 여론조사에서 일본인들은 남에게 폐를 끼치지 않고 사는 것을 1위로 올려놓은 것을 읽은 일이 있다. 아이들은 부모의 거울이다. 부모의 교육 여하에 따라 아이들이 어떻게 양육되어 가는가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될 때 부모 되기 전에 이 사회가 참다운 부모 교육 프로그램을 해야 할 필요성이 절실하다.

남에게 귀여움을 받는 자녀로 성장시키기 위해서는 무단히 남에게 폐를 끼치지 않는 자녀로 양육해야 할 것이다. 인간이 얼마나 타인으로부터 인정받기를 원하고 있는지. 그 소원이 얼마나 용솨음치고 있는지를 알게 된다면, 바른 인격 형성이 얼마나 귀중한가를 알게 될 것이다. 나 자신도 아이들을 길렀지만 얼마나 아이들에게 칭찬을 하며 기를 세워 주었는지 때론 뉘우치고 반성하게 된다. 칭찬보다는 책망을, 이해보다는 비판을, 잘 한 일은 당연하고 잘못된 점은 다른 아이와 비교를 하며 얼마나 기를 꺾어 놓았던가. 대화로 알아듣는 아이와 눈높이를 맞추어 이해와 설득으로 풀어야 할 것을 독단으로 판단하고 강제로 엄마의 주장만을 내세우며 기르지 않았나 깊이 반성하고 후회하곤 한다.

너나없이 소중한 귀한 생명들이다. 남을 해치는 일이나 불행을 주는 일을 제외한 모든 일은 하고 싶은 대로 하며 살아보고 싶은 나이가 되었기에 넘치는 정열로 남은 삶을 아름답게 엮어 보려 한다. 이 세상에 가장 존귀하고 소중한 것은 나 자신이다. 좋은 인품으로 힘써 갈고 닦아 아름다운 사람으로 거듭 거듭 태어나는 삶을 가꾸어 보련다. 그러면 나도 아름다운 사람이 될까. 글썽다. **수필시대**

털다

임 지 윤 ok4341@paran.com



나른한 오후 커커이 쌓여있는 먼지를 털어낸다. 털어낸 먼지는 하늘로 올라갔다 다시 떨어진다. 잠시 그 자리를 이동했을 뿐이다.

재미교포와 결혼을 한 친척 언니는 이십 몇 년 만에 고향에 다니러 왔다. 기억 속에 잠자고 있던 언니에 대한 것은 과수원의 유복한 고명딸이었다. 아제의 갑작스런 죽음과 얼마 후 재미교포와의 결혼은 내 부러움까지 담아 간 듯했다. 그로부터 언니의 얼굴을 본 것은 올 해가 처음이다. 내가 상상하던 곱고 아름답던 처녀 때의 모습은 사라졌지만 미모는 여전했다.

미모와 어울리지 않게 소탈하고 털털한 언니의 모습이 우리를 유쾌하게 했다. 며칠 후 다른 사람을 통해 고국에서 겪은 일화를 듣는 순간 폭소를 자아내게 했지만, 그 뒤에 씩씩함이 또한 밀려들었다.

세월을 많이 건너 뚫 닳일까. 많이 변해 버린 고국의 풍경만큼이나 고국에 대한 언어감각도 많이 변한 것일까, 아니면 이중의미를 담고 있는 우리나라 언어의 특질 때문일까. 그것도 아니라면 그 의미를 알면서도 웃음을 보여주기 위한 난센스는 아니었을까.

“애! 털어내는 것이 뭐니?”

〈현대수필〉로 등단
한국문인협회 회원, 현대수필 편집위원, 현대수필 문인회 회원
강남 문인협회 회원

“뭘 털어내는데?” “응 내가 택시를 탔어. 운전기사가 하는 말이 자기는 喪妻상처한 지가 몇 년 되는데 며칠에 한 번씩은 자갈마당으로 털어 내리 간대. 오늘 털어내러 가는 날이라 빨리 퇴근해야 된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털어낼 게 뭔지 모르지만 좋은 것이면 많이 털어내라고 했어. 그러자 택시기사가 어이없이 웃는 거야. 그게 무슨 뜻이야.”

“.....”

그렇게 자갈마당가서 쉽게 털어 낼 수 있다면 세상을 쉽게 살아 갈 수 있지 않을까. 아무리 털어내도 다시 제자리에 앉아 버리는 먼지와 같은 인간의 욕심은 먼지처럼 자리만 이동할 뿐이다.

스님들은 모든 번뇌와 소유로부터 자유로워지기 위해 번민하는 것 같다. 성철스님도 소유하지 않기 위하여 속세에 얽혀있는 모든 먼지들을 철저히 털어내기를 시도한 것은 아니었을까. 법정스님도 더 간결한 삶을 위해 고민한 흔적을 볼 수 있다. 그 무언가 끊임없이 정진 하는 것이 七情淸淨에 이르는 모든 욕심들을 털어내기 위한 것이라면 지나친 아이러니가 아닐까.

치렁치렁해지는 삶의 끈나뭇을 단절하기 위한 방편으로 또 다른 끈나뭇을 만들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은 더 단단히 비끄러매는 기술을 연마하지는 않을까 두려워진다. 풀리지 않는 인연의 끈과 어느 편에 서서 깃발을 세워야 할지 수없이 고민하고 저울질을 해대며 내 자신에게 무게를 측정하고 있다. 1그램의 무게도 손해 보지 않으려는 욕심은 점점 손만 대면 뺨 터질 것 같은 풍선의 모습이다. 조금 더 욕심을 털어 낼 수는 없을까. 내가 가지고 있는 욕심들은 하찮은 것에 지나지 않는다. 마치 아이가 퍼지 않으려는 주먹을 강제로 열어보았을 때 조그만 손바닥 안에서 숨쉬고 있는 개미의 모습인지도 모른다. 그것을 털어내지 않으려고 두 주먹을 더욱 조여 가고 있다.

놓아버리면 될 것을, 먼지 털어내듯 그 무엇들을 털어내지 못하는 나는 그 운전기사보다 더 미련하고 불품없는 속물인지 모른다. 털어내기 위해 몸부림치는 처절함이 내게 조금이라도 있다면 이렇게 번민하지 않아도 될 것을.

자갈마당으로 가는 운전기사, 무소유로 돌아가기 위해 끊임없이 탐구하고 정진하는 스님, 알면서 모르는 건지 정말 모르는 건지 알 수 없는 친척언니의

모습이 오히려 털어내려는 모습이 아닐까.

이리저리 먼지를 세차게 털어본다. 내가 털어내려고 했던 것들이 자리아동만 하지 않고 사라지기를 바라면서. **수필시대**

은총의 날

류정숙 시집
문예운동 / 값6,000원

봄이 오는 길목

민복기 시집
문예운동 / 값8,000원

뇌물의 힘

지 설 완 aporia20@hanmail.net



선물: (인사나 기념, 정을 나타내는 뜻으로) 남에게 물품을 줌, 또는 그런 물품

뇌물: 직권을 이용하여 편의를 보이달라는 뜻으로 주는 부정한 물품

이곳에 이사 온 지 십 년이 다 되어 가지만 위층에 사는 이와 한 자리에 앉아 이야기를 할 기회가 없었다. 매일 밤 우리의 고요한 시간을 방해하는 윗집이니 오다가다 엘리베이터 입구에서 어쩔 수 없이 마주치면 할 수도, 하지 않을 수도 없어서 하는 어색한 인사가 다였다. 정을 나타내느라 선물을 주고받는 사이는 아니라는 이야기다.

그럼 뇌물! 나에게 무슨 직권이나 그들의 편의를 봐줄 힘이 있는가. 오히려 내가 그들에게 한밤중에 조용히 해달라고 뇌물을 바쳐야 할 지경이다.

한방차가 처음이 아니다. 지난 추석명절 전날 늦은 시간이었다. 초인종 소리에 화면을 보니 윗집이다. 웬일인가, 우리 집을 부러 찾아올 일이 없는데. 순간 여러 경우의 수를 생각하며 문을 여니 화사하게 화장을 한 위층 여자가 육가공품 선물상자를 내밀었다. 매일 늦은 시간 시끄럽게 해서 진작 인사를

〈수필과 비평〉 등단
체물포수필문화회 사무국장
수비문화회 인천지부장

해야 하는데 늦었다. 뭔가 받는 일에 익숙하지 않은 나로서 당황스러우면서도 싫지 않았다. 묘한 기분 표현하기 어렵다. 거절하기도 쉽지 않아 그 상자를 받고 그냥 받기가 부담스러워 다음 날 바로 주스를 담례로 보냈다. 그리고 몇 개월이 지난 설 전날인 어제 한방차 세트를 들고 온 것이다.

“약소한 거예요. 부담 갖지 말아요.”

“번번이 이러면 어떻게 해요. 그런데 명절이라 일이 많은가 봐요. 늦은 시간까지 소리가나는 걸 보면…”

“요즘도 일이 많아 세시(새벽) 이전에도 일이 끝나지 않아 시끄러울 거예요.”

“이러면 흥도 맘대로 볼 수가 없잖아요.” 겨우 한다는 대답이 그랬다.

뇌물이다. 역올하지만 뇌물은 뇌물이다. 값으로 따지면 얼마 되지 않지만 일단 뭔가를 준 그들은 아무리 늦은 시간이라도 맘 놓고 소리를 낼 것이다. 아래층에 사는 내가 불평을 하지 못할 것이라는 것을 믿어 의심치 않으리라. 세상에 공짜는 없다. 늦은 시간에 쿵쾅거리도 경비실에 연락하기는커녕 혼자 투덜거리기도 민망해졌다. 그렇지 않아도 남에게 싫은 소리 못하는 나는 할 말도 못하고 가슴앓이하게 생겼다.

사회적으로 뇌물 수수에 관련된 기사가 없는 날이 별로 없다. 높으신 분은 높은 대로 지위가 낮은 분은 낮은 대로 적절하게 자신의 직위를 이용해서 뇌물을 받는다. 사과 박스 사건, 차떼기 불법 선거자금, 병역면제를 위한 신체검사 조작, 어느 지역에 뭐가 들어선다더라 하는 정보 등에는 모두 뇌물과 연결되어 있다.

요즘은 먹은 놈이 꿀꺽 삼키고 내놓을 것이 없더라도 공개적으로 기사화되고 비판의 대상이 되어 타산지석의 효과라도 얻지만, 과거는 정치인이나 공직자에게는 서민들은 상상하기 힘든 거액이 가고도 별 문제가 되지 않았고, 감히 기사화 할 수도 없었다. 피라미드 조직으로 뇌물금품 수수가 사회를 움직인다고 해도 지나친 이야기가 아니었다. 교통신호위반을 해도 벌금 고지서를 얌전히 받기 보다는 돈으로 해결하려고 하고, 내 아이 남의 아이보다 대우 받게 하려고 봉투 내미는 그런 일이 흔했다. 그 시절에는 암행 감사에 교사의 서

랍까지 뒤지는 요즘과는 비교도 안 되었다.

뇌물은 안 되는 일을 되게 하고, 늦게 줄을 섰다해도 먼저 선 사람보다 일 처리를 빨리 할 수 있도록 만든다. 부정하고 싶지만 사실이다. 없는 사람은 번번이 밀리고 처지고 억울함만을 한탄해야 했다. 여전히 ‘무전유죄 유전무죄’가 통하는 세상이라. 정치가나 공직자 윤리가 칼날 같다는 선진국에서도 아무리 엄격한 법 적용을 해도 뇌물에 관한 부정을 완전히 근절시키는 힘들다고 한다. 그만큼 뇌물의 유혹은 달콤한 독이다.

우리도 공직자들이 직무와 무관한 자로부터 한 회당 오만 원, 일 년에 십오만 원 이상의 선물은 받을 수 없다는 방침과 같은 것이 있다고 한다. 과거보다 뇌물 주고받기가 어려워진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똑똑한 그들이 법망을 피하는 방법은 잘 알 테니 조금은 의심스럽다.

요즘 관객 천만 명 돌파를 초읽기 한다는 영화 ‘왕의 남자’에서도 광대들이 중신들의 뇌물 수수 비리를 풍자하는 대목이 나온다. 그 옛날이나 지금이나 웃는 얼굴에 침 못 뱉고, 주는 현찰에 짹짹 얼어붙은 빙산도 녹인다.

도둑이 제발 저러 괜스레 정치가나 공직자를 들먹거리면서 뇌물에 맘이 변해버린 나를 모른 척하고 있다. 공짜로 들어온 작은 물건에 괴롭던 소리가 들리지 않으니 그들처럼 사과상자가 아니라 박카스 상자를 받는다 해도 내 혼을 다 빼주고 말 것이다.

정말 그 때부터 윗집에서 별 소리가 들리지 않는다. 들린다고 해도 별로 거슬리지 않으니 웬 조화일까. 신기한 일이다. 아! 뇌물의 힘이어! **수필시대**

서울 A. H 호텔에서

-흔적



정 정 인 irene3007@hanmail.net

이민 갈 때의 풍광이 머릿속에 벽돌 찍혀 있다가 가슴에 그리움이라는 이름의 정자를 지었다. 서툰 이민 생활에서 때도 없이 거센 바람이 정신으로 파고 들어 삶에 진통을 일으킬 때마다 그 정자는 언제나 내 마음의 피난처였다.

그러나 지금 온통 아파트와 빌딩이 만발하여 더 이상 파종이 불가능한 화단 같은 도심에서 이십년 전 흔적이 남은 곳이 어디란 말인가. 살던 곳을 더듬어 보았지만 자욱 간 곳 없는 낯선 거리에 땀별 내려 쪼이는 타국에서 생존을 헤매던 피폐한 그림자만 힘없이 주저앉는다.

이십 년 간 마음이 세 들어 살던 정자가 갑자기 질펀하고 황량한 갯벌 위에서 작은 몸뚱이 하나 감출 수 없는 폐허로 변해간다. 고품격의 서울을 마음에 찍어 새로운 정자를 다시 짓기엔 일정이 너무 짧고 그것은 또 고국을 떠났다는 새로운 아픔으로 지배할 것이다.

서울에서 변모하지 않은 곳이 어딜까. 어디에 가슴을 눕혀야 기억창고 속에 어머니 모태 같은 옛 모습 그윽한 정자를 보존할까.

California G.I.A. Sketching과 수료, 미국 Cohen University 신학대학 졸업
<문예운동>으로 등단, 미주 한국기독교 문인협회 서기, 편집위원
미국 California 거주
현 직업 디자이너

산이다. 산들을 기억해냈다. 문명이 넘쳐 각 고장의 냇물은 범람하고 도심의 강변은 비만을 앓지만 산만은 그대로 있겠지 하여 친구에게 강청하여 안내 받은 곳이 북한산 밑에 A. H 호텔이다.

시월 하순, 병풍처럼 둘러선 북한산, 도봉산, 수락산, 불암산이 불타고 있다. 아침에 커튼을 열 때마다 동쪽에서 비치는 햇살의 애무로 단풍잎들이 전율할 색깔들을 뿜어낸다. 호텔 옥상에 올라가 그 북한산 심곡을 바라보며 마시는 모닝커피 한 잔에 산자락이 밤새 써 놓은 신작 ‘시’ 한 편이 섞여 내면으로 은은히 흘러들고 까치가 해맑게 울음을 울어 상큼한 향으로 피어오르게 만든다. 계곡에는 동화 속 같은 나무다리 아래 맑은 물이 흐르고 작은 산천어들이 헤엄치고 있다.

봄이면 꽃, 여름이면 신록. 겨울이면 백색의 산을 등정하며 이 물에 쌀 씻어 밥해 먹던 고운 시절이 있었다. 그때의 옛 정취 변함없는 인수봉, 백운대의 멀건 두상. 옛 모습 다소 지닌 호텔, 이곳은 이민 가기 전, 아니 그보다 더 오래 전, 그리운 학창시절의 한국 그대로다.

나는 옥상에 올라가 산이며 그 산 아래 아파트 재배단지들 캠코더에 담고 또 담았다. 지금은 변모한 것이 거의 없지만 세월이 흘러 다시 왔을 때 이 산 골짜기마저 건물이 등정해 있지 않을까 해서였다. 지금은 국립공원으로 지정되어 입장료를 받고 있지만 수유리, 성북역, 월계동 할 것 없이 파괴하던 그 벌판이 빌딩 숲으로 변하여 몇 개의 구로 잘라진 현실을 내려다보니 산의 장래를 믿는 것이 불안스러웠다.

산자락을 캠코더에 담다보니 숲에 가려진 반듯한 무덤 하나가 보인다. 총지배인에게 물었다. 교회장로라고 자신을 소개한 그는 “안중근 열사 장녀의 무덤인데 약 삼년 전에 발견하여 강북구청에서 관리 하고 있다.” 고 했다. 아울러 근처에 4.19국립묘지가 있다는 것과 이 호텔이 민주화의 산실이었다는 것, 현재 기독교장로회에서 운영하며 투숙하는 교역자들에게는 할인 혜택을 주고 있고 수익금은 선교 등 좋은 일에 사용하고 있다고 꼼꼼히 설명해 주었다.

나라에 바쳐진 아버지를 두었던 딸의 생애에 대한 연민으로 쌓인 낙엽을 헤치고 가파른 언덕을 올라 무덤으로 갔다. 직사각의 대리석으로 밑단을 두른

자그마한 묘지가 그리 높지는 않은 곳에 있으나 호텔 옥상에서 보거나 일부러 알고 찾지 않으면 보기 어려운 위치에 있다.

역사의 조각배에 강제 편승되었던 여인의 비석엔

<안중근 열사의 장녀. 세례명: 테레사. 본명: 안현생.

단기4235년 5월 1일 황해도 신천군에서 출생. 8세에 안중근 열사의 의거로 서울 명동 천주교 수녀원에서 불란서 신부의 보호 밑에서 5년간 자라다가 13세에 로서아로 가족 따라 망명. 16세에 다시 상해로 이주하여 승덕여고와 동대학 불문과 및 미술과 재학 중 25세에 결혼, 슬하에 2녀를 두었고 광복 이듬해 11월 환국하여 서울에 거주하다가 6.25동란으로 대구로 피난. 효성여대 학생과장 겸 불어교수로 임직. 환도 후 자택에서 불어 개인교수를 하다가 고혈압으로 가료 중 단기4292년 4월 4일 밤9시 서울 서대문구 자택에서 58세를 일기로 별세했다.>고 기록 되어있다.

왜 그곳에 묻히게 되었고 왜 그토록 오랜 세월 동안 발견할 수 없었는지 그녀에 대해 더 상세히 알고자 했으나 기록을 찾지 못했다. 늦게나마 발견 하여 애국가 딸의 무덤을 구에서 관리해 주는 것이 감명 깊었다.

4.19탑은 국립묘지로 승격되어 작은 연못과 잘 조성된 드넓은 정원을 갖추고 있어 공원처럼 보인다. 보도블록을 새로 깔며 단장하는 끝은 길 위 웅장한 건물 안에 단풍처럼 타던 가슴들이 시대의 상처만큼이나 검은 사진으로 진열 되어있다.

세월이 아무리 흘러도 변하지 못한 열세 살 소년, 저 맑은 눈동자의 어린 학생은 얼마나 성숙한 정의감으로 나라의 안위를 생각하며 죽음 앞에서 있었을까. 오래 전, 산자락 밑에 그저 놀기 좋은 놀이터로 알고 이곳에 오던 나와 엄마가 아니면 발걸음을 내딛지 못하는 과잉보호 속의 아이들을 생각했다.

어린 그들, 혹은 젊은 그들이 흘린 피를 국가는 존중하고 소중히 지켜 주고 있지만 국민인 나는 그들의 가슴이 추구한 이상을 기억하거나 깊이 인식하지 못했고 안다고 해도 자주 참배조차 못하는 역사의 흔적 앞에 이방인이었다.

허나 이민자의 신분인 것이 그리 죄스럽게 느껴지지 않았다.

동포들이 타국에서, 그리운 고국 사랑하는 마음에 곤비한 삶 속에서도 마음

들을 모은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다. 세계의 상품이 즐비하게 진열된 마켓에서 눈에 돋보기를 쓰고 한국산을 찾는 이민자들도 적은 수가 아니다. 사랑보다는 향수가 앞선 것인지 모르겠으나 어떤 의미로든 해외 동포들은 본국사랑의 자산이지 책망의 대상이 아님이 분명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렇게 변명 하면서도 계단 앞 연못에 비쳐 일그러진 내 모습이 그들 조국 사랑한 피 앞에서 일렁이는 내 양심이었다.

아까부터 서너 살쯤 되어 보이는 아이의 손을 잡고 맴을 도는 부인이 아이에게 하는 말이 들렸다 “너 엄마 말 잘 들어야 해.” 말 잘 듣도록 세뇌시킨 그 아이에게 여인은 장차 무엇을 요구 할까. **수필시대**

들꽃으로 피어나면

이선희 시집
문예운동 / 값6,000원

바다엔 아무기도 꿈을 먹고 살고

이혜숙 시집
문예운동 / 값6,000원

그 은빛 자전거

정 태 현 lovy-123@hanmail.net



간밤 꿈 때문이었을까. 문밖을 나서려는데 새삼스레 눈길을 붙잡는 게 있다. 층계참에서 즐고 있는 큰애의 자전거다. 예전, 어린 데도 성인용 자전거를 위해서 사준 건데 지금은 주인을 잃은 채 놓여 있다.

그리고 보니 아버지는 저 세상으로 가신 지 이태만에 꿈 속으로 오신 거다. 미웁한 자식에게 하고 싶은 말이라도 있었던 것일까. 중절모를 쓴 아버지는 들쭉이 핀 뚝길로 자전거를 타고 아스라이 다가오고 있었다. 그 은빛 바퀴살을 굴리면서.

그 해 가을, 아버지는 반짝이는 자전거 한 대를 끌고 오셨다. 당시 자전거는 행세를 하거나 돈푼께나 만지는 사람들이 타고 다니던 시절이었다. 집에서 읍내까지는 시오릿길, 관청에 다니던 아버지는 과용을 한 게 분명했다. 그날 밤, 난 마당가에 세워 둔 달빛 속의 자전거를 창문 틈으로 밤이 깊도록 들여다보다 잠이 들었다.

다음 날, 아침을 마친 아버지가 자전거를 끌고 대문 밖으로 나가자 아이도 덩달아 뒤따랐다. 동구 밖을 벗어나자 아버지는 아이에게 그만 들어가라는 듯

<월간문학>으로 등단, 국제PEN클럽, 한국문협 회원
수필문우회 회원, '수필세계' 편집위원
대표에세이문학상 수상, 수필집 '동행' 외

뒤를 향해 손짓하고는 속력을 내 읍내로 가는 독길로 올랐다. 은빛 바퀴살을 반짝이며 좁은 독길을 넘어지지도 않고 바람처럼 달리는 그 풍경을 아이는 넋을 잃고 바라보았다.

해저물녘에 아버지는 자전거를 앞세우고 돌아오셨다. 아이는 걸레를 들고 이곳저곳을 닦는 척하며 바퀴테를 쓸어보고 안장과 페달도 만져보았다. 하지만 부엌 쪽을 훑음거리야만 했다. 자전거를 만져 말뚝을 부릴 것 같은 생각이 든 어머니는 자전거를 만지면 안 된다고 아이에게 다짐을 두었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자전거를 곁에 두고 어떻게 만지지 않을 수가 있겠는가. 쓱쓱 안장을 문지르는 척하다가 슬쩍 올라타 보았다. 가슴이 쿵쿵 마구 뛰었다. 이대로 밖으로 나가 아버지처럼 들쭉이 핀 독길을 달려보고 싶은 마음 굴뚝같았다. 순간 펄떡 떠오르는 생각이 있었다. 며칠 후 있을 운동회였다.

운동회 날, 하늘은 유난히 드높고 푸르렀다. 달리기에 자신이 있던 아이는 그날도 반 대표로 뽑혀 시합에 출전하게 되었다. 학교가 관청 근처이니 오시겠다는 아버지의 말에 며칠 전부터 학교가 파하면 아이는 동구 밖 산모퉁이 길에서 달리기 연습을 게을리 하지 않았다. 꼭 일등을 해서 아버지께 보여주고 싶었다. 아이가 아버지에게 보여줄 수 있는 것은 달음박질뿐이었으니까.

‘타-양’, 출발 총소리가 나자 아이는 이를 악물고 달렸다. 응원하는 소리는 귀밖에 있어 들리지도 않았다. 오로지 자전거를 눈앞에 두고 달릴 뿐이었다. 일등을 해야만 그 상으로 자전거 타는 걸 아버지께 조를 수 있을 텐데, 하는 마음뿐이었다. 한참을 달리다 걸을 보니 어떤 애와 나란히 일등으로 달리고 있었다. 결승점은 십여 미터, 더 빨리 발을 움직였다. 한테 순간에 걸의 애가 한 발짝 앞질러버린 게 아닌가. 맥이 탁 풀렸다. 혼신의 힘을 짜내 더 달렸지만 마음이 이미 얼크러진 아이는 발이 뒤엎켜 무릎이 꺾이더니 급기야 넘어지고 말았다. 눈앞이 캄캄했다. 그 통에 뒤따르던 애들이 모두 앞질러 결승점을 넘어서고 말았다. 몸을 추슬러 절뚝거리며 걷는데 저편에서 이쪽을 바라보고 있던 아버지와 눈이 마주쳤다. 아버지는 자전거를 세워 두고 다가와 아이의 상처를 살폈지만, 아이는 상처의 아픔 따윈 뒷전이었고 안타까운 마음 때문에

속이 상할 뿐이었다.

집에 돌아와 아이는 망설이다 아버지께 자전거를 타고 싶다는 속내를 말씀드렸다. 아버지는 곰곰 생각하더니 아이를 데리고 마당으로 나가 자전거 안장 위에 올려놓으며 페달을 힘껏 밟아 보라 했다. 단 마당에서만 타라는 조건을 다셨으나, 다리 힘을 길러 내년에는 넘어지지 않고 반드시 일등을 하라 했다.

처음엔 마당에서만 연습을 했으나 평형을 잡는 일에 조금 익숙해지자 아이는 자신이 생기기 시작했다. 아이는 성이 차지 않아서 약속을 어기고 아버지 몰래 집 밖으로 나가기 시작했다. 고삐 내리막길에서 붙은 가속 때문에 핸들 조작을 놓쳐 넘어졌던 일도 여러 차례 있었지만 아무에게도 이야기하지 않았다.

흐르는 세월만큼 아버지와 자전거는 함께 늙어 갔고, 아이는 성장해서 중년이 되었다. 육십 대 초반의 아버지는 그 자전거를 타고 읍내를 가다 교통사고를 당해 뇌를 크게 다치고 말았다. 아버지는 몇 달 병상 생활을 해야 했으며 그 후유증으로 가끔 정신을 놓기도 했다. 그 때마다 집에 갈 테니 자전거를 가져오라 하던 아버지. 퇴원하던 날 자식은 자전거 대신 휠체어를 사다 드리자 아버지는 얼굴이 환해지며 ‘좋은 자전거로구나!’ 하셨다. 휠체어 바퀴살을 보고 자전거로 착각을 한 모양이었다.

그 아버지, 이제 저 세상으로 가시고 그 자전거마저 아버지 따라 어디론가 사라지고 말았다. 하지만 독길을 달리던 은빛 두 바퀴는 시방도 자식의 눈엔 숨숨하게 남아 있다. 아버지가 손수 올려 놓아주신 자전거의 그 은빛 두 바퀴는 이후 자식에겐 삶의 원동력이 되어 주었다. 한때 자식은 지금도 자전거 타는 일에 익숙지가 못하다. 다리 힘을 길러 꼭 일등을 하라는 말씀도 자식은 지키지 못하고 있다. 그게 어찌 달리기만을 두고 한 말이겠는가. 주어진 삶의 몫을 넘어지지 않으며 올곧게 사는 것과 좁은 독길에서 자전거를 타는 일이 그다지 다르지 않을 테니 말이다.

문 밖의 자전거, 타지에서 대학을 다니는 큰애가 집에 돌아오면 탈 수 있도

록 바퀴테와 바퀴살을 말끔히 닦아 놓으려다. 그리고 앞바퀴는 조향 장치, 뒷 바퀴는 발의 힘을 회전력으로 바꾸어 뒤로 전달하며, 앞뒤 바퀴에 각각 독립 적으로 작동하는 브레이크가 있다는 것을 다시 말해 주어야겠다. 아니, 좁은 독길에서도 넘어지지 않고 잘 달리려면 앞을 똑바로 보며 평형을 잘 잡아야 한다는 것을 스스로 깨달았으면 좋겠다. 지금도 시는 일에 서툴기만 한 이 아 비를 닦지 않도록 말이다. **수필시대**

사랑초

손계숙 시집
문예운동 / 값8,000원

한국 · 2

노희주 시집
문예운동 / 값7,000원

오월 그리고 어머니

최 원 현 nulsaem@hanmail.net



해마다 5월이면 편지를 쓴다. 처음엔 어머니께 썼는데 요즘은 나에게 쓰고 있다. 그러나 한 번도 부치지 못한 편지이다. 그렇지만 편지를 써서 봉합을 하고 나면 해야 될 큰 일 하나를 해낸 것처럼 후련해지고 활기분해진다. ‘임금님 귀는 당나귀 귀’라고 외치던 이발사마냥 나 혼자서는 감당하기 어려운 비밀 하나를 해결하는 것처럼 그렇게 편지 한 통에 내 그리움과 안타까움과 답답함을 담아 봉해놓고 한 해를 살곤 했다. 그리고는 다시 오월이 오기 전 봉투 채로 편지를 없애곤 했다.

그런 어느 날 이런 나의 행위가 잦아 나는 나약함으로 생각 되어지고, 누군가 그런 나를 보고 있다면 찡찡 혀를 찰 것만 같다는 부끄러움이 일었다. 그러나 이미 버릇처럼 길들여진 나의 연례행사는 그렇게 간단히 그만 두어질 일은 아니었다. 나는 대상을 바꾸기로 했다. 불혹의 나이를 넘기면서부터 나에게 편지를 쓰기 시작한 것이다. 그것은 나에게로 돌아오기였다. 그 때까지 잊고 있던 나, 정녕 나의 삶은 어디 있었던가, 비로소 나를 생각해 보게 되었다.

〈한국수필〉 등단. 한국문인협회 회원. 국제펜클럽 심의위원. 한국수필가협회. 수필문학진흥회. 수필문학가협회 이사. 한국수필. 수필세계. 문예춘추. 건강과 생명 편집위원. 허균문학상. 서울문예상. 한국수필문학상. 동포문학상 대상. 현대수필문학상 수상. 수필집 〈날마다 좋은 날〉〈살아있음은 눈부신 아름다움입니다〉〈오랜 지새 모자를 쓴 도사〉〈숨어있는 향기〉〈서서 흐르는 강〉〈기다림의 꽃〉 외

오월은 그렇게 어머니에게서 나에게로 왔다. 그러나 어머니를 떠난 것은 아니다. 나에게로 온다는 것, 나를 돌아보고, 나를 인정하고, 나를 확인한다는 것은 바로 어머니를 보다 더 확실하게 찾는 방법이었다. 어쩌면 내게 오월은 건장한 오월이기보다 늘 심약한 오월, 외로움을 더욱 짙게 앓는 때였다. 그렇기에 더욱 어머니가 필요한 때였다. ‘놓친 열차는 이름답다’는 수필처럼 사람이란 그렇게 잃어버린 것에는 더 큰 애착을 갖는 것 같다.

내 안에는 어머니라는 나무가 한 그루 있다. 더 이상 자라지도 않는, 어린 세살 눈망울에 이슬처럼 스며들었던 이름이다. 나는 항상 아이이고 어머니는 늙지도 젊어지지도 않는 한 모습으로 멈춰있었다.

그런데 수년전 시화전에 참여할 때다. 내 시에 그림을 담아준 지당 선생이 ‘어머니’라는 나의 시에 맞춰 그려준 어머니의 모습은 내 기억 속에 살아있던 어머니가 아니었다. 지금의 내 나이에 맞춰 그려진, 너무나도 많이 늙어버린 할머니 모습의 어머니였다. 현대 그제 그렇게 서운하고 슬플 수가 없었다. 내 안에 소중히 살아있던 어머니가 어디론가 사라져버린 것만 같았다.

난 어머니의 모습을 제대로 기억하지 못한다. 너무 어렸을 때 가신 어머니는 내가 막내이모의 등에 얹혀서 보았던 오직 하나 꽃상여의 기억에 나머지는 상상이었다. 그런데 오월이면 유난스레 어머니를 향한 그리움으로 병을 앓는다. 아이들이 빨간 카네이션을 만들 때 하얀 꽃을 만들었던 나는 오늘이 되도록까지 늘 아쉬움에 붙잡혀 있는 것이다. 아니 어머니가 사셨던 삶보다도 훨씬 많이 살아버렸음에도 나는 여전히 어린아이인 것이다.

내게 오월은 초록 넘치는 생명과 성장의 계절이기보다 더 어려워지게 하는 때 아니 어리광을 부려보고 싶은 때요, 그래 어른인 나를 보는 것이 아니라 어머니라는 이름으로 아직도 어린아이인 나를 보게 한다.

인생은 5월처럼 건강해야 한다/ 5월의 산을 보라/ 청신한 녹색의 옷으로 단장한다/ 5월의 공기를 보라/ 얽은 우윳빛이다/ 5월의 나무를 보라/ 싱싱한 생명력이 약동한다/ 5월의 바람을 보라/ 훈훈한 향기가 배어 있다(안병욱 ‘인생의 오월처럼’ 중)

그런데 나는 그렇지 못하다. 그리고 보면 나 뿐 아니라 요즘 사람들도 저마다 가슴 안에 작은 또 하나의 존재를 더 키우고 있는 것 같다. 그러다가 삶을 헤쳐 나갈 힘의 면적이 조금 약해지면 안에 있던 또 하나의 내가 슬며시 고개를 내미는 것이 아녘을까? 그러면서 긴 긴 날 동안 햇볕 못 본 식물처럼 여러 디 여러게 연명해 온 것이 아녘을까?

이제라도 오월에서 자유로워져야 할 것 같다. 아니 그만 어머니를 해방시켜 드려야겠다. 이제 어머니 대신 아내와 자식들, 그리고 사랑해야 될 이웃들의 자리를 만들어 채우고, 내게 쓰던 편지도 그만 두어야겠다. 현실에 충실하는 것, 그게 가장 바람직하다는 설득력을 갖게 해야겠다. 그래 5월이 누구나의 가슴에서도 사랑과 희망이 넘치는 햇빛 부신 달이 되게 해야겠다. 그러나 오월이 어머니를 더욱 생각나게 하는 것은 막을 수가 없으니 어이할까. **수필시대**

동백꽃 속으로 보이네

문호치 시집
문예운동 / 값6,000원

바람둥이 예찬

최혜정(정자) ensueno@paran.com



내가 만약 연인을 원한다면 바람둥이로 소문난 이를 택하겠다.

“바람둥이” 하면 사람들은 있는 것 없는 것 갖은 험담을 다 늘어놓는다. 하지만 바람둥이도 장점은 가지고 있다.

외모가 어느 정도 봐 줄만 하고 무언가 매력이 있어야 하는 것이 바람둥이의 조건이라고 생각한다. 돈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장점은 아니겠지만 다수의 바람둥이는 재력을 갖추고 있다.

바람둥이는 나름대로 노력가인 셈이다. 여자의 마음을 잡기 위하여 여러 가지 방법을 궁리하고 돈을 들이고 정성도 들인다. 그것도 자신만이 가지고 있는 마인드다.

악기 연주자는 자신의 신체조건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생각해서 자신이 좋아하는 악기를 선택한다. 남녀도 마찬가지로 자신이 좋아하는 사람 형을 택한다. 자기와 어느 정도 모든 면에서 맞는 사람을 택하게 마련이다.

남자와 여자는 서로 악기와 연주자의 자리를 넘나든다고 생각한다. 연주자가 악기를 잘 연주하기 위하여 수도 없이 연습을 하면서 정성을 들인다.

악기 연주자가 많은 연주 시간과 오랜 경험과 감각으로 연주를 잘 할 수 있

국제펜클럽한국본부 회원
한국문인협회 회원, 서울시단 회원
수필집 : 「꿈을 꾸는 피터빠나」

듯이 남자도 마찬가지로 생각한다. 바람둥이가 많은 여자를 겪는 동안 여자의 속성을 알아 가는 것이 아닐까? 정신적인 면과 심리상태는 물론 육체의 깊은 떨림까지도 감지해 낼 수 있다고 생각한다.

바람둥이에게 언제 채일지 모른다고 미리 걱정하는 여자도 있을 수 있다. 하지만 인간의 마음이란 참으로 묘하고 알 수가 없다. 굳게 다짐했던 내 마음이 나도 모르게 시시 때때로 변하고 있으니, 누구의 마음이 먼저 변할지는 두고 봐야 알 일이다.

사랑에 관한 조사를 한 것을 보면, 사랑하는 마음을 유지 할 수 있는 기간이 두 해를 넘지 못한다고 했다. 또 가족이라면 모를까, 떠나버린 사랑을 막무가내로 잡고 있다면 알맹이가 다 빠져나간 껍질을 붙들고 구걸을 하는 거나 다름없다.

사랑은 구걸해서 되는 일이 아니다. 사람들 가슴속에는 아무도 속을 모르는 조그만 미술단지를 가지고 있다. 본인은 물론 그 누구도 그 단지 속에서 일어나는 일을 미리 알거나 막을 수는 없다. 어느 날 갑자기 그 작은 항아리 속으로 무언가 이상한 향기가 들어오는 날, 오묘한 화학반응을 일으키며 사랑이라는 열병에 걸리게 된다.

바람둥이만 마음이 변하라는 법은 없다. 그러니 굳이 바람둥이를 피하려고 애 쓸 필요는 없다. 여자의 마음과 몸을 능숙하게 컨트롤하며 연주 할 수 있는 바람둥이야말로 환상적인 연인이라고 말하고 싶다.

바람둥이와 사랑을 연주하려면 강심장일 필요는 있는 것 같다. 갖가지 술수를 부릴 것이니 그것을 감지해 내기 위하여 날카로운 감성으로 그 정체를 인지해 내는 능력을 길러야 한다. 가끔은 사랑의 협박도 불사해야겠다. 바람둥이의 볼(ball)을 받아 칠 수만 있다면 그것은 경이로운 환상게임이 될 것 같다. 한 번 해 볼만한 경기가 아닐까?

나는 누가 뭐래도 연인을 필요로 할 때 소문 난 바람둥이를 택하겠다. 그 남자는 분명 애를 태우고 떠보고 별 술수를 다 부리겠지? 나는 애가 타고 불면으로 밤을 지낼 수도 있다. 그러면 어떤가? 어차피 사랑을 하면 온몸으로 열병을 앓게 되어 있다. 이러나저러나 한바탕 몸살을 하는 것은 피할 수 없다.

이왕에 열병을 앓을 바엔 죽기 직전까지 앓는 그런 화끈한 사랑을 하고 싶다.
그래서 나는 내 연인으론 소문난 바람둥이를 택하겠다.

그가 내 연인이 되어 주거나 할지 모르지만... 웃음! **수필시대**

시조의 향기

차경섭 시집
문예운동 / 값6,000원

물어 다니는 마음

홍인숙 시집
문예운동 / 값8,000원

客苦^{객고}

황선영 sy2986@choil.com



지난 여름 유럽으로 배낭여행을 떠났을 때 일이다. 오스트리아의 인스부르크에 들렀을 때였다. 전날 늦게 도착했으나, 호텔에 짐을 푼 다음 바로 거리로 뛰쳐나가 지리를 익히면서 시가지 야경 둘러보기에 나섰다. 유럽 대부분의 도시들이 그렇듯이 이곳도 저녁 6시면 거의 모든 상가가 철시해버리고 겨우 기차역 주변이거나 큰 호텔의 몇몇 부속 시설들만이 문을 열고 있을 뿐이다. 다만 관광객을 위해 <마리아 테레시아>거리의 한 모퉁이를 개방해 두었고, 이곳에 노천 카페가 형성되어 그나마 붐비고 있는 것이 인상적이었다.

이튿날 아침 일찍 호텔에서 체크아웃을 한 다음 일단 기차역에 들러 코인락커에 동전을 넣은 뒤 배낭을 맡기고는 관광길에 나섰다. 시간을 아끼기 위해, 전날 여행 안내서를 통하여, 가 볼만한 곳은 미리 정해두었고 시간 낭비 없이 부지런히 설친 결과 오후 4시경에는 예정했던 일정을 모두 끝낼 수 있었다. 그야말로 走馬看山^{주마간산}격 관광이었으나, 알프스산록의 아름다운 경관을 제외한다면, 이곳 또한 다른 유럽의 도시들이나 마찬가지로, 특별한 볼거리는 별로 없는 편이고, 규모라 해야 우리 부산의 한 區^구정도 크기에 지나지 않은 듯 했다. 굳이 욕심을 내자면 여기 저기 둘러 볼 곳이 더러 있지만, 오전 내내

『문예운동』으로 중단
동의대 사학과 교수, 국제펜클럽 회원
수필집 : 『산 바다 그리고 친구』

뛰다시피 돌아다니다 보니 이제 피로가 겹쳐 어디든가 주저앉고 싶을 뿐, 다니기조차 귀찮아 지기도 했다.

그런데 앞으로의 일정은 이제 밤 11시에 예약된 기차를 타고 로마로 가는 것이니, 뜻밖에도 지금부터 남은 7시간을 어떻게 보내야 할지 난처한 지경에 이른 것이다. ‘자! 기차시간까지 어떻게 기다린다? 당장 어디 들어가 쉬면서 쌓인 피로를 풀었으면 좋으련만, 도시 마땅한 곳을 찾을 수가 없다. 그 흔한 사우나, 찜질방이며 하다못해 안마시술소나 지하 이발소도 여기에서는 보이지 않는다. 크고 작은 호텔이야 곳곳에 들어서 있으나, 대낮에 혼자서 잠시 들어가 기란 참으로 싱거운 일이 아닌가? 그나마 비용은 또 어떡하고--?’

시간을 때우기 위하여, 몇 차례나 시내 중심가를 싸돌아다닌 끝에 결국은 한낱부터 기차역 대합실 주변을 하릴없이 서성이게 되었으니, 이거 잡자기 처량한 신세가 되어버린 것이다. 우두커니 벤치에 앉아 졸고 있다가 다시 오가는 사람을 구경하고 있는 물골이 스스로 생각해도 처량하기 짝이 없다. ‘이건 분명 계획상의 미스이다.’ ‘머리가 잘 돌아가지 않으면 손 발이 고달픈 법!’ ‘내 어찌 이런 일을 예상하지 못했을까 --’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으니, 아까부터 흘금흘금 보고 있던 노숙자 녀석이 다가올 것 같은 기세다. 얼른 일어나 바깥으로 나와 통나무 의자에 앉아 오가는 전차며 버스 행렬을 또 세어 본다. 앞쪽에서 손님을 기다리던 택시 기사는 근 10여 분 동안 나를 쳐다보고 있다. 심심하던 차에 마침 이상한 동양의 방랑자가 파적거리로 걸려든 눈치다. 이러니 짜증이 난다. 주위의 모든 것이 더욱 귀찮아 진다. ‘저 계집아이는 배꼽 밑으로 팬티 고무줄을 일부러 들어내고 가잖아!’ ‘저쪽 모퉁이 저것들은 누구 약을 올리려고 대낮에 부둥켜안고 저토록 빨고 난리야!’ 열이 올라 냉수를 사다 마셔보니 이진 가스가 짝 찬 광천수가 아닌가! 모든 것이 미워진다.

이제 겨우 7시. 아직 4시간 남았다. 또 한 바퀴 순찰 돌듯 시내를 둘러보다가, 어디 중국집이라도 찾아서 저녁이나 사 먹어야겠다. 무엇보다도 5척 단신 잠시라도 눕히고 싶은 마음 간절하건만 어디 방법이 있어야지-. 그저 나오는 말이란 “바보같이 말이야!-” 하는 자책의 소리뿐이다.

‘집 떠나면 고생이지, 내 어찌다 이런 객고를 자초했을까? 옛날 양반들이야 고작 이웃 고을에 들렀어도 여로에 지친 듯 업살을 떨었고, 그를 맞이한 친지는 객고를 풀어줌이 도리이자 미덕쯤으로 여겨 온갖 신나는 놀음을 찾아 주는 척 하고는 같이 즐겼으니, 객고는 오히려 여흥의 구실이 되었던 셈이다. 사실 진정한 객고는 오늘 이럴 때인데 말이다.’

지금 이 타향만리에서 쌓여가는 나의 객고는 어떻게 감당할까? 풀어 줄 친지가 있을 리 없다. ‘여자친구? 젠장! 말이라도 제대로 통해야 구해 볼 엄두라도 내어보지---.’ ‘아니지, 그 도도하고 쌀쌀맞은 태도만 생각하면 정나미가 떨어져, 지금에야 사귀지해도 마다할란다.’ 이럴 때 집 생각이 나고 고향산천의 그리움이 이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현상이리라. 별로 고을 데도 없는 마누라가 그렇게 아쉬울 수가 없다. ‘역지로 라도 같이 오는 건데---.’

이국의 역전에 밤이 서서히 드리워지고 있다. 등받이도 없는 통나무 벤치에 신발은 벗어 둔 채, 가부좌 틀듯 양반다리를 하고는 멍하니 앉아 허리를 내치고 있는 지금의 내 모양을 아마 마누라는 상상조차 하지 못하고 있을 것이다. “그래! 내 이런 몰골을 당신한테 들키지 않은 것이 얼마나 다행인지 모르겠구려! 일찍이 우리 집, 내 가족의 소중함을 이렇게 사무치게 느껴본 적이 없었다오!” “다음엔 우리 꼭 같이 읍시다!” 이래저래 인스부르크의 외로운 밤이 너무나 더디 간다. **수필시대**

찬란한 산, 바다 그리고 친구

황선영 수필집
문예운동 / 값8,000원



Invitation

| 대표작 초빙 |

본 난은 우리 수필문단 전체를 통해서 왕성한 창작활동을 하고 있는 중견 또는 중진작가들의 연륜과 무게가 실린 대표작이나 주요작품을 초대하여 능란한 창작솜씨를 감상해보고자 신설했다. 한 번 눈여겨 보아주시길 바란다. 작품은 自選자선하도록 했다.

(편집인 註)

꿈나라

김 두 희 doohie@naver.com



인생은 태어나기 이전의 꿈이다. 그렇다면 나는 꿈속에서 산다. 살면서 매일 꾸는 꿈은 꿈속의 꿈이다.

알바트로스(albatross)새처럼 하늘로 훨훨, 이산 저산으로 날아도 보았다. 천하를 삼킬 객기도 부러보고, 뜻하지 않게 할아버지가 황금꽃가마타고 구름을 헤치며 달리는 신기루도 보았다. 이미 떠나신 어머니 아버지 할머니 그리고 누군지도 모를 백발도사, 아니 일찍이 뵈지 못하였던 선조(?)인지도 모를 분들을 만나기도 하였다. 엉뚱하게도 애기부처를 잉태하기도 하고, 또 부처의 手掌發射光수장발사광을 받아보기도 하였다. 때로는 갯벌의 진흙탕에서 작은 용도 잡아보았지. 큰스님을 따라 縮地축지도 해보고 이수라장에서도 유유히 살아 남기도 하였으나 참으로 현실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이야기들이다.

대부분은 새벽녘 꿈이었지만 때로는 백주몽이었고 병에게 발목을 잡혀 저승의 문턱을 헤멜 때이기도 하였다. 그러다가 눈을 번쩍 떴을 때는 침상에서 꾸물거렸기에 경우에 따라 탈기도 하고 또 생기도 났다.

해몽에 따라 좋다고 생각되는 꿈은 남에게 얘기하지 말고 고이 간직하라고

한국불교문인협회장, 경북대학교 명예교수, 안행수필문학회 회장
저서 : 『사랑의 이정표』, 『동짓날의 무지개』, 『매듭이 지워질 때』, 『정사여로』
논단집 : 『달구벌 행림의 메아리』

들었다. 그러면 언젠가는 이루어진다고. 지성이면 감천이라 했던가! 그것은 또 다른 말로 원을 세우고 조용히 기다리며, 할 일을 실천하라는 말과 같다고 생각하였다. 그리고 나쁜 꿈이라 생각되는 것은 깨자마자 바로 이야기하여 산산 조각으로 깨어버리면 악몽이 길몽으로 될 수도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지금까지의 나의 일생 동안에 꾸었던 꿈은 현실로 나타나는 경우가 많았다. 대부분이 비유적이었으나 때로는 어느 사건과 일시가 같은 경우도 있었다. 그래서 때로는 텔레파시로, 때로는 초능력 개념을 도입해보기도 하고 또 靈과의 대화로 생각하기도 하였다. 다만 꿈은 평소에는 이루어질 수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라 아무도 믿지 않는 경우가 많을 뿐이다.

꿈속에서라도 그 만남이 선연이던 악연이든 여기저기 부닥치며 만나는 경우가 많았다. 우리의 만남은 꿈이든 현실이든 어떤 인연의 결과로 볼 때, 지나가는 것, 스쳐 가는 것도, 불똥을 튀기듯 마주치는 것도 모두 끈끈한 인연의 결과라고 본다. 그런 가운데 아무리 만나려 해도 맺히지 못하는 경우가 오히려 많을 것이다. 오랫동안 함께 할 수 있게끔 맺어지는 진정한 만남은 상호간의 눈뜬이요 그 외의 친구는 나의 부름에 대한 응답이라 한다. 그게 꿈이든 현실이든 상관없다. 인연은 인과응보법칙에 의하여 생긴다고 하니 아무리 생각해도 그게 아니라고 부정할 도리가 없다. 고로 인연이 없으면 만나지도 않는 것. 어찌면 모든 만남 자체가 인연에 의한 것이리라 믿어진다. 그러나 가만히 앉아서 좋은 연을 접하지 못한다. 또 꿈은 환경을 비롯한 출현 인물들이 모두 회색으로 나타난다고 하였으나 나는 그 말에 동의하지 않는다. 나의 대부분의 꿈은 천연색 그대로였기 때문이다. 아마 회색의 꿈이었을 때는 오래 남지 않았기 때문인지도 모르겠다.

꿈이란 정말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프로이트(Sigmund Freud)와 융(Carl Gustav Jung)의 꿈의 해석도 서로 다르다. 프로이트는 현실에 일어난 일, 갈망하는 것, 충격적인 것 혹은 자신이 경험한 일 중에 강렬히 남아 있는 이미지가 꿈의 형태로 나타나는 것으로 봤

다. 즉 꿈은 과거 그 사람이 경험했던 일 또는 평소의 생각이나 억압당한 본능과 욕구가 무의식 속에 잠재돼 있다가 꿈에 반영된다는 것이다. 그래서 프로이드는 꿈을 “그 사람의 무의식 세계로 통하는 길”이라고 표현했다. 프로이드에게 꿈의 의미는 한마디로 ‘소원성취’ 였던 것이다. 그러나 융은 이와는 달리 현실적으로 체험하지 않은 것도 꿈으로 나타난다고 보았다. 미래를 내다보는 일은 과거에 체험한 경험과 무관하다는 것이다. 또 그는 민족마다 고유의 잠재의식이 존재하는데 이것이 그 민족 구성원의 꿈에 공통적으로 반영된다고 주장했다. 즉 우리들의 돼지꿈과 회교도의 돼지꿈은 그 의미가 상반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아직 아무도 꿈의 원리를 시원하게 분석하지 못한다. 흔히 꿈에서의 활동무대가 무한대라고 하지만 나의 경험으로는 유한하다고밖에 할 수 없다. 즉 자기가 한번 쯤 생각해본 범위를 넘지 못한다는 것이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 범위를 초월하는 꿈을 이루려는 논리의 비약적 언행이 잦으면 정신 이상자라는 소리를 듣게 될 수도 있는 것이다.

꿈은 허구적 상상이다. 上學(상학)의 문화(文化=마음을 그려내는 것)는 날개를 펴는 학문이라고 하여 아름답다고 표현하고 현실적 건문의 문화를 下學(하학)이라 하여 폄하하는 것은 좋지 않다. 상학이 하학을 저급하다고 하면 하학은 상학을 허구라고 폄하한다. 선과 악은 여기 어디에도 있을 수 있다. 그 처지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을 뿐이다.

수필은 1인칭의 사실표현이라 거짓 없는 역사의 뒷골목 문화(文化=글로 표현)라 해도 될 것이다. 시와 시조 소설 희곡 등도 역시 1인칭의 상상의 문화라 생각해 본다. 그래서 아름답다고 하는지도 모를 일이다. 만약 비평을 하려면 正道(정도)를 찾아 주어야 할 것이다.

그런데 물이 끓으면 수증기가 되어 날아간다. 수필과 시의 차이로 비유해보았다. 인생에 물이 없으면 유지될 수 없다. 그렇다고 수증기가 없어도 되는 것은 더욱 아니다. 수증기는 다시 물이 되어 다른 모습(눈 비 강 바다)으로 돌아온다. 한 사람의 문인(예술인)이 마음먹기에 따라 표현하는 문화(나아가 미술 조각 등)가 다르다. 모래알처럼 흐트러진 마음을 모아 흠선으로 유도하는 문화

가 곧 불교문학이 아닌가 생각된다. 모두가 아름다운 모양의 의사전달인 것. 그래서 直指人心 見性成佛(직지인심 견성성불 (사람의 마음을 바르게 볼 때, 그 마음의 본성이 곧 부처님의 마음)임을 깨닫게 되는지도 모르겠다.

모든 사람은 현실에서 나의 능력으로 할 수 있었던 것은 간단한 자기의 약력에 소개할 수 있었던 것뿐이리라. 그 외의, 보다 이상이 높은 것에 대해서는 모두 꿈 같은 이야기가 된다. 나는 아직도 꿈을 꾸고 있다. 역시 그 외의 것은 꿈에서나 해보았을 뿐이다. 그것도 추억의 한 토막이 될지! 비록 현실로 나타났더라도 꿈과 같은 일이라 역시 꿈속의 꿈이리라. **수필시대**

바닷가 노래방

최충식 시집
문예운동 / 값5,000원

물의 敎訓^{교훈}

金 鶴 來 김학래



「流水不爭先」 흐르는 물은 앞서기를 다투지 않는다는 말이다. 그런데 우리 인간들은 남보다 먼저 가고 앞서 달리기를 지나치게 좋아한다. 자기 앞에 밥그릇을 먼저 놓으려는 부도덕성이 우심한 세상이다. 자동차를 몰고 가는 현상은 어떠한가? 교통법규를 지키고 양보운전하는 미덕이 필요한 거리질서가 중요한 것인 줄을 모르는 운전자는 없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동차의 머리 쳐박기는 얼마든지 볼 수 있다. 줄서기도 못하고 차례 지키기를 외면하는 국민들이다. 옆치기 잘하고 끼어들기의 천재들인 것 같다. 그러면서도 권력 줄서기는 선수들이다.

2002년 대선 때 모 후보가 당선이 유력하다는 예상이 과다할 때 당적을 바꾼 정치인이 한두 명이 아니었다. 마이크 앞에서 기자회견까지 그럴싸하게 하면서 파렴치한 철새 정치인 행세를 한 사람들의 꼬락서니가 우습게 되었으니 인간사회의 앞 다투기는 필경 벌을 받는다는 느낌이다. 기회주의 앞 다투기는 나쁜 것이다. 그렇지만 인간사회의 선의의 경쟁은 필요하다는 생각이다.

물은 흘러가다가 돌 같은 장애물에 부딪치면 아무 불평 없이 돌아서 간다. 충돌을 싫어하는 물의 성질은 진로방해를 한다면서 싸우고 샅대질을 하는 인

목포문협, 전남문협, 영호남수필 회장 역임.
수필집 '산 넘어 남촌에' 외 8권
전라남도문화상, 한국수필문학상 외 다수.

간사회를 비웃을지도 모른다.

물은 흘러가는 길에 낮은 곳이 있을 경우 결코 건너뛸 줄을 모른다. 낮은 곳을 완벽하게 채운 후에 다시 흘러가는 것이다. 평준화정신이다. 말로는 평등이다. 평준화다 하지만 고르지 못한 인간사회에 어떤 경종을 울린다고 보아야 될 것이다. 물은 언제나 낮은 곳을 찾아서 흐른다. 정치를 하는 이들과 권력을 손에 쥔 사람들이나 가진 자들이 저지대를 우선하는 물의 교훈을 높이 사서 못가진 자, 힘이 없는 자, 불우한 사람들을 배려한다면 얼마나 좋겠는가.

물의 특성은 유동성이다. 물은 어떤 형태를 갖지 않는다. 그렇지만 모든 형태를 조성할 수도 있다. 각종 형태의 용기에 물을 채워보자. 만 가지 형태를 조성할 수 있을 것이다. 칼로 물베기란 말이 있다. 흔히들 부부싸움은 칼로 물베기란 말을 한다. 어찌 부부싸움 뿐이리오. 인간사회의 모든 분쟁과 쟁투와 전쟁이 물 베기 성격을 지녀야만 살맛나는 세상일 수 있지 않겠는가? 정치판의 이전투구는 물 베기를 배워야 될 것이다. 인류 역사에 전쟁은 끝이 없는 것 같다. 힘 있는 나라가 힘없는 나라를 침략하고 유린하고 정복하고 그리고서 하는 말인즉, 한 사람을 죽인 자는 살인자요, 천 명 만 명을 죽인 자는 영웅이라 하니 인간들은 이런 점에서 악질인 것 같다.

물의 또 하나의 특징은 순환성이다. 비가 온 후 빗물은 땅속에 스며들기도 하고 바다로 흘러 가기도 하고 강이나 저수지를 채우기도 하지만, 물은 다시 증발 후 하늘로 올라가고 언젠가는 또다시 비가 되어 땅을 적신다. 물질이 결코 없어지지 않는 이치와 같이 지구상의 물은 돌고 도는 것이다.

엎질러진 물이라는 속담이 있다. 한 번 유실하면 다시 거둘 수 없다는 말이다. 실수를 해서는 안 된다는 말일 것이다. 실언을 할 경우 수정할 수도 있고, 실수를 하고 죄를 저지를 경우 개과천선할 수 있지만, 엎지른 물처럼 원상회복이 불가능한 큰 실수를 저질러서는 안 된다는 경고일 것이다.

물은 워낙 약한 것이다. 그렇지만 강한 힘도 있는 것이다. 바닷가의 갯돌이나 강가의 맨들맨들한 돌들을 보라. 그것은 물의 힘으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겠는가? 2002년 여름 영동지방, 중부지방의 대홍수와 김해지방의 엄청난 수해를 상기해보자. 물의 위력이 이렇듯 막강한 것이다. 물은 평소엔 인간들에게

크게 봉사를 하지만 한 번 성을 내면 견잡을 수 없는 것이 물의 심술이다. 어떤 때는 물벼락으로 인간들을 강타하고 어느 해는 또 비를 주지 않아 목이 타도록 하는 것이 물의 조화가 아니던가. 물은 또 무서운 불을 이기고 화마를 잠재우기도 한다. 바닷물도 성을 내면 무섭다. 눈발도 할퀴고 배도 삼키고 인간의 목숨을 앗아가기도 한다. 나이가가라 폭포수의 장관을 상기해 보자. 시위대를 향하여 쏘는 물대포의 위력을 생각해 보자.

옛날부터 통치자의 첫째 임무가 치산치수라고 말하였다. 이 치수를 잘못하기에 과학문명이 크게 발달되었다는 오늘날에도 수해를 이기지 못하여 인재나 천재나 월가월부한다. 인간들은 수마로부터 언제쯤 해방될 것인지? 엘리뇨현상으로 기후도 큰 변덕을 부린다니 아마도 우리 인간들은 수해, 홍수, 수마라는 어휘를 완벽하게 잊을 날이 없을 줄 안다. 물의 위력은 더러워진 세상을 말끔히 씻는 것이다. 세수, 세탁, 세차로부터 황사후의 단비는 온 세상을 깨끗이 청소한다. 오염된 인간들의 마음까지 닦아준다면 얼마나 좋겠는가.

돈을 물 쓰듯 한다는 말이 있다. 서울의 강남에는 어떤 고층아파트가 있는데 아파트 한 채 값이 30억, 34억이라고 한다. 돈을 물 쓰듯 하는 이들이 이런 아파트에 살 것이다. 양주 한 병값에 400만원, 800만원 한다는 신문 기사를 보았다. 기가 치는 세상이다. 하룻밤 술값이 수백만 원씩 된다는 유흥가의 이야기들을 크게 한탄하며 1000원짜리 소주병을 비우는 서민들의 심정 누가 받아줄 것인가? 수백만 원짜리 명크코트를 입는다는 유한마담들도 돈을 물 쓰듯 하는 사람들이다. 불법과외, 예체능 비밀과외비가 한 달 수백만 원이라니 이것도 물 쓰듯 하는 케이스다.

원래는 물과 공기가 공짜였다. 공기 없이는 일 분도 살지 못하고, 물이 없이는 살지 못하는 인간들이 그동안 물과 공기가 너무 흔하고 공짜로 주어지게 고마운 줄을 모르고 살아왔다. 그런데 이제는 우심한 공해로 심각한 시기가 되었다. 20여 년 전 사우디아라비아에서 교사 근무를 하고 돌아온 이의 말을 듣고 좀 의아한 일이 있었다. 한 학교에 물을 지키고 관리하는 직원은 있었지만 기름은 마음대로 쓰라면서 방치했다는 것이었다. 믿기 어려웠는데 우리나라도 이제 물과 공기를 사먹는 시대가 된 것이다. 생수 값과 휘발유 값이 엇

비슷한 것이다. 정수기가 있어야만 안심하고 물을 마실 수 있으니 수도요금 플러스 정수기 값과 생수 구입비 물 값도 비싼 세상 아닌가? 돈을 물 쓰듯 속담도 수정할 때가 된 것이다. 물을 쓰는 양이 문화국민의 척도가 된다는 말이 있지만 물을 많이 쓰는 것을 자랑할 세상은 아닌 것 같다. 빗물을 가두어 두고 쓰는 것이 인간들인데 우리 나라의 경우 90% 이상 바다로 흘러간다고 하니 앞으로는 수자원 사업은 확장되어야 될 줄 안다.

산이 좋고 물이 맑은 나라, 우리 나라인 것 같다. 우리 나라는 산지가 삼분의 이이며 평야는 고작 삼분의 일이라고 말하면서 이 때문에 배고픈 국민이 되었다는 말을 했는데, 이제는 이것이 좋은 생존조건으로 바뀐 것 같다. 식량은 남아돌고 산이 좋으니 물이 맑고 경치가 좋고 얼마나 좋은가.

나는 청년시절 강원도 어느 산골짜기에서 군복무를 하였다. 밤낮없이 흐르는 강가에서 근무를 했던 것이다. 강물이 너무 깨끗하기에 우물물 없이 강물을 마시면서 살았다. 산 좋고 물 맑고 공기 좋은 우리 나라, 복 받은 땅이 아니던가. 천혜의 땅에 살고 있는 우리 국민들이 그 고마움을 분명하게 알고 살아가면 좋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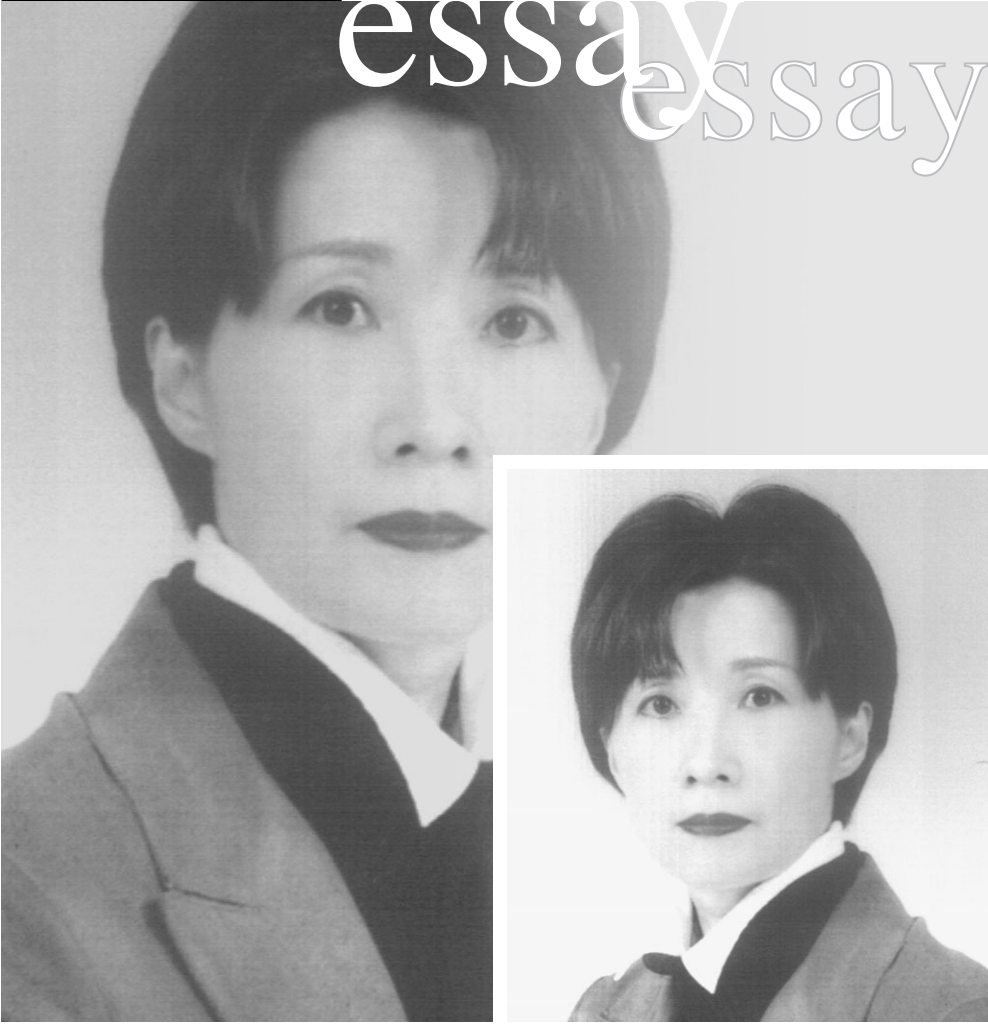
물의 특성인 유동성, 평등성, 순차성, 질서성, 무형성, 세척성, 순환성, 流水不爭先성을 배우면서 물같이 순하고 약하지만 때로는 강한 마음으로 살아갔으면 좋겠다. **수필시대**

꿈은 동그랗다

김령 시집
문예운동 / 값9,000원

연/재/에/세/이

essay essay



연은순

girinyeon@yahoo.com

문학박사, 문학평론가, 문화방송구성작가, <문예운동> 등단, 청주대 강사
캐나다 브리티시 컬럼비아 대학(UBC) 한국학연구소 객원연구원
중앙일보 밴쿠버 지사 문화전문기자

차마 그리운 사람

그리운 산드라,

일요일 아침, 창문을 여니 눈부시게 푸르른 날들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나무들은 힘차게 팔을 벌리고 신록을 향하여 그 고운 꿈을 마냥 펼치고 있고 광활한 산맥들은 여전히 잔설을 머리에 인 채 그 큰 기상을 뿜고 있구요. 지금 제 방에선 당신이 제게 주신 음악이 흘러 나오고 있네요.

제가 좋아할 거라며, 시를 읊조리는 듯한 음악이라며, 영혼을 잠재우는데 도움이 될 거라며 건네준 바로 그 음악입니다. 그 음반 표지에는 음반을 낸 취지를 담아 다음과 같은 글이 적혀 있더군요.

이 음악은 뜻을 함께 한 서부 캐나다 여성들이 모여 구름과 별과 달을 노래하고 창조적인 영감을 주고 받은 자취다. 이것은 크고 화려한 그 어떤 것이 아니라 바로 소박한 꿈의 실현이다. 우리는 인간에 대한 이해를 더 깊게 하고자 그리고 지구라는 별에 대한 애정을 끝없이 간직하고자, 더 나아가 우리네 다양한 삶과 관습들을 함께 나누기 위해 만났다.

참 아름다운 생각이 느껴집니다. 당신도 함께 참여해 불렀다는 참으로 곱고 영롱한 화음들. 제목조차 아침(Morning), 별들의 탄생(Born of a star), 고대의 바다(Ancient seas)가 아니던가요.

처음 듣는 순간부터 제 영혼을 사로잡는 멜로디였습니다. 록키에서 녹음을 했다고 하셨지요? 정녕 록키의 장엄함, 영원한 대자연의 숨결, 인간이 진정 잃지 말아야 할 영혼의 기쁨이 담겨져 있더군요. 하여 마음이 산만할 때나 지극히 사소하고 세속적인 일로 마음 상해 있을 때 당신의 음악은 늘 저의 큰 위안이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별들의 탄생'이란 곡은 압권이었었는데 그 멜로디는 영원히 제 뮤즈가 되리라 생각합니다.

그리운 산드라,

당신이 우리 곁을 떠난 지도 여섯 달이 다 되어 가는군요. 처음 애들을 데리고 유학 와 낫설기 그지없는 이곳, 캐나다 밴쿠버 애들 학교에서 만난 당신. 당신은 우리 진영, 진수의 문학 담당교사였지요.

낯선 것은 매혹적이나 불안한 것이라고 합니다. 제게 처음 다가온 당신의 냉정함, 엄격함은 저를 얼마나 주눅들게 하던지요. 게다가 한국애들에 대해 나쁜 편견까지 갖고 계셨죠.

처음 면담을 신청해 당신을 만났을 때 영어가 짧은 제가 얼마나 긴장했는지 모르시죠. 거기다 당신의 싸늘한 태도라니요. 그때 당신은 한국애들이 지닌 문제점에 대해 적나라하게 그리고 거침없이 토로하시더군요.

'수업 중 교사와 눈맞춤을 기피하는 알 수 없는 태도, 거친 행동거지, 자신의 목표가 무언지도 모르는 납득할 수 없는 태도. '왜 당신네 나라 사람들은 그 비싼 유학비를 그런 애들을 위해 낭비하는가'라며 항의하던 당신. 제가 한국의 엘리트(?)라는 걸 알고 더 조목조목 따지며 얘기했지요. '도대체 당신네 나라 교육은 무엇을 목표로 하는가. 당신네 나라의 지성은 그에 대한 인식도 없이 사느냐...'

당신 말대로 한국 애들의 거친 태도는 이곳 교사들에게는 납득이 가지 않는 것일 수 있습니다. 수업 중 툭툭치며 장난치는 모습, 유교 문화의 영향으로 교사와 눈을 잘 마주치지 않으려는 태도, 혼자가 두려워 늘상 어울려 다니는 모습. 복도에 마구 침을 뱉는 무례한 행위. 물론 모든 애들이 그런 것은 아니었으나 몇몇의 잘못이 현지 교사들에게 그릇된 인식을 심어준 것이지요.

당신을 만나고 난 뒤, 아니 그 자리에서 전 결국 울음을 터뜨리고 말았습니

다. 물론 내 아들을 지칭하여 한 얘기는 아니었으나 캐나다 학교 교사들, 그 중에서도 ESL 담당 교사가 한국 애들에 대해 이처럼 나쁜 편견을 갖고 있다는 사실에 절망한 것이지요. 게다가 캐나다에 온지 얼마 되지 않아 모든 게 불안하고 두렵기만 하던 차였거든요.

며칠 잠을 설치며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이 노릇을 어찌면 좋은가, 싶었던 거지요. 결국 당신과 내가 함께 문학선생이란 생각을 했습니다. 비록 지금은 문화적 장벽으로 오해가 있을지라도 해결점은 있으리라 생각했지요. 당신의 오해를 반드시 풀어 주리라 마음먹었지요.

제가 방문학자로 몸담고 있는 대학(University of British Columbia)에서는 종종 문학행사를 합니다. 한국문학을 알릴 수 있는 세미나도 있지요. 문학이란 무엇이던가요. 곧 그 나라의 삶 혹은 문화, 그 나라의 정체성이 아니던가요.

행사 때마다 당신께 초청장을 보냈고 영어로 번역된 한국 소설을 건네기도 했지요. 그러기를 몇 차례, 당신은 서서히 마음을 풀기 시작하더군요. 학교 복도에서 우연히 마주치면 한국 소설을 처음 읽어 보았는데 문장이 상당히 힘이 있고 인상적이었다, 한국애들이 점점 나아지고 있다며 말을 건넸지요.

그러던 중, 작년 부활절이었던가요. 마침 저를 만나러 밴쿠버에 들른 후배가 인사동에서 사왔다며 작은 종을 가져왔더군요.

한국의 정취가 듬뿍 담긴 것이었지요. 전 부활절을 기해 당신에게 한국의 종소리를 들려주고 싶다며 선물을 했습니다. 그때 ‘난 한국의 문화사절로 여기 와 있다. 당신에게 한국문화를 알리는 건 내 의무다’ 라는 글을 잊지 않고 덧붙였지요. 왜냐하면 당신의 성정으로 보아 불필요하다 싶은 선물은 거절할 것이 분명했기 때문입니다.

가슴 졸이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오해하며 제 선물을 돌려보내면 어쩌나 걱정을 하면서 말입니다. 여기서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다고 하지요. 한국적인 생각으로 선생에게 뭔가 선물을 하면 가차 없이 돌려보내는 일. 심지어는 작은 쿠키를 전해줘도 그런 경우가 있다고 하는군요.

그런데 당신은 선물이 너무 고맙다며 그 답으로 카드를 보내셨죠? 당신이

손수 찍은 사진을 카드로 만들어서요. 퀸 엘리자베스 파크에 만발한 튜립을 배경으로 한 아주 이쁜 카드였습니다.

전 당신이 서서히 마음을 열어 보이는 게 정말 기뻐지요. 보람도 느꼈답니다.

어느 날 당신에게서 편지가 왔더군요. ‘머지 않아 문학 수업시간에 詩사를 다루게 된다. 한국의 시를 한 편 다루고 싶은데 거기에 대해서 아는 바가 없으니 소개를 해 주면 책을 구해 보겠다.’ 전 깜짝 놀랐죠. 당신이 그만큼 한국에 대한 인식을 달리 했다는 말이거든요. 전 마침 며칠 후 오기로 된 남편을 통해 영어로 번역된 한국시집을 당신께 전해 줄 수 있었지요.

며칠 뒤, 학교에서 우연히 마주친 당신이 그러시더군요. ‘시인 이름은 정확히 알 수 없으나 ‘Counting the stars’ 라는 시를 골랐는데 어떠냐 고요. 그 시가 무엇이던가요. 바로 윤동주 선생의 ‘별 헤는 밤’ 이라는 시가 아니던가요.’

그때 전 당신의 시를 보는 안목에 놀랐습니다. 우리 교육과 달리 이곳 캐나다에선 대학만 제대로 나와도 올바른 가치관, 사물을 정확히 꿰뚫는 인식의 눈, 자신의 확고한 철학을 갖게 된다는 말을 수차례 들어온 바 있지요. 그 사실을 확인한 느낌이었습니다.

사실 얼치기 문학평론을 쓰기도 했고 대학에서 문학 강의를 하기도 한 저였으나 우리 나라 인문교육이 얼마나 부실한가를 뼈 저리게 느껴오던 참이었거든요.

우리 나라에서 대학을 나오고도 제대로 시 읽기를 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될 지는 여전히 미지수지요. 어찌 보면 참 불행한 일입니다. 시 읽기는 인문교육의 핵심에 다름 아니라 믿고 있거든요. 이런 생각을 가진 저에게 당신의 시에 대한 정확한 감별력이 눈이 띠는 것은 당연한 일이었지요.

계절이 지나가는 하늘에는
가을로 가득 차 있습니다.

나는 아무 걱정도 없이
가을 속의 별들을 다 셀 듯합니다.

가슴 속에 하나 둘 새겨지는 별을
이제 다 못 헤는 것은
쉬이 아침이 오는 까닭이요,
내일 밤이 남은 까닭이요,
아직 나의 청춘이 다하지 않은 까닭입니다.

별 하나에 추억과
별 하나에 사랑과
별 하나에 쓸쓸함과
별 하나에 시와
별 하나에 어머니, 어머니,

-윤동주, '별헤는 밤' 부분

The autumn fills the sky
where seasons flow.

cafe-free, I think I can count
all the stars in the autumn sky.

But I cannot count all the stars
that come to mind one after another
because the morning will soon come,
because I still have tomorrow night,

because my youth is not yet done.

one star and memory

one star love

one star solitude

one star longing

one star poetry

one star mother, mother

- 'Counting the stars, 별헤는 밤 부분, 고창수 역

결국 이 시는 수업 중 다뤄졌고 학생들은 한국 시를 한 편씩 선정하여 분석해 오라는 과제까지 받게 되었습니다. 그때 학생들이 제게 책을 빌려가기도 하고 시 선정이 제대로 되었는지 물어오던 일들이 떠오르는군요.

산드라, 당신이 수업시간에 한국 학생들에게 '크리스 엄마(우리 큰애의 영어 이름)가 작가이니 프로젝트를 위해 도움을 받으라' 고 하셨는지요?

하여 캐나다 고등학교 수업 시간에 한국의 시가 울려 퍼졌고 한국 학생들은 모국의 시를 숙제로 제출하게 되었지요. 지하에 계신 윤동주 선생께서도 좋아하셨으리라 생각했습니다. 당신의 시심이 저 멀리 밴쿠버까지 전해졌으니 말입니다. 한용운의 '알 수 없어요', 김영랑의 '돌담에 속삭이는 햇살', 유치환의 '바위', 김소월의 '못잊어' 등의 시를 학생들이 선호했던 걸로 기억됩니다. 이때 저의 기쁨이라니요. 아마 당신은 상상도 못하실 겁니다.

이후 당신과 난 스스럼 없는 친구가 되었지요. 우린 연배가 비슷했고 같은 여자였으니 더 친해지기가 수월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당신과 함께 한 추억이 떠오르는군요.

한 학기를 마치고 어느 한국 식당에서 만남을 가진 우리. 한국 음식이 처음이라던 당신. 보리차는 왜 먹는지, 잡채는 어떤 음식이며, 콩나물이며 각종 나물들은 어떻게 요리가 된 것인지를 애들처럼 물어 보셨지요. 특히 잡채를 아

주 좋아하셨구요.

또 당신은 제 박사 논문의 테마였던 미당 서정주 선생의 시를 소개해 달라고 했지요. 한국에서 미당 선생의 입지, 그분의 시, '선덕여왕의 말씀', 한국인의 정서와 유불선의 관계, 한국인의 민족성이 어떠한지, 우리의 역사가 얼마나 파란했는지, 좁은 땅 한국에서의 삶은 얼마나 치열해야 하는지를 설명했던 기억이 납니다.

언젠가 한국을 꼭 가보고 싶었던 당신의 말도 기억나는군요. 당신이 모든 한국 학생들 이름을 기억하며 얼마나 적응을 잘하고 있는지를 설명해 주던 일도 그렇고요. 그리고 머지않아 안식년 휴가를 얻어 학교를 떠난다고 하셨죠. 6개월의 휴가 동안 명상도 하고 봉사 활동도 하고, 록키에 들어가 혼탁해진 영혼도 닦고, 잉카문명과 이집트도 돌아볼 거라고 하셨고요.

그때 참 멋있는 삶을 건강하게 사는구나 생각하며 얼마나 부러워했는지요. 늘 소아적으로 작은 일에 바둥거리며 살아온 나 자신을 돌아보는 계기가 되더군요. 자신의 삶에 당당하고 삶의 질을 추구하며 사는 모습을 보게 되니 왜 안 그랬겠습니까. 세상사나 다른 이들의 삶은 늘상 제 스승에 다름 아니었거든요.

얼마 전 한국 드라마 '상도' 를 본 적이 있습니다. '장사란, 돈이나 이문을 남기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남기는 일이다' 라는 좋은 말이 나오더군요. 결국 우리네 인생도 사람의 숲에서 참다운 사람을 만나고 가는 과정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더군요. 참 사람과의 만남, 얼마나 아름다운 일이던가요. 바람 거세고 출기가 그지 없는 이 세상 속에서 말입니다.

긴 여름 방학을 마치고 만난 당신의 더할 나위 없이 평온하던 얼굴을 기억합니다. 진정한 내면의 평화와 사랑을 가진 사람은 그 몸짓이나 표정에서 파악할 수 있게 마련이거든요. 한국 학생들, 더 나아가 모든 유학생들에게 따사로운 모성으로 자리한 당신의 모습 정말 보기 좋았습니다. 새 학기를 맞아 제가 애들 학교 도서관에 영어로 번역된 한국 도서를 수십 권 기증하자 감격해하던 당신의 모습이 떠오릅니다. 그때 당신은 거의 울어 버릴 듯 싶더군요. 전 그 어느 때보다 행복했지요.

그리운 산드라,

어느덧 애들과 이곳에 온 지도 두 해가 돼 가고 있습니다. 지난 추운 연말, 당신이 카드와 함께 보낸 초콜릿이 떠오르는군요. 그 초콜릿은 당신 동생이 손수 만든 것이라고 하셨지요? 당신이 안식년을 떠나며 보낸 선물이었는데 함께 적어 보낸 글귀가 어찌나 따스하게 다가오던지 절 눈물짓게 했지요. 몸과 마음이 춥기 한량없던 이역에서의 연말, 정말 큰 위안이었습니다. 그 기억은 오랫동안 제 마음속에 모닥불로 피어 오를 것입니다.

사랑하는 앤소니, 크리스 그리고 은순에게
당신 가족을 알게 된 것
그리고 크리스와 앤소니가 캐나다 생활을 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 것은 정녕 제 기쁨이었습니다.
당신 모두의 행운을 빕니다.
이 초콜릿은 내 동생의 가게에서 직접 만든 것입니다.
모쪼록 찬 곳에 두고 드시기 바랍니다.

-산드라 마샬 드림

당신이 제 곁에 없는 지금, 당신의 음악을 들으며 당신을 떠올립니다. 지금은 무얼하고 계실까 생각해 봅니다. 록키에서 명상을 하고 계실까, 아름다운 음악을 위해 마음을 갈고 닦고 계실까. 잉카문명을 돌아보고 계시려나, 당신의 모습은 얼마나 해말장게 변했을까...

정녕 당신은 제 삶에 큰 풍요를 주셨습니다. 캐나다에서의 생활을 따뜻하게 해주셨구요. 당신과의 추억 소중하게 간직하겠습니다. 물론 다시 만날 날을 꿈꿀 것이구요.

푸르른 오월에
캐나다 브리티쉬 컬럼비아 주립대, 한국학 연구소에서
당신의 은순 드림

수필시대

연/재/에/세/이

essay essay



안옥수

atiger34@hanmail.net

미국 북 텍사스 주립대학교, 교육학석사, 철학박사
충남대학교, 인천대학교 교수 역임, 현 인천대학교 명예교수
한국문인협회 회원, 국제PEN클럽한국본부 회원, 창작문인회 회원
수필집 <한낮의 행복>

명상의 자리- ①

1950년 여름의 혼돈

1950년 4월, 나는 S여자대학교에 입학했다. 한 학기 등록금과 기숙사비를 완납함으로써 꿈에도 그리던 서울 유학 생활이 시작되었다. 열심히 공부하리라 마음을 다져먹었다.

기숙사에서 학교, 학교에서 기숙사로 맴돌던 생활도 한 달이 지나면서 저녁 식사 후에 효창공원에 나가 산책하는 여유가 생겼다. 김구주석 묘 앞에 매일 밤 서 있던 한 젊은이의 허탈해 보이던 뒷모습이 지금도 뇌리에서 사라지지 않는다.

6월 25일은 일요일, 기숙사의 1학년생 몇 명이 한강 구경을 갔다. 당시의 한강은 뱃놀이도 하고, 수영도 하던 시절이라 백사장에 사람이 많았다. 도착했을 때 마이크에서 큰 소리가 울렸다. 휴가중인 국군 장병은 원대 복귀하라는 것이다. 계속 울리건만 놀러 나온 사람들은 별 요동이 없었다.

그 무렵 웅진반도에서 인민군과 충돌이 있다는 기사는 신문에서 보았지만 서울이 전쟁터가 된다는 것은 꿈에도 상상해본 적이 없다. 정부는 늘 북진통일을 주창하면서 대동강에서 점심 먹고 압록강에서 저녁 먹는다고 장담했다.

26일, 월요일, 학교는 평상시와 같았다. 첫 시간은 공통 필수과목인 윤리학이다. 가정과, 문과, 이과가 모두 계단교실에서 합동수업을 하는 날이다. 강의가 한참 진행되는 데 갑자기 비행기소리와 기총 사격 소리가 요란하게 들렸다. 본능적으로 책상 밑으로 들어갔다. 비행기 소리가 사라진 뒤에 책상 밑에

서 나와보니 교수가 교탁에 퍼놓았던 강의노트를 덮고 나갈 준비를 하고 있었다. 그 때 “저는 순천에서 온 학생입니다. 우리는 여·순 반란사건 당시 총알이 이 쪽 문에서 들어와 저 쪽 문으로 나갈 때도 수업을 했습니다.”고 하는 날카로운 소리가 들렸다. 학생들의 눈길은 교단에서 있는 교수 쪽으로 쏠렸다. 교수는 덮었던 노트를 다시 펴고 강의를 계속했다. 1,2교시 윤리학 강의가 끝나고 복도로 나갔을 때 이유도 기한도 기재되지 않은 ‘임시 휴강’이라는 쪽지가 게시판에 붙어있었다.

그날 저녁, 고향에서 같이 올라온 친구, H가 내 방에 찾아와 문을 열고 고개를 들어 밀면서 아버지가 지금 다녀가라고 한다는 비서의 전화를 받았다고 했다. “갔다 올게.” 하고 빈손을 급히 흔들며 나갔다. 그녀는 고향 국회의원 딸이다. 그 밤에 그렇게 급히 간 이유를 그녀도 몰랐고 나도 몰랐다. 그 후 그 친구는 영영 기숙사로 돌아오지 않았다.

27일, 화요일 아침, 행여 강의가 있을까 싶어 학교에 갔다. 어수선한 분위기다. 다시 기숙사로 왔을 때 개성에서 온 학생들이 사감선생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고향으로 떠나는 것을 보았다.

38선이 개성시가지를 남과 북으로 갈라놓았기 때문에 창문에서 이복 병사들의 모습을 볼 수 있었다고 한다. 그래서 그들은 누구보다 먼저 전쟁을 실감했는지도 모른다. 나도 고향으로 가야할 것 같은 생각이 들어 집으로 가겠다고 했더니 사감선생은 허락하지 않았다. 국군이 북진 중이니 집에 가도 바로 올라오게 될 것이란다. 개성 학생들처럼 고집스럽게 떠나겠다고 주장을 못한 것은 신입생이어서 사감선생의 말을 따라야 한다는 것도 있었지만 그 보다 상황판단을 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오후가 되자 기숙사 방 유리창이 따르르 진동하기 시작했다. 그래도 그 진동의 의미를 깨닫지 못했다. 점점 유리창의 진동수가 늘어갔다.

사위에 어둠이 깔렸다. 전황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곳은 사감선생 방에서 흘러나오는 라디오 방송 뿐이었다. M여류시인의 시 낭송과 음악이 흘러다. 한없이 평화로운 방송국이다.

깜깜한 하늘에서 번갯불이 번쩍 창문을 통해 들어오고 이어서 천둥소리가

요란하더니 장대비가 주룩주룩 내리기 시작했다. 그 날 밤은 사감선생의 점호도 없었다. 학생들은 불안하면 사감선생 방으로 가서 음악 한 곡 듣거나 시 한편 듣고 방으로 돌아가곤 했다. 그 밤, 자리를 펴고 자는 학생은 없었다. 자정이 가까웠다. 다시 사감선생 방으로 갔을 때, 평화롭게 음악이 흐르던 방송이 “찌익, 찌익” 소리를 내고 멈추었다. 서로 얼굴을 바라다보는 순간 “여기는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서울방송국입니다.” 하는 소리가 튀어나왔다. 그 소리에 모두 놀랐지만 가장 놀라고 당황한 사람은 사감선생이었던 것 같다. 얼굴 빛이 변하더니 볼에 얽은 경련이 스쳐갔다.

자정에 전 기숙사생 집합 명령이 내렸다. 모인 학생 수는 120여 명. 사감선생이 한 말은 두 가지. 첫째는 정부가 바뀌었으니 기숙사생을 책임질 수 없으므로 학생들 원하는 대로 하라는 것이다. 갈 사람은 가고 자기를 따를 사람은 따르라고 한다. 둘째는 자기를 따를 사람은 방으로 돌아가서 가장 귀중한 것만 가지고 다시 집합하라는 것이다.

대여섯 시간 전에 기숙사생들에게 선택의 자유가 주어졌더라면 모두 자유의지에 따라 행동을 했겠지만 억수같이 내리는 비, 포성과 천둥이 뒤섞인 캄캄한 밤에 자유를 행사할 수는 없었다. 행사할 수 없는 자유는 자유일 수가 없었다. 그렇다면 가장 귀중한 것을 챙겨 가지고 다시 사감선생 곁으로 가야 하는데 그 순간 무엇이 가장 귀중한 것인지 떠오르지 않았다. 방에서 한참 두리번거렸다. 내 소유물은 모두가 새 것, 공습하거나 포탄이 날면 이불이 필요할까? 교복? 새 구두? 만년필? 일기장? 학기말 고사를 위해 잘 정리해놓은 공책?... 결국 가방에 넣어 가지고 간 것은 몇 장의 지폐와 세수 수건과 손수건뿐이었다.

비를 맞으며 앞사람 뒤통수를 놓칠세라 따라간 곳은 대학 본관 지하실, 석탄창고였다. 칙흑 같은 밤, 공포에 질려 몰이쉬는 숨소리만이 어둠 속에 100여 명의 학생이 뭉쳐있다는 것을 체감할 수 있었다. 손목에 시계가 있어도 시간은 알 수 없다. 보이지 않기 때문에. 불안과 답답함이 뭉쳐 숨이 막힐 지경이었다. 그 때 어둠 속에서 떨리는 목소리가 들렸다. “야광 시계구나?” 그 후부터는 몇 시냐고 묻는 소리가 이 구석 저 구석에서 떨고 있었다. 새벽 두 시

라는 소리를 들은 지 얼마가 지났을까? 갑자기 천지가 진동하는 폭발음이 났다. 학생들은 서로를 껴안았다. 폭음은 건물 밖에서 난 것이었다. 지친 몸으로 서로 껴안은 팔을 풀고 있는 데 갑자기 교정으로 들어오는 차 소리가 들렸다. 살았다는 안도의 숨도 제대로 쉬지 못하고 다시 떨기 시작했다. 그 때 사감선생이 밖에 나갔다 오더니 걱정 말라고 했다. 학교 차가 정부당국에 징발되어 남으로 가는데 너무 혼잡해서 빨리 달리지 못하고 꼬리에 꼬리를 물고 늘어섰다가 갑자기 앞에서 폭발음이 들렸다는 것이다. 폭발한 곳 가까이 있던 차들은 한강으로 꼬리를 물고 빠지는 데, 다행히 학교 차는 폭파지점에서 멀리 떨어져 있었기 때문에 되돌아 왔다는 것이다.

28일, 새벽 석탄가루로 얼룩진 얼굴로 지하실에서 나와 기숙사로 돌아왔다. 몹시 배가 고프고 졸음이 왔다. 전쟁 속에서도 먹어야 하고 자야 하나보다. 식후에 상급생 언니와 손을 잡고 갈월동 굴다리를 지나 전차 길까지 걸었다. 인도에 사람들이 벽을 쌓고 서서 차도를 향해 무어라 외치면서 박수를 치고 있었다. 우리도 사람들 사이에 끼어 차도를 바라봤다. 쇠뿔치로 된 무지막지하게 생긴 전차가 줄을 지어 들어오고, 6월의 달궈진 아스팔트는 파이고 있었다. 옆 사람들을 보니 붉은 천 쪽을 가슴에 달고 있었다. 너무도 낯설었다. 그 전날 국군의 연습용 전차가 일선으로 떠날 때 시민들은 손에 태극기를 흔들며 환송했다. 이 사람들과 그 사람들은 같은 사람들일까? 아니면 다른 사람들일까? 우리는 서울역을 향해 걸었다. 가슴에 태극기를 덮은 병사가 따가운 햇볕에 텅텅 부어 누워있다. 미처 전사자의 시체를 치우지 못했나보다. 서대문 쪽에서 사람을 가득 실은 트럭이 질주해 오더니 우리의 가시거리에서 뒤집혔다. 사람들은 피투성이가 되어 아스팔트 위에 굴렀다.

29일 아침 인민군 장교가 찾아와 기숙사를 접수하겠다고 했다. 사감선생은 이 학생들은 서울에 연고가 없는 지방학생들이니 기숙사 일부를 사용하게 해 달라고 애원했다. 대답은 한마디, 인민군은 여성동무와 같은 숙소를 쓰지 않는다는 것이다. 인민군의 '도덕성' 때문에 기숙사생들 특히 일학년생들은 서울 지리도 모르고, 한강이 끊겨 남쪽으로 발길을 옮길 수도 없는 데 자유로운 삶을 강요당했다. 잘 곳도 먹을 것도 없는 자유다. 혼돈의 세계다. **수필시대**

개심사에 가다 만난 미소

-서산마애삼존불

개심사는 가야산에 있다.

차령산맥에 깔라진 한 줄기 산맥이 뻗어 서산과 예산 사이를 달리다가 서해를 보고 놀라 급히 멈춰버린 산이다.

어릴 적 원죽 길에 보았던 개심사의 겹벚꽃과 무서웠던 삼신각을 회상하며 우리는 아침 일찍 서울을 출발했다. 막 장마가 갠 뒷날이라 맑기가 가을 날씨 같은 하늘, 그런 여름날에 아산만 서해대교를 건너는 상쾌함은 서해고속도로에서만이 가질 수 있는 드라이브의 낭만이다. 휴게소의 커피는 맛보다는 멋이 더 있고, 바다를 향해 심호흡으로 부푼 가슴을 달래고 차에 오르니 동행한 아내의 눈짓은 빨리 출발하라고 재촉한다.

개심사 가는 길은 운산읍 사거리에서 삼화목장으로 가는 좌측으로 들어선다. 산이 있고 들이 있는 소박한 길이 흐르듯 뻗어 있어, 그 길을 따라 달리다 보면 어느새 마음이 편안해지고 유순한 이 마을 사람들의 인심을 느끼듯 너그러워진다.

내가 용현리로 급히 핸들을 꺾은 것은 이정표를 보고서이다. 머뭇거리다가



윤주홍 가정의학과 의원 원장
국제펜클럽 회원
한국문인협회 회원
수필집 『고구려의 자존심』 외 다수
펜 문학상 수상 등

개심사로 가는 길을 잠깐 제쳐두고 마애삼존불과 보원사지로 가는 산길로 접어들었다. 흐릿한 산천이 깊지도 않고 험하지도 않지만 큰절이 있었을 가야산의 성격을 드러내는 범상치 않은 계곡이라서 마음에 든다. 경계를 두리번거리며 한 구비를 돌아서자 예상치 못했던 맑은 물이 넘실거리는 고풍저수지가 우리를 맞이한다. 차창을 연다. 물을 딛고 불어온 가야산 골바람이 시원한데 백로 한 마리 호수 위를 날고 물가 저쪽에 두엇 낚시를 던진 사람들이 한가롭다. 이 저수지의 호변풍경이 인도하는 길을 한동안 따라간다.

언덕을 넘고 능선을 따라 얼마를 가다 보면 돌 더미 위에 장승이 서 있다. 전국적으로 보기 드문 미륵보살형 석 장승으로 원래는 골짜기 입구에 있었는데 홍수로 피해를 입어 이곳으로 옮겼다는 마을 사람들의 설명이다.

그 앞을 지나면 산굽이, 굽이를 돌아들면서 계곡은 좁아지고 길도 겨우 차가 지나칠 정도이다. 개울 맞은편 산은 단애를 이루고 숲이 우거진 산록은 급경사진 아름다운 경관이다. 개울물 소리 들으며 차를 천천히 몰다 보면 집 몇 가구와 좁은 주차장이 있고 맞은편 산으로 오르는 다리가 보인다.

다리를 건너 지형 따라 벼랑 아래 돌계단을 숨 가쁘게 오르니 절 마당이다. 여간가 싶어 두리번거리는 나를 화살표를 다시 낭떠러지 아래로 몰아낸다. 그 바로 발길 아래 맞은편에 노송을 이고 있어 한 폭의 그림 같은 작은 巖峯암봉과 마주친다. 그 바위에 붙여 지은 전각의 문은 잠겨 있다. 저만치 웅달샘 물로 지친 숨을 고르고 땀을 씻는데 차림새가 관리인 듯한 이가 문을 열며 전실에 비질을 한다.

까다로운 절치는 없으나 만나기가 쉽지 않은 보물 마애삼존불, 전각의 문은 열리고 드디어 그 앞에 선다. 그늘진 전각 속 암벽에 새겨진 돌부처는 인상이 온화하여 체구가 당당한 마음씨 좋은 이웃 아저씨 같다.

백제 말 6세기 중엽의 작품으로 추정되며 중앙에 석가여래입상, 오른쪽에 협시보살상, 왼쪽에 반가사유상, 그래서 삼존불이라 이름하는 이들의 웃음은 백제의 불상 중에 가장 뛰어난 것이라 한다.

1959년에 발견되었고 65년에 이 전각을 지었으며 이 불상은 햇빛이 비치는

방향에 따라 미소짓는 모습이 각각 달라서 ‘백제의 미소’ 를 대표하는 유명한 마애불 중 하나라고 설명한 안내자는 옆에 있는 실내등을 들어 여래불상을 비춘다.

비치는 방향에 따라 잔잔하면서 순진한 웃음으로, 근엄하면서 포용력 있는 가슴 넓은, 호쾌한 웃음을 웃는 석가여래를 바라본다.

아! 저 파안대소가 금방이라도 터져 나올 듯 입술은 아직 열리지 않은 순간의 미소에 매료된 나는 천년 전 백제인의 웃음 속으로 빨려 들어간다.

둥글고 평퍼짐한 얼굴에 내 얼굴을 겹쳐 따라 웃어보면, 부처의 얼굴은 빛에 따라 살아 움직이고, 두터운 듯 분명한 선으로 깎인 눈가풀과, 초승달 같은 눈썹 아래 은행 모양으로 뜨고 있는 눈이 금세 깜박거릴 것만 같다. 얼굴에 알맞게 돌아나 있는 광대뼈와, 우뚝 솟은 코에 눈웃음이 흘러 원반형으로 입술이 열리 듯 말 듯 짓는 미소에 반해버렸다. 아! 깎은 이의 신심 깊은 숨씨에 감복하며 한 발자국 더 다가선다.

깊은 인연으로 오래 전에 만났어야 할 허물없는 지인처럼 “안녕하세요, 저예요” 인사 건네야 할 사람과 마주서서 천년의 안후를 말할 때, 장승이 되어 떠날 줄을 모르는 나에게 개심사를 재촉하며 웃기를 잡아끄는 여인은 아내였다.

천년을 웃으며 기다려준 백제인을 한번 덥씩 안고 싶은 충동을 억제하며 작별의 미소를 던졌다. 그 석가상의 웃음에 마음을 빼앗겨 오른쪽에 협시보살과 왼쪽 반가사유상에게 아는 척 못한 것을 시뭇 미안해하며 돌아서려는 데 “서울서 오셨유?” 말을 건네는 노인이 마애불상 위에 물 흐른 흔적을 가리키며 “저 마애불은 1년에 두 번씩 목욕을 하지만 언제 어떻게 하는지는 아무도 모른다.”고 한다.

그리고 훼손된 마애삼불의 코들을 보라며 “부처의 코를 갈아먹으면 아들을 낳는다.”는 속설 때문에 당하는 더 이상의 수모를 막기 위하여 저 전각을 만들었다고 귀뜸을 한다. 온전한 백제의 웃음을 보기 위하여 자연의 햇빛을 비치도록 전각을 철거하지는 사람들도 있다고 한다.

미증유의 이 완전한 미소는, 새겨진 바위로부터 시공을 넘어 오늘도 살아

있어 사람의 마음 가늠 길 없구나. 神工산공이 미소를 쏘는 징 소리 들리는 듯 한데, 사뭇 가슴이 뛰는 연유는 백제인이 금방 꺾걸 웃으며 걸어 나올 것만 같아서이다.

흥분한 가슴을 애써 진정하면서 개심사로 가는 길에 얻은 감동을 내가 시는 동안 잊을 수 있을까? 백미리에까지 비쳐 나를 놀라게 하던 백제인의 미소가 지금도 눈에 삼삼하다.

대필한 연애편지

처음부터 인생의 뜻을 문학에 두고 닦아 온 길은 아니다. 되돌아 갈 수 없는 깊숙한 문학의 숲으로 발을 들여놓은 현 상황이 반드시 나의 의지와 똑 같다고 말할 수는 없다. 대학의 문과를 수학하게 된 것도 꼭 문학이 죽고 싶을 정도로 그리워서보다는 솔직히 그 시대의 긴박한 주변사향을 회피하기 위하여 입학된 곳이 국어국문과였고, 의과대학에 재입학하기까지 폐결핵을 치유하기 위하여 방황하기 8년 간을 글을 쓰지 않은 것을 자신도 의아해 한다.

다행이 늦게나마 문학 동산에 들어서게 된 것은 무엇보다도 우리 할머니의 덕이 크다. 어려서 춘향전, 사씨남정기(필사본), 홍길동전, 흥부전, 장화홍련전 등 옛날 이야기책을 마을 할머니들 앞에서 읽히고 손자의 기특함을 자랑하기 위하여 국문을 일찍 깨우쳐 주신 것이다.

한때 문학 소년소녀가 아니었던 사람이 있을까 마는, 중학에 들면서 형님들의 책 심부름을 하다가 몰래 읽어본 소설들이 나의 문학 수업에 간과하지 못할 영향이 크다.

그러나 무어니 해도 글 쓰는 연습을 시킨 것은 편지의 대독 대필이다.

“학생 학교에서 왔나...?” 이웃집 아주머니가 군에 간 아들에게서 기별이 왔다며 숨찬 가슴 앞섰에서 한 달도 넘은 日附印일부인이 찍힌 군사우편봉투를 내어놓는다. 궁금하니 지체 말고 대독을 재촉하는 눈빛이다. “어머님 안녕하

십니까?” 안부 그 한 마디에 벌써 눈물을 글썽이며 “어미 걱정 말고, 약혼녀도 잘 있으니 군 복무 열심히 하라...” 답장까지 써 달라는 애절한 부탁을 뿌리칠 수 없는 것이 아닌가. “막내야 통학 길에 읍내우체국에 들려서 부처까지 드리러” 어머니의 참견하신 말씀 때문에 5리를 돌아야 했던 때도 있다. 이러한 작은 지식을 나누는 풍습이야 우리 나라 어느 시대서나 볼 수 있었던 양속 아니었던가

한 여름날이다. 하교길에 기껏 친구들끼리 방죽에서 수영을 약속한 날이라 부지런히 집에 왔다. 그런데 땡나무집 할아버지가 불편한 몸을 지팡이에 의지하고 내려와 기다리고 계셨다. 강원도 정선에 별목하러간 손자에게 웬만하면 한 번 다녀가라는 편지를 써 달라며 묶은 편지 봉투를 내미는 것이었다. 방죽놀이 약속을 못 지켜 속상해 하고 있는 것을 보신 어머니는 “오죽 답답하면 그러시겠느냐.” 나를 달래신다.

하지만 그들의 손자 그리고 아들 동생 남편에게 하고 싶었던 사연이 비록 대필이지만 “어떻게 그렇게 내 마음 속에 들어갔다 나온 것 같으냐.” 공감하며 만족해하는 순진한 모습에서 어린 마음에도 보람을 느꼈다.

그래서 지금도 글이란 내 간절한 마음을 담아 남에게 전하고 그들이 하고 싶었던 응어리진 마음을 시원하게 풀어 주는 것이라 생각했다.

파랗게 짙은 다알리아 뿌리를 내밀며 “이것 심어봐 꽃이 아주 좋아”라며 어느 봄날 동급생이 찾아왔다. 나보다 나이가 많고 쾌활한 성격이다. 뜻밖에 “나 편지 좀 써주라. 너 글 잘 쓰자나...” 하며 얼굴이 붉어진다. 나도 어리둥절했다. “야! 어떻게 연애편지를 남이 대신 써줄 수 있니?” 그래도 친구는 거듭 조른다.

망설였지만 나는 설레이는 가슴으로 하룻밤을 새워서 친구의 연애편지를 썼다. 그는 감격하며 “너 정말 잘 쓰는구나!” 흡족한 웃음이 입가에서 떠나지 않는다. 그러나 공연히 가슴이 두근거리고 얼굴이 달아오른다. 일손이 잡히지 않는다. 무엇인가 큰일을 저지른 것만 같다. 며칠을 안정을 차리지 못한 것은 내 순정을 뺏긴 것만 같아서다. 나는 처음 나 때문에 눈물을 흘렸다.

며칠 후다. 친구가 달려왔다. “편지가 반송되어 왔어!” 그는 실망했다. “야!

참 뜯어만 봤으면 되는데...” 아쉬워하며 다시 써 달란다. 그리고 반송한 편지도 함께 넣어 갔다. 얼마 후 친구는 또 쫓아왔다. 그 여학생이 직접 받은 것은 사실인데 아무런 소식이 없다는 것이다. 그러니 또 한 번 보내지는 것이다. 그러기를 수차례 편지를 쓰는 순간에는 내가 연애하는 것으로 착각할 정도였다. 그들은 성공하여 교육계에 기여하며 다복한 가정을 이루고 있다.

문학이 그러하듯 우리는 메시지의 전달자이다. 지금도 남들이 공감할 수 없는 나의 애정을 연인에게 전달하는 수단을 곧 문학이라는 양식을 빌리고 있다.

두고 온 旅心^{여심}

굳이 배낭을 메고 구두끈을 조이고 떠나는 길만이 여행은 아니다.

여심은 인생여정 속에 깃들여있는 격조 높은 낭만이며, 여행이란 그 누구에게나 잠재되어 있는 驛馬氣^{역마기}의 중심에 있는 旅心^{여심}의 발산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 여심은 삶이 있는 한 평생을 동반하여 떠나기를 부추기기도 하고 때로는 머물기도 하는 본성을 가진다. 그래서 인생을 나그네라고 자처하는 지도 모르겠다.

인간이 사는 이치를 깊이 관조하는 철인들이나 성인들도 인생은 끊임없이 멀고 험한 길을 가는 길손이라 정의한다. 그리고 무겁고 힘겨운 짐을 지고 가는 길손들에게 보다 가볍게 가는 길을 가르쳐 주고 있다. 이것이 진리요 道도라 외치며 따르라고 한다. 이런 것을 보면 틀림없이 인생이란 길을 가는 나그네인 것만은 부정할 수가 없는 사실이다.

역마기는 알파와 오메가 즉 순간에서 영원까지의 時空^{시공}사공을 흐르며 역사를 浮彫^{부조}부조한다. 여심도 마찬가지다. 한강의 갈래 물줄기인 탄천이 큰 강에 유입 되면 그 몫을 다 한다. 이렇듯 유한한 인간의 여로도 세월에 동화되기까지만 그 이름을 유지할 따름이다. 따라서 인생이 나서부터 평생을 旅路人^{여로인}으로

견다가 세월의 갈피 속에 묻히는 그 시점에서 우리는 끝이 나는 것이다.

그러기에 어느 시인은 인생을 “구름에 달 가듯 가는 나그네”라 노래하지 않았던가. 인생은 지는 해거름 저녁연기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남도 삼백리길에 旅心(여심을) 따라 쫓기듯 걸어가는 나그네의 심정과 같아야 할 것이다.

그런 나그네에게 여심을 부추기는 유혹의 초청장이 부지런히 날아온다. 그럴 때마다 나는 떠나고 싶은 것이다. 일상의 속박에서 탈출하고 싶은 것이다. 그러나 그러지 못하는 주변과 용기를 자탄하면서 어느 여행길에 올랐다가 두고 온 여심을 반추하며 灰心(회심)을 한다.

지방신문사의 도움으로 중국 황산을 계획했다가 갑자기 뒤로 미루고 長江三峽(장강삼협)으로 그 행선지를 바꾸었다. 이유는 삼협댐이 완공되면 수몰될 중국 제일의 장강의 秘景(비경)을 눈에 담이두지는 의견들이 합치되었기 때문이다. 지금 생각해도 참 잘한 여행이었다.

천리장강이 도도히 흐르고 구비마다 휘어져 막혔나하면 다시 휘돌아 배는 낭만의 고동을 울리고 마주 오는 유람선을 비키면 더 큰 앞산이 가슴에 바짝 다가와 협곡을 이룬다. 또 마치 살아있는 웅장한 중국화의 진본 속을 내가 살고 있는 듯한 착각이 아닌 것은 강가 잔나비가 나무 가지에 매달려 분주히 재주를 넘기 때문이다. 이것이 선경이 아니고 어테이랴!

장강삼협의 지류 小三峽(소삼협)은 협곡이 좁아 팔을 펼치면 손이 닿을 듯 아슬아슬하다. 아기자기하기가 筆致(필치)좋은 畫仙(화선)의 筆運(필운)이 산뜻하게 그려낸 산수화 병풍이다. 그 흐르는 셋강에 배를 띄웠으니 내가 그림인가 소삼협이 병풍인가 분간하기 어려울 만치 선경의 운치를 더 한다.

어느새 소삼협이 합류하여 천리장강으로 빠져드니 여심도 함께 흐르고, 선상 난간에 기댄 채 흐르는 강심에 빠져 나를 잊고 있노라니 어데서 날아왔나 낮익은 나비 한 마리 반기며 옷깃에 앉는다. 此岸(차안)에서 彼岸(파안)으로 가는 어간이 버거워 잠깐 쉬었다 가려는가? ‘어! 나비가...’ 가슴에서 반가워 외친 소리를 들었는지 잠깐 날개를 폼다 다시 앉는다. 그러나 장강바람은 나비의 갈 길을 재촉하듯 흔들어 훅! 불어 날려 보낸다. 아쉬운 심정으로 손을 들어

배웅은 하면서도 넓은 강폭이 근심스럽다.

중국의 대 명승지 張家界장가계의 아름다운 풍광과 寶鳳湖보봉호의 청정한 水
景수경에도 아! 감탄사를 쏟아 놓았을 뿐 마음을 주지는 않았다. 그러나 장강삼
협의 瞿塘峽구당협선상에서 맞던 日出일출의 감동은 여심을 빼앗기에 넉넉하였
다. 이렇게 두고 온 여심을 따라 回想회상의 날개를 펴 간신히 여행의 유혹을
극복한다. **수필시대**

늦각이의 낙서 · 4

민기식 수필집

문예운동 / 값7,000원

우리에겐 블랙박스가 없다

임창현 시집

문예운동 / 값6,000원



풀뿌리 민주주의

· 강 천 형 ·

새봄과 함께 5.31 지방선거가 한참 거론되고 있다. 선거가 있어야 민주주의가 발전한다. 더구나 지방자치단체의 선거는 민주주의의 기초이다. 지방의 축제이다. 이 봄날, 이런 축제가 있어야 삶이 풍요롭고 즐겁다.

축제에는 따르는 비용과 희생도 만만찮다.

이번 지방자치단체의 선거에서도 선거에 따르는 부작용이 만만치 않을 것이라 예상되지만 그간에 성장된 우리의 민주역량이 이를 최소화 하리라 믿는다.

나는 여기에서 부정적 요소보다 긍정적 측면에서 몇가지 바람을 요망하여 우리의 풀뿌리 민주주의가 성장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한다.



수필가
〈시와 수필사〉 대표
개림 중학교 교장 정년

사실 선거라는 괴물은 연령, 인격, 학식, 경륜, 납세 등 이 모든 개인적 역량을 초월하여 모두다 하나라는 전제하에 평등으로 이루어지는 선택이다. 그런데 이를 하나로 묶을 수 있는 것이 무엇이나!

그것은 다름아닌 그시대 그 상황에 맞는 공통적 관심이다. 이 시대 우리나라 현실에서 알맞은 공공의 관심이 무엇인가! 도시와 농촌, 그리고 세대간에 차이가 있겠지만 그래도 공동의 관심은 '정신적으로 물질적으로 잘살아 보자'는 데에 있을 것이다. 추상적으로 '잘살아 보자'라는 과제에 우리 모두의 관심을 실천하는 방법에도 여러 가지가 있겠으며, 누가 이를 잘 실천할 수 있을 까로 모아질 수도 있다.

현실적으로 어려운 면이 있겠지만 가능한 중앙정부는 이번 선거에 관여하지 말고 언론도 선거의 결과를 자기 나름으로 해석하지 말며 그 지방, 그 지역의 실정에 맞는 선택이 되도록 하는 것이 좋겠다. 다만 공정한 관리와 엄격한 법집행으로 공명정대하고 깨끗한 선택이 되도록 지원하고 후원하고 이끌어 주었으면 좋겠다.

우리 지역이 잘 사는 길이 무엇이며 우리 지방의 풍요의 길이 무엇인가 그 지방 사람들의 상식에서 선택되도록 도와주고 지원해 주면 좋겠다. 물론 그렇게 되면 선거에 관심이 적어질 수도 있겠으나 이를 계몽하고 유인하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다.

예를 들면 언론에서 이의 유인책을 제공해 주고 적절한 홍보와 유인책을 하는 언론에게는 적당한 보상도 강구해 볼 수 있다. 풀뿌리 민주주의는 민주주의의 꽃이고 그 지방의 축제가기에 민주주의의 열매도 맺을 수 있고 그 지방의 발전과 단합으로 촉진될 수 있다. 절대로 중앙정부에 의하여 좌지 우지 되어서도 안 되고 정치적 판단의 기준이 되어서도 안 된다.

이 봄날의 따뜻한 햇빛처럼 새로운 우리고장이 '잘사는 고장'으로의 선택이 되어야 한다.

이 세상에서 선택만큼 어려운 일은 없다. 개인의 경우도 그렇고 나라의 경우도 그렇다. 선택은 그 어떤 경우이건 하나는 100이요 다른 하나는 0이기에 더욱 그렇다. 그러나 우리들 삶의 과정이 모두다 하나 같이 선택의 연속이 아

니더냐! 이 선택의 연속에서 한 인간은 성장되고 한 국가는 부강된다. 물론 잘못된 선택은 한 인간의 삶이 실패되거나 한 국가의 패망을 수반하지만, 오늘 의 입장에서 보면 모두다 살아있기에 성장되고 부강된 것이 현실이다.

선택의 기준!

이 시대 우리 고장의 선택기준!

이것이 오늘을 사는 우리들의 관심이다. 이 봄날과 함께 따뜻한 햇살이 선택의 기준에 힘이 되어 주길 이번 지방 선거에서 바라는 작은 소망이다.

진한 메시지

· 김 사 랑 ·

choyoundang@hanmail.net

오랜만에 고향나들이를 했다. 고향에는 언제나 부담 없고 정겹게 마주할 수 있는 벗이 있어 좋다. 속내를 드러내도 따뜻하게 품어주는 곳도 고향의 산천과 친구들이다. 저만치 다가오는 검은 얼굴에 소탈한 점퍼 차림, 자연을 닮은 선한 웃음으로 친구는 나를 맞는다. 조금은 야윈 듯한 얼굴이 반갑다. 나는 그를 보면 초등학교 시절이 떠오른다.

아주 오래 전, 초등학교 사학년 때였다. 새 학기가 시작되자 우리는 반 편성을 새롭게 하였다. 낯선 모습의 얼굴이 많았다. 반장 선거를 하게 되었다.



수필과비평 으로 등단
한국문인협회 회원
수필과 비평작가 회원
도봉문인협회 이사

서로 다정하게 지내거나 공부 잘 하는 친구들을 반장 후보로 추천했다. 그런데 추천도 받지 않고 뜬금없이 손을 번쩍 들고 반장을 하겠다고 나선 아이가 있었다. 모두들 그 아이에게 시선이 모아졌다. 우리들 다르게 깔끔하고 세련된 모습이었다.

그때 그 아이가 내걸은 선거공약은 너무도 특이했다. 송충이 잡으러갈 때 여자아이들은 화단의 잡초를 뽑게 하고, 모내기할 때는 거머리를 무서워하는 여자들을 작업장에 참석시키지 않겠다는 것이었다. 여자들을 보호해주는 수호천사 같은 내용이었다. 거기에도 한 수 더 떠서 범죄자에게 채우는 수갑을 보여준다는 것이었다. 수갑을 보기 위험인지, 아니면 그의 용기가 가상해서였는지는 몰라도 그 아이는 쟁쟁한 후보를 물리치고 몰표로 당선이 되었다. 그는 그렇게 당당하게 반장이 되었다. 그 후에 알게 된 사실이지만, 경찰공무원인 아버지를 따라 전학 온 아이였다.

그의 공약대로 수갑을 볼 수 있는 기회가 생겼을 때, 여자아이들은 까만 눈동자만 반짝일 뿐 아무도 그 수갑을 만져보지도 못했다. 선생님의 설명만 들었다. 그는 자신이 한 공약을 지키려 무던히 애를 썼다. 그가 지금 농촌을 지키고 있다. 대학교를 나와서 농사를 짓게 된 것도 참 미스터리였다.

지난해 정부에서는 WTO 압력에 의해 어쩔 수 없이 수입쌀 개방을 발표했다. 그로 인해 나라를 불태우며 죽어가는 농민들이 늘어났다. 치밀하지 못한 정부의 대처로, 쌀 협상과 맞물려서 산물 버는 농협 스스로 결정해서 수매하도록 하였다. 그 농민들이 활화산처럼 일어나서 도로를 점거하는 일이 있었다. 그러다 보니, 어느 가정에서는 경찰 아버지와 농부인 아들이 바리게이트를 사이에 두고 대치하는 상황까지 빚어졌다. 그 후 WTO 모임이 홍콩에서 열렸다. 농민시위대가 그곳에서 불법집회와 과격한 행동을 했다는 이유로 기소되었다. 현지 경찰에 열한 명이 구속되었다. 그 소식을 뉴스에서 바라보다가 나는 소스라치게 놀랐다. 그 시위대 속에 낯익은 얼굴이 보였던 것이다. 옛날 초등학교 시절의 반장이었다.

세월은 바람처럼 날아갔다. 어느 곁에 자녀들 짝을 채워줄 나이가 되었고, 학교를 졸업한 지는 벌써 삼십 년을 조금 더 넘었다. 모교의 개교 80주년 기

넘행사를 주최하면서 흩어져 있던 친구들과 연락이 닿게 되었고, 이 일이 계기가 되어 초등학교 동창들과 관광버스를 타고 야유회를 가게 되었다.

지난해 즐거운 시간을 가지며 돌아오는 버스 안에서 그 친구는 자기에게 삼분만 시간을 할애해 달라는 주문을 했다. 삼분을 앞에 둔 친구는 술의 힘을 빌어서일까. 평소에 가슴에 담아 두었던 울분을 토해냈다.

“야, 임마. 너희들 밥 좀 먹고 살아라. 시골 출신인 촌놈들까지 아침식사를 안 하니 쌀 소비가 되겠나? 생각해 보라. 제발 밥 좀 먹고 살아라.”

그의 말은 절규였다. 농촌에선 생존이 걸린 문제이고, 농민들을 외면하면 안 된다는 처절한 울부짖음이었다. 그가 이야기하는 동안 아무도 말을 빼앗지 않았다. 모두들 동감하는지 말없이 숙연해졌다.

그랬다. 무엇이든 보지 않으면 느끼지 못한다. 그들은 우리가 무관심한 때에 고통의 중심에 있었다. 그들의 앞에 놓인 현실은 바로 내 고향의 아픔이었다. 비록 그가 삼 분에 걸친 절규를 했지만, 그것은 긴 웅변보다도 더 나의 가슴에 와 닿았다. 그 친구의 가슴에 맺힌 이야기. 아직도 꺼내지 못한 많은 이야기를 언젠가 한 번 시간을 내어 까만 밤을 하얗게 새워가며 듣고 싶다. 막걸리 잔을 기울여도 좋고, 뜨끈 뜨끈한 고구마에 총각김치를 척척 걸쳐먹으며 깊은 밤을 밝혀보고도 싶다. 왜냐하면 그것은 내 아버지와 내 오빠의 한스러운 절규일 것이 뻔하기 때문이다.

나는 그의 모습을 바라보며 죄인같은 생각이 들었다. 언제부터인가 나도 아침잠의 노예가 되어 아침식사를 준비하지 못하고, 우유나 과일이나 빵으로 적당히 때운다.

이제부터라도 부지런하게 김이 솔솔 오르는 아침밥을 지어야겠다는 마음을 가져본다. 그리하여 하루를 시작하는 남편에게 사랑이 깃든 식사를 제공하는 사랑받는 아내가 되어야겠다. 이것은 사랑이 깃든 가정을 일구는 일도 되고, 쌀 소비도 하게 되니 내 고향의 아픔을 더는 일이 아니겠는가. 내일부터라도 당장 실천해보리라 마음을 정한다.

이번 지방선거에 이 친구 같은 공약과 실천을 하는 후보가 있다면, 나는 열일 제쳐두고 투표장으로 달려갈 것이다. 농가에 희망을 줄 수 있는 공약을 내

걸고, 농심의 힘을 한데 뭉쳐 어려운 난관을 헤쳐 나갈 일꾼이 절실히 필요한 때가 바로 지금 아닌가.

나는 그가 농촌을 지키고 있는 한 우리 고향은 살아남을 것이란 생각을 하면서 그의 고향 이야기에 귀를 기울였다.

地方選舉_{지방선거}와 公約_{공약}

• 金 錫 營(김석영) •

오는 5월 31일 실시되는 지방선거는 위기에 처해 있는 오늘의 우리나라 지방자치가 지금까지의 교훈을 딛고 과연 성공할 수 있을 것인지, 국민들의 기대가 자못 크다 할 것이다.

우리나라 지역사회의 유토피아가 건설되는 데는 아직도 먼 시간이 필요한 것인가.

우리도 언제나 스위스 “쥬네보” 같은 소도시처럼 짜임새 있고 아름다운 마을 속에 살 수 있을 것인지, 꿈 같은 이야기이다. 그곳엔 차량시설, 미술관, 박물관, 각종오락실, 스포츠시설, 쇼핑거리가 있다. 그리고 도시에서의 스트레스와 혼잡을 피할수 있는 산책공원이 있다. 햇별이 따사로운 날 도보나 자전거로 출퇴근할 수 있는 환경시설과 아름답고 쾌적한 호수가 있다. 도시마을



작가, 칼럼니스트
국제펜클럽한국본부 자문위원

공익사업을 수행하는 데도 시민 스스로가 결정지을 수 있는 과세권이 있다고 한다.

필자가 직접 답사한 예로 미국에서 가장 살기 좋다는 L.A 근처 “얼바인”이라는 소도시는 시의 모든 정책과정이 모두 주민들의 의사와 주장으로 이루어진다. 시의 안전시설로 모든 학원내엔 지역경찰서가 상주해 있을 뿐 아니라 인구 불과 2~3만이 되는 곳에 탁아소가 무려 200여 곳이나 있으며 모든 여성은 100% 취업상태이고 공장굴뚝에서 내뿜는 연기는 지하에서 처리되며 전신전화도 지하에 시설되어 있는 공해없는 참으로 부럽고 아름다운 전원도시이다.

견실한 지방민주주의 즉 튼튼한 풀뿌리 민주주의가 언제 토착화될 것인지. 이제는 지방자치단체도 외국과의 직접교류를 통해 지식정보화 시대에 걸맞는 지역사회가 되어야 한다.

최근 10년 동안 풀뿌리 민주주의는 중앙정부와의 갈등과 성숙하지 못한 시민의식 탓으로 지역주민들의 무관심 속에 기대한 만큼 발전을 가져오지 못한 것이 사실이다.

이번 지방선거야말로 지방자치가 성공하느냐 못하느냐의 분수령에 놓여 있다. 그것은 풀뿌리 민주주의가 이번에도 자칫하면 뿌리를 박지 못하고 또다시 흔들릴 수 있다는 것이다.

이번에 자치단체가 의원유급제, 기초의원 정당공천제, 중선거구제 등 제도상의 변경으로 이제 지방자치가 활성화할 요건을 갖추기는 하였으나 새로이 뽑힌 의원들이 지역사회 발전을 또다시 소홀히 하거나 중앙정부와의 견제능력이 부족할 경우에는 선거당시 입후보자들이 외친 모든 공약이 공염불이 될 수가 있기 때문이다.

신임의원들이 그야말로 지역주민의 권익향상과 행복한 지역사회가 될 수 있도록 분골쇄신 노력하는 자세에 따라 풀뿌리 민주주의가 꽃을 피울 수가 있기 때문이다. 의원들의 행정적 지식과 중앙정부의 정당 내지 정치적이유로 저해돼 있는 요인을 제거하고 균형있는 사회의 문제를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가에 있다.

이번 지방자치의 일꾼으로 나서는 사람은 중앙정부로부터 간섭을 배제할 수 있는 조정과 견제능력이 있고 또한 소신있고 책임성 있는 사람이어야 하며 나아가서는 정책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비전과 철학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하며 솔선수범할 수 있는 열성있는 대중 속의 지도자로서 또한 앞을 내다보는 지도자가 될 수 있어야만 하겠다.

이번에 새로 시작되는 지방자치는 도약과 발전은 고사하고 적어도 국가발전의 걸림돌이 되어서는 아니될 것이다. 또한 열악한 상황에서도 가용재원을 효율적으로 사용치 못하고 이른바 “줄세우기인사”로 국민의 비난을 받아서는 더욱이 아니되며 지방자치가 비리와 부정이 성행 될 만큼 공무원의 기강이 무너져도 아니 될 것이다.

지금까지 사실상 지방자치가 제대로 발전하지 못한 구체적 실례로는 무분별한 개발사업이나 기관자치단체의 비협조, 선심과시, 낭비성 사업, 인사권 남용, 방만한 예산집행, 편의주의적인 행정행태, 지방공무원의 무분별한 해외 여행 등 도덕적 해이가 지적되고 있다. 또한 재정자립도 여하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간의 양극화 현상까지 벌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이같은 불미스런 경험을 불식하기 위해선 이번에 나올 지방자치단체장과 의원들은 모름지기 명석한 두뇌와 창의적 사고와 강인한 체력, 넓은 시야, 합리적이고도 지적 능력을 갖춘 대화와 타협의 도량을 갖춘 사람이어야 할 것이다.

이번 지방자치의 성공여부는 단체장과 의원들이 지식과 경험이 수반되어야 하며 무엇보다도 지역사회 주민들의 의사를 수렴할 수 있는 겸허한 대민 자세가 절실히 요구되는 것이다.

지역사회일꾼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제일 먼저 왜곡된 공천자가 되어서는 아니되며 충분한 자질을 갖춘 가운데 역대의 지방자치가 왜 본래의 의미를 상실하고 제 구실을 못하고 있는가에 대한 현실을 냉철히 간파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할 것이다.

주민들로부터 지방자치가 외면당하고 있는 원인과 문제가 과연 무엇인가를 통찰할 수 있어야 하겠다.

공천받고 선임된 의원이나 단체장들은 책임의식과 공동체의식 그리고 시민 의식을 끌어올리는 시민교육에 주안을 두어야 하며 그 운영의 묘는 아무리 정당에 소속되었다 할지라도 지역사회전체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선 비 정파적이며 비 당파적인 입장이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지방자치기관의 근본적인 법적 토대와 의원이나 단체장들의 확고한 의지와 역량 그리고 풍부한 경험을 갖춘 자가 선거에 나서야 하겠다. 이번 지방선거에서의 공약이 또다시 空約공약이 되어서는 결코 아니될 것이다.

정치 일번지

• 조 연 희 •

cho2073@freechal.com

베란다의 봄꽃들이 만개했다. 나이가 들수록 봄을 맞는 기쁨도 배가하는 것 같다. 더구나 W.B.C 제1회 세계야구선수권대회에서 우리 선수들의 눈부신 활약상을 보면서 정말로 행복했다. 또 얼마전 백년간 불모지였던 주니어 피규어 스케이팅 대회에서 금메달을 획득한 선수를 보면서도 감사와 기쁨의 눈물이 솟아났다.

2002년 월드컵 4강의 위업을 이룬 대회를 비롯하여 우리나라는 스포츠 분야에서만 아니라 IT산업과 일부 선진 첨단산업에서도 세계 최강의 선진국



연세대학교 국문학과 졸업, 진명여고 교사 역임(34년간)

국제펜클럽 한국본부 회원, 한국 수필가 협회 이사

한국 수필 문학가 협회 이사

수필집 : 「이 무량한 그리움을」, 「새로운 날들의 시작」, 「사춘기」 등

제 10회 수필문학상 수상

대열에 서 있음을 생각할 때 이나라에 태어난 것이 자랑스럽기까지 하다.

그런데 어찌하여 정치분야에서만 후진국의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여 아직도 선거공약공약이 아닌 空約공약문제를 논해야 하는지 문외한인 나로서는 정말 한심스럽다.

금년 5월 말의 지방선거가 끝나면 또 내년의 대선이 기다리고 있다. 계속 선거의 열풍속에 살아야 하는 느낌이다. 선거때마다 오직 '당선만 되고 보자' 식의 장밋빛 空約공약들이 남발하는 것을 볼 때마다 마치 음식점 앞에 밀랍으로 전시해놓은 모형음식 같아서 오히려 입맛이 떨어진다.

자고로 황당한 공약은 많았지만 특별히 지방 친구의 성토로 알게 된 사건이다. 지난 선거때 모 도지사는 수년간 민원이 제기되었던 전북 익산시의 폐수 문제를 들고 나왔다고... 폐수 발생 지역의 124만평을 매입하여 산업단지로 개발하겠다고 당당히 약속을 했다고 한다. 그러나 산업단지의 개발에 따르는 이주 보상비등 7000억원은 전혀 마련하지도 않은 채 말이다.

노태우 대통령 후보 시절의 이야기가 생각난다. 호남지역의 표를 얻기위해 새만금 사업 계획을 급조해서 발표했으나 오랫동안 난항만 계속하다가 최근에 겨우 대법원의 판결로 사업진행 결정이 나지 않았는가. 그러나 아직도 환경단체들의 반대로 묵과하기 어려운 사태에 놓여 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무엇보다 가장 생생한 空約공약은 2004년 제17대 총선때. 첫 번째, 아파트 분양원가를 공개한다던 약속이 지금까지도 백지 상태로 있다. 두 번째, 국민소환제 문제도 지켜지지 않고 있으며 세 번째, 세금부담 완화 문제는 오히려 세금의 증세문제로 치닫고 있으니 안타까울 뿐이다.

유럽이나 미국 같은 정치 선진국에서는 선거정책과 공약의 실효성이 확실한 후보에게만 표가 모이게 된다고 한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경우는 선거공약을 꼼꼼히 살피고 따지고 실효성 여부에 관심을 가지기 보다는 오로지 후보와의 어떤 인연에 따라서, 학연, 지연에 이끌려서 표를 던지게 되는 데 가장 큰 원인이 있다고 본다. 금권선거의 뿌리 뽑기 문제도 얼마나 공정하게 영구적으로 이루어질지도 지켜 볼 문제다.

정치 선진국에서는 선거 전 뿐만 아니라 선거 후에도 그 후보의 공약이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계속 감시하고 추적하는 시스템이 있다고 한다.

우리나라에도 하루 속히 선거공약을 꾸준히 검증할 수 있는 시민단체들이나 언론기관들의 활동이 기대된다. 부끄러운 얘기지만 우리 국민들의 정치적인 면의 民度民도가 결국 선거 후보자들의 수준을 넘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

흔히 종로구, 강남구 등을 정치 1번지라고 부른다. 후보들의 사탕발림식 선거공약에 비교적 현혹되지 않고 분석적 비판적인 안목이 있다는 뜻인 것이다.

금년 5월에 이루어지는 지방 선거때, 지방도시의 곳곳이 모두 정치 1번지가 되었으면 하고 바란다. 아니 우리나라 전체가 정치 1번지가 되어 다른 분야에서처럼 선진국으로 나가야 할 것이다.

아름다운 이 봄날에 정치 1번지에 대한 꿈이 무성한 거목으로 성장 하기만을 기원할 뿐이다. **수필시대**

삶이 머무는 곳

안학원 시집
문예운동 / 값6,000원

이브의 거울

빈소영 시집
문예운동 / 값6,000원



주제가 있는

여행수필

- 네번째 이야기

아즈텍의 숨구멍 - 박 봉 진 benpk@hanmail.net

왜 이리 갑갑할까?

高所症勢고소증세가 있는 사람은 낮은 데로 내려가면 낫는다는 것이 그곳 사람들의 처방전이었으니 그 때문이었더라면 나는 벌써 멀쩡해져있어야 하는 것이다. ‘멕시코시티’는 해발 2천3백m의 고원 도시다. 그러니까 백두산의 7부 능선쯤에 위치한 멕시코의 수도이다. 인구 2천만 명이 북적대고 있어 도시의 비대순위와 과밀비율은 세계 제일이라고 했다. 그 때 거기서 달라붙은 갑갑했고 답답했던 증상이 내게서 좀체 떠나지 않을 것만 같다.

지난해 나는 ‘멕시코시티’에서 열렸던 국제펜클럽대회를 참관한 후 “떡 본 김에 제사” 격으로 몇 명 일행과 함께 시내 관광팀에 합류했다. 대성당과 대통



〈수필과 비평〉 신인상.
재외동포문학 수필대상 수상
재미수필문학협회 이사장 역임
한국문인협회, 국제펜클럽한국본부 회원
수필집 : 〈언제나 내 마음 바다에 살아〉

령 궁과 관공서가 들어서있는 ‘소칼로광장’은 도보로 둘러봐야만했다. 4백5십여 년 전만해도 텍스코코 호수의 섬 위에 그림처럼 떠 있었다는 아즈텍의 古都고도 테노치티틀란은 흡사 어렴풋한 남극 땅 지도처럼 동관으로 새겨놓여 있었다. 내가 선 발밑과 인근 일대가 모두 매몰된 아즈텍의 古都고도이었음을 금방 알 수 있었다.

사람들에 떠밀리며 나도 따라 흐르는 물살이 되어 한 곳에 우뚝 섰다. 거기엔 코만 빠꿈이 물 위에 내놓고 물 속에 들어 앉아있는 하마가 그대로 굳어 화석이 된 것처럼 토석에 매워지고 육중한 건물들에 짓눌린 아즈텍이 겨우 숨구멍 하나를 띄워 내놓고 있었다. 수도공사와 대성당 뒤쪽 건축공사를 할 때도 귀한 유물들이 여러 번 나왔지만 본체만체했던 멕시코 당국이 무게가 8톤이나 되는 거대한 달의 신전 석판이 발견되니까 그 때에야 아즈텍문화 복원에 관심을 가졌다고 했다. 발견 때의 지표면인 듯 건너편 두어 길 높이로 영성하게 복원해놓은 벽들의 구조물이 아즈텍의 유물이라니 초라하기 이를 데 없었다. 그것도 불과 20여 년 전에 땅속에서 밖으로 나와 바람을 쐬고 있는 것이라고 했다. 아즈텍의 하마는 피돌기를 멈춘 것 같아 보이니 자지러지던 신음도 끝났는지 모르겠다.

뜨거운 고원의 햇볕은 내 아랫도리를 휘감고 발걸음을 붙잡는데 아즈텍의 슬픈 그 날처럼 왜 바람 한 점 불지 않는가? 바람은 세상 이야기들을 실어다 주고 처참하게 말살당하고 기막히게 묻혀버린 역사를 소문으로라도 실어 내주어야 하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나는 아즈텍을 되돌아보고 있는지 모르겠다. 아즈텍은 멸망 당시 어느 유럽 제국보다 잘 분화 발전된 사회조직에다 1년 365일의 태양력을 써왔던 천문학, 그리고 일조 음향까지 고려해서 기하학적으로 돌을 쌓아올린 건축술엔 절로 입이 딱 벌어졌다. 그리고 그 궁성에서 약탈당한 금은보화는 유럽의 어떤 황제의 재산보다도 많은 가치였다고 했다.

아즈텍을 일으켜 세운 인디오들은 북쪽지역에서 남하하다가 이른바 신들의 고향이라고 일컫는 멕시코의 중앙고원지대에 정착, 테오티와칸 고대문명을 계승해서 태양신에게 살아있는 사람의 심장을 도려내어 제단에 올렸지만 13

세기~15세기경에는 중미대륙을 호령했던 제국이었다고 했다. 테오티와칸이란 기원전 2세기 후 7세기경에 번성했다가 지금 관광명소가 되어있는 웅장한 태양의 피라미드와 달의 피라미드 그리고 케찰코아 신전과 슬한 신화를 남겨놓고 사라져버린 고대문명을 말한다. 그렇지만 테오티와칸은 동양의 龍과 유사한 깃털달린 뱀 신을 형상화해서 신전에 부조한 것과 우주관과 문화형태는 중남미대륙의 3대문명인 아즈텍과 마야와 잉카문명을 한 줄의 고리로 연결지어지게 하고 있다고 했다.

아즈텍과 잉카제국의 멸망사를 보면 비슷한 사례로 한 번 싸워보지도 못하고 너무 쉽게 멸망해버린 것이 놀라웠고 도무지 믿기지 않았다. 그리고 가톨릭 수도사를 앞세운 스페인 정복군은 마치 인간이기를 포기했던 것처럼 치밀히 계획된 각본에 의해 인디오들이 그들보다 덜 간교한 지능을 악용했고 잔인한 방법으로 아즈텍을 말살해버렸던 것은 씻어지지 않을 반인류적 죄악일 게다. 지금은 그것이 당시의 종군 가톨릭 수도사들이 남긴 기록 등을 통해 대체로 들어나 있지만 그 사악한 각본은 몇 세기 후까지를 계산에 넣고 古都교토를 통째로 매몰해버린 것이나 인종과 언어와 종교란 根幹간의 뿌리들을 넓고 깊게 영겨지게 해놓아서 수백 년 동안 침묵으로 일관되게 했고, 현재도 도무지 어찌지 못하도록 되어있지 않는가?

그 당시 중남미 문화권의 인디오들에겐 기막힌 신화 하나가 전해오고 있었다고 했다. “얼굴과 피부는 하얗고 턱수염이 더부룩한 키가 큰 신이 짐승을 타고 나타나서 구원으로 인도해줄 것이다.”라는 것이었다고 했다. 아즈텍은 1521년에 멸망했지만 실제로 그 신화 같은 상황은 그 두해 전에 생겼다. 아즈텍 황제 모테즈마 2세는 말을 타고 나타난 스페인의 정복자 헤르난드 코르테스를 신이라고 생각하고 황궁으로 모셔 들이고 신격의 예우를 해주었다고 했다. 그로 인한 內憂外患내외위환에 의해 그는 이듬해에 打殺타살되었고 그 다음 해에 제국 아즈텍은 단 400명의 스페인 정복 군에 의해 영원히 지상에서 사라지고 말았다.

스페인의 정복자는 그 많은 아즈텍 황궁의 황금을 다 쓸어갔지만 그것에 만

죽했겠는가? 더 많은 황금을 끌어 모으기 위해 곳곳을 헤집고 다니며 잔인한 인간사냥에 나섰다. 남자들은 막무가내로 황금의 소재를 대라고 죽이거나 노예로 끌어갔고 여자들은 다치는 대로 욕정의 제물로 삼았으며 마구 혼혈의 씨를 뿌렸기 때문에 당시 한 세대를 살다간 스페인 병사 한 사람당 평균 백 명 꼴의 혼혈족을 고의적으로 만들어냈다고 했다. 그 결과로 오늘날 약 7천만 멕시코 인구 중 종족비율은 혼혈족(Mestizo)이 약 70%로 주종을 이루고 원주민(Indio)은 약 20%, 백인(Espanol)은 약 10%라고 했다. 말문이 닫힐 수밖에 없다.

아즈텍의 알려지지 않은 비사는 남미 잉카의 멸망사를 통해 유추해 볼 수밖에 없으리라. 1531년 스페인의 또 다른 정복자 프란시스코 피사로는 단 180명의 침략군과 말 27필을 가지고 잉카에 들어갔다. 인테스산맥 깊숙한 곳에 자리 잡고 있던 잉카의 황궁은 天然要塞천연요새였고 5천명이나 되는 황제의 근위병도 있었다. 정복자는 자신을 스페인왕의 사절이라고 사칭하여 황궁 입성을 허락받았고, 잉카제국의 황제 아타왈파는 사절을 맞는 예우로 근위병에겐 무기를 들리지 않고 방심하고 사절을 맞았다. 치밀한 각본대로 사절들의 태도는 일순 돌변했고 가톨릭 수도사가 황제에게 성경을 건네며 “여기에 손을 얹고 하나님과 스페인 왕에게 충성을 맹세하라.”라고 으박질렀다. 그것이 내 동맹이쳐지는 것을 기다린 듯 사절들이 들었던 막대기인 줄 알았던 총구가 천둥소리를 내며 불을 뿜었고 창기병들이 이상한 짐승 말을 타고 뛰쳐나와 근위병을 살육함과 동시에 황제를 사로잡아버렸다. 정복자는 황제의 몸값으로 엄청난 량의 황금을 요구해서 황금 200상자, 은 20상자, 보석 60상자를 챙겼지만 약속이행은커녕 황제를 이교도의 처형방식으로 불태워 죽이려고 했다. 황제는 다시 가톨릭을 믿겠다고 애원했으나 다만 화형대신에 목 졸라 죽여졌다고 했다.

우리 일행은 다시 ‘과다루페성당’으로 발길을 옮겼다. 그곳은 가톨릭의 세계 3대 기적의 성지 중 하나라고 했다. 1531년 검은 머리에 갈색 피부의 인디오 성모가 나타나 먼저 믿은 인디오 신자 한 사람의 망토에 성모상을 찍어준

이후 인디오들이 가톨릭을 믿기 시작했다고 했다. 아즈텍이 멸망한 후 꼭 십년이 되는 연대에 해당한다. 그것은 해석상의 문제점을 떠나 그들에겐 두 번째의 신화임에는 틀림없을 것 같다. 첫 번째의 신화와 두 번째의 신화 간에는 예언과 성취란 점에선 다르지만 같은 것은 아즈텍의 옛 인디오 전설을 그 후에가 각각의 신화를 무조건적으로 신봉했다는 것이다. ‘과다루페성당’은 고색창연한 외관과는 달리 내부는 육중한 기둥과 보가 약간씩 기울고 균열이 생겨 있는 것에 깜짝 놀랐다. 굵은 강철선으로 서로 감고 당겨서 흉물스럽게 엮어 놓았다. 아즈텍의 매몰된 호수의 지반 위에 지었기 때문이라고 했다. 예수님에게 씌운 가시관도 저렇듯 흉물스럽게 보이지 않았을까?

성당 광장에는 세계 각지에서 온 순례객들로 붐볐고 성자의 고난에 동참한다고 맨 무릎으로 포도 위를 기는 고행자도 있었다. 그러나 다른 한쪽에선 혼혈족 메스티조(Mestizo)로 구성된 거리의 악사 마리아치가 연주를 하고 있었다. 스페인풍의 정열적인 음악을 연주할 땐 절로 흥이 돋아어졌지만 애절한 민요가락의 선율이 흐를 땐 아즈텍의 슬픈 역사와 탄식이 절절한 한으로 서려서 나오는 듯 했다. 그러나 어찌하랴! 그들의 혈관엔 인디오와 스페인의 피가 함께 흐르고 있고 스페인어로만 말을 하며 가톨릭을 믿고 있지 않는가? 스페인의 정복자에 의해 다시는 일어날 수 없도록 아즈텍은 그대로 땅속에 묻혀버렸고 그 위에 성당을 짓고 매머드 도시를 건설해놓았는데 무엇이 보이겠는가?

나그네에게만 화석화한 아즈텍의 숨구멍이 겨우 보인 것이리라. 그러나 내 인생 역시 백년도 살지 못하고 떠나갈 것이 아닌가? 사백오십여 년이나 땅속에 묻혀있는 아즈텍을 제대로 바라보기엔 턱없이 짧은 수명일 것이다. 한 세대는 가고 또 한 세대가 계속 이어왔지만 아즈텍의 한을 마음속에 담고 있려니 우리 민요 ‘한 오백년’이 한숨 토해지듯 내 목젖을 따갑게 넘어오고 있었다. **수필시대**

>>> 당선소감 <<<<

요즈음 날씨가 변덕을 부린다. 말쑥하던 하늘이 갑자기 어두워지면서 비를 뿌리다가 하면 몸이 밀려날 정도로 세찬 바람이 불기도 한다. 해가 반짝이고 있는 데도 비가 내리다가 하면 때때로 아닌 안개가 갑자기 몰려 오기도 한다. 우박과 눈도 왔다.

산다는 것은 그런 것이 아닐까. 험한 날씨에도 우리는 어디론가 가고 있다. 글을 쓴다는 것은 어디론가 방향을 가지고 가고 있다는 말일 게다. 그동안 글을 쓴다고 하면서 비틀거린 적도 있고 헤맨 적도 있다. 돌아보면 부끄러울 따름이다. 그러나 쓸 때마다 좀 더 정직한 글을 써야지 하는 다짐은 늘 해왔다. 가고자 하는 방향이 있다면 바로 그 쪽이다.

언제나 시작일 뿐이다. 늘 격려를 아끼지 않는 문우들에게 이번 기회를 통하여 고맙다는 말을 전하고 싶다. 채찍으로 알겠다.



주대식

judaisik@comcast.net

1946년 8월 26일 황해도 연백에서 태어남.

1965년 3월 인천 제물포 고등학교 졸업, 연세대학교 정법대학 행정과 입학.

1969년 3월 연세대학교 졸업, ROTC 7기 육군 소위 임관.

1971년 육군 중위 제대.

1973년 대우실업주식회사 공채 1기 입사.

1978년 미국 이주.

1986년 미주 조선일보 '해외 동포 생활수기 현상모집' 2등 당선.

1988년~2006년 샌프란시스코 중앙일보 '미국땅, 한국사람' '베이 동쪽' '주 대식 칼럼' 연재.

가오리의 올가미

바다는 푸근하다. 바다는 편안했다. 그러나 바다는 무섭다. 쪽배를 타고 태평양으로 나갔던 적이 있다. 그 날 따라 운이 없었는지 파도가 일기 시작했다. 들썩들썩 하던 파도가 갑자기 불끈 일어서니까 해안 저쪽이 파도의 벽에 가려 보이지 않는다.

나는 공포에 질려 나도 모르게 소리쳤다. “돌아 가자!” 먹이를 갑작 거리가 풀리는 뒷에 놀라 도망가는 쥐처럼 파도 더미가 에워싼 함정에서 서둘러 저어 나오면서 내내 후회하고 있었다. 다시는 바다에 나오지 않으리라. 그 날 바다는 나에게 친절하지 않았다.

바다는 나의 존재를 하잘 것 없는 것으로 격하시키기도 하지만 나를 비우게 하고 비운 그릇에 또 다른 새로운 것을 가득 채우게 한다. 바다는 많은 것을 품고 있다. 무엇이든지 숨겨 주기도 한다. 그러나 존재를 부인하는 것은 아니다.

나는 방파제에 있는 벤치에 앉아 멀리 바다를 바라보고 있었다. 내 옆에는 아까부터 두 개의 낚싯대를 드리우고 입질을 기다리는 낚이가 있었다. 그는 가끔 담배를 피우기도 하고 근처를 서성이기도 했다.

낚시는 인내를 필요로 하는가 보았다. 낚시꾼은 기다림을 즐기고 있었다. 영원히 울리지 않을 것 같던 딸랑이에 신호가 왔다. 낚시꾼은 반짝이는 파도를 노려보며 잠깐 긴장하더니 급히 릴을 낚아채듯이 집어 들었다.

그리고는 서서히 감기도 하고 풀어주기도 하면서 물 아래서 버둥거리는 어떤 상대와 씨름을 시작했다. 낚싯대는 풀어 줄 때는 밋밋한 곡선을 만들기도 하고 감을 때는 U자를 얹어 놓은 것처럼 휘어지기도 했다. 그 것은 금방 부러질 것 같아서 나도 모르게 주먹을 쥐었다.

손에 땀이 고이기 시작했다.

드디어 바다 아래에 있던 놈은 물 위로 퍼덕이며 떠 올랐다. 아직 형체는 보이지 않지만 버둥거릴 때마다 일어나는 물보라가 수영을 처음 배우는 개구장이들의 물장구 만큼은 되는 것 같았다. 연결된 낚시줄은 릴을 감을 때마다 점점 짧아지기 시작했고 물장구는 점점 더 가까워지고 있었다. 끝내 낚시꾼의 발아래까지 끌려온 놈은 물으로 올려졌다. 마지막 순간에 크게 한 번 몸부림을 쳤지만 어쩔 수 없는 한계 상황이었다.

잠시 숨을 고르던 가오리가 또 다시 저항한다. 그 힘이 얼마나 션던지 낚시꾼조차 깜짝 놀라며 두어 발자국 물러설 정도였다. 나는 낚시꾼의 표정과 동작을 유심히 바라 보았다.

낚시꾼은 걸려 올라온 가오리를 별로 내켜하지 않는 것 같았다. 힘든겨름 끝에 얻은 승리를 환호 하기보다는 재수 없다는 기색이 완연했다. 물으로 끌려 나와 땅 위에 버려진 가오리는 가쁜 숨을 몰아 쉬고 있었다. 아직도 낚시줄의 긴장을 늦추지 않은 낚시꾼은 다른 한 손으로 주머니에서 무언가를 찾아 꺼내고 있었다.

앗! 그 것은 칼이었다. 잭 나이프!

손안에서 이리저리 돌려 칼의 위치를 잡은 그가 단추를 찰카 누르니까 은빛 날이 튀어 나오면서 재채기하듯 기울어져 가는 햇빛을 튕겨 내었다. 나는 그 예리한 칼날의 재채기 때문에 순간적으로 가오리 쪽을 외면할 수밖에 없었다. 과연 저 칼로 가오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

아! 차마 가오리의 최후를 바라보지 못하겠다. 그러나 나는 그의 죽음을 목격한 유일한 증인으로 모든 상황을 정확하게 기억해야 한다는 일종의 책임감을 느꼈다. 숨을 크게 들이 마시고 침착하게 다시 가오리 쪽으로 시선을 던졌다. 낚시꾼은 칼날을 가오리의 입 쪽으로 가져갔다.

드디어 우악스런 낚시꾼의 한 동작이 허공에 그어졌다. 그 순간 아직까지 줄에 매달려 버둥거리던 가오리는 길바닥에서 제방 쪽으로 나뒹그러졌다. 나는 상황을 정확하게 판단하기 위해서 벤치에서 벌떡 일어났다.

낚시꾼의 동작은 너무 익숙하고 날쌔어서 상세하게 그 순간을 묘사할 수는

없지만 끈의 칼은 줄을 끊어 가오리를 풀어주었다는 것으로 사건을 정리할 수 있을 것이다. 이제 가오리는 해방 되었다. 비록 발길에 차여 제방 쪽으로 굴러 떨어지기는 하였지만 목숨은 건진 것이다. 낚시꾼의 자비심이랄까 아니면 심술이 걸린 분풀이랄까 어쨌든 가오리는 목구멍에 날카로운 낚시바늘을 머금은 채 바다로 돌아가고 있었다.

낚시바늘, 그 무시무시한 고리, 한 번 걸려들면 빠져 나올 수 없는 역 방향의 함정... 앞으로 저 가오리는 어떻게 남은 생을 살아갈 것인가. 먹이를 삼킬 때마다 낚시 바늘은 목을 찌를 것이다. 앞 뒤 상황을 제대로 판단하지 못한 상태에서 덩석 물었던 미끼의 유혹을 물리치지 못한 후유증이 이렇게 고통스럽단 말인가. 한 번의 짧은 실수가 남은 생을 올가미에 엮어 넣는 엄청난 결과를 가져 왔구나.

낚시꾼은 다시 새 미끼를 채운 낚시를 바다 저 멀리 던져 놓고는 예의 그 기다림의 자세로 돌아갔다. 그는 담배를 한 대 꺼내 물고는 라이터를 찰칵 켜다. 나는 다시 벤치로 돌아가 앉아서 아까 가지고 온 신문을 펼쳐 들었다.

신문의 일면은 아직도 끝나지 않은 본국의 정치자금 스캔들로 가득차 있었다. 그 와중에서 누군가는 자살을 했다는 기사도 있었다. 가오리는 지금 차라리 죽어 버리고 싶지는 않을까. 나는 아무짝에도 쓸모 없는 걱정을 하고 있었다.

大道別墅 대도별서

우리 부부를 태운 밴은 좁은 골목 길을 굽이 돌아 언덕을 향해 올라가고 있었다. 길이 워낙 좁아 맞은 편에서 차가 내려오면 그 중 하나는 다시 후진해서 서로 비켜 갈 수 있는 데까지 내려가야 했다.

차가 다니기에는 길이 너무 좁아 짜증이 날만도 하건만 운전기사는 한 마디도 불평을 하지 않았다. 그런 불편한 길을 운전하게 하는 우리가 오히려 미안

해서 안절부절이었다.

조금 더 올라가니 아직까지 답답하기만하던 언덕길이 확 트이면서 구름 속에 정상을 감추고 있는 디아블로 산이 지척으로 다가왔다. 저 아래 골짜기에는 가느다란 실위에 개미가 기어가는 것처럼 680번 고속도로 위에 자동차들이 꼬물 거리고 있다.

높은 데 올라왔을 때 언제나 느끼는 것이지만 인간은 자연 앞에 너무나 보잘 것 없는 존재라는 것이다.

“This is a final home and harbor for me.” E. O.

노벨 상금으로 탄 4만불 중 일부를 끊어 산래몬 벨리에 158에이커의 땅을 산 그는 자신의 떠돌이 인생의 마지막 기항지로 삼고 집을 지었다.

검은 대문이었다. 문에는 네 개의 漢字가 흩어져 있는데 어떻게 읽어야 할지 모르겠다. 한참 만에 짐작으로 찾아낸 것이 ‘大道別墅(대도별서)’다.

별장으로 들어가는 대문이라는 뜻이 아닌가 한다.

문을 열고 들어서니 이담한 정원이 낮은 방문객을 맞이한다.

겨우 한 사람이 걸을 수 있는 보도에는 붉은 벽돌이 깔려 있고 양 옆에는 무릎 높이로 잘 정돈된 사철나무가 가장자리를 장식하고 있다.

그 길은 미로처럼 두세번 꺾어진 다음에야 현관쪽으로 접근하게 돼 있다.

그러나 현관이 있어야 할 자리에는 콘크리트 벽돌 벽이 우리를 가로 막고 있었다.

어디로 들어가야하는가? 어리둥절하여 두리번거리고 있는 나를 장난기 어린 눈으로 바라보던 안내원이 얇은 미소를 띠며 왼쪽을 가리킨다.

마치 창고문처럼 투박하게 생긴, 붉은 페인트가 칠해져 있는 문이 굳게 닫혀있다. 직선으로만 내닫는 악령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길도, 문도 정면으로부터 비껴서 낸 것이다. 그리고 보니 대문을 들어설 때 언뜻 인상적이었던 검은 지붕이 떠 올랐다. 그렇다면 검은 지붕과 검은 대문, 그리고 붉은 벽돌길과 붉은 현관문은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일까.

그것은 악령을 물리치는 세력, 즉 행운을 의미한다고 했다.

아무리 완고한 문이라도 열쇠만 있으면 열리는 법.

우리는 조심스럽게 안으로 들어섰다. 미국이 낳은 위대한 극작가가 정장을 한 채 사진틀 속에서 우리를 맞이하고 있다. 찌르는 것 같은 눈빛이다.

현관을 들어서면 눈에 띄이는 것은 동양적인 실내 장식이다.

이 집의 안주인은 중국문화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집안 구석 구석에 동양적인 실내 장식을 하면서 그 가구들을 Gump's* 에서 구입했다고 한다.

그 녀는 진한 밤색 타일로 바닥을 깔면서 대지라고 했고 사파이어빛 푸른색으로 천정을 칠하면서 하늘이라고 했다.

오른쪽으로 들어서니 응접실인데 한 쪽 벽이 검푸른 색으로 칠해진 유리벽이다. 거울이란다. 아! 그것은 현관(진초록색)에도 있었다. 그 거울은 맑게 비치는 보통 거울하고 달라서 음산한 분위기를 퍼뜨리고 있었다.

우물을 들여다 보고 있는 것 같았다. 어렸을 때 바닥이 보이지 않는 우물을 들여다보면 무언가 나를 끌어당기는 힘을 느끼곤 했다.

그것은 陰氣^{음기}였다. 중간에서 한 번 꺾어진 계단을 통하여 이층으로 올라가니 왼쪽으로 안주인의 침실이다. 역시 방은 하늘을 상징하는 푸른 색으로 칠해졌다. 그 다음에 있는 방이 바깥 주인의 침실인데 뒤에 무언가가 숨어있는 것 같은 검은 바탕의 세번 째 거울이 우리를 맞이한다.

한 쪽 벽에 대어 있는 티크 침대(중국 골동품)는 잘 손질되어 있었다.

주인 부부가 이 집을 팔고 이사갈 때 그들이 사용하던 가구들은 다시 Gump's로 되팔려 갔는데 그의 작품에 주연을 맡았던 캐터린 햅번의 짙막한 편지 한 통으로해서 그 침대(Opium couch)는 1992년에 제자리를 찾아올 수 있었다. 그런 사연이 있었군.

침대가 놓여 있는 벽쪽으로 붙어있는 옷장(walk in closet)을 대충 훑어보고 드디어 우리는 마지막(?) 문을 열고 들어섰다. 그러니까 여기까지 오는데 현관으로 들어선 이 후 집안에서만 세계의 문을 거쳐야 했다.

그의 집필실은 맨 안쪽에 그렇게 완벽하게 고립되어 있었다.

이 모든 배치는 안주인에 의해서 설계 되고 관리 되었다.

생전에 그가 그리던 바다와 항해, 그리고 선실을 연상시키는 서재에는 의자를 중심으로 두개의 책상이 마주 보고 앉아 있었다. 이 쪽 책상에서 A 작품을 쓰다가 문득 B 작품에 적당한 생각이 떠오르면 의자를 확 돌려서 저 쪽 책상으로 옮겨 앉았다고 한다.

동시에 두 작품을 쓸 수 있게 한 것이다. 하기가 영감은 떠 올랐을 때 재빨리 잡아놔야지 어물어물하다가는 놓쳐 버리게 마련이다. 안내원은 실물 크기의 그의 육필 원고 사진을 보여 주었다. 보일 듯 말 듯한 줄위에 뭔가가 기어가고 있는 모양은 마치 밖에서 보았던 고속도로 위에 꼬물 거리고 있는 '개미' 같았다. 우리는 확대경을 통하여 그의 작은 글씨를 겨우 읽을 수 있었다.

그렇다면 높은 데서 내려다 본 보잘 것 없는 인간들도 혹시 어떤 위대함을 품고 있는 것은 아닐까.

그 집의 안주인 Carlotta Monterey는 Eugene O' Neill(1888~1953)과 결혼(1929)한 후 아내이자 매니저로, 또 간호사로 완벽하게 그녀의 '메스터'를 관리(?)했다.

1937년부터 1944년까지 여기서 사는 동안 '밤으로의 긴 여로(Long Day's Journey into Night)'를 비롯해서 그의 절정기 작품의 산실이었던 Tao house(道家)는 오늘날 가장 잘 보존된 미국 문학 유적으로 꼽히고 있다.

검은 지붕과 대문, 그리고 붉은 벽돌길과 현관문이 미국 문학에 행운을 가져다 주었는지도 모른다.

그러나 1944년, 결국 '알코올 악령'의 추적을 뿌리치지 못한 오늘은 병약한 몸을 이끌고 그 집을 떠나야했다. 바닥이 보이지 않는 우물(거울)에서 뿔어져 나와 집안 전체에 맴돌고 있는 음기 때문이 아니었을까 했다면 비약일까.

수필시대

*Gump's

1861년에 문을 연 샌프란시스코의 상징적인 고급 백화점.

동양과 서양, 고전과 현대의 특징을 동시에 소화하고 있는 상점으로 유명한.

● ● 심사평 ● ●

주대식 씨의 두 편의 수필을 추천한다. 주대식씨는 미국 샌프란시스코 쪽에 살면서 그 곳 신문에 많은 글을 쓰는 분이다. 그가 고국의 수필문단에 등단의 절차를 밟는다고 생각하고 원고를 보내왔다.

내가 그를 알게 된 것도 3-4년이 넘는데 이제야 원고를 보냈다면 빠른 편은 아니다. 다섯 편의 원고를 돌려 읽으며 그 중에서 “가오리의 올가미”와 “대도별서”를 뽑았다.

“가오리의 올가미”는 바다 낚시에서 경험한 것이고 “대도별서”는 미국의 노벨상 수상작가 Eugene O'Neill 의 저택을 구경한 것을 글로써 남기고 있다. 두 편 모두 능숙한 글 솜씨와 구문에 따라 재미있게 읽힌다. 그만큼 주대식씨는 오랜 기간 글을 써왔기 때문이다.

외국에 살면서 모국어로 글을 쓰는 일은 쉽지 않은데 이런 분들이 많이 나와서 우리 글이 세계화되고, 우리 문학이 여러 나라에 많이 알려졌으면 한다.

문운을 빌며 수필문학의 큰 성취를 얻기 바랄 뿐이다.

김 학, 도창희, 성기조, 유혜자, 정목일

>>> 당선소감 <<<<

당선의 기쁜 소식을 듣는 순간, 전깃줄 위에
앉아 따스한 봄 햇살에 꾸벅꾸벅 졸고 있는 이름
모를 새에게도 얘기하고 싶었고, 어릴 적 손가락
에 반지처럼 만들어 끼던 보랏빛 제비꽃에게도
얘기하고 싶도록 얼마나 기뻐는지 모릅니다.

오랜 세월동안 가슴속에 묻어두었던 얘기 보
따리의 매듭을 풀어내면서 이 순간을 기다려오긴
했지만, 막상 당선 소식을 듣고 나니 선생님 몰래
나쁜 짓 하다가 들킨 아이처럼 부끄러워 콩당 거
리는 가슴을 누가 볼까봐 숨어버리고도 싶었습니
다.

살아온 동안보다는 남은 삶 동안에 느끼는 모
든 기쁨과 슬픔, 그리고 그리움에 대한 눈물들을
가슴속에서 피 올려 글로 써가는 일에 게으름 피
우지 않으렵니다. 열심히 쓰렵니다.

아직도 글이 설익어 부족함이 많음에도 좋은
글 쓰도록 용기를 주신 심사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또한 글을 쓰며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지도해주시는 김학 교수님께도 감사드
립니다.



배운숙

kkoggi7@naver.com

경기도 수원 출생
전북대학교 평생교육원 수필창작반
수료
행촌수필 문학회 회원
전주시 주최 '평등부부 수기 공모'
입상
전북 전주시 덕진구 우아1동 3가
우아 APT 115/506
010-4226-2212
063-244-0325

어느 신부님의 주례사

새 신을 신고 펄쩍 뛰어보면 하늘까지 손이 닿을까? 높고 파란 가을하늘의 멍게구름은 숨처럼 몽실몽실한 것이 팔을 뻗으면 닿을 듯 그렇게 화창한 일요일이다.

아침 일찍 서둘러 정읍으로 향했다. 일요일 아침이라 국도는 한가했다. 흐드러지게 핀 길가의 코스모스가 바람에 흔들거리고, 부지런한 농부들은 도로 한 개를 완전점거하여 농성이라도 하듯 나락 가마니들을 풀어놓고 있었다. 아직도 벼 수확이 덜 된 곳도 있련만 일찌감치 수확한 논은 베어낸 곳에서 파랗게 새싹이 돋아나 있었다. 추석 때 햅쌀을 수확했던 논에는 벌써 가축들의 겨울 사료로 쓰일 하얀 볏짚뭉치들이 여기저기 놓여 있었다.

새로 길을 만드는 곳도 있었고, 이미 만들어진 길도 보수를 하는 탓에 앞서 가는 차들이 연이어 먼지바람을 일으키기도 했다. 한 시간도 채 못 걸려서 정읍 성당에 도착해보니 이미 많은 교인들이 와 있었다. 의자 한 옆에는 장미 코사지가 장식되어 있었고 성당입구에는 꽃으로 장식한 아치게이트가 오늘이 무슨 날인가를 말해주고 있다.

미사가 끝나고 신부님을 도와 몇몇 교인들이 바쁘게 움직였다. 성당입구 층계 옆에서는 연미복을 입은 오늘의 주인공 안드레아가 싱글벙글 웃으며 하객들과 인사를 나누고 있었다.

올해 스물 아홉의 건실한 청년 안드레아. 평소에는 미사 시작중이 울리기 전에 앞을 잘 못 보시는 아버지를 모시고 와서 자리를 잡아드리고 자신은 그 옆에서 열심히 기도를 하곤 했었다. 어느 날, 청년은 청순가련한 백합꽃같이 예쁜 여자친구를 데리고 왔다. 그리곤 두 사람은 예쁜 사랑을 나누었고 오늘 드디어 결혼식을 올리게 된 것이다.

어머니 없이 형과 할머니와 아버지를 모시고 살던 안드레아는 미사 시간이

있는 날이면 놀고 싶기도 하련만 변함 없이 신부님 옆에서 하얀 복사복을 입고 서있던 착한 학생이었다. 대학에서는 환경공학과를 다니면서 취미활동으로 기타를 치는가 했더니 어느 날인가는 연주회에 참석해달라고 연락이 와서 꽃다발을 가지고 달려간 적도 있었다. 대학졸업 후 국방의무를 충실히 이행했고 이어 일류 건설회사에 취직을 했다. 할머니님이 돌아가시고 형이나 누나도 결혼하고 몇 년 동안 혼자서 아버지를 모시고 살면서도 얼굴에는 그늘이 없고 항상 웃는 모습으로 성실하게 살던 안드레아가 드디어 오늘 결혼을 하게 된 것이다.

우리 몇몇 교인들은 축하성가를 준비했다. 시간이 다 되자 웅성거림이 좀 있는 듯했으나 혼배미사가 시작되자 엄숙한 분위기가 되었다. 이윽고 싱글벙글 웃는 모습의 안드레아가 사회자의 신랑 입장 소리에 맞춰 성큼성큼 화이트 카펫 위로 걸어 들어왔고, 수줍은 백합꽃 신부는 아버지의 손을 잡고 입장했다. 순간 꼭 30년 전, 이 성당에서 결혼식을 올렸던 내 모습이 생각났다. 옆에 앉은 남편의 옆얼굴을 보노라니 같은 생각을 하는 듯 감회어린 모습으로 신랑 신부를 보고 있었다.

신부님의 주례사 겸 설교 말씀이 있었다. 지각생이 되지 말자는 말씀이셨다. “사랑을 함에도 지각하지 말고, 용서를 구함에도 지각하지 말고, 이해하는 것에도 지각하지 말자.”는 말씀이셨다. 주례사라고 하면 학교 조희시간의 교장선생님 말씀처럼 너무도 지루해 하기 마련이건만 신부님의 2-3분도 채 되지 않는 권면의 말씀은 오늘의 주인공인 신랑신부 말고도 우리 모두의 가슴에 와 닿는 훌륭한 말씀이었다. 과연 우리는 신부님의 말씀처럼 사랑을 함에 있어, 용서를 구함에 있어, 그리고 이해함에 있어 지각을 하지 않고 잘 살아왔다고 자부 할 수 있을까 싶도록 오래오래 가슴에 남는 말씀이 아니었나 싶다. 또한 검은 머리가 파뿌리 될 때까지든지, 부모님께 효도하고 형제간에 우애하며, 늘 감사하며 살리는 등등 판에 박힌 주례사가 아니어서 아주 상큼하게 들렸다.

신랑신부가 하객들에게 공손히 인사를 하고 행진하는 것을 보고 마음속으로 간절히 기도했다. “주님! 안드레아와 카타리나가 만나 사랑하는 마음이 생

긴 그 처음처럼 변함 없이 사랑하면서 살아가도록 도와주세요.”

이주 오래된 습관

언제부터인가 길을 오가는 사람들을 유심히 보는 습관이 생겼다. 그러나 내가 사람들을 보는 쪽은 옷이 아니라 걸음걸이다. 더위로 인해 노출이 심하다 보니 아슬아슬한 옷차림으로 아찔해질 때도 있다. 각자 개성대로, 아니면 유행에 민감한 이들은 그들 나름대로 옷차림이 다른 것이야 어쩔 수 없는 일이다. 자신의 신체조건을 생각지 않고 어울리지 않는 차림을 한 사람들도 있지만, 때로는 나이가 들었어도 나름대로 잘 소화시키는 이들도 있어 참 멋있다는 생각도 한다.

옷뿐만이 아니다. 신발도 마찬가지다. 요즘엔 복고풍이든 아니든 입으면 옷이요, 신으면 신발인 것 같다. 그러나 아무리 개성이 있고, 유행에 따르는 것이라고 하기엔 옷지 못할 일들도 보게 된다.

알라딘 신발이라는 것이 있다. 발가락 있는 부분이 뾰족하고 길게 생긴 신발이다. 아무리 생각해도 그런 신발을 어떻게 신고 다닐까 싶지만 그들 나름대로 멋있게 생겼고, 멋있어 보이니까 신는 것이리라. 그러나 그 신발이 낳는 부작용은 꽤나 심각하다. 알라딘 신발을 신고 걷는 이들의 걸음걸이를 보면 대부분 엉덩이를 뒤로 빼고 걷는다. 굽이 높고 앞꿈치가 길게 생긴 신발로는 바르게 걸을 수 없기 때문이다. 걷는 모습을 보면 시옷 걸음, 즉 안장걸음이다. 신발 때문에 생기는 몸의 불균형으로 척추에 이상이 올 수도 있다는 것을 모르기 때문이 아닐까 싶어 안타깝다.

젊을 때야 신경을 별로 쓰지 않겠지만 요즘 젊은이들이 허리 아프다는 얘기를 많이 하는 것은 잘못된 자세 때문이 아닐까 싶다. 학교에서 오랫동안 책상 앞에 앉아있거나 직장에서의 의자생활로 인해 통증을 호소하기도 하지만 신발 또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몇 년 전에 여학생들과 만나서 상담한 적이 있다. 그 학생들의 신발 역시 알려진 신발이었는데 그 신발을 택한 것은 몇 때문이었다고 했다. 걸음을 걸어보도록 했더니 아니나 다를까 우려했던 그런 모습이었다. 느낀 점을 서로 얘기해보라고 했더니 내가 생각하고 있는 것과 별 차이가 없었다. 엉덩이는 뒤로, 상체는 앞으로, 발은 시옷자로 걸었다. 잘못된 자세를 지적하여 신체의 심각성을 깨닫게 한 적이 있다.

요즘 사람들은 걷는 것에 인색하지만 운동 삼아 걷는 사람들도 많이 생겼다. 그러나 너무 많이 걸으면 나이 드신 분들이나 비만인 사람들에게는 오히려 무릎관절을 다치게 하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 건강해지라고 걷는 것도 바르게 걸어야 더욱 건강해지지 않을까?

어렸을 때가 생각난다. 항상 걸음걸이가 바르고 안전하신 엄마 때문에 우리네 자매들도 자연스럽게 길들여졌다. 삼촌이 가끔 신발 점검까지 하고 나서는 바람에 우리는 삼촌이 땀다하면 초긴장 상태가 되었다. 신발의 밑창이 팔자걸음으로 한 쪽으로 쏠려 있는 것은 아닌지 검사를 했기 때문이다. 더구나 조금이라도 더러우면 호되게 야단을 쳤다. 사실 여자들이기 때문에 남자애들처럼 활발하게 행동하는 일들이 별로 없고, 엄마 덕분에 늘 깨끗한 신발을 신는 편이었다. 험하게 신어서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너무 자주 닦아서 닳아지는 것이 아닐까 싶지만 한 달에 한 번 정도 삼촌이 오시는 날은 우리들에게는 기쁨보다는 공포 그 자체였다. 보다 못하신 할머니께서 우리 마음을 헤아려주시느라 그러셨는지 아니면 사실 그런 일이 있었는지는 모르지만 이렇게 일축해버리시곤 하셨다.

“지는 신발 사주면 그 날로 잃어버리면서 조카들을 왜 닥달하누?”

그 말을 들으며 킁킁 웃었던 기억이 난다. 지금 생각해보면 삼촌은 일제시대를 겪었던 분이어서 어려운 시절이니 만큼 신발도 아껴 신으라는 깊은 뜻이 숨겨 있었던 것 같다.

삼촌 덕분에 항상 신발은 깨끗해야 한다는 것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습관이 되었다. 신발 뒷부분을 구부려 신지 않고 바르게 신도록 습관들여진 것도 삼촌 덕분이다. 남편의 신발도 깨끗하게 솔질해서 출근하도록 하는 것도 결국은 나 자신의 오랜 습관 때문일 수도 있겠다. 좋은 습관이 간혹 귀찮을 때도 있지만 깨끗하게 손질된 신발을 신고 출근하는 남편의 기분이 상쾌한 만큼 내 기분도 하루 종일 상쾌하니 서로 좋은 일이 아닐까? **수필시대**

더불어 사는 삶

이대엽 시집
문예운동 / 값6,000원

● ● 심사평 ● ●

배윤숙 씨의 “어느 신부님의 주례사”와 “아주 오래된 습관”을 골라 추천한다. 다섯 편이나 되는 수필을 보냈는데 모두 수준작이다.

열심히 공부하면 좀 늦게 출발을 했어도 목적지에 도달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이다. 스물 아홉 살이나 먹은 안드레아가 결혼하는 장면을 여실하게 그려낸 “어느 신부님의 주례사”는 많은 감동을 주었다. 필자는 안드레아의 어린 시절을 회상하면서 대학을 졸업하고 취직을 하고 항상 웃는 모습으로 살아온 나날들을 대견하게 여긴다.

그리고는 자신도 30년 전 이 성당에서 결혼했던 기억을 더듬는 장면은 이야기가 수필이 되는 과정을 잘 담고 있다. 이런 것이 글을 만드는 재주에 해당하겠지만 간단한 이야기를 가지고 이만한 글을 만들기란 쉽지 않다.

또한 “오래된 습관”도 마찬가지다. 알라딘 신발을 신으면 멋있어 보이지만 걸음걸이가 이상해지고 신체의 발달이 고르지 못하다. 필자가 어렸을 때 삼촌의 신발검사, 밑창이 잘못 닳아도 야단맞았던 기억을 더듬어 쓰면서도 문장표현은 즐겁다. 할머니가 삼촌을 나무리는 장면은 반전을 의미하지만 글을 다루는 솜씨가 익숙하다.

좋은 수필가로 발전해가기를 빈다.

김 학, 도창희, 성기조, 유혜자



김영숙

kymhodgins@shaw.ca

충남 부여 출신
1974년 캐나다 이민
2001년 <얼음꽃문학동아리> 동인
활동

주소 : 11335-37 Ave Edmonton
Alberta Canada T6J 0H6
1-780-435-7183 집,
1-780-449-0724

>>>> 당선소감 <<<<

지곳이 놀라는 어둠을 헤치고, 깊이 감추어져 있던 빛을 마음껏 발산하고, 꿈에 그리던 삶을 실천하며 살리라, 먼저 간 사랑하는 사람들의 몫까지 사랑하던 사람이 어린 자식들을 남겨두고 세상을 떠나 버리고, 내가 사랑하고 믿던 하나님마저 나를 버리신 듯이 느껴지고, 날개 잃은 나의 삶이 짙은 안개 속에서 홀로 외로워 움츠리며 떨고 있을 때 나를 밝게 바라보는 하얀 종이와 방긋 웃는 펜이 손짓을 하자 마음의 날개는 대화하고 싶어 엉덩 방이를 찡습니다. 그래서 비로소 대화의 상대를 찾아 방향을 끝내고 하얀 종이 위에 내 마음을 담아 보았습니다. 그 편린들이 바로 오늘의 영광이 될 줄이야 부족한 나를 이끌고 격려하며 더불어 한국문학의 평생학습, 습작을 지도 해주신 이 종학 선생님과 “얼음꽃문학동아리” 동인 여러분들께 감사와 기쁨을 같이 나누며 오래도록 문우의 길을 걷고 싶습니다. 그리고 못난 이 엄마를 지금의 자리를 얻을 수 있도록 사랑해 주고 빈자리 채워준 두 딸과 아들, 그리고 등뒤에서 항상 지켜봐 주신 어머니와 얼마 전 본향으로 가신 아버지께 이 영광을 올려 드리고 싶습니다.

끝으로 제 부족한 글을 내치시지 않고 선처해 주신 심사위원님들 진심으로 감사 합니다. 시간 없다 한눈 팔지 말고, 열심을 다 하려는 채찍으로 저의 지팡이 삼아볼까 합니다.

별 중의 별

오래된 이민생활을 처음부터 회상하려고 하니 제일 먼저 들췌가 떠오른다. 하늘에 있는 많은 별들 중 하나를 따온 것보다 어렵게 얻은 아들이기 때문이다. 1972년 만삭인 몸으로 김포공항을 떠나 태평양을 건너 캐나다에 왔는데 그때 아들을 포태했었다.

이민 첫발을 디딘 곳은 켈거리, 그곳에 도착한 지 20일 만에 건강한 아들을 분만했다. 그때 내 마음은 하늘에서 별을 따 온 만큼이나 기뻐다. 그 기쁨이 아직도 크고 소중한기에 지금도 이렇게 잊을 수 없어 한다.

이민 초 나는 한때 대화할 사람이 그리워 찾아 헤맨 적이 있다. 고독이 쌓이고 외로움에 짓눌려 어찌 할 바를 모르고 망설이다가, 펜을 들고 종이 위에 내 심정을 적다보니 바로 그것이 나의 마음과 정이 흐르는 벼이 되었고 그리고 나의 외로움을 덜어주는 글이 되었다.

연약한 몸으로 첫딸을 낳고 충분한 휴식을 취할 수 없었던 환경과 병원비를 낼 수 없는 가난 때문에 산후 조리를 제대로 하지 못한 탓으로 더욱 쇠약해진 몸이 다가 어렵고 고달픈 시집살이, 심신이 지칠 대로 지쳐 있고 약해질 대로 약해진 상태였다. 이런 내가 두 번째 포태를 한다는 것은 무거운 돌을 품에 안고 물속으로 뛰어드는 것과 다름이 없었다. 그래서 잘못 자궁외 임신이 되었다. 나는 그 당시 의사의 이름도 모른다. 경상도 사투리를 쓰던 그 의사의 집도로 죽을 수밖에 없었던 내가 다시 살아났다. 그야말로 보너스 인생을 산 셈이다. 그후로 여러 번 유산이 되어 친정 부모님에게 많은 걱정을 끼쳐 드렸다. 그러다가 부모님의 온갖 염려와 정성으로 어렵사리 아이를 갖게 되면서 캐나다 이민 수속을 시작하게 되었고, 순조롭게 진행되어 만삭이었을 때 조국을 떠나게 되었다.

미지의 세계, 새로움에 익숙하지 못하면 당황하고 고생하는 이민, 그러나

의외로 나는 낯선 나라 땅을 딛는 첫발이 너무나 가볍고 상큼함에 마음이 놓였다. 무엇보다도 매일같이 무겁게 짓누르며 아프던 머리가 맑아져서 기뻐다. 목적지에 도착하는 즉시 홈닥터를 정하고 찾아야 한다는 서울에서의 의사의 말에 따라 캐나다에서 의사를 처음 만났다. 물론 이곳에 먼저 와서 자리잡고 있던 아이들 삼촌과 고모의 도움을 받았다. 그 의사는 바로 태아의 건강을 확인해 주었다. 나는 날아갈 것처럼 마음이 놓였다.

가난했던 우리는 가지고 올 것이 없었지만 그나마 있던 살림들도 이웃에게 다 나누어주고 달랑 이민 가방 두 개와 단돈 이백 오십 불을 들고 이곳에 도착했다. 거기에 만삭인 나와 네 살 된 어린 딸, 그러니 가장인 아빠는 어찌 멀리 이민 온 긴장과 불안을 풀 수 있었으랴. 시차로 힘들어하면서도 일주일일 채 되기도 전에 그는 직장을 구해 일터에 나가야 했다. 그러니 아직은 집안에 있던 내 마음이 편할 리가 있었겠는가;

내가 무엇을 해야 좋은지 전연 감조차 잡을 수 없었다. 모든 것이 낯설고 앞뒤를 분간할 처지가 못 되는 타국이기에 더구나 언어의 장벽도 있고 해서 문밖 출입조차 자유롭지 못했으니 그저 걱정되고 답답할 뿐이었다.

나를 무척이나 괴롭혔던 두통은 사라졌으나 말을 할 수도, 들을 수도 없는 병어리요, 귀머거리 노릇을 하고 앉아 있어야 했으니 그 답답함을 어찌 다 표현할 수 있었겠는가. 그래서 자나 깨나 항상 바늘방석에 앉아 있는 기분을 떨쳐버릴 수가 없었다.

주말에 큰집 가족이 한국에서 갓 온 우리를 반기기 위해 왔는데 만삭인 나를 보고 간호사로 있던 윗동서가 당장 같이 가자기에 따라 나섰다. 그리고 밤이 늦도록 운전을 해서 캘거리에서 북쪽으로 300킬로미터 떨어져 있는 위타스킨 형님 댁으로 갔다. 그런데 바로 그날 새벽녘에 갑자기 산기를 느꼈다. 새벽같이 세상에 나오겠다고 보채는 태아를 달래보려고 했으나 한사코 말을 듣지 않아서 염치 불구하고 형님을 깨웠다. 이렇게 근무하는 가까운 병원에 도착한 지 한 시간도 되지 않아 무사히 해산했다. 건강하고 잘 생긴 아들이었다. 병원에 일주일 입원했다가 크리스마스에 아기가 퇴원하게 되어 병원 측으로부터 많은 선물을 받기도 했다.

큰 수술과 거듭된 회임 실패로 아기를 낳을 수 없을 것으로 알았는데 건강한 아들을 안겨 준 그 기쁨을 나누고 전할 길 없어서 아기와 둘이서 속삭이던 일은 지금도 잊을 수가 없다. 이런 아들과의 속삭임은 장성한 오늘까지도 계속하고 있기에 더욱 그렇다.

세상의 어려운 역경 속에서 지칠 대로 지쳐 있는 나를 항상 지켜 주었고 우울함에 싸여 있는 나에게 밝은 웃음을 안겨 주던 아들의 어린 시절을 어찌 기억에서 지울 수가 있단 말인가.

가냘픈 나를 닮았고 너무 어린 탓에 잔디 깎는 기계를 이기지 못하여 힘겨워할 때, 우리 둘은 한몸 되어 자란 잔디를 깎던 일, 추운 겨울을 지내고 그 큰 뜰을 봄청소할 때는 일찍 돌아가신 제 아빠가 그리워 양볼에 눈물을 적시면서, 남아로써 해야 할 일들을 할 수밖에 없었던 그 때 그 어린 시절, 그러기에 언제나 홀로 누나나 동생이 할 수 없는 일을 해내야 했다. 집에서 혼자 있는 것으로 만족했으며, 자신의 장래를 생각하기보다 혼자된 엄마를 염두에 두고 큰일을 결정해야 했던 그때의 아들이, 내 어찌 잊을 수 있으랴.

그래서일까? 이제는 다 자란 청년이 되었는데도 하는 일들이 모두 나를 너무 닮은 듯해서 때때로 놀랄 때가 있다. 이제는 세상에 나가 훌륭하고 돈 많고, 유명한 아들이 되기보다는 착하고 성실한 사람, 그래서 많은 사람을 사랑으로 이끌어주는, 그리고 메마른 세상을 단비같이 촉촉이 적시어 줄 수 있는 사람, 냉냉한 가슴을 따뜻한 마음으로 흠뻑 젖게 하는 사람, 외로운 자의 좋은 친구가 되어주는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 어둠을 은은히 밝히는 밤하늘의 별처럼 이 땅에 그리고 내 마음에 별 중의 별이 되어 주었으면 하는 것이 나의 조그마한 소망이다.

사랑의 열매

-딸의 30회 생일을 맞아

너는 나의 속사랑을 한데 뭉쳐 세상에 내놓은 나의 속사람이다. 어려운 중에 얻은 여리고 싱그러운 내 사랑의 열매가 아름다운 빛을 발하며 나의 분신이 의젓하게 성숙했구나. 내 조그마한 몸속에 담고 있는 지가 엇그제 같은데 넓고 밝은 세상을 보려고 네가 세상에 나온 지 벌써 30년이나 되었다니 질주하듯 빠르게 지나가는 세월을 다시 한 번 느끼게 한다.

너는 내 몸을 빠져 나올 때 놀라움의 몸부림인지, 기쁨의 환호인지 그 무엇인가를 세상에 알리기 위해 야무진 고고의 소리로 조용한 아침을 깨웠단다. 너의 그 신선하고 신기한 울음 소리가 지금도 나의 귓가에 생생하게 살아남아 있음은 물론이다.

어려운 시집살이를 하면서도 하루가 다르게 자라는 너의 모습을 바라보기만 하여도 나의 가슴은 뻗듯했으며, 냉랭했던 환경과는 아랑곳없이 아름다운 무지개가 되어 온유하고 풍부한 삶의 등불이 되었고 무겁고 험거운 생활의 짐을 덜어주는 짐꾼이 되었는가 하면 어려운 관계로 치닫는 가족 관계를 원만하게 이어주는 다리가 되어 주기도 했단다. 그래서 너는 우리 가정의 등대요, 이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고 어느 누구도 가질 수 없는 오직 나를 위해 맞추어진 보배 중의 보배였단다.

가난하였으나 사랑이 시내가 되어 흐르고 행과 복이 같이 하는 대가족 속에서 비록 여리게 자랐지만 많은 동생들 틈에서도 업둥이라 불리며 할머니와 부모님의 사랑을 듬뿍 받으며 자란 나이기에 내 마음속 깊은 곳에는 청명한 사랑이 넘치도록 가득했다. 이런 내가 낯선 가정으로 시집을 오고 보니 모든 게 생소하고 부자유스러웠지. 그래서 자연히 마음에 냉기가 흐르고 사랑하기보다는 저주를, 평안보다는 불안이, 웃음이 있기 전에 눈물이 앞서고 말았지. 이런 절박한 때

바로 네가 생겨났으니 내 마음이 오죽했겠니. 내심 나타내질 못하고 숨어 있던 나의 강하고 진하고 질긴 사랑의 전부를 오직 너에게 쏟아놓을 수 있었다. 그러기에 너는 나의 속사랑의 물을 마음껏 마시고 자란 나무이며 열매란다.

1974년 11월 22일 우리는 어린 너를 데리고 캐나다 이민 길에 올랐다. 그리고 처음 캘거리에 자리를 잡았지. 답답하고 힘든 이민생활이 시작된 것이다. 세 살 밖에 안 된 너는 이곳에서나 저곳에서나 천방지축 뛰어다니며 불안하고 어수선하기만 했던 이민 가정에 그나마 사랑과 웃음을 뿌리고 다녔단다. 아무지도 영특했던 너는 매일매일 다르게 이곳 생활과 언어에 익숙하게 적응하며 바르고 아름답게 성장을 했지.

네가 16세가 되던 1987년 6월 30일, 우리는 큰 호수인 실번 레이크에 가서 너의 스위트 식스틴을 축하한 적이 있었어. 그때 우리 가족은 저 큰 호수와 같이 크고 대담하고 청명하며, 평화롭고 잔잔하게 성장하도록 도와주세요, 하고 너를 위해 하나님에게 기도했던 일을 너는 기억하는지 모르겠구나.

그런데 며칠 후에 우리는 인력으로는 피할 수 없는 환난에 휩몰리고 말았구나. 그렇게도 건강하셨던 너의 아버지가 북쪽에 일하러 가셨다가 사고로 가족이 있는 집으로 돌아오지도 못하고 저 세상으로 떠나시고 말았지 않았니. 아버지를 잃은 너희들에게도 더없이 슬픈 일이었지만 나로서는 절벽 위에서 떨어지는 절망을 맛봐야 했단다. 일시에 모든 것을 잃은 좌절이었지.

그러나 이런 회오리바람 속에서도 의연하게 대처하는 너를 대하는 것이 나의 유일한 위안이었음을 솔직하게 고백한다. 그때 아직도 어린 너는 나의 천사가 되어 꺾여 없어진 날개 노릇을 해주었고, 허탈에 빠진 나의 작은 몸의 손과 발이 되어 내 마음이 채 미치지 못한 구석구석까지 보살폈음은 물론 너의 동생들까지도 돌봐 주지 않았니.

한창 친구들과 마음껏 즐기고 놀아야 할 나이에, 부모의 신경을 집중시켜야 할 시춘기에도 너는 동생들의 어리광을 받아주어야 했으며, 외로움에 떨고 있는 엄마의 친구가 되어 주었지. 그리고 불이 꺼진 나의 등대에 희망의 불을 붙여주며 용기를 되찾아 만족한 삶을 영위하도록 길을 열어 주었구나.

우리 모녀는 서로 격의 없이 웃고 울고 위로하고 원망하며 세상의 거친 파도

를 헤치며 살아왔단다. 때로는 짜증스럽기도 하고, 더러는 힘들어 자포자기할 때도 많았으나 그러나 우리 모녀는 패배한 삶이 아니고 승리하는 삶을 살기 위해 노력했고 또 결과적으로 그런 삶을 이루었다고 자부할 수 있지 않을까? 물론 이렇게 되기까지는 너의 힘이, 너의 노력이 절대적으로 작용하였음을 부인할 사람은 아무도 없단다. 때에 따라서는 용기를 북돋고, 경우에 따라서는 앞장서 건인차 역할을 했고, 안타까워 몸부림치고 발을 구르며 채촉하고 격려했던 너의 간절한 힘이 아니었으면 어찌 오늘이 있었겠니. 그래서 엄마는 네가 자랑스럽고 또 너에게 다시한번 고마움을 느끼고 있을 뿐이란다.

내 곁에 있어 주기를 바랐고 내가 필요로 할 때 너는 항상 나와 함께 하였고, 그러기에 너는 나의 삶의 전부가 되었지. 네가 어렸던 그 옛날과 같이 말이다. 그러나 네가 성숙해지면서 너의 마음속을 엄마만이 차지할 수 없음을 깨닫게 되자 전에 없던 고뇌가 시작되었음을 어찌 몰랐겠어. 하지만 마음이 좁았던, 아니 아직도 외로움에서 바로 서지 못했던 나는 네가 없는 세상을 두려워했으며 그래서 한때는 내 곁을 떠나려고 하는 네가 원망스럽기도 했단다.

이런 나의 지나친 자기중심의 터널은 너를 사랑하기에 오래 갈 수가 없었다. 너는 엄마를 향한 지극한 사랑과는 또 다른 사랑을 뿌리기 위해 엄마 곁을 떠나야 하는 것임을 엄마이기에 곧 이해했던 것이다. 그러면서 너의 사랑의 삶을 위해 한눈팔지 말고 성실하고 행복하게 걸어가길 바라는 마음에 새로운 기쁨이 찾아드는 것을 깨닫고 앞이 환하게 트이는 것을 보았구나.

지금까지 엄마 위해 살아온 너지만, 이제부터는 엄마 걱정 뒤에 두고 네 마음껏 너를 위한 삶을 살아보아라. 나이 찬 너를 세상으로 내보내니 30년 전 네 두 발로 나를 박차고 나온 것처럼 너의 세상에 나가 힘차게 스스로 나아가길 바라는 게 엄마의 솔직한 심정이라나다. 사랑은 물 흐르듯이 흘러가는 것이 아니겠니. 필요한 곳에, 필요한 사람에게 때맞추어 미치고 빛날 때 그 고귀함이 더하리라고 엄마는 생각하게 되었단다.

사랑하는 나의 속사람, 나의 딸아, 나는 기도하리라. 나의 사랑을 위해, 너의 사랑의 속사람을 위해 마음껏 큰사랑을 쏟아붓도록 하나님에게 간절히 기도할 것이다. **수필시대**

● ● 심사평 ● ●

김영숙 씨의 “별 중의 별”과 “사랑의 열매”를 추천한다. 30년 전에 캐나다로 이민가 살면서도 모국어로 글을 쓴다는 것은 대단히 고마운 일이다. 지금도 모국어가 없어도 잘 살 수 있을 터인데도 날마다 몇 시간씩 글을 써야 직성이 풀린다면 얼마나 자랑스런 일인가

그쪽에 사는 교포들이 모여 문학공부를 하는 얼음꽃 문학회의 멤버로 꾸준히 공부한 결과라 하겠지만 본인의 성의있는 노력이 아니고는 연기 어려운 결실이다.

“별 중의 별”은 둘째 아이에 대한 이야기다. ‘만삭의 몸으로 김포공항을 떠나 태평양을 건너 캐나다에 왔는데’, 그때 이미 포태했었다고 말하는 필자는 그 아이에 관한 이야기를 잔잔하게 펼쳐 나간다. 세상의 어려운 역경속에서도 지칠대로 지친 필자를 밝은 웃음으로 바뀌게 만든 아들의 어린시절이 몽땅 드러나 있다. 수필의 솔직성이다. 그리고 주변 이야기지만 교훈적인 뜻을 담고 있다.

“사랑의 열매”는 딸의 30회 생일을 맞아 쓴 어머니의 인정어린 글이다. 가난했으나 사랑이 시대가 되어 흐르던 삶, 청명한 사랑이 넘치도록 가득했던 삶은 많은 사람의 부러움을 산다. 그러면서 딸에 대하여 여러 가지 충고도 잊지 않는 필자는 딸의 행복을 빈다. 그리고 하나님의 큰 사랑이 쏟아지도록 기도한다는 말로 끝을 맺는다. 다른 수필보다 좀 긴편이지만 지루하지 않게 읽히는 맛도 있다.

좋은 수필을 써서 수필문단을 빛내기 바란다.

김 학, 도창회, 성기조, 유혜자, 정목일

수필은 나에게 흘러가는 일상의 나이트에 반도체 칩을 주입하는 작업입니다. 곱게 혹은 거칠게 집약되어 갈무리된 메모리들은 어느 순간 나의 개인사적 이력을 토설하며 원고지 위에서 재생됩니다.

아린 기억이나 벽찬 감정의 소용돌이 들이 미미한 문학의 향을 스카프처럼 두르고 '지나버린 나였지만, 오늘의 나' 로서 빙그레 마주합니다. 수필의 힘을 느끼는 순간입니다. 그러면 차 한 잔 마시면서 미소로써 졸편을 응시하다가 미래에 대한 성찰의 명상에 톰입합니다. 범사에 출렁거리는 나의 작은 마음들이 한줄기 은은한 난



한기홍, 작가의 변

향에 안식하는 때이기도 합니다.

수록된 졸편들은 저의 기억 속에 오버랩 된 잊을 수 없는 편린들입니다. 간직하고 싶었던 순간들……. 잊고 싶은 괴로운 역정들 모두가 한 마리 새의 비상처럼 창공을 날게 하고픈 가녀린 소망의 궤적.

저는 아직도 소년이길 원합니다. 수필은 소년의 마음이 되라는 주문 같습니다. 물신주의에서 단 하루라도 벗어나고픈 순진무구한 소년의 何訴하소, 바로 수필문학에 푸욱 젖고픈 이유입니다.

은빛 매미의 눈망을

· 한 기 흥 ·

hkhc5656@hanmail.net

제법 많이 들이킨 술의 알곳은 심술인지, 내 안에 숨겨진 야성의 드리남인지 아무튼 어이없을 정도의 분노가 술술 피어올라 대작하던 동네친구와 심하게 다투게 되었다. 친구간이라는 허물없는 사이라서 그런지, 주위를 의식하지 않고 욕설을 내뱉으며 당장 떡살잡이 할 것같이 서로 으르렁했는데, 피차간 유형무형으로 조금씩 맺혀있던 그간의 감정이 폭발하여 끝장을 볼 것같이 다투었다.

다행히 다른 친구가 와서 강하게 중재하여 불상사는 없게 되었지만, 한동안 다툰 친구와의 마음 속 앙금은 쉽사리 지워지지 않을 것 같았다. 집에 돌아와 방에 누워서 천정을 바라보니, 초저녁의 일이 우습기도 하고 왜 그렇게 화가 났었나 후회되었다. 아마 친구도 똑같이 안타까워하고 있을 것이다. 내가 경솔했던 것 같다. 그때 물끄러미 바라보던 천정에 둥그런 원이 생겨나고, 빛나는 두 개의 눈망울이 빙긋이 웃고 있는 것이 보였다.

아! 저것은, 은빛 매미의 눈망울이다. 한동안 멍하니 바라보다가 벌떡 일어

1998년「문학세계」신인문학상 수상으로 문단 데뷔

국제펜클럽한국본부회원, 한국문인협회 인천광역시회 수필분과회장, 제물포수필문학회 회원, 갯벌문학회 회원, 계양산문학회장, 인천광역시공무원문학동우회(문학산) 회원

제3회(2000) 전국공무원문예대전 수필부문 우수상 수상, 제6회(2003) 세계계관시인문학상 수상, 제9회(2003) 제물포수필문학상 수상

저서 : 창작수필집 '은빛매미의 눈망울'

나 친구에게 전화를 걸었다.

“나야 …… . 아깐 정말 미안했네 …… .”

삼십 사 년 전, 십 삼세 소년이 본 세상과 우주는 어떠했을까. 부모님과 형제들 틈바구니에서 뒹굴면서 동네 벌거숭이 친구들과 뛰어 놀던 것이 하루의 전부였고, 공부는 뒷전으로 학교 가기가 무척이나 싫었다. 풋풋한 흠냄새가 코를 간지럽히는 원시의 황토 길에서 마음껏 뛰어 다니던 마냥 푸르른 동심은 세상이 너무나 아름답기만 했다. 충청도 공주 읍내의 郊外교외에서 시퍼런 자연과 더불어 천진난만하게 웃고 흘쩍이며 근심 없이 지내던 날들은 소년에게 인생의 우주요, 곧 낙원이었다.

그 날도 뜨거운 팔월의 한낮이 그렇게 흘러가고 있었다. 보리밭에 섞인 고구마 토막을 골라내며 점심을 급히 먹고서, 나는 집 뒤에 있는 상수리나무 숲속을 걸어가고 있었다. 울창한 관목 사이로 쪽쪽 뻗어있는 상수리나무의 검은 몸통들이 마치 열병식을 하듯 산자락에 싱그럽게 자리하고 있었다. 아침나절 집 앞에서 이웃집 뽕코 녀석에게 칼싸움으로 한방 먹였는데, 녀석이 무척 억울했는지 단짝 왕눈이와 합세하여 다시 도전해 온 것이었다. 장소는 상수리나무 숲 너머 커다란 묘가 있는 잔디밭이었는데, 나를 지원할 땀통 녀석이 윗마들로 심부름 가고 없었기에 부득이 혼자 갈 수밖에 없었다.

칼싸움의 승부결정은 상대방의 나무칼을 쳐서 떨어뜨리거나, 숨씨를 부려 상대방으로 하여금 칼을 버리고 항복하게 하는 식이다. 그러나 나무칼을 떨어뜨리면 재빠르게 다시 주워들거나, 패색이 완연해도 쉽사리 승복하지 않아 결국 강한 국소 타격으로 울음을 터트리게 하거나 칼을 멀리 쳐내어 버리고, 상대방의 목에 승리자의 칼을 대기 전에는 승부의 끝은 없는 것이었다.

오전에 뽕코는 손목과 어깨에 강한 타격을 받고 거칠게 뒹벼들었지만 동네 아저씨의 제지로 울분을 삼켜야 했다. 혼자서 두 녀석을 어떻게 상대해야하나 망설임과 더불어 두려운 마음이 치밀어 올랐다. 멀리 보이는 묘지 터에는 아직 아무도 보이지 않아, 천천히 걸기 시작했다. 앞에 묘하게 구부러진 거대한 상수리나무가 보여 옆으로 우회하기로 했다. 그 나무 밑동 부분은 안 보고 돌

아기는 것이 좋을 듯해서다. 지난 봄 그곳에서 나는 못 볼 것을 본 듯이 진저리친 일이 있었다. 금방 덮은 것 같은 나무 밑 흙더미를 친구들과 헤쳐보고는 모두들 소리치며 도망갔는데, 흙 속에서 나온 것은 물경물경한 갓난아이의 태반이었다.

동네에서 삼총사나무라 부르는 상수리나무 세 그루 앞에 당도한 나는 잠시 망설였다. 산중턱에 둥그렇게 공지를 만들고 있는 묘 터에 먼저 온 모습을 드러내기가 쑥스러워서다. 허리춤에 꽂은 나무칼을 뽑아 살펴보았다. 집안 마루 밑에 숨겨놓은 세 개의 칼 중 가장 맘에 드는 놈이다. 얼마 전 막내삼촌이 참나무로 깎아준 그야말로 보검이다. 뺨코의 칼은 물푸레나무라 걱정 없지만, 왕눈이 너석의 칼이 문제다. 틀림없이 박달나무라고 자랑하는 거무죽죽한 놈을 들고 올 것이다.

울창한 수림 사이로 잠깐 구름에 가렸던 햇빛이 강하게 쏘여왔다. 머리를 숙이고 눈을 질끈 감았다가 뜨며 무심히 눈앞의 상수리나무를 본 순간, 나는 온몸이 굳어지며 가슴이 두근거리기 시작했다. 나무의 검은 몸통에 앉아있는 희한한 곤충을 보았기 때문이다. 매미 같았는데, 놀랍게도 내 주먹만 했다. 그것은 형용할 수 없는 경이의 동물이었다. 다른 매미들처럼 검은 빛 몸뚱이가 아니고 은빛을 띄고 있는 흰색의 날개를 가졌고, 왕방울 같은 눈알에서는 순백색 빛이 쏘아 나오고 있었다.

그 거대한 눈망울을 찬찬히 들여다보면서, 나는 얼마 전 시골의 할아버지 댁 정자나무 밑에서 보았던 여름밤의 끝도 없이 펼쳐진 푸른 별의 바다를 생각해 내었다. 시냇물처럼 흐르던 은하수의 물결과 광활한 우주에서 보내오는 억만 개의 별빛들……. 막내삼촌은 저건 무슨 성좌니, 무슨 별자리니 하면서 꿈 많은 소년의 상상력을 무한대로 부풀려 놓았다.

이놈을 잡아야지! 살면서 쫓지 쪽으로 손을 올려놓다가 멈추었다. 매미의 은빛날개가 부르르 떨었기 때문이다. 흠칫 놀라면서 바라본 매미의 무채색 눈망울에서 무언가 은은한 빛이 번져 나오는 것이 보였다. 그 눈빛을 받고서 나는 한동안 우두커니 서있었다. 내게 붙잡혀 꺾어야할 매미의 애처로움을 가엾게 생각하기보다는, 뭐가 설명할 수 없는 순 하디 순한 하얀 그리움이 매미의

두 눈에서 빛살처럼 뿜어져 나와 내 가슴에 마구 달려드는 것 같았기 때문이다. 그것은 언젠가 아버지와 다투시고, 구슬프게 우시다 고개를 든 어머니의 눈물 젖은 눈망울과 비슷했다.

나도 모르게 서서히 손바닥을 거뒀다는 순간, 갑자기 후드득 소리가 들리면서 매미 옆으로 무언가가 휙 날아갔다. 돌멩이다! 황급히 뒤를 돌아다보니 뺨코와 왕눈이가 건너편 바위 위에서 웃고 있었다. 외마디 소리가 목구멍에서 터져 나오려는 순간, 봉봉하는 소리와 함께 내 머리칼을 툭치는 충격을 받으면서 나는 우지끈하며 관목 위로 주저앉고 말았다. 노란 하늘이 묘지 터처럼 눈앞에서 번쩍거리고, 은빛매미는 소년의 가슴에 풀지 못할 수수께끼를 심어 놓은 채 날아가고 없었다. 대결을 포기하고 순순히 행복한 다음, 산을 내려가는 내 머리속에는 노란 어지럼증과 더불어 온통 봉봉대는 매미의 하얀 눈망울이 어른거려 온몸을 휘청거리야만 했다.

점심을 마치고 사무실에 들어오니, 2층에서 내려 온 모 팀장이 굳은 얼굴로 소파에 앉아 있었다. 당장 거친 향의가 예상되는 분위기다. 내가 맡은 업무와 협의가 잘 안 되어 서로간의 주장이 첨예한 터였다. 그가 업무수첩을 펼치며 조목조목 항변을 늘어놓을 태세로 입을 여는 순간, 내가 먼저 빙그레 웃으면서 손을 들어 제지하고는

“됐습니다. 팀장님의 의견대로 시행합시다.” 활기차게 말했다.

그의 얼굴이 한동안 의아한 표정으로 있다가, 환해졌다. 그가 자리에서 일어난 후, 묵묵히 백지에 두 개의 원을 그려보았다. 그림에 숨씨가 없어 매미의 눈알 같지는 않았다.

무언가 각박한 거래나 날카로운 이해득실을 따질 때면, 담배를 피워 물고서 한 번씩 은빛매미의 눈망울을 떠올리는 습관이 굳어졌다. 남들이 이해 못할 내 나름의 괴벽이지만, 나에게는 순진무구한 동심의 나라에 그리움을 듬뿍 안고서, 입장료 없이 탐입할 수 있어 좋다.

만월

만월이 교묘하게 천지를 감싸던 어젯밤. 아버지가 동네 삼십 계단 위 언덕 배기에서 덩실덩실 춤을 추었다는 얘기를 듣고 생각에 잠겼다. 어제는 약속이 있어 서울에서 소주를 마시고 늦게 귀가했다. 영등포 역사 이층 통로바닥에 즐비하게 누워있는 낙백한 노숙자들의 모습을 보고, 또한 전철역 플랫폼에서 마주친 중년의 노숙자와 나눠 피운 담배연기의 의미에 젖어 우울한 기분으로 귀가한 어젯밤이었다. 과연 평소 하지 않았던 아버지의 춤사위는 무엇이었을까.

얘기를 전한 동네친구의 자세한 정황 설명은 이랬다. 아버지는 술기운에 거나해진 모습으로 비틀거리며 계단을 올라와 집 앞에 당도해서는, 예의 우렁찬 고향소리로 “아이! 이눔들이 날 보라구, 날” 하면서 한동안 샷대질에 이어 갑자기 덩실덩실 춤을 추기 시작하였다는 것이다. 친구의 너스레에 묻어나는 음악적 느낌을 빌리자면, 덩더쿵 덩더쿵 소리가 교묘한 달빛에 뒤범벅되어 쏟아져 내리듯 신명나는 그 무엇이 있었다는 것이다.

아버지는 이년 전, 동네에 아담한 새집을 지어 어머니와 살고 계시다. 장남인 나는 한 십년 쯤 지금의 집에서 두 분을 모셨다. 같은 동네 이웃이라 하지만 따로 세간을 내어 나가시니, 내 심사에는 흥가분한 느낌보다 늘 무언가 허전하고 죄스러운 마음이 자리하고 있다. 일주일에 한두 번씩 찾아뵈면서 용돈도 드리고, 쌀통도 열어보고 냉장고도 살펴보지만 어디 한집에서 모시고 살 때만큼 안온한 기분이 들기야 하겠는가.

요즘 들어서 더욱 노안이 되시고 운신도 예전 같지 않으신 부모님의 거동에 안타까운 심정만 앞선다. 아버지는 예전의 복덕방 분위기가 물씬 풍기는 부동산 중개사무실을 운영하고 있다. 장기간 계속되고 있는 경제 불황 여파로, 한 달에 거래계약서 몇 장도 못 쓰는 눈치다. 워낙 애주가이시다 보니, 동네 노인

분들과 낯설로 소일하는 일이 태반인 요즘이다. 퇴근하면서 살펴보면 간간히 부동산 문짝 틈새로 들려오는 아버지의 잔뜩 힘이 들어간 메마른 목소리를 들을 때가 많다.

그럴 때마다 최근의 웃음을 잃어버린 시대 탓과 빈곤한 사회 분위기를 떠올리기 보다는, 제대로 효도하지 못하는 내 자신에 대해 책망하는 내면의 소리가 더욱 크게 울려 퍼지곤 했다. 그런데 어젯밤에는 웬일로 아버지가 집 앞 언덕에서 덩실덩실 춤을 추셨을까. 한번 여쭙보아야지 뇌까리다가 문득 서울에서의 어젯밤 풍경이 떠올랐다.

영등포에서 만난 지인과 소주잔을 앞에 놓고, 이런저런 정담을 나누면서 제법 술을 많이 마신 것 같았다. 자정이 가까운 시각 지인과 작별하고서 전철역 구내를 걸어가면서 깜짝 놀랐다. 마치 군대 복무 중에 생활했던 내무반의 침상 형태로 통로 양옆으로 주욱 누운 노숙자들의 모습. 텔레비전 뉴스에서 간혹 다루는 노숙자 실태 영상보다도 더욱 처절하고 심각한 광경이다. 꿈도 희망도 벗어버린 채, 신선한 물골을 내보이며 차가운 대리석 바닥에 등짝을 맡긴 사람들. 그들의 육신 위로 이제는 한여름 밤의 꿈이 되어 버렸을 영욕의 지난 세월들이 아지랑이처럼 피어오르는 듯 하여 가슴이 저러왔다.

막차가 분명할 인천행 전철을 기다리고 있는데, 플랫폼 끝부분에서 쪼그려 앉아있던 한 사나이가 다가왔다. 일견 남루한 복장과 흐트러진 머리칼에서 노숙의 냄새가 진하게 맡아졌다. 오십 줄에 막 들었을까. 잠시 머뭇거리던 그가 조심스레 말을 건네 왔다. 선생님 담배 좀 빌릴 수 있습니까. 방금 전 역구내에서 느꼈던 참담한 심정이 몽클 솟구쳤다. 잠자코 담배를 건네주고는 불까지 붙여주었다. 언젠가 비 오는 날 소래포구에서 중년의 유랑인에게 담배를 건네주었던 기억이 오버랩 되면서 묘한 기분이 되었다.

포화상태였던 역구내 노숙자들의 공간을 떠올리면서 짐짓 가라앉은 목소리로 그에게 말을 건넸다. 아저씨도 저 역구내에 자리를 가지고 계십니까. 철길만 바라보며 연기만 토해내던 그가 나직이 말했다. 아... 내 자리는 없어요. 아 니 일부러 이 플랫폼에 나와 있는 겁니다. ... 여기에서 어린 아들놈과 헤어졌

지요. 한 일 년 되었다. 그놈을 꼭 만나야할 텐데. 멀리 마포 쪽 철길이 환해지는 것이 막차가 오고 있는 모양이다. 플랫폼 공중에 걸린 이만오천볼트 전기선 위로 달빛이 교묘하게 부서지고 있는 것이 보였다.

아버지가 만월을 벗 삼아 덩실덩실 춤을 추게 된 이유는 어머니를 통해서 알게 되었다. 얼마 전 안양에 살고 있는 막내 동생이 늦둥이 딸을 보았는데, 백일이 가까워질수록 할아버지 모습을 닮아간다는 제수씨의 전화를 어머니가 받고는, 어제 낮에 아버지에게 그 얘기를 들려드렸다는 것이다. 평소 집안에서는 웃음이 없고, 자식들 앞에서는 농담도 안하는 아버님이다. 지난 날 막내 동생이 서른이 넘어서도 취직도 못하고 미혼으로서 집에서 빈둥대던 시절, 아버지는 무척이나 나무라고 냉엄하게 질책하셨다. 동생 또한 말이 없고 내성적인 성격으로 속으로만 울화를 꺾꺾 눌러 삼키며, 아버지에 대한 불만 또한 감추지 못하고 방황하던 우울했던 시절이 있었다.

이제 그 애증의 세월을 보냈던 막내아들이 안정된 직장에 취직도 하고 결혼도 해서 늦었지만 첫딸을 출산하였으니 그 기쁨이 무척이나 크셨던 차에, 당신을 닮은 손녀자랑을 들었으니 오죽 기쁘셨을까. 잔잔한 행복감과 약간은 아릿한 애린 비슷한 감동이 코끝에서 피어올랐다. 창문을 열고 밤하늘을 바라보니 오늘도 달이 등실 떠있다. 길 건너 부동산 간판에 불이 켜져 있는 것이 아버지는 아직도 점포에 계신 듯하다. 추리닝에 파커를 껴입고는 밖으로 나와 부동산 앞에 서니, 역시 술 냄새 묻은 아버님 목소리와 여러 사람들 소리가 왈차하니 흘러나온다.

오늘만은 아버지를 모시고 댁까지 부자가 함께 걸어가리라 했던 생각에 차질이 왔다. 쉽게 마무리될 주석이 아닌 듯했다. 홀로 저녁상을 차려놓고 아버지를 기다리고 계실 어머니 생각에 천천히 삼십 계단 쪽으로 발길을 옮겼다. 계단 끝까지 올라섰을 때 목에서 발은 숨소리가 터져 나왔다. 운동부족이야 되까리면서 아래쪽 비탈을 내려다보니, 꽤나 가파르다는 생각이 들었다. 저녁 늦게 거나해진 모습으로 매일 이 계단을 오르는 아버지의 쓸쓸한 모습이 눈가

에 침침하게 박혀왔다.

순간 밝은 빛살이 흐린 동공을 비집고 들어온 듯 하여 달을 쳐다보다가, 슬쩍 어깨를 들썩여보았다. 이곳에서 아버지의 춤사위는 어떻게 펼쳐졌을까. 두 팔을 쳐들고 아리랑 추임새라도 넣을 양으로 으쓱거리다가, 만월을 가만히 바라보았다. 달 쟁반 속에서 세 사람이 보이는 것 같았다. 아버지의 주름진 얼굴에 핀 인자한 미소가 환하게 퍼지는 가운데, 영등포역에서 아들을 찾던 노숙자의 추레한 얼굴이 점점 함지박 웃음으로 투영되고, 그 옆에는 한 소년이 코를 후비며 웃고 있었다. 그런데 내 어깨에 떨어지는 교묘한 달빛 때문일까. 묘하게도 덩실덩실 천지가 돌아가는 느낌이 오기 시작했다.

自鳴鼓_{자명고}를 기우며

창문을 열고 오월의 창공을 바라보았다. 방금 전 방에 누워 있다가 어디선가 등등등 북소리가 들려오는 듯 하여 무심결에 일어난 탓인지, 약간의 현기증마저 느껴진다. 오월의 하늘은 누런색으로 덧칠되어 있었다. 도시를 낮게 덮어버린 불청객 황사의 출현이다. 허공의 싹누런 황사를 보면 세상이 좁게 보인다. 이역만리 고비사막에서 봉기한 노란 알갱이들의 치열한 원정……。 이들은 지상에 있는 듯 생명들의 오욕과 희열을 망각한 채, 무심으로 이곳 해동 땅까지 날아와 회색 빛 항구의 골목, 맞은편 구가옥의 처마 밑까지 낮게 임하고 있다.

창문을 닫고 외투를 걸치면서 곰곰이 생각해 보았다. 외출의 동기는 무엇일까? 북소리? 황사? 방금 창밖으로 바라본 황사에는 확실히 내 마음의 심연을 울컥거리게 하는 그 무엇이 있었다. 삼십 년 전 어느 날, 창백한 얼굴에 덕지 덕지 분을 바르고 나타난 수출 공단 다니는 고모. 오랜만에 만난 조카 손을 덥석 말아 쥐던 분바른 고모 얼굴에서 켜켜이 떨어지던 微粉_{미분}된 설움 같은 그

무엇……. 아니야. 황시는 아닌 것 같다. 나는 기억의 저편에서 나직이 들려오는 북소리를 들었던 거다.

집을 나와 낮은 처마, 그을린 서까래가 틈틈이 보이는 미로 같은 양팔간격 골목을 지나서 버리지 못하는 오래된 구두만큼 애증의 먼지가 폴폴 떠다니는 동네의 재래시장 입구에 섰다. 그 날, 이십여 년 전의……. 지금도 알 수 없는 신비감에 어리둥절했던, 이 해묵은 시장통을 휩쓴 돌발적 집단 群舞군무의 신명은 과연 무엇이었을까.

아! 역시 지금은 안 계시구나.

시장통 오래된 약방의 카브머리 구석. 비가 오나 눈이오나 언제나 그 자리에서 망가진 신발을 기우고 있던 신기료장수 할아버지의 모습은 이제 없다. 성성한 백발로 노익장을 과시하던 건장한 체격의 할아버지. 내가 젊은 날 직장을 잡지 못하고 이곳 시장통에서 낫술로 소일할 때에, 언제나 무심한 세월을 묵묵히 헤아리듯 이곳에 앉아 망각의 너울을 잡고 있던 무표정한 할아버지. 지금은 어디 계실까. 작고하시지는 않으셨는지……. 깊은 회상에 젖어있는 내 귓가에 아련한 북소리, 자명고 소리가 점점 또렷이 들려오기 시작했다.

언젠가 대낮에 왕대포에 거나해져 시장통을 걸어 나올 때, 어디선가 장고소리가 들려왔다. 소리 나는 곳으로 발걸음을 옮겨보니 께매던 구두를 한쪽으로 밀어놓은 할아버지가 어디서 가져왔는지 찢어진 장고를 만지고 있었다. 대침으로 장고를 기우며 북채대신 기다란 대나무 구두칼로 음색을 고르듯 두들겨대는 소리가 시장통의 고요를 흔들어 놓는 듯 했다. 얼핏 살펴봐도 허름한 장고는 누군가 버린 것이 분명했다.

일 년 열두 달 마치 그 자리에서 붙박은 듯이 앉아서 신발만 수선하던 할아버지의 모습만 뇌리에 각인되어 있던 나로서는 신기한 일이었다. 그 모습이 내게는 할아버지의 특별한 의도로 보여졌다. 장고소리에 어느새 주위에 있는 시장의 어물전 할머니들과 야채장수 아주머니들이 십여 명 다가와 흥에 겨운 듯 어깨를 들썩이고 있었다. 할아버지의 익숙한 뚱뚱 뚱따당 장고소리에 어물전 할머니가 덩실덩실 춤을 추기 시작했다.

얼썬! 조오타……. 사람들이 몰려와도 아무런 내색도 없이 무표정하게 장고를 두드리던 할아버지의 입에서 불쑥 신들린 추임새가 흘러나왔을 때, 나 역시 술 탓만이 아닌 흥으로 어깨를 으쓱거렸다. 할아버지와 낯은 장고는 마치 오래 전 헤어졌던 혈육의 만남처럼, 또는 마침내 긴 고락의 流轉^{유전}끝에 주인 손에 돌아온 명기의 특 터진 울음처럼 허공을 낭랑하게 가르고 있었다.

그때 어느새 누가 가져왔는지 막걸리 잔이 돌기 시작하였다. 맞은 편 건어물 가게 곰보 아저씨가 두 손가락으로 길게 휘파람을 불어대자, 삼시간에 시장통은 신명으로 후끈 달아올랐다. 어깨만 움찔대던 시장의 할머니, 할아버지, 아줌마, 아저씨, 처녀 총각까지 덩실덩실 끼어들어 한바탕 난장이 벌어졌다. 내가 생각하기에도 그 즈음 보기 드문 대낮의 유희가 벌어진 것이었다.

나에게까지 돌려진 막걸리를 콧잔등까지 적시며 훌쩍 들이키는 내 머릿속에, 무언가 커다란 새가 후드득 날아가는 듯한 느낌이 강하게 들었다. 커다란 새가 날아오른 창공에 찢어진 채로 이천 년을 넘게 허공에 걸려있던 자명고가 할아버지의 삼줄 같은 구두끈 실밥으로 봉해지고, 아득한 옛 사람들의 얼굴이 부유하는 황사의 너울 속에 삼삼히 다가왔다.

준수한 얼굴에 비통과 환희의 눈물을 철철 흘리고 있는 好童王子^{호동왕자}의 망연한 모습이 보이고, 벌어진 자명고를 끌어안고 아비규환의 종루에 엮여져 숨겨진 樂浪公主^{낙랑공주}의 하얀 얼굴이 선연한 빛으로 보이는 것이었다. 그것은 내가 언젠가 갔었던 것 같은 익숙해 보이는 푸른 세상의 떠다니는 환각처럼, 주마등같이 뇌리를 아스라이 적셔오는 피안의 세계 같았다. 둥 둥 둥 고동치는 맥박에 신얼기까지 없어질 무렵, 막걸리 한 잔을 얹치 불구하고 더 따르면서 나직이 추억거렸다. 그래. 할아버지는 타임머신 장침으로 무정한 세월동안 방치되어 있던 찢어진 자명고를 집고 계셨던 거야.

회상에서 깨어나, 컷전에서 북소리가 멀어져 갈 즈음. 지금은 흔적도 없었던 구두방 터 옆의 어물전을 바라보았다. 그때 신명에 젖어 덩실덩실 춤을 추었던 할머니는 어디 계실까 생각하면서 어물전 좌판을 보니, 싱싱한 오월의 빛살에 비린내도 상큼한 동태가 눈에 들어왔다.

물기 머금은 동태들의 눈앞에는 활기찼던 북태평양의 기억들이 묻어 있는 듯 하여 혀를 차면서 가까이 들여다보았다. 체념도 아픔도 잊어버려 회석이 되어 가는 눈망울에는 무심한 세월의客愁객수를 하나 둘 세는 듯한 무언의 외침이 들려오는 것 같아 가슴이 아려왔다. 소금기 절은 좌판 꼭대기에 새시로 매달아 놓은 궁상맞은 TV는 놀랍게도 골드스타 상표를 아직도 달고 있는데, 빗금선 죽죽 긋는 화면에서는 ‘물류를 멈춰 세상을 바꾸자’는 화물 자동차 연대노조의 시위가 다섯 시 헤드라인 뉴스로 쏟아지고 있었다.

그 옆, 빼적거리는 목 의자에 앉아 있는 주인인 듯 한 오십 줄 아주머니의 늙은 봄 늘어진 하품소리가 허공으로 흐린 무지개처럼 번져 가는 것을 느끼면서 허공을 바라보았다. 수십 년이 흘렀어도 그리 변하지 않은 동네 재래시장의 정겨운 풍경을 새롭게 응시하면서 집 쪽으로 발길을 돌리려다, 이제는 사라져 버렸을 왕대포 집이라도 혹시 있나 두리번거렸다.

아 아……. 언제나 세월은 오늘에 있는 것을. 내 회상의 저편에서 추억거리고 있는 금빛 상념들은 지금도 눈앞에서 그 장구한 풍상, 역사, 정신을 무언의 합성으로 일깨우고 있다. 그래. 세월은 두둥둥 북소리 고통색 이끼 향으로 내 고락에 스며들어 반죽되면서, 빛살 같은 은총으로 내게 끊임없이 머물고 있는 거야. 오늘 시장통 골목에서 나는 내 곁에 옛날이, 어제가, 오늘이 변함없이 빙글 웃고 있는 것을 비로소 보았다. 허공에 일렁이는 황사의 물결 위로 아직도 찢어져 울고 있는 푸르른 북소리를……. 그 자명고를 기우려는 작디작은 내 소망을. **수필시대**

노래하는 삶

차윤옥 시집
문예운동 / 값9,000원

처음 문학 공부를 시작했을 때 나는 수필이 아니라 시를 쓰겠다고 작정했었다. 시는 상장을 통해 나를 직접 드러내지 않고도 마음의 이미지를 그려낼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사물을 있는 그대로 보지 않고 남들이 생각하지 않는 내면의 언어를 찾아내야 한다는 시의 세계가 흥미로웠다. 하지만 문학보다 내 자신이 벗겨지는 일에 더 신경이 쓰였다.

간결하게 풀어내는 것만큼이나 어려운 일도 없는 것 같다. 수 없이 퇴고해야 얻어지는 간결한 문장. 수 없이 고민한 끝에 얻어지는 간결한 주제. 간결한 글을 뒷받침할 수 있는 글쓴이의 간결한 성품.



송영화, 작가의 변

일상의 소박한 내용을 담은 독자들의 생활문을 읽고 감동을 느낄 때가 많다. 원고 청탁 마감일에 쫓겨 무엇을 말하려는지 모르게 쓴 작가의 글보다 가깝게 와 닿는다. 수필은 누구나 쓰기 쉬운 글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얘기를 나만의 색깔로 풀어내는 일은 생각만큼 쉽지 않다. 내 글이 비록 독자에게 감동을 주지 못하더라도 충실한 마음을 담아야 한다는 의무감부터 앞선다.

간결한 글이 쓰이기를 꿈꾼다. 쉬운 것과는 다른, 깊이가 담겨진 간결한 수필이 되길 바란다. 그것이 곧 간결하게 흐르는 내 삶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도리산역에 부는 바람

• 송 영화 •

lisa1151@hanmail.net

차창 밖으로 총을 맨 헌병들을 보고 나서야 최북단에 다다랐음이 실감났다. 도리산역, 돌아가지 않고 곧바로 나아가니 그리 먼 길도 아니었다. 울산에서 출발해 하루 만에 국토의 끝을 다녀오는 것이라, 버스에서 보내는 시간이 많을 거라 미리 염려해서인지 멀어도 먼 기분이 들진 않았다.

이번 여행이 단순히 관광을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분단의 현장에서 시 낭송을 하기 위한 단체 동행이라는 점이 나에게 특별한 의미로 다가왔다. 내 개인의 사삿일에서 벗어나 우리라는 공동 운명으로 바라보는 국토인지라 흔하디흔한 풀포기조차 예사로 보이지 않았다.

媿家사가의 친척들이 강원도에 거주하는 터라 최동북단에 위치한 고성 통일전망대를 서너 차례 다녀온 적이 있었다. 친척의 안내를 받으며 바라보았던 북녘 하늘이 오늘도 여전히 눈앞에 펼쳐졌는데, 그 날의 하늘이 멀찌감치 바다와 닿아 있었다면 오늘의 하늘은 훨씬 가까운 곳에서 땅을 품고 있었다.

신라가 패망한 후 고려에 항복한 경순왕이 산마루에 올라가 신라의 도읍을 사모하고 눈물을 흘렸다고하여 都羅^{도라}라 지어졌다는 도리산. 도리산역사(驛舍)

울산대 국어국문학과 졸업

2003년 <문예운동> 등단, 서울 청하문학회 회원, 울산문인협회 회원, 울산수필가협회 회원

지붕 위로 경순왕이 서 있었을 법한 산마루가 보였다. 경순왕의 마음처럼 더 나아가지도 못하는 막다른 역에서 고향을 그리는 수많은 이산가족들이 눈물을 뿌리며 돌아섰을 것이다. 역사의 운명인지... 이름의 어감대로 도라산역에서는 돌아나아가야 한다.

우리 일행 서른 여 명은 열차를 타기 위해서가 아니라 驛舍역사를 구경하기 위해 표를 끊었다. 도라산역장이 발행한 사백 원짜리 입장권을 분실이라도 할 까봐 가방 안쪽 깊숙이 넣어두었다. 차라리 이 입장권이 쉬이 내다버릴 정도로 가치 없는 것이라면 얼마나 좋을까. 휴지통 근처 여기저기에 널려 있는 승차권이라면 얼마나 좋을까. 일행들은 나눠 받은 입장권을 기념으로라도 간직하겠다고 일제히 가방 문을 열었다가 닫았다.

위험해서 감히 뵈아볼 엄두를 내지 못했던 철길에 내려가서 우리는 통일을 기원하는 시 낭송을 했다. 평양을 안내하는 표지판을 앞세우고 신기한 듯 사진도 찍었다. 분단의 이음을 노래하는 시인들의 절절한 마음은 '길은 달려가야 한다'는 간절함으로 이어졌다. 반대편 철로에서 관광객을 실어온 듯한 열차가 종착점에서 멈추는 것이 보였지만 우리가 선 철길에는 행사가 끝날 때까지 아무도 위험하니 비켜나오라 말하지 않았다. 북쪽으로 더 이상 나아가지 못하는 마지막 철도변은 슬프도록 안전했다.

2002년 한일 월드컵 이전 4월에 완공하여 평화음악회가 열리고, 김대중 대통령과 미국의 부시 대통령이 방문하여 세계적인 관심을 모았다는 도라산역. 드나드는 인파들이 설 새 없이 먼지를 나부끼며 驛舍역사 바닥에 자국을 남기는데 쓸쓸한 기운은 바람처럼 허공을 떠도는 듯했다.

불현듯 이십여 년 전 내가 대학 초년생이었을 때의 일이 떠올랐다. 그 때 우리 집 동산에도 허공을 떠도는 바람이 불었다. 구획정리로 소방 도로가 나면서 우리 집 절반에 달하는 부분이 불도저로 파헤쳐졌다. 나의 조부모는 보상금이 얼토당토않다며 끝까지 타협하지 못했고 어찌된 영문인지 한 푼도 받지 못한 채 고스란히 땅만 넘어가고 말았다.

우리 집은 그야말로 담도 없이 길가에 버려진 형세로 마당 가운데에 흙더미를 산처럼 떠안게 되었다. 할머니는 오십여 년 전 지을 당시만 해도 우리 동네

에서 제일 큰 기와집이었다며 자랑삼곤 했었다. 그러나 돌부리처럼 고개 세운 흙더미 속의 기와집이 나는 창피하기 그지없었다. 부모 없는 우리 자매들을 가엾게 여겨서라도 이참에 신식 집으로 다시 지어줘야 한다고 간절히 바라고 또 바랐다.

가족회의는 반복해서 이루어졌다. 숙부와 고모들이 제삿날 모이거나, 생신 날 모이거나 또 다음 제삿날에 모이면 그때마다 집을 새로 지어야 한다고 한결같이 입을 모았다. 매번 내일 모레면 집이 지어질 것 같았지만 모두가 돌아가고 난 뒤 우리 집 마루에는 언제나 그랬듯이 흙먼지가 날렸다.

흙더미가 굳어지고 풀이 돌아 동산이 되었을 즈음, 겨우 마당 안의 흙더미가 치워졌고 담도 쳐졌다. 그러나 내가 결혼해서 집을 떠나는 날까지 결국 신식 집은 지어지지 않았다.

나는 그 때 지키고 있어야 하는 서러움에 울었던 기억이 난다. 모두가 열변을 토하다 각자의 집으로 돌아가고 나면 쓸쓸히 나무끼는 먼지바람이 마음속에도 불어왔다. 내가 절실하지 않으면 그 어떤 간절함도 한 다리 건너 남의 일이 되기 마련이라고 나는 매번 그 상황들을 이해했어야 했다.

철로 변을 걸으며 바라본 계단 아래의 驛舍^{역사} 바닥에 뿌연 먼지가 발자국들로 얼룩져 있었다. 관광 안내원이 스피커로 김정일도 부러워할 정도로 세련된 구조로 지어졌다는데 하필이면 예전에 우리 집으로 날아들던 흙먼지가 떠오르는 건 왜인지.

사람들은 역사의 현장에서 분단의 슬픔을 느끼긴 하겠지만 돌아서서 거리가 멀어지는 순간부터 각자의 생활로 바빠질 것이다. 전쟁의 세대는 바뀌어가고 세월이 다시 한 다리를 건너면, 관광코스가 되어버린 분단의 현실은 점점 남의 일처럼 여겨질는지 모른다.

돌아갈 시간이 임박해진 일행들 몇몇이 대합실 의자에 앉아 사진을 찍었다. 다녀간 것만으로 기념이 되는 역 대합실에서 잠시라도 앉았다 가는 것은 아쉬움의 또 다른 표현이리라.

우리를 태운 관광버스는 이내 스피커의 노랫소리에 맞춰 흔들거렸다. 차창 밖으로 도로는 손살같이 뒤로 물러가는데 속력이 붙은 버스 속에선 오히려 평

화로움이 춤쳤다. 가는 길이 멀어도 오는 길이 빠른 것은 원점으로 돌아가려는 사람들의 바쁜 마음 때문은 아닌지. 버스에서 보낼 시간이 많을 거란 염려와 상관없이 집으로 돌아오는 고속도로는 이미 반쯤 줄어 있었다.

옆에서 달리는 바다

새로운 것도 없는 길, 7번 국도를 달리기 위해 우리는 집을 나섰다. 직장 생활에 췌매인 남편이 얼마간의 휴일이라도 생기면 어김없이 짐을 챙겨 떠나 자고 한다. 결혼 초부터 그렇게 매년 한 두 차례씩 동해안을 따라 강원도 일대를 다녀오다 보니 이젠 남편이 일러주지 않아도 휴게소의 순서가 떠오를 정도가 되었다.

울산에서 출발해 경주, 포항을 거쳐 올라가면 처음으로 바다를 대하는 곳이 화진 해수욕장이다. 남편과 나는 시간적으로 그다지 여유가 없는 평소에도 곧잘 아이들을 데리고 화진 해수욕장까지만이라도 다녀가곤 했다. 하지만 오늘은 모처럼 북쪽을 향해 먼 길을 떠날 참이다. 집으로부터 멀어져서 여유로울 때가 있다면 바로 이런 순간일 것이다. 편한 각도로 의자 등받이를 조절하면 마음은 벌써 동해를 달리는 듯 앞서간다.

여행의 목적은 어찌면 낯선 곳에 대한 호기심을 충족시키는 데에 있겠지만 우리의 여행은 단순히 먼 길을 오래, 하염없이 달리는 데에 의미가 있는 것 같다. 남편은 오로지 차를 몰고, 나는 간간이 바다를 살펴볼 때를 제외하곤 거의 잠으로 보낼 때가 많다. 운전이 방해가 되지 않으려고 노력해보기도 했으나 차만 타면 얼마 버티지 못하고 잠들어버리기 일쑤다. 흔들리는 차안에서 단잠을 즐긴다는 표현이 어울릴 정도로 이제는 운전하는 남편을 옆두에 두지 않고 맘 편히 지는 편이다. 나의 여행은 이렇게 잠과 함께 시작된다.

차에서 내리지 않고 오래도록 잠을 자다가도 끝없이 이어지는 바다를 볼 수

있는 길, 7번 국도. 동해의 짙푸른 물결이 잔잔히 다가와 나를 품어주고, 때로는 으르렁거리며 성난 사자처럼 발톱을 세워 덤벼들기도 하는 파도의 흰 포말을 가끔씩 잠에서 깨어났을 때 멍하게 바라보곤 한다. 진정한 휴식의 기분을 나는 이때쯤 느끼는 것 같다. 바다의 푸른 물빛이 순수하게 느껴져 그대로 내 마음 속에 배어드는 듯하다.

활기찬 몸짓으로 출렁이거나 더러는 슬프게 눈물을 흘뿌리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는 바다의 표정이, 내 마음을 대신 표현하고 있다는 것을 안다. 내 시선 안에서 움직이는 것들이 세상의 모든 일이라 착각하는 것처럼. 단순해지기 위해 잠이 오는 건지 흔들리는 차 속에서는 지나온 일들이 꿈결처럼 느껴진다. 단순하게 사는 법을 배우기 위해 나는 여행을 떠나는지도 모른다.

남편은 한 번씩 운전의 흐름을 방해하는 차들을 만나면 운전자가 분명히 여자일거라고 말을 흘리곤 한다. 여자들은 시야가 좁아서 멀리 내다보지 못한다고 말한 적이 있었다. '물론 당신은 저 정도야 아니지' 라며 뒷말을 덧붙이지만 나는 괜히 여자가 아니라 남자였다고 우겨댄다. 작은 일에 사사로운 감정으로 소비하는 나 자신을 인정이라도 하듯이 반기를 들어보는 것이다. 그럴 때마다 남편은 단순하게 생각하라고 한다. 세상일을 단순하게 바라보라 한다.

같은 길을 수시로 다니다 보니 이제는 반복하는 일에도 즐거움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된다. 단조로워 보이나 다른 빛깔의 얼굴을 하고 있는 바다의 모습을 발견하듯이 반복하지 않았다면 모르고 지나갔을 많은 것들을 생각해 본다.

여행을 하려면 가보지 않은 새로운 길을 찾아 나서야 한다고 나는 한결같이 주장했다. 남편이 익숙한 길들을 반복해서 갈 때마다, 당신이 원하므로 동행해주긴 하는데 왜 갔던 데를 또 가냐고 의아해했던 기억이 난다. 유년 시절을 강원도에서 보낸 남편은 거의 일곱 시간이 소요되는 이 거리를 그다지 멀다고 생각하지 않는 편이다. 고향에 대한 애착 때문이 아닐까 짐작해 보긴 하지만 남편은 그저 확 트인 길이 좋을 뿐이라고 한다. 무엇이 확 트였다는 건지 더러 차가 밀려 한참씩 기다려야 할 때는 남편의 마음이 이해되지 않을 때가 많았다.

그럴 때마다 바다가 가까이 있다는 것을 알지 못했다. 확 트인 바다를 바라

보고 있다는 것을 잊고 있었던 것이다. 남편이 원하는 대로 따라하다 보니 길 들여진 것일까. 이제는 오히려 내가 자청해서 그 길을 나서게 되니 달려온 세월만큼 서로에게 익숙해졌나 보다.

남편과 나란히 가는 이 여행길이 단조롭다고 느껴질 때, 나는 한번씩 우스갯소리처럼 아직도 내가 지겹지 않느냐고 뜬금없이 물어보곤 한다.

잔잔하지만 알 수 없는 속. 운전하는 남편의 옆얼굴을 보면서 또 다른 바다를 생각한다. 보이지 않게 흐르는 정이 사람의 마음을 바다로 만들어 주는 것일까. 정이 쌓일수록 서로의 마음도 깊어져 바다 속처럼 되는 것일까.

먼 길에 대한 부담을 갖기보다 먼 거리여서 좋다고 생각하는 사람, 그래서 운전을 즐기는 것처럼 보이는 그는 목적지에 언제쯤 도착할 것인가를 알려주기 위해 몇 마디의 말을 할 뿐이다. 늘 얼굴을 마주하면서도 서로의 눈빛을 읽지 못했던 우리. 그래서 나는 마주보지 않아도 마음이 가까워지는 이 길을 원하는지 모르겠다.

예전에 비해 요즈음은 7번 국도 확장 공사가 어느 정도 진행되어 차가 밀리는 일이 줄어들었다. 정체가 심한 구간으로 손꼽히던 영덕을 지나는 길도 새로 만들어져 북으로 향하는 길이 많이 순조로워졌다. 이제는 휴게소에서 좀더 여유를 부리며 시간을 지체할 수 있을 것 같다.

결혼 초에는 내가 차 속에서 자는 모습을 보고 또 자느냐고 어이없어했던 남편이 요즈음 여행길에서 내가 눈을 뜨면 왜 깬느냐고 의아해 한다. 그리고는 편한 자세로 다리를 뻗어보라고 한다. 별 마음이 없더라도 남편이 시키는 대로 따라 해본다.

그렇게 우리는 가까워졌다가 멀어지기를 반복하며, 옆에서 달리는 동해처럼 세월을 달려가고 있다.

갈 길이 멀어서 좋다.

홀로 가는 배추벌레

연두색 벌레가 꼬물꼬물 길을 건넌다. 주름진 제 몸을 감당하지 못하는지 쉬이 그 자리를 벗어나지 못하면서도 쉴 새 없이 몸을 밀어 길을 당긴다. 연둣빛 몸뚱이가 매마른 시멘트 바닥이라 더 선명하다. 그의 세계에선 사막과도 같을 주차장 한복판에서 죽을지 살지도 모르고 유유히 갈 길을 간다.

옆에 선 어린 아들 녀석이 배추벌레에 대한 안 좋은 추억이 있다며 말문을 연다. 아빠가 저번 날에 맥주 마시면서 안주로 나온 연두색 과자를 배추벌레라 했다고. 배추벌레를 말려서 기름에 튀긴 거라 하는 바람에 씹던 과자를 얼른 삼켰는데 저 벌레가 그 배추벌레냐고.

그리고 보니 인공 감미료 맛이 배인 연두색 안주가 살아 움직이는 모양새다. 맥주를 들이킨 다음, 뿌드득 과자를 씹으며 쌓여있던 불만을 삭이곤 했다. 그 과자를 먹을 때마다 웬지 눈에 익다싶었는데 배추벌레를 닮은 거였다.

하필이면 차들이 많이 드나드는 이 길로 들어선 건지 운전사의 눈에 보일 리 없는 하잘 것 없는 배추벌레의 앞길이 위태하다. 돌아서는 등 뒤로 차 시동 소리가 나는데 굼벵이 같이 꼬무락대는 이 벌레가 어찌될까 돌아보기 난감하다.

배추 속을 빠져나온 벌레에게는 사정이 있을 것이다. 어느 날 홀로 걸어가야 할 사정. 무리가 그리워 찾아가는 건지, 무리가 성가서 떠나가는 길인지……. 제가 처한 상황에 아랑곳하지 않은 채 앞으로 전진하는 배추벌레의 초연한 몸짓이 웬지 부럽다.

어깨를 두르고 함께 나아갈 동무를 그리면서도 남과 엮이는 일로부터 자유로워지고 싶을 때 혼자 길을 나서고 싶었다. 혼자라서 더디고 멀게 느껴지지만 쉬어가고 돌아갈 수도 있어 한가한 길. 가끔씩 걸어보는 그 길엔 말상대가 없어 주위의 소리에 귀 기울여질 것이다.

세상은 혼자 사는 것이 아니니 싫어도 노력해서 융합해야 한다고 할머니는

일러주시곤 했다. 내가 참고 상대를 배려하면 문제될 일이 없으리라 생각했다. 모든 관계는 원만해야만 하는 줄 알았다. 노력해서 안 되는 관계도 있다는 걸 알아차리지 못했다.

갈수록 새로운 관계가 거미줄을 친다. 나오기가 쉽지 않게 점점 얽히고 있다. 인터넷 창을 열어 소식을 알리고, 얼굴을 모르는 회원의 경조사나 생각지 못한 행사에 가야할 일은 늘어난다. 상부상조의 마음으로 기꺼이 자리를 함께 하고 나면 그제야 책임을 다했다는 안도감이 느껴진다.

어느 모임이나 그렇듯 내가 피해를 입은 것이 없으면서도 반감이 가는 사람이 있다는 게 탈이다. 그대로를 인정하고 지켜보다가도 마음의 분란을 어찌지 못한다.

사람 사이에 색깔이 다른 기가 흐르고 있다는 생각을 한 적이 있다. 상대의 성품에 따라 무뎠해지거나 민감해지기도 하면서 내 자신의 색깔이 달라짐을 느낀다. 내게 이익을 주지 않아도 보는 것만으로 기쁨이 되는 이가 있지 않던가.

나를 버리고 인내해야만 융합할 수 있는 사람을 만날 때마다 불쑥불쑥 욕심이 찾아든다. 그저 보는 것만으로도 좋은 기운이 느껴지는 사람이 주위에 많아야지라고.

누가 뭐래도 자신의 일을 충실히 하는 사람이 좋다. 자신을 드러내지 않아도 인정하게 되는 사람, 묵묵히 들어주기만 하는데도 주장하는 것보다 강해 보이는 사람, 가르치려하지 않아도 배우고 싶은 사람.

그들에게도 마음을 닦기 위한 혼자만의 의연한 걸음이 있었을 것이다. 애쓰지 않아도 마음이 저절로 우러나는 그런 길을 가고 싶다. 있는 그대로의 나를 돌아보게 할 그 길은 혼자라서 좋을 것이다.

우연히 바라본 배추벌레 한 마리가 내 마음에 들어와 쉬지 않고 길을 닦는다. 뿌드득 씹어대며 불만을 삭히지 않아도 딱딱한 연두색 과지는 배추벌레의 초연한 몸짓으로 다가와 나를 일깨워줄 것이다.

재차 묻지도 않는 그 과지의 정체가 ‘파래맛과자’ 라는 걸 알려주려는데 그제야 눈치를 챘는지 아빠에게 또 속았다고 투덜댄다. 매번 아빠의 장난에 속

으면서도 진지한 표정을 짓고 하는 말이면 의심 없이 믿는다. 다음에는 속지 마라 말하지 않아도 아이는 깨달아 갈 것이다. 아빠가 장난하던 그때의 세상 모르던 철부지 시절이 좋았다는 것을.

아들의 손을 잡고 오던 길을 되돌아간다. 배추벌레가 가는 방향을 따라 차들의 위협이 없는 주차장 끝에 옮겨놓을 생각이다.

멈춰있는 듯하나 빠르게 흘러가는 시간처럼 꼬물거리는 배추벌레에게도 외로이 전진한 기쁨이 있을 것이다. 외로움 끝에 만난 그리움으로 진정한 마음의 평화를 누릴 테니 머지않아 도착할 초록세계에서 하얀 날갯짓하는 그의 무리를 만나리. **수필시대**

그대를 닮은 꽃

김명희 시집
문예운동 / 값6,000원

꿈꾸는 돌

노희정 시집
문예운동 / 값6,000원



우리 시대의 명수필 코너

- 김진식
- 김홍은
- 이병남

우리 시대의 수필현장에 뛰어들어 원로, 중진급의 수필가들이 쓴 수필 가운데 명작수필을 가려내는 것은 무척 어려운 일임에는 틀림 없다. 그러나 누가 해도 해야 할 일이다. 더러는 명수필이라 부르기에 부족한 글도 없지 않으리라고 본다.

그러나 수필의 어떤 규격화된 종래의 수필관을 벗고자 애쓴 흔적이 있는 작품을 감상해 보자.

(편집자 註)

혼배성사 여담

김진식 mrn@lycos.co.kr



나는 종교에 대해 특별히 감싸거나 뿌리치지 않는다. 그러므로 믿음에 빠지는 일도 없고 그렇다고 내 주장을 내세우지도 않는다. 그렇다고 내가 선호하는 종교가 없다는 말이 아니다. 그저 담담히 받아들이고 대할 뿐이다. 우리 집에서 나 혼자만을 빼고 천주교를 믿고 있지만 이로 인한 분쟁이나 갈등으로 속 썩힌 일은 없다. 그것은 아내의 이해가 따른 것이기도 하지만 나로서도 특별한 금단이 없기는 마찬가지다. 아내는 지나가는 말로 함께 교회에 나갔으면 하는 희망을 나타낸 일은 있지만 나에게 강요하는 일이 없고 나 또한 말리거나 막아 선 일이 없다. 그야말로 각자 선택에 따르고 있다.

그러나 처음부터 아무 일이 없었던 것은 아니다.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의 만남에는 두 사람의 뜻과는 상관없이 이와 관계되는 문제가 불거져 어렵게 만들 수도 있다. 나의 경우도 예외가 아니다. 부부로 출발도 하기 전에 과정을 맞을 뻔하였으니 웃어넘길 사소한 일로 치부할 수 없다.

삼십 여년 전 그때 우리는 결혼식 날짜를 잡아놓고 있었다. 천주교 신자인

1938년 출생, 한국문인협회 경기도지회장 및 경기대 겸임교수 역임.
저서로 수필집 《잊혀진 이름들》, 《혼자 걸어가며》 동요시집 《내마음 날개 달아》, 《예쁜 아이》 등이 있음.
경기도문화상(문학부문), 한국현대수필문학상, 예총공로상(문학 부문) 등 수상.
현재 계간 선수필 편집인 겸 주간.

신부는 그 이전에 교회에서 혼배성사를 해 주기를 원했고 그것이 믿음을 강요하는 것이 아닌지라 나도 그렇게 하자고 했다. 무엇보다 평생을 같이 살 사람인데 처음부터 자잘한 것을 내세워 속 좁은 모습을 보이고 싶지 않았을 뿐 아니라 이것을 한다고 별 일이 일어날 것 같지도 않았고 내가 변할 것도 없었기 때문이다.

혹시 다른 일이 일어날까 염려하여 부모님께서는 아예 알리지도 않았다. 유교적 전통을 고집하는 분들이라 교회 의식을 반대할 것은 뻔한 일이었고 혹시라도 이로 인해 일어날 수 있는 문제를 아예 없애버리자는 것이었다. 그러므로 이 일은 어디까지나 나의 책임 하에 이뤄지고 있었다.

그러나 일은 엉뚱한 데서 터졌다. 혼배성사를 진행하던 중 주례 神父 신부가 퇴장해 버리는 해괴한 일이 벌어진 것이었다. 나로서는 생각 밖의 일이었고 종교의 경직성을 절실하게 맞본 심각한 체험이었다.

의식을 위해 주례 신부 앞에 섰을 때만 해도 믿는 사람과 맺기 위하여 거치는 통과의례쯤으로 생각했을 뿐이었다. 주례 신부는 그 이상을 기대한 것 같았다. 신랑·신부의 혼인 서약뿐만 아니라 아직 태어나지도 않는 아이들의 믿음에 대해서까지 서약을 받으려 했다. 나는 그들의 선택에 따르겠다는 서약 아닌 대답으로 대신하였다. 이에 대해 주례 신부는 거듭 확인하였지만 나의 대답 또한 한결 같았음은 물론이다. 이에 대해 주례 신부는 받아들일 수 없었던 모양이었다. 뿐만 아니라 주례 신부는 新婦 신부에게도 불만스러운 이야기를 서슴지 않았다. 믿지 않는 사람과의 결혼에 대한 못마땅함을 걸러가지 않고 드러내었다.

나는 이에 대해 이해하기가 어려웠다. 아무리 교회 안에서 치르는 의식이라 하여도 이 문제는 함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었다. 순간을 쉽게 넘기기 위해 그렇게 하겠노라고 서약을 했다 하더라도 책임질 수 있는 것이 아니며 또한 그럴 수 있다 하더라도 부모가 명을 지워주는 것은 마땅한 일이 아니다.

그때 나는 머쓱한 채로 같이 간 친구들과 의논하였다. 나의 일행이라야 두 사람의 친구뿐이었고 그들의 의견도 갈리고 있었다. 한 친구는 답답하다고 했다. 그런 것은 적당히 넘어가면 되는 것인데 끝이곧대로 꼭 막혀 있느냐고 나

무렵다. 또 한 친구는 신념에 관계되는 일인데 쉽게 넘어갈 수 없는 것은 당연하다면서 내 뜻대로 밀고 나가라는 것이었다.

점점 시간이 흐르면서 나는 마음을 굳히고 있었다. 신념까지 바꿔가며 위기를 모면하고 싶지는 않았다. 아니라도 결혼식 날짜까지 잡아놓은 터라 처음부터 이런 의식이 달갑지 않았는데 차라리 잘 되었다고 생각했다. 나로서는 우물쭈물 할 수가 없었다. 어차피 될 수 없는 일을 기다리다 보면 더 비참하고 우울해 될 것 같았다. 그래서 서둘러 돌아갈 채비를 하고 있는데 신부측에서 조금만 더 기다려 달라는 것이었다. 별로 내키지 않았지만 뒷일을 염려해서 그렇게 하였다. 무엇보다 그 동안의 정황으로 보아 결혼 자체가 깨어지리라는 생각하지 않았지만 이를 수습하지 않는다면 두고두고 부담이 될 것 같았다.

이 날 주례 신부는 신랑 신부에 대해 처음부터 흔쾌한 모습이 아니었다. 교회에 도착하자마자 신부와 함께 방으로 찾아가서 인사를 드렸는데 교역자의 편안한 모습으로 다가오지 않았다. 사전에 신랑이 신자가 아닌 것을 알 터인데도 다시 물어보는 등 속내를 떠보았고 예비수녀 생활을 했던 신부에 대해서도 아쉬움을 숨기지 않았다. 아마 잘못된 만남으로 단정하고 그런 심기를 드러내었다고 해도 넉넉히 그럴 만한 까닭을 지니고 있었다.

나는 이때 종교 문제의 심각성을 새삼스럽게 숙고하게 되었다. 서로 다른 믿음은 그 자체만으로도 불씨가 될 수 있으며 언제라도 장애물이 되어 길을 막아설 수 있는 것임을 알려준 셈이다. 그렇다면 일찌감치 홍역을 치른 것이 앞날을 위해 약이 될 것이라고 마음을 추슬렀다.

그러나 현장은 여간 난감하고 당혹스러운 것이 아니었다. 나로서는 처음부터 큰 의미를 갖고 간 것도 아니었고 가족이 참석할 것도 아니어서 나만 수습하면 되는 것이었지만 신부측은 그게 아니었다. 장모될 분은 사색이 되어 주례 신부에게 매달렸고 아내될 사람은 처음에는 눈물을 보이다가 나름대로 결심한 듯 보였다. 주례 신부는 신랑의 생각을 바꾸지 않는 한 풀릴 기미가 없는 듯이 완강하였지만 아내될 사람이 단독 면담을 하면서 마음을 누그러뜨렸다.

그리하여 가까스로 수습이 되었지만 세 시간이 흐른 다음이었다. 그 과정에

아내가 어떤 말로 주례 신부를 설득했는지는 이날까지 한 번도 따져 물어본 일이 없지만 아이가 생기면 믿음의 길로 들 수 있도록 하겠다는 그런 약속을 하지 않았는가 짐작된다.

삼십 여 년이 흐른 지금 우리 부부는 1남 4녀를 키우게 되었고 엄마를 따라 모두 가톨릭 신자가 되었으니 그때 내가 약속을 회피한 것과는 상관없이 주례 신부의 뜻대로 다 된 셈이다. 그리고 막내아이는 믿음에 구애됨이 없이 불교 관계 학과를 전공으로 선택하였고 다른 아이들도 타종교를 배척하지 않고 존중하고 있어 다행으로 여긴다. 혼배성사 때의 시련이 약으로 작용한 것인지는 알 수 없지만 우리 집은 종교일치를 이루었다 해도 ‘그렇구나’ 하고 웃어넘길 수 있게 되었다.

지난 가을에 안성 시내를 지나다가 그때의 생각이 문득 나서 그 교회를 찾아보았다. 한적한 안 동네에 자리잡고 있는 구포동 성당, 그 해 가을처럼 노란 은행잎이 트락을 수놓고 있었다. 목조로 된 이 교회는 연조가 오래된 초기 교회라고 들었으며 소담한 모습으로 조용히 자리잡고 있었다. 그때 의례를 진행하다가 퇴장했던 손 신부는 벌써 돌아가신 것으로 아내로부터 들어 알고 있었다. 지금 교회의 트락에서 그 분의 혼령이 보고 있다면 그때나 지금이나 생각이 조금도 변하지 않는 나를 보고 무엇이라고 할까.

갑자기 한 줄기 스산한 바람이 지나가고 은행잎이 흩날린다. 지난날의 기억이 새삼스럽게 다가온다. 종교보다 강한 것이 있다면 연분의 질긴 시슬일까. 바람을 안고 교회 문을 나서는데 오고가는 계절의 기척이 부질없음을 깨쳐주는 듯했다.

겨울나그네

겨울나그네는 가장 쓸쓸하고 초라해 보이는 것 같기도 하지만, 또한 가장

행복하게 생각되기도 한다. 그래서 그런지는 몰라도 겨울을 맞으면 무엇인가 가슴을 짓누르는 어둡고 무거운 찌꺼기를 훌훌 벗어버리고, 겨울 산천을 대하면서 깊고 풍부한 마음의 행복을 맛보며, 무엇인가 따라붙는 어두운 겨울 그림자를 털어버리고 아무 곳이고 떠도는 겨울나그네를 그려보게 된다. 실은 그렇게 겨울나그네가 되어본 적도 없으면서 그렇게 겨울나그네의 몸짓으로 겨울 열차를 타보고 싶은 것이다. 산천의 어디든지 떠다녀보며 무엇인가 확인해 보려는 삶의 의도가 깃들어 있기도 하다. 어느 작은 마을의 여인숙이든지 산간의 절간 같은 곳에서 겨울의 풍정에 젖어들면서 펼쳐지고 있는 앙상하고 삭막한 모습을 따뜻하고 아름답게 바라보며 그 뜻을 새겨보고 싶은 것이다. 흰눈이 산천을 덮고 밤바람 소리가 겨울밤을 달리며 위세를 부리고 있을 때 순환처럼 와 닿는 자연의 모습을 생각하는 것은 어쩌면 다시 자연과 만나는 일이다. 삶의 온갖 모습이 겨울의 강에 길게 누워 두꺼운 얼음 아래로 깊게깊게 흐르는 조용한 강물의 모습을 그려보며 그 소리를 듣는다. 그것은 겨울나그네의 아픔으로 빚는 따뜻한 사랑의 체험 같은 것이다. 이와 같은 분위기에 잠기며 겨울을 맞이하기를 좋아하며 산천의 어디든지 찾으면서 겨울떠돌이의 맛을 만끽하고 싶어진다. 굳이 겨울나그네가 새삼스러운 것은 아니다. 그러나 겨울만큼 조용한 가라앉음으로 추위와 적요와 어두움의 골짜기를 이루며 시련과 멈춤과 죽음의 뜻이 무엇인가를 절실한 아픔으로 만날 수 있는 계절도 없다. 그래서 겨울나그네가 떠도는 산천에는 관조가 머물지 않는 곳이 없다. 아무 데도 갈 곳을 정하지 않고 까닭도 없이 겨울의 깊은 골짜기를 향하여 내달으며 그 골짜기의 차가운 어두움의 두꺼운 벽 아래로 다시 생명의 불씨로 숨쉬고 있는 것을 갈망하며 찾아보는 것은 겨울나그네의 가슴 깊은 곳으로 뜨거움을 품고 있기 때문인가. 그리하여 잠자는 겨울의 산천을 찾으며 펼쳐진 자연의 풍경을 바라보면서 차라리 따뜻하고 은밀한 사랑을 배우는 것이다. 그 쓸쓸한 폐허의 삭막함으로 잠자는 차가운 어두움 속을 겨울의 대지는 단지 멈추어 쉬고 있을 뿐임을 바라보게 한다. 그것은 주검으로 머물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깊은 곳에서 묻어나는 따스한 입김으로 깊은 가슴에 와 닿아 그 뜨거움으로 사랑의 불을 지피게 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겨울을 떠도는 나그네의 쓸쓸한

헤매임이 아니라 가슴으로 만나는 뜨거운 사랑 때문에 그 숨결의 은밀함을 찾아나서는 것이다. 죽음과 절망의 미화나 노래가 아니라 잠지는 대지의 간절한 기도를 듣는 것이며 그것으로 얼마나 뜨겁고 촉촉한 사랑을 베풀 수 있는가를 생각해 보는 것이다. 그러므로 어디를 찾아도 봄비지 않고 얼음길과 찬바람과 더불어 만나고 맞이하기 때문에 훨씬 그 아픔이 절실하고 간절하여 부끄럽지 않다. 그리하여 겨울이 깊을수록 더욱 깊은 뿌리를 가꾸며 흔들리지 않는 마음으로 사랑을 가꾼다. 비록 남루한 행색으로 떠돌더라도 그 옷깃으로 때를 익히며 언 강의 바닥 깊숙이 숨쉬는 생명으로 뜨거움을 나눈다. 어느 곳을 찾는지 예고하지 않고 마중을 바라지 않는다. 있는 그대로 바라보며 느끼고 사랑하면 된다. 그래서 겨울나그네는 가난으로 오히려 풍족함을 즐기고 고된 역경으로 희망을 품으며 행복한 떠돌이를 즐긴다. 뽕뽕 얼어붙은 산천의 깊은 곳에 묻혀진 광맥을 캐는 부지런한 땀방울로 사랑을 깨달으며 잃어버린 이름을 다시 되살리는 그리움으로 깊이를 맑게 하며 아픔과 시련의 더미더미를 넘어가면서 뜨거운 불씨를 품고 잠지는 여인의 부드러운 가슴에 귀기울이며 기다리는 바람으로 겨울나그네가 되고 싶다. 어찌면 행려병자가 되어 조용히 잠자는 산천의 구석구석을 찾아다니며 돌아오지 않는 강처럼 흐르는 찬바람 아래로 조용히 숨죽여 품고 있는 그 간절한 이야기를 귀담아 들으며 사랑하며 맞이하는 몸짓으로 겨울나그네의 객기에 젖어두고 싶다. 차가운 바람이 가지를 울리며 지나가고 영하의 기온이 독을 깨고 묘목을 얼어죽게 하더라도 놀라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그 사나운 사신의 칼날이 제철에 떨치더라도 겨울나그네는 희망을 바라볼 줄 알고 묻혀진 사랑의 숨결을 들을 줄 알기 때문에 겨울의 풍경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겨울나그네는 옷깃을 여미며 흐느끼는 낮고 작은 목소리로 따뜻한 눈물처럼 돌아가는 길목에서 온갖 기억들과 만나는 것이 반갑다. 무엇인가 찾으며 듣는 그 뜨거운 가슴으로 사랑의 눈빛이 반짝이고 끝없는 순례자의 간절한 마음으로 그 어둠 속 깊숙이 살아 있는 빛을 바라보며 그 적막의 깊은 골짜기로부터 겨우 반짝이는 생명의 빛깔을 감지하며 빈 하늘의 초록빛 꿈을 숨쉬는 바람을 만나보는 것을 사랑하며 겨울나그네가 되고 싶다. 그리하여 어느 날 문득 흰눈이 펄펄 휘날리는 아침, 어디인가 기다

리고 있을 것 같은 산천을 생각하며 겨울나그네가 되어 떠나고 싶다. 증기기 관차의 목선 기적에 실려 산이거나 강이거나 바다이거나 들판이거나 겨울의 산천을 만나며, 겨울의 아픔과 절망을 바라보며, 겨울의 사랑과 희망을 찾아 보고 싶다. 그 차가운 가슴속으로 어두움을 헤치고 꺼지지 않는 숨결을 들으며 행복한 겨울나그네가 되고 싶은 것이다.

어느 겨울날의 산간 일기

며칠이 지났다. 외롭고 쓸쓸하기는 해도 견딜 만하다. 따스운 방이 있고 끓여 먹을 것이 있으니 무슨 아쉬움을 탓하랴. 마을이 떨어져 있으니 인적도 없고 보고 듣는 것을 아예 갖추지 않았으니 시간이 남아돈다. 그저 편한 자세로 책을 읽거나 멍청하게 있기 일쑤다.

어제는 진눈깨비가 쏟아졌지만 오늘은 청명한 날씨다. 한겨울이라 바람이 차갑지만 맑고 부시다. 이곳은 이태 전부터 내가 山幕산막을 매어놓은 곳이다. 나직한 산이 에워싸고 숲이 때를 알려준다. 자동차로 서울에서 길어야 두 시간쯤 되는 곳이지만 아직은 오염되지 않은 산간이다. 당장은 채비가 덜 되었지만 마음만은 이곳의 한적함에 머물러 있고 계절을 앞질러 山田베밭을 갈아 씨를 뿌리고 가꾸며 땀을 적시고 있다.

지금까지도 그랬다. 틈만 나면 찾게 되고 칠 맞추어 씨를 뿌려 가꾸어 보기도 했다. 틈새 일이라 열음을 거두거나 잎새를 따는 것이 주저넘은 일이지는 해도 그만두지 않고 있다. 언제인가는 모든 것을 훌훌 털고 落鄉낙향을 생각하고 있다.

며칠을 더 묵고 갈 생각이다. 특별히 세간의 무슨 일에 묶여 있는 것도 아니고 바쁘게 서둘 일도 없다. 그저 겨울산천의 침묵에 귀 기울이며 외로움이나 그 쓸쓸함을 저리도록 새기며 가라앉아 보고 싶고 이름 없는 산천의 이름

도 붙여주고 싶다.

나는 지금 산을 오르고 있다. 별로 높지도 않고 특징을 가진 것도 없다. 그러나 별난 이름이 어울리지 않는다. 북쪽을 막고 있으니 북산이라고 부칠까 보다. 북산의 초입에 은사시나무 숲이 있고 그곳에 옹달샘이 있다. 근처 마을 사람들은 약수라고 하지만 생수를 일러 그러는 것 같다. 색도 없고 맛도 없으면서도 시원하기가 이를 데 없다. 물맛이 자량이라면 무슨 말을 써도 모자랄 것이 없다. 여름에는 차고 겨울에는 김이 난다. 주변이 퐁퐁 얼어붙었는데도 바위틈을 뚫는 물소리는 맑고 정답다. 샘 가장자리로는 겨우살이가 추위를 아랑곳하지 않고 파랗게 돌아 있다. 한 모금의 물맛으로도 씻은 듯 마음이 개운하다. 그래서 洗心泉 세심천이라 이름을 붙였다. 샘 주변의 넓직한 빈터는 옛 절터로 지금도 무너진 탑신이 풍화를 견디고 있다. 이곳에 어떤 절이 있었는지는 아무도 증언해 주는 사람이 없다. 그러나 절터만은 틀림없으니 불리는 그대로 절터가 귀에 익다.

이런저런 생각을 하면서 산마루에 올랐다. 높이가 한 200미터쯤 될까. 북산은 아래서 쳐다본 작은 산이 아니었다. 남북으로 등줄기를 뻗으며 군데군데 봉우리가 뿔뿔이 뿔고 동서로 줄기를 내려 거느리고 있다. 소나무 참나무 등이 뻗뻗이 늘어서 있어 숲 또한 장관이다. 산막에서 쳐다보던 북산은 종남終南의 작은 몸짓에 불과했다. 여기저기 옹달에는 눈자국이 얼룩을 짓고 영하의 찬바람이 겨울숲을 잉잉거리며 울부짖고 있다. 잎새들을 다 떨구고 서 있는 겨울숲의 침묵이 겹도록 와 닿는데 하늘 저편에는 한 무리의 기러기 떼가 사자의 대오를 짓고 남녘으로 날고 있다.

손이 시리고 얼굴이 차갑다. 그런데도 마음은 편안하고 개운하다. 사방으로 트인 모습이 후련하다. 손을 비비고 얼굴을 문지르면서 발을 굴리는데 마른 풀숲에서 갑자기 장끼 두 마리가 푸드득거리며 비탈로 날아간다. 나도 놀랐지만 장끼도 놀랐으리라. 지난 봄에 심은 콩을 싹도 트기 전에 헤치운 놈으로 지목하면서 풀숲을 헤집어 보지만 작은 산새들이 포롱거릴 뿐이다.

산길을 내려온다. 오를 때의 가파른 품속 길이 아니다. 기울기가 느슨한 동편 능선을 따라서다. 남쪽으로 펼쳐진 풍경이 아늑하다. 좌우로 산줄기가 내

려 알맞게 감싸고 그 출구 저만큼에는 작은 산이 가려주는데 그 아래로 시내
가 감돌아 나간다. 좁은 산간이지만 어머니의 품속 같다. 나는 풍수지리를 알
지 못하지만 들은 풍월로 지관을 자처하고 있다. 북산을 主山주산으로 하여 좌
우로 감싼 줄기를 左靑龍좌청룡 右白虎우백호라 이름하고, 남쪽을 가린 작은 봉
우리를 案山안산으로 자리매김한다. 바로 그 서편 자락에 산막으로 등지를 틀
고 자족하고 있으니 명당이 따로 없다. 그저 편안하고 흐뭇하면 그뿐이다.

요사이 내가 산막을 찾는 회수가 잦아지고 있다. 이전에는 가족 동반이었지
만 요즘은 혼자서도 며칠씩 묵고 간다. 이번 나들이도 마찬가지다. 연말 연
시, 세간에서는 흐르는 세월에 천년을 매듭지으며 여기에 뜻을 달아 들뜨고
바쁘게 그것을 뒤로 하고 산간을 찾았으니 말이다.

이곳은 외지기가 섬과 같다. 나직하지만 산줄기가 막아주고 있고, 주변에
아무런 편의시설이 없으니 취할 것도 없다. 유일하게 문명의 이기로 전화 한
대 놓고 있으나 거처와는 동떨어져 이용하기가 쉽지 않다. 전에 아내가 보는
것은 그만 두고라도 듣는 것은 한 대 들이자고 했으나, 여기까지 와서 무얼 들
느냐면서 막았다. 굳이利器이라고 내세울 것이 있다면 예초기를 비롯한 농
구 몇 개를 갖추고 있다.

이런 사정을 알고 더러는 불편하지 않느냐고 하지만 그것이 좋아 이곳에 온
다고 하면 도회 사람들은 가끔 동감을 나타내기도 하지만 이곳 산 너머 마을
사람들은 무슨 별종을 만난 듯이 의아해 하면서 빈정거리거나 웃어넘긴다. 그
런데도 별로 불편을 느끼지 않는다면 문명생활의 적응력에 타고날 때부터 장
애가 있다고 할까.

다들 불편해 하는 이곳에 오면 오히려 마음이 편안해지니 묘한 일이다. 외
롭고 쓸쓸함이 흐뭇함이 되고, 지루함으로 심신을 씻어가니 말이다. 내가 이
곳을 찾아 산막을 맨 것도 이와 무관하지 않다. 그렇다고 문명에 등을 돌리는
것이 아니다. 요새처럼 빠른 변화에는 아무래도 숨이 가쁘고 어지럽다. 그런
데도 마땅한 쉼 곳을 찾기가 어렵지 않은가. 물론 개인차가 있고 쉬는 방법도
다른 것이지만.

나로서는 그저 부담 없이 소화할 만큼 문명의 편의면 된다. 겨울이면 방을

따습게 하고 여름이면 찬물로 땀을 씻을 정도라고 할까. 이 산막에도 이쯤은 갖추고 있으니 자족할 수 있다. 그래서 한겨울도 두려워하지 않고 산간의 외로움과 한갓짐을 찾아온 것이다.

어느 틈에 해가 서산에 걸리고 있다. 덤불에는 새들이 포롱포롱 들락거리는 데 날씨는 점점 차진다. 아까 올랐던 북산도 산 그림자를 드리운다. 나는 톱을 들고 숲 속에 들어가서 마른나무 몇 개를 거두어 온다. 모닥불을 피우고 숯불을 모아 고구마를 구워 별미를 마련하기 위해서다. 고구마는 지난 계절에 거둔 것이 방안에 있다. 오늘은 이렇게 끼니를 때울 작정이다. 풀일 것이 없어서가 아니다. 혼자 있게 되니 쉽게 때우는 것이 편해서다.

산간의 겨울밤은 깊다. 책을 읽다, 뒤척거리다 시계를 봐도 아직 자정이 멀었다. 이따금 밤바람이 話頭^{화두}를 던지듯 적막을 휘저어 가면 귀를 세우다가 바깥을 나온다. 하늘엔 별들이 은싸라기를 뿌린 듯하고 산은 그 윤곽을 어렵 뜻이 드러내며 바람의 기척을 숨기지 않지만 겨울밤의 적막은 무겁고 깊어서 쓸어갈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소한 추위는 역시 매섭다. 몸을 추스르며 방으로 든다. 적막 깊숙이 빠져들지만 집히는 것보다 시간이 길다. 책도 읽고 차도 마시고 그래도 시간이 남아 돈다. 산간의 겨울은 춥고 불편하지만 쫓기지 않고 개운하다. 외로움과 그 쓸쓸함이 오히려 자족의 호뜻함이 아니라. **수필시대**

어제 그제 옛날에

배기정 시집
문예운동 / 값5,000원

금빛꽃



김 홍 은 hekimk@empal.com

경칩이 지나고 나면 나뭇가지에 꽃눈도 병근다. 겨우내 얼었던 물 굵어진 강변에도 물새가 날아든다. 어느덧 봄바람을 느끼고 먼빛으로 보이는 버들개지도 푸른빛이 인다. 이맘때가 되면 내 마음은 들로 산으로 나선다. 한때는 꽃 사진촬영에 빠져 세월 가는 줄을 모른 채 중년의 휴일을 보냈다. 십여 년 간 산골짜기를 누비며 다니는 동안 낮설기만 하던 식물들의 모습이 점점 눈에 익혀졌다.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이라서 그런지 실증이 난다거나 싫지가 않았다. 전공이 다르기는 하지만, 몇 달간 연구실에서 논문을 쓰고 나니 봄이 언제 왔다가 지나갔는지를 몰랐다는 어느 교수의 글을 읽은 적이 있다. 순간 그가 부럽기까지 하였고, 나의 소중한 젊음의 시간은 허송세월로 살아가는 것 같아 부끄러운 생각마저 들었다.

일찍이 이런 마음으로 어떤 일이고 하였던더라면 보다 값진 인생길을 살아왔을 게다. 이제 와서 후회한들 무슨 소용이 있을까만, 옛 말에 철들자 망년 든다고 정년을 앞두고서야 느끼는 안타까움이다.

한국문인협회 회원, 한국수필가협회 회원
충북수필문학회원
현)충북문인협회회장.

창을 열고 먼 산을 바라본다. 봄별이 내려찍는 양지바른 산기슭에 앙증맞게 돌아난 금붓꽃이 눈에 어린다. 한국의 특산식물인 금붓꽃을 발견하고, 감격에 차 요리조리 사진을 찍느라 정신이 없었던 날. 첫사랑의 연인을 만나던 그런 기쁨이었다. 노란 꽃 무더기 옆에 누워 금물을 묻힌 작은 붓 같은 꽃대를 꺾어 푸른 하늘에다 정성을 다해 연인의 이름을 수없이 써 보았다. 푸른 하늘에서 흰 구름 사이로 그녀의 아름다운 얼굴이 쏟아져 안기는 듯 가슴이 점점 짓눌렸다. 어느새 나는 청춘이 되어 있었고, 졸업선물로 받은 노란 펜촉의 파카만 년필이 떠오르며 지난 세월이 실타래처럼 마구 풀려났다. 먼지에 쌓인 인생노트를 한 장 한 장 넘기며 빛바랜 사연들을 읽는다.

이게 인생이고 사랑이더라 말인가. 가슴이 아려오며 부질없는 한숨과 뜨거운 눈물이 핑 돌아, 한동안 눈을 감은 채 회상에 젖었다. 순간 그녀의 사랑스런 추억속의 모습은 헤아릴 수 없는 금붓꽃이 되어 한없이 피어나고 있었다.

아름답고 찬란하게 금빛꽃잎이 봄바람에 나풀거리며 아침햇살에 아련하게 일렁인다. 이 봄은 왜 은은한 꽃향기로 자꾸만 밀려오는 걸까.

아! 사랑이여! 어찌 내 마음을 이리도 흔들고 있는가. 그 사람은 지금, 내 가슴속에서 떠나가지도 보내지도 않았기에 홀연히 금붓꽃으로 다가와 맴도는 건가. 몸은 언제고 떠나갈 수 있겠지만 정은 그리질 못하는가 보다.

그년 봄일랑 금붓꽃이 지천으로 피어있는 맑은 산길을 무욕의 마음으로 찾아가고 싶다. 지금쯤은 겨우내 얼었던 땅속에서 파릇파릇한 새싹으로 돌아나 노란 꽃대를 형성시키고 있겠지. 금붓꽃 몽오리로 글을 쓰면 꼭 성공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만 같다는 억지스런 믿음을 가져본다. 금붓꽃 꽃몽오리를 가슴에 가만히 안아보니 나의 소중한 제자들에게 나누어주고 싶다.

얼마 전에 동료교수로부터 정성이 가득한 그림 한 폭을 선물로 받았다. 사모님이 한 달 동안 수양하는 마음으로 금강경을 한자 한자 금물로 썼다. 조심스럽게 족자를 펴드는 순간 가슴이 벅차올랐다. 수많은 작은 글자가 모여져 커다란 글씨그림이 된 금불탑이다. 글자를 들여다보는 동안 자신도 모르게 고개가 숙여졌다. 오만으로 살아온 지난날들의 떨림은 온몸이 확확 달아오르며 연소가 되기라도 하는 것처럼 몽롱했다. 게으르고, 안일하게 그러면서 욕심으

로만 가득 차 살아온 젊은 날의 인생이 한없이 부끄러웠다. 물욕의 마음을 비우고 나면 행복해진다고 하지 않던가. 버리지도 그렇다고 모은 것도 없고, 이 루어놓은 것도 없다.

이웃에 살던 고향사람이 세상을 떴다는 부고를 받고 문상을 갔다. 조문을 하고 나온 나에게 누군가가 銘旌명정을 써달라고 부탁을 했다. 마당 귀퉁이에 관이 놓여있고, 그 옆에는 빨간 비단 천이랑 붓과 벼루가 준비되었다.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지만 명정을 쓸 수 있는 이는 아무도 없었나 보다. 나는 붓글씨를 써 본 지도 너무도 오래 되었거니와 한자로 쓰는 연습을 한 번도 하여본 적이 없어, 쓸 줄을 모른다고 실토를 했다. 최종 사람들은 대학에 근무하면서 붓글씨 하나도 못 쓰는 게 무슨 선생이냐고 실망하는 것 같아 얼른 그 자리를 피하고 말았다. 그 후로 먹을 갈고 화선지를 펴놓고 붓글씨 연습을 하였건만, 작심삼일이라고 오래 가질 못했다. 20여 년의 세월이 흘렀어도 아직도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금붓꽃이 피기 전의 모습을 바라보면 늘 정갈한 붓이 생각난다. 그때 마다 지난날의 부끄럽던 생각이 떠오르며 연약한 자신의 의지를 굳게 세우고 살아 오지 못함을 이제서야 한탄을 한다. 자연은 지고나면 봄에는 또 다시 아름답게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건만 내게는 부질없는 세월이 오고갔을 뿐이다. 금붓꽃은 올해도 곱게 피어나 나의 지난 세월을 일깨워 놓겠지.

앞산에서는 뽕썩새가 뒷산에서는 소쩍새가 울고, 아지랑이가 이는 산모퉁이는 짙레나무순이 돌아난 오솔길을 걷는다. 푸른 강물 위로 쏟아지는 저녁노을은 황금빛 꿈을 꾸며 구비 구비 흘러가고, 기약도 없이 헤어진 그 사람은 소식조차 없어도 내 고향 사월의 아름다운 산천은 세 앞으로 피어나는 금붓꽃이 피어있어 혼자 살아가도 외롭거나 슬프지가 않다.

금붓꽃이 방긋이 웃으며 나를 반긴다.

병꽃나무

식물은 계절이 가고 오는 동안 스스로 자라게 되어 꽃은 피고 진다. 가을이 깊어 가면 만물은 모든 잎을 떨어내고 묵상을 한다. 그 모습은 너무도 어질고 고고하며 아름답다. 많은 나무들이 그러하듯 정원의 오색병꽃나무도 不生不死 불생불사에 들어있다.

나는 병꽃나무를 보고 있으면 마음 한구석에 빛을 지고 살아가고 있음을 느낀다. 20년 전 시내버스 안에서의 일이다. 어느 여선생님으로부터 병꽃나무를 다른 정원수와 교환하여주기로 하고 얻어다 심었다. 그러나 차일피일하다가 그만 약속을 지키지 못했다. 병꽃나무는 꽃이 피면 끝없는 종소리로 해마다 다가와 마음을 아프게 올려놓는다.

병꽃나무를 바라볼 적마다 그때의 여선생님 모습을 애써 떠올려보려 하지만 어릴 때 다니던 초등학교 교무실 창밖에 매달려 있던 병꽃 모양의 鍾鏞만 어른거린다. 십리길이 채 못 되는 곳에 있는 초등학교는 옛날 院원으로 원님이 거처하였던 건물이다. 기둥은 어린 양팔로 두 아름이 넘을 정도의 굵은 통나무로 되어 있다. 처마 끝에 남겨져 있던 문양은 오방색으로 상어를 연상시켜 어린 나에게는 더욱 무서움으로 다가왔다.

그보다는 오래된 건물은 비오는 날이면 귀가 달린 뱀이 나와 종을 치고 간다고 하였다. 밤이면 가끔 귀신도 나와 천장을 거꾸로 서서 걸어 다닌다는 무서운 이야기도 나돌았다. 이 통에 특히 비가 오는 날은 화장실을 갈 적에는 무서워 여러 명이 몰려다녔다.

여름의 미풍이 불면 정원의 병꽃나무는 아기자기한 작은 꽃들이 저마다 아름다운 소리를 내어 화음으로 울릴 것만 같다. 그 화음은 아무도 없는 오후의 넓은 운동장에 서넛 해 그림자가 질 때, 텅 빈 교실에서 올라오는 피아노소

리도 스며있는 듯했다. 선생님들의 종례시간을 알리는 마지막 종소리를 들으며 교문을 터덜터덜 나설 때처럼, 공연히 쓸쓸하게 느끼던 지난날도 담겨있는 듯하다.

어쨌든 병꽃나무에 오색 꽃이 만발하면 나의 마음속에는 아직도 향수에 젖은 슬픔 같은 것들이 가슴을 적시곤 한다. 예나 지금이나 지루한 시간의 끝남을 알려주는 신호소리가 제일 즐겁다. 초등학교 때는 [땡, 땡하고 두 번씩 치는 종소리가 기다려졌고, 푸른 들판에서 들리던 소방을 소리는 편안하게 느껴져 좋았다. 병꽃은 언제 보아도 평화스런 꽃종소리를 은은하게 들려줄 것 같아 마음마저 여유롭다.

이렇듯 싱싱한 徒長枝도장지의 병꽃나무를 잡고 서 있으면, 강물 위로 황혼이 덮일 때쯤 산 계곡을 타고 올려오는 범종소리도 들린다. 꽃이 질 적에는 가슴이 무겁기도 하고, 어느 땐 마음이 차분하게 깊은 물밑 속으로 가라앉는 것 같아 두렵기도 하다

문살로 새어드는 달빛을 부둥켜안고 울던 풀벌레 소리에도, 병꽃나무 가지는 소리 없이 흐느끼기라도 하는 듯했다. 비에 젖은 채 힘겹게 꽃잎을 주렁주렁 매달고 있을 때는 더욱 안타깝게 안겨온다. 이럴 적에 죽어간 이웃집 누나의 영혼이 담겨 있기라도 한 듯 마음이 우울해지기도 한다.

누나는 내가 다니던 학교 여선생님으로 나 보다 열두 살이나 더 많았다. 나는 학교를 갈 때나 집에 올 때도 꼭 함께 갔으며, 수업이 끝나면 누나가 있는 교실에 가서 퇴근할 때까지 기다렸다가 왔다. 어쩌다 비가 오는 날 교실에 혼자 남아 있으면 무서웠다. 바람은 유리창을 덜컹덜컹 흔들거나 깨진 유리 사이로 밀어닥쳐 환경정리를 한 것들을 사정없이 흔들어 댈 때는 더욱 소름이 끼쳤다. 더군다나 누나가 있는 현 교실은 음침하여 기분이 으스스 했다.

퇴근하는 누나와 푸른 미루나무 숲길을 저녁노을에 젖어 노래를 부르며 소리로 접어들면 길가로 늘어진 수수목을 헤치며 걸어가는 것도 기쁨이었다. 그 보다는 누나의 어깨를 덮어 내린 긴 머리칼과 보랏빛 옷깃이 가을의 천사같이 아름다운 모습을 보는 게 더 좋았다.

여름 방학이 끝날 무렵 누나는 갑자기 세상을 떠났다. 그때 많은 사람들은 여

선생님이 상사병으로 죽었다는 뜬소문이 자자했지만 모두 거짓이었다. 정작 누나가 죽게 된 것은 학교의 종소리 탓이다. 늘 건강이 좋지 않았던 누나였지만……. 억수같이 소낙비가 쏟아지고 그날따라 천둥과 번개가 사납던 날, 누나는 일직이었다. 무서운 전설을 지닌 학교에 연약한 여자 혼자라, 무서움에 떨고 있는데 창밖에서 종이 울리더라. 그 후 계속 종이 울려 그만 기절을 하게 되었다. 집에서는 종소리에 놀란 것도 모르고, 엉뚱한 약만 처방하는 바람에 끝내 눈을 감고 말았다.

누나가 운명하던 날은 먼 소재지에 있는 교회에서 들려오는 종소리도 조종을 알리는 것처럼 그렇게 들렸다. 이후로 종소리가 무서워졌다. 종소리를 들으면 또 누군가 운명을 전하는 사신의 목소리로 들렸다.

나는 마을의 종각이 있는 옆집에서 살았다. 종을 치고 나면 종소리의 마지막 꺼져가는 소리까지 들었고, 그때마다 사라져가는 여운은 나의 애상을 키워 주었다. 마을 한복판 높은 종각에는 작은 종이 덩그렇게 매달려 있고 기다란 줄도 매여 있어 바람이 불어 일렁일 때마다 가끔 종은 이어져 울었다. 그때마다 누나의 마지막 죽어가던 모습이 떠올랐다. 그런 연유에서인지 어쩌다 산에서 붉은 병꽃을 보면 그냥 싫었다.

지금은 많은 세월이 흘러서인지 병꽃나무를 보면 누나의 모습이 어렴풋이 떠올라 반갑다.

오늘도 정원에 곱게 피어 있는 병꽃나무를 어루만지며 추억을 그려본다. 지난날 어느 여선생님과 약속도 지워지질 않는다. 마음의 빚을 갚기 위해서라도 금년에는 병꽃나무를 많이 삼목을 하여 주위의 사람들에게 분양을 해야겠다.

인동덩굴

신록에 젖은 산길은 홀로 걸어도 외롭지가 않다. 계곡으로 간간히 부는 바

람과 맑은 물은 자연의 향수를 느끼게 한다. 간혹 산새울음 소리도 산울림처럼 아련히 가슴으로 밀려와 머물다 떠나간다.

한적한 산모퉁이를 돌아가는 오솔길에는 짙레꽃이 지고나면 인동꽃이 피어 있어 더 정감이 간다. 가던 발길을 멈추고 나무줄기를 감고 자라는 덩굴을 살며시 만져 본다. 인동덩굴을 보면 병환으로 누워 계시던 어머니의 모습이 떠오른다.

지난 그 때의 일은 오십 여 년이 지났어도 잊혀지지 않는다. 그 시절만 해도 시골에는 병원이 없었다. 흰 눈이 가득 쌓인 겨울이었다. 열흘정도를 몸져 누워 아무것도 드시질 못하던 어머니. 지금 생각하니 아마도 감기이었던가 보다. 어머니는 내게 심부름을 시켰다. 그때가 초등학교 사학년 때이다. 마을 뒷골에 있는 밭가의 돌서덜에서 자라고 있는 인동덩굴을 잘라 오라고 알려주셨다. 어머니로부터 처음 들은 식물이름이다.

나는 평소에 그 밭에는 얼씬도 하지 않았다. 어른들은 동네 아이들이 죽으면 거적에다 들둘 말아 지게에다 지고 가서 밭에서 멀지 않은 산기슭에다 파묻었다. 이웃집에서 자라던 내 또래 상우도 그렇게 지게에 실려 나갔다. 무덤은 대개가 돌무더기를 만들어 놓았다. 더러는 푸른 솔가지지를 꺾어서 덮어놓고 큰 돌을 얹어 놓기도 했다. 그러니까 아이들의 공동묘지나 다름없었다. 마을 사람들은 이곳을 애장 터라고 불렀다. 그래서 뒷산을 오르는 산길에 무섭고 가기를 멀리했다. 봄이 오면 뒷골에는 진달래꽃이 만발하게 되어도 혼자는 가지 못했다. 그곳에 가게 되면 애장 터가 건너다보이기에 밭에 가는 것도 싫었다.

그날만은 가지 않을 수가 없었다. 뒷골로 가는 오솔길을 고개를 들지 않고 인동덩굴을 외우며 걸었다. 무서움도 잊은 채 무릎까지 쌓인 눈을 헤치고 밭가의 돌서덜을 찾아갔다. 용케도 나무줄기를 타고 올라간 덩굴을 발견했다. 어머니가 알려준 대로 파란 잎이 달려있다. 얼른 낫으로 줄기를 끊어 들둘 말아서 단걸음에 달려왔다. 그리고 작은 솥에다 석류와 인동덩굴을 넣고 푹 달였다. 얼마 후 대접에다 누르스름한 물을 가득 담아다 드렸다. 어머니는 후후 불면서 마시고는 땀을 주르륵 흘렸다.

산을 오르다가 인동덩굴을 보면 아직도 그때가 생각이나 가슴이 아리며 어머니가 보고 싶어진다. 지금은 댜으로 인해 내 고향은 수몰이 되어버렸다. 그리운 고향의 모습도 그리도 무섭던 애장 터도 이제는 볼 수가 없다.

그 밭가에서 자라던 인동덩굴은 아니지만 산기슭을 가다가 더러 만나면 다른 식물보다도 더 정감이 간다. 여름이면 가느다란 철사 줄 같은 빨간 줄기에 핀 꽃은 흰나비가 나는 듯하기도 하고, 어머니가 하얀 모시저고리를 입고 나들이를 다녀오시던 그런 모습을 바라보는 것 같기도 하다. 이런 연유에서인지 몰라도 인동꽃 사진을 찍을 때가 제일 기분이 좋다.

인동꽃 사진을 찍을 적에는 많은 꽃 중에서도 처녀꽃을 찾는다. 처녀꽃 모습은 신선하면서도 알싸하다. 파란 하늘로 금방 날아갈 듯이 피어 있는 꽃잎은 어찌 보면 결혼예식장으로 막 들어가는 신부 같다고나 할까. 너무도 아름답다 못해 알밋기까지 하다. 이른 아침에 피어 있는 꽃은 수줍은 산아가씨 같다. 카메라를 가져다 대면 방긋이 미소를 지으며 포즈를 취하는 청순한 소녀 같기도 하다.

인동덩굴은 아마도 한방에서 귀한 한약재로 쓰이고 있나 보다. 그 이름도 忍冬草인동초, 金銀花금은화, 老翁鬚노옹수, 二寶花이보화, 左塵藤좌진등, 水楊藤수양등, 銀花藤은화등, 金銀금은, 二花이화, 雙花쌍화, 金花금화, 銀花은화 등, 수없이 많은 걸 보면 예로부터 민간약재로 손꼽혀 온 게 아니었나 싶다. 인동꽃은 필 때는 흰 꽃이지만 며칠이 지나면 노란꽃잎으로 변하여 있어 흔히 금은화라 불리기도 한다.

나는 여름이면 인동꽃차 만들기를 좋아한다. 인동꽃이 만발하기 전 꽃봉오리가 막 피어 내려하는 꽃을 따다. 솜치녀 꽃을 따는 셈이다. 이 꽃은 다른 꽃보다 향이 가득하다. 연한 잎과 꽃을 함께 따서 깨끗한 물에 살짝 씻은 다음 그늘에다 물기를 말렸다가 꿀에 담가둔다.

여름밤에 개구리울음소리를 벗 삼아 인동꽃차를 마시면 은은한 향에 취해 더위를 잊는다. 꺼져가는 인생의 불꽃을 따루어 고독한 찻잔에 담아 한 모금씩 마시며 부질없었던 지난날을 밤하늘에 날려 보낸다. 님은 떠나가고 돌아올 리 없으련만 그리운 마음을 마주하고, 밤새워 추억을 행구어 빈 잔에다 가

득 채운다.

한때는 물욕에 흔들렸던 고통스런 인생의 피맺힌 마디마다 인동덩굴처럼 감긴 세월을 향기로 다스리며, 얼마 남지 않은 여생을 아름답게 다독이려다. 이렇게 부질없이 살아가는 게 인생이 아니던가.

인동덩굴이 부럽다. 연약한 줄기지만 한겨울도 푸른 잎을 달고 있는 강인함이 놀랍기도 하다.

일생을 한약재가 되어 베풀며 살아가는 그 거룩함이어. **수필시대**

하늘 말귀에 눈을 열고

박곤걸 시집
문예운동 / 값5,000원

거울 속 낯선 여자

권숙이 시집
문예운동 / 값6,000원

추억의 트럼펫



이 병 남

갑각이 둔해진 탓일까.
돌아왔다는 기쁨도 새로운 각오도 없는 부임이다.
새로운 업무에 대한 공포만이 머리 속에 가득할 뿐이다.
점심 식사 후 문득 내려다 본 창에서 움트는 버들가지를 본다. 분명 봄은 발밑에 와 있다. 한 번쯤 아지랑이 어린 식장산 그늘에 뜬 애드벌룬처럼 하늘 높이 오르고 싶다.
봄 탓이다.

일기장에 기록된 어느 날의 일기다. 덮어두지 못하고 다시 읽어 내려가는 시야에 그날 그 시절의 정경이 선하게 펼쳐진다. D시는 내가 근 삼십 년을 살았던 곳ियो, 신혼의 단꿈으로부터 시작해서 사랑의 종말까지 갖가지 애환을 연출하던 곳이기도 하다.

낮익은 얼굴, 어느 거리, 그 모퉁이마다 추억을 뿌리지 않은 곳이 없다. 그 중에서도 전근 명령을 받고 수년 간 D시를 떠나 살다가 다시 돌아와서 근무

충남 보령 출생. <家産>을 당진한 落選의 고배)로 여원사 수기 당선(1962년)
유성중, 대전여중 교사, 장학사, 경서중 교감, 봉천여중·은평중 교장 역임
수상 : 현대수필문학상(1982), 한국수필문학상(1993), 노상문학상(1994)
수필집 : <추억의 트럼펫>외 4권, 수필전집 <그래도 못다한 사랑>, <미인의 조건>

하던 때의 사무실은 3층에 위치한 곳으로 D시의 사계절을 조망할 수 있던 곳
이어서 특히 기억에 남는다.

남쪽과 동쪽이 유리벽인 사무실에서 나는 다행히 남쪽을 바라보고 앉게 되
었다. 책상을 배열하는데 서열을 따지고 부임날짜의 선후를 가리는 사회에서
마음에 드는 자리에 앉게 되는 것은 분명 행운이 아닐 수 없다.

출입문인 북쪽을 등지고 앉아 오른쪽은 상사의 자리이고 보면 자연 내 시선
은 남쪽 창 아니면 동쪽 창에 머무르게 된다. D시의 높고 낮은 건물들이 한눈
에 들어오고, 계족산의 허리를 가로지르는 경부고속도로를 멀리 바라볼 수 있
는 동쪽 창은 기다리는 사람이 있을 때 자주 눈길이가던 곳이다. 더욱이 완성
된 대청뎀을 보고 온 후로는 계족산을 넘나드는 구름은 자주 대청호의 낙조에
여울지는 물결을 그리움과 함께 동쪽 창을 통해 몰고 오곤 했다.

계족산은 계룡산과 함께 봄빛보다는 가을 단풍을 자랑하는 산이다. 기우는
저녁 해가 계족산 단풍잎을 물들이고 질주하는 고속버스의 행렬이 꼬리를 무
는 주말이면 나는 미칠 듯 어디론가 떠나가고 싶은 충동을 느꼈다.

그러나 남쪽 창을 통해 불어오는 바람은 전혀 달랐다. 자동차의 내왕이 빈
번하지 않은 도로를 사이에 두고 남쪽 창을 통해 내려다 볼 수 있는 D고교의
교정은 언제나 젊음의 활기와 환성이 가득했다. 특히 햇빛 쏟아지는 오후 백
구를 날리고 쏟아진듯이 운동장을 누비는 유니폼의 젊은이들에게는 나를 잃고
바라보는 시간도 있었다. 남쪽 창은 또 시선을 오른쪽으로 조금만 돌리고 바
라보면 수도산의 벚꽃과 보문산의 봄빛을 몰고 왔으며 멀리는 충무체육관의
애드벌룬이 가을 하늘을 수놓았다.

호남의 관문이라 불리는 D역에서 기적이 우는 아침이면 식당산에 피어오르
는 안개를 보고 하루 일기썩은 점을 칠 수도 있었다. 안개 속을 헤매는 기적소
리나 비에 젖은 검은 식당산은 나를 우울하게 했다. 온종일 바빠 돌아가는 일
과 중에서 잠시 머리를 식히기 위해서나 혹은 다정한 목소리의 전화를 받는
동안 창을 통해 바라보는 이런저런 정경들은 목욕 후에 마시는 한 잔의 청량
음료만큼이나 시원하고.

그러나 단 한가지 남풍을 타고 오는 소리만은 늘 나를 짜증스럽게 했다. 눈

으로 바라보는 것이면 보기 싫을 땐 눈을 감아 버리면 그만이지만 귀로 듣는 것은 귀막이를 하고 앉아 있을 처지도 못되어서 어쩔 도리가 없다. 소리도 소리 나뉘어서 아름다운 소리는 사람의 마음을 가라앉게 하고, 때에 따라서는 일의 능률도 높여 주지만 그 트럼펫 소리만은 예외였다.

D고교의 입학식이 끝나고 교정에 둘러선 나뭇가지들이 뾰족뾰족 새순이 돋아날 때면 신입생들로 활기를 띠는 운동장의 풍경과 함께 불규칙한 트럼펫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다. 그 불규칙한 소리가 들려오는 곳은 D고교 강당 뒤편이다. D고교에 새로 입학한 학생 중에서 선발된 취주악 대원들의 연습장이 바로 강당 뒤편인 모양으로 그곳에서 불어대는 트럼펫 소리는 남풍을 타고 곧장 내 사무실로 몰려와 신경을 자극하곤 했다.

일에 열중할 때는 잘 듣지 못하던 소리도 일이 잘 풀리지 않거나 마음이 괴로운 시간에는 마치 트럼펫을 귀에 대고 불어대는 듯 가까이 들려왔다. 주위가 조용하니 유독 트럼펫의 고음이 두드러지게 들릴 수밖에 없다. 날이면 날마다 출근과 동시에 듣게 되는 그 소리는 퇴근하는 시간에도 들어야 했다. 이제 그만 끝이 났는가 하면 다시 불던 트럼펫 소리만이 듣기 싫은 것이 아니라 급기야는 부는 사람까지 미워졌다.

D고교에 전화를 해서 사무에 지장이 있으니 제발 연습장을 딴 곳으로 옮길 수 없겠느냐고 부탁을 할 생각도 수시로 일어났다. 그러나 그때 뿐. 오히려 트럼펫 연습이 없는 날은 “무슨 일일까? 웬일일까?” 걱정을 하기도 했다.

어느덧 봄은 가고 여름 그리고 가을도 지났다. 그리고 초겨울 찬바람이 창문을 달아준 토요일 오후. 나는 D고교 강당 복판쯤에 자리를 하고 앉았다. 전국 고등학교 취주악 경연대회에서 입상한 D고교 취주악대의 입상기념 연주회에 초대된 자리였다.

이윽고 연주가 시작되었다. 불고 치고 두드리는 악기 소리들이 한데 어우러져 웅장하다 못해 장엄하게 강당 안에 퍼졌다. 한 곡 한 곡 연주가 끝날 때마다 청중들은 박수를 아끼지 않았다. 신경을 자극하던 그 불규칙한 트럼펫의 고음은 들을래야 들을 수가 없었다.

나는 연주를 귀로 듣는 것이 아니라 눈으로 누군가를 찾고 있었다. 봄 여름

가을 그 많은 날들을 무성한 나뭇잎에 얼굴을 가리고 소리로 나를 괴롭히던 주인공은 누구일까? 연주가 끝나고 단원들은 한 사람 한 사람 일어서서 단을 내려왔다. 그 중의 한 사람과 내 눈길이 마주쳤다. 트럼펫을 손에 든 미워할 수 없는 미소년이었다.

D시를 떠나 사는 지도 어느덧 해를 거듭했다. 그러나 봄이 오고 새순이 파릇파릇 돌아나는 계절이면 나는 서울에 앉아서도 보문산의 봄빛을 보고 계족산의 구름을 보며 미소년의 그 불규칙한 트럼펫 소리를 듣는다.

고향집의 램프

저녁 노을이 남산 타워를 감돈다.

이윽고 어둠이 깔리면 내 마음은 언제나 고향집으로 달려간다.

동녘 하늘에서 빗살 같은 아침 햇살이 비친다. 남산은 아직 희뿌연 꿈속에서 해매는 시간에도 남산 타워는 나로 하여금 고향집 램프 불을 생각해 한다. 그리고 아버지를 추억케 한다. 청жат빛 하늘로 날아갈 듯 우뚝 솟아오른 남산 타워가 어머니가 청소하신 램프를 연상케 한다면 주룩주룩 쏟아지는 빗속에 점화된 남산 타워는 아버지가 청소하신 램프불과 흡사하다. 그러나 비구름에 가려 전연 식별할 수 없는 날의 남산 타워는 내 가슴을 더욱 그리움에 젖게 한다.

고향집에는 언제나 램프불의 심지를 돋우어 방안에 불을 환히 밝히고 방학 맞아 돌아올 딸의 귀향을 기다리던 아버지가 계셨다. 활짝 열린 대문 안으로 한 발을 내딛고 “아버지” 하고 소리쳐 부르면 맨발로 반기시던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들실에서 늦게 돌아오시는 날 저녁, 아버지는 방안의 램프를 처마 끝에 내다 걸고 청소를 시작하셨다. 등잔, 호야, 잣, 모두가 유리로 된 램프는

무명심지가 유리등잔 속에서 다소곳이 석유를 빨아 올려 맑게 담긴 호야 속에서 불꽃을 태우고, 우윳빛 갓을 쓴 모습으로 철사줄에 목을 매달고 있었다. 램프는 우리 집에서 매우 소중한 물건 중의 하나였다.

넙칠세라 조심조심 램프의 등잔에 석유를 쏟아 부으시던 아버지의 손길이 떨리는 것을 보았던 기억으로부터, 걸레를 잡은 오른손을 호야 속에 쑥 넣고, 왼손으로는 호야의 목을 잡고 뱅글뱅글 돌리시던 아버지의 고운 손. 잘 닦이지 않는 호야의 한끝을 손바닥으로 막고 호야 속으로 호 호 불어넣으시던 아버지의 입김. 어찌 그뿐이라.

닦고 난 호야를 떨쩍이 들어 올려 저녁노을에 비취 보시던 아버지의 눈길. 그 눈길이 호야를 통해 어머니가 돌아오실 고갯길을 응시하고 있음을 나는 알고 있었다.

램프의 호야는 왜 그리 잘도 깨어졌는지. 호야가 쟁그렁 깨지고 나면 뜻있는 웃음을 내게 보이며 난감해 하시던 아버지의 표정은 지금도 생생히 눈에 보인다.

때때로 깨진 호야는 아버지와 어머니 사이에서 언쟁의 불씨가 되기도 했다. 그때마다 아버지는 늦게 돌아오신 어머니를 탓하고 어머니는 매사에 서투르신 아버지의 숨씨를 탓했다.

아버지와 어머니가 깨어진 호야 하나로 서로 다투시는 데는 그럴 만한 까닭이 있었다. 평소 가사에 등한하신 아버지가 램프 청소를 하는 날은 마작손님이 오시는 것으로 생각하면 틀림이 없었다.

그러나 어머니는 아버지가 마작을 좋아하시는 몇 갑절 아버지의 마작 취미를 싫어하셨다. 더구나 오십여 리를 걸어서 내왕하는 광천장에 가서 호야를 사와야 하는 일도 어머니에게는 여간 번거로운 일이 아니었다.

램프의 심지를 자르는 일에도 아버지는 거둬 실수만 하셨다. 밤새 태우고 난 램프의 심지 끝을 가위로 자주 잘라내야 불빛이 밝아진다. 그러나 가위질이 서투른 아버지가 자른 심지는 모가 나서 불을 켜면 금세 불꽃 한 끝이 연기로 변하여 애써 닦은 호야 안에 환을 쳤다. 그러면 “어허 또 혼나겠는 걸” 하고 어머니를 돌아보시던 아버지.

강남에 사는 사람이 남산 타워를 북쪽에 두고 바라보고, 강북에 사는 사람이 남산 타워를 남쪽에 두고 바라보듯이 고향집 램프의 위치도 그때그때 형편에 따라 자주 이동을 했다. 가족이 한자리에 모여 저녁식사를 할 때면 램프는 천정을 가로지른 철사줄을 타고 밥상머리에 오고, 내가 책상 앞에 앉으면 램프는 나를 따라왔다. 마작 손님이 오신 날은 장지문 사이에 매달린 램프는 윗방의 아버지의 마작판과 안방의 어머니의 반질고리를 밝혔다.

저녁이면 램프불 아래 바느질에 열중하시는 어머니 곁으로 흘러가던 아버지의 툽소 소리도 잊을 수가 없다. 우윳빛 램프 갓에 반사된 불빛에 더욱 아름답던 어머니 얼굴. 아버지가 늦게 돌아오시는 밤이면 램프의 석유가 줄어드는 만큼 가슴을 태우면서도 애써 태연해 하시려던 어머니의 번뇌. 모두 내게는 램프가 준 더할 수 없이 소중한 추억들이다.

‘부친 사망 급재. 남대문경찰서 최형사’

이 한 장의 비보가 내게 전해진 날은 공교롭게도 어머니 제삿날이었다. 다시 읽고 눈 비비고 또 읽어도 전보 내용은 사실이었다. 남산에 올라가시던 아버지가 경로당 부근에서 의식을 잃고 쓰러지셨는데 신분을 증명할 아무 것도 가지고 있지 않았다는 것이다. 신고를 받고 달려온 남대문경찰서 최형사가 찾아낸 것은 편지 봉투에 우표까지 붙이고도 띄우지 않고 양복 호주머니에 넣고만 다니신 이 불효한 딸에게 보내실 한 장의 편지였다. 발신인란에 ‘父書’라고만 적으신 편지 봉투가 아니었던들 어찌 아버지를 선영으로 모실 수 있었을까.

그후 나는 남산에 오르기를 몹시 두려워한다. 마음으로야 하루에도 몇 번씩 아버지가 쓰러지신 곳이 어디쯤일까 하고 남산 길을 오르내리지만 발길은 막상 남산을 향해 가다가도 돌아서곤 한다.

시인은 “그리운 사람은 무지개를 타고 온다” 고도 표현했다.

나는 시인은 아니지만 서울에 사는 날까지는 남산 타워의 불빛을 아버지의 서투른 솜씨로 닦아낸 고향집의 램프불로 바라볼 것이다.

別離^{별리}

병원 앞을 걸었다.

올려다본 빌딩 창에 우윳빛 안개가 서린 아침. 육신 아닌 마음의 상처를 치료하는 곳은 어디일까 생각해 본다.

출근길의 청년이 선뜻 지나는 연탄 수레를 밀어준다. 보기에 친절하고 정에 넘치는 청년이다. 가파른 고갯길도 밀고 당기면 연탄 수레는 가볍게 넘을 것을. 길을 가다 만난 인연으로도 사람들은 서로 돕고 때로는 정을 나눈다. 만남은 곧 이별의 뿌리가 되는 것을 꿈에도 생각지 않는 인간은 자기 분신을 찾아 헤매고, 어찌다 그를 만나면 주저치 않고 사랑을 약속하기도 하고, 만남엔 끝이 있어 헤어짐이 슬픔인 것을 미처 모른 채.

삼십 분쯤 여유를 갖는 차표를 샀다. 찻집에 들리고 싶어진 것이다. 아직 앞서 앉았던 손님이 마시고 간 찻잔이 채 치워지지 않은 자리에 앉아 커피 한 잔을 청했다. 토요일, 돌아오는 길에 쉬고 월요일, 출발을 위해 기다리던 찻집이다. 이젠 내 집같이 낯익다. 핸드백을 놓으려던 탁자 위에서 곱게 접힌 종이 쪽을 주워 읽었다.

이젠 이 터미널에서 버스를 탈 수 없게 된대요.

찻집에 들렀습니다.

나를 기다리지 않는 어느 신사가 차를 들고 있을 뿐,

그날의 당신도 봄비던 나그네도 오늘은 볼 수 없네요.

커피 한 잔으로 목을 적시는 일이 이토록 힘이 드는

일인 줄은 미처 몰랐습니다.

찻잔을 들었다 놔다 했죠.

목이 메어 넘어가 주질 않는군요.

싸늘하게 식어버린 차를 이별과 함께 삼킵니다.

다이얼을 돌릴 생각이었습니다.

‘지금 떠나요. 울고 있어요. 안녕’ 이라고 말했을 거예요.

차표를 사던 창구에서 “당국의 지시로 내일부터 터미널을 강남으로 이전케 됐음을 알려드립니다” 라고 써 붙인 방을 읽었다. 펜을 든 손이 떨렸음인지 글씨가 고르질 못하다.

두고 떠나는 아픔을 절규하는 목소리. 그녀의 그토록 애절했던 부르짖음도 역시 영원불변일 수 없는 인간의 사랑이었나 보다. 사랑이란 남자의 생애에 있어서는 하나의 삽화, 여자에게 있어서는 바로 역사 그것.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사랑은 투기하는 자가 되지 아니하며 사랑은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건디는 것이라지만, 인간은 때로 사랑을 믿지 못해 투기하고 때로는 참고 건디는 고뇌로움은 차라리 있음만 같지 못하다고 판단한다.

그녀가 피를 찌는 아픔으로 썼을 편지를 다시 읽는다.

그가 그녀를 위해 불러주던 이름을 적지 못한 그녀의 통곡이 가슴을 헤집고 드는 결별. 사랑은 어차피 아픔인 것을…….

만남은 우연일 수 있지만, 이별은 다만 그 시기와 처소와 방법을 모를 뿐, 필연으로 채색된 것이기에 사람들은 또 그토록 이별을 아긴다.

쓰르라미 우는 여름 한나절, 바람에 나부끼는 미루나무 잎을 의미있게 본 사람이면 뜨겁게 사랑한 날들을 결별하는 편지를 손끝으로 적는 여인의 앞코는 심사를 짐작할까.

남들은 만남의 기쁨을 준비하는 시간에, 사랑도 미움도 저주마저도 두고 떠나는 그녀. 차라리 미워하지. 차라리 저주라도 하지.

멍든 손가락 가락 꼬부러 세어 보고, 남모를 사랑에 낮 동안 종일토록 생각에 잠기고 밤에 잠을 설치는 여자가 될 것을 어찌하여 커피 한 잔만을 마시고 떠났을까. 번호를 알아도 다이얼을 돌리지 못한 고뇌, 부칠 사연은 적어도 주

소를 쓸 수 없는 까닭이 그들의 만남을 더욱 불태운 찻집.

어느날 떠나려는 여인을 만류하던 사내의 눈물을 본 기억이 괴롭다. 그래도 결별의 용기를 갖는 것은 금단의 열매를 딴 아담쪽인가.

세상에서 무서운 것은, 다시 쫓는 그리움임을 헤아렸을 그녀가 황망히 떠난 자리엔 허무와 눈물만이 고인 것을 보고도 그래도 인간은 살며 사랑을 한다.

시계바늘은 언제나 이별을 춤추는 바보. 돌아보며 뒤돌아보며 찻집을 나서 는 걸음이 거스름을 넘겨주던 카운터 여인의 표정에 몰들어 더욱 초라하다.

밖으로 웃고 안으로 울던 수많은 이별의 혈흔이 축축이 젖어 밟히는 걸음 걸음마다 깊은 자국을 남기는 터미널 광장.

마지막 버스에 엔진을 건다. 고속버스에서 자주 책을 읽었다.

조제에 대한 상념에만 사로잡힌 남주인공 베르나르. 그들의 깊은 관계는 단 삼 일뿐. 베르나르는 새로운 연인을 갖는 조제에게 공원에서 조용히 이별을 고한다.

“어느날엔가 조제는 그를 사랑하지 않게 될지도 몰라.

어쩌면 나 역시 조제를 잊게 될지 누가 알아?

아마 그렇게 되면 우리는 다시 혼자가 되겠지.

그렇다고 해서 달라질 게 뭐 있을라구.

또 다른 역사의 한 해가 시작될 텐데.”

(달이 가고 해가 가면)을 읽은 것도 달리는 고속버스에서였다.

떠나는 차창에 누구에겐가 눈빛으로 인사하는 얼굴이 스친다.

수필시대

기행수필 - 티벳 · 1



영혼을 먹고 사는 사람들



파드마 삼바바가 <티베트 사자의 서>에서 걸어 나와 간간이 얼굴을 기웃거리리는 티벳 자치구 수도 라사, 공가 공향의 하늘 살갓은 푸르다 못해 파랗다. 올라다볼수록 쨍하고 깨질 것 같은 하늘의 유리과편에 눈이 아프다. 파란 하늘을 보면 눈물이 난다고 한 서정주 시인은 이곳의 하늘을 보았다면 무어라 말했을까.

해발 3600m의 우뚝 솟은 '영혼의 나라', 이 세상에서 하늘과 가장 가까운 나라, 그래서 너무나 와 보고 싶었던 나라, 강렬한 햇살이 사람을 향해 웃음을 건네는 그 메마른 대지의 오늘 위에 나는 서 있다.

시인 <문화예술> 시로 등단.

한국시인협회, 한국펜클럽, 국제여성문학회 회원

시집 : 「그리움을 끌고 가는 수레」, 「내 영혼 속에 네가 지은 집」 외 다수

수필집 : 「로시난테의 오막살이」, 「베토벤의 키스」, 「아름다운 나이테」

4월 바람처럼, 한국어를 전혀 할 줄 모르는 가이드 징미가 다가와 하얗고 긴 스카프를 목에 걸어준다. Good luck! (삶과 죽음의 수레바퀴를 벗어나 영원한 해탈을 얻을 수 있기를!)

인도 설산이 시원이라는 알룽강을 오른쪽으로 끼고 2차선 아스팔트로 들어선다. 한국의 미루나무를 빼 닮아 훌쩍 큰 가로수의 풍경들이 한가롭다. 나무 하나 없는 황량한 주변 돌산과는 대조적으로 연두 빛 아기 손같이 매달린 가로수 잎들은 이미 탐스런 봄이다.

달리는 지프 안에서 듣는 티베트 대중가요는 인도영화 속에서 나오는 댄스 음악과 흡사하다. 여자, 남자가 번갈아 가며 부르는 노래는 인간본성에 밀도 감 있게 다가선다. 어디 음악뿐이라, 엉덩이를 하늘높이 쳐들고 강을 향해 구애하는 몸짓으로 오체투지를 한 채 일어설 줄 모르는 크고 높은 산, 함장한 손 위에 이마를 대고 기원으로 다시 만나지는 겹겹의 산들, 풍경부터 예사롭지 않다.

한 시간 이십분 만에 바코르 광장 옆 쌍바라 호텔에 내려준다. 적응을 위해서 오늘은 푹 쉬라는 말만 남긴 채 사라져버리는 징미. 여장을 풀고 탁자에 앉아 여여롭게 뜨거운 차 한 잔을 마신다. 몸살을 앓듯이 바쁘게 살아온 세상을 잊은 지점은 춥고 또 따뜻하다. 여장을 풀자마자 고산증 때문에 침대에 쓰러진다는 사람들과는 다르게 나는 준비된 몸(?)인가보다.

여권과 지갑만을 들고 로비로 내려와 인터넷 샵이 어디 있는지, 전화는 되는지 묻는다. 전화는 아예 되지 않고 PC방의 확실한 지점 또한 모른다는 호텔 직원을 한심한 눈으로 쳐다보는 사이, 지나가다 알아들은 독일 여행객이 다가와 친절히 안내를 해준다. 오 분 정도 오른쪽 왼쪽으로 가면 붉은 간판이 나온다고, 난 너무 고마워하며 Picture map please!를 외치자 친절하게도 상세히 그려주는 것이다.

빨간색 간판의 3층 건물로 들어서자 쾌쾌한 담배연기가 나를 반긴다. 라사의 유일한 PC방인 듯 이 바코르 카페는 젊은이들로 꽉 찬 상태라 한참을 기다린 뒤에서야 좌석표를 받고 앉는다. 영어자판을 두드리자 화면에 가득 한글이 뜬다. 이렇게 신기할 수가……. 짧은 영어로 인사를 대신할 수밖에 없어 안타

갑지만 그래도 현장감 있는 풍경이야기를 곧바로 전송하며 놀랄 지인들을 생각하니 뿌듯뿌듯!!

어느 생생의 무심 하나를 건져, 발길 닿는 대로 순례자들을 따라 사원담도 돌고 바코르 광장으로 나가 난전을 둘러본다. 티베트 종교인 냄새며 오방색의 공기가 꼼꼼히 채워져 있는 물건들은 하나같이 정겹고 살뜰하다. 중세시대의 리어카에서 밀담을 주고받는 티베트의 관대한 흐름을 사지 않고는 지나갈 수가 없다. 기묘한 에너지의 흐름이다.

난전 모퉁이에는 으레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음식이 나와 있고 추운 거리에 서서 음식을 찹찹 푹푹 해치우고 있는 사람들은 무릎을 맞대고 싶어질 만큼 순박해 보인다. 공기 중에 산소가 희박한 이곳 사람들은 대개가 얼굴이 까맣고 붉은 터지는 듯 붉다. (그러나 물건 살 때는 그 특유의 순박을 조심하라.)

높은 하늘, 창백한 공기, 순박한 웃음, 쾌적한 거리, 알아듣지는 못하지만 정겨운 목소리 무엇 하나 낯설지 않다. 어느 한 생을 이곳에서 확보했었나 보다.

나의 고유영역을 돌아보듯 순례객들 속에 섞여 정신없이 걷다보니 호텔로 부터 너무 멀어졌는지 방향감각이 없다. 직관을 믿고 골목시장을 벗어나 대로를 향해 직진한다. 그러나 아무리 가도 호텔은 보이지 않는다. 우와, 이 일을 우짜꼬!

행인들을 붙잡고 길을 물으면 너나 할 것 없이 고개를 흔든다. 다급해진 나는 길가의 화려한 윈도우를 장식하고 있는 보석상으로 들어간다. 말쑥한 남녀 점원들에게 호텔이름을 대주며 열심히 물어보았지만 허사였다. 단 한 마디도 영어를 못하는 것이다. 이 양반들, 아예 나만큼도 콩글리쉬가 안 되다니…….

어느새 날은 어둑어둑해져 오고 다리에 힘은 풀리고 갑자기 배에서 꼬르륵 소리가 난다. 서너 시간을 걷다 보니 조금 어지러웠고 손끝이 찌릿찌릿해져왔다.

다시 방향을 돌려 걸어간다. 길은 길로 통한다하니 너무 조급해 하지말자라고 나를 한참 진정시키고 있는데 때마침 반대방향에서 걸어오는 대학생 같은

젊은이를 본 것이다. 도와달라는 나의 말을 경청하려고 멀리서 걸어온 사람처럼 그는 웃으며 자기 친구에게 전화를 건다. 약도를 물어본 다음, 내 손을 잡고 반가운 미소를 던진다. 너무나 세련된 그의 모습이 꼭 서울 어느 거리에서 만난 얼굴 같다. 호텔입구가 보이는 거리까지 데려다주고 간다. 얼마나 감사한지, 나는 주먹 쥐고 엄지 손을 세워 흔드는 그들의 고유인사로 고마움에 답했다.

호텔이 가까워지자 안심이 되었는지 꼬르륵 소리는 더욱 요란해지고 얼굴과 손 전체가 전기충격을 받은 것처럼 쭈신다. 고산증의 시작인가 보다.

몸도 쉴 겸 우선 아무 음식점이나 들어가 편한 의자에 앉아 호흡을 고른다. 천천히 메뉴를 들여다보았으나 오리무중, 그래도 입에 맞는다고 책에서 적어온 중국음식이나 티벳 음식은 하나도 보이지 않는다. 라이스와 야크 스프리는 단어가 들어있는 긴 이름에 손끝을 모은다. 정신을 가다듬고 실내를 둘러보니 외국인들 일색이다. 황토벽으로 치장한 실내장식이 나름대로의 우아함을 지닌 집이다. 다행스럽게 첫 식사치고는 무난하다.

호텔에 들어와 곧바로 잠자리에 들었으나 낮 기온보다 10도 정도 떨어진 추위는 온몸을 오그라트린다. 난방이 안 되는 방에서의 잠은 두 켈레의 양말과 두툼한 옷으로 무장한 후에야 간신히 친해졌다. 작열하는 태양에 몸을 맡기던 낮과 달리 4월의 밤 추위는 생각보다 견디기 어렵다. 체온이 36.5도에서 조금만 어긋나도 이렇게 부산을 떠나 사람에게는 체온 36.5도가 바로 법인 듯 싶다.

잠든 곳은 호텔이었지만 눈 뜬 곳은 숲 속이다. 티베트가 아닌 천국이며 자연이다. 판단하는 마음 없이 보이는 대로 인정하고 충고하고자 하는 마음 없이 들리는 이야기를 들어주는 예쁜 支持지.

태양이 벌써 포탈라 궁 어깨까지 내려와 있는 아침이다. 방문자를 위엄으로 압도하는 티베트의 상징 포탈라궁은 시내 한가운데 있다. 비싼 입장료(100위안, 약 13,000원)를 내고 티베트 바티칸이라 부르는 포탈라 궁으로 들어간다. 색색으로 물들인 버들가지가 화병에 꽂혀있다. 8세기에 처음 세웠다가 18세기

에 증견한 이 궁은 역대 달라이라마가 기거하며 정치와 종교의 햇불을 높이 올린 곳이다. 건축물은 경외심을 자아내지만 실내는 손전등을 사용해서 걸어야 할 만큼 컴컴하다. 야크기를 찢득이는 미로를 지나 깊게 패이고 손때가 잔뜩 묻은 백색궁전으로 가는 계단을 오른다. 강한 햇살을 차단하여 성스러운 물건들이 탈색되는 것을 방지하기위하여 일부러 건축방식을 컴컴하게 채택했다지만 이건 심해도 너무 심하다. 그뿐이라, 환기가 잘 안 되는 냄새도 종교스럽게 큼큼하고 부족한 물을 증명이라도 하듯 퀘퀘하게 먼지를 뒤집어 쓰고 있는 불상들은 괴기스럽기까지 하다.

〈티베트에서의 7년〉 영화에서 하히인리 하러가 달라이 라마를 만나기 위해 올랐던 수많은 돌과 나무계단을 밟는다. 그가 사용했던 접견실과 개인 명상실, 침실을 본다. 세속의 어둠은 극중에서 소년 달라이라마가 세상을 내려다보았던 테라스의 햇살이 나타나자 흔적도 없이 사라진다. 숨 쉴 때마다 찾아오는 격렬한 통증만이 나의 현존을 확인시킨다.

불단에는 그대에게 인지 내게 인지 행운을 갖다 준다는 흰 스카프가 여래의 머리 위에서부터 발끝까지 치렁치렁 내려져 있다. 법당 곳곳에서는 무릎을 꿇고 두 손으로는 불상의 발을 만지고 이마로는 불상의 옷을 비비며 기도하는 사람들로 붐빈다. 얼마나 많은 기원이 지나갔으면 흐르지 않는 중심이 저리도 반짝반짝 세월의 훈장을 달고 있을까. 씬 없이 목숨이 지나간 자리, 인연의 냄새가 옷깃을 스친다.

컴컴한 불단 한쪽에서 경을 읽고 있던 젊은 스님이 다정한 눈빛으로 다가온다. 징미와 아는 사이인가 보다. 흰 스카프를 직접 목에 걸어준 다음 오목한 손바닥 위에 성수를 몇 방울 따라준다. 나는 그 물을 마시고 남은 물기를 머리에 바른다. 라마승의 축복을 받은 티벳탄처럼 머리를 숙여 이마를 여래의 비단 옷자락에 갖다 댈다. 그리고는 일어나 색색으로 물들인 단단한 툼마(야크 버터로 만든 예술 작품)를 살짝 만져 본다.

어느 사원이나 모든 불기들은 순 은으로 만든 그릇이다. 뿐만 아니라 모든 불상들은 금, 은, 홍옥, 청옥, 터키석, 호박, 다 이름을 외울 수도 없는 주먹만한 보석들로 휘감겨 있다. 이렇게 호화롭게 정성이 모아진 신심에 놀라지 않

을 수 없다. 왜냐하면 티베트의 국민소득이나 지하자원 뭐 하나 시원한 것이 없는데, 아니 그저 사람이 생존하기도 어려운 환경인데, 저토록 상상할 수 없는 조각품들을 만들어 숭배해온 것이 그저 경이로울 뿐이다.

한 티베트여인이 티베트에서의 7년이란 영화에서 서양의 낙오병사에게 하던 말 “당신들은 평생을 채워서 이루려고 하지만 우리들은 평생 비워도 다 못 비우고 갑니다.”가 생각난다.

내가 들어가 앉아도 될 만한 은으로 된 초대형 공항미 그릇에는 ‘발리크’라는 현미를 담은 낱알들로 가득하다. 소복한 곡식 위에 향 대신 돈과 불펜이 수직으로 꽂혀있는 것이 참 독특하다. 야크버터를 가득 채운 대형 합지박에는 가운데에 한 줄로 많은 불꽃들이 피어오른다. 사원 곳곳에 지전을 붙이며 복을 간청하는 사람들과는 달리, 불꽃 옆에는 불편한 늙은 노모와 처자를 부축하며 순례를 하는 가난한 티베트인의 기도가 보인다. 손수 시골집에서 비닐봉지에 가득 담아 온 야크버터가 보인다. 정성을 다해 한 수저씩 퍼서 불꽃 가까이 버터를 담는 마음, 그 간절함, 알 것 같다. 그 마음이 바로 기도다. 눈이 마주칠 적마다 기도처럼 웃는다. 환한 그 웃음들은 금방 소원이 이루어진 것처럼 행복해 보인다. 저 웃음은 진정 천성이리라.

라사 시내로 나와 점심을 티벳 누들과 야크버터 티와 난(속이 텅빈 호떡 같은, 불에 구운 얇은 밀떡)으로 해결했다. 음식점에서 나와 거리를 천천히 걷는다. 중국의 문예혁명 당시 6000여 개의 사원이 대부분 파괴될 때 그나마 돼지 우리로 사용되느라 남아있던 조캉 사원에 도착한다. 호수를 메우고 세웠다는 전설이 있는 이곳은 지금도 사원내의 어느 우물은 이 호수로부터 물을 길었다고 한다. 조캉은 티벳인에게 가장 성스러운 사원으로 존중되는 곳이며 순례자들의 최종목적지이다. 커다란 주니퍼향로를 가운데 두고 왼쪽(시계방향)으로 돌면 불교도이고, 오른쪽으로 돌면 빈교도(티벳 토착 종교)이다. 비록 7세기 당시의 원형들은 대부분 훼손되었지만 신비스런 향내를 풍기며 여전히 순례자들을 맞이하고 있다.

라사에서 가장 오래된 조캉사원 앞은 알록달록 옷을 입은 오체투지 히는 순례자들로 북새통을 이룬다. 일생에 한번은 반드시 참배해야한다는 사원 정문



앞의 두 개의 향로에서는 짙은 연기가 피어오르고 그 옆 지하 향초단에는 죽은 사람을 위해 하루도 꺼지지 않는 불빛이 있다. 저 움직임은 언어 이전의 말, 자연의 언어이리라.

그 언어에 끼어 그렇게 해보고 싶던 오체투지를 한다. 힘들게 도달할수록 좀 더 깨끗이 정화된다고 믿는 티베탄들처럼. 한배, 한배 그리고 또 한배, 그런데 이상하다. 보통 참배 시 절을 할 때보다 훨씬 편안하고 매끄러웠으며

가볍다. 장소 탓이었을까? 절하는 것이 참 쉽다. 좌악~ 앞으로 미끄러지듯 온몸을 펴서 땅과 합일을 이루었을 때 완전한 하나, 완전한 평화, 엄마의 품에 안긴 아기의 평온함 바로 그런 완전한 침묵이다. 그 완전한 침묵 가장자리에서는 온몸을 던져 절을 올릴 때마다 손에 땀 나무판에서 사각사각 바닥 끌리는 신령한 득음이 있다. 그 자리에서 그대로 잠들고 싶었고, 영원히 일어나고 싶지 않았던 것은 기도의 옷 안에서 자유로웠기 때문이리라.

그 때 고대하고 고대하던, 내가 만나고 싶고, 앵글에 담고 싶었던 얼굴이 나타난다. 하얀 머리를 굽은 허리까지 땅아 내리고 주름이 깊게 패인, 주름 속에 또 작은 주름이 모여 살고 있는 고령의 할머니다. 한 세기의 삶이 원형으로 보존된 소우주, 그가 절을 하느라 벗어놓은 야크신발(긴 부츠) 쪽으로 앵글을 맞추려는데 그 원형의 오체투지 위로 서쪽 하늘의 붉은 물감이 막 풀어져 내리기 시작하는 것이다. **수필시대**

批評的 眼目^{비평적 안목} 과 省察^{성찰}의 힘

- 허경자의 수필세계 -

• 성 기 조 •

skj907@hanmail.net

1.

허경자의 글은 몇 가지 특징으로 요약할 수 있다. 내가 그의 첫 수필집의 출판기념회(2003년 3월)에 참석하여 말한 바 있지만 첫째로 그는 사실에 충실한 글을 쓰는 사람이다. 본대로 느낀대로 생각하는대로의 상태에서 조금도 벗어나지 않고 정직하게 글을 쓰고 있다. 물론 수필을 쓰는 일이 사실과 멀게 꾸며 쓴다면 허황하다고 지적받겠지만 허경자는 조금의 틀림도 없이 사실에 기반을 두고 글을 쓰는 사람이다.

둘째로 그는 글감의 주제가 되는 현장을 두루 살핀 다음 세밀한 構文구문과 표현력을 동원해서 글을 쓴다. 먼저 설명한대로 사실에 기반을 두고 글을 쓰려면 세심한 관찰이 있어야 가능하지만 허경자의 관찰력은 사물을 살피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사물의 본디 理致이지, 즉 哲學철학에까지 미치는 데서 다른 사람과의 변별력이 있다.

셋째, 그의 글을 읽으면 논리적 생각과 조리있는 글의 짜임새를 짐작케 된다. 이는 허경자가 수필쓰기를 늦게 시작했지만 대학원 공부에서 수필에 관한 많은 논문을 읽은 결과란 생각을 갖는다. 이러한 세 가지 장점을 가지고 수필 쓰기에 전념하는 허경자는 고른 수준의 글재주를 발휘하며 보기 드문 수필가

의 반열에 들어서고 있다.

수필가에 대한 무조건적인 신뢰가 생긴 것은 내가 수필이라는 글을 쓰면서부터이다. 목사나 승려, 그리고 교사들처럼 수필가가 역시 다른 사람들보다는 참된 삶을 살아야 할 것 같은 부담감이 생기게 되었다. 누가 그렇다고 이야기하거나 그래야 한다고 종용한 것은 아니지만 수필이라는 장르가 갖는 특성을 알고부터 나도 모르게 무언의 책임감을 심게 되었던 것이다.

—수필 〈선입견〉의 중간 부분

수필가가 참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 교사와 목사, 승려에 비유하고 있다. 수필가는 사회의 교사로서 참된 삶을 살아야한다고 다짐하는 수필가의 책임에 관한 글이다. 오늘날, 이만한 각오를 가지고 수필을 쓰는 사람이 몇이나 될까 생각해 본다. 허경지는 수필의 기능을 종교보다도, 교육의 기능보다도 윗길에 놓고 수필을 써야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문학에서 수필처럼 솔직한 글은 드물다. 수필의 허구성에 대해 논란이 있기는 하지만 아직까지 수필은 인생을 관조하는 정직한 문학이다. 따라서 이를 독자에게 전하는 수필가 또한 다른 작가보다 더 진실한 삶을 살지 않을까, 혹은 살아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정확성의 여부와 상관없이 무의식에 자리잡게 되었다.

이 부분 역시 〈선입견〉이란 수필에서 뽑았기에 먼저 예로 든 글과 같은 맥락에 놓여 있지만 수필가는 무한 책임이 따라야한다는 내용이다.

허경지는 수필을 보는 눈이 매서우리만치 엄격하다. 이런 글만 보아도 수필가가 글을 쓰기 위한 태도나 글감을 얻기 위한 생활이 스스로 얼마나 엄격하게 관리되어야 하는가를 제시하고 있다.

때문에 허경자의 엄격성이 때로는 수필 글을 嚴正엄정하게 만들거나 지나치게 論理的·논리적인 嚴肅主義者 엄숙주의자들의 글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요즘처럼 글이 規律규율을 잃고 사물에 대한 맥락을 짚지 못해 흐트러지는 세태라면 차

라리 이런 글이 훨씬 삶을 정갈하게 만드는데 기여할 것이란 생각이다.

다시 말하면 예술성보다는 확실한 논지가 서 있고 뚜렷한 주관이 담긴 주장이 있어 더 힘있는 무장이 된다는 말이다.

이렇기 때문에 허경자는 수필쓰기가 무척 ‘힘든 작업’이며 ‘혹여 좋은 소재를 가지고 있더라도 이를 형상화하여 감동의 맛을 선사해야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라 고백하고 있다.

2.

허경자의 수필쓰기는 펍 야무진 출발이라고 생각된다. 앞에서 언급한대로 사실에 충실한 글, 현실을 살피고 관찰한 글, 논리적 생각과 삶의 흔적에 대한 것들을 즐겨 쓰면서 때로는 삶을 성찰하고 반성한다. 깊은 사색에 빠져 思惟 사유의 날개를 펼치면서도 日常의 일상적인 삶과 文明批評의 문명비평적인 글을 주로 쓰고 있는데 注目 주목해야 한다.

허경자의 수필은 거의가 일상적인 삶에서 글감을 취하고 있다. 때문에 그의 글을 읽고나면 어디선가 본 것, 들은 것처럼 이야기가 편안하다. 별난 목소리를 내어 사람을 놀라게 하지 않기 때문에 그의 글은 곧 친숙하게 된다.

〈사랑은 박하향을 타고〉란 짧은 글을 읽어 보자. 사업밖에 모르는 남편이 화이트데이에 사랑하는 아내, 허경자를 실망시킨 이야기다. 연인들에게 있어 낭만적인 화이트데이에 남편의 멋진 이벤트를 기대했으나 허사였다는데 그저 웃음이 나온다. 밤늦게 술냄새를 폴폴 풍기면서 들어 온 남편이 “자 이거” 하고 내놓은 박하사탕 한 알을 보고 할 말을 잃지만 “왜 그래, 난 당신을 사랑해서 가지고 왔는데……”란 말에 사탕을 받아 입에 넣자 허경자 자신의 코끝에서 박하향이 폴폴 날린다는 이야기다.

짧은 글이지만 마무리가 개운하다. 그러면서 사랑에 대한 소망과 자신의 생각을 꾸밈없이 드러내고 있다. 아주 작은 것(박하사탕)에서 사랑을 다시 느끼는 호뭇함도 양념으로 들어 있다. 사랑은 결코 큰 것에서만 호사스럽지 않다

는 것을 느끼게 한 글이다. 작은 것, 하찮은 것이 되레 사랑을 퍼담아 준다는 허경자의 생각은 옳은 것이다.

글이 무엇인가? 감동이 연속되어 입을 벌리게 만드는 일이다. 하고 싶어도 말 못하게 만드는 게 글이다. 허경자는 글을 가지고 이렇게 만드는 재주를 가진 수필가다.

보편적인 사건, 그리고 어디서나 있을 법한 말, 특별하거나 유별난 제재가 아닌 곳에서 몽클하게 감성을 자극하는 재주가 있어야 좋은 수필가가 된다고 생각하는 나에게 허경자는 딱 들어 맞는다.

〈나홀로 집에〉란 글을 보면 남편이 집을 떠났을 때의 육체적 편안함을 예상했지만, 막상 그렇게 되고보니 남편이 그림더러는 이야기이다. 결국 몸과 마음이 분주하더라도 남편이 집안에 있어 줘야 살 맞한다는 것은 부부의 일상에서는 당연한 일일 수도 있지만 만약 어느 쪽 한 쪽이 없다면 살 수 없다는 비장함까지 갖게 만든다.

남편 없는 동안은 아침밥을 하지 않아도 될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막상 아침을 맞으면 부엌으로 달려가 아침밥을 짓는 것이나, TV를 틀어 놓고 조간신문을 보던 남편처럼 흥내를 내본다는 것들이 모두 부질없는 기대들이었고, 찬거리 걱정도 할 필요없을 것이란 생각도 빗나가고 만다.

모처럼 나홀로 있게 되면 모든 것이 편안할 것이란 기대가 수포로 돌아가고 남편이 오는 날만 손꼽아 기다렸지만 정작 남편이 여행에서 돌아왔을 때는 ‘깊은 잠속에 빠져 있었다’는 고백은 남편 없는 며칠 간의 긴장 때문에 불면증이 왔었다는 것이다. 여기에 이르면 허탈해진다. 그러나 그게 인간인 걸 어떻게 해야하나?

수필에서는 솔직한 고백이 많은 효과를 얻을 때가 있다. 이렇게 일상적인 삶에서 외닿는 모든 것이 허경자에게 글감이 된다. 글을 쓴다며 일단 책상 앞에 앉아서 무엇을 쓸까 유난을 떠는 사람들이 무척 많다. 밤새도록 고민만 하다가 원고지를 수북하게 구겨 놓고도 한 장도 못 쓴 사람이 있다는 것은 결코 거짓이 아니다. 그만큼 주제에 대한 고민이 많은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허경자는 아주 평범한 곳에서 소재를 찾아 글을 쓰고 있다. 達人달인의 風度풍도가

아닌지 모를 정도다.

〈결혼 후 십년〉이란 글을 보면 허경자가 자신에게 충실하려고 얼마나 楚撻 초달하고 있는지 알만하다.

자신의 감정에만 충실하여 내던진 냉소적 단어들이 공중에서 부서졌다. 날카로운 파편들은 서로의 가슴속에 옹이가 되어 또다시 굳어져갔다. 하루에도 몇 번씩 사랑한다 했으면 서로 혼자 사는 친구들이 부러워지던 철부지 시절이었다.

그러나 언제부터인지 모든 것이 편안해졌다. 다투고 빠지고 투닥거리던 일들이 줄어들고 있었다. 주도권이니 신경전의 시발점이 되었던 아이들 또한 둘만의 평화를 깨어버린 짐이 아니었다. 우리의 사랑을 안정시켜 주는 버팀목이었다. 단지 결혼이라는 현실의 변화가 예전의 그와 나를 힘들게 구속하였을 뿐이었다.

결혼 후 십년을 살고 난 대차대조표다. 누가 손해가 났는지 분간키 어렵게 두 사람이 대등한 위치에 놓여있다. 그러나 이 글을 자세히 읽으면 허경자가 자신에 대한 충실을 스스로 서약하는 글일 뿐, 결혼 후 힘들고 고생했던 것이 누구의 잘못도 아니라고 말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허경자는 일상의 삶에서 느끼는 책임을 결코 상대방에게 떠넘기는 사람이 아니다. 먼저 자신이 생각하고 반성하고 그리고 삶의 전 과정을 省察省찰하면서 상대를 배려할 줄 아는 사람이다. 그 부분에서 일상이 곧 그의 문학의 주제가 되고, 그의 글 내용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3.

허경자의 수필에서 두드러진 부분은 文明批評의 문명비평적 眼目안목과 자신의 삶에 대한 省察省찰이라고 먼저 밝힌 바 있다. 21세기를 살아가는 지식인들이 문명비평적인 글을 쓴다는 것은 당연하지만 요즘 우리의 현실에서는 이런 글을 쓸 만한 사람이 많지 않다. 그 까닭은 비평이란 장르를 二分法的이분법적 방

법에 따라 편을 갈라 놓은 것 또는, 자신의 눈에 비친대로 짚어나가면 된다는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너무 많기 때문이다.

비평은 옳고 그름을 알리는 작업이지만 철학적 바탕이 빠지면 편견에 가득 찬 글이 될 수 있다. 자신의 눈에 비친대로 세상을 裁斷 재단 한다면 참으로 위험하다. 비평은 사물의 선과 악, 是시와 非비, 미와 추를 평가하여 논하는 일이기 때문에 독선적인 결론은 위험천만이다.

허경지는 이 점에 대하여 깊이 성찰을 하고 있다. 그가 대학원에서 수필을 전공한 것만 보아도 수필이론에 대하여 얼마나 목말라 했는가 짐작하게 한다.

뒤늦게 문학을 공부하다 보니 재미있는 말이 나온다. ‘낮설게 하기, 세상을 살다보면 분명 낮선 것보다 낯익은 것이 좋을 법한데 고의적으로 낮설게 하더니 새롭고 흥미로웠다. ‘낮설게 하기’란 러시아 형식주의 비평의 대가인 슈클로프스키가 사용한 비평의 방법이다. 그는 이미 습관화되었거나 자동화되어 버린 사물을 낮설게 만들어 가는 것이 예술이라고 하였다. 인간의 걷는 행위가 우리 생활에서는 의식조차하지 못하는 일상적 행동이지만 걸음걸이를 낮설게 만들면 곧 춤이라는 예술로 승화된다는 것이다. 문학도 마찬가지이다. 우리가 사용하는 일상적 언어에 운율이나 리듬 등의 형식적인 기법을 적용시켜 비일상적으로 낮설게 나타낸 것이 바로 시라는 문학 장르이며 그 시어와 일상어에 내포해 있는 차이를 분석하는 것이 문학연구라는 것이다.

—수필 〈낮설게 하기〉의 일부

형식주의 비평의 대가였던 슈클로프스키의 이론을 빌어 자신의 수필세계에 관하여 이야기하고 있다. 형식주의는 전문비평가들도 혀를 내두르는 어려운 이론이다. 한국 수필계에서 활동하는 수필가 가운데 형식주의 이론에 관하여 글에 인용한 사람이 몇이나 될까. 문학일반의 장르도 형식주의에 입각한 비평이 시도된 바 있었지만 큰 성과가 없었다. 낮설게 하기 위하여 새로움을 추구하는 인간의 욕망과 허경자 자신의 수필적 용기가 어우러져 어떻게 하면 좋은 수필을 쓸 수 있을까 궁리하고 있다. 결국 허경자의 수필문학의 종착역, 화려하고 찬란한 그의 세계를 열려는 수필적 욕망을 주제를 통하여 나타내고 있

다.

〈인간은 무엇으로 사는가〉에서는 과학사회로의 발전과 인정이 샘솟는 듯 흥건한 세상의 조화를 향한 희망을 그리고 있다. 오늘의 발전을 기계문명의 발전으로 평가하면서 알팍한 인간의 속셈을 안타까워하고 이에 대해 반성하고 있다.

집 안팎으로 기계와 접하는 경우가 빈번해지니 사람과 만나는 시간은 줄어들고 인간관계는 소원해진다. 인간의 심성 또한 기계처럼 각박해지고 인심 또한 한치의 여유를 찾아보기 힘들다. 타인에 대한 무관심은 당연시되고 물질에 대한 선호도는 지나치게 급증하여 사회적으로 집단적인 허탈감이나 위화감이 조성되고 이는 범죄로까지 이어지고 있다. 결국 금전적 가치를 소유할 수 있는 물질적 요소들은 인간에게 편리한 삶을 제공할지 모르나 편안한 삶은 보장하지 못하고 있다. 삶의 편안함이란 육체뿐 아니라 정신적 안정까지도 동반되어야 이루어질 수 있음을 우리는 자각해야 한다.

〈인간은 무엇으로 사는가〉에서 뽑은 글이다.

논리 정연한 엄숙성과 준엄한 꾸지람 같은 문장은 독자를 사로잡기에 충분하다. 삶의 편리함과 편안함을 구분 지은 것도 이 글의 특성이 되겠지만 인간만이 갖는 장점과 기능을 존중하고 기계문명에서 벗어나 우리네 삶이 인간적이어야 하는 이유를 마지막 부분에서 잘 설명하고 있다.

〈총총히 떠나가는 시간속에〉란 글을 보자. 이 글의 끝부분을 장식하고 있는 ‘정신을 차려 한 걸음 물러서니 총총히 떠나가는 시간 속에 미진하기 그지 없는 인간이 서 있다’는 마지막 부분이 여운이 되어 내 머리에 오래 남는다. 인간적으로 따뜻하게 살지 못하고 문명이라 불리는 소음 속에서 어려운 시간을 보내는 것을 반추하고 있다.

제목에서 암시하듯 일상적으로 바쁜 사람들이 시간을 쪼개어 분치기, 초치기로 살아가는 와중에서 허경자는 문명에 대한 성찰의도를 인간적으로 독자에게 전달하고 있다.

허탈함에 집을 나서 본다. 물 밀듯 쏟아져 나온 인파의 행렬과 원색의 몸짓으로 유혹하는 네온사인 물결, 벌어지는 세밀 풍경이 속절없이 차가운 겨울을 달구고 있다. 인파에 떠밀려 밤거리를 배회해 본다. 인파 속에 몸뚱이를 맡기고 의지하는 상관없이 어디로든 흘러가 본다. 흥청거리는 무리 속에 끼어 이어지는 발자국을 따라가 보지만 여전히 공허하고 고독하기는 마찬가지다.

뼈아픈 성찰이다. 그 성찰은 '무수한 찰나 속에 뿌려 놓은 수많은 삶의 편린들이 하나의 점으로 잔존해 있다. 가슴을 눌러댔던 갈등 속의 여러 관계들이 아득하게 멀어져 간다. 섬을 떠나야 섬이 보인다'는 시인의 말처럼 고스란히 한 해를 탕진하고 나서야 새삼 세월을 돌이켜 보고 있다. 일년 중, 하루를 마무리 할 수 있는 저녁은 수백 번이나 있었는데 한 달이라는 기간을 되돌아볼 기회도 열 번이 넘게 되었는데……. 나는 막바지에 다다르고 나서야 허무를 곱씹으며 만추의 의미를 되새기고 있다'는 대목에 이르면 허경자가 얼마나 많이 고민하고 있는가 짐작할 만하다. 때문에 허경자는 문명이란 테두리 속에서 자라고 있는 현대인의 이기주의, 그리고 오늘 우리들이 얻으려는 虛像허상(문명)을 거부하며 세월의 의미를 되새기고 있다.

새해 들어서 나는 수첩을 다시 사고 말았다. 새로운 기계문명을 애호하지 못하고 옛 것을 그리워한 것이다. 늘 짧게 살고 싶다고 하면서도 나는 여전히 구식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 전자수첩은 정확하다. 너무 정확하여 쌀쌀맞기까지 하다. 재차 시도하지 않는 한 언제나 내가 원하는 단 한 사람의 정보만을 알려준다. 더도 덜도 없이 늘 남의 수첩을 가지고 다니는 것같이 생소하였다.

—수필 〈해후〉의 일부

전자수첩을 버리고 손으로 직접 적는 수첩을 샀다는 간단한 사건이 거대한 물질 문명에 대한 두려움으로 나타나 있다. 전자수첩은 정보만 확인되면 이내 달혀버린다. 수첩을 뒤적이며 전화도 걸고 주소도 확인하던 인간적인 일이 전

자수첩에서 불가능하다는 말이 가슴에 다가온다.

문명이란 우리들의 삶을 편리하게 만들지만 편안하게는 만들지 못한다는 허경자의 생각은 다시 한 번 인간의 소중함을 독자에게 호소하고 있다.

4.

인생의 삶 자체가 神秘신비요, 비밀스런 내면의 세계를 가지고 있다. 그 까닭을 생각해보면 자연, 그 자체가 신비와 비밀스런 運行윤행에 의하여 질서정연하게 움직이기 때문에 자연의 품속에서 벗어나 살 수 없는 인간은 삶의 회고와 목표가 자연과의 同化동화를 꿈꾼다.

자연과 인생이 合一합일하여 동화된다면 그게 바로 神仙선선이요, 不老불노이며 오래 살 수 있는 길이 열린다고 말할 수 있다. 옛날부터 사람이 학을 타고 다녔다는 이야기가 우리들을 신비의 세계로 안내하지만 실제로 사람이 학을 타고 다닐 수는 없다.

하지만 우리들은 학을 타고 다녔다는 말을 거부하거나 거짓이라고 말하지 않는 이유는 그럴 수도 있을 것이란 가능성을 믿기 때문이다. 허경자의 수필을 읽으면서 자연과 인생에 대한 술한 비밀을 생각하게 되는 것은 그가 자연 속에서 찾는 哲學性철학성 때문이요, 이는 자연과 어울려 살아가는데 신비한 비밀의 문을 많이 가지고 있음을 증명한다. 여기에서 신비한 비밀이란 알려지지 않은 자연의 攝理섭리이며 자연과의 同化동화를 꿈꾸며 자연을 이해하고 찾아 나서는 일이다. 그의 수필은 소재를 평범한 日常일상에서 얻는다고 말한 바 있지만 그 속에서 자연의 순리를 발견하여 이끌어 내고 있다.

지난해에 나는 상을 받은 행운이 있었다. 지자체에서 수여한 모범부부상이었다. 의외의 수상소식에 나는 솔직히 기뻐다. 개인적으로 특정한 분야에 뛰어나 상을 받아도 즐거울 것인데 사회적으로 존경받는 훌륭한 선배들을 제치고 받는 모범부부상이라니-. 결국 이십여 년의 결혼생활이 인콰으로 성공했다는 이야기가 아니던가. 꼭꼭 숨어있던 오만함이 고

개를 내밀며 어느새 환호를 질러대고 있었다. 그런데 남편의 반응은 의외였다. 기쁜 기색은커녕 오히려 상을 안 받겠다고 고집을 피웠다. 나는 이해가 되지 않았다. 상을 못 받아서 애쓰는 이들도 있건만 주는 상을 받지 않겠다니, 나는 여러 차례 남편을 설득하였다. 지나친 겸손은 교만과 상통한다면서 말이다.

〈수상의 의미〉란 글의 일부분이다. 결혼 20년 동안 부부가 금슬 좋게 잘 살았다면 요즘 같은 세태에서는 자량이 된다. 그런 부부에게 상을 준다는 것은 당연하고, 주는 상을 받는 것도 당연하다. 그러나 남편의 수상 거부 의사는 자연의 순리를 어기는 것이다. 이를 설득하는 어려움과 상을 받도록 만드는 과정이 소상하게 그려져 있다.

수상하는 날, 남편의 전갈지 않게 긴장된 얼굴 모습도 나타나 있다. 수상사실을 안 남편친구들이 ‘아내를 모시고 살아서 받는 상’이라며 놀러댔기에 저런 모습을 가졌을 것이라 생각하는 허경자는 하나의 일을 가지고도 여러모로 생각해보는 지혜를 가졌다.

물론 글을 재미있게 하기 위하여 위트나 유머 감각을 잃지 않았지만 자연 현상에 대한 순종이나 삶의 비밀을 들여다보는 手法가 이주 능숙하다. ‘생각없이 받아 놓은 상은 나에겐 버거운 짐이 되었다. 삶의 경륜이 묻어나는 이순의 나이 짝 받았어야 할 것을 싫다는 남편까지 대동하여 덜컥 받아오고 말았으니……’ 이 대목에 이르면 상이 인위적인 것이기에 짐이 된다고 후회하고 있다. 상을 받을까, 또는 거절할까? 수없는 갈등과 주저 속에서 자연의 순리라 믿었던 자신의 철학이 옳지 않았다고 깨닫는 장면이다. 인생은 참으로 어떻게 올바른 것인지 우리 인간은 알 수 없다.

중학생이 되면서 나는 일기를 공개하지 않았다. 선생님에게도 부모님에게도 비밀이었다. 지금 생각해보면 숨길만큼 중요하거나 대단한 일을 적어 놓은 것도 아니건만 왜 책상 서랍 깊은 곳에 숨겨 놓고 지냈는지 모르겠다. 아마도 시춘기라는 것이 내게 머물러 있었다면 바로 그 때가 아니었을까?

-수필 〈일기〉의 일부

마음의 비밀창고로 숨겨두었던 일기에 대한 기록이다. 바로 사춘기의 비밀이지만 이런 게 일생동안 밖으로 나오지 않고 숨어 있을 수는 없다. 지난 날의 모든 것이 어둠 속에 묻힌다면 인생은 그야말로 암흑에 가려진 터널과 같다. 선생님, 부모님에게도 비밀이었던 게 세월이 지나면 비밀이 되지 못한다.

나이 드신 친정 어머니 역시 나의 일기를 대단한 것으로 여기시지 않은 듯 하다. 빛바랜 흑백사진 몇 장과 곱게 묶은 상장 꾸러미들, 그것이 시집가는 나를 위해 어머니가 챙겨주신 유년시절의 전부였다.

이렇게 간단히 처리된 기록이지만 허경자의 수필 속에는 어렸을 때의 비밀들이 속속들이 번져 나온다.

5.

허경자의 글을 읽으며 뛰어나게 잘 짜여진 대목에서는 무릎을 치기도 했다. 곳곳에 숨어있는美文美문들은 독자들의 눈을 크게 뜨게 할 것이다.

선천적으로 명랑한 성격과 활달한 행동반경을 가진 허경자는 글 쓰기에서도 거침없다. 있는 대로, 본 대로, 듣는 대로 마음 속에 담아 두었다가 낚시바늘 같이 뾰족한感性감성을 만나면 한 편의 글로 바뀌는 허경자의 글 쓰기는天衣無縫천의무봉, 거침없이 쓰여진다.

이 썬되면 글 쓰기에 재미를 붙이지 않을 수 없다. 척박한 우리의 수필문단에 주목받는 작가로 자라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하다. **수필시대**

열려 있음의 가로지르기



한 상 렬 hsy943@hanmail.net

들어가는 말

변화와 불변의 모순적이고 역설적인 섞임은 본질적으로 세계관과 밀접하다. 이 세상을 불변의 존재로 인식할 것인지 아니면, 끊임없는 변화의 연속으로 볼 것인지. 이는 고대로부터 대립해 온 주장이었다. 하지만 현자들은 변화와 불변이 상호침투적임을 직감하고 있었다. “모든 것은 변하며, 끊임없이 지속 되는 것은 변화 그 자체뿐이다.”라고 한 고대 그리스의 헤라클레이토스의 로고스(logos)나 노자의 道는 변화와 불변을 동시에 살핀 혜안이요, 변화와 불변의 정곡이었다.

변화는 신세대를 초치하고 새물결을 의미한다. 이 둘은 동어반복이다. 長江 장강의 뒷물결이 앞물결을 밀어내듯 세대는 끊임없이 변화한다. 그러나 인간존재는 항상 제 자리에 있으며 물결이 쉽 없이 밀어내고 흘러가도 강은 강으로

현대수필창작아카데미 대표(문학평론가, 수필가)
국제펜클럽한국본부 인천지역 회장, 제물포수필문학회 회장
수필집 : <순해 보며 사는 사람> 외 11권, 문학평론집 <디지털 시대, 수필문학의 패러다임> 외 12권
그밖에 <수필문학 바로보기>, <나도 이런 수필을 쓰고 싶다> 등 50여 권
신곡문학상, 한국문학비평가협회 문학상 본상 등 수상

써 존재한다. 바로 세대와 물결의 단절 없는 변화가 인간과 강을 변함없이 존재하게 한다.

로마 시대 시인인 오비디우스(Ovidius Publius)는 “인간 영혼은 새로움을 향해 기운다.” 라고 하였다. 하지만 이런 관점은 자연적 조건에 머무는 인간에게는 그 적응이 쉽지만은 않다. 그레 선가. 니체도 “인류는 새로운 음악을 듣기 위한 귀를 갖고 있지 않다.” 고 했다.

21세기의 화두는 변화다. ‘변해야 산다.’ 라는 말은 생존을 위해서다. 생존을 위해서는 열려 있어야 한다. 우리의 의식도, 글쓰기도 열려야 한다. 그 열림을 위한 가로지르기의 여행을 『수필시대』 3-4월호를 통해 떠나보고자 한다.

열려 있음의 가로지르기-1 : 심선경의 <풍장>

최근 에크나트 이스위런은 <마음의 속도를 낮추어라>라고 말했다. 생각의 속도를 강조한 빌 게이츠는 주체의 속도를 배가시켰지만, 쿤델라(Milan Kundera)의 “느림”이 보여주듯 이제는 ‘마음의 속도를 낮추어라’고 식자들은 말한다. 그래서 어느덧 이 시대의 담론은 생각의 속도를 낮추자는 데에 집중되고 있다. ‘천천히 걷기’와 ‘권태 즐기기’가 그것이다.

여기서 속도의 스펙트럼은 존재의 무거움과 가벼움이라는 이분법적 접근을 가능케 한다. 밀란 쿤데라가 그러했듯 “참을 수 없는 존재의 가벼움”은 이성적인 무거운 것과 감성적이고 감각적인 가벼운 것을 연결고리로 보고 있다. 즉 가벼움은 궁극적인 미덕이지만, 그 미덕을 이루기 위한 과정에 필수적으로 무거움이 실릴 수밖에 없음을 부인하지 아니한다. 흔히 무거움의 철학자로 알려져 있는 헤겔 역시 그의 “정신현상학”에서 가벼움을 긍정적인 것으로 택했다.

심선경의 <풍장>은 이런 존재의 가벼움과 무거움을 작품으로 구체화하고 있다. 풍장이란 죽은 시체를 寒帶한대에 두어 저절로 없어지게 하거나, 시체를 태워 남은 가루를 바람에 날려 보내는 장사를 의미하기도 한다. 金泰洪 김태홍의 시편 “뿌리면 / 동으로 남으로...// 오지랴 한 줌 가루는 / 네 이름의 오직 마

지막인 것을.”(〈風葬〉)은 앞의 경우요, 河鐘五하종오의 “통곡도 침묵도 없는 땅에는 / 옴 못하고 새끼줄 묶지 못한 주검뿐이니 / 불태워 불태워 재를 뿌린다.”(〈風葬풍장〉)는 뒤의 경우일 것이다. 따라서 심선경의 〈풍장〉은 존재의 무거움을 발상의 단초로 하고 있다. “대문간에 쫓그리고 앉아 무심코 솟을 대문을 올려다본다. 뭉가가 거미줄같이 가느다란 실오라기에 대롱대롱 매달려 있다.” 그것은 다름 아닌 ‘새’였다. 착상의 동기가 생경하면서 돌발적이고 무겁다.

처음엔 생쥐인가 했는데 찬찬히 보니 새였다. 서넛으로 쫓겨 가는 무기력한 햇살에 처연히 빛나는 갈색 깃털과 작은 몸집을 보아 참새라는 생각이 들었다. 숨이 끊어진지 오래인 듯 아무런 기척이 없다. 마른 나무의 잔가지 같은 연약한 다리가 꼬나풀에 감겨 움푹달싹을 못하고 묶어버렸나 보다. 날짐승이 어찌다가 저런 최후를 맞게 되었는지 안타깝다는 생각으로 눈길을 저두려는 찰라, 다시 내 눈을 붙든 것은 흙 바른 지붕 서까래 틈 사이의 새둥지였다. 저런 곳에도 보금자리를 틀어놓다니. 혹시 새끼 새들이 있나 싶어 살펴보았지만 둥지는 비어있었다.

- 심선경의 〈풍장〉에서

소재에 대한 착상은 이렇게 충격적으로 직립되어 있다. 몸속의 수분은 다 빠져나가고 빈껍데기만 남은 새의 주검. 작가는 이런 새의 주검을 보며 문득 다시는 돌아올 수 없는 길 떠난 한 여인을 떠올린다. 자신을 몽땅 새끼를 위해 바치고 빈껍데기만 남아 마른 나뭇잎처럼 빙글빙글 맴돌는 어미 참새의 주검이 주는 존재의 이미지는 무겁기만 하다. 하지만 이를 현상학적 측면에서 관찰하면 아주 미미하고 가볍다.

문제는 작가의 시선이 어디를 향하고 있느냐에 있을 것이다. ‘빈껍데기’라는 은유는 여기에 머물지 아니하고, 늦가을 산을 은빛으로 뒤덮고 바람 부는 대로 휘쓸리던 억새꽃으로, 껍질을 벗기고 알몸으로 서늘한 바람에 ‘풍장된 감’으로, 다시 결미에서 ‘마른 시래기’로 은유된다. 정서의 통합이다. 곧 화자가 보여주는 참새의 주검과 칼바람 부는 벌판에서 가슴 조이며 살아온 한

여인의 삶의 대칭은 바로 존재의 무거움에 대한 인식일 것이다.

이 수필에서 ‘풍장’이란 장사는 그저 상징에 불과하다. 욕심이 과욕이요, 빛깔이고 향기인지도 모른다는 화자의 언술은 존재의 가벼움을 추구하기 위한 필연이요, 생명의 질서에 대한 각성이다. 작가가 이 수필에서 말하고자 하는 메시지일 것이다.

바람에 향기를 내어주고 햇볕에 고운 때깔이 바래지면서 비로소 육신은 시간으로부터 자유로워진다. 피와 살과 물이 모두 증발한 다음에야 참을 수 없는 존재의 가벼움을 얻을 수 있듯이, 세상만물이 온갖 유전과 방랑, 이합집산을 거쳐 다시 제자리로 돌아오게 되는 것처럼 생명의 질서는 곧 우주의 법칙이 아니던가.

- 심선경의 <풍장>에서

풍장의 의미화요, 참새의 주검을 통해 각성된 삶의 의미일 것이다. 화자는 이 수필에서 생성과 소멸이란 지극히 자연스런 생명의 질서와 우주의 법칙을 간접적으로 보여줌으로써 삶의 진정성을 보여주고 있다. 행간에 넘치는 적절 한 메타포와 내밀한 정서가 독자를 깊이 있는 사유의 세계로 이끌고 있다.

구조상 이 수필은 양괄식 형태를 유지하면서 “별 좋은 날 빨래를 낸다. ~ 도움을 받고야 만다.”, “지난 밤, 머리 싸매고 썼던 ~ 우주를 빛는 일에 같음 할 수도 있으리라.”라는 자기화의 단계를 거쳐 결미로 이어지고 있다.

따귀라도 칠 듯이 매서운 바람이다. 한동안 잇고 있었던 참새가 생각나 대문 지붕 위로 눈길을 주었다. 거기 평생을 칼바람 부는 벌판에 서서 가슴 졸이며 살아온 여인이 아직 매 달려있다.

눈발까지 날린다. 이른 저녁을 준비해야겠다. 처마 밑에 엮어둔 마른 시래기 한줌을 쥐니 이내 바스라진다.

- 심선경의 <풍장>에서

결미가 함축적이다. 주제어인 풍장과 조응되는 기발한 착상이자, 절묘한 조

화다. 다만 구조상 양괄식 형태를 취한 논리적 구성이 자칫 전편의 단아한 구조를 해칠 염려가 없지 않다. 이렇게 열림을 가로지르는 의식이 이 수필을 수필답게 한다.

열려 있음의 가로지르기-2 : 이은희의 <전설의 벽>

변화는 작가의 시선의 변화로부터 출발해야 한다. 바로보기는 수필창작의 도식적 정법이다. ‘문학적 낯설게 하기’가 고정된 시선의 변화를 불러오듯, 대상에 대한 작가의 시선은 수필창작의 생명과도 같다. 수필문학의 소재는 그저 일상일 뿐이다. 여기 일상은 누구의 눈에든 동일하게 착색될 뿐이다. 그런 동일성에서는 창조가 이루어지지 아니함은 말할 나위도 없다. 동일한 대상이라도 이를 어떤 시선으로 보느냐에 따라 대상은 얼마든 변용의 옷을 입게 마련이다.

이은희의 <전설의 벽>은 작가의 말과 같이 비유의 적정성이 역지일지 모른다는 우려가 없지 않으나, 이는 기우에 지나지 않는다. 이런 발상 자체가 수필에서는 유의미하다. 스님에게 띄우는 서간형식의 배경을 강화도 전등사로 취택하고 있다. 경어체의 이 수필은 일견 기행수필의 범주에 귀속시킬 수도 있으나, 정서적 이미지와 지적이미지를 혼용한 수필이다. 소재는 전등사 대웅전 처마 끝에 있는 웅크린 조각물이다.

시선을 따라가 보니 처마 밑에 무엇인가 웅크리고 앉은 하얀 조각물이 보인다. 자세히 들여다보니 ‘아니, 이럴 수가!’ 여인의 나체상입니다. 어찌 엄숙하고 신성한 신전에 여인의 나신을 조각해 넣을 수가 있습니까? 모두들 너무 놀라워 입이 차마 다물어지지 않는 듯합니다. 사이비 불자인 저도 신기해 하늘을 우러러 절집 네 귀퉁이를 확인합니다. 나신은 절집에 네 귀퉁이의 추녀를 힘겹게 받들고 있었습시다.

도대체 어떤 형벌이기에 조명이 비치는 전시실도 아닌 절집의 추녀입니까?

- 이은희의 <전설의 벽>에서

절집 네 귀퉁이의 추녀를 힘겹게 받들고 있는 여인의 나신. 절집의 추녀 끝 여인의 모습은 충격적이다. 일단 소재주의에서 이 수필은 벗어나 독자의 관심을 고조시키면서 의문을 자아낸다. 전설은 여기서 시작된다. 법당을 짓던 도편수와 그의 사랑하는 여인의 이야기. 이 격에 어울리지 않는 조각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일까? 폐쇄적 관습과 도덕적 유교관이 지배하던 시대에 불가사의한 조각이 보여주는 세계는 기이하다. 자신을 배신한 여인에게 보내는 도편수의 메시지치고는 그리 석연치 않은 전설이다. 아마도 도편수는 여인에의 징벌보다는 그 여인을 향한 끝없는 사랑을 마음 안에 조각하려함은 아니었을까? 그 해답을 찾기 위해 화자는 로맹의 여인이었던 까미유 끌로텔을 떠올린다. 로맹의 정신적 지주였던 까미유와 자신을 배신한 여인을 징벌하기 위해 나신으로 처마를 지탱하게 했던 도편수의 행적은 다분히 역설적이다.

자신의 변하지 않는 애증의 증표로 여인을 목각에 새겨 남긴 것은 아닐까요. 아니면 도편수의 예술의 경지를 바라며 로맹의 연인인 까미유처럼 스스로 불사가 되길 원했던 여인이었는지도 모를 일입니다.

- 이은희의 <전설의 벽>에서

시대를 초월한 애증의 의미를 예술과 절묘하게 조화시킨 화자의 창작의도가 빛을 발하고 있다. 변화의 시대에 불변하는 사랑의 전설을 음미하게 한다. 이는 시대를 초월하는 열려 있음의 가로지르기가 아닌가 싶다.

열려 있음의 가로지르기-3 : 박종숙의 <잡초>

우리는 누구나 일상적 삶을 살아가고 그 삶의 이야기가 수필이 된다. 그렇기에 수필은 삶의 이야기, 곧 인간학이 된다. 문제는 수필의 이런 일상성이 그저 일상적이지 않다는 데에 있지만, 일상성에만 초점을 맞춘다는 데에 있다. 그러므로 수필은 상식으로 상식을 극복하고, 관습을 통해 관습의 근거를 파악

하여, 일상 언어를 통해 일상성 이상을 탐구해야 할 것이다. 만일 수필이 그러하지 못할 경우, 신변잡기나 잡문의 경지로 타락하게 될 것이다.

수필은 작가의 일상적 체험을 바탕으로 하여 언어미학적으로 창조한 미적 관조의 산물이다. 여기서 분명한 것은 일상을 소재로 하여 수필은 창조된다는 점이다. 즉 일상 속에 숨어 있거나 묻혀 있는 삶의 진실과 본질을 미적으로 관조하여 인식과 깨달음의 언어로 들려주는 문학이 수필임에 틀림이 없다. 그런데, 인류는 지금까지 전통적인 것의 가치를 인정하면서도 한편으로는 끊임없이 변화를 추구하고, 변화에 가속도가 붙어 제어의 필요성이 요구될 때는 이를 위한 조치를 취하곤 했다는 점을 상기해야 할 것이다. 즉 문학이 변화라는 새로운 패러다임에 익숙해야 하며, 일상성에서도 벗어나야 할 것이라는 단초를 여기서 찾게 한다.

그렇다면 이런 변화의 와중에서 수필문학의 갈 길은 과연 어디인가? 그 답은 지극히 간명하다. 발상의 대전환, 수필쓰기의 혁신이 필요하다. 수필문학의 일상성을 뛰어넘고, 키치적 사고를 먹고 자라는 창작의 일대 전환이 있어야 할 것이다. 곧 수필문학의 새로운 패러다임의 추구야말로 수필의 속중화에서 벗어나는 길이 될 것이다. 그 길은 문학이란 幻想환상의 집을 짓기보다 위대한 ‘城성 쌓기’로부터 시작되어야 할 일이겠다. 박종숙의 수필은 일단 이런 필요성을 충족시켜 주는 작품으로 주목된다.

박종숙의 수필 〈잡초〉에서 보듯, 수필은 그 소재를 생활 속에서 찾아낸다. 따라서 생활이 곧 수필이고, 수필이 곧 생활이 되는 셈이다. 그러나 우리의 일상생활이란 너무도 낮익어서, 무심히 지나쳐버리는 일이 허다하다. 무심한 눈에는 아무것도 띄지 않는다. 그러므로 생활 속에서 소재를 찾으려면 익숙하고 낮익은 것들을 ‘낯설게’ 바라볼 수 있어야 한다. 그러면, 어느 순간 그 낮익은 것들이 낯설게 보이고, 그 낯섦이 자기 마음속에 어떤 느낌을 안겨주게 된다.

박종숙의 수필 〈잡초〉는 잡초에 대한 화자의 남다른 정서에서 출발한다. “집을 짓고 난 뒤 마당 곁에다 조그만 화단을 만들었다. 척박한 땅이지만 여

기저기 꽃나물을 얻어다 심은 덕에 그나마 푸른 잎을 몇 삼고 여름을 날 수 있었다.”라는 착상의 동기는 그저 낮익은, 평범하기 짝이 없는 발상이다. 그러나 이를 어찌 의미화해 내느냐에 관건이 있다.

화자는 그 화단에 꽃씨를 뿌리고 화려한 뜰을 상상한다. 이윽고 실오라기 같은 떡잎이 빼꼼히 올라온다. 오랜 기다림 끝에 생명이니 반가울밖에 없다. 단락 ①과 ②는 서두다. 전개는 갈등의 빌미가 되는 남편의 잡초 제거에 있다. 그 갈등의 이유를 구체화하고, 잡초와 인간의 대비, 인간의 이기심 경계, 자기화, 의미화의 순서를 밟고 있다.

모처럼 한가한 일요일, 후줄근하게 땀에 젖어 일을 한 남편이 손에 쟁기를 들고 들어왔다. 화단정리를 하였다는 그가 어쩐지 미심쩍어, 화초를 제대로 건사했느냐고 물었더니 화초가 어디 있었느냐고 오히려 반문을 한다. 순간, 지체 없이 분함을 열고 난간 아래를 내려보니 이 어쩐 노릇인가, 화단은 면도를 한 듯 반듯하게 뒤집혀진 채 검은 흙으로 밟고 있는 것이 아닌가.

- 박종숙의 <잡초>에서

화자에게 있어 이런 계기는 아주 충격적이다. 새 생명이 탄생되길 학수고대하는 화자에게 남편의 행동은 충격적 일탈이다. 화단정리를 하는 남편의 행위와 잡초가 돌길 기대하는 화자의 심정적 간극은 의식의 차이일 뿐, 잘잘못을 이야기할 계제가 아니다. 그럼에도 이 일로 인해 부부 사이에는 강이 놓인다. 단락 ③을 사건의 발단이라 한다면, 단락 ④-⑥은 그 이유에 대한 구체화이다. “잡초로 알고 화초를 뽑아낸 실수가 안타까워서가 아니라 하찮은 풀이라고 마음 안에 받아들여야 하지 않는 그의 매정스러움이나 여유 없음이 앙갚려서 였다.”고 했다. 그렇다면 잡초에 대한 화자의 마음은 어떠한가.

여기서 화자는 단락⑦과 ⑧을 통해 잡초와 인간의 성정을 대비하고 이를 통해 각성된 인간화 즉 ⑨를 이끌어내는 동시에, ⑩과 ⑪을 통해 작가인 ‘나’로 돌아온다.

이 수필은 일단 객관적 상관물인 초점의 대상인 잡초를 바라보는 작가의 시선이 열려있다는 점에 주목하게 한다. 즉 통속적인 객관화된 세계를 그리려함이 아니라, 이미 우리들에게 고정되어 있는 관념에서 이탈하고 있다는 점이 돋보인다. 작가 자신이 ‘무엇을’, ‘어떻게’ 쓰느냐하는 문제에 있어, ‘무엇을’이라는 주제의식에 철저하다는 것이다.

양지 바른 언덕 아래서, 길 가던 이의 발길을 멈추게 하는 제비꽃의 귀여움이나, 잔디밭 사이에 날아와 앉은 노란 만들레꽃의 양증스러운 감했던 마음을 환하게 풀어주는 기쁨이 되기 충분하다. 사람의 마음 안에도 한 포기 잡초가 뿌리 내림을 허용할 줄 아는 관용이 필요하지 않을까. 곧고 바른 나무가 부러지길 잘하고 기계처럼 치밀한 사람이 외롭기 되기 쉬우며 완벽함이 곧 메마른 인심을 낳기 쉽다. 더러는 빈틈을 보이며, 느긋함도 가지면서 부족함을 보완하며 사는 것이 여유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된다. 되도록이면 가슴 안에 들꽃을 키울 여백을 남기는 것이 인간미를 잃지 않는 일 같다.

- 박종숙의 <잡초>에서

마음 안에 잡초가 뿌리내릴 수 있는 관용. 작가의 메시지는 여기에 있을 것이다. 그는 현실비정의 안목을 우회적으로 드러내면서 잡초를 예찬한다. 하지만 그의 잡초론이 예찬 그 자체에 있기 보다는, 지극히 우회적 방법으로 인위적인 아스팔트 문명을 비판함으로써 마음의 여유를 갖기를 소망하고 있다.

수필문학은 이렇게 관념의 형상화를 통해 작가와 독자 사이의 정서적이며 지적인 상호소통을 이루어내는 장르로 주제와 소재 그리고 형식 사이의 결속력을 필요로 한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이 수필은 보다 긴축적인 짜기가 필요하리라 여겨진다. 전체적인 구조로 보아, 주제 제시를 위한 예시부분이 메시지와 긴밀하게 연결되어야 하겠다. 예를 들어 서두의 ②는 서두 ①에 통합해도 좋을 것이며, 본문에 몇 개의 구조적 주제어를 중심으로 통합 처리되어도 좋을 것이다. 이는 독자의 이해를 돕게 되며, 글 전체의 의미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결국 산만한 구성은 의미 전달을 애매모호하게 할 염려가 없지

않다.

어찌되었든 미래의 수필이 평면적 글쓰기에서 입체적인 글쓰기를 필요로 하듯, 대상에 대한 시선의 낮설게 하기는 이 수필을 보다 수필답게 하리라 여겨진다. 한다.

황토 빛 지분이 이는 오솔길에서 이름모를 꽃들이 피고 지는 일은 청정한 마음을 일깨우는 잡초의 순수함을 엿보게 한다. 소박하고 조촐한 삶이 그 비법임을 잡초가 깨우치려는 건 아닐까.

- 박종숙의 〈잡초〉에서

이 수필의 결미다. 결미는 보다 함축적이어야 하며, 주제의식의 초점이 맞춰져야 한다. 예시를 통합한 일반화의 결미는 여운과 함축성이 강조되어야 함을 이 수필은 우리에게 시사해준다. 아쉬운 점이 있다면, 앞의 문장 “황토빛 지분이~순수함을 엿보게 한다.”가 결미의 언술로는 다소 긴축성이 떨어져, 주제를 함축할 수 있는 언술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어 보인다. 수필문학은 오로지 대상의 천착을 통해 존재의 의미를 규명하는 데에 두어야 할 것이다. 하지만 고정관념을 가로지르는 작가의 열린 의식이 독자를 새로운 세계로 이끌지 않을까 싶다.

열려 있음의 가로지르기-4 : 정인호의 〈초록 바람〉

움베르토 에코는 “문학 강의”에서 “나는 문학의 실험성은 우리가 살아가는 장소, 즉 언어에서 이루어진다고 생각합니다. 언어학자들이 잘 알고 있듯이 언어란 두 측면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한편에는 記標기표, 다른 한편에는 記意기의가 있습니다. 기표는 소리들을 조직하고, 기의는 관념들을 조직합니다. 어느 주어진 문화의 형식을 이루는 그 관념의 조직이 언어에 의존하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세상이라는 연속체와 우리의 접촉에서 나오는, 아

직은 무형의 자료들을 언어가 조직하는 방식을 통해서만 문화를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라고 하였다.

정인호의 수필 〈초록바람〉은 ‘기표’ 보다는 ‘기의’에 의미를 두어야 한다. 초록바람이라는 제시어가 갖는 의미는 일상적이다. 아니 구태한 고정관념으로 보면 특별한 의미를 유추할 수 없다. 그러나 그 어휘가 갖는 진정성을 떠올린다면 아주 낯설다. 이는 다름 아닌 수필에서의 열려 있음이다. 그의 열림의 가로지르기는 삶이라는 통상적 연륜에서 자신의 소망인 젊음을 이렇게 유추해 내고 있다. “물처럼 바람처럼 떠돌다 흔적 없이 사라져야 하는 허무한 존재”로서의 삶이 아니다. 그는 친구의 말 한마디, “자네 이제 환갑을 맞았으니 지금 당장 죽는다 해도 호상일 거야.”라는 말에 충격을 받는다. 그러나 생각을 바꾸어보니 그게 아니다. “그 말의 알맹이는 보석처럼 빛나는 질타성의 충고란 걸 알게 되었다.”라고 했다. 기막힌 반전이 아닌가. 수필의 일상성을 뛰어넘는 낯섦이다. 그리하여 정인호의 수필에서의 열려 있음은 일상을 가로지르는 주제의 참신성이 돋보인다.

일찍이 <<삼총사>>의 작가 알렉산드르 뒤마는 초록색 종이에다 글을 썼다고 한다. 그 유명한 사람의 말을 빌리지 않더라도 초록색은 눈여겨보아야 할 색상이다. 못 생물들의 한창기인 여름에는 초록이 온통 있는 힘을 다해서 그 자신을 과시하는 시기인 탓인지 나는 초록색 여름을 좋아한다. 그때를 충만의 극치라고 표현하며, 초록은 더욱 아름답게 빛나야 한다고 누구나 예찬하지 않는가.

- 정인호의 〈초록바람〉에서

인생의 연륜으로 보면 이미 이른 저녁에 이르렀지만 어찌 마음까지 노년일 수 있으랴. 세상은 아직도 그에게 많은 짐을 부여하고 있거늘 어찌 나이 들었음을 말하랴. 그래 화자가 바라보는 세상은 온통 초록의 색깔이다. 초록은 죽음과 대비적 심상이 아닌가. 그럼에도 ‘죽음’이란 단어를 떠올리니 사뭇 충격이 아닐 수 없다.

그러고 보니 그 친구의 구김살 없는 말 한 마디가 축배제가 되었다. 내 사고의 빗장을 바꿔놓은 작은 계기가 된 것 같다. 그렇다고 나는 큰 기업을 운영하는 사업가도 아니고, 세상을 놀라게 할 글을 쓰는 대단한 문필가도 아니다. 다만 세상 사람들의 가슴에 잔잔한 감동을 줄 수 있는 글 몇 편이라도 쓸 수 있다면, 더 바랄 것이 없다.

- 정인호의 <초록바람>에서

반전의 묘미를 통한 진지한 화자의 삶의 태도를 읽게 한다. 보통사람의 평범한 듯 보이는 삶이지만, 그 내밀한 행간에는 생활인이자, 작가로서의 진정성이 엿보인다. 수필은 이렇게 진솔한 자아성찰과 관조의 직조로서 존재의 의미를 찾아나서는 여행이 아닐까 싶다.

나가는 말

전통을 생명으로 하는 문학의 경우에 변화는 필수적이다. 그래 차가움이 따듯함을 더욱 잘 느끼게 하고, 억압이 자유를 그리워하듯, 새로움도 그 반대의 개념으로 보면, 더욱 명료해진다. 가다머(H. G. Gadamer)의 말과 같이 과거를 상기하고 과거의 사실을 해석하는 것은 “의미를 위한 새로운 기획”이 되고 있다. 즉 “새 것은 다시 현 것이 되고, 현 것은 새 것처럼 나타나기도 한다.” 하여, 문학은 이제 문화적 추억에만 안주할 것이 아니라, 인간정신이 앞과 뒤 모두에 열려 있음을 알고 새로운 ‘가로지르기’에 몰두해야 할 것이다.

수필시대

화학물질의 범람과 웹빙



강 정 실 gilbertkang@hanmail.net

금세기를 화학 물질의 시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합성 화학 물질은 우리의 생활과 패턴을 바꿔 놓았다. 가정과 사무실은 물론이고 산업현장이나 지구촌 어디를 둘러봐도 화학제품들이 가득 차 있다.

세계 보건 기구(WHO)의 발표에 의하면, 매년 약 2조 5천억 달러하는 화학 물질이 생산되고 있다고 한다. 그리고 약 10만 가지가 넘는 화학 물질이 시중에 판매되고 있으며, 매년 5천 여가지의 새로운 화학 물질이 만들어 지고 있다고 한다.

이렇게 마구 쏟아지는 화학 물질이 인체와 환경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의문이 생길 수밖에 없다. 분명한 것은 우리는 모두 실험 세대에 속하며, 그로 인한 결과는 앞으로도 수십 년 동안 정확하게 알려지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이다.

몇 년 전의 일이다. 베트남전쟁(1964-75)에 참전했던 한 고등학교 동창을

〈수필시대〉 신인상.
청하문학회 회원
수필문학진흥회 회원
재미수필문학협회 회원, 한국 및 재미 사진작가 협회 회원

만난 적이 있다. 그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바로 해병대에 자원했다. 그리고는 69년도에 베트남 전쟁터로 떠났다.

밀립이나 논밭에 대량으로 공중 살포되는 TCDD(고엽제, 사염기화 다이옥신)에 노출되어 그가 육체적 장애를 일으킨 것이다. 그 당시 비행기에서 투하되는 고엽제가 인체에 미치는 위험성에 대해 아무도 몰랐던 것이다. 단지 식물의 이파리가 타고 없어져, 숲 속에서 총알이 날아오는 위험성이 줄어들고, 고엽제로 인해 작전수행이 수월하여 그렇게 고마울 수가 없었다고 한다. 하지만 30년이 지난 지금 그의 피부는 엉망이었고, 아들의 피부까지 대를 잇고 있었다. 정신적으로도 황폐되어 있었다.

이렇게 직간접적으로 화학 물질에 노출되어 있다. 하지만 그로 인해 초래되는 위험에 관한 기본적인 정보를 모르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다.

살충제의 경우가 특히 그러하다. 내가 살고 있는 이곳 캘리포니아 주에 있는 수원의 약 20%는 살충제로 인한 오염 정도가 안전 기준치를 초과했다. 플로리다 주에서는 오염 때문에 1천개의 수원이 폐쇄되었고, 한국에서도 기존 약수로 사용하던 약수터 중 그 기능을 잃어버린 것이 35%이다. 헝가리도 2천여 개의 도시와 마을에서는 물마시기에 부적합하며, 영국에서는 대수층의 10%가 세계 보건기구의 안전 기준치 이상으로 오염되어 있다. 이러한 지역에서는 수돗물에 질산염이 많이 들어 있어서 어린아이에게 수돗물을 먹일 수 없다.

수은은 강한 독성을 지닌 화학 물질이다. 수은은 공장굴뚝에서부터 수많은 형광등에 이르기까지 환경으로 침투해 들어간다. 이와 유사하게, 납도 연료에서 페인트에 이르기까지 많은 제품에서 발견되고 있다. 수은과 마찬가지로, 납 역시 독성을 지니고 있다.

국제 연합 환경의 발표에 의하면, 해마다 약 100톤의 수은, 3800톤의 납, 3600톤의 인산염, 8만 톤의 세제가 지중해로 흘러 들어가고 있다고 한다. 비행기에서 지중해 연안을 내려다보면 햇빛에 반사되는 옥빛바다가 참으로 눈부시고 아름답게 보인다. 그러나 바닷물을 분석해 보면 지중해는 보는 것과는 달리 바로 위기에 처해 있는 것이다.

국제 연합은 1998년을 ‘국제 해양의 해’로 선포했었다. 모든 해양이 몸살을 앓고 있는데 화학 물질 오염 때문에 더 그러하다.

화학물질에 독성이 있는지를 검사하는 일은 과학과 추측이 혼합된 작업이다. 한 화학물질을 평가할 때, 안전성에 대해 명확한 선을 긋는 방법이 매우 어렵다고 토로한다. 의약품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많은 의약품은 합성하는 방법으로 생산한다. 아무리 주의해서 검사를 해도, 어떤 의약품이 예기치 못한 해로운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까지 알아낼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실험을 통과한 제품이라도 근본적인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그 이유는, 다양하고 복잡한 외부 세계에서 화학 물질이 어떻게 반응을 할지 다 실험해 볼 수 없기 때문이다. 실험실 바깥의 세상에는 수만 가지 서로 다른 합성 화학 물질이 존재한다. 그 중 다수는 서로 간에 살아 있는 다른 개체들과 상호 작용을 할 수 있다. 이러한 화학 물질 중 일부는 그 자체만으로는 무해하지만, 우리 몸 안팎에서 서로 결합하면 독성이 있는 새로운 혼합물을 생산해 낼 수 있는 것이다. 어떤 화학 물질은 몸 안에서 신진 대사 과정을 거친 후에만 독성을 지니게 된다. 심지어 발암 물질이 되기까지 한다.

안전도를 결정하는 표준방법은 대략 이렇다. 실험용 동물에게 인공화학 물질을 적당량 투여한 다음 그 결과를 인간에게 적용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 방법은 완전하게 신뢰할 수가 없는 모순을 가지게 된다.

동물을 대상으로 독성 물질을 실험하는 것은 여러 가지 문제가 수반된다. 예를 들어, 화학 물질에 대한 반응은 동물의 종류에 따라 상당히 다른 경우가 많다. 암컷 기니피는 독성이 강한 다이옥신을 소량만 투여해도 죽지만, 햄스터를 죽이려면 그 양을 5천배로 늘려야 한다. 심지어 쥐와 생쥐같이 밀접한 관련이 있는 종들도 많은 화학 물질에 대해 서로 각각 다른 반응을 나타낸다.

따라서 어느 한 종의 동물이 나타내는 반응을 정확하게 예측할 수 없다. 그렇다면 인간이 특정 화학 물질을 안전하게 견뎌 낼 것인지를 연구원들이 정확하게 판단 할 수 있을까? 그것은 결코 장담할 수 없는 일이다.

화학자들은 어려운 일을 하고 있다. 그들은 자신들이 만드는 물질을 원하는 사람들을 충족시켜야 하고, 동물의 복지를 염려하는 사람들의 심기를 건드리

지 말아야 하며, 안전한 물질을 생산해야 한다. 이러한 이유로, 현재 일부 실험실에서는 인간 세포를 배양하여 화학 물질을 시험해 보는 실험을 하고 있다. 하지만 이 실험의 결과가 믿을 수 있을 정도로 안전이 보장될 수 있을 것 인지는 긴 시간이 알려 줄 것이다.

살충제인 DDT가 있다. 처음에는 안전하다고 잘못 발표된 화학 물질의 한 가지 예이다. DDT가 유기체에서 장기간 체류하고, 독성 물질이 될 가능성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이로 인해 어떤 결과가 초래되었는가? DDT로 인해 수많은 미세한 생물, 물고기, 새, 육식동물 등으로 이루어져 있는 먹이사슬이 마치 살아 있는 깔때기와도 같이 되어 최종 소비자들에게 독성 물질을 축적시키는 것이다. 한 가지 예로, 물새의 일종인 논병아리의 한 개체군은 10년이 넘도록 한 마리의 새끼를 부화시키지 못하였다.

또한, 깊은 산속의 호수들은 생각처럼 깨끗하지 않다는 사실이며 그곳에서 잡은 고기는 먹지 못하게 하고 있다. 그 이유는 이렇다. 독성 화학 물질이 열대 지역에서 증발되어 공중으로 올라간 다음 기류를 타고 세계의 다른 지역으로 날아가게 된다. DDT 입자들이 산속의 호수처럼 추운 지역으로 날아가게 되면, 응축된 다음 비가 되어 내리게 된다. 온도의 편차가 심한 산속의 호수들은 DDT 입자를 가두어 두는 역할을 하게 되며, 대기 중에 있는 DDT 입자를 뺏어 오는 역할을 한다. 따라서 DDT 수치는 저지대에 사는 물고기보다 많게는 100배나 높게 나온다. 이렇게 독성이 있어 인간과 동물 모두에게 해로운 살충제인 DDT는 유럽에서 사용이 금지된 지 25년이 넘었지만, 개발도상국에서는 아직도 사용되고 있는 현실이다.

또 있다. 호르몬은 인체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전달 물질이다. 호르몬은 우리의 혈류를 따라 인체의 다른 부위로 이동하면서 인체의 성장이나 생식 주기와 같은 특정 기능을 촉진하기도 하고 억제하기도 한다. 어떤 합성 화학 물질들은 인체 내로 흡입되는 경우 해로운 방법으로 호르몬을 모방하거나 이동을 차단함으로써 호르몬의 작용을 방해하는 것 같다.

그와 관련이 있는 화학 물질에는 PCB(폴리염화비페닐), 다이옥신, 프란 및 DDT 잔여물을 비롯한 살충제가 있다. 내분비계 교란 물질이라고 불리는 이

화학 물질들은 호르몬이 분비되는 곳인 인체의 내분비계의 정상적인 활동을 교란할 가능성이 있다.

이러한 화학 물질들이 흉내 내는 호르몬 가운데 하나는 에스트로젠이라는 여성 호르몬이다. 많은 소녀들에게 사춘기가 일찍 찾아오는 일이 점점 더 널리 퍼지고 있다. 이것은 에스트로젠을 흉내 내는 환경 화학 물질뿐 아니라 에스트로젠을 함유하고 있는 모발 제품과도 관련이 있을 수 있다.

매우 중요한 성장기에 남성을 특정한 화학 물질들에 노출시키면 해로운 영향을 받게 될 수 있다. 성장기에 시기를 정확히 맞춰서 PCB를 사용하면 수컷 거북과 수컷 악어를 암컷이나 間性간성으로 바꿀 수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유방암, 고환암, 전립선암과 같이 호르몬에 민감한 암이 남성과 여성들 사이에서 증가하고 있는 것도 이러한 화학 물질들과 관련이 있을지 모른다. 뿐만 아니라, 여러 나라에서는 남성의 평균 정자 수가 계속 감소하고 질도 계속 떨어지고 있다. 이 역시 화학 물질 사용의 증가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의 주변에 화학물질을 쉽게 찾을 수 있는가? 놀랍게도 그러한 화학 물질들 중에는 가정에서 쉽게 찾아 볼 수 있는 것이 많다.

가정의 가장 큰 공기 오염원은 세제, 쯤약, 건축자재, 연료, 방취제, 소독약과 같이 평범한 제품에서 나오는 가스나, 드라이클리닝 한 옷 및 의자와 소파 등에 씌우는 새로운 합성 섬유에서 나오는 화학 물질이다.

새 차 안에 앉아 있거나 슈퍼마켓에서 세제 진열대 옆을 지나가다 보면 가스가 방출되고 있음을 쉽게 감지하게 된다. 세제가 밀폐된 용기 안에 들어 있는데도 그러하다. 예를 들어, 겨울에 한기가 들어오는 것을 막기 위해 집 안의 문을 꼭 닫아 놓으면, 다양한 화학 물질에서 나온 가스로 인해 실내가 실외보다 훨씬 심하게 오염될 수 있다.

어린이들, 특히 아장아장 걸어 다니는 정도의 아이들이 실내 오염 물질로 인해 해를 입기가 가장 쉽다. 어린이들은 나이가 많은 사람들보다 바닥에 가깝게 지낸다. 성인들보다 호흡이 더 빠르고, 실내에서 보내는 시간이 전체 시간의 90%나 된다. 신체 기관들이 아직 완전히 발달하지 않아서 독성 물질에

영향을 받기가 더 쉽다. 어린이들은 체내로 들어간 납의 40%가량 흡수하지만, 성인들은 10% 가량을 흡수한다.

우리가 좀 더 안전한 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생활 방식에 변화를 주어야 한다.

먼저, 증기가 발생하는 화학 물질은 대부분 집 안의 공기를 오염시키지 않는 곳에 보관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이러한 화학 물질에는 페인트, 접착제, 살충제, 세척액과 같은 휘발성 용제가 섞인 제품과 포름알데히드가 있다. 휘발성 석유 제품에는 독성이 있는 증기가 발생한다. 그러한 제품들 가운데는 벤젠이 포함되어 있다. 장기간에 걸쳐 많은 양의 벤젠이 몸 안에 축적되면 암, 선천적 기형 및 생식과 관련된 그 밖의 손상이 초래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모든 방은 환기가 잘 되게 해야 한다. 목욕탕도 포함된다. 샤워를 하면 물 속에 있을지 모르는 염소와 같은 특정한 첨가제가 증발된다. 그렇게 되면 염소는 물론 심지어 클로로포름도 축적될 수 있다.

하루 종일 밖에서 생활을 하다가 집으로 돌아가면 먼저 손발을 씻고 양치질을 해야 한다. 그리고 방에 살충제를 뿌릴 경우, 제품 설명서에는 뿌린 후 몇 시간이 지나면 방이 안전하다고 쓰여 있다. 하지만 적어도 2주 동안은 그 방에서 장난감을 치우고 어린이의 손에 닿지 않게 해야 한다. 값이 대체로 저렴한 어린이용 장신구에는 납이 기준치를 초과하는 제품이 많다는 것을 항상 염두에 두는 것이 좋다. 따라서 의심스러운 장난감이 보이면 과감하게 내다 버리는 것이 최선책이다.

또한, 수도관에 납이 들어 있을지도 모른다는 의심이 들면, 물의 온도가 두드러지게 달라 질 때까지 잠시 찬물 수도꼭지를 틀어 놓아야 하며, 더운물 수도꼭지에서 나오는 물은 식수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결론적으로 화학 물질에 대해 합리적인 예방 조치를 취하는 것에 대해, 지나치게 염려하지 않는 것이 좋다. 우리가 아무런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는 일에 대해서는 더욱 그러하다. 이것이 화학 물질이 범람하는 요즘 우리가 대처해야 할 진정한 웰빙인 것이다. **수필시대**

우주 창조의 신 브라흐마

김 령 (수필가·중앙승가대학 역경과 교수)
jayami@hanmail.net



인도의 「푸시가르(Pusigar)」는 두 가지 의미로 인식되는 아주 독특한 도시이다. 일년에 한 번 「카티푸나마(Katipunama)」의 보름달이 떠오르는 4일간의 축제는 가장 인도적인 것을 느낄 수 있고, 인도의 모든 것을 볼 수 있는 전형적인 인도의 대축제이다.

터번을 한 구리빛 얼굴, 베일의 여인들, 화려하고 정교한 귀금속으로 치장한 화려한 의상의 여인들, 모든 기기가 다 빠져버린 듯

나무 밑에 앉아 명상만 하는 사두(Sadhu= 인도의 전통적인 승려), 콧수염을 기른 원기 왕성한 젊은이, 낙타 상인, 거리의 악사 이 모두가 신성한 「푸시가르」 호수가 있는 모래언덕에서 열리는 축제에 성지순례를 하는 인도 국민이다. 인도의 「푸시가르」는 브라흐마의 성지로써 축일이 있고, 또 하나는 축제가 끝난 후 타고 온 낙타를 사고파는 세계에서 가장 큰 낙타시장이 열리는 곳이기도 하다.

브라흐마는 維持유지 神신 비슈누, 破壞과괴의 神신 시바와 함께 인도 힌두교의 三位一體神삼위일체신임에도 불구하고 그의 창조의 힘을 다른 신에게 빼앗기고, 胎母神태모신에게 마저 권리를 빼앗겼다.

브라흐마는 몸이 붉은 색이고, 머리가 원래는 다섯 개였으나 무례하게 말을 했다하여 신들의 왕인 시바 神신의 세 번째 눈에서 발사된 불길로 머리 한 개가 불타버렸고, 그의 네 개의 손은 지혜의 지팡이, 또는 염주와 활과 바루(사발)와 인도 최고의 경전인 4베다(Veda)인[리그-베다(Rg-Veda)], [사마(Sama)베다, [야주르(Yajur)베다, [아타르바(Atharva)베다를 상징하게 되었다. 그래서 네 머리와 몸통을 브라흐마 神신이 갖게 되었으며, 그의 부인은 사라스와티(Sarasvati) 女神여신이다.

브라흐마는 풍요와 행운을 인격화한 연꽃의 여신인 라크슈미와 비슈누의 배꼽에서 나왔다는 前生전생 설화와 태초의 본질의 조건지자인 종자 즉, 황금알인 핵, 히라니아가르바(hiranyagarbha)가 있었는데, 그 속의 브라흐만이 잉태해 있었으며, 다시 자신이 우주의 창조자인 브라흐마로 환생하여 태어났다고 한다. 브라흐마는 다시 환생하여 생물체인 푸르사(purusha)로 되었으며, 그것은 브라흐마의 다른 이름이기도 한 동시에 곧 우주적인 최초의 인간이었다.

브라흐마(Brahma)는 학문과 예술의 신이며, 우주의 모든 질서와 체계를 확립하는 창조의 신이다. 비슈누의 배꼽은 연꽃의 상징인데 연꽃은 창조와 질서체계의 확립을 뜻하므로 브라흐마가 우주를 창조하고 질서와 세계를 확장했다는 뜻은 바로 이런 연유에서다

인도에서 브라흐마의 사원은 그리 많지않은 이유가 비슈누 사원에 포함되어 있어서다. 브라흐마가 우주를 창조하려고 할 때 창조가 잘 되지 않아 그의

스승인 나라야나(Narayana)(비슈누의 화신)에게 가서 조언을 구하자 스승은 명상을 하라고 권했다. 모든 창조는 고요한 명상에서 이루어지므로 더욱 깊이 몰입하라고 권하자 어느 순간의 창조의 거대한 폭발이 일어났으며 그는 그 엄청난 기쁨과 희열을 견디지 못한 결과로 열정적으로 기와 빛을 내뿜자 바로 이 때 브라흐마의 우주 창조는 시작되었다.

브라흐마의 몸은 원래 어둠의 신 타마스(Tamas), 기의 신 라자스(Rajas), 존재와 빛의 신 사트바(Satva)가 기본요소를 이루고 있는 동시에 여러 종류의 몸을 가지고 있다. 브라흐마는 아주 여러 차례에 걸쳐서 세상을 창조했고, 그 이전에도 얼마나 많은 세상이 창조 되어 있었는지, 앞으로도 얼마나 많은 세상이 있게 될지는 아무도 모르며, 이들은 각기 네 시대, 즉, 4유가(Yuga)가 모여 하나의 겁(갈빠=Kalpa)을 이룬다. 이 1겁은 인간세계의 4억 3천 2백 만 년에 해당하는데(동양의 정서로는 보통 연월일을 헤아릴 수 없는 아득한 시간) 그 갈빠가 끝날 때 모든 창조물은 파괴되고 태초의 과도상태인 물의 바다로 되돌아가게 된다.

브라흐마는 오랜 동안의 명상을 하게 되었는데 그의 명상으로부터 생명체가 태어났다. 첫 번째의 몸인 어둠으로 이루어진 몸의 직장에서 바람 즉, 숨(함사=Hamsa)을 쉴 때 악령들이 태어났다. 그러자 놀란 브라흐마가 어둠을 벗어 던졌고, 이 버림 받은 몸은 어둠인 밤이 되었다.

브라흐마는 자신의 몸이 빛으로 이루어지자 그 또한 견딜 수 없어 벗어 버리게 되었는데 이 몸이 낮이 되었다. 사람들이 낮 동안에 일을 하고 삶을 하는데 필요한 노동을 하는 것도 이 빛 때문이다.

브라흐마에게는 아주 고풍적이고 단아한 딸이 하나 있었는데 딸에 대한 열정이 인류 탄생의 단서가 되었다. 브라흐마가 근친상간으로 한 상대는 「입 밖에 낸 말」이며 동시에 「젖과 물을 가져다주는 가락을 연주하는 소」인데 자신

이 창조한 베다의 어머니인 바크여신이다. 이는 자신의 딸이었다.

바크는 演說연설과 자연의 힘을 함께 나타내며, 마야(Maya)의 의미로도 나타낼 수 있다. 바크 女神여신은 힌두교 사원의 암사자 모습의 기단을 꾸미는 상징적인 장식으로 많이 표현되었다.

이리하여 브라흐마는 제멋대로 아버지와 아들, 어머니와 딸에 관한 생각을 하게 되자 「선조의 영령들」이 태어나게 되었으며, 이들은 브라흐마가 활동하지 않는 낮과 밤이 만나는 동틀 녘과 해질 녘에 나타나 선한 일도 하고, 악한 일도 하면서 인간을 끌리고 벌주고 한다.

브라흐마는 수탉지인 바하나(Vahana)를 타고 다니면서 우주 근원의 소리인 숨소리 함사(Hamsa)라는 이름의 새(기러기)의 이름이며 이 둘을 타고 다닌다. 이것은 또한 날숨을 함(Ham)이라는 소리를 내고, 들숨은 사(Sa)라는 소리를 낸다고 하는 요가 수행자의 호흡법이 바로 생명의 호흡으로 이 브라흐마의 신화와 같은 연장선상에서 유래 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브라흐마는 다시 세 번째 몸을 벗어던지게 되었고, 네 번째 몸을 취했는데 거기에서 氣기인 라자스(Rajas)는 곧 마음에서 발산되는 것이다. 그의 마음에서 발산되는 생각과 함께 고요한 명상을 통해 사유하는 피조물을 창조해 냈는데, 인간이 바로 네 번째 몸에서 탄생되었다. 그래도 만족하지 못한 브라흐마는 다시 이 몸을 버렸고, 이 몸은 月달이 되었다. 오늘 날에도 사람들은 달빛 아래서 인간의 탄생을 축복이라도 하듯 춤추고 노래하는 것을 좋아하게 되었다.

氣기와 夜이됨으로 이루어진 다섯 번째의 몸을 취하게 된 브라흐마는 아직도 만족할 수 없어 창조에 대한 미련을 버릴 수 없게 되자, 몸이 뒤틀리고 목이 타고 찻찻한 이상한 느낌에 속이 거북하게 되어 混沌혼돈의 바닷물을 생각 없이 꿀꺽 삼키자, 순간, 끔찍한 피조물들이 입 밖으로 토해져 나왔다. 이 피조

물이 다름 아닌 귀신들이었다. 브라흐마는 피조물을 보자 무척 당황하여 머리를 쥐어뜯게 되었으며, 머리카락은 순식간에 모두 빠져버림과 동시에 그 머리칼들이 모두 배로 기어 다니는 뱀, 전갈 같은 생물체인 파충류로 변했다.

브라흐마가 토해 낸 피조물들은 높이나 덩불 속, 바위 밑동을 종횡무진 헤치고 돌아다녔다. 신들이 나타나면 어둠 속으로 몸을 숨기는 파충류들은 자신들의 전생을 떠올리면서 사람을 괴롭히기 시작했다. 이 잘못 만들어진 귀신(악령들) 때문에 골치가 아파지자 브라흐마의 마음은 평정을 잃고 음울한 생각으로 자신을 잃어가자 때맞추어 무서운 악귀(시체를 먹는 귀신)들과 간다르바(Gandharva=乾闥婆=건달파: 인도에서는 음악을 주로 하는 사람, 음식의 냄새를 맡고 그 향을 찾아가 그 문 앞에서 노래하여 음식을 얻어먹고 사는 사람)가 생겨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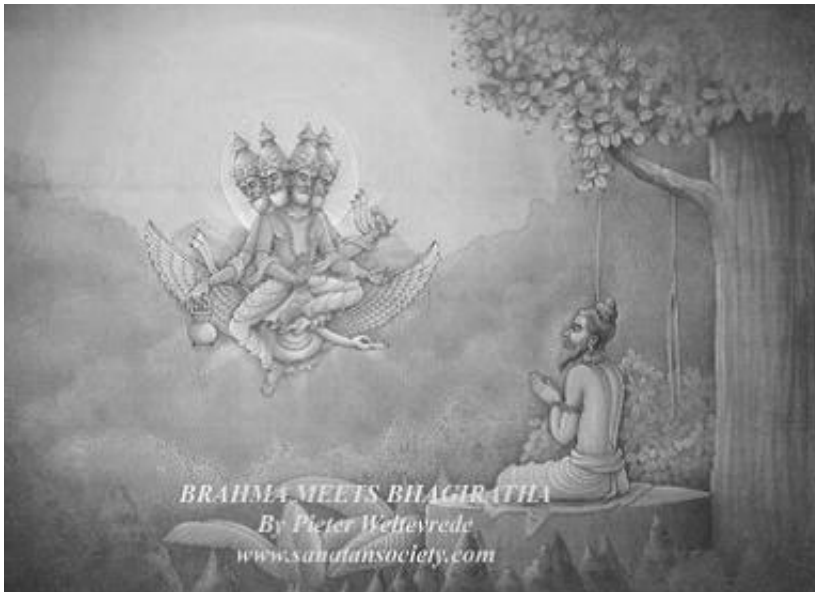
자신의 마음이 불안해지면 불안해질수록 악귀가 만들어지는 것에 당황한 브라흐마는 마음의 평정을 찾고 즐거운 마음을 갖고, 사유하자 세상은 평온을 찾고 새들이 창조되었다. 브라흐마의 몸에서 향기가 뿜어 나오자 포유동물, 식물, 그리고 수많은 생명체가 창조되면서 이 모든 것이 오늘의 세상과 같은 성질을 가진 우주가 창조되었고, 브라흐마는 명상과 사유의 기간으로 자신을 점점 더 가다듬게 되었고, 브라흐마의 창조능력은 원초적으로 품었던 사유가 그대로 유지되는 현재의 세상이 만들어지고, 지속되게 된 것이다.

인도 사원의 건축에서 브라흐마의 숨쉬는 숨소리 함사의 모티브가 흔히 사용되는데 2마리의 함사(기러기)가 지체의 像상으로 상징되는 수가 많다. 비슈누와 브라흐마 중에서 누가 우주의 창조자인가? 하는 데 대한 시비는 링감(Lingam)의 기원을 둘러싼 신화에서 이 언쟁이 시작되었는데 그 결론은 시바 神신이 내리는 형태로 종결되었다.

그들의 언쟁은 우주의 밑바닥에서 대기가 용기하여 화염에 싸인 채 솟아있

는 男根량이 우주의 폭발을 막는데서 우주가 시작되었다는 것으로 언쟁이 중단되었다. 기러기인 함사로 변한 브라흐마와 멧돼지 신인 바하나가 된 비슈누, 이 두 신이 우주의 폭발을 종식시킨 링감(Ligam)을 검사하기로 하고, 우주로 비상한 브라흐마의 함사(기러기=새)가 손도 대기 전에 그 우주의 男根량[Limgam]이 갈라지고 聖所성소인 동굴에 숨어 있던 우주의 창조자이자 최고 권력자인 최고의 神신 시바가 그 속에서 나오자 두 사람은 놀라서 언쟁을 중단해 버렸다. 이리하여 브라흐마와 비슈누의 언쟁은 시바에 의해 싱겁게 끝나 버렸다.

인도에서는 불교 이전에도 연꽃은 정화의 의미로 많이 쓰였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 佛花불화가 연꽃인 것은 브라흐마의 창조신화에서 그 이미지를 따온 것이다. 이리하여 인도의 「푸시가르」는 아마 신성한 호수가 있는 사막의 모래 언덕에 창조신인 브라흐마의 성지를 순례하는 순례자들이 타고 온 낙타와 가축 사육자, 이 기간에 상인들이 모여들어 장을 이루고 성지 순례 후에 낙타거래가 이루어 졌던 것이 당연한 수순이었을 것이다. 적어도 몇 천 년 전부터는



이 두 가지의 자연스런 행사가 합쳐져 오늘의 「푸시가르」는 보름달이 뜨는 「카티푸나마」의 4일간의 화려한 축제가 만들어졌다.

노란색, 빨간색의 원색 사리로 얼굴까지 가린 여인들이 좌판을 벌리고 액세서리를 팔고 한 편에서는 거리의 악사와 화려한 장신구로 장식한 무희들이 춤판을 벌리면 사막은 온통 웃음바다가 된다. 사막위의 성지순례자나 낙타상인들과 그 밖의 군중은 사막 위에서 4일 밤을 지새운 후 각자의 일상으로 돌아가고, 사막 위에는 어제와 똑같은 어둠이 깔리면서 성지「푸시가르(Pusigar)」의 호수는 아무 일 없이 흐르면, 이 사막의 도시는 다시 神 만의 영원한 세상으로 되돌아가서 예전처럼 일상은 변함없이 굴러가고 붉은 사막을 더욱 붉게 물들인 저녁노을이 질 것이다. **수필시대**

화려한 冠

류정숙 시집
문예운동 / 값5,000원

순간포착

차윤옥 시집
문예운동 / 값7,000원

북한 영화 기행 · 3



김 경 훈 jjxun@hanmail.net

《피바다》와 《꽃피는 처녀》와 함께 북한에서 “3대 불후의 고전명작”으로 인정받고 있는 영화는 《한 자위단원의 운명》이다.

이 영화는 김일성이 1936년 초 조선인민군 주력부대를 인솔하고 남호두를 떠나 만강에 이르는 고단한 여로에서 창작하고 그해 8월에 무송현 만강에서 무대에 올린 혁명연극으로 알려져 있다. 그 후 1973년 평양의 문예출판사에서 전 5장으로 된 장편소설로 개작되어 발표된 바 있다. 영화 장르로는 김정일의 주도하에 1970년 흑백 필름으로 백두산창작단 각색, 최익규 연출로 조선예술 영화촬영소에서 제작한 바 있다.

영화는 억압과 착취, 멸시와 천대만을 받아오던 소박한 농촌청년 갑룡이가 우여곡절에 찬 생활체험을 통하여 혁명적으로 각성되고 일제를 반대하는 무장 투쟁의 길에 들어서는 과정을 기본 줄거리로 하고 있다.

주인공들은 모두 소작농의 자식들이다. 갑룡이와 철삼이는 할아버지와 할 어머니를 모시고 있고, 만식은 나이 어린 누이동생을 데리고 있는 다같이 불쌍한 처지에 있는 청년들이다. 그들의 사회적 환경과 생활조건은 별다른 차

중국연변대 주조선어문계 교수(문학박사)
배재대학 교환교수
수필가, 평론가

이가 없으나 구체적인 가정사정은 서로 다르며 현실을 대하는 태도와 생활의 길을 찾아가는 데서도 저마다 차이가 있다. 이러한 차이는 인물들의 성격과 생활을 다양하게 그려낼 수 있는 가능성을 제시해준다.

철삼이는 자위단에 들면 죽은 목숨이나 다름없다고 하면서 친구들을 부추긴다. 두 친구가 망설이자 자기 혼자서라도 저주로운 길에서 벗어나려고 몸을 피한다. 그러나 그는 참다운 삶의 길을 알지 못한 탓으로 소극적인 반항의 테두리를 벗어나지 못한다. 그는 목재판이나 그 어디 건 왜놈들이 설치는 세상에서는 자위단과 같은 운명을 면할 수 없다는 것을 포대공사장에서 억울한 죽음을 당할 때에야 비로소 깨닫게 된다. 만식은 늦게나마 자신의 체험으로써 철삼이의 말이 옳았다는 것을 깨닫고 자위단에서 도망쳤다가 체포되어 총살당하게 된다.

이처럼 철삼이와 만식은 서로 다른 생활의 길을 걸어왔지만, 그들의 운명은 결국 다같이 비참한 결과에 이르게 된다. 철삼이와 만식의 죽음은 자위단에 들어도 죽고 들지 않아도 죽는다는 이 작품의 종자에 대한 하나의 해답이 된다. 작품의 종자는 갑룡이의 운명을 통하여 완전하게 밝혀진다.

세 살 때 어머니를 잃고 아버지와 살아온 갑룡이는 가난하고 순박한 농촌 청년이다. 효성이 지극한 그는 금순과 결혼해서 온갖 풍상을 겪으며 홀로 남매를 키워온 아버지의 여생을 편히 모시는 것이 소망이었다. 잔치비용을 마련하기 위해 마을 친구들인 철삼이, 만식이와 함께 덕산의 목재소에서 두 달 동안 고생을 하였지만 겨우 신부의 치맛감을 마련했을 뿐이었다. 갑룡이가 집에 돌아와 잔치 준비에 들떠 있는 가운데 허구장을 통해 자위단 입대통보를 받게 된다. 결국 갑룡이는 잔치를 하루 앞두고 강제로 자위단에 끌려가 가혹한 훈련을 받게 된다.

갑룡이가 일제침략자들에게 총부리를 돌리기까지에는 그가 심각한 생활체험을 쌓으면서 점차 계급적으로 각성하는 과정이 작용하였다. 인민들에 대한 자위단의 갖은 야수적 만행, 만식이와 철삼이 그리고 자기 아버지의 죽음 등과 같은 뼈에 사무치는 체험을 겪고서야 그는 비로소 환상에서 깨어나 원수의 정체를 알게 되며 일제침략자들에게 총부리를 돌리게 된다. 갑룡이의 계급적

각성과 성격발전의 결정적 계기는 사랑하는 아버지와 전우 철삼이의 무참한 죽음이었다. 그렇게도 효성을 다해 모시려던 아버지가 포대공사장에서 놈들에게 억울한 죽음을 당하였을 때, 참고 참았던 갑룡이의 분노는 드디어 폭발하게 된다. 그는 놈들에 대한 순종의 길에서는 사소한 개인적 소원도 실현할 수 없다는 것과 순종하면 할수록 적들은 더욱 포악해지며 따라서 원수는 오직 폭력으로 쳐부수고 자신의 힘으로 자기의 운명을 개척해야 한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 그리하여 갑룡이는 총부리를 돌려 일체참략자들과 그 앞잡이들을 단호히 처단하고 단원들을 향하여 왜놈들에게는 빌어 봐도 소용이 없고 사정해 봐도 소용이 없으며, 우리의 살길은 원수를 갚는 길밖에 없다고 외치며 우리 모두 왜놈에게 속지 말고 왜놈들과 싸우기 위하여 산으로 들어가자고 열렬히 호소한다. 그런데 이 작품은 『피바다』의 경우와 달리 혁명조직이나 선각자의 직접적인 영향 하에서가 아니라 갑룡이 자신의 체험에 기초하여 계급적으로 각성하는 과정을 그리고 있다. 따라서 그 변화는 비교적 복잡한 과정을 거치게 된다. 말하자면 갑룡이는 일제의 요구에 순종해도 죽고 거역해도 죽는 운명의 막다른 처지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놈들을 반대하여 싸우는 길, 혁명의 길만이 오직 자기와 같은 처지에 있는 사람들이 잘 살 수 있는 길이라는 진리를 깨닫게 된다.

이 영화는 7개의 사건을 기본으로 하여 이야기를 정제시키고 내용을 집약적으로 만듦으로써 치밀한 구성을 보이거나 제작은 불과 40일의 기간에 완성함으로써 전례 없는 빠른 속도를 보였다. 한편, 이 영화의 주인공으로 나오는 갑룡이의 약혼녀를 맡은 배우가 바로 김정일과 밀접한 관계에 있는 성혜림이었다. 성혜림은 위낙 《두만강》, 《땅》 등 장편소설로 한국 현대문학사와 북한문학사에서 모두 높은 평가를 받고 있는 북한의 문예총동맹위원장 리기영의 장남인 리평의 처였으나 후에 김정일과 동거하여 아들 김정남까지 낳게 되나 여러 가지 병 때문에 1974년부터 모스크바에 머물다시피 하면서 병 치료를 하거나 2002년에서 사망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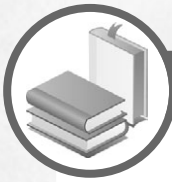
아무튼 북한에서는 《한 자위단원의 운명》이 “인물들이 겪은 불행과 고통의 원인을 당시 사회제도에서 찾고, 한 인간의 운명을 통하여 사회혁명에 대한

근본문제를 밝혀낸 데 이 명작의 철학적 깊이가 있다”고 주장하면서 “일시나
마 적에 대한 환상을 가지고 본의 아니게 반역의 길을 걷게 되었던 주인공의
계급적 각성과정을 통하여 반제혁명사상을 심오하게 구현하고 무장투쟁노선
과 반일민족통일전선노선의 정당성을 예술적으로 빛나게 확증한 데 문학사적
의의가 있다”고 함으로써 이 영화가 추구하는 목적성이 무엇인지를 잘 말해주
고 있다.¹⁾ **수필시대**



〈사진 / 성혜림〉

1) 『조선문학사, 김일성종합대학출판사, 1990년, 263~265쪽 참조.



문단소식 · 수증도서

- * 허세욱 외(수필가) 「칠천년의 바람을 만나리」 2006년 1월 25일
생명의 나무 / 값12,000원
- * 최윤영 외 「괴산문학」 제10호, 2005년
한국문인협회 괴산지부 / 값 6,000원
- * 윤재천(수필가) 「현대수필」 통권 제57호, 2006봄.
현대수필사 / 값10,000원
- * 김길호(소설가) 김길호 소설집 「이쿠노 아리랑」 2006년 2월
제주문화 / 값15,000원
- * 이성림(예총회장) 「예술세계」 2006년 2월호(통권185호)
2월1일 한국예총/발행. 값6,000원
- * 김철수(이동문학) 「이동문학」 2006년 1월호 통권18권 190호 정기간행물
월간이동문학사 / 값6,000원
- * 오차숙(수필가) 현대수필문인회 회장 오차숙 性에세이 「가면축제」
2006년 봄 문학관 / 값9,800원
- * 김주팔(수필가) 2006년 2월 20일 통권 5권 제7호 「21 통일문학」
통일문학사 / 값10,000원
- * 김용수 외(시인) 시인91인 한국명시선(7) 「어느 간이역의 겨울밤」
2006년 2월 18일 한국명시선발간위원회 / 값8,500원
- * 김건중(소설가) 종합문예지 「한국작가」 2006년 봄(제7호) 2006년 3월1일
한국 작가사 / 값10,000원
- * 신세훈(시인) 계간 「한국시학」 2006 봄(통권6호) 2006년 3월
한국문인협회 계간 한국시학사 / 값10,000원
- * 박진환(시인) 2006년 3월 월간 「조선문학」 조선문학사 / 값10,000원
- * 리현석(문학사랑 인) 2006.봄 / 통권 75호 「문학사랑」
오늘의 문학사 / 값12,000원
- * 맹난자(수필) 2006.봄 / 통권 93호 「에세이문학」 에세이문학사 /
값10,000원
- * 김 준(시조시인) 2006.봄 / 통권 158호 「시조문학」 도서출판 시조문학사 / .
(사단법인 한국시조문학진흥회) 값10,000원
- * 신세훈(문학이사랑) 2006년 3월호 제39권 통권445호 「월간문학」
한국문인협회 월간문학사 / 값10,000원

- * 정연덕(시인) 시문학시인선 196 「흘러가는 산」 2006년 제6회 글사랑 문학회 시인 시문학사 / 값5,000원
- * 김규화(시인) 2006년 3월호 제36권 제3호 통권 416호 「시문학」 시문학사 / 값5,000원
- * 고임순(수필가) 수필집 「내 안의 괴랑새」 2006.2.25 세손출판사 / 값10,000원
- * 조동화(무용가) 2006년 3월호 통권 361호 「춤」 창간 30주년 기념호 값5,000원
- * 문호치(시인 한국펜클럽이사장) 2006 봄. 통권 78호 계간 「펜문학」 국제펜클럽한국본부 / 값10,000원
- * 인소리(시인) 2006년 2월 15일 제3호 「緣불교문학」 緣불교문학작가회 . 값9,000원
- * 이성교(시인 성신여대 명예교수) 성신여대 2005. 제3호 「북바위」 서울성북문인협회/발행. 값10,000원
- * 유종슬(이동문학) 2005. 2. 5 「땅을치며 후회말고 하늘보며 웃어보자」 도서출판 아이올리브 / 값8,500원
- * 김두환(시인) 제 7시집 「꽃 부끄리고 가는 바람처럼」 2006년 2월 25일 도서출판고요아침 / 값12,000원
- * 강석호(수필가) 월간 「수필문학」 2006년 3월호 (통권 제 183호)수필문학사 / . 값9,000원
- * 한영자(수필가) 한영자 문학박사 학위 수여
- * 이기애(시인) 2006년 3월 씨앗 문예신서12 「오늘은 선물한다」 씨앗 / . 값6,000원
- * 강천형(수필가) 「詩와수필」 통권4호 2006 봄. 계간 시와수필사 / 값8,000원
- * 김민정(시인) 국방일보 연재시 모음 제1집 「시의 향기」 김민정 시 해설집 고요아침 / 값7,500원
- * 정찬우(시인) 2006. 3. 1제2권 제7호 「문예사랑」 도서출판 밀레 / 값2,000원
- * 광주수필문학회 2005년 12월 「광주수필」 통권 42호 도서출판 교음사 / . 값8,000원
- * 김시원(시인) 2006. 3.1제 9권 제1호 통권 33호 「지구문학」 지구문학사 / 값10,000원
- * 송명호(이동문학) 장남 결혼 2006.4.15 토요일 오후 1시 건대 동문회관 웨딩홀
- * 라대곤(수필가 수필가 비평 회장) 2006. 3.1.통권 제 82호 2006년 3· 4월호 수필과 비평사 / 가격10,000원

- * 황하택 (현대문예 인) 2006. 2. 27 통권 30호 「현대문예」
현대문예사 / 값 10,000원
- * 김규화 월간지 「시문학」 2006년 4월호 시문학사 / 값 5,000원
- * 박진환 월간지 「조선문학」 2006년 4월호 조선문학사 / 값 10,000원
- * 안재식 「중랑문학」 10호 2005년 11월 중랑문인협회 / 비매품
- * 경규희 시조전집 「말씀의 향기」 2006년 3월 동방기획 / 값 30,000원
- * 박윤희 시집 「대숲에 시는 별」 2006년 4월 문예운동 / 값 9,000원
- * 이애정 시집 「이 시대의 사랑법」 2006년 3월 마을 / 값 12,000원
- * 황송문(시인) 「문학사계」 2006년 봄호 문학사계사 / 값 8,000원
시집 「사랑과 생명의 형용사」 문학세계사 / 값 8,000원
- * 우금수(시인) 시집 「내 영혼에 날개를」 문학춘추사 / 값 6,000원
- * 문태인(시인) 시집 「비눗방울에 신는 영혼의 노래」 한울출판사 / 값 10,000원
- * 이현정(시인) 시집 「내 안의 그림자」 한누리 미디어 / 값 10,000원
- * 류재상(시인) 시집 「시는 행복해요」 문예춘 / 값 10,000원
시집 「가장 축축한 침묵」 문예춘 / 값 10,000원
- * 양동채(시인) 시집 「어머니」 현대문예 / 값 9,000원
시집 「달」 현대문예 / 값 9,000원
- * 장희자(수필가) 수필집 「초록마을」 강호출판사
- * 김추인(시인) 시집 「전갈의 땅」 천년의 시작 / 값 6,000원
- * 이동휘(수필가) 수필집 「눈물 젖은 두만강」 신세림 / 값 8,000원
- * 이은무(시인) 시집 「태양초」 태원출판사 / 값 10,000원
- * 남금선(시인) 시집 「누드스케치」 한국출판사 / 값 5,000원
- * 김성부(시인) 시집 「이별 연습 그리고 기다림」 들꽃 / 값 7,000원
- * 송연우(송미혜) 시집 「비단 향나무와 새와 시」 문학공간 / 값 6,000원
- * 신세훈(문학이사정) 월간지 「월간문학」 2006년 4월호 / 값 10,000원
- * 이동진(책이웃 인) 월간지 「착한이웃」 4월호 / 값 3,000원
- * 공정인(시인) 시집 「어려운 세상 살더라도」 도서출판 경남 / 값 5,000원
시집 「나는 멍탕구리 올시다」 한강 / 값 3,000원
시집 「흙 속에서 詩 속에서」 한국지사 / 값 3,000원
- * 김영로(소설가) 소설집 「그래도 우리 여기 살자·1」 문예춘 / 값 12,000원

신인상 원고 모집

역량 있는 신인들의 원고를 모집합니다.
당선작가의 문학활동을 본사가 적극 지원합니다.

1. 종목 및 분량

문예수필 200자 원고지 15장 내외 분량의 (3편 이상).

(중편 수필은 두 편으로 간주함)

수필평론 200자 원고지 50장 내외 분량의 (2편 이상).

문화·사회비평 200자 원고지 30장 내외 (2편 이상).

2. 추천방법

당선자는 단 1회 당선으로 기성작가로 대우합니다.

3. 심사위원

본사가 위촉한 심사위원이 하되 심사평은 위원 중 1인이 대표집필

4. 참고사항

- * 응모원고에 대한 반환은 책임지지 않습니다.
- * 원고 첫머리에 '신인상 응모작' 이라 표기하고, 끝에는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이메일을 기입할 것. 필명일 경우 본명을 밝혀야 합니다.
- * 다른 관문에서 추천 및 당선된 사람은 수필 2편, 평론·비평은 1편으로 응모할 수 있습니다.
- * 원고는 한글 2002로 작성하시고, 프린트한 원고 1부를 보내 주십시오.
- * 응모원고는 반드시 우편으로 접수해야 합니다.
- * 원고는 수시로 접수하되 발표는 당선작이 있을 때 합니다.
- * 겹봉에 <수필시대> 응모원고라 명기해 주십시오.

5. 보낼 곳

120-013 서울시 서대문구 충정로3가 465 충정리시온빌딩 423호
Tel: 02)312-5817 Fax: 02)363-5816

● 정기구독안내 ●

격월간 『수필시대』는 ‘21세기 새로운 수필담론의 산실’을 자임하며 탄생한 고급 수필전문지입니다. 『수필시대』는 ‘21세기가 수필시대’라는 문학적 자리매김에 합당한 진정한 수필세계를 구현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내용면에서 뿐만 아니라 필자에 이르기까지 문호를 과감하게 개방한 열린 공간입니다. 한국수필의 정수를 담아 영구보존할 가치가 있는 잡지가 될 것을 약속드립니다.

- 『수필시대』를 발행과 동시에 택배나 직장으로 우송해 드립니다.
(우송료는 본사가 부담합니다.)
- 1년 정기구독료는 **5만원**입니다. 1만원이 할인된 가격입니다.
- 외국 정기독자 1년 구독료 미화 **\$ 70**
- 송금은 다음 계좌를 이용해 주시고, 입금 후 연락바랍니다.

우체국 011965-01-007746 (예금주 성기조)

농협 032-12-175038 (예금주 성기조)

국민은행 011201-04-039236 (예금주 성기조)

〈해외송금 계좌〉 KOOKMIN BANK

194-27 Insa-dong Jongno-go

Seoul, Korea

SWIFF : CZNBKRSE 006-42-005448-3

성기조 (song ki go)

- 편집실 Tel: 02)312-5817, 363-5815 Fax: 02)363-5816



책을 만들어 드립니다

격월간 순수문예지 『수필시대』에서는 출판에 관한 모든 과정(편집, 기획, 출판, 교정 등)을 대행해 드립니다. 등단한 신인들의 시집, 수필집, 소설집 등을 실비로 출판해 드리오니 출판부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출간된 책은 전국 유명 서점에 배포하며, 『수필시대』에 정성껏 광고해 드립니다.

※ 시 집 <120 페이지 내외> ⇒ 270만원 내외

※ 수필집 <200 페이지 내외> ⇒ 350만원 내외

※ 소설집 <250 페이지 내외> ⇒ 400만원 내외

① (단, 표지도안 기타 특수한 부대조건이 있으면 가격에 약간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② 1,000부 이내를 제작하여 저자에게 500부 제공

문의운동

주 소 : 120-013 서울시 서대문구 충정로 3가 465번지
충정리시온빌딩 423호

전 화 : (02) 363-5815, (02) 312-5817 / 019-696-4052

팩 스 : (02) 363-5816

이메일 : skj907@hanmail.net / skj907@chollian.net

홈페이지 : <http://www.openmunyae.com>

〈수필시대〉 출판부

편/집/후/기

● 수필의 내일은 어떤 모습이어야 하는가? 이 문제에 대한 정답은 어렵기만 하다. 그러나 우리는 여기에 정답을 얻기 위하여 꾸준하게 노력해야 한다. 그 방법의 하나로 특집 1, 2, 3을 꾸몄다.

● 〈세계의 명수필〉에서의 필자(몽테에뉴, 베이컨, 헉슬리)들은 수필문장의 전범으로 많은 사람들이 읽어야 할 글인데도 소홀히 하는 것 같다. 꼼꼼하게 읽고 우리의 수필은 어떠해야 하는가 생각해 보길 바란다.

● 우리 출신 작가들의 〈수필모음〉을 특집으로 꾸몄다. 창간 1년 만이라 출신작가는 몇 명 안 되지만 한 자리에 모아 놓으니 대견한 마음이 든다. 이들의 발전하는 모습을 보여주시고 차별하게 머물어 한국 수필문단에 공헌할 자세를 살피 주시길 당부 드린다.

● 재미있는 잡지가 되기 위하여, 또한 뼈대 있는 잡지가 되려고 무던히 몸부림친다. 다음 호부터는 **한상렬**(수필가, 평론가) 씨가 주간을 맡는다. 독자 여러분들께 열심히 기여하는 모습을 보일 것이다.

수필시대

재단법인 한국문학진흥재단
한국문학세계화추진본부

2006년 제2권 5, 6월호 통권8호

2006년 5월 1일 펴냄

발행인 성 기 조
주 간 도 창 회
발행소 **수필시대**
등록번호 문화 마 02851
주 소 우120-013 서울시 서대문구 충정로 3가
 465번지 충정리시온빌딩 423호
전 화 (02) 312-5817
전 송 (02) 363-5816
E-mail skj907@hanmail.net
 skj907@chol.com
홈페이지 <http://www.openmunyae.com>

총 판 **한국문화사**
주 소 우133-823 서울시 성동구 성수1가
 2동 656-1683번지 두앤켄 B/D 502호
전 화 (02) 464-7708, 3409-4488
팩 스 (02) 499-0846
E-mail hkm77@korea.com

정기구독 입금처
우체국 011965-01-007746
농 협 032-12-175038
국민은행 011201-04-039236
 (성기조)

ISSN 1739-5291

정 가 : 10,000원